

PRSRT STD  
U.S. Postage  
PAID  
Elk Grove VLG. IL  
Permit #1320



# 재미서울대 同窓會報

서로 돕고 사랑하는 우리 서울대학교의 자랑스런 동문들

**재미서울대학교총동창회**  
사무국 및 편집국  
790 Busse Rd., #201 Elk Grove Village, IL 60007  
Tel. (847)981-1464, Fax. (847)981-1465  
e-mail : snuausa@ameritech.net  
website : http://www.snuaa.org

발행인 : 李龍洛  
편집위원회 총무 : 具璟會  
편집인 : 金正守

월간 111/112호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News in the U.S. A.

2003년 6월 28일

## 冠岳의 精氣와 和音을 美洲대륙에 2003년 母校音大 연주단 미주순회

재미 서울대 총동창회가 주최하고 서울대학교(총장 鄭雲燦, 사진 최하단 좌측)와 미주 5개 지역 동창회(워싱턴 DC, 뉴욕, 필라델피아 달라스 및 남가주)의 財政지원으로, 音樂大學 학부 및 대학원에서 洋樂과 國樂을 전공중인 10명의 재학생들로 구성된 2003년 모교음대 연주단(단장: 강사준, 국악과 교수, 음대 67년 졸, 주무:

김태춘, 대학본부학생과·사진)의 음악회가 미주 5개 도시에서 열린다. 이번 음악회는 8월중에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8일 오후 7시)를 시작으로 문화와 교통의 중심지 뉴욕(13일 7시), 미국의 독립정신과 개척자들의 우정의 도시 필라델피아(15일 8시), 목동의 기운이 쌓인 북텍사스 달라스(17일 7시)를 거쳐 <2면에 계속>

## 제 12차 평의원회 개최 進一步한 동창회 發展과제 논의

2003년 5월 30부터 6월 1일  
래디슨 플라자호텔

창립 12주년을 맞은 7천여명의 同門으로 구성된 재미서울대총동창회 12차 정기 평의원회가 총동창회 본부 임원과 19개 지부를 대표하는 67명의 평의원중 40명과 금년에 신설된 2개 지부 동창회로부터 대표자 3명[로키마운틴즈 동

창회 金奉奎회장(공대 72년 졸)과 오하이오 동창회(회장 최인갑, 공대 57년 입)를 대표한 김동광, 이수자 부부동문] 등 총43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5월 30일부터 6월 1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LA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前夜 심포지움>

첫날 전야 심포지움에서는 재미 동창회의 발전에 필요한 과제들을

세 분야로 나누어 토론하였다. 이에 앞서 최근 국제정치의 현안으로 등장한 북한 핵문제를 감안하여, 작년 8월 북한의 과학기술교육 제도를 돌아보고 온 김기현동문(캐롤라이나 지부회장, 문리대 56년 졸)의북한 방문보고가 있었다. <2면에 계속>

### 목차

제 1부 : 총동창회 소식  
제 2부 : 문필과 논고 - 16면  
제 3부 : 동문 및 지역동창회 소식 - 53면  
(전체 72면)



강사준 교수 단장·國樂



강수연·소프라노·4학년



이호철·테너·4학년



정민정·피아노·대학원



노윤정·바이올린·3학년



정인지·플룻·4학년



김설아·아쟁·4학년



최승순·대금·3학년



한래숙·가야금·4학년



정수인·관소리·대학원



김형선·타악·4학년



김태춘·연주단 지원



정운찬 서울대학교 총장



남해안 바닷가의 尙州초등학교 20회졸업생들이 母校에 세운 기념물 <母子像>

## 재미서울대 동창회보 영구 보존처 지정 시카고 대학교 도서관

1993년 6월 15일 제 1호를 남가주에서 創刊하여 지난 5월 28일자로 지령 #110를 기록하여, 미주대륙에서 개척자의 삶을 살고 있는 서로 돕고 사랑하는 서울대 동문들의 삶의 기록이며 조국과 세계문화의 장단에 기여하고자 하는 편집방침으로 知性人들의 友情을 글로써 나누어 온 在美 서울大同窓會報가 美洲韓人史 연구의 기초자료의 하나



2003년 6월11일 정오 시카고대학교도서관에서 동창회보 보존약관에 서명한 후 회보편집인, 이용락회장이 주원 동아시아 도서관장과 기념촬영.

로 선정되어 시카고 대학교(The University of Chicago, 5801 S. Ellise Ave., 冊

Chicago, IL 60637)의 동아시아 도서관에 영구 보존되게 되었다. <3면에 계속>





<1면 평의원회 계속>

심포지움의 첫째 과제는 11차 평의원회의 결의에 따라 미주 이민 100주년 기념선언문을 초안한 吳興祚 수석부회장이 이민사회에 기여하는 재미동창회의 새로운 역할 정립을 위하여 새로운 사업 목표와 실천 방안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두 번째로 강경식 뉴잉글랜드지역 평의원겸 총동창회 회칙위원이 현행 회칙의 검토 결과를 보고하였다. 지난 12년 간 성장하여 11개 지부의 연합체로 組織의 골격을 갖춘 재미총동창회가 앞으로 동문들의 발전을 지원하며, 母校가 세계적인 유수의 선진대학으로 발돋움 하는데 7천여 미주동문들의 熱과 誠을 모을 뿐만 아니라, 미주이민 사회에도 기여하는 進一步 동창회사업을 전개하기 위하여 보완되어야 할 문제점들을 보고하였다. 이날 제기된 회칙개정 논의의 주요과제는 11개 지부가 공동의 목적을 추구하는 有機的인 조직이 되며 총동창회 최고 의결기관인 평의원회의 평의원을 增員하고 평의원회비제도 導入을 통한 활성화 방안, 총동창회사업을 펴기 위한 필요 財源 확보와 집행기구의 확대를 뒷받침하는

<1면 모교 音大 연주단 계속>

미주한인들의 密集地인 나성(19일 7시)에서 관악에서 연마한 화음과 정기를 작년에 이어 다시 미주대륙에 전파하게 된다.

이 모교음대연주단원들의 미주방문 공연은 작년도의 마찬가지로(#101 및 #102 참조) 모교음대에서 선정된 우수 재학생 10명을 재미총동창회(회장 이용락)가 초청하였다. 작년 8월에 8개 도시 9번의 연주회를 통하여 2500여명의 청중들의 기립 갈채 속에 母校 音大 연주단의 공연이 큰 성공을 거둬서 이루어진 것이다. 음대 후배들에게 해외공연을 통하여 기량을 연마하고 세계의 선진대학으로 발돋움하는 서울대학교의 예술교육의 역량을 자랑하는 기회일 뿐만 아니라, 이 음악회의 기획, 준비 및 공연과정을 통하여 同門先後輩들의 유대를 강화하고 동창회의 조직을 활성화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공연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작년도는 母校와 서울대학교 총동창회가 3천만원의 여행경비를 지원하고 미국내의 공연 주관지역의 동창회와 동문들이 공연준비와 연주단의 宿泊과 안내 등의 필요한 노력을 모은 결실이었었는데, 금년에는 경비문제로 母校에서 이를 격년제로 시행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재미서울대 총동창회가 동창회의 중요한 연례사업으로 정착시키고자 모교에 공동 재정 부담을 제안하여, 공연 주관 5개 지역 동창회가 재정부담을 하고 재미총동창회의 본부 일정 조정 및 연주단 초청장을 발송하여 이루어지게 되었다. <연주단 Profile 72면 참조>

금년도 음악회는 母校로부터 최종 시행 결정이 늦어져, 재미총동창회 12차 정기 평의원회의에 참석한 李美那(사범대 77년 졸, 학생부처장) 교수를 통하여 미주관악후원의 공예가 이루어졌다. 시일이 촉박하여 우수 공연장의 확보에 애로가 많았으나, 母校 後進들에게 훌륭한 공연기회를 마련하기 위하여 뜻있는 동문들의 협력의 결실로 금년도 연주회가 성사되었다. 재미서울대 총동창회는 이번 연주회를 기획하는 과정에서 우수한 연주자를 선정한 음악대학(학장 김민)과 모교 실무자(전년도 순방단의 주무 권기씨)와 금년도 주무 김태준씨, 그리고 미주내 공연 지역동창회의 동문들의 노력에 감사를 표한다. 금년도 이 연주단이 관악의 정기와 화음을 미주대륙에 널리 펼치기 위하여 재미 동창회를 방문하는 연주단 후배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성공적인 음악회가 될 것을 희망한다.

회칙개정의 과제로 제기되었다.

마지막 발제자로 재미 총동창회 초대회장을 역임한 박윤수 인선위원장이 제7대 집행부 수석부회장(8대 회장선출자)과 임원선출을 위한 인선위원회의 활동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이 문제의 쟁점은 창립초기부터 지금까지 계속된 집행부의 4대 도시 순환제로부터 11개 지부 전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처음으로 시도된 8대회장선출자의 공개선출에 따른 것이었다.

두 번째 날에는 평의원회의 분회의가 열려 사업보고, 결산, 예산 및 임원선출 등 고유업무를 처리하였다. 평의원회는 李龍浩회장의 사회로 열렸는데, 이날 개회사에서 "오늘 여러분이 결정하시는 사항은 모교의 발전과 재미동창회, 나아가 세계 곳곳에서 활동하는 동문들의 긍지를 높이는 역사적인 이정표가 될 것"이라 하고, 別世 동문을 위한 勸諭로 회의가 시작되었다.

李회장의 사회와 具體會 사무총장을 대리한 俞正岡 총무국장의 진행으로 사무총장의 사업보고, 吳仁錫기금관리위원장의 「母校의 後進을 위한 基金」현황보고, 宋英英관악후원회 부회장의 사업보고, 全紘一재무국장의 결산보고 및 林泳圭감사의 감사보고 등이 이어졌다.

12차 평의원회는 최근 신설된 오하이오지부(회장 崔仁甲 62년 工大卒)와 로키마운틴지부(회장 奉奉鎭 72년 工大卒)의 창립을 인준하여 재미 총동창회는 11개의 지부로 늘어났다.이어서 각지부 회장들로부터 지부특성과 활동에 관한 간단한 소개가 재미있게 진행되었다.

임원선출에 들어가 7월 1일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7대 집행부의 차기 회장에 현수석부회장 吳興祚동문(치대 61년 졸)을 인준하였다. 이어 총동창회 분사를 지원한 3인의 후보자를 두고 진지하면서도 화목한 가운데 무기명 투표를 통하여 李英默(공대 6년 졸)동문이 7대 수석부회장 겸 8대회장선출자로 선출되어 참석자의 전원의 축하를 받았다. 이어 관악후원회 부회장에 李名相(63년 文理大卒)동문, 사무총장에 李種度(70년 工大卒)동문 감사로 金京茂동문(공대 69년 입) 李允柱동문(상대 63년 입)을 선출하였다.

이어 吳興祚 차기회장은 7대 집행부 임원으로 재무국장에 俞載榮(66년 農大卒)동문, 출판국장 겸 동창회보 편집인에 羅哲三(69년 文理大卒)동문, 심의국장에 趙尙熙(70년 齒大卒)동문, 총무국장에 白玉子(75년 音大卒)동문의 임명을 발표하였다.

또 吳차기회장은 차기 집행부를 지원하기 위한 임의기구로 신문편찬위원장에 方鶴勳(61년 農大卒)동문, Web편찬위원장에 任洛均(68년 藥大卒)동문, 관악교정에서 배출된 젊은 동문들의 모임인 관악연대 위원장에 鄭妍珍(81년 人文大)동문이 선출되었다고 보고하고 동창회 사무실의 업무를 위하여 사무국장에 李耕勳(89년 社會大卒)동문, 간사에 朴惠恩(97년 師大卒)동문을 임명하였다(원래 발표와 차후 변경된 부분을 종합한 것임).

차기 7대 집행부는 사업계획 보고에서 동창회의 財政 自立을 목표로 동창회보 발간형태를 기존의 타블로이드판에서 잡지형태로 변화를 제안하고, 시험 제작된 동창회보 견본을 평의원들에게 선보였다. 또 재미동창회 홈페이지(www.snua.net) 試演를 실시하고, 앞으로 인터넷을 통한 동문들의 모임과 통신을 활발히 하겠다고 하였다. 평의원회는 이 제안에 따라 광고수입확보에 역점을 동창회보를 잡지 형태로 바꾸는 것을 7대 집행부에 위임키로 결의하였다.

이날 평의원회에는 母校로부터 鄭明熙부총장, 柳根培기획실장, 趙昌九교무부처장, 李美那학생부처장, 盧慶秀대의협력본부장, 캘리포니아주립대학(UCLA) 교환교수로 있는 俞基廉 前학생처장 참석하고 총동창회에서 俞

재미서울대 총동창회 임무교대하는 旗手들

7대 집행부



제12차 평의원회의를 마치고 좌로부터 오홍조 차기회장, 이용락 회장, 이영록 차기수석부회장



이명상 관악부회장 (문리대 63졸)



이종도 사무총장 (공대 70졸)



백옥자 총무국장 (음대 75졸)



김재영 재무국장 (농대 60졸)



라현식 출판국장 (문리대 69졸)



조상하 심의국장 (치대 70졸)



김경무 감사 (공대 69인)



이윤주 감사 (상대 63인)

在 淳 明 에 회 장, 林光洙회 장, 韓斗鎭, 孔大植부회장, 관악회 明泰欽 이사, 약대동창회 李禮植회 장, 공대동창회 西仁性부회 장, 許瑄사무 총장 및 총동창회보 기자 정민호 동문 등의 분국 순방단에 참석하여 재미 총동창회의 발전을 축하, 격려하였다. 林光洙 총동창회장은 격려사에서 "여러분들은 조국의 명운을 걸머지고 세계화의 최전선에서 조국의 품격을 높이는 사명을 부여받은 소수의 Elite들이라며 '세계속의 대학'으로 부상하고 있는 모교의 명예를 드높이며, 조국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는 긍지를 가슴속 깊이 간직하고, 세계의 중심부에서 주목받는 인재로 한민족의 이름다운 문화를 전파하고 기상을 떨치고 있다는 자긍심을 갖기 바란다"고 역설했다.

한 관심사를 자유롭게 담소하는 만찬이 있었다. 이 자리에서 재미동창회의 발전을 위하여 공헌한 有功 동문 13명을 이용락회장과 임광수총동창회장이 발표하고 공로패를 증정하였다(회보 11면 유공동문 공적사항 참조). 林光洙총동창회장은 만찬사를 통해 "韓民族의

<1면 동창회보 보존처 지정 계속>

제 12차 정기평의원회를 마치고 돌아온 李龍浩 회장은 6월 11일 정오에 金正守(문리대 69년 입)편집인과 함께 시카고 대학을 방문하여 시카고 대학교 동아시아 도서관 관장실에서, 1호부터 현재까지 간행된 재미 서울대동창회보(결본 18호 제외)를 영구보존하며 앞으로 간행되는 동창회보 2부를 매월 2월 15일 동아시아 도서관에 보내기로(1부는 공개일람용, 1부는 보존용)하는 약관에 서명하였다. 이에 앞서 金 편집인으로부터 동창회보의 편집원칙을 듣고 이날 납본차 가져온 회보를 열람한 후, 周原관장(East Asian Library Curator)은 재미 서울대동창회보가 지난 연구도서관 保存자료로서의 意義와 가치를 높여 평가하여, 最善의 보존 조치를 할 것을 약속하였다. 이날 보존 約款 시험판(2001년 6월 29일, 16면)과 90호부터 110호(2003년 5월 28일자 32면)까지 23을 우선 납본하였다. 제 1호부터 89호까지는 정리하여 조만간 납본하고, 향후 남가주에서 발간될 회보는 매월 2부씩 납본하기로 하였다.

또한 총동창회는 영구보존을 지원하는 성의의 표시로 임원회의의 결의로 책정된 \$1,000을 동아시아 도서관에

당당함으로 뒤로 물러서지 않고, 굴복하지 않고 앉아서 나가야 할 것이며, 미주 동문들도 母國에 대한 지금의 애뜻한 심정을 항상 간직하고 끊임없는 애정을 보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林회장은 재미동창회의 발전을 위해 헌신한 朴允洙(52년 文理大卒, 재미총동창회 초대 회장), 姜洙祥(53년 醫大卒, 재미총동창회 2대 회장), 韓昌燮(62년 文理大卒, 前뉴욕지부 회장), 韓在殷(65년 醫大卒, 前시카고지부 회장) 및 任洛均(68년 藥大卒, 前남가주지부 회장) 동문들에게 공로패를 증정했다.

이어 7월 1일자로 차기 회장을 맡은 吳興祚 수석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2년간 동문들의 화합을 위해 봉사해 주신 시카고지부 동문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동창회를 보다 발전시키기 위해 인수팀이 6개월 동안 많은 연구를 했다"고 밝히고 2년간 함께 봉사할 집행부 임원을 소개했다.

이어 權吉相(48년 音大卒)동문이 지도하는 KAMA(Korea American Music Academy) 어린이 합창단과 LA 소년소녀 합창단 등 20여 명이 「달」, 「꽃밭에서」 등 10여 곡을 선보였으며, 美클레이몬트 맥키나대 교수로 재직중인 李瑛珍(59년 文理大卒)동문의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이란 주제의 특별강연이 촉박한 시간으로 진지한 발표자와 청중들의 아쉬움 속에서 끝났다.

한편 이날 만찬 참석자 전원은 총동창회가 마련한 모교 상징물이 새겨진 기념품(직지심경 동판)과 동창회보 PDF CD-ROM(2장 1세트)을 기념품으로 받았다.

셋째날에는 LA 근교의 Palm Springs Mesquite 골프장에서 평의원, 순방단 및 남가주 동문들이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남가주 동창회(회장 曺錫)가 주최한 친선 골프대회가 성황리에 열렸다. 평의원 공식일정 종료후 6월 2일 월요일에는 남가주 동창회가 주최한 미국 서부 관광에 20여명의 동문가족이 참여하여 동창회간의 "자유롭고 신나는 학창시절의 추억여행"의 옛 기억을 새롭게 하였다.

그간 영구보존의 필요성을 인식한 총동창회는 회보를 통하여 일일된 초기 동창회보를 동문들의 협조로 18호를 제외하고 모두 발굴하였고, 이의 보관처(permanent depository)를 모색하여 왔다. 6대 집행부 초기부터 저명한 연구도서관으로 알려진 시카고대학을 영구보존처로 지목하고, 당시 한국과 사서 최형근씨와 보존 원칙에 합의한 후, 보존 가치 있는 동창회보를 제작하고자 노력하여왔다.

저명한 연구대학 도서관은 보존자료로의 자료 평가기준이 엄격함으로써, 영구보존자료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하여서 내용이 충실하고 격조있는 동창회보의 지속적인 발전이 요청된다.

이날 李회장과 金편집인은 동아시아 도서관장의 조대로 시카고 대학 교수회를 할 것을 약속하였다. 이날 보존 約款 시험판(2001년 6월 29일, 16면)과 90호부터 110호(2003년 5월 28일자 32면)까지 23을 우선 납본하였다. 제 1호부터 89호까지는 정리하여 조만간 납본하고, 향후 남가주에서 발간될 회보는 매월 2부씩 납본하기로 하였다.

또한 총동창회는 영구보존을 지원하는 성의의 표시로 임원회의의 결의로 책정된 \$1,000을 동아시아 도서관에



### 젊어지는 동창회/ 봉사하는 동창회

吳仁錫(법대 58입, 재미총동창회 명예회장)

在美서울大學校 總同窓會는 지난 12年間 7천여 同門들의 성원에 힘입어 많은 成長과 발전을 보았고 앞으로도 계속 훌륭한 同窓會로 커갈 것을 믿습니다. 따라서 현재 우리가 안고 있는 몇 가지 과제들, 卽在美同窓會의 老化防止, 계속하여 奉仕정신에 입각한 집행부의 선출, 美洲를 하나로 결속시키는 全國的인 組織으로 總同窓會가 成長하고, 母校와 後進을 위한 使命과 수행이란 과제도 계속 만족하게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할 우리가 있는 시기에 들어설 염려가 있습니다. 全國의 모든 등록 同門과 미발굴 同門의 호응을 받아 同門 상호발전과 母校의 발전을 위한 본연의 사명을 계속 수행하려면, 奉仕心이 두텁고 有能한 同門들을 전국적으로 발굴하여 同窓會 任務를 맡겨야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同窓會가 可視的인 行事나 事業에 치중하는 습관이 스며들 여지를 남겨서는 안되겠습니다.

同窓會의 老化防止는 제일 時急한 과제입니다. 移民과 長期체류의 목적으로 이주하는 同門의 숫자가 적어지는 상황 속에서 가급적 50代, 40代, 30代 同門을 同窓會의 能動的인 會員으로 참여시키는 것은 중요하고도 힘든 과제입니다. 同窓會를 이들 同門들이 참여하고 관심을 끌 수 있게 運營함은 물론, 전국 각 大學校에 산재한 유학생동문, 長期근무차 渡美한 동문들을 한사람 한사람 소중히 同窓會 울타리 안으로 引導해야 하겠습니다. 저를 포함해 나이 많은 동문들의 친목 단체 역할은 각 地域同窓會 支部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며, 이런 활동에 치중하는 추세가 오래 계속되면在美 總同窓會는 물론 해당 支部도 차차 소멸하는 조직으로 변할 것은 自明한 일입니다.

在美同門 모두가 支部를 통해서 同窓會에 적극 참여하고 모든 支部가 전국적으로 단결해야在美 同窓會가 계속 발전할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同窓會 구성이나 중점적인 사업목표가 조금씩 다른 支部들을 어려운 가운데서도 만족스럽게 하나로 엮는 것이 총동창회의 역할이며, 이를 위해서는 總同窓會에 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모든 支部들도 이런 방향으로 서로 努力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同窓會가 하나로 뭉친 큰 組織으로 계속 커가야 하는 것은 同窓會의 본연의 使命인 母校와 同門을 위해 보람있는 일을 할 수 있는 큰 힘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在美서울大 總同窓會가 이러한 힘을 받들어 母校와 同門들을 위해 보람이 되게 기여하는 同窓會로 계속 발전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우리 同窓會가 계속 성공적으로 기반을 굳히다 보니 이제 행여나 同窓會 任員職을 奉仕職보다 간혹 名譽職으로 생각

지난 2년간 名譽會長의 소임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신 同門여러분께 거듭 感謝말씀 드립니다.

### 進一步하는 동창회

제 6대 집행부의 所任을 마치며

李龍洛(공대 53년 졸, 재미서울대총동창회 회장)

[I] 재미서울대 총동창회의 목표 존경하는 同門 여러분!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재미 서울대학교 총동창회는 開拓者의 삶을 살고있는 7,000여 재미동문들이 서로의 발전을 격려하고, 熱과 精誠을 모아 母校의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직입니다. 본인은 제 6대 집행부 회장의 職分을 맡은 후 지난 2년간 어려웠지만 보람된 所任을 이제 大過없이 마치고 있어, 全美洲에서 同門들께서 보내주시는 도움과 聲援에 충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재미동창회의 발전을 위하여, 보내주시는 母校와 총동창회가 보내주시는 物心양면의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제 6대 집행부는 우리 재미총동창회의 창립목적을 달성하고자 21개 지역동창회와 함께 노력하여 왔습니다. 우리 동문들은 광활한 미주 대륙에서 묵묵히 각자의 所任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동창회는 學界 및 產業界에서 활약하는 專門人과 實業人과 元老 同門들을 찾아서 한 同窓家族의 정신으로 결속하여 더 큰 사업을 위한 기초를 계속 다져왔습니다.

거주가 과약되었음을 고려할 때 이는 큰 慶事라고 생각합니다.

그 첫째로 기간사업인 "在美서울大 同窓會報"의 질적 수준 향상, 會員 자료 은행의 신속한 補整, 잃었던 동문들의 소재 파악에 각별히 노력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주소변경에 따라 반송되는 동창회보를 최소화함으로써, 현재 동문가정에 실제 배포되는 발송부수(4,570)를 계속 증가하고자 노력하여왔습니다.

셋째로는 이러한 바탕 위에서 각기 별개의 창립 역사를 가진 21개 지역 동창회들이 하나의 큰 힘으로 결속하기 위하여서는, 재미총동창회의 전국 지부 대표자와 동창회 본부의 任員들로 구성된 최고 의사결정기관인 評議員會의 활성화가 절실한 문제로 생각하였습니다. 각 支部는 그 규모와 특성이 비록 다르지만 총동창회와 함께 공동의 목적을 위한 하나의 有機體로서 기능하기 위해서는 연례 評議員會에 지부 대표자들이 실제로 참석하고 그 결정사항의 실행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둘째로 총동창회의 조직 확장을 위하여 지난 2년 동안 노력한 결과 3개의 지부(캐롤라이나, 록키마운틴 및 오하이오지역)가 창설되었습니다. 이들 지역에 300명 이상의 동문들의

이를 위하여는 우선 각 지부가 參與의식을 갖고 총동창회의 의사결정 과정과 집행부 구성에 있어서 동등한 기회와 권리와 의무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재미총동창회의 초창기의 여건 하에서 4대 지역동창회(워싱턴 DC, 시카고, 뉴욕 및 남가주)가 順番制로 맡아온 집행부의 會長과 任員들의 선출과정의 變化를 시도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機會均等의 원칙 아래 제 7대 집행부를 구성 할 수석부 회장 겸 제 8대 회장선출자를 선출함에 있어서 人選委員會(4명의 전임회

장과 현임회장 및 차기회장으로 구성)의 논의를 거쳐 전체동문들에게 그 봉사의 기회를 개방하였고, 제 12차 평의원회의에서 3분의 동문들께서 총동창회의 奉仕를 지원한 가운데, 진지하고 화목한 분위기 속에서 李英默(공대 63년 졸, 현 워싱턴 DC 동창회장)동문을 제 7대 수석부 회장으로 선출하여 2년 후에 제 8대 집행부의 토대가 마련되고 吳興祚(치대 56년 입)동문이 이끄는 제 7대 집행부가 7월 1일부터 卞冊을 축하하며 재미서울대 총동창회가 더욱 발전하기를 우리동문들과 함께 바랍니다. 또한 동창회를 위하여 奉仕를 自願하신 金好元(치대 52년 입), 李典九(농대 60년 입)동문과 소속지역 동창회에 감사드립니다.

#### [II] 제 6대 집행부의 추진사업

우리 총동창회의 기본 사명은, 우리 동문들 각자의 가슴에 살아있듯이, 우리를 키워준 母校에 보답하여 母校발전에 이바지하는 일입니다. 이를 위하여 그간 많은 동문들의 誠金출연으로 "母校와 後進"을 위한 基金委員會의 활동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금위원장의 보고서 참조]. 이와 아울러 6대 집행부는 母校와의 유대를 강화하기 위하여 冠岳校庭에 재학중인 後輩들과 在美同門들과의 새로운 교류기회를 마련하였습니다. 즉 모교 音大순회 연주단의 음악회를 2002년 8월에 성취시킨 일입니다. 이 사업의 첫 해에는 서울의 總同窓會와 母校의 특별 예산으로 8개 도시에서 9번의 음악회가 열렸으며, 그 성과는 이미 동창회보 102호를 통해서 보도된 바와 같이, "관악산의 精氣와 和音"을 미주대륙에 전파하여, 2,500여명의 同門 및 음악 애호가들로부터 아낌없는 갈채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를 가능하게 한 서울대학교 總同窓會와 母校의 지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4면에 계속>

#### 지난 2년간 수고한 6대 집행부 임원들



송순영 관악후원회부회장 (문리대 52입)



구경회 사무총장 (의대 59입)



김정주 총무국장 (문리대 59입)



박영규 감사 (농대 62졸)



전현일 재무국장 (농대 66졸)



정기남 선외국장 (문리대 62입)



정호 출판국장 (공대 62입)



제4회 관악대상 수상식장에서 필자부부(사진 우측서 두·세번째, 재미총동창회 4-5대 회장역임, 1997년 6월1일~2001년 6월30일)

알차고 격조있는 재미서울대동창회보를 발간하기 위하여 시험판(16면, 2001년 6월 29일) 편집을 끝낸 실행 편집위원들 서명

李龍洛 具琛會  
朴泳奎 丁浩模  
李英默 李允模  
韓在殷 洪忠禮  
金賢玉 金正守  
申普均 申源泰  
송순영 이승자  
김정주 조대현



<3면 이용락회장 이임사 계속>

금년에는 원래 연주단의 순방이 경비문제로 어렵게 되었으나, 금년에는 재미동창회가 이 순방단의 소요경비의 일부를 분담하는 새로운 방식으로 할 것을 母校에 제안한 결과, 母校의 鄭雲燦총장께서 흔쾌히 수락하셔서 오는 8월 9일부터 17일까지 "國樂과 서양 고전음악"을 전공한 10명의 후배 음악도들로 구성된 "2003년 音大 미주순방단"이 5개 지역에서 音樂會를 갖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급박한 준비일정에도 불구하고, 後輩들과 동창회 組織의 발전을 위하여 이 音樂會를 주관할 결정된 5개 지역동창회(워싱턴DC, 뉴욕, 필라델피아, 달라스 및 남가주)의 會長님과 여러 同門들의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이 사업은 재미총동창회의 年例행사로 定着되어 가리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제 6대 집행부의 任期중 몇 가지 특기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 첫째는 "在美서울大同窓會報"를 永久保存하는 조치를 하였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선 이전에 발행된 모든 회보를 점검하고 보존되지 않은 옛 회보 찾기 운동을 전개한 결과, 동창회보를 사랑하는 여러 同門(시카고 지역의 최애옥(간호대)동문, 조지아의 김예순(문리대)동문, 필라델피아의 주기목(수의대) 및 윤석희(치대)부부 및 남가주의 이종도(공대), 오재인(치대) 동문)들의 노력으로, 제 18호를 제외하고 모두 찾아낸 것을 모든 동문들과 함께 기쁘게 생각합니다.

본인은, 지난 2003년 6월 11일(수)에 시카고 대학교(The University of Chicago)를 방문하여 동아시아 도서관과 우리 동창회보의 "연구보존 협의서"에 署名하였습니다. 오늘 이를 同門 여러분께 발표하게 된 것을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이 協定에 따라 앞으로 재미서울대동창회보 2부를 매달 계속 시카고 대학교로 보내며, 이제 在美서울大同窓會報는 세계적으로 저명한 대학도서관에 후일 "美州韓人史" 연구의 기초 자료의 하나로서 영구보존됩니다.

둘째로는 재미 총동창회의 최고의 결기관인 評議員會를 활성화시키는데 주력하였습니다. 광활한 미주지역으로부터 평의원들이 상당한 비용과 시간을 들여 3일간의 평의원회 일정에 참석함에도 불구하고, 평의원회의 본회의 당일 4-5시간의 제한된 회의시간 내에 모든 현안 문제를 처리하다 보면, 깊이 있는 토론의 기회가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평의원회의 前夜 "Symposium"을 마련하였습니다. 제 6대 집행부의 1차 연도에는 2002년 6월 15일의 11차 평의원회를 맞아 재미총동창회 창립 10주년을 기념하여 "재미총동창회의 현재와 未來"를 주제로 우리 동창회 역사를 "溫故知新"의 정신으로 돌아보았고, 2003년의 미주한인 이민 100주년의 해를 맞이하여 기존목

표 외에 移民사회에 기여하는 조직으로서의 우리 동창회의 역할의 가능성을 모색하여 보았습니다.

금년 5월 31일의 제 12차 평의원회의 前夜에는 評議員會의 활성화, 집행부 회장 선출방안, 미주이민사회에 기여하는 조직으로서의 동창회의 역할정립 등의 문제를 점검하였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會則정비의 문제를 토론하였습니다. 이번에 논의된 과제들은 추가적인 검토와 동창회보를 통한 同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 7대 집행부 재임 중에 평의원회가 이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결정을 내릴 것으로 생각합니다.

세째로 미주관악후원의 밤에 專家家동문을 초청하는 特別講演의 순서를 마련하였습니다. 작년에 고병철(법대 59년 졸)교수가 "南北韓 關係의 現況과 展望"이란 주제로, 금년에는 이체진(문리대 59년 졸)교수가 "美國의 대한반도정책"에 대하여 特講을 한 바 있습니다. 우리 동창회만이 계획할 수 있는 수준 높은 이 특별강연이 來년에는 금년의 진행과는 달리 더욱 보람있는 행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번째로 6대 집행부는 지난 2년간 매호당 32면의 재미서울대총동창회보를, 시험판을 바탕으로 90호부터 112호까지 23호를 발간하였습니다. 특히 동창회보를 3부로 구분 편집하여 "世界化의 시대"에 출현할 새로운 세계문화 형성에 기여할 우리 民族文化 遺産의 재조명에 유념하며 우리동문들과 외부 전문가들의 玉稿를 모아 "지성인의 友情을 글로써 나누는 討論의 場으로 발전시켰고, 이를 우리 서울대인의 矜持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격상시키고자 하였습니다.

이번 제 12차 평의원회의에서는, 7월 1일부터 그 임기를 시작하는 제 7대 집행부가 제안한 ①광고지면확충과 ②인터넷망과의 연결을 통하여 동창회보의 "革新"계획을 채택하여, 지난 12년간 계속되어 온 32면 타블로이드판의 동창회보는 112호를 마지막으로 사라지고 "雜誌" 형태의 새 회보가 나오게 된 것은 매우 큰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편집진용에 참여할 새로운 동문들의 熱誠과 創意的인 發想 및 전 미주동문들의 적극적인 助言과 참여로 재미서울대 동창회보가 더욱 발전하기를 바랍니다.

Ⅲ] 進一步하는 동창회를 위하여  
지난 2년간 우리 동창회의 사업목표 추진의 경험에서 본인의 퇴임소감으로 몇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우리동창회가 地域同窓會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친목중심의 동창회 활동을 넘어서서, 크고 보다 뜻있는 사업을 펴기 위해서는 아

직도 많은 숙제가 있음을 여러 동문들과 함께 아쉽게 생각합니다. 제 11차 평의원회 Symposium에서 發題 논고를 통하여 지난 10년간 헌신 봉사하신 선대 회장님들과 광활한 지역의 동창회를 이끌며 봉사한 동문들의 경험에서 나온 간절한 지적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자기가 속해있는 지역을 제외하고는 관심을 두지 않는 "地域中心主義的"인 정서가 재미총동창회 창립 12년이 지난 지금도 크게 변화해 가는 뚜렷한 징후를 찾을 수 없었음은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일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通念的인 "동창회 文化"가 지속된다면 우리 동창회는 小數를 대표하는 조직으로 퇴보하며 결국 총동창회는 組織의 현상 유지에서 제자리 걸음을 계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로는 財政自立의 목표입니다. 이 문제 의 해결방

박비는 평의원 개인부담임), 회계사 비용 연\$1,500, 사무실 임대료 연\$4,800과 동창회보 발간을 위한 컴퓨터 및 사무실 집기 구입 \$5,000등으로 총액 \$153,300이 소요로 그赤字는 예산으로 꾸려갔습니다. 제 2차년도(2002.7.1-2003.6.30)의 收入으로는 회보발행일 현재 1,319명의 동문들이 낸 동창회보 구독료 \$81,311과 연 113명의 지부와 개인이 출연한 미주관악후원금 및 광고비 총액 \$64,361로 수입총액이 \$145,672이었고 支出의 대강은 동창회보 11회 발간을 위한 직간접비용 \$121,000 평의원회비 \$10,000(각 평의원들의 여행 및 숙박비는 평의원 개인부담임), 회계사 비용 연\$1,500, 사무실 임대료 연 \$4,800 등으로 총액 \$137,300이상의 支出이 예상되어 지난 2년동안 동문들의 봉사와 간축에 산으로 힘겹게 간신히 재미서울대총동창회를 운영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런 중에도 제 6대 집행부는 제 5대 집행부에서 이관한 15.5명분을 포함한 24명의 중신이사회비 적립금 \$72,000을 제 7대 집행부에 이관합니다.

이렇게 연례적으로 집행부가 당면하는 財政上의 난관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제 11차 평의원회 Symposium에서 논의되고, 제 6대 집행부의 제 2차 연도 예산 편성에 있어서는, 지역 동창회가 총동창회를 지원하는 項目를 설정하여 재미 총동창회의 1년 예산의 일부를 지역동창회에 의존하도록 제 11차 評議員會가 결의한 바 있으나 이것마저도 잘 실천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의 상태로는 우리동창회는 아직도 초창기의 組織確立의 단계를 넘어서서, 실제적으로 同門의 發展을 격려하고 지원하는 구체적 사업을 펴기에는 力不足임을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재미총동창회의 12년 역사는, 全美洲동창들을 하나의 家族으로 결속하기 위하여 "재미서울대동창회보"발간사업을 통하여 그 組織基盤을 다져 온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에 머물지 않고 우리 同門들이 서로 돕고 사랑하며 發展을 격려하고, 母校발전의 牽引車의 일익을 담당하며, 미주 이민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奉仕조직으로서 새롭게 進一步한 목표를 설정하여 앞으로 나아가야 할 때라고 봅니다.

이러한 방향으로 재미서울대총동창회가 획기적인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제한된 人的資源과 財政의 문제로, 그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具體的인 계획조차 마련하지 못한, "재미서울대 동창회관" 설립과 "재미서울대 동창회보"의 "편집진용의 확대"와 安定된 發刊體制라는 문제를 이제는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110호에서 계

재된 김호원동문의 심포지움 발제는 고와 이번 동창회보의 한창섭동문 기고문 참조].

우리는 이제 이러한 동창회 未來發展에 필요한 기본 문제에 대하여, 長期적인 목표를 수립하고 구체적인 노력을 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하여 이번 평의원회의에서는 의뢰 바와 같이, 재미 총동창회의 會則을 補充할 필요성이 인식된 만큼, 會則委員會로 하여금 이 문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제 13 차 평의원회의는 구체적인 방안을 심의할 수 있도록 제 7대 집행부는 최선의 노력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제 본인은 제 6대 회장의 임기를 마치는 이 告別辭를 쓰는 순간에, 어려운 고비마다 本人에게 용기와 격려를 아끼지 않은 여러 지역동창회장님들, 재미총동창회 조직의 근간이 되는 동창회보의 중단 없는 간행을 지원해오신 관악후원회 이사님들, 특별후원회비와 광고비를 출연하신 동문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금보다 더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재미총동창회의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셨고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 총동창회의 고문이신 先代會長(朴允洙, 姜洙祥, 李丙俊, 吳仁錫)님들과 함께 봉사하신 前任 任員여러분들께 敬意를 표합니다. 그리고 지난 2년 동안 15번의 임원회의를 통하여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총동창회를 위하여 봉사해주신 제 6대 집행부 任員님들과 동창회보의 중단 없는 발간을 지원하기 위하여 허리를 졸라맨 시카고 지역동창회와 광고위원회의 동문들의 誠心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동창회의 어려움을 돕기 위하여 동창회보 구독료 청구서를 발송하기 위하여 한밤중까지 귀중한 學業시간 중에도 통상 2주일이 걸리는 작업을 4일만에 완결하게 수고한 시카고 대학의 後輩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여기 이 글을 맺으며 무엇보다 지난 2년 동안 同門 先後輩들의 보이지 않는 성심을 뒷받침으로 우리 동창회의 所任을 수행할 수 있었고 동창회보의 발전을 위하여 구독료를 납입하신 全美洲의 同門여러분, 예산상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音大 순회연주단을 보내어 在美同窓會를 지원한 모교의 鄭雲燦(상대 70년 졸)총장님 및 서울총동창회의 林光洙(공대 51년 졸)회장님과 동창회보 발간을 위하여 크게 헌신한 金正守(문리대 69년 입)편집인의 얼굴이 눈앞에 떠오릅니다. 본인은 祖國과 미주전역에서 개척자의 삶을 살고 있는 동문선배들의 誠心을 모으는 재미총동창회를 위하여 본인이 微力이나마 마지막 奉仕의 소임을 명예롭게 수행할 수 있었음을 감사드리며 이를 소중히 기억으로 간직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同門여러분, 모든 家庭에 平康이 깃들시고 하시는 일마다 크게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2003년 6월 28일 재미서울대총동창회 제 6대 회장 李龍洛(공대 53년 졸)>



안 도 첫째 문제와 직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총동창회의 사업의 財源은 동문독자들이 출연하는 "미주 관악후원회이사회비"와 일반동문들이 내는 "동창회보 구독료"에 의존 해 왔습니다. 그러나 총동창회장이 선출된 지역을 제외하고는, 지금까지 총동창회의 소요예산의 절반을 뒷받침하는 관악후원금이 해마다 격감하고 있습니다. 여기 참고로 재미서울대총동창회가 당면한 재정상태를 말씀드립니다. 제 6대 집행부 2년간의 실행살이의 대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세한 것은 두 해의 정확한 회계사의 검토가 끝난후 인수인계 문서에 포함 될 것임) 제 1차년도(2001.7.1-2002.6.30)에는 收入으로는 1,391명의 동문들이 낸 동창회보 구독료 \$71,548.86(최종집계표 102호에 게재)와 114명의 지부 및 개인이 출연한 미주관악후원금 \$62,670과 제 5대 집행부가 보내온 이월금 \$2,000(중신이사비 1인분 3천불 제외)을 합하여 \$136,218.86이었고, 支出의 큰 항목을 보면 매달 동창회보 간행을 위한 직간접비용 월 \$11,000을 합산한 \$132,000과 연례 평의원회 비용 \$10,000(각 평의원들의 여행 및 숙



# 재미서울대학교총동창회 2003년 제12차 정기평의원회 회의록(抄錄)

## 전야 심포지움 초록

### 재미 서울대학교 총동창회 2003년 제 12차 정기 평의원회 개최공고

2003년 5월 30일(금)~6월 1일(월)

LA, Radisson Wilshire Plaza Hotel

3315 Wilshire Blvd. LA, CA (전화 213-381-7411) 평의원회 본부 Suite 341호

재미 서울대학교 총동창회는 7,000여 동문회원들이母校를 高揚하고 동문들의 상호발전을 위한 견인차가 되고자 하는 조직입니다. 우리 재미총동창회의 발전을 위하여 제반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오신 동문들과 이를 대표하는 전미주 21개 지역동창회의 평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재미서울대학교총동창회는 자체발전을 위한 관악후원회의 사업, 母校의 後進을 위한 基金 모금과 관리, 동문들간의 友情을 交流하는 場인 재미 동창회보의 집적 수준 향상, 새로운 동문들의 발굴과 각 지역 동창회간의 협력의 활성화를 통하여, 전체동문들의 복지 증진을 추진해왔습니다. 이러한 제반 사업에 관한 기본 방침은 평의원회의 토론회와 결의에 따라 수립됩니다.

재미 총동창회 회칙 제 14조와 2002년 평의원회의 결의에 따라 2003년 제12차 정기 평의원회의 개최와 관련행사 일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평의원회와 관련행사 일정>

가. 前夜 Symposium : 5월 30일(금) 오후 7시-10시, Hollywood Room  
- 다음 주제의 전체평의원회와 동문들이

참석하는 공개토론회

1)제 1 주제 발표자 : 김기현 동문 (North Carolina Central Univ. 교수), 북한의 과학기술 교육제도 방문보고

2)제 2 주제 발표자 : 오홍조 수석부회장, 미주 이민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재미 서울대 동창회의 역할정립

3)제 3 주제 발표자 : 강경식 회칙위원, 평의원회 활성화를 위한 재미서울대학교 총동창회 회칙개정을 위한 회칙위원회 활동보고

4)제 4 주제 발표자 : 박운수 인선위원회 위원장, 재미 서울대 총동창회 제8대 회장 선출방안과 후보자 소신발표

나. 평의원 회의 : 2003년 5월 31일 (토) 오전 9시-오후 4시, Hollywood Room, Radisson Wilshire Plaza Hotel, 3315 Wilshire Blvd. LA, CA (전화 213-381-7411) 평의원회 본부 Suite 341호

다. 평의원 가족 LA 시내관광 : 5월 31일 (토)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라. 미주관악후원의 밤 : 5월 31일(토) 오후 6시-10시, Grand Ball Room  
- 평의원, 본국 순방단 및 관악 후원이 사 초청 만찬

가. 오후 8시부터 이체진 교수(Claremont McKenna 대학)

"미국의 對韓半島정책"에 대한 특별강연

- 오후 9시부터 동문 음악회

마. 6월 1일(일) 골프대회 및 만찬

- 평의원, 본국 순방단 초청 및 남가주 지부 동창회 골프대회 및 만찬, 6월 1일

일요일 오전 8시부터 저녁 9시까지, 장소: Palm Spring Mesquite 골프장

바. 2박 3일 미서부 관광: 6월 2일 (월) -4일(수) 오후 7시까지

- 남가주 동창회 주관 서부 관광

이번 평의원회는 총동창회가 남가주 동창회와 협력하여 주관하는 평의원 가족을 위한 LA 시내관광과 남가주 동창회가 주관하는 6월 2일 월요일부터 2박 3일의 서부관광 일정이 마련되어 있으니 평의원님과 가족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이번 평의원회를 위하여 임광수 본국 총동창회 회장 및 정명희 모교 부총장님 일행의 본국순방단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평의원 여러분들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참가하셔서 재미서울대동창회를 위하여 일부터 멀리서 오시는 본국 순방단을 환영하여 주시고 母校 및 동창회 발전을 위한 평의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 2003. 3. 28 재미서울대학교 총동창회

사무총장 具 璟 會(의대 65년 졸)

회장 李 龍 洛(공대 53년 졸)

### 제 12차 평의원회 前夜 論壇

◇ 일시 : 2003년 5월 30일(금) 오후 7시-10시

◇ 장소 : Hollywood Room, Radisson Wilshire Plaza Hotel

◇ 사회- 이용락 회장  
진행- 김정주 총무국장

◇ 主題 및 발표자

1)제 1 주제 : 김기현 교수, 북한의 과학기술 교육제도 방문보고

2)제 2 주제 : 오홍조 수석부회장, 미주한인인민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재미 서울대 동창회의 역할정립

3)제 3 주제 : 강경식 회칙위원, 평의원회 활성화를 위한 재미서울대학교총동창회 회칙개정을 위한 회칙위원회 활동보고 - 평의원회 활성화를 위하여 당연직 평의원 숫자의 확대와 지역동창회의 선출직 평의원의 선출방안의 재검토 이를 위한 회칙 개정을 위한 회칙위원회 활동결과

4)제 4 주제 : 박운수 인선위원회 위원장, 재미 서울대 총동창회 제 8대 회장 선출방안과 후보자 소신발표 - 현재 4개 대도시 지역 동창회가 순번제로 맡아온 회장단 선출원칙의 검토와 제7대 수석부회장 선출방법에 관하여



제12차 정기평의원회전야 심포지움을 경청하는 동문들 사진1,3,4



2

심포지움 발표자 4인과 심포지움을 주재하는 이용락총동창회 회장(사진2의 중앙)



◇ 진행 : 김정주 총무국장 - 제 12차 평의원회 전야 심포지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이용락 회장이어서 이를 주재하시겠습니다.

◇ 이용락 회장: 40여명의 동문들이 참여한 가운데 제 12차 정기 평의원회 논단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심포지움은 4사람이 주제발표를 한다. 김기현 박사가 북한방문 보고를 한 후, 작년 11차 평의원회에서 기초를 결의한 재미서울대 총동창회 이민 100주년 기념 선언문, 평의원회 활성화를 위한 회칙개정의 개정문제, 인선위원회의 회장선출방안의 순서로 발표자의 발표에 이어 토의가 있겠다.

#### 1. 김기현박사의 북한 방문보고 (45분간)

① 2002년 8월에 있던 북한 방문은, 북한측과 사전협의에 따라 해외동포원호위원회의 초청으로 이루어졌다.

② 북한의 초청이유는, 일본의 경제가 침체되어 재일교포로부터 받은 도움을 재미교포들로부터 받고자 하는데 있는 것 같다. 특히 기술원조 등을 받기 위하여 理工系 교수들의 방문을 위하여 이루어졌다. 이번에 중점적으로 김책공과대학과 김일성 종합대학을 돌아보았다. ③ 북한이 핵



무기를 실제 보유했다는 문제에 대하여 Slide를 중심으로 설명하겠다. ④ 2003년 현재의 북한의 실정과 거의 같다고 보면 된다. 북한측은 남조선 해외동포들이 북조선도 함께 도와줄 것을 거듭 부탁했다. 해외동포원호위원회는 외국에서 돈을 받아들이는 기관이다. 우리 일행은 4명은 경제전문가들과 전금철 해외동포원호위원회 위원장도 만났다. ⑤ 북한은 미국의 과학기술도입에 주력하고 있는 것 같다. 5만명의 학생이 동원된 매스게임에서도 과학기술을 여러 차례 강조하였다. 현재 북한에서 사용중인 컴퓨터는 각국 제품을 혼용하고 있었고, Microsoft 해적판의 사용이 목격되었다. 미국의 중요 과학기술학회로 소수의 북한학자들은 접하고 있는 것 같다. 김책공대에서 가르치고 있는 한국의 한양대 교수 2명도 만났다. 현재 북한은 국제적인 자본시장의 접근을 전혀 할 수 없는 실정으로 재미교포를 통하여 자본 및 기술 도입을 기대하고 있었다. 미국을 미워하면서도 미국교과서를 번역해서 사용하고 있었고, 미국담배, 미국 약, Dollar등 미국제("Made in USA")를 환영하는 듯 하였다. 북한의 달러와의 환율은 1불당 160원이다. 과거에는 중국과 일본을 통해서 미국 상품수입을 수입하였다. 요즘은 해외동포를 구별하여 층을 두며, 재미교포에 관심이 많다. 더 이상 중국과 소련동포에게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6면에 계속>





<5면 심포지움에서 계속>

⑥ 북한은 1866년 Sherman호의 선원들을 火刑한 자리에 1968년 납치한 Pueblo를 美帝의 만행의 증거로 전시하고 있었으나, 작년 美 국무차관보 Kelly 특사 방문시 移轉하고 그 자리에 대원군이 제자를 시도한 최초의 증기선 모형을 전시하고 있었다. ⑦ 북한의 핵무기 개발계획을 갖고 있고, 보유원료를 준비하고 있으나 핵 폭탄의 제조와 사용의사 여부는 아무도 모르며 실제 개발상태에는 목격자도 없어 외부에서는 아무도 모른다고 할 수 있다. ⑧ 핵무기를 개발하자면 90%이상 純度라야 되는 plutonium uranium을 가공하면 필요한 plutonium 239가 발생하나, 239는 기술적으로 어려워서 北韓에서 가공은 거의 불가능한 상태로 판단된다. 이의 加工에는 25만 RPM이란 커다란 壓力이 필요하므로, 遠心分離機를 韓國에서 도입하였다(소수국가인 韓國과 독일과 생산함). 현 북한 정권은 好戰的이므로 현재 핵폭탄을 保有하고 있다고 과장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 그들은 우리가 미국 정책 당국자들에게 영향을 미쳐 주기를 바랐다. 미국과 전쟁하는 것은 "non-sense"라고 보여지며 많은 北韓당국자들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으리라고 생각된다.

2. 미주한인 이민 100주년 기념 선언문(초안) - 오홍조 수석부회장

재미 서울대학교동창회 제 11차 평 의 원 회 (2002년 6월 15일, 시카고)는 미주한인 이민 100주년을 맞아 우리 동창회의 활동목적 재정립과 관련하여 선언문 채택을 결의한 바 있다[동창회보 100호 6면 참조]. 작년 12월 이용락 회장이 7명의 기초위원을 위촉하였고 이에 따라 관심있는 동문들과 상의하여 초안을 작성하였다. 일부 위촉된 위원들의 이 문제에 대한 반응이 긍정적이지 않은 경우도 있어서 실제로는 강수상 및 김호원 위원과만 상의하였다. 기초된 초안[전문 면 참조]을 바탕으로 내일 있을 평의원회의에서 이 문제를 심의해 주시기 바란다.

3. 현행회칙의 문제점 -

★ 이용락 회장: 강경식 동문의 발표에 앞서 그간 회칙개정 경과에 대한 보충설명을 하였다. 1997년에 강수상 2대 회장 재임시 이사회와 동창회의 분리 상황에서 회칙의 개정이 논의되어, 그 뒤 한글로 된 회칙이 마련되었다. [이 회칙은 1997년에 이병준 3대 회장 때 발간된 재미서울대동창회 會員名簿 7면에서 16면에 '총동창회 재단 정관'과 함께 수록되어 있다] 또한 재미총동창회는 1994년 12월

Delaware 州에 비영리기관 법인으로 등기한 法人憲章(Certificate of Incorporation)에 따라 1994년 12월 英文 定款을 기초하여 1997년 1월에 IRS로부터 재미총동창회의 법인기능을 획득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오인석 제 5대 회장 재임시인 2001년 10차 평의원회에서 書面회의를 통하여 의결된대로 관악후원회 창설과 비영리기관(Non-profit organization) 등록에 합당한 英文회칙으로 改定하였다[이 英文회칙은 회칙개정안은 개요 설명과 함께 동창회보 87호의 2001년 5월 1일자 22면부터 30면에 수록된 'By-Laws와 Certificate of Incorporation'이다. 동창회보 88호 5면에는 회칙개정안 요지의 설명이 게재되어있다].

2년마다 2명씩 회칙위원이 바뀌도록 회칙위원이 선출된 것으로 생각한다. 그간 변동된 사정과 동창회 운영 경험을 반영하여 다시 회칙을 손을 볼 필요가 있으므로 이번 평의원회의의 논의를 위하여 강경식 동문께 기존회칙의 검토를 위촉하였다.

★ 강경식 회칙 위원 회칙 검토 결과 발표(요지)

①이회칙에서 5월 13일에 회칙개정의 필요성을 말씀하셨다. 본인은 물리학 전공이며 한국 과학기술자 협회의 회칙 개정 때마다 위원장으로 활동했다.

현재 재미총동창회 회칙의 문제점들을 살펴보면, 동창회가 당면한 문제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집행부측에서 볼 때, 동문들의 참여도가 미약한 문제점이 10차 평의원회에서도 지적되었고 이에 대한 분석의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② 총동창회의 현실을 살펴보면 지역동창회와 총동창회의 활동에 있어 有機的인 연관이 없다. 동문들은 지역동창회 중심의 활동에 더 관심이 많다. 지역협의회[동창회]에서 총동창회에서 배정한 분담금 협조를 다 수행한 경우가 적다. 전반적으로 총동창회의 활동의 典範(paradigm)이 결여되고, 財源확보도 안되어 활동에 제약되어 있다. 전체회원으로 부터 받는 회보구독료도 제대로 납부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장학사업도 어렵다. 고정된 사무실이나 사무직원도 없어, 회장에 따라 동창회 본부도 이동하고 동창회 사업은 회장능력에 좌우된다. 언제까지나 대도시에서만 會長이 꼭 나와야 하나? 총동창회 활동을 뒷받침할 하부기구(infra)가 안되어 있다. 고정된 사무실과 상임 사무직원도 있어야 한다. ③ 총동창회의 역사를 보면 1994년 11월 비영리 단체로 등록하고, 1997년 2월에 IRS에서 면세 단체로 인증을 받고, 2001

년 10차 평의원 회의에서 英文으로 회칙개정안이 만들어졌다. 그러나 아직도 통용되는 國文회칙과 英文회칙에 개념과 用語상의 차이가 있고 상호관계가 모호하다.

구체적인 사례를 지적하면 ① 2001년 英文 개정안에는 優位法으로 法人憲章과 下位法의 정관의 二元體制로 되어있다. SNU Alumni Association이 "corporation"이라는 말로 바뀌었고, ② 총동창회의 최고기관인 "평의원회"의 권위와 기능이 어떻게 규정되었는지 파악이 쉽지 않다. 결과조치에서 기존 "평의원"을 대표자("Delegate") "간주"한다는 말이 있지만, 평의원을 지칭하는 것인지 애매하다. ③ "director"의 정의도 모호하여 "Board of Directors" 라는 말이 갑자기 등장하고, ④ "trustee"는 "director"와 어떤 관계인지도 명확하지 않고 평의원의 역할도 정의되어 있지 않다. "재단이사회"와 "이사회"란 말의 혼용되고 있어 일견 총동창회 會長보다 위에 있는 듯이 보인다. 상호관계가 모호하다. ⑤ "관악이사회"는 韓國말로만 되어있고 英文에는 없다. 관악후원회는 어떤 관계인지? ⑥ 評議員會에서 총동창회의 사업을 심의 결정하는데, 평의원회의 機能("role function")과 權威("authority")를 분명히 해야한다. 評議員會가 의결기관이면 會長은 집행기관이며 理事會는 후원회로 보는 것이 옳지 않은가? 평의원회의 역할(role)이 잘 규정되어야 한다.

★ 이용락- 현행 會則의 문제점을 강위원이 지적했다.

★ 강경식- 결국 지역동창회와 총동창회의 유대관계를 어떻게 유기적으로 활성화할 것인가가 회칙 개정 방향의 중요과제이다. ① 구체적으로 "지부·분담금"의 명확한 개념(concept)이 필요하다. 회보구독료를 개인에게만 의존하지 말고 지역동창회가 분담금을 내는 것이 좋겠다. ② 두 종류의 평의원이 있다. 지역 동창회장은 당연직 평의원이며 선출된 평의원도 있다. 평의원의 數를 늘리기 위해 미주 단과대학 전체 동창회 책임자를 당연직으로 평의원이 되게 하면 좋겠다. ③ 또 평의원회의 참여도를 증가시키기 위해 평의원 會費제도를 고려해 보는 것이 어떨겠는가? 지금은 自費로 참가하고 있는데, 지역동창회 예산에서 지불하면 참여도가 높아질 것이다. ④ 또 동창회 기금 모금위원회를 만들면 좋을 듯하다. 현재 재정관리면(financial management role)에서 총동창회는 충분한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 이용락- 각자 오늘밤 생각한 바를, 내일 평의원회의에서 姜위원에게 자세하게 의견을 개진하면 좋겠다.

★ 오인석- 지난번 개정된 會則

안은 金容學 변호사(법대 57년 졸, 제 5대 사무총장)가 수고하여 작성했다. 동창회보 87호와 88호에 실린 개정 이유서를 참조하여 현행 회칙의 精讀이 필요할 것이다. 會則 때문에 동창회 활동 재원의 募金이 안 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 강경식- 理事會와 會長의 관계는 나에게도 여전히 모호하다. 개정이유서는 안 봤지만 用語의 통일성이 없다. 저의 아들도 변호사인데 변호사도 실수가 있지 않겠는가?

★ 윤정옥- 회칙위원 5명중에서 단지 2명만 참석했나? 현재의 회칙도 10차 평의원회의에서 검토한 것이다. 이 자리에서 회칙을 개정하자는 것은 아니지 않겠는가? 현행 회칙의 잘못만을 지적하는 보고는 삼가야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 이용락- 오늘은 시간관계상 이 문제의 토의는 종결하자. 인선위원회는 평의원에서 구성을 결정했지만 회칙에는 없다. 우리 재미총동창회의 발전의 과제는 평의원회의 활성화라고 본다. 평의원회의 총회와 마찬가지로 평의원수는 현재 70명 이하이며 재정적의무도 없다. 작년에는 책정된 지역 분담금도 제대로 실행 않았다. 평의원수도 늘리고 會費(Due) 개념 도입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역대 재미총동창회장, 관악후원회 부회장 및 사무총장도 당연직 평의원으로 하는 등 회칙의 일부를 보강하는 문제의 검토를 제의한다.

★ 강경식- 前任者[현행 英文회칙을 제정한 집행부]의 잘못을 비난하는 뜻은 없다. 用語의 문제는 개정할 필요 있으나, 이 자리에서 당장 하는 것은 아니다.

★ 오홍조- 내년에 남가주에서 회칙개정에 대한 腹案이 있다. 차후 2년 동안의 이 문제에 대한 방향 설정은 이 자리에서 아니고 나중에 설명하겠다. 그때 회칙의 개정도 논의하고 이 문제는 여기서 끝내자.

4. 박윤수 인선위원회 위원장 발표(요지)

★ 박윤수 : 인선위원회의 형성 과정 운영방향을 보고하며 이에 대한 여러분의 참여(input)가 필요하다. 2001년 6월 10차 평의원회에서 시카고 인선위원회 구성이 결정되어 전 회장 5명과 차기 회장 등 6명이 위원으로 결정되었다(박윤수, 강수상, 이병준, 오인석, 이용락, 오홍조).

이번 평의원회를 앞두고 지난 4월 18일 인선위원회를 가동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가동동기는 총회에서 시간과 노력낭비를 막기위해 서신으로 인선위원장 결정을 투표

하여 본인이 의장으로 결정되었다.

인선위원회는 무슨 일을 할 것인가? 회장후보를 접수하여 회보에 공고하여, 평의원 전체회의에서 추대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이번 동창회보에, 3명의 후보자의 소신과 추천서가 공개된 것은 잘못 된 것으로 생각한다. 동창회장 선거는 政治的인 행사가 아니므로 친목단체의 봉사자로 추대하는 형식이 좋다고 생각한다. 입후보자는 인선위원회를 통해야 하며 단일후보 보다 2명을 추천하여 총회에서 결정함이 좋을 듯 하다. 3명의 후보 중 낙선자의 자존심의 문제도 있고 하니, 인선위원회가 검토 후 1명을 추대하여 총회에서 결정함이 옳은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자세한 운영세칙 필요하며 여러분의 의견(input) 수렴이 필요하다. 관악후원회 부회장 선출도 인선위원회에 맡기면 좋겠다. 각 지역에 기회를 주자.

★ 이용락- 이번에 3명의 후보자가 나온 것은 큰 문제는 없다고 본다. 인선위원회의 권한도 평의원회에서 결정되는 것이다.

★ 이상문 - 인선위원회에서 후보 중 複數 추천을 하여 평의원회의에 상정하는 것이 좋겠다.

★ 박윤수- 낙선한 후보자의 자존심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 이재신- 인선위원회 역할을 바로 하자. 회보에 발표된 내용대로 처리함이 옳다.

★ 강경식- 이문제도 현행 회칙의 문제점을 반영하는 사례의 하나이다.

★ 한창섭- 4개 도시 순번제 방안도 非民主的이나 우리동창회의 현실에는 맞는 것이 아닐까? 회칙개정의 필요가 있다면 개정하자. 인선위원회는 선거 관리역할로 보아야 한다.

★ 방석훈- 지금 평의원 67명의 명단도 없고 회칙도 없다. 내일 회의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라.

★ 박윤수- 내일 인선위원회가 모임을 갖자.

★ 김정주(진행자)- 오늘은 심포지움 주제발표의 날이라, 자료준비가 미비되었지만 내일은 평의원회의에는 모든 자료가 준비됩니다. 내일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 8시 조찬회가, 북창동 순두부(8시-9시) 식당에서 임광수 총동창회장님의 초대로 있습니다. 10시부터 평의원회의가 이 장소에서 개최되며 점심도 이곳에서 제공됩니다. 별도로 가족관람을 위한 일정이 있으며, 오후 6-9시 30분 미주관악후원의 밤이 있습니다.

★ 이용락- 오늘 심포지움을 폐회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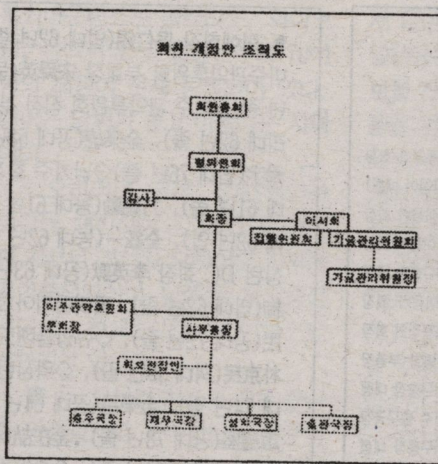
<이 심포지움의 기록은 김종원(문리대 69년 입), 홍혜례(사대 76년 졸)동문과 박미경씨가 현장에서 속기한 것을 토대로 김정수 회보 편집인(문리대 69년 입)이 정리한 것임.





### 재미서울대학교총동창회 會則개정안 요지

\* 편집자주 : 재미서울대학교 총동창회(제 6대 회장 이용락, 2001년 7월 1일부터 2003년 6월 30일 재임)는 2002년 6월 15일 시카고에서 개최된 11차 정기평의회에서, 총동창회 창립 10주년 기념 前夜論壇과 금년에 창립 12주년을 맞이하여 21개 지부를 가진 재미총동창회가 同門과 모교의 발전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미주한인사회에도 기여하는 有機的인 조직으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現行會則의 補完을 위한 토론회를 가진 바 있다. 또한 12차 평의회 본회의는 姜慶植(문리대 59년 졸업)뉴잉글랜드 평의원 겸 평의회 회칙위원에게 제 13차 평의회에서 이 회칙개정안의 문제를 본격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연구준비를 주도하도록 決議하였다. 재미서울대동창회보는 同門들의 會則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現행 재미서울대학교 총동창회의 現行 英文會則定款 條章의 배경에 대하여 여기 간략히 설명하고자 한다. 2001년 6월 1일에 창립된 재미서울대학교 총동창회는 초대 박윤수 회장 재임시(1991년 6월 1일부터 93년 5월 31일) 제정된 國文회칙을 바탕으로 2대 강수상 회장 재임시(1993년 6월 1일부터 95년 5월 31일)에 당시 동창회보 발간을 주도하던 재단이사회와 총동창회 집행부가 분리된 二元의 구조의 문제점이 논의되었다. 이에 따라 개정된 國文회칙은 1997년에 이병준 3대 회장때(1995년 6월 1일부터 97년 5월 31일) 발간된 재미서울대 총동창회 會員名簿 7면에서 16면에 "총동창회 재단 정관"과 함께 수록되어 있다. 또한 재미총동창회는 1994년 12월 Delaware 州에 非營利 法人 등록을 위한 法人憲章(Certificate of Incorporation)을 기초하여 그 英文定款과 함께 1997년 1월에 IRS(미연방조세청)로부터 非營利 法人의 免稅지위를 획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오인석 제 4대 및 제 5대 회장 재임시(1999년 6월 1일부터 2001년 6월 30일) 2001년 6월 15일 10차 평의회에서 書面회의를 통한 평의원의 議決을 거쳐 現행 英文회칙의 制定을 확정하였다. 이 회칙은 "美利堅岳後協會" 장남과 "非營利機關"(Not-for-profit organization) 등록에 합당하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이 英文회칙은 제 10차 평의회에서 앞두고 "회칙개정안"으로서 그 概要說明과 함께, 2001년 5월 1일자 재미서울대동창회보 87호의 22면부터 30면에, By-Laws(定款)와 Certificate of Incorporation(法人憲章)의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수록되었으며 兩者간에는 後者가 前者에 優先한다고 되어있다. 또한 동창회보 88호 5면에는 "회칙개정안" 요지의 설명이 게재되어있다. 그 설명문에는 [당시 회칙 위원장 제 5대 사무총장 김용환 동문이 기초한 것으로 추정됨] 現행 英文회칙과 그 이전 國文회칙의 차이점을 간결하게 잘 설명하고 있으므로 이를 동창회보 88호에 게재된 그대로 앞으로의 회칙 개정을 위한 참고 자료로서 여기에 다시 수록한다. 제 12차 평의회 기간중 평의원의 활성화 방안 등 회칙개정에 대한 과제들에 대한 논의는 이번 동창회보 前夜論壇과 評議員會 會議錄을 참고하시기 바란다.



서 선출, Delegate 선출을 위한 지부 회원총회의 정족수를 10명으로 규정, 지부별 Delegate 수는 Delegate 회의(평의회)에서 결정, 지부 회장 및 차기 회장 선출동문은 Delegate 결의(Article 13).

4. 지부와 총동창회의 관계 정립: 지부는 관할 영역 문제에 대한 독립적 총괄책임, 총동창회는 지부 상호간 협조가 필요한 일 및 전국적 문제에 대한 책임, 지부간 관할 문제에 이견이 있을 시 평의회에서 조정(Article 4).

C. Delegate 회의(평의회)

1. Delegate 회의는 이사선출 권한을 갖는 이의 현행 평의회와 동일한 권한을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현행 평의회 구조를 유지, 예를 들어 평의원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총동창회 명예회장, 회장, 사무총장, 관악후원회 부회장, 직전 사무총장에 Delegate 자격 부여, 결과적으로 "평의원" 또는 "평의회" 명칭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Article 12).

2. 평의회 권한을 세부 나열 및 명문화(Article 11).

D. 회장 및 집행부 임원

1. 현행과 같이 평의회가 회장 및

수석부회장 선출, 수석 부회장은 차기 회장직 수락을 전제로 선출함을 명문화, 역시 현행과 같이 사무총장 및 관악후원회 부회장은 회장의 제청 및 평의회 동의로 임명.

E. 이사회

1. 평의회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총동창회의 운영 권한을 이사회에 일임, 다만 IRS의 비과세 법인 인정의 기초가 된 현 법인헌장의 기초 유지를 위하여 기금 모금 및 출연에 대한 심사 및 의결 권한은 이사회가 갖도록 규정(Article 15).

2. 집행위원회 및 기금관리위원회 등 분과위원회를 두어 이사회 권한을 행사하도록 규정(Article 17).

3. 집행위원회는 회장, 명예회장, 사무총장, 관악후원회 부회장(및 기타 선출이사)로 구성하고 회장이 회의를 주재하며 총무국장, 재무국장, 출판국장, 섭외국장 등 임원 선출, 총동창회 운영 및 관악후원회 모금 및 관리에 관한 이사회의 권한을 행사함, 실제적으로 현행 임원회의의 기능을 행사함(Article 17).

4. 모교와 후진 지원 100만불 기금 모금 및 관리의 투명성 및 안전성 도모를 위하여 기금관리위원회를 두어 모교발전기금 등 특별기금 모금, 관리 및 출연에 대한 이사회 권한을 행사하도록 함, 안정성 도모를 위하여 각 기금관리위원(Trustee)의 임기(5년)를 집행위원회 이사의 임기(2년)와 구분하고 3등분하여 평의회에서 연차 선출토록 함, 기금관리위원회는 총동창회 회장을 역임하였거나, 총동창회 발전에 현저한 기여를 한 동문, 또는 기금 관리, 기금모금, 회계, 법 분야에 오

래 종사한 동문중에서 선출할 수 있도록 규정(Article 18).

5. 기금관리위원회는 기금관리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며 기금관리위원장은 평의회에서 선출함, 기금관리위원장은 기금관리위원회의 기금 모금 및 관리에 대한 결의내용을 집행할 책임을 지고 기금관리위원회는 기금관리위원장의 업무를 지원하는 집행위원을 선출할 수 있도록 함.

6. 회장과 기금관리위원회의 업무연계 및 협조를 위하여 회장은 당연직 기금관리이사가 되고, 회장은 기금관리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외부기관으로부터의 모든 출연신청 접수 창구를 회장으로 일원화함(Article 24).

F. 기타

1. 회칙의 내용을 회사법에 따라 법인헌장(Certificate of Incorporation)을 상위법으로 정관(By-laws)을 하위법으로 하는 이원 체제로 구성함, 법인헌장은 동창회 구조에 대한 일반원칙을 규정하고 정관은 세부사항을 규정.

2. 새 회칙은 2001년 6월 1일부로 발효하도록 규정(Article 32).

3. 현재 모든 평의원은 현행 임기 완료까지 새 회칙상 평의원으로 간주하는 경과 규정, 현 회장 및 집행임원에 대하여도 유사한 경과 규정(Article 33).

4. 종전 모든 평의회 결의사항은 새 회칙과 모순이 없는 한 새 회칙상 평의회가 결의한 것으로 간주하는 경과 규정, 따라서 예를 들어, 미주관악후원회 세칙, 출판위원회 세칙, 회칙위원회 세칙 등은 계속 유효함(Article 33).

5. 종전 평의회 결의로 구성된 현행 임시 이사회의 의결사항은 새 회칙상 이사회가 의결한 것으로 간주하는 경과규정(Article 33).

- [동창회보 88호(2001년 6월 1일자) 5면에서 전제]
- A. 회원의 권한 회원총회, 이사회의 신설
- B. 회원 및 지부
1. 현행회칙에 맞게 모든 입학동문에 회원자격 부여, 그러나 소속지부 "회비"납부자에 한하여 투표권 부여.
- 소속지부 회비납부를 총동창회 회비납부로 간주(Article 6, 7).
2. 회원총회 정족수를 전체 회원수의 20%로 규정(Article 9), 그러나 원총회 개최의 현실적 어려움으로 "Delegate"제도를 신설, Delegate가 회원의 권한을 대신하도록 함(Article 11).
3. Delegate는 각 지부 회원총회에

### 미주한인 이민 100주년 기념 재미서울대학교 총동창회 선언문(草案)

<서문>  
美利堅 韓人移民 백주년의 해를 맞이하여, 창립 12주년을 맞이하는 재미서울대학교 총동창회는 7천여 同門들이 서로 돕고 사랑하여 서로의 發展을 격려하며 創意的인 學者와 우리들의 祖國과 世界에 기여하는 큰 人才들을 키우는 서울대학교의 발전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美利堅 人社會의 발전에도 기여하는 조직이 되고자 한다. 이에 2002년 6월 15일 시카고에서 열린 제 11차 評議員會의 이민 백주년 기념 선언문 기초 決議에 따라 미래의 동창회 활동을 통하여 추구할 목표와 실천방안의 靑寫眞으로서 이 선언문을 2003년 5월 31일 LA에서 열린 제 12차 평의원의 전야는단과 본회의의 심의를 위하여 이를 기초하며, 이를 바탕으로 동문들의 의견을 모아 미주한인사회에 기여하는 재미서울대 총동창회의 정신을 구현하고자 한다.

<사업목표>

1) 본 동창회는 미주 한인사회의 건전한 이민정신을 확립하고 악습을 퇴치하는데 적극 참여한다.

2) 본 동창회는 미주 동문의 후세들에게 모교의 재학생과 또는 동문의 자녀와 의 빈번한 교류를 통하여 고국 관을 확고하게 심어준다.

3) 본 동창회는 서울대학교를 세계적인 학문의 전당으로 발전시키는데 적극 지원하고 참여한다.

4) 재미서울대학 동창회보와 동창회 WEBSITE를 미주 교민사회와 보다 친숙한 길잡이로 발전시킨다.

5) 이상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실천하기 위하여 전 미주 총동창회와 미주 각 지부의 조직을 가능한 한 통일 시키고 해당사업을 관장, 집행한다(정기총회때 그 결과를 보고한다).

<실천방안>

1) 본 동창회는 미주 한인사회의 건전한 이민정신을 확립하고 악습을 퇴치하

는데 적극 참여한다.

가) 이민 100주년의 역사 속에서 우리의 삶과 정신에 형성되어 가고 있는 장점과 단점을 분석하고

나) 또한 건전한 이민문화와 가진 민족들의 이민사를 연구하여 그들의 장점들을 정리하여

다) 우리 이민생활의 확실하고 건전한 지표를 마련하여 이를 생활화하기 위한 계몽 캠페인, 표창 등을 통하여 꾸준히 그리고 적극적으로 노력한다(이상의 사업들은 이민 100주년 기념사업회와 연계를 가지면서 지원 및 협조토록 한다).

라) 이민 1세대와 2세대와의 합동모임이나 대화의 장을 정기적으로 마련하여 세대 차이를 좁혀간다.

2) 본 동창회는 미주 동문의 후세들에게 모교의 재학생과 또는 동문의 자녀와 의 빈번한 교류를 통하여 고국관을 확고하게 심어주도록 한다.

가) 미주 각 지역 동창회별로 우리의 2세대들과 모교의 재학생과의 다방면으로 만남의 기회를 마련해준다(예: 미국초청, 모교방문 연수, E메일 등).

나) 민주 동창회와 모국 동창회의 자녀들 또는 동문간의 정기적인 교류를 마

련한다.

3) 본 동창회는 서울대학교를 세계적인 학문의 전당으로 발전시키는데 적극 지원하고 참여한다.

가) 본 동창회는 각 지역동창회와의 협조와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각 분야별 최신 학술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여 모교에 수시로 제공한다.

나) 또한 모교에서 요청하는 자료 또는 시간간섭을 조달해준다.

4) 재미서울대 동창회보와 동창회 WEBSITE를 미주 교민사회와 보다 친숙한 길잡이로 발전시킨다.

가) 각 지역 동창회별로 관악후원회를 확대시켜 회원 수를 늘려 나간다.

나) 각 지역 동창회별로 동문 찾기 운동을 벌여 동창회보의 구독자를 늘리고 광고계제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다) 이러한 재정적인 뒷받침으로 동창회보와 WEBSITE의 질적, 양적 향상을 이루어 이민 동포 사회에도 유익하며 호응을 받는 미디어로 발전시켜 나가 독자성을 동포사회로 확장함으로써 이민사회의 등불의 역할을 한다.

라) 이는 또한 전 미주는 물론 전 세계에 산재하고 있는 동문들간의 긴밀한 유

대관계 및 교류를 이워 동문들의 지적, 지적, 물질 자원의 힘을 모아 필요시에 조국과 이민 사회에 공헌 할 수 있도록 한다.

◆ 이상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실천하기 위하여 전 미주 총동창회와 각 지부의 조직을 해다 사업별로 가급적 상호 통일, 일관성 있게 재편성함으로써 해당사업을 원활하고도 효율적으로 실천해 나간다(보다 확실한 실행을 위해 매년 열리는 정기총회때 그 결과를 보고토록 한다).

◆ 필수적으로 필요한 조직

1) 이민 정신 연구, 계몽팀

2) 2세대 교류 추진팀

3) 관악후원회

4) 동창회보 및 WEBSITE 편집팀, 동문찾기 운동팀과 광고 전담팀

\* 차기 평의회 결의(사전 서면결의)를 통하여 상기 필요한 조직을 개편토록 한다.

2003년 5월 30일 재미서울대학교 총동창회 미주한인이민 백주년 기념 선언문 기초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장 오홍조(재미서울대학교 총동창회 수석부회장)



재미 서울대학교 중동창회 제 12차 전국 평의원회 회의록 제12차 評議員會 평의원(67명)과 신설지부 대표자 명단(별드체는 참석자임)

제 12차 정기 평의원회 회의순서

2003년 6월 31일 토요일 10:00 A.M. - 4:00 P.M. 사회 이용락회장  
Radisson Wilshire Plaza Hotel (T.F.: 213-381-7411) 진행 김정주 사무총장대행  
3515 Wilshire Blvd., I., A. CA 90010

1. 개회선언-----이용락 재미서울대학교중동창회 회장
2. 성원보고-----구경희 사무총장(김정주 총무국장 대행)
3. 별세동문 및 가족에 대한 묵념-----이용락 회장
4. 본국 순방단 소개-----이용락 회장
5. 평의원 소개-----사무총장 대행
6. 회장인사-----이용락 회장
7. 본국 중동창회장 격려사-----임광수 서울대학교중동창회 회장
8. 모교 부총장 격려사-----정병희 부총장
9. 신설지부(로키마운틴즈, 오하이오) 창립 인준 & 신설 평의원 소개-----사무총장 대행
10. 전 회의록 낭독 및 승인-----김정주 총무국장
11. 재미 서울대 중동창회 제 6대 집행부 사업보고-----사무총장 대행
12. 모교와 후진을 위한 기금보고-----오인석 기금 위원장
13. 미주 관악후원회 사업보고-----송순영 관악후원회부회장
14. 결산보고-----전현일 재무국장
15. 감사보고-----김재영/박영규 감사
16. 회보 편집인 보고-----김정주 편집인
17. 공로패 시상-----이용락 회장
18. 각 지역 동창회 현황보고-----각지역 동창회장
19. 제7대집행부 임원(관악후원회부회장, 사무총장 및 감사 2인) 및 집행부 임명직 선출-----오홍준 차기회장
20. 2003/4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오홍준 수석부회장 및 7대 집행부 소관 임원
1. 미주 중동창회 2003/4년 동창회보 발행 지원금 책정안-----차기 사무총장
2. 모국 중동창회 2003/4년 지부분담금 책정안-----차기 사무총장
3. 재미 서울대 동창회보 발간형태 변경에 관한 건-----차기 출판국장
4. 공지사항-----차기 섭외국장
1. 지역동창회 Tax Exemption Status, 2. 신인회원 찾기와 등록을 위한 지역동창회의 협조
21. 제7대수석부회장 (8대 회장) 선출-----박용수 인선위원장/이용락 회장
22. 특별위원회 위원선출(회적위원, 편집위원, 기금관리위원)-----이용락 회장
23. 기타토의사항-----사무총장 대행
- 1 재정자립없는 지부의 존립문제 2 평의원 증원과 평의원회내 제도 3 관악후원회비 모금
24. 차기 회장 인사-----오홍준 수석부회장
25. 폐회선언-----이용락 회장

▶ 명예회장 吳仁錫(법대 62년 졸), 재미 중동창회장 李龍洛(공대 53년 졸), 수석부회장 吳興祚(치대 61년 졸), 미주관악후원회 부회장 宋舜英(문리대 56년 졸), 사무총장 具璟會(의대 65년 졸), 직전 사무총장 金容喆(법대 75년 졸), 미주 관악후원회 직전 부회장 金基泰(법대 74년 졸) ◇뉴욕 지부 회장 金鐘律(사법대 55년 졸), 韓昌燮(문리대 62년 졸), 金榮德(공대 58년 졸), 崔洙容(상대 60년 졸), 尹炬玉(약대 54년 졸), 李典九(농대 64년 졸), 楊舜宇(법대 76년 졸) ◇남가주 회장 郭鐵(법대 68년 졸), 任洛均(약대 68년 졸), 李清光(상대 68년 졸), 徐永錫(의대 61년 졸), 方錫勳(농대 61년 졸), 全熙澤(의대 64년 졸), 金建鎭(문리대 62년 입) ◇시카고 회장 張基南(문리대 62년 입), 全錫一(농대 62년 입), 宋宰鎡(의대52년 졸), 姜和英(문리대 56년 졸), 蘇鎭文(치대 62년 졸), ◇워싱턴 DC 회장 李英默(공대 63년 졸), 朴平一(농대 69년 입), 陳今燮(약대 63년 졸), 方恩鎬(약대 45년 졸), 白梅(법대 62년 졸), 필라델피아 회장 金溶植(약대 70년 졸), 金國幹(치대 64년 입), 姜英培(수의대 63년 졸), 徐重民(공대 72년 졸), ◇뉴잉글랜드 회장 李在新(공대 62년 졸), 鄭正旭(의대 66년 졸), 姜慶植(문리대 59년 졸), 朴京民(의대 59년 졸), ◇워싱턴주 회장 李惠淑(문리대 62년 입), 許允行(사대 57년 입) ◇휴스턴 회장 李鎭鉉(의대 74년 졸), 金榮昌(공대 64년 입) ◇마네스타 회장 王奎賢(의대 56년 입), 金權植(공대 61년 입) ◇조지아 회장 趙德盛(공대 78년 졸), 金在喆(공대 69년 졸) ◇샌프란시스코 회장 鄭助雄(공대 60년 입) 林承快(문리대 70년 졸), 鄭地善(상대 64년 졸), ◇오레곤 회장 鄭聖國(문리대 73년 입), 羅濟寬(공대 76년 졸) ◇유타 회장 韓成洋(문리대 69년 졸), 孫洪鏞(공대 62년 졸) ◇하와이 회장 金昇泰(의대 63년 졸), 具海根(문리대 66년 졸) ◇하트랜드 회장 李相文(상대 61년 졸), 李載明(의대 65년 졸), 金好元(치대 56년 졸) ◇아리조나 회장 尹成洙(공대 51입), 崔允根(공대 63년 졸) ◇달라스 회장 李秉規(약대 61년 졸), 崔權子(약대 68년 졸) ◇중부펜실베이니아 회장 이재용, 박종훈 ◇캐롤라이나 회장 金機鉉(문리대 56년 졸), 鄭良秀(의대 60년 입) ★(신설)로키마운틴즈 회장 金奉鎰(공대 68년 입), 金明鎬(의대 69년 입) ★(신설)오하이오 회장 崔甲甲(공대 57년 입), 鄭吉和(의대 59년 입)▶(신설지부 인준후 로키마운틴즈의 김병전, 오하이오의 金東光(공대 67년 졸) 및 李秀子(공대 66년 졸)는 평의원 자격으로 토론과 의결에 참가하였음

▶ 참석 평의원 대행(7명) 명단 : ①金正周(문리대 64년 졸, 재미중동창회 총무국장, 구경희 평의원 대행), ②李俊行(공대 54년 졸, 뉴욕 김영덕 평의원 대행), ③鄭澤洙(문리대 50년 졸, 뉴욕 최수용 평의원 대행), ④李名相(문리대 63년 졸, 남가주 전회택 평의원 대행), ⑤朴泳圭(농대 61년 졸, 시카고 강화영 평의원 대행), ⑥朴允洙(문리대 52년 졸, 초대 중동창회 회장, 워싱턴 DC 백순 평의원 대행), ⑦趙時豪(문리대 63년 졸, 휴스턴 이진현 평의원 대행)

▶ 투표권 위임장을 제출한 평의원(5명) 명단 : ①김용학(재미중동창회 5대 사무총장, 이용락 중동창회장에게 위임), ②이전구(뉴욕, 김중을 뉴욕회장에게 위임), ③양순우(뉴욕, 김중을 뉴욕회장에게 위임), ④진금섭(워싱턴 DC, 이영목 워싱턴DC 회장에게 위임), ⑤정양수(캐롤라이나, 이용락 중동창회장에게 위임)

▶ 참가자  
李丙俊 고문(재미서울대중동창회 3대회장), 서울대학교 중동창회에서 金在淳 명예회장, 林光洙 회장, 韓斗鎭, 孔大植 부회장, 관악회 明泰鉉 이사, 약대 동창회 李禮植회장, 공대동창회 禹仁性부회장, 許宣사무총장, 정민호 동창회보 기자: 母校에서 鄭明熙부총장, 柳振培기획실장, 邊昌九교무부처장, 李美娜학생부처장, 盧慶秀대의협력본부장, 金基稟 前학생처장(현재 UCLA 교환교수); 김정수(문리대 69년 입) 회보편집인, 기록원 김중원(문리대 69년 입), 홍혜례(사법대 76년 졸), 박미경(동창회보 편집실), 이종도(차기 사무총장), 라철삼(차기 편집인), 조무상(남가주 웹마스터), 백옥자(차기 총무국장), 한혜은(남가주), 홍옥자(남가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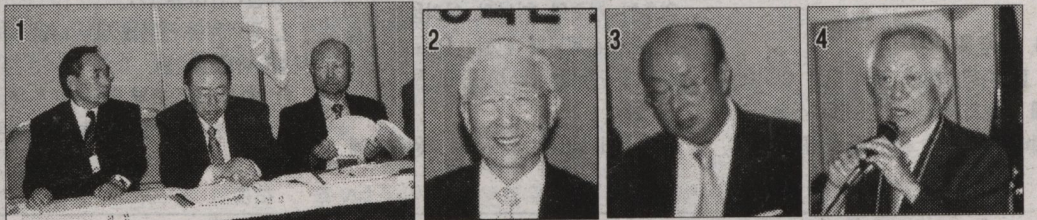


사진 평의원회 본회의장 착석순서 1. 중동창회 순방단 허선, 우인성, 공대식 2. 명태현 3. 이병준(재미중동창회 고문) 4. 김재순 5. 이예식, 한두진, 오인석, 오홍준, 정병희 6. 임광수, 이용락 7. 송순영, 박용수, 이상문, 김호원 8. 모교순방단 김기석, 변창구, 이미나, 유근배, 노경수교수 9. 김기현, 조시호, 허영행, 홍혜례(뒷줄, 기록원), 박명일, 이영목 10. 방은호, 이재명, 김권식, 김봉전, 김정주(뒷줄, 사무총장 대행) 11. 임승재 12. 정조용, 정지선, 박경민 13. 정정욱, 강경식, 이재신 14. 정택수, 김중을, 이준행, 윤정옥, 한창선 15. 장기남 16. 전현일, 소진문, 박영규, 송재현, 이수자, 김동광, 김정수(뒷줄, 편집인) 17. 조무상(남가주 웹마스터), 이현광, 뒷줄에 라철삼 18. 곽철, 이명상, 방석훈, 임낙균, 서영석



제 12차 정기평의위원회 회의록

◇ 일시 : 2003년 5월 31일(토) 오전 10시 개최

◇ 장소 : Hollywood Room, Radisson Wilshire Plaza Hotel, 3515 Wilshire Blvd, L. A. CA 90010

◇ 진행 : 김정주 총무국장(구경회 사무총장을 대리하여) - 평의위원회 의를 시작하였다.

1) 개회선언(이용락 회장) - 지금부터 재미서울대학교 총동창회 제 12차 전국평의위원회회의의 開會를 선언합니다.

2) 成員보고(사무총장대리 김정주총무국장) - 오늘 평의위원회에는 67명의 평의원중 45명으로(83명 직접참석, 대리 7명 및 위임장 제출 5명) 의사 정족수를 넘었으므로 제 12차 평의위원회는 의사친행의 成員이 되었음을 보고한다.

3) 默念(이용락 회장) : 지난 1년 간 別世한 同門들을 위하여 추모 묵념을 올리겠습니다(일동묵념).

4) 본부 동창회 방문단 및 모교 방문단 소개(이용락 회장) - 이번 평의위원회에는 서울 총동창회에서 金在淳 명예회장, 林光洙 회장, 韓斗鎭, 孔大植 부회장, 關安희 明泰鉉 이사, 약대 동창회 李禮植회장, 公대동창회 禹仁性부회장, 許宣사 무총장, 정민호 동창회보 기자와 母校에서 鄭明熙부총장, 柳根培 기획실장, 邊昌九교무부처장, 李美娜학생부처장, 盧慶秀대의협력본부장, 金基爽 前학생처장(현재 UCLA 교환교수)이 참석하였다. 이에 한분씩 인사가 있었습니다.

5) 評議員 소개(김정주 사무총장 대행) - 참석하신 평의원[과 대행] 40명과 2개 신설지부 대표자 3인이 각자 자기 소개를 하였다. 이번 평의위원회 참석자 명단 참조

6) 李龍洛 재미서울대학교 총동창회 회장 개회사(요지) : 모교 및 총동창회 방문단과 기존 19개지부 및 신설 2개 지역동창회를 대표하여 예년에 비하여 많은 평의원이 참석한 것을 7천여 재미 동문들을 대표하여 환영한다. 2001년 취임 당시 동창회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이루고자 했던 목표들의 현주소에 대해 임기 중 마지막 평의위원회회의의 소감을 피력하고자 한다. 첫째, 우리 동문들의 知性에 상응하는 내용의 회보를 만들고자 노력해온 결과 큰 진전 있었다고 생각한다. 둘째 목표인 財政自立은 아직 미진하다. 앞으로 재정자립이 강구되고 필요한 회칙 개정도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母校와의 유대를 돈독히 하고 미주사회에 母校를 알리는 목표를 실천하기 위하여 기획하였던 '母校 음학대학생 미주순방 공연'이 지난해에 큰 성공을 거두었

는데 이는 총동창회와 모교의 지원에 힘입은 바 크다. 임광수 총동창회장과 정명희 부총장에게 감사드린다. 끝으로 참석하신 평의원들이 衆智를 모아 동문들의 긍지를 높이는 역사적 이정표가 될 회의가 되기를 바란다. (전문 14면 참조)

7) 林光洙 서울대학교 총동창회장 격려사(요지) : 미국사회에서 성공적인 삶을 사시는 재미 동문들에게 경의를 표한다. 6대 이용락 회장의 노고에 감사한다. 유기적이고 체계적 조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고 '자성과 우정을 글로써 나누는' 회보를 모토로 전 재미 동창들의 결속과 화합을 위해 일하신 임원진들에게 감사한다(장내 박수). 이번에 새 회장 및 집행부를 결정하고, LA로 총회본부가 이전하는데 지속적으로 캠퍼스의 낭만을 異國땅에서 재현해 주시기 바란다. 총동창회도 재미총동창회의 번영을 위해 적극 돕겠다.

또 母校는 국제과학논문 인용색인 지수가 1998년 세계 94위에서 지난해 34위로 올라 명실상부 세계적인 대학으로 발전하고 있다. 본국동창회는 모교발전을 돕고 동창회를 활성화기 위한 노력하고 있다. 첫째 동창회관을 새로 건립하기 위해 장소를 모색하고 있는데 현재 關安희캠퍼스 내로 이전하기로 하고 교수회관을 최적으로 결정하고 관계 당국과 협의 중에 있다. 장학사업도 활발히 전개하여 2002년도 말 24개 구좌의 특지장학금을 유치하는 등 총 13억 8천만원의 모금하여 총 운영기금이 91억원 되었다. 여러분들은 조국의 명예를 위한 소수의 Elite이며 서울대가 바로 서야 韓國이 산다. 우리 동문들은 고국의 품격을 높이는 엘리트 집단으로 조국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는 긍지와 자부심 갖자. 조국으로 가는 길을 묻거든 눈을 들어 關安희를 보라는 동창회의 모토를 우리 모두 기억합시다. (전문 14면 참조)

8) 鄭明熙 서울대학교 부총장 격려사(요지) : 재미 동문들을 이렇게 만나 뵈어 반갑다. LA는 미국과 한국의 특성을 동시에 품고 있다는 따뜻한 인상이다. 母校는 각고의 노력으로 의미 있는 교육을 시켜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를 기르겠으며 현재 당면한 대학의 위기를 도전으로 받아들이겠다. 이를 위해 재미동창회의 적극적인 성원을 당부하고, 재미서울대 총동창회의 발전을 기원한다. (전문 15면 참조)

9) 신설 2개 지부 인준 ★이용락회장- 지난 1년동안 로키마운틴즈 지부와 오하이오지부가 창립되었다. 이 두 지부의 인준을 동의한다.

- 록키마운틴즈 지부 소개(김봉전 회장) : 20번째 지부로 결성된 록키마운틴즈는 콜로라도, 와이오밍, 뉴멕시코 및 알칸소주의 70여 명의 회원이 현재 등록되어 있다. 덴버는 날씨가 좋고 아름다운 지역이다.

- 오하이오 지부 소개(최인갑 회장을 대신하여 김동광) - 21번째 지부로 결성된 오하이오 지부는 공업중심지이며 남쪽은 농업중심지인데, 현재 회원 120여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 두 신설지부는 소개가 끝난 후 만장일치로 지부설립이 인준되었다.

<이때 11:00경 김재순 서울총동창회 명예회장이 장내에 도착하여 회의를 돌며 참석자 전원과 악수를 나누고 격려사를 하였다>

★ 金在淳 서울대 총동창회 명예 회장 격려사(요지) : 그 동안 총동창회의 발전은 법대, 상대, 공대의 역할이 컸으며 현재 임광수 회장이 공대 출신이다. 이라 전쟁후 로마 제국에 버금가는 韓國이 된 美國에 거주하는 재미 동문들이 母校 발전에 많이 기여해 줄 것을 당부한다. 모교의 발전은 바로 조국의 발전이다. 國籍은 바뀌어도 母校는 바뀔 수 없다. 또 人生에서 만남이 얼마나 소중한지 기억해 주기를 바라며 맛있는 서울대인이 되기를 바란다. 끝으로 조국으로 가는 길을 묻거든 눈을 들어 關安희를 보게 하라! <격려사가 끝난 후 임광수 총동창회장과 김재순 명예회장은 퇴장하였다. 김정주 진행자는 뒷자리 고리를 벗고 편안한 자세로 본격적인 회의에 들어가자고 하였다>

★ 김정주 진행자- 10분간 휴식 하겠다. 회의장 밖에 음료수가 준비되어 있다. <휴식 후 본국 방문단은 퇴장하고 평의원 회의를 재개 하였다>

10) 11차 평의위원회의 회의록 낭독 ★ 김정주 총무국장- 11차 평의위원회 회의록 낭독은 회의자료집 속에 준비된 서면 보고로 대신 해도 좋을지 동의를 구한다.

■ 참석자 전원은 이를 받아 들여 11차 회의록 낭독을 서면보고로 대신하기로 하였다(내용은 동창회보 100호 참조).

11) 제 6대 집행부 업무보고 : ★ 김정주- 구경회 사무총장을 대신하여 2002'2003년도(2003년 5월 20일 현재) 사업보고를 하겠다. 총동창회의 중요 활동은 모교와 후진을 위한 기금, 關安희후원회 의 활동, 회보 발행 그리고 집행부의 활동으로 구분 할 수 있는데, 이중 본인은 동창회보 발행과 집행부의 활동에 관하여 보고하겠다고 했다(요지).

① 동창회보 발행에 관한 보고 - 뉴욕으로부터 이전 이후 제 90

호에서 110호까지 간행하였고, 편집방향을 집행부 활동 보도 중심에서 일반동문들의 소식과 글을 모아 일반동문들이 애착을 갖는 동창회보를 간행하고자 하여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 앞으로 111호(2003. 6.15)일자 발행에 이어 #112(6/28일자), #113호(7/28일자) 회보 3회를 더 발행 할 계획이다.

- 현재 주소 확인된 등록회원 4,789명의 가정에 동창회보를 발송하고 본국 및 캐나다지역 동창회 및 주재 대사관 및 영사관에 별도 발송하고 있다.

- 회보의 영구보존의 필요성에 따라 지금까지 발간된 모든 회보와 앞으로 발간될 회보를 University of Chicago, East Asian Library에 보존하기로 하며 도서 관측에 감사의 뜻으로 \$1,000을 기증기로 임원회는 결정했다. 초기 LA에서 발간했던 1-21호 까지 발굴작업에서 18호를 제외하고는 모두 찾아냈다. 이 자료는 미래 미주 한인인민사의 연구의 소중한 자료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 올해 구독료 납부 현황은 작년(1,391명)에 비해 저조한 1,085명이다. 지역동창회의 협조가 필요하다.

② 6대 집행부활동

- 동창회 지부 신설 : 작년도에 19번째 NC 지부에 이어 올해에도 20번째 지부로 록키 마운틴즈(회장 김봉전), 21번째로 오하이오(회장 최인갑)지부 창설하였다.

- 모교 음대 순화 음악회 개최 : 지난해 모교음대 재학생 순화연주단은 2002년 8월부터 2주 동안 8개 도시에서 9번의 공연을 가져 2,500명의 동문들과 관중들로부터 찬사를 받고 미주사회에 모교를 알리는 좋은 기회를 가졌다. 이 연주회를 연례행사로 정착시키고자 추진 중이다.

- 이용락 회장은 2차 회계년도에 3차에 걸쳐 서울 내방, 모교와 총동창회를 방문하였다. 2002년 7월 10일 총동창회 동창회보 편집회의 및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였고, 7월 16일에는 모교의 신임 정운찬 총장을 예방하였다. 2002년 9월 10일 방문에서는 서울 총동창회(임광수회장)와 모교(정운찬 총장)를 예방하여 성공적인 모교 음대 순화 연주회에 대해 감사 인사를 하였다. 금년 4월에도 총동창회와 모교를 방문하여 순화연주단 문제를 논의하였는데 재정관계상 2년에 한번씩만 공연하겠다고 하여 미주내 공연 비용을 각 주관 지역 동창회에서 출연하는 방식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다.

12) 母校와 後進을 위한 기금위원회 보고 (11:30)

★ 오인석 기금위원장- 지금까지 母校와 後進을 위한 \$848,000

모금되어 390,000을 母校에 송금하였고, 지금까지 119,000의 생명보험 및 유증약속이 있고 현찰납입 금액 639,000이다. 금년도에도 \$8,260이 출연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서면보고로 대신할 것을 동의한다. [지금까지 기금위원회 출연금 집계표 전체 69면 참조]

■ 재정이 있어 회의자료집 속의 서면보고로 대체하였다.

13) 關安희후원회 보고

★ 송순영 關安희후원회 회장- 關安희후원회비 납부 실적을 각 지역별 그리고 1,2차년도와 3,4차년도를 회의자료로 비교 보고한다[자세한 내용은 회보 100호와 110호를 참조]. 지난 2년간 남가주 2만여불, NY-5만 4천불, 시카고-5만 2천불, 워싱턴 DC-1만 1천여불, 휴스턴-5천 5백불 등이다[6대 집행부 1차년도에 114명의 지부 및 개인이 출연한 미주關安희후원금 \$62,670이 모금되었고, 2차년도에는 113명의 지부와 개인이 출연한 미주關安희후원금 \$64,361이 모금되었다].

★ 윤정옥 지역별 비교보고는 지역감정을 더욱 노출시키는 것이 아닌가?

14) 결산보고

★ 전현일재무국장- NY에서 사용한 보고 양식에 따라 당 회계연도 5월 15일 현재의 가결산을 하여 작년 및 올해를 비교한 것이 회의자료집에 있다. 그간 당회계년도 총수입은 \$125,881이며 총지출은 \$118,717이다. 아직 회계연도 마감까지는 한달반이 남아있다. 6대 집행부 2년동안의 회계정산서는 7대 집행부회의의 인수인계서에 포함예정이다.

★ 이명상- property \$5,000은 무엇인가? 조직의 연속성상 인계하는 것이 아닌가?

★ 전현일- 동창회에서 그간 구입한 컴퓨터 및 사무실 집기의 구입가격을 말한다. 물론 남가주에서 원한다면 이관하겠다.

■ 결산보고서는 회의자료집의 보고서대로 승인의 동의와 재청으로 결산보고서는 통과됨.

15) 감사보고

★ 박영규 감사- 재미서울대학교 5월 15일 현재 재무보고를 감사한 결과 입출금 및 은행잔고가 이상이 없다. 관례상 이번 감사보고를 하기로 된 LA 김재영 동문이 개인사정으로 불참하여 서면보고자료는 준비하지 못하였다. 감사보고서 승인을 동의한다.

★ 강경식- 구두감사보고를 추후 서면 배부를 조건으로 통과시키도록 개의를 한다.

<10면에 계속>



9면 평의원의회의록 계속>

■ 만장일치로 감사보고를 인준한다.

16) 서울대동창회보 편집방향

★김정수 동창회보 편집인- 이번 평의원의회에 많이 참석하셔서 동창회의 발전의 전망이 밝아져 기쁘고 감사하다. 회의자료집에 그간의 동창회보 편집원칙과 3부로 구성된 회보의 면구성에 대하여 따로 준비한 간략한 보고가 있으니 참고해 달라. (전문 16면 참조)

17) 공로패 시상

재미 총동창회의 발전을 위하여 수고한 동문들을 관악후원의 밤에 발표하여 시상하기로 함.

■ 재미서울대학교총동창회장 공로패 수상자 명단 : 김재순, 임광수, 이세진, 진금섭, 김재철, 방은호, 김일훈, 이윤모, 윤상래, 홍혜례 (수상자 공적사항 11면 참조)

■ 서울대학교총동창회장 공로패 수상자 명단 : 박윤수, 강수상, 한창섭, 한재은, 임낙균 (수상자 공적사항 11면 참조)

18) 지역동창회 소개

★ 남가주 광철회장- 웹사이트 운영 잘 운영하고 있고, 젊은 동문들을 유치하기 위한 관악연대 행사에 120명 모였다. Golf 타월 등 선물들이 준비되어 있으니 회의후 가져가시기 바란다.

★ 오하이오 김동광 대표- 이미 한 신설지부 소개로 대신하겠다.

★ 시카고 장기남회장- 시카고는 꽃이 많고 아름다운 도시니 놀러오시기 바란다. 시카고지역동창회는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동창회로 거듭 발전하고 있다.

★ 뉴욕 김종욱회장- 이번 본회의에 뉴욕대표가 5명 참석하였다. 12개 단과대학별 동창회에서 순번제로 회장직을 맡고 있으며, 친목행사로 연 2회 골프대회와 음악회 개최하고 있습니다. 또 60세 이상의 Golden Club이 있습니다. 재미총동창회 기여금으로 \$4,000을 선착으로 납부하였으며, 앞으로도 뉴욕은 많이 협조할 것이다.

★ 뉴잉글랜드 이재신회장 - 뉴잉글랜드는 미국문화의 본산이다. 이민 100주년 사업을 주도하고 있고, 북한 난민 구제 활동을 벌이고 있다.

★ 샌프란시스코 정조웅회장- 남가주의 북쪽 상한선이 불분명하여 샌프란시스코 지부의 구독료 납부자 모두가 남가주란에 게재되어, 1-2명만 샌프란시스코로 기재되어 불만이다. (폭소)

★ 록키마운틴즈 김봉전회장- 주소록 확장 중이므로 이 지역에 거주는 동문을 아시는 분들은 연락주시고, 스키, 등산, 여행을 오실 때는 언제든지 연락바란다.

★ 미네소타 김권식총무- 6.25 때 서울대와 미네소타대학은 자매결연하여 특별한 인연이 있다. 작년

도에 모교음대연주단 음악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다.

★ 워싱턴 DC 이영복회장- 모교 순회음악회의 수익금 전액을 Homeless들을 돕는 교회에 기부하여 미주사회에 母校의 이미지 제고하였다. 다 한인단체에서도 이 선례를 따라 행사 이익금들을 기부하고 있다. 분기별로 Newsletter를 발간하고 있고, 암투병 생활을 하는 동문(정우순)에게 성금을 모아(5천불) 드리기도 하였다. 이민 100주년 사업도 서울대 동문이 주축이 되어 추진하고 있다.

★ 워싱턴 허윤행 전회장- 워싱턴 DC가 아니고 州에서 왔다. 한국과 기후 지형 등이 매우 유사하니 고향생각 나시면 워싱턴으로 오십시오. 본인이 모텔을 경영하고 있으니 무료 숙박도 가능합니다. 지역 자원으로 세계 제일의 부자 빌게이츠가 살고 있어 \$1,000만쯤 기부금을 끌어낼 수 있는데, 빌 게이츠는 워싱턴 소재 단체에만 기부한다고 하니 그 방법을 강구해 봐야겠습니다.

★ 휴스턴 조시호 전회장 - 동문 150여명 중 절반이 공대출신이다. 동창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고, 친선 골프대회도 개최하고 있다. 장학금 모금을 위한 음악회를 개최하고 있다.

★ 캐롤라이나 김기현회장- 이곳에는 Pro Basket Ball 팀이 있고, Wright Brothers 첫 비행한 곳이다. 12월 행사 비행 100주년 기념행사가 있을 예정이다.

★ 하트랜드 이상문화회장- 6개주 (NE, KS, IA, OK, AR 포함)의 동문들이 소속한 지부다. 투자의 귀재 웨렌 배렛 20만불 짜리 집에서 10년 된 차를 타고 다니고 있다. 작년에도 동창회는 모교음대 음악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고, 장학금도 지급하고, 한글 학교에 기부도 많이 하고 있다.

19) 제7대 집행부 임원선출 및 인준  
■ 7대 동창회장 吳興祚(치대 61년 졸)- 회칙의 규정에 따라 현 수석부회장이 7대 동창회장으로 인준되다.

또, 오흥조 차기 회장의 추천에 따라, 평의원은 다음과 같이 만장일치로 선출하였다.

■ 차기 관악후원회 부회장- 李名相(문리대 63년 졸)

■ 차기 사무총장- 李種度(공대 70년 졸)

★ 회칙에 따라 평의원의회에서 선출하는 수석부회장과 감사선출은 뒷 순서에 이루어짐.

★ 이어서 오흥조 차기회장은 7대 집행부를 지원하기 위하여, 신문자립을 위한 '편찬위원회와 웹사이트 위원회'를 두어 신문발행과 동시에 웹사이트를 내용수정하며, 젊은 동문층을 동창회에 연결하기 위하여 관악연대위원회를 두기로 하였

다.

★ 강경식 - 편집위원회 회장, 관악후원회장 등의 "회장" 호칭을 재미총동창회 전체의 정규 기구 명칭과 혼동되니 "위원장"으로 바꿔줄 것을 요청한다.

★ 오흥조 차기 회장- 이를 "위원장"으로 개칭하겠다. 감사 2인 선출은 남가주지역에서 1인 감사와 선출될 차기수석부회장 지역에서 1인을 선출하기로 하였다. 평의원의회의 위임을 바란다(반대없음).

■ 오흥조 차기회장은 평의원의회의 위임에 따라 평의원의회의 종료후 감사로 남가주지역의 김경무(공대 69년 입) 동문과 워싱턴 DC지역의 이윤주(상대 63년 입)동문을 선임하였다.

■ 오흥조 차기회장은 제 7대 집행부 임원진을 [회의자료집에 발표되었으나, 이후에 수정 발표된 것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이 임명하였다.

★ 총무국장- 白玉子(음대 75년 졸)

★ 재무국장- 金載榮(농대 66년 졸)

★ 출판국장 겸 동창회보 편집인- 羅哲三(문리대 69년 졸)

★ 섭외국장- 趙尙遐(치대 70년 졸)동문. [또한 차기회장은 사무국의 지원인원으로 사무국장에 이경훈(사회대 83년 입), 회보편집실의 기자로 추철호(사회대 92년 입), 간사로 한혜은(사대 93년 입) 동문을 발표하였다. 이어서 2003/4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 차기 집행부의 동창회 운영방향에 대한 보충설명이 다음과 같이 있었다]

★ 이종도 차기사무총장- 현행 "新聞"의 형태를 "雜誌"형태로 변경하고자 한다. 나누어 드린 견본을 봐 주시기 바란다 이에 대하여 차기 동창회보 편집인이 보충 설명을 드리겠다.

★ 라철삼 차기 동창회보 편집인 - 현재 타브로이드판 동창회보를 잡지형태로 바꾸고자 한다. 표지는 칼러로 하고 내부는 현재 탁자위에 배포된 견본과는 약간 차이가 있을 것이다. 잡지형태로 바꾸면 비용이 절감되고 컴퓨터 편집이 가능하다. 또 보관이 용이하고, 광고주들이 선호하는 형태이다. 동창회보 재정자립을 위하여 광고가 필요하다. 이 견본에 수록된 업소소개광고는 가상광고이며 연 12회 게재하고 광고비는 한 업소당 \$100로 한다. 600개 업소를 수록하면 \$60,000된다. 각 지역동창회에서 광고주를 소개하면, 광고료가 입금되고 난 후 그 20%를 지역동창회에 되돌려 줄 예정이다. 많은 협조를 부탁한다.

★ 임낙균 웹사이트 위원장(남가주동창회 지원기구) - 남가주에서는 웹사이트 이용으로 젊은 동문들이 폭발적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snua.net). 이에 대하여 웹사이트 운영자의 설명이 있었다.

★ 조두상 웹사이트 운영 담당자- 슬라이드를 곁들여 설명하였다.

① 총동창회의 온라인으로 명단, 역사 등 뉴스보전, 정보교환 및 정서교류확대 웹사이트 기금 조성 행사는 매우 성공적이었다. ② 관악세대 동문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어 3개월 동안 100명의 회원 개발하였다. 공지사항, 뉴스 등 다양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③ 자랑스런 동문 내용 - 미주 선배들의 지난 자취와 업적을 발굴 영구히 보존, 뉴스 기록사진 및 동영상, 공지사항 및 칼레다 등을 종합적으로 수집, 보존함, 살아 있는 역사로 발전시키겠다. 동문들의 명단, 비즈니스를 온라인 정보화 한다. ④ 참여기회 및 동기부여로 e-mail 제공하고 있다(myname@snua.net). ⑤ e-shop 운영 : 기념품, 대학 간행물 구매 희망상품 공동구매, 소장품 판매 ⑥ 정보교환의 장, 대화의 장 마련 ⑦ 동문들의 문화활동을 지원하고 기록을 온라인으로 보존하며 현재 오흥조 동문의 백두산 기행 사진 및 작년 모교음악회 연주를 준비하고 있다. ⑧ 향후 2년간 웹사이트 확충을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 시간 및 공간을 초월하여 교류를 확대하고 문화를 공유하기 위한 동문들과 그 가족 후손들의 열린 마당으로 완성시킨다.

★ 이명상 차기 관악후원회 부회장- 재정확보 문제로 과거 동창회 운영에 애로사항이 많았다. 특히 5대 집행부는 많은 경비를 회장이 부담하여 동창회와 회보를 유지하였다. 관악후원회 조직 총동창회와 각 지역의 노력으로 구독료 증가 및 관악후원회원수 증가 미주총동창회와 각 지역동창회의 많은 동문들의 참여와 봉사 헌신이 절실히 필요하다. 광고수입을 개발하고 동창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최소한 인력 확보가 절실히 필요하다. 각 지역의 관악후원회 소위원회 조직결성도 필요하며 서로 연합 협력관계가 이루어질 때 동창회가 발전할 수 있다. 지역동창회와 긴밀히 협조하여 신문기사와 뉴스를 수집하고, 광고주 모집 그리고 관악후원회 후원금 모금하고자 한다.

★ 방석훈 회보편찬 위원장(남가주 동창회 지원기구) - 각 지역동창회에서 광고모집 업무를 수행할 분을 1인씩 추천해 줄 것을 요망한다. <차기 집행부의 계획에 대한 질의 및 응답>

★ 한창섭- 신문발행경비와 웹사이트 운영 경비를 비교 설명해 달라.

★ 라철삼- 잡지형태의 발행비용은 조판비는 시카고 인쇄비 4천불과 거의 비슷하다. 발송비용은 차후 결정(64페이지로 제작)될 것으로

정확하게 비교할 수 없다. 칼라광고를 7-8면으로 늘릴 수 있다. 웹사이트는 현재 운영비로 1200불씩 지불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3년간 예산이 월 500불(maximum)이다.

★ 강경식- 과거 과학기술자협회 회보의 경험을 미루어 신문에서 잡지형태로 바꾸어 발송시 약 8배 이상의 우송료가 부담될 것이다.

★ 나철삼- 무게는 약간 증가하나 잡지형태가 최소 3배쯤 경비가 증가될 것이다.

★ 박영규- 경제적 문제뿐만 아니라, 본인에게 매달 수없이 배달되는 간행물을 미루어 볼 때 동창회보의 문제는 우선 독자가 읽을 내용 구성 문제를 생각해야한다.

★ 김중욱- 평의원의회가 결정한다 해도 각 지역에서의 충분한 이해여부가 의심되나, 편집위원의 다수가 회보변경을 찬성했다니 차기 회장단의 의사결정을 존중하여 믿고 맡겨보자.

★ 박윤수- 현재 이민 100주년 웹사이트의 운영경험으로 보아 각 지역에서 웹사이트 활용량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임을 알아야 한다. 현실적인 문제 파악이 필요하다.

★ 윤정옥- 남가주지역 동문들의 구상이 매우 의욕적이다.

★ 강경식- 발행체제 변경이 없더라도 각 지역 동창회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

★ 김권식- 신문발행 체제 변경사항을 표결 처리를 동의한다.

■ 회보 체제 변경안에 대한 토의 종결 동의를 투표에 부친 결과 2/3 이상 찬성으로 토의 종결하고 회보체제는 7대 집행부에 일임하기로 함.

20) 지부부담금- 차기 집행부는 FY 2003/4도 예산안에서 광고료로 \$100,000 구독료 \$50,000, 종신이사비를 제외한 관악후원금 \$50,000과 지부부담금(기타) \$10,000등 \$210,000의 수입을 예상하여 재미서울대총동창회가 서울대총동창회에 연례적으로 납부해온 지부부담금 \$11,000불과 평의원의회 비용 \$10,000 등을 포함한 재미총동창회의 중심사업인 재미서울대동창회보 발간을 위한 경비등의 지출계획의 승인을 이종도 차기사무총장이 동의하였고(회의자료집에 포함된 예산안 참조) 이 예산안은 별다른 이의 없이 평의원의회가 가결하였다.

■ 내년도 지부부담금은 이 예산안의 통과로, 서울대학교 총동창회에 보내는 재미동창회 21개 지부부담금 \$11,000과 동창회보 발간을 위한 각 지부의 재미총동창회 회보 발간 지원금은 금년도와 같이, 차기 집행부에서 각 지부에 배정하여 모금한다.







<10면 평의원회의록 계속>  
21) 제 7대 수석부회장(8대회장 선출자)선출

★ 박윤수 인선위원장- 2001년 6월 9일 10차 평의원회에서 인선위원회가 구성되어 금년 4월 18일 가동되었다. 현재 동창회보에 게재된 3인의 회장 후보자 가운데 인선위원회에서 1인 회장 후보 선출을 위임하겠는가? 친목단체에서 競選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 (발안자 확인 불가)- 8대 회장 선출자를 인선위원회에서 결정하든지 평의원회에서 투표로 결정하든지 먼저 결정하자.

★ 김권식- 무기명 투표를 동의한다.

★ 이상문- 인선위원회에서 후보자를 선출하면 複數 추천하길 동의한다.

★ 한창섭- 회칙 11조의 규정인 "평의원회는 정기총회에서 議長을 선출하며 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는 조항을 개정할 것을 동의한다. 집행부 會長이 평의원회의 議長을 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평의원회의 의장은 가능한 小都市 출신으로 선출하고, 총동창회 會長은 大都市 4개 지역에서 순번제로 돌아가는 방식을 취해 二元化하는 회칙으로 개정을 동의한다.

★ 정택수- 인선위원회에서 선출한 후보로 회장을 선출하는 방식은 반대하며, 지금과 같이 4개 지역에서 순번제로 하는 방식이 현실적이다.

★ 오홍조- 회장 선출 방안은, 오늘 회의시간 절약상 이를 7대 집행부에 委任해 주면 연구검토하겠다.

■ 이 委任案은 장내에서 반대가 많아 표결에 붙었으나 否決됨.

★ 강경식- 동문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會則을 보완하고, 작은 소도시에도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평의원들은 시카고로 6대 회장을 결정시, 뉴잉글랜드 박경민 후보의 경우를 상기해 주기 바란다. 4대도시(Big Four)만 고집하지 말았으면 한다. 현행제도의 문제점이 지적되면 이를 존중하여 토의해야 하고, 評議員들의 의견이 존중(input)되어야 평의원들의 총동창회의 활동에 참여의지가 있지 않겠느냐?

★ 이용락- 회장선출 방안을 투표로 결정하자.

★ 김중을- 지금 이 자리에서 투표하는 것은 반대다. 종전대로 順番制를 존중하고, 뉴잉글랜드, 하트랜드 등 다른 소도시 지역도 순번에 포함시키고 감당하지 못할 지역에서는 순서를 뛰어넘기로 하면 된다.

★ 박경민- 身上發言을 허락해 달라. 5년 전 본인에게 차기 회장

직을 맡아주도록 제의가 있었으나, 시카고의 이용락 선배님께 양보하였다. 그러나 그 다음 7대 집행부를 결정할 때에는 본인에게는 아무런 양해를 구한 바도 없이 바로 LA로 집행부가 결정되었다.

★ 이용락 -이번에는 민주적으로 인선위원회를 만들었다. 그 당시와는 상황이 틀린다. 그때는 5대 집행부에서 단독 결정하여 통보하여 평의원의 의견을 타진하는 식이었다. 민주적 절차가 아니었다. 오홍조 차기회장은 제 10차 평의원회에서 선출되고 인준한 것이 아닌가?

★ 오인석(4대 및 5대회장) - 그 당시 상황을 설명하겠다. 내 불찰이니 박경민 선배님의 양해를 구한다. 4대회장 임기 종료 당시 차기 회장을 본인이 연임하기 어려웠으며, 당일 바로 5대 회장직을 이행해야 하는 상황이라 1년 후에는 총동창회를 맡을 수 있다는 시카고 지역의 의사를 받아들였다. 그 다음엔 박경민 선배에게 넘기기로 하고 이용락회장께서 선출되었다. 앞으로 大都市 순번제 사이에 中, 小都市를 끼우는 것이 어떤가? 이번 LA에서 하는 총동창회 운영방안에 대한 설명을 보니 財政확보의 문제가 解決되면 새로운 방안의 실현이 빨리 올 것 같다.

★ 방석훈- 6대회장 선출과정도 평의원회에서 競選이었다[누가 적극적으로 입후보 하였다면 후보자가 될 수 있었다는 뜻으로 생각됨].

★ 윤정욱- 이번 회장 선출은 박경민 후보를 포함한 4명중 인선위원회 선출을 위임할 것을 동의한다. <장내 여러 의견이 오감>

■ 토론종결이란 장내 의견에 따라, 인선위원회에 위임하는 案은 표결결과 10인만이 찬성해 부결됨.

★ 한창섭- 이번에만 순번제로 하도록 개의를 동의한다.

★ 박윤수 인선위원장- 현재 동창회보에 보도된 3인의 후보자에 대한 무기명투표를 선언한다. 후보자와 지원자의 소견을 먼저 들어보겠다.

[각 후보 추천사 및 후보 정견 발표 - 7대 수석부회장에 입후보한 세 후보(이영목, 김호원, 이진구)의 추천인의 추천사 및 후보자 본인의 소견발표로 진행되었다. 후보자 출마소신과 추천사는 동창회보 110호 4면 참조]

★ 방은호-워싱턴 DC지역의 이영목 동문을 추천한다. 4년 전 이종국 4대 수석부회장이 5대 회장직을 맡지 못했으므로 순번제로 하면 이번이 워싱턴 DC지역의 차례다(추천사유는 동창회보 110호 참조).

★ 이영목 후보의 소견요지 -



가라오케에서 노래를 통해서 결정하자고 말하고 싶다. 워싱턴은 정치의 중심이고 동창회원수도 많다. 식품도매업을 하고 있는데, 이제 아들에게 인계하고 시간이 많아 봉사할 준비가 되어있다. 장사치라서 사업감각(business mind)이 있다. 조수미 음악회를 주최해서 5만불을 남겼고, 조영남 초청공연에서도 1만여불의 이익을 남겼다. 7년 전까지 8톤 트럭 운전하며 사업을 해왔다. 순번제에 따르면 이제 DC 차례이고, 봉사할 준비가 되어있다. 동창회 운영에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

★ 이상문- 하트랜드 김호원 동문을 추천한다. 金 후보는 정열적이다. Truman도 kansas 출신이다. 김 후보는 그간 한인사회를 위해 많은 봉사를 해 왔다. 65년 서울대 박사학위 취득하였고, 박정희 대통령 치과주치의였다. 도미 후 미주리 대학에서 다시 박사학위를 받고 100여 편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서울대 동문의 긍지를 높이는 데 공이 크다. 작년도 음악회 전체를 준비하고 하트랜드 지부에 큰 공헌하였으므로 회장 후보에 추천한다.

★ 김호원 후보의 소견요지 - 가라오케 대결에도 자신 있고 나도 레파토 리도 풍부

하다(場內 爆笑). 동창회에 7년째 봉사해 왔고 동창회를 위해 정열을 바치고 싶다. 교수로 14년을 재직했고, 개업의사로서 재정적으로도 여유가 있어 동창회를 위해 개인 재산 쓸 용의도 있다. 본인은 봉사정신이 투철한 사람이다. 하트랜드 회원을 60명에서 300명으로 늘렸다. 앞으로 동창회를 맡으면 케나도 동문도 흡수하여 조직강화를 하겠다. 회보발간사업과 동창회 운영에 대한 방향전환이 필요하다. 모든 동문이 참여하는 동창회가 되도록 서울대인의 긍지를 가지고 정열적으로 일하겠다.

★ 김중을- 뉴욕 이진구 동문을 추천한다. 무투표 순번제로 하면 뉴욕 차례이다. 이진구 후보는 세계상공인 협회 회장(2년 임직)으로 회의가 겹쳐 부득이 불참하게 되었다. 李 후보는 총동창회를 위해 봉사하고 사재를 털어서라도 회보를 12번 간행하겠다고 하였다. 이후로는 재정적, 사회적으로 뉴욕 지역동창회를 위해 많은 일을 해왔으므로 이에 추천한다.

★ 한창섭- 이진구 후보의 편지를 대독하겠다: "존경하는 평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용락 회장님, 오홍조 수석부회장님, 먼길 여행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이번 평의원회의에 참석치 못하게 되어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실은 제가 미주한인 상공회의소의 수석부회장으로서 5월 30일부터 6월 2일까지 3박 4일간의 세계적인 상공인 대표자회의를 1년전에 날짜를 계획하여 大會長으로서 지금까지 준비해 왔으며 지금 이 시간에 N.Y에서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행스럽게도 서울대학교 동창회 제 12차 평의원회의와 날짜가 중복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 지난 1월 오홍조 수석부회장님께 말씀을 드린 적도 있습니다. 평의원 여러 선배님 그리고 동문님들에게 사죄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2003년 5월 30일 이진구(농대 60년 입) 오늘 그는 미주한인 상공회의소 수석 부회장으로 1년 전부터의 계획된 이 시간에 뉴욕에서 개최되고 있는 세계상공인 대회 때 문에 불가피하게 오늘 불참했다. 그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경험과 인품을 갖춘 분이다. 뉴욕동창회를 크게 육성하였고, 많은 기금을 납부하였다. 물질양면으로 차기회장의 여건을 갖추었으므로 李 동문이 차기회장이 되어야 한다. 순번제로 따지면 LA 다음 뉴욕차례이다.

★ 박윤수- 추가 질문이 있는가? 질문 없으므로 바로 투표에 들어가겠다. 오늘 투표자는 평의원회 성원인 45명(33명 직접 참석, 7명 대리 참석 및 위임장 제출 5인)과 신설 2개지부 참석 대표자 3인으로 48명이 투표인이다.

★ 이용락- 위임장은 회의 成員상 필요하나 실제 투표 숫자에는 포함 안 되는 것이 관례이다.

■ 별다른 반대없이 투표인은 위임장 제출 5인을 제외한 43명으로 투표인을 확정.

★ 정정욱- 모든 선거에서 후보자는 場內(floor)에서 직접 출마할 수 있다. 뉴잉글랜드에서 후보자로 박경민 평의원을 추천한다.

■ 장내에서 이미 등록 절차가 지나갔다는 반대의견이 많아 투표 대상 후보자는 회보에 보도된 3인으로 결정.

★ 이용락- 회장선출은 1회의 투표 과반수 득표가 아니더라도 다수 득표자를 선출한다.

■ 샌프란시스코 임승패 평의원과 뉴잉글랜드의 박경민 평의원이 대표위원으로 자원하다.

■ 43명의 평의원들은 무기명투표를 실시하여 회수된 투표용지 41표를 개표한 결과 (불참자 2명 미상) 이영목 : 20, 김호원 : 12, 이진구 : 9 으로 집계되어 이영목

후보의 당선이가 확정되었다.

★ 이영목 수석부회장 당선 소감: "본인의 소임을 잘 알며, 오홍조 차기회장을 잘 보좌하여, 2년 동안 열심히 배워서 총동창회를 잘 이끌어 가겠습니다." (장내 전원 박수)

■ 감사선출- 평의원회는 2인의 감사선출에 있어 LA에서 1인을 오홍조 차기 회장이 워싱턴 DC 지역에서 1인을 이영목 차기 수석부회장이 추천하는대로 선출하기로 하였다. 평의원회 이후 위임에 따라 선출된 감사 2인은 다음과 같다.

★ 金京茂(공대 75년 졸, 남가주 동창회) ★ 李允柱(상대 70년 졸, 워싱턴 DC 동창회)

22) 특별위원회 선출

★ 김정주 사무총장 대행- 제 10차 평의원회의(2001년 6월 9일)에서 선출되어 있는 허부기구는 다음과 같다(규정 임기가 일정치 않고 금년에 선출 할 기구는 없음).

■ 편집위원회 (7인 위원, 10차 평의원회 선출) - 오홍조, 방석훈, 이재택, 이진구, 백순, 박경민, 소진문, (사무총장은 편집위원회의 당연직 총무이므로 신입총무는 차기 사무총장이 됨)

■ 기금관리위원회 (7인 위원, 10차 평의원회 선출) - 오인석위원장(임기 4년), 방은호(임기 5년), 윤정욱(임기 5년), 이병준(임기 4년), 김병수(임기 3년), 임낙균(임기 3년), 총동창회장(당연직)

■ 회칙위원회 (5인 위원, 11차 평의원회 선출) - 김용학, 진금섭, 강경식, 문병훈, 방석훈

■ 인선위원회 (6인, 10차 평의원회 선출) - 박윤수, 강수상, 이병준, 오인석, 이용락, 오홍조 및 이영목 수석부회장

★ 기타- 집행부 보조기구의 구성은 차기회장단에서 결정하기로 하였다.

● 회칙, 인선위원회, 관악후원회 모금에 관한 기타 안건

★ 이용락- 집행부 會長과 평의원회 議長 분리 문제는 회칙의원회에서 더 연구하기로 하자.

<제 6대 집행부가 평의원회에서 토론하고자 준비한 기타안건으로 ①제정자립이 없는 지부존립문제, ②평의원회 의원 수 증가 및 평의원회비 제도와 ③관악후원회 모금에 관한 것이 있었으나 시간관계로 토론이 진행되지 못하였음>

<13면에 계속>



<12면 평의원의회의록 계속>

★ 박윤수-인선위원회 운영을 위한 지침이 필요하니 이에 대한 여러분들의 제안을 기다린다. 앞으로는 競選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동창회는 政治단체가 아니므로 앞으로도 인선위원회에서 추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23) 회칙개정제에 관하여:

★ 강경식- 비영리법인 단체 등록을 위해 만든 英文회칙이 별도로 있는데 영문과 國文中 어느 것으로 현행회칙을 삼을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 또 한창섭 평의원이 제기한 집행부 會長과 평의원회 議長의 분리문제는 여기서 결정할 수도 있다. 회칙위원회에서 내년 평의원회 개최 전까지 書面으로 모든 평의원들에게 검토의견

을 제출하여 제 13차 평의원회의 전에 충분히 숙지하도록 할 것을 동의한다.

■ 강경식 회칙 위원에게 이 문제 연구를 위임하는 의견을 박수로 가결시켰다.

★ 오인석- 英文회칙이 現行 회칙으로 有效하다. 이를 國文으로 번역해서 쓸 수 있다. 10차 평의원회에서 가결된 英文회칙을 전 평의원에게 다시 우송하겠다. 여기에는 현재 동창회조직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評議員의 의무는 변하지 않는 것으로 하였으며, '평의원'은 'Delegate'라 하였다. [동창회보 87호 22면과 88호 5면에

★ 한창섭-집행부 會長과 의결기관의 議長이 같은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 本件을 회칙위원회에 연구를 일임한다.

★ 오홍조- 英文회칙을 평의원들에 보내드리겠다.

24) 차기회장 인사

★ 오홍조 차기회장- 열심히 동창회를 위하여 일하겠다. [전문면 참조]

★ 김정주 사무총장 대행- 이영목 수석부회장당선자에게 축하드리고, 오늘 6시부터 있을 관악후원회밤에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란다.

● 來年 제13차 평의원회의 시기

★ 오홍조 차기회장- 6월은 더워서 Palm Spring에서 골프를 하기 어려우므로 내년 4월 30일(금)-5월 2일(일) 평의원회를 개최하는 것이 어떤가?

★ 김기현- 대학에 있는 분들은

4월 30일이 학기말 시험시기로 가장 바쁠 때이기 때문에 불가하므로 이 제안에 반대한다.

★ 박평일- 젊은 동문들의 참석을 위하여 자녀들의 방학기간 중 하자.

■ 오홍조 차기회장- 내년 제 3차 정기평의원회 날짜를 잠정적으로 5월14일(금) -16일(일)로 하겠다.

★ 박윤수- 인선위원회의 운영

● 이복동포 돕기 문제

★ 오홍조- [동창회보 110호 5면에 게재된 "북한 난민 구제 활동"사업에 관하여] 뉴잉글랜드 이재신 회장에게 차후 이 문제에 대한 대처방안을 결정 후 통보하겠다.

★ 이종도 차기 사무총장- 평의원회 종료 후 이 자리에서 6시부

터 만찬[미주 관악후원의 밤]이 있을 것이고, 나가시면서 LA지역동창회에서 마련한 골프 타월과 객실 LA지역동창회장의 책이 든 봉투와 재미 동창회에서 준비한 골프 백을 증정하니 모두 가져가시기 바란다.

25) 폐회선언

★ 이용락 회장- (오후 4시) 재미서울대학교 동창회 제 12차 평의원회의 閉會를 선언한다.

<이 평의원회의의 초록은 김종원(문리대 69년 입), 홍혜례(사대 76년 졸)동문과 박미경씨가 현장에서 숙기한 것을 종합하여 김정수 회보 편집인(문리대 69년 입)이 정리한 것임.

### 차기회장 인사

오홍조(치대 56년입, 재미총동창회 수석부회장)

존경하는 김재순 명예회장님, 임광수 회장님, 모교의 정명희 부총장님, 미주 동창회 이용락 회장님, 남가주 오재인 전 회장님, 전 미주에서 참석하신 평의원님,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남가주 동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2년 전 시카고에서 있었던 평의원 회의에서 차기회장으로 당선된 후, 그동안 과연 내가 회장이 되면 미주 동창회를 위하여 무엇을 해야하는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동창상호간에 유일한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동창회보의 재정적 자립입니다. 물론 그동안 총동창회 편집위원 여덟 분과 다각적인 의견교환과 설문조사를 거쳐, 新聞에서 冊子형태로 서재에 보관할 수 있는 회보를 만들어 귀중한 자료를 각자의 서재에 보관하고 언제나 학습자료와 정보를 열어볼 수 있는 회보를 만들고자 합니다. 여기에 컴퓨터 기능이 많이 차지하면서 경비절감의 효과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은 경영의 혁신 없이는 재정적 자립이 불가능합니다. 양반이 강을 건너다가 강물에 빠졌습니다. "적어도 양반이 개해임을 칠 수 있느냐?"라며 물에 빠져죽고 말았습니다. 이와 같이 권위만 찾다보면 현상유지에 급급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어느 언론매체든 간에 廣告없이 존립하기가 어렵습니다. 과감하고 신중하게 잘 선택한다

면 성공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날 동창회가 너무 나이를 먹은 것 같습니다. 젊은 동문들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에 젊은 피의 수혈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지난 몇 개월간 이곳 남가주에서는 거의 100명이 넘는 나이 어린 동문들을 발굴하여 '관악연대'라 칭하고 모임을 갖으며 서로서로 연락하고 서로 돕고 있습니다. 저는 관악연대 활동을 적극 돕고, 또 총동창회 임원으로 참여케함으로써 유대를 공고히 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늘 좋은 친구가 많다고 자랑을 합니다. 좋을 때나, 나쁠 때나 늘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는 진정된 친구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서울대학 동문들은 우리나라의 정치, 사회 및 경제, 과학 각 분야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곳 이민사회에서도 지역 발전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모교를 돕고, 후배를 도우며 이민사회의 길잡이가 되도록 많은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후한서(後漢書)에 "뜻(志)이 있으면 길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저와 좋은 친구들이 열심히 하였습니다. 동문 선후배 여러분과 가정에 만복과 건강을 기원합니다.

2003년 5월 31일 오홍조(치대 56년 입, 재미총동창회 수석부회장)

### 미주관악후원회밤 격려사

林光洙(공대 52년졸, 서울대학교 총동창회 회장)

존경하는 이용락 회장님과 오인석 명예 회장님, 오홍조 차기 회장님!

지부 동창회를 대표하여 자리를 빛내 주신 평의원과 가족 여러분! 그리고 광철 회장님과 김건진 수석부회장님을 비롯한 남가주지부 동창회 동문 여러분! 지난해에 이어 다시 만남을 갖게 되어 무척 기쁩니다. 앞서 열린 제12차 평의원회의는 제7대 집행부를 구성하면서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그동안 헌신적인 봉사를 아끼지 않으신 이용락 회장님을 비롯한 제 6대 집행부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2년간 오홍조 차기 회장님을 비롯해 이명상 관악후원회 부회장, 이종도 사무총장, 이경훈 총무국장, 김제영 재무국장, 조상하 섭외국장, 리철삼 출판국장 겸 재미동창회보 편집인 등 차기 임원진들께서 동문들의 새로운 봉사자로 수고할 것입니다. 이 분들에게 뜨거운 격려와 우정의 박수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원님들뿐만 아니라 동문 모두 합심하여 더욱 융성하는 재미총동창회를 만들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애하는 동문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또 하나의 귀중한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동창회의 발전과 동문들에 대한 애정을 몸소 실천한 다섯 분의 동문께 공로패를 드려 헌신적인 업적을 기리고 동창회 발전에 귀감으로 삼으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섯 분

은 재미총동창회 박윤수 초대 회장님과 강수상 2대 회장님, 뉴욕지부 동창회 한창섭 전임 회장님, 시카고지부 동창회 한재은 전임 회장님, 남가주지부 동창회 임나균 전임 회장님이십니다. 이분들께 감사와 축하의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동문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는 모교 총동창회 임원뿐만 아니라 모교 정명희 부총장님을 비롯한 방문단 다섯 분이 참석하셨습니다. 환영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모교에서는 많은 변화와 개혁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시대흐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세계속의 대학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음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립니다. 특히 모교가 가지고있는 지식을 사회에도 전파시키기 위해 "서울대 산학협력재단"을 설립하여, 교직원들이 발명한 각종 기술이나 제품을 관리하면서 기술이전의 활성화가 대학과 산업체간의 유기적 관계를 더욱 증대시켜 국가산업발전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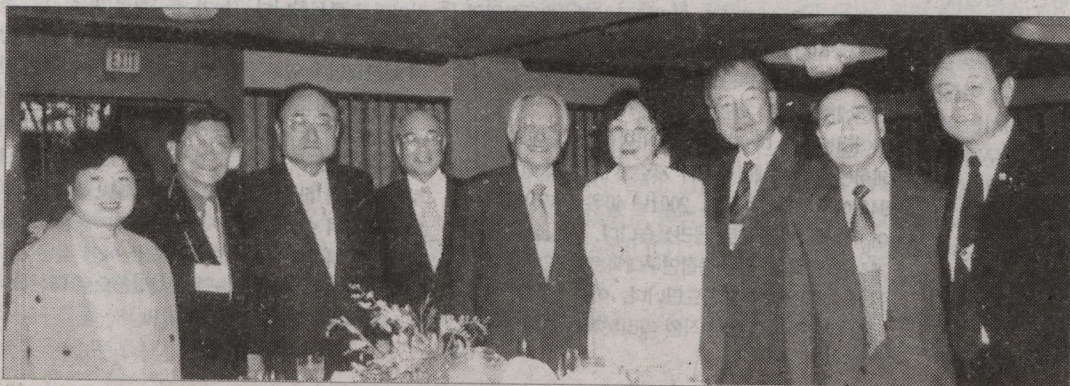
또한 정보환경의 디지털화에 따른 변화를 수용하고, 학술정보의 신속한 유통과 공유체제 구축을 위하여 학내 학술자료와 주요 소장자료를 디지털화하고 이를 관리, 운용할 수 있는 전자도서관 시스템을 지난 2년여 동안 구축 완료하고 5월 21일부터 가동하고 있습니다. 모교의 이러한 변화 의지에 부응하여 지난 4월 23일 본국 총동창회의 적극적인 주도

로 모교를 지원하기 위해 전·현직 동문 언론인 2천5백여 명의 모임인 [관악언론인회]를 창립하였습니다. [관악언론인회]는 모교의 도약을 위해 적지 않은 공헌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모교는 세계 속의 명문대학으로 도약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미주 동문 여러분의 보다 많은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지난 5월 중순 한국의 대통령께서 미국을 방문해 정상회담을 갖고 그간 접매하게 대립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 많은 의견을 교환하고 협의한 결과 좋은 성과를 얻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국의 역사학자인 토인비(Toynbee)가 지적했듯이 도전에 대해 어떻게 응전하느냐가 국가의 운명을 결정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같은 모국의 어려운 상황에서는 우리 서울대 동문들이 솔선수범하여 조국앞에 무한책임을 지는 자세로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 민족의 당당함으로 뒤로 물러서지 않고 굴복하지 않으며 앞장서 나가야 할 것입니다. 미주 동문들도 모교에 대한 지금의 애절한 심정을 항상 간직하시고 끊임 없는 애정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분들과 재미총동창회 임원 여러분, 그리고 남가주지부 동창회 동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말씀에 끝냅니다. 감사합니다. 2003년 5월 31일 서울대학교총동창회 회장 임광수

2년후를 기억하는 평의원들



교가를 제창하는 동문들



미주 관악후원의 밤에 좌로부터 Mrs. 이용락, 이용락, 임광수, 박윤수, 김재순, 송순영부부, 정명희, 오홍조 동문



평의원회 開會辭

母校와 동창회 발전의 里程標가 될 제 12차 評議員會

李龍洛(공대 53년 졸, 재미서울대학교 동창회장 회장)

서울대학교 동창회장 林光洙(공대 52년 졸) 會長님과 9분의 任員 여러분! 母校의 鄭明熙(의대 71년 졸) 副總長님과 母校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6분의 교수님들! 재미서울대학교 동창회 12차 평의원회에 멀리서 이렇게 왕립하여 주신데 대하여 7,000여 재미동문을 대표하여 감사드립니다.



말씀 할 수 있었음은 오로지 冠岳 後援會理事님들의 만인연등(萬人燃燈)과 산화공덕(散花功德)의 誠心の 덕분입니다.

이러한 財政문제를 대처하기 위하여 제 11차 평의원회의 前夜 Symposium과 본 회의는 이를 심도있게 토론한 결과, 제 6대 집행부의 제 2차 년도 예산에 19개 지역 동창회가 동창회를 지원 하는 項目을 설정하여, 재미 동창회의 1년 소요예산 15만불의 불과 6.5%인 일만불을 책정하여 동창회비의 발간을 돕도록 결의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마저도 잘 실천되지 않는 현실을 보며, 우리 동창회의 활동이 地域中心主義에서 벗어나기에는 아직도 시간을 요함을 절실히 느끼는 바입니다.

셋째로는 母校와의 紐帶를 공고히 하고자 하였습니다. 評議員 여러분! 우리는 멀리 美洲 땅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 同門 각자의 가슴깊이 우리를 키운 母校 서울대학교에 대한 사랑이 지극한 것을 우리 同門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재미 서울대학교 동창회는 母校를 韓國에서 제일 가는 大學으로부터 世界 굴지(屈指)의 고등교육 기관으로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하는 것이 우리 동문 모두의 役割이자 所望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6대 집행부가 새로운 사업으로 작년도에 처음으로 시작한 '母校音大 미주순회 연주단'의 8개 지역 9번의 音樂會가 당초의 예산을 뛰어넘어 2,500여명의 동문 및 음악애호가들의 질찬을 받았음은 이미 회보를 통해서 보도된 바 있습니다. 작년도에 이 사업이 실현된 것은, 여러가지 재정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서울대학교 동창회와 母校가 배려한 특별예산이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동창회회 林光洙 회장님과 母校를 대표하여 참석하신 鄭明熙 부총장님께 감사사를 드립니다.

이 사업의 뜻은 매년 배출되는 音大 졸업생들에게 卒業前에 좋은 海外 연주 경험을 갖게하여 母校의 예술교육성과를 미주내에 자랑하며, 미주 각 地域 동창회와 재미 總同窓會 활성화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금년에도 이 사업을 계속하고자 지난 3월의 모교 방문과 그 후의 서신을 통해서 이를 금년 8월경에 실시를 추진하였고, 이러한 同門들의 여망에 부응하여 母校의 정운찬 총장께서는 본인에게 이의 실현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계획이 곧 확정되어 제 7대 집행부의 吳興祚(치대 56년 입) 차기회장의 주관하에 작년도보다 더욱 더 성공적인 音樂會가 될 것을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評議員 여러분! 우리는 재미동창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財政自立을 이루어야 하고 재미동창회의 進一步를 위하여 필요한 과제들에 대하여 좀더 구체적인 방안을 오늘 마련해야 하였습니다. 어제의 前夜 심포지움의 토론을 바탕으로 재미 동창회회의 會則의 改定 문제 등 여러발전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망하신 중에서도 재미서울대학교 동창회 발전의 위하여 먼 길을 오신 評議員 여러분! 오늘 평의원회에서 여러분들이 決定하시는 일들은 母校의 발전과 在 美 서울대학교 동문들과 나아가 全世界의 서울대 동문들의 矜持를 높이는 큰 역사적인 里程標가 될 것으로 생각하며 아무 조록 건설적인 象智를 모아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 12차 전국 평의원회 開會인사에 대합니다. 2003. 5. 31

미주 19개 지역동창회를 대표하여 오신 評議員 여러분! 그리고 금년에 신설된 Rocky Mountains 지역동창회 金奉鎔(공대 72년 졸) 회장님, Ohio 지역동창회(崔仁甲회장, 공대 62년 졸)를 대표하여 오신 金東光(공대 67년 졸), 李秀子(공대 66년 졸) 부부 동문! 공사다망하신 중에서도 재미서울대학교 동창회 발전의 의논하기 위하여 예년과 달리 45명의 많은 評議員들께서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11차 평의원회는 24명의 평의원과 12인이 위임장을 제출하여 65명의 평의원 총원중 36명으로 成員을 이루었고, 제 12차 평의원회는 33명의 평의원과 대리평의원 7명이 참석하고 위임장제출 5명으로 총원 67명의 평의원중 45명으로 成員]

본인은 2001년 7월 1일부터 지금까지 제 6대 집행부 會長의 所任을 시작하면서 우리 동창회의 지속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수적인 몇 가지 일을 이루고자 노력해왔습니다. 이번 제 12차 평의원회의가 제 6대 집행부 任期중의 마지막 평의원회의인 점을 감안하여, 이들 목표의 現任 所에 대한 본인의 소감을 오늘 평의원회를 위하여 간략하게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우리 同窓會가 보다 發展하고 더 큰 일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在美 서울대학교 總同窓會가 小數의 유지들의 헌신적인 奉仕에 의존하는 단체가 아니라, 광활한 미주 대륙에 산재하여 基層을 이루고 있는 모든 同門들이 한 家族로 참여하는 단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 목표를 위하여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발전해온 '在美 서울大同窓會報'의 획기적인 發展을 이룩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는 同窓會報가 7,000여 同門들을 결속시키는 對話의 廣場일 뿐만 아니라, 우리 동문들의 긍지를 반영하는 거울이므로 우리 동문들의 知性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발전시키고자 힘을 기울였습니다. 지난 2년간 매달 會報의 구성을 위하여 다양한 자료와 소식을 보내고 제안하고 참여한 全 美 洲 同門들의 노력으로 이 알찬 회보의 발간이란 목표달성에 큰 進展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목표인 동창회회의 財政自立에 있어서도 많은 進歩가 있었지만 아직도 宿題가 남아있습니다. 지금까지 동창회회의 사업의 財源으로는,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동창회회의 발전을 위하여 同門들께서 보내주시는 '미주관악후원회 이사회비'와 '재미서울대동창회보 구독료'에 의존해왔습니다. 지난 2년간 매년 7,000여 동문중에서 1,400여명의 同門들께서 誠金을 出捐하였습니다. 그러나 6대 집행부의 2년간의 경험으로 볼 때 재미동창회회의 존재는 아직도 많은 동문들의 관심밖에 있고 동창회회의 활동은 地域中心主義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농후합니다.

그 결과 대체로 동창회회 집행예산의 折半을 차지해온 미주관악후원회 이사회비 출연이, 總同窓會會長이 在任중인 지역을 제외하고는 해마다 激減하는 현상을 보아왔습니다. 지금까지 동창회회가 별다른 기초자산 없이도 매달 재미서울대동창회회를 발간하여 주소가 확인된 모든 동문들에게

發展하는 재미 동창회

제12차 평의원회 激勵辭

林光洙(공대 52년졸, 서울대학교동창회 회장)



존경하는 이용락 회장님과 오인석 명예회장님, 송순영 관악후원회 부회장님!

오홍조 차기 회장님을 비롯해 미주 각 지부를 대표하여 이 자리를 빛내 주신 평의원 여러분!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2년 전부터 여러분을 찾아 아뢰었지만, 오늘 다시 여러분의 건강한 얼굴을 뵈게 되니 정말로 반갑고 감사합니다. 이처럼 고국을 떠나 머나먼 타국에서 선후배 동문들과 정다운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은 더 없이 큰 기쁨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정든 고국을 떠나 만리타국에서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미국 사회의 당당한 일원이 되셨음은 물론이요, 존경을 한 몸에 받으며 성공적인 삶을 살고 계시는 분들이기에 이 자리를 빌어 머리 숙여 경의를 표하고자 합니다.

이번 제12차 평의원회의에서는 동문들의 친목과 결속을 위해 수고를 해주실 새 회장님을 비롯한 집행부를 구성하게 되며, 재미동창회 본부가 시카고(Chicago)에서 로스앤젤레스(Los Angeles)로 옮겨 가게 됩니다. 그리고 로키마운틴즈(Rocky Mountains)지부 동창회와 오하이오(Ohio)지부 동창회의 창립을 인준하고 새로운 동문을 맞이하게 됩니다. 재미동창회회의 지부가 21개로 늘어나는 등 재미동창회가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뤄가는 것에 대하여 20만 동문을 대표하여 축하드리는 바입니다. 먼저 임기를 마치는 이용락 회장님과 새로이 수고를 해주실 오홍조 회장님께 감사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용락 회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용락 회장님께서 재미동창회를 지난 2년 동안 유적적이고 체계적인 조직으로 만들기 위해 헌신적인 봉사를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동문들의 삶을 기록하고, [지성인의 우정을 글로써 나누고], [모교를 세계적인 대학으로 발전시키는데 일익을 담당]한다는 모토(Motto)로 재미동창회보 제작에 심혈을 기울이시며, 동문들의 결속과 화합을 위해 노력하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이용락 회장님께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용락 회장님과 재미동창회회의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송순영 관악후원회 부회장, 구경희 사무총장, 김정주 총무국장, 전현일 재무국장, 장기남 섭외국장, 정 호 출판국장, 재미동창회보 김정수 편집인 등 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모두 이 분들께 뜨거운 박수를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차기 회장으로서 봉사를 하시게 될 오홍조 회장님과 임원진께서도 어느 때보다 중차대한 시기에 막중한 임무를 맡으셔서 어깨가 무거우시리라 생각합니다.

지난 세월 오늘날의 재미동창회를 만들기 위해 수많은 동문들이 물심양면으로 열정과 땀을 쏟아주셨는데, 그분들의 남다른 희생정신을 이어받아 재미동창회를 더욱 탄탄한 반석 위에 올려놓도록 수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지속적인 만남을 통해, 비록 낙담하고 편안했던 시기는 아니었지만, 훈훈한 정을 느낄 수 있었던 캠퍼스(Campus)의 낭만을 이곳 타국에서 재현하는데도 최대 역점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미동창회회의 도약과 번영을 위해 본국 동창회도 성심성의를 다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친애하는 동문 여러분!

여러분께서 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모교의 국제 과학논문 인용색인(SCI) 지수가 98년 세계대학 중 94위에서 2000년 55위, 2001년 40위로 부상한데 이어 지난해는 34위로 올라셨습니다. 명실상부한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종합연구대학으로 도약하고 있음을 자랑스럽게 말씀드립니다. 이는 정운찬 총장님을 비롯하여 모교 교직원 여러분께서 혼신의 노력

을 기울여오신 공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교의 이러한 변화 의지에 부응하여 본국 동창회에서도 모교 발전과 동창회 활성화 위해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첫째, 동창회관 신관을 관악캠퍼스 내로 신축하는 문제에 관하여는 모교측과 여러 차례 협의한 결과 모교 교수회관 65동 자리를

최적지로 선정하고 서울특별시 주요산 경관 풍치보전계획에 의한 고도제한 등 건축 관련사항을 행정당국과 협의중에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정명희 부총장님, 유근배 기획실장님에게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재단법인 관악회의 특기 및 기금 장학금은 2001년까지 총 22억2천5백여만원의 장학금을 운영했으나, 2002년에는 적극적인 유치를 통해 전년보다도 57.5%가 넘는 24개 특기장학회를 유치, 13억8천만원의 기금증대를 기하여 총 37억6천6백80만원이 되었습니다. 이로써 본회의 총 운영 기금은 약 91억을 나타내고 있으며, 지난해 장학금 지출총액은 5억3천3백38만원입니다. 금년도에도 특기장학금을 중심으로 더 많은 실적 거양이 예상됩니다. 그리고 서울대인의 Human Network 확립으로 모교 지원 강화와 동창회 활성화의 기초가 될 [서울대 인명록] 발간을 통하여 서울대인이 하나로 결속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4월 23일 동창회회의 적극적인 주도로 전·현직 동문 언론인 2천5백여 명의 모임인 [관악연인회]를 성황리에 창립하였습니다.

관악연인회는 모교의 도약을 위해 적지 않은 공헌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지난 3월 15일자로 지령 300호를 맞이한 동창회보를 기념하기 위해 검색 기능은 물론 PDF 형태로 볼 수 있는 CD-ROM을 발간해 동문들에게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교 발전을 주도하고 후원하시는 교수님과 교직원 여러분에게 감사와 격려를 드리기 위해 지난 5월 11일 인천에서 모교에 대한 사은 행사의 일환으로 제5회 모교·동창회 친선플래크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1백여명의 교직원과 동창회 임원이 하나가 되어 화기애애한 가운데 친목과 결속을 다짐한 하루였습니다.

경애하는 동문 여러분! 어느 나라이건, 또 어느 사회이건 그 나라와 사회를 이끌어 가는 소수의 엘리트(Elite) 집단이 있게 마련입니다. 여러분들은 조국의 명운을 걸머지고 세계화의 최전선에서 조국의 품격을 높이는 사명을 부여받은 소수의 Elite들이십니다. 명실 공히 세계 속의 대학으로 부상하고 있는 모교의 명예를 드높이고, 조국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는 긍지를 가슴속 깊이 간직하십시오. 나아가 세계의 중심부에서 주목받는 인재로 한민족의 아름다운 문화를 전파하고 거상을 떨치고 있다는 자긍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경애하는 동문 여러분!

서울대인이 이 지구촌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한 사람 한 사람의 작은 별들은 잘 보이지 않을지 모르나 동문들이 떼지어 덕성을 보이면 큰 빛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누가 조국으로 가는 길을 묻거든 눈 들어 관악을 보게 하라" 서울대인은 조국앞에 무한책임이 있다" 서울대가 바로 서야 나라가 산다"는 것이 바로 우리 동창회회의 Motto입니다. 이것을 이뤄내기 위해 자타가 공인하는 한국 최고의 서울대 동문들이 향도로서의 역할을 다하는데 인색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제12차 평의원회의를 위하여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재미동창회 임원 여러분과 남가주지부 동문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오늘의 인사말씀으로 대신합니다. 감사합니다. 2003년 5월 31일



激勵辭

母校의 發展과 재미同門들의 사랑

鄭明熙(의대 71년 졸, 서울대학교 부총장)

모교에 대한 사랑과 관심을 잊지 않으시는 재미 서울대학교 총동창회 평의원 여러분,

모교에서 분직하고 있는 저희들을 이 뜻 깊은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국땅에서 활약하시는 여러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궁금하고 가슴이 설레었습니다. 막상 여러분들을 뵈옵고 보니, 오랜 세월을 함께 지낸 벗처럼 반갑고 편안합니다.

아름다운 해안도시인 L.A.를 들어서는 순간, 저는 태평양의 현관에서 여러분들이 반갑게 저희들을 맞아주시는 착각에 빠졌었습니다. L.A.의 한국교포 분들께서 미국 독립 200주년에 '우정의 종'을 기증하셨다는 이야기나 부산시와 자매결연을 맺으셨다는 소식을 들어서인지, L.A. 역시 미국과 한국을 동시에 품고있는 넉넉한 이웃동네 같이 느껴졌습니다.

그 친밀함과 감동은 이 자리에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재미동창회 대표자 여러분들이 친목과 유대를 더해 가시는 모습, 미주한인 이민 100주년을 맞이하여 미주한인사회의 발전을 위해 벌리시는 활동들, 모교의 발전을 위해서 '관악후원의 밤'을 개최하신다는 이야기들을 들었고 그리고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마음'을 '빛'에 비유하고 싶습니다. 풍경이 '빛'에 따라 무수한 아름다움을 보여주듯이, 여러분들도 사랑과 지혜를 담은 '마음'을 통해 미주동창회의 정신을 다양한 활동들로 보여주시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벌리시는 행사들은 모두 다른 내용들이지만, 미주동창회 여러분들이 그 활동들을 통해서 '더불어 사는 삶'을 추구하고 계신다는 동일한 뜻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지역사회와 모교에 대해 품고 계신 사랑이 여러분들께는 살아가는 목적이자 수단 그 자체임을 절감하였습니다.

미주동창 여러분! '관악후원의 밤' 행사 속에 담긴 여러분의 격려와 성원을 기억하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은 동창 여러분의 모교사랑이 늘 그렇게 깊으셨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목마를 때 물을 주시고 배고플 때 빵을 주시는 어머니의 사랑처럼, 늘 사랑과 지혜 그리고 민감한 감수성으로 서울대학교를 지켜주시기를 느끼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 '너는 훌륭한 사람이 될거야.'라며 머리 쓰다듬어 주시던 저의 담임선생님처럼, 모교를 무조건 믿고 격려해주시는 것을 체험하였습니다. 먼 나라 미국에 오셔도, 사회 각 방면에서 능력·열정·투지·성실함을 바탕으로 갖가지 성취를 이루셔서, 서울대학교를 빛내주시기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계획하신 '관악후원의 밤'이라는 말은 듣기만 해도 가슴이 뛰는 선물입니다. 저희들에게 주시는 그 선물 속에 담겨있는 진실한 우정과 정성을 잊지 않겠습니다. 서울대학교는 여러분의 높은 기대와 성원에 보답하기 위하여, 각고의 노력으로 발전해 나가겠습니다. 학생들에게 필요하고 의미 있는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실패물을 먹어서 가짜 꿀을 내어놓는 벌을 만들지 않겠습니다. 꽃가루를 먹고 진짜 꿀을 내어놓는 벌처럼, 이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를 길러내도록 애쓰겠습니다.

저희들이 육성하고자 하는 인재의 모습은 지식을 전수할 뿐 아니라, 지식을 창출하는 지식생산자입니다. 비판적 지성을 갖춘 '지식의 재관관'이면서, 동시에 문화적 감수성이나 타인과의 관계적 감수성을 갖추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처럼 '공동체적 덕성'도 겸비해야 될 것입니다. 서울대학교는 학생들이 이 모든 것들을 갖춘 균형적 지성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교육하겠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겠습니다. 변화의 격랑 속에서도 서울대학교는 훌륭하게 거듭나겠습니다. 대학의 위기를 비극이나 행불행이 아니라, 도전의 관점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수많은 어려움에 정면으로 직면하면서, 새로운 세계와 교감하겠습니다. 알려지지 않은 미지의 세계를 탐색하고, 그에 맞춰 자신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과정에 미주동창회원 여러분들이 참여하셨습니다. '서울대가 세계 유수의 대학으로 거듭나려는 비전'에 동참하신 것입니다. 비전과 투지와 서로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는 우리들이 힘을 합한다면, 서울대는 교가처럼 '이 겨레와 이 나라의 크나 큰 보람'으로 우뚝 설 것입니다.

이런 감동적인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저희들에게 모교발전의 각오를 새롭게 환기시키는 기회를 주신 미주동창회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재미 서울대학교 총동창회의 영원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003년 5월 31일  
재미서울대 총동창회 12차 평의원 회의장

母校와 後進을 위한 百萬弗基金 현황보고

기금위원장 吳仁錫(법대 62년졸)

당회계년도 현재(2003.5.31)까지 모교와 후진을 위한 기금은 16인의 동문들께서 \$8,260을 출연하셨고, 그간 이 기금 운영에 관한 내역에 대해서는 첨부한 母校와 後進을 위한 百萬弗基金 현황보고 (재미서울대동창회보 #108 3면 보도)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첨부 1> 母校와 後進을 위한 百萬弗基金 현황보고 (재미서울대동창회보 #108 3면 보도)

'母校와 後進을 위한 百萬弗基金'의 내역과 현황을 보고해 달라는 요청을 재미서울대동창회보로부터 받았습니다. 이 기금의 정확한 내역은 在美同窓會의 회계 속에 포함되어 매년 6월 30일 현재로 결산이 되고, 감사 받은 후 평의원회에 보고되고, 인준 후에 재미동창회보에 결산서류가 발표됩니다. 그러므로 이번 기회는 2002년 6월 30일 현재 공식보고를 간단히 풀이해 설명드리는 방법을 취하겠습니다.

우선 募金면에서는 129 동문들로부터 현금 \$547,597을 기부받았고, 이 외에 8분의 동문들의 약정액 중 미 불입액 \$119,000을 포함하면 현금 모금액은 \$666,597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문 아닌 독자가 한 분은 NASDAQ 上場社인 Silicon Image Inc. 주식 10,000株를 기증하여 보관하고 있습니다. 2002년 6월 30일 결산상의 시가는 \$61,200이고, 2003년 2월 26일 시장가격은 \$53,900입니다. 이 외에도 同窓會報에 발표된 대로 다섯분의 동문이 基金을 생명보험의 수혜자로 지정하시거나 유증을 약속하셨습니다. 실제 정확한 금액은 현재로서 알 길이 없습니다만, 최소한 수십만불대로 추정됩니다.

위에 열거한 자산을 합하면 基金에 대한 호응은 이미 百萬弗에 도달했다고 판단이 되어 그 성과는 매우 감사하고 고무적이라 하였습니다.

支用면에서는 현재까지 5회에 총 \$388,350에 달하고 있습니다. 2001년 6월말 회계연도에는 총 3건으로 \$330,000 이 공과대학 반도체 연구소를 위한 기금에 출연이 있었습니다. 이는 한상철 동문의 현금출연과 한 동문의 동업인이 기증한 Silicon Image Inc. 주식출연과 관련 본인들의 희망을 참작하여 집행한 금액입니다. 같은 원칙 하에 간호대학 장학기금과 공과대학 화공과 장학기금으로 각각 \$13,000 과 \$1,750 이 지출되었습니다.

2002 회계연도에는 모교의 '大學新聞'의 재학생 기자 3명의 미국 내 유수대학 방문취재를 위한 항공여비 지원을 위해 \$3,600 이 지출되었고, 모국 總同窓會에서 후진 재학생을 위해 설립운영하는 특성장학금을 위해 \$40,000을 기증받아 그 금액을 출연

자의 희망을 참작하여 서울 總同窓會로 지출하였습니다.

그동안 基金운영을 위한 費用은 오직 基金口座 銀行의 수수료뿐이며 이 기금의 취지에 공감하는 동문들과 외부기관들의 도움으로 基金운영을 거의 비용없이 하고 있습니다. 基金 회계와 口座관리는 동문 李慶林 계리사(商 64입)가 무료로 봉사하고 있고, 株式 관리를 위한 Salomon Smith Barney, Inc. 동창회 구좌는 基金 목적을 참작하여 수수료 면제 혜택으로 무료 유지되고 있습니다. 基金 설정과 規定 작성들을 위해 필요했던 막대한 legal advice와 expense도 동문 金容學 변호사(法 75년졸)와 뉴욕시에 소재한 Curtis, Mallet, Prevost, Colt & Mosel Ltd.에서 각각 무료 봉사를 해주셨습니다. 7명의 基金管理委員들은 無報酬이며, 상

호 연락에 필요한 통신, 사무, 회의 비용 등 제반 비용은 委員들께서 각자 개인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2002년 6월 30일 현재 基金總殘高는 결산서류에 보고된 바와 같이 \$231,337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현금 불입액 \$547,597 중 집행액 \$388,350의 차액은 \$195,247입니다. 이 금액과 基金總殘高의 차액 \$72,090은 보유株式 \$61,200과 나머지 \$10,890은 그간 銀行利子와 雜收入입니다.

2002년 7월 1일 이후 현금 불입액은 재미동창회보에 발표된 대로 \$8,260[동창회보 #108 발행일현재 납입금액 \$5,560이었습니다]입니다.

2003년 2월 28일 재미서울대학교총동창회 母校와 後進을 위한 基金委員會

위원-方恩鎬(약대 45졸), 尹炳玉(약대 50입), 李丙俊(상대 55입), 吳仁錫(법대 62졸, 위원장), 金秉洙(상대 55입), 任洛均(약대 62졸), 李龍洛(공대 53졸)

기금위원회 자산 잔고



자 자산 총액은 \$231,337이었으나 보유주

다양한 본인의 공인회계사 업무 중에도 동창회를 위해 母校와 後進을 위한 基金의 실무관리 회계일을 맡고 있는 李慶林(상대 71년 졸·사진)동문이 기금 회계보고서(2001년 7월 1일-2003년 6월 30일)를 총동창회 본부에 작성해왔다. 그 보고서에 의하면 2003년 6월 30일 현재 기금의 잔고 자산은 ①현금 \$180,763이며, ②투자주식 가치 평가액 \$55,000 등 총액 \$235,763이다. 2002년 6월 30일

식가치의 하락(\$6,200의 평가손실) 때문에 금년도 수입은 (동문들의 출연금 \$8,260과 이자수입 \$2,382)의 합산액 (\$10,642)에도 불구하고 총자산 증가는 \$4,442이었고, 기금관리 경비는 은행수수료 \$16만 이 지출되었다. 연락처 : 212-768-9144

재미서울대동창회보 편집원칙

회보편집인 金正守(문리대 69년 입)

동창회보 90호(2001.8.1)에서부터 110호(2003.5.28)까지를 간행함에 있어 편집원칙과 편집과정에서 느낀 소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 6대 집행부는 동창회보를 시카고에서 발간하기 위하여 먼저 시험판을 제작하면서 아래와 같은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회보 지면 32면을 3부로 구분하였습니다:

제 1부 : 재미총동창회 소식: 총동창회 사업추진과 관련된 소식과 동창회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소식 보도(3면내지 4면)

제 2부 : 문필과 논고- 동문들의 다양한 주제의 글을 모아 한국어와 한국 문화 유산을 전달하는데 기여하는 내용 구성 (12면)

제 3부 : 동문 및 지역동창회(6면내지 8면), 모교 및 서울동창회 소식(4면내지 5면) 동문기여금 모금란 및 게시판(6면) 위와 같이 지면을 활어하여 내용있고 우리 동문들의 공지에 상응하여 '지성인의 우정을 글로써 나누는 동창회보 및 개척자 동문들의 삶을 기록하는 동창회보'

를 만들고자 하였습니다.

이를 위하여 동문들의 자발적인 투고 외에도 각 분야의 우수한 동문 및 비동문 전문가들을 필자로 초빙하며, 학계 및 실업계나 사회에 봉사하는 훌륭한 업적을 쌓은 동문을 소개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동문 가정의 자녀들의 성취와 발전과정 등을 소개하여 회보를 통한 대화의 광장을 넓히고자 하였습니다. 독자들의 의견을 편집과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실제 발행지면에 대한 설문조사 등으로 독자 여러분의 관심을 갖고 우리 동문 전체가 애착을 갖는 동창회보를 발간하고자 했습니다.

지난 2년간 본인은 나름대로 제한된 여건 속에서 한국어를 사용하는 최고수준의 동질적인 독자층의 여망에 부응한다는 궁극적 지향점을 설정하였으나 그 결과는 여러모로 개선의 여지가 많은 기형이었습니다. 그동안 미주 전역에서 회보를 격려해 주시고 여러 가지 조언을 주신 선후배동문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우리 동창회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2003.5.31)



### 民主主義와 다수결의 원칙

우리모두 有權者가 됩시다

鄭澤洙(문리대 50년 졸)

우리 모두 잘 알다시피 民主主義體制는 그 정치과정에 있어서 決定은 多數決의 原則에 따른다. 어떤 政策의 正當性은 결국 숫자의 문제이기도 하다. 따라서 民主主義에 있어서 힘은 참여하는 투표권자의 숫자에 左之右之된다. 이 民主主義의 節次는 요지부동의 원칙인 만큼 이 나라에 있어서 우리 同胞들의 힘은 미국 정치과정의 참여도, 즉 각종 연방 및 지방 선거의 참여여부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봅니다.

우리는 오는 9월에 각 지역에서 실시되는 예비선거와 11월에 실시되는 본선에 우리 자신들이 적극 참여하고 주위사람들에게도 모두 참여하도록 권유합니다. 이 길만이 진실로 우리들의 자녀와 그 후손을 아끼고 사랑하는 것이며 또한 우리의 祖國과 韓民族의 장래를 염려하는 길이 됩니다. 물론 각자가 지지하는 政黨이나 候補者의 선택은 본인의 판단입니다. 미주



한인 이민 백주년을 맞이하는 올해에 이 길만이 우리 韓民族의 뿌리를 이 땅에 심는 길입니다.

오늘날 미국은 對內的으로는 民主主義체제이지만 지금 國際政治構造下에 無敵의 軍事強國이 되었지만 이번 이라크전쟁에서 보듯이 무자비한 패도(覇道)정치 對外政策을 펴고 있습니다. 그 결과 對內정치과정도 이에 따라 왜곡되어 政治목적으로 "포장"된 情報에 오도되고, "9.11 테러사태"의 후유증에 아직도 시달리는 市民들은 "民主主義 체제"의 中東지역에 확산이란 名分속에 감추어진 偏頗의 이고 利己의이며 冒險的인 中東政策에, 무력한 방관자일 뿐이다. 아직도 종결이 요원하며 "이라크의 재건"에 필요한 帝國의 秩序를 뒷받침하기 위한 군사력의 장기주둔에 따른 국가財政의 파탄도 우리

### 향수(鄉愁) 鄭芝溶 (1902-?)

넓은 벌 동쪽 끝으로  
옛이야기 지줄대는 실개천이 회돌아 나가고,  
얼룩백이 황소가  
해설피 금빛 게으른 울음을 우는 곳,  
그 곳이 참하 꿈엔들 잊힐 리야.

질화로에 재가 식어지면  
뉘인 발에 밤바람 소리 말을 달리고,  
젊은 줄음에 겨운 늙으신 아버지가  
짚베개를 돌아 고이시는 곳,  
그 곳이 참하 꿈엔들 잊힐 리야.

흙에서 자란 내 마음  
파아란 하늘 빛이 그림어  
함부로 쓴 화살을 찾으려  
뫼실 이슬에 함추름 휘적시든 곳,  
그 곳이 참하 꿈엔들 잊힐 리야.

전설바다에 춤추는 밤물결 같은  
검은 귀밑머리 날리는 어린 누이와  
아무렇지도 않고 여뽕 것도 없는  
사철 발벗은 안해가  
따가운 햇살을 등에 지고 이삭 쫓던 곳,  
그 곳이 참하 꿈엔들 잊힐 리야.

하늘에는 석근 벌  
알 수도 없는 모래성으로 발을 옮기고,  
서리가마귀 우지짓고 지나가는 초라한 지붕,  
흐릿한 불빛에 돌아 앉아 도란도란거리는 곳,  
그 곳이 참하 꿈엔들 잊힐 리야.

되며, "自律적인 市民의 정치"라는 모두가 美國의 정치과정에 적극 共和主義와는 다른 방향으로 미국 참여하여 人間의 自由와 人權이 가고 있습니다. 美國을 바른 방 존엄을 구현하고자 하였던 美國의 향으로 이끌기 위하여서는 우리 健康한 獨立精神으로 이 나라의 和主義와 民主主義인식을 바로 세우는데 同胞들과 우리同門들이 有權者로서 기여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2부 文筆과 論攷 목차

젊어지고 봉사하는 동창회/ 오인석..... 3	한반도 중립화론/황인관..... 24
進一步하는 동창회/ 이용락..... 4	풍요롭고 건전한 삶을 위하여/허문생..... 25
북한의 과학기술 현황/ 김기현..... 5	한국 현대사와 군사정변의 유산/한경섭..... 26
미주 한인인민 100주년과 동창회/ 오홍조..... 7	사회적 갈등과 합리성/홍천식..... 28
총동창회 회칙 검토/강경식..... 6	Heeseop Choi & Cubs/Pelarin Bacos III..... 29
인선위원회와 집행부 구성방안/박윤수..... 6	또 하나의 100년을 향하여/박경민..... 30
모교와 동창회 발전의 이정표/이용락..... 14	로스데이의 애국선열 묘역을 돌아보며/김항자..... 32
발전하는 재미총동창회/임광수..... 14	어머님의 유언/이재신..... 36
모교의 발전과 동문들의 사랑/정명희..... 15	나노기술의 개관/최용소..... 37
모교와 후진을 위한 기금 보고/기금위원회..... 15	개능 연구와 인구 진화/이수진..... 38
동창회보 편집원칙/김정수..... 15	우주 항공산업분야/김형만..... 39
민주주의와 다수결의 원칙/정택수..... 16	대체 의학과 미국의 고충/김일훈..... 40
더욱 발전하는 동창회/윤정옥..... 17	외과의의 역적/이선..... 41
전체 서울대인의 축제로/박평일..... 17	배꽃 전당 방문기/소진문..... 46
내용있는 동창회보/김권식..... 17	기독교와 명상/김종원..... 48
격조있는 지성인의 동창회/김기현..... 18	내 마음을 열고/이태상..... 50
민주적이고 품위있는 동창회/김봉진..... 18	성령 출세실/손병희..... 51
SNU House 건립을 제창하며/한창섭..... 19	영생불멸 비람직현가/혜심..... 51
미국의 대한반도정책/이체진..... 20	도전 외/우순자..... 52
집담 공화국과 남북 철도 연결/문정제..... 21	살의 맛/조대현..... 52
참전용사들의 기여/김호원..... 22	그날/임승현..... 56
파리에서 온 편지/유은호..... 22	정우순 고별의 노래(弔辭)/이래원..... 59
Toward an Enduring Peace in Korea/John Kimbrough..... 23	천당에 살리라/김택수..... 63
조수미 멤버 콘서트/배병욱..... 23	관악의 정가와 화음을 미주대륙에/2003년 모교음대 연주단..... 72

### 여럿을 하나로

재미 서울대동창회보는 開拓者의 삶을 살고 있는 7천여 동문들과 그 자제들의 발전 소식을 전하고 한국 의 知性인인 우리 동문들과 조국의 발전을 所望하는 국내외 뜻있는 이들이 글로써 友情을 나누며 討論하는 대화의 場을 발전시켜 왔다.

文筆과 論攷자는 6대 집행부가 발간하는 在美서울大同窓會報 마지막호인 #111호 및 #112호 合本(72면)이 많이 지체되었음을 미주지역과 서울 동문 독자들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이번 호에는 미국의 一方주의와 強權주의가 지배하는 국제정치환경 속에서도 分斷 민족이 하나가 되는 숙원의 과제들을 論하는 글과 미주한인인민 100주년을 맞아 미주내에서 조국 광복의 밑거름이 되었던 愛國先烈들의 삶을 돌아보고 여러 동문들이 각 분야의 先導的인 연구경향을 동문들과 나누는 많은 玉篇들로 구성되었다.

지난 제12차 평의위원회는 67명의 정위원 40명의 평의원과 신설 2개지부의 대표자 3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금까지 미주 전체를 하나로 하는 조직을 구축해온 지난 12년의 역사로부터 進一步하여, 우리 同門들의 복지와 발전, 母校의 高揚뿐만 아니라 미주 이민사회에도 기여하는 조직으로 발전하고자, 필요한 많은 과제들을 논의하였다.

제12차 평의위원회의 기록을 정리하는데 통상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다. 그 이유는 이번 평의위원회는 우리 동창회가 새롭고 펴 사업목표와 실천 방안을 검토했을 뿐만 아니라 이를 뒷받침할 會財 보원의 문제와 지금껏 4대 도시 지역동창회가 順番制로 이끌어온 총동창회 집행부 구성의 慣行과 전체 21개 지부의 참여와 노력을 모으기 위한 民主的인 집행부 구성방안의 理想과 現實 문제 등 논의된 중요한 과제들을 정확하게 기록하고자 하였기 때문이다. 평의위원회에 참석하였던 여러 동문들은 재미서울대총동창회의 발전을 위해 여러가지 創意的인 의견(평의위원회의 확대 開放, 집행기구와 의결기구의 분리, 전 서울대인의 축제,

전체 서울대인이 머무는 교차로 SNU House 설립 및 격조있는 동창회행사진행 등)을 기고하였다. 다양한 여럿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많은 부분들이 각자의 책임을 원칙있게 履行할 때만

공동을 목적을 향한 有機的인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재미 총동창회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평의위원회에 보고된 동창회보 발행계획은 전체 동문들에게 약속한 소홀히 할 수 없는 責任이므로, "서울대인의 常識과 原則"이란 주장의 "괴문서"에 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 움에 당면할 때 組織 目標을 달성하기 위한 機構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것인가, 아니면 白球 동창회의 통념적인 "常識"이라 一人會社의 자원봉사자들처럼 더 이상 책임질 수 없다는 것이 "서울대인의 常識과 原則"인가?

이제 우리 동창회는 지난 12년간 전미주를 연결하는 하나의 동창회로서의 조직의 根幹을 이루었다. 앞으로의 과제는 현상 유지에 만족하지 않고 많은 동문들이 서로 돕고 사랑하는 정신으로 參與하여 더 큰 일을 이루어가는 進一步한 "組織"으로서 필요한 "機構"를 內實化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전21개 지부의 熱과 誠을 모으는 총동창회 집행부는 전국에서 다양한 일정 중에도 참석한 대표자들의 모임을 白球 경기대회 출전자의 모임쯤으로 기획하는 발상으로서의 재미서울대 총동창회의 存在 意義를 구현하기 어려운 것이 아닐까?

有限者인 人間 組織들의 歷史속의 주기적 斷切은 새로운 躍動의 계기된다. 7월 1일부터 卍轉하는 제 7대 집행부에 축하와 격려를 보내며, 우리동문들의 적극적인 참여로만 자랄 수 있는 나무인 在美서울大同窓會報의 지속적인 발전을 기원한다.



# 더욱 發展하는 同窓會

尹 延 玉 (약대 54년졸, 미주관악후원회 종신이사 및 기금위원)

"가슴마다 聖스러운 이념을 품고, 뛰어나는 人才들이 다 모여들어"

더러는 60년, 50년, 40년, 30년 또는 20년 전에 母校의 校門을 나섰지만 우리의 校歌는 언제나 가슴에 와 닿는다. 이곳 미국 땅에서 터전을 이루고 삶을 개척하고 있는 同門들이 각 지역에서 "평의원"으로서 동창회와 母校의 발전을 지원하면서 모았던 이번 제 12차 평의원회의는 전년도보다 많은 평의원들의 참석하여 총동창회의 발전을 위한 여러과제들에 대한 활발한 토론도 하고 평의회 본회의에서 차기수석부회장겸 제 8대 회장선출자를, 동창회 봉사를 自願한 3명의 후보자를 두고, 진지하면서 화목한 분위기 속에서 선

출하였다. 해마다 발전해가는 在美서울大總同窓會가 더욱 隆盛한 그 모습이었기에 그 감회가 깊었다.

첫날 5월 30일의 前夜 Symposium 에는 정원 67명중 약 40명의 평의원이 모여 ① 재미총동창회는 미주한인사회 발전에 기여할 조직으로서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② 有機的인 조직으로 가능하기 위하여 필요한 동창회의 조직과 회칙개정 필요인가? ③ 2년 후의 제 8대 집행부를 이끌 제 8대 회장은 어떻게 선출할 것인가? 라는 주제로 우리 동창회의 미래의 발전을 위한 의제를 가지고 평의원들간에 솔직한 토론도 하였다.

여기 이번 평의원회를 다녀온



본인의 所懷를 간략하게 적습니다.

(1) 재미서울대학교총동창회는 "상호간의 친목과 복지를 도모하고, 母校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여 12년 전 발족하여 지금까지 많은 발전을 이루었다. 여기에는 초대부터 지금의 회장단의 노고와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봉사와, 특히 동창회보 발행을 위하여 역대 편집인과 사무총장, 각 편집위원들의 노고와 봉사는 크게 박수를 받아야 한다.

(2) 회칙개정과 회장선출을 위한

인선위원회의 역할에 대해서는 많은 평의원들의 토론과 의견이 있었지만 시간의 제한 등으로 좋은 결론을 얻지 못하였다. 회칙위원회와 인선위원회는 각각 전국 평의원 위원들에게 회칙개정안과 차기회장 선출 방안에 대해 평의원들의 좋은 의견을 얻어 이를 종합하여 제 13차 평의원회의에 상정하여 의결되도록 하기 바랍니다.

(3) 제 8대 회장 선출과정- 4개 도시 순환제-21개 전체 지부의 동문들의 熱誠을 효과적으로 총동창회에 모을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까. 현재 총동창회의 조직은 발족초기에 財政문제로 총동창회와 총동창회 사업의 근간이 되는 동창회보의 발행을 위한 財團理事會로 二元化된 조직이었던 것을 效果的이고 경제적인 조직운영을 위하여 집행부 회장 중심으로 一元化되었다. 12년의 세월이 경과하는 동안 우리동창회는 이제 조직의 骨格을 완성하였다고 볼니

다. 그러나 아직도 고정된 동창회 관도 없이 동창회보 발행지도 지역순환을 하는 결과 "斷絶"과 "새로운 시작"이란 두 가능성을 모두 보여왔습니다.

이에 在美서울大總同窓會가 21개 支部로 발전하였지만, 앞으로 Canada와 南美를 포함한 名實공히 全美洲大陸의 총동창회로 발전하여, 이제 미주이민 사회의 발전에도 기여하면서, 同門상호간의 친목과 복지도 도모하고 그리고 母校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날이 있을 것을 기원합니다. 퇴임하는 제 6대회장 및 임원진의 그 봉사와 노고를 감사하며 새로 취임하는 제 7대 회장 및 임원진의 노력으로 빛나는 동창회를 이끌어 모든 동창들의 參與와 協力 그리고 榮光의 동창회를 이루시기를 기원합니다.

## 평의원회기간을 전체 서울대인의 祝祭로

朴 平 一 (농대 69년 입, 워싱턴 DC지역동창회 수석부회장)

첫 평의회 참석이라서 솔직히 좀 주저했는데 막상 다녀오니 참석 잘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각 지역에서 오셔서 저로서는 처음이지만 오랫동안 사귀어온 사람 들처럼 따뜻한 사람



도전과 뉴프론티어 정신은 西部에 있는 듯 합니다. 광철 LA 동창회 회장님의 저서 "한국인에 고향"은 비행기에서 잘 읽었습니다. 만찬을 준비하시고, 참석해 주신 LA 동문들의 환대와 사랑

으로 대해 주셔서 즐거웠습니다. 이 기회를 통해 감사드립니다. 시간 가는 줄도, 지질줄도 모른 토론들의 진행을 보며, 역시 서울대 출신들은 끈질겨 보였습니다. 지역 동창회장님들의 유머 섞인 소개를 들으면서 미국의 全黨대회에 참석하고 있다는 착각도 하고, 이번 수석 부회장 선거는 동창회의 무한한 발전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KANSAS 김호원 선배님과 NEW YORK 이진구 선배님의 私財를 털어서라도 동창회를 원만하게 운영하시겠다는 말씀은 마음을 숙연케했습니다. 다음 기회에 봉사가 기대됩니다. 이영복 차기회장님께서, "장사치 기질" 말이 발휘해서 동창회를 잘 뒷받침하여 우리동창회의 활동목적과 내용이 進一步 되길 바랍니다.

지난 이년 동안 수고하신 李龍洛 회장님과 金正守 편집인께 이 기회를 통해 다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정말 어려운 일들을 잘도 하셨습니다. 다음 동창회를 맡으실 吳興祚 차기회장님, 새로운 사업 계획을 들으면서 가슴에 힘이 솟구쳤습니다. 역시 미국적인

감사합니다. 두고 두고 갚겠습니다. "韓國의 장래를 보러거든 冠岳을 보라" "로마 시민이 로마 市民임을 긍지로 알듯, 美國 市民임을 긍지로 알라"는 김재순 회장님 말씀은 일생동안 내에 대한 도전으로 생각하며 살겠습니다. 두서없는 글 마무리하며 두가지만 건의 하겠습니다.

첫째 평의원회의를 평의원의 숫자에 제한을 두지 말고 완전 개방했으면 합니다. 동창회 회원의 노령화와 젊은 회원의 참여가 극히 제한되어 있는 것은 우리 서울대 동창회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입니다. 제가 69 년도에 입학하여 워싱턴 지역 동창회에 77년부터 참여해왔는데 아직도 막내 그룹에 속합니다. 이번 제 12차 평의원회에도 구성원들은 대부분 원로 선배님들이십니다. 워싱턴 지역 원로 선배님인 방 은호 선배님께서 가장 듣기 좋은 말 중에 하나가 "선배님"이라는 말이라고 고백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제 저도 은퇴할 나이가 되어 가는데 동창회에 나가 선배님이라는 기분 좋은 말도 들어보고 싶다면 욕심일까요?

동창회에 새로운 동문들 참여를 위하여서, 評議員 當연직에 각 지역 전직 회장단 뿐 아니라, 다른 임원들도 포함했으면 합니다. 서울대인이면 본인 의사에 따라 규정된 評議員의 義務만 이행하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야 합니다. 이번 수석 부회장 선거과정은 본래 의도와는 달리 인선위원회의 운영에 문제점이 노출되었습니다. 동창회의 참여와 봉사의 기회는 서울대인이면 누구에게나 완전 개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창회 참여와 봉사에 대한 어떠한 형태의 제한이나 심사는 지향되어야 합니다.

둘째 평의원회를 미주지역동창회 대표자들만의 모임 Delegates Convention의 概念보다는 全美洲 서울대인들의 祝祭(all SNU alumni festival) 개념으로 변화시켰으면 합니다. 이를 실현하려면 규모면에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예상되기는 하나 미리 조직적으로 계획하고 많은 동문들이 이 행사를 위한 협조를 모을 조직과 기회를 마련하면 재미서울대총동창회는 살아있는 동창회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祝祭의 개최일을 子女들이 방학을 하는 휴가절에 정하여 휴양지에서 전 가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평의원회의가 평의원회원 가족뿐 아니라 이 곳에 공부하고 있는 유학생, 교환 교수, 그리고 자녀를 둔 젊은 동문들이 휴가를 이용하여 참여하는 일년에 한 번씩 열리는 서울대인의 진정한 祝祭로 승화될 수 있겠습니다.

## 젊어지는 동창회/내용있는 동창회보

김권식 (공대 61년 입, 미네소타 동창회 총무이사)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재미총동창회가 계속해서 유지발전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母校의 발전을 위해서 동문들이 뜻을 모아 노력함은 물론, 미주에 살고 있는 동창간에 친목을 유지하고 情報를 교환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입니다. 동창회의 발전을 위하여 평의원회에 참석하고 몇가지 소감을 말씀드립니다.



① 미네소타 지부뿐 아니라 전체 총동창회에서도 젊은 사람보다는 年長者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젊은 회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② 회보를 "잡지"형태로 바꾸는 것은 좋은 구상이라 생각합니다. 좀더 훌륭한 동창회보가 되도록 노력해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지면배열에 대하여 내용있는 구체적인 청사진을 만들어 편집해야 합니다. 단순히 재정문제 해결을 위하여 誌面을 있으나마나한 인쇄

물로 만들 것이 아니라 충실한 동창회보를 만들어 동문독자들이 보고 싶고 간직하고 싶은 "잡지"라야 할 것입니다.

③ 재정적으로 부족하지 않은 동창회가 되도록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우리동문들과 각 지역 동창회가 참여하여 각자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④ 大都市에 살고 있는 동문도 총동창회 회장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야 진정으로 7천여 동문들의 재미서울대동창회가 될 것입니다. (2003년 6월 10일)

### 재미서울대총동창회 본부 및 재미서울대동창회보 편집실 LA로 이동

우리 동창회와 동창회보는 동문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조언이 있어야만 발전할 수 있습니다. 개척자동문들의 삶을 기록하고 지성인의 우정을 글로써 나누는 우리동창회보에 동문여러분들께서 각자 취재기자가 되고 필자가 되고 동창회보의 편집내용에 대하여 동문으로서 관심있는 독자(monitor)로서의 솔직한 평가와 건설적이고 창의적인 제언으로 자라나는 나무와 같습니다.

재미서울대총동창회 사무국 및 회보 편집실: SNUAUSA  
4322 Wilshire Blvd. #102, Los Angeles, CA 90010  
전화 323-934-0080/ FAX 323-934-0082  
이메일 editor@snu.net  
웹사이트 WWW.SNUA.NET



# 격조있는 知性人의 동창회

김기현 (문리대 56년 졸, 캐롤라이나 동창회장)

지난 5월말 LA에서 개최되었던 제 12차 서울대학교 재미총동창회 평의원의회의에 참가 후 주요 3일간의 행사의 내용을 요약 이곳 지부 동문들에게 알리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본인의 소감을 작성해 보았습니다. Carolina 지부는 작년에 출범하였으며, 아직 자리는 단계 있습니다. 南北 Carolina 합쳐 150여명의 동문들이 거주하며, 주로 대학도시인 North Carolina의 Raleigh, Durham, Chapel Hill, Charlotte, Greensboro 그리고 South Carolina의 Columbia에 집중되어 있고 대부분이 대학 및 연구 기관에서 전문직으로 종사하고 있습니다. 먼저, LA 지부 동창회에서 마련해주신 만찬, Golf-outing 그리고 어린이 합창단을 동원해 음악회를 해주신 덕분에 꽤 즐거운 주말을 가졌으며, 어떻게 충분한 감사를 드려야 될 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행사는 한편으로는 큰 부담을 느꼈습니다.

Carolina 지부를 대표하여 이번 12차 LA 평의원에 참가할 때의 저의 기대 그리고 마음 자세는 ① 총동창회에 참석하시는 다른 지역동창회 대표들한테서具體적으로 어떤 활동사항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情報교환, ② 半世紀를 갖 넘긴 母校의 현황보고, 그리고 母校의 발전을 위한 方法으로 財政적인 뒷받침외에 구체적인 무엇을 할 수 있는가? ③ 最近卒業한 젊은 동문들과 만나는 기회를 갖고 이들 世代로부터 우리 既成世代에 바라는 것과 그리고 "발전적인 비관"사항들을 듣는 기회를 갖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평의원회의를 마친 솔직한 소감을 말씀드리면 주최측의 우선순위가 저의 바라는 것과 꼭 일치가 안되었는지, 별로 기대 했던 것을 얻지 못하고 헤어졌습니다.

무엇보다도 평의원회 본회에서 支部活動 報告를 낮은 우선 순위로 두고, 제대로 발언 시간도 주지않고 일,이분동안에 헤치우도록 한 것은 꽤 유감된 배려였습니다. 전야 심포지움 주제 발표 및 특별보고 강연은 아주 좋은 기획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재미서울대총동창회 회칙이 아직 보완이 필요한 단계에 있으며 이를 수정, 정리하여 정비하는 作業을 시도한 제 4대회장 이용락 회장 그리고 이 일을 꽤히 수락하여, 제한된 時日內에 문제점에 대한 검토 報告를 한 강경식 동문께 감사드립니다.

① 회장단 선거 세칙에 관련된 定款 (by-laws)이 아직 미비되었다는 인상을 받았으며, 이미 선출된 회장 인선위원회 (의장에 초대회장을 역임한 박윤수 동문)의 역할이 "選出"위원회인지, 또는 "推薦"위원회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분명치 않았으며, 많은 동문들도 이점에 혼동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② 평의원회 當日의 의사진행 방식 전반적인 인상은 이번 12차 평의원회가 헌법 제 6대 집행부가 주관한 것인지 또는 LA지부 그리고 차기회장(현수석 부회장)이 주관하는 회의인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혼선이 많은 회의진행이었습니다. 그중 내년의 사업계획 및 예산 심의 과정은 전체 21개지부의 참여와 노력을 모으는 것이, 바쁜 시간에 全國에서 모인

대표자들의 평의원회의의 목적인데도, 본부가 LA로 이전한다고 오홍조 수석부회장이 "모든 사업, 사업지원 財政을 우리 次期 회장단이 알아서 할테니,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맡겨 주시요"라고 하였다. 이와 같은 發想이라면 재미 총동창회 평의원회의는 존재의의가 없으며, 全國에 걸친 各支部 및 평의원들로 구성된 議決기구인 評議員會 역할에 대한 그 기대가 無意味하다고 보겠다. 지난 12년 동안 총동창회 살림을 하면서 겪은 풍부한 경험을 걸쳐 어떤 사업이 실행 가능하고, 어떤 것들은 실패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서로 솔직히 토론하여 함께 잡고 넘어갈 일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동창회는 회장이나 어느 지역이 도맡아 하여, 미국에서 받아 보는 졸업증서 같은 내용 없는 동창회나 내는 것에 그치지않고, "同門들의 발전"을 돕고 격려하고 어려운 사정에 있는 동문을 돕으며, 母校의 발전을 진심으로 돕는 방안을 강구하고 필요한 노력을 모으는 것이 우리 동창회의 존재이유가 아니겠는가?

③ 차기회장(수석부회장)선출과정 세분의 同門들이 자진하여 奉仕를 지원한 것은 母校의 발전과 동창회의 Motto인 "참여, 협력, 그리고 영광"을 지향하고 실천함에 있어 꽤 다행한 일이라고 보겠다. 會長 선출은 어디까지나 후보자의 동창회를 이끌어가는 원대한 經綸과 이를 실천에 옮기는 실천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후보중에서 평의원 회의에서 최다수 득표자로 선출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約定金을 앞세우든가 특정지역배려, 그리고 人氣 경쟁으로 선출하는 것은 지양했으면 좋겠다. 이번 선거도 어느 특정지역 후보를 사전에 조정하지 않았는가 하는 인상을 많이 느끼게 했다. 부디 바라건데 일년에 한번씩 모여 차기회장 "감투"를 누가 차지하게 되는가를 놓고 치열한 실경이를 벌이고 있는 또 하나의 "韓人會"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 대다수의 지역동창회로 하여금 소외감을 느끼게 하는 "4대 도시"만이 돌아가면서 동창회장을 맡게 되는 기존제도는 조속히 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것은 동창회 근본 지향 목표인 "參興"정신에 어긋나는 제도라 하겠다.

④ 만찬회 및 특별강연회 "주최측"에서는 이번 동창회 평의원회의의 大尾를 장식하기 위해 토요일 저녁 "만찬회"를 마련하여 어린이 합창단의 연주회를 主要프로그램으로 잡아넣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歡待를 받은 평의원들은 감사할 뿐이나, 한편으로는 꽤 부담감을 느끼게 하였다. 여기에 참석한 동문 대부분은 각자의 분야에서 그 나름대로 업적을 내고, 미국 主流사회에서도 인정을 받고 있는 분들이다. 평의원회는 두 직장을 뛰면서, 겨우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고달픈 삶을 하고 있는 移民교포들이 모인 것이 아니었다. "교포위원의 밤"을 상기시키는 30-40분에 걸친 거창한 어린이 합창단의 餘興은 이번 평의원회 성격에 맞지 않다고 보겠다. 音大출신 동문 한 두 분이 小夜曲 한 두개 부르는 것으로 만족할 것이었다.

필자는 그날 저녁 만찬의 초청연사로



초빙된 이재진교수와 同席하게 되었다. 어린이 합창단의 프로그램이 30-40분 차지하게 되자, 다음순서 특별강연을 맡았던 李교수의 초조해지는 모습을 옆에서 직접 목격했으며 본인도 꽤 민망한 느낌을 받았다. 아무리 허물없는 同門을 초청하였지만 極東문제 전문가로 미국 政治學會에서도 널리 알려진 李교수로 하여금 그날 저녁의 프로그램, 그리고 초청강연의 시간 할당 등을 사전에 제대로 알렸어야 될 것이라고 본다. 최근 韓半島의 情勢등을 생각할 때 "Bush 정부의 對北韓政策"을 同門 전문가로부터 솔직한 견해를 들을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였다고 보며, 이것을 감안하여 이교수도 40여분의 발표 원고를 준비하고 왔다고 들었다. 그러나 그는 결국 준비한 원고의 절반도 발표 못하고 강제로 下壇하였다.

이점 금요일 저녁에 초청되어 "북한의 과학기술 허부구조 및 핵무기 개발전략"에 대한 북한방문 보고 강연을 맡았던 필자도 강연이 끝나고 꽤 당황하고 불쾌한 심정을 안 느낄 수 없었다. 간혹 연사가 강연에 열중하여 예정된 시간을 넘기게 되는 경우, 사회자가 ("you have two min. remaining")이라는 쪽지를 연사에게 보이든가, 귀속말로 잔여시간을 알려주는 것이 관례이고 보편화된 예의가 아닌가? 그러나 끝나자마자, "듣기 싫은 보고 강연"은 빨리 끝내주었으면 하는 식의 의사진행 발언이 LA 주최자 측의 한 同門으로부터 나온 것은 좀 常識에서 벗어난 言行이라고 보겠다.

⑤ 동창회 기부금 모금 방식 끝으로 만찬회 중, 동창회 기부금 액수를 公開적으로 청약을 強要하고, 그것도 逝去한 동문의 後孫을 꽤 당황한 입장에서 한 장면을 목격하였다. 아무리 基金이 절실히 필요하지만, 募金은 어디까지나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다. 재미서울대학교 총동창회 동문들은 禮己的인 사람만 있지 않으며, 地域社會 발전에 기여하는 많은 동문들의 活動을 보고 들을 때, 우리 동창회가 구체적이고 의미있는 사업의 구체적 청사진을 설립하고 이에 따라 資源이 필요한 것을 제대로 알릴 수 있는 조직적인 노력을 한다면 더 많은 동문들의 自發的인 기여가 있게 될 것이라 필자는 굳게 믿는다.

차기회장 오홍조 동문은 폭넓게 각계각층의 동문들의 의견을 경청할 수 있는 지도력을 발휘하고 "참여-협력-영광"이란 우리 동창회의 정신을 구현하는 선두적인 역할을 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앞으로 우리 동창회가 더욱 발전하여 이제 많은 同門들의 참여로 뜻있는 사업을 실질적으로 펴는 동창회로 발전하기를 소망하며 이 글을 맺는다.

# 民主的인 동창회, 品位있는 동창회

김봉전 (공대 68년입, 록키마운틴즈동창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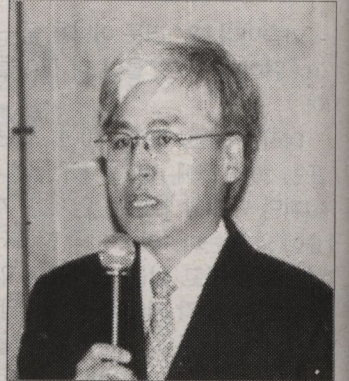
록키마운틴즈 동창회가 지난 1월 26일 창립되고, 처음으로 재미 서울대 총동창회 평의원회의에 참석하여 본 지부가 정식으로 인준을 받았고, 따라서 본인이 평의원으로 정식 참가하게 되어 그 감회가 깊었다. 이번 평의원회는 지금까지 가장 많은 평의원들의 참석으로 성황이었다고 한다. 前夜 심포지움, 평의원회의의 관악후원의 밤, 골프대회, 관광코스 등 많은 관련행사들의 진행을 위해 많은 분들이 수고하신데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Palm Springs의 Mesquite 골프대회에 본인은 잘하지 못하는 골프실력에 큰 용기를 내어 참석했는데도 뜻밖에 Hole No 2, par 4에서 130야드를 남기고 Hole in One을 (물론 공식적인 것은 아님)하고, 돌아오는 Bus 안에서 참석자중 가장 원로선배이신 방은호(약대 42년입), 김호원(차대 52년입), 이영목(공대 63년졸) 동문님들의 "고상한 농담" 등을 재미있게 들었습니다.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가졌지만 필자가 느낀 몇 가지 아쉬운 점이 있었다. 옳지 않은 일에 대한 沈黙은 꼭 美德은 아니며 默示的인 同意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동창회의 발전을 위하여 몇 가지 진행상 노정된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① 인선위원회 운영- 차기 수석부회장은 관례에 의하여 차차기 회장이 되므로 이의 선출은 재미 총동창회의 미래의 지도자를 추대하는 평의원회의의 가장 중요한 기능의 하나이다. 이번에는 3명의 후보가 입후보하여 추천인의 소개와 참석한 2명의 후보자의 소견발표와 사정에 의하여 불참한 후보의 서신 대독이 있을 후 투표를 통하여 차기 수석 부회장을 선출하였다. 세 후보자 모두 훌륭한 분들이라 한 분만 선출되는 아쉬움도 있었지만 차후에 이분들이 활약을 하실 기회가 온다면 재미총동창회의 앞날이 밝아 보였습니다. 이영목 차기 수석부회장의 당선을 축하드리고, 선배님께 큰 기대를 걸겠습니다.

결과적으로 民主的인 절차에 따라 투표로 잘 진행되었지만 한가지 우려사항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

인선위원회 위원장께서 "인선위원회의 단일후보 추천으로 평의원회에서는 可조만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셨는데, 이는 민주주의 정신을 근본적으로 위배하는 선출방식이다. 이 방식은 인선위원회가 차기 재미 총동창회장을 임명하고(표면적으로는 단일후보추천) 평의원회는 인준하는(표면적으로는 투표를 하지만 단일후보에 대해서는 가부밖에 없음) 방식이다. 간단히 말하면 전 현직 동창회장인 인선위원들이 새 회장을 임명하며 평의원회는 이를 인준동의만 해야하는 "任命制"라고 말할 수 있을는지 모른다. 이는 재미 7,000동창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차기회장의 선출을 인선위원회의의 임의로 하겠다는 발상이다. 이는 민주주의 원칙에 배치되며 시대 착오적인 발상이라고 할 수 있다. 차제에 인선위원회는 선거관리 위원회로 명칭과 기능이 바뀌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② 4대 도시 집행부 순번제- 뉴욕을 비롯한 일부 평의원들이 재미 총동창회장은 후보는 4대 도시출신(NY, LA, 시카고, 워싱턴 DC등)에 한해서만 자격이 있다고 한 주장에도 본인은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다. 이런 주장을 개진하는 서울대 동문들의 質에 대해 의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었다. 그 분들의 논리는 재미 동창회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동창회원들이 많은 4대도시밖에 능력이 없고 따라서 입후보자격도 4대도시로 제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미국의 21개 지역중 4개 동창회는 회장을 선출할 수 있고 나머지는 항상 참석하여 擧手만 하자는 이야기인가요? 4개 도시의 동문은 1등 동창회원이고 나머지 17개 지부는 2등 동창회원이지요?

4대 도시는 되고 다른 지역은 능력이 없다는 그런 주장의 근거는 이해하기 어렵다. 재미총동창회장의 소임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人的, 物的자원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것은 이해하고 있지만 모든 입후보자는 그러한 각오를 하고 나온다고 생각된다. 현재 4대 도시 이외의 다른 지역동창회에서 참석한 평의원들의 열성으로 보아 다른 지부도 총동창회의 집행부를 이끌 능력이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만약 현행 4대도시 순번제만을 계속 주장한다면 앞으로는 "재미총동창회"를 "미국 4대도시 연합동창회"로 명칭과 기능을 변경할 것을 제안합니다.

③ 정관 위원회의 활동 - 강경식(문리대 55년입)회칙위원의 지적대로, 현행 定款이 면세지위 획득을 위한 英文판과(그러나 아직 관행으로 유효한 듯한 그 이전의) 國文판이 상이하며 평의원회 역할규정 등 재미총동창회의 기능수행에 근본적인 점들이 未備되어 있어 보완이 시급하다는 데에 동감한다. 일단 일단 후에 심의하기로 결의를 보았는데 내년 평의원회의 이전에 검토하여 구체적인 과제를 선정하여 많은 동문들의 의견을 모으는 작업이 진행되기를 바란다.

④ 특별연사 초청 강연- 특강연사선정과 강연주제는 역시 서울대 이름을 빛낼 수 있는 훌륭한 분들의 강연의 내용들이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 前夜 심포지움의 특별 초대 연사로 North Carolina 대학교의 물리학 講座교수인 김기현(문리대 56년졸) 동문은 北韓核계의 특별초청 방문에서 통하여 체험한 "北韓核 개발실상"에 관한 기술적인 측면"의 보고에는 그 실상을 잘 분석하였습니다.



# SNU House 건립을 제창하며

한창섭 (문리대 57년 입, 뉴욕동창회 23대회장)

지난 9년간 타의 반 자의 반으로 서울대 뉴욕지구동창회에 관여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뉴욕지구 동창회가 본인도 없는 사이에 [文理大] 동창회장의 감투를 강압적으로 쓰게 하여서 1년 동안만 봉직한다는 것이 5년을 하였고 드디어 순번에 따라 1년 임기의 뉴욕지구 총동창회장이라는 보다 큰 감투를 쓰게 되었고 그 동안에 재미총동창회의 최고 의결기관인 평의원회의에 5회나 참석하는 영광(?)을 가졌다.

지난 5월 31일에 로스앤젤레스에 열린 제 12차 재미서울대학교 총동창회 평의원 회의에 참석한 것이 다섯 번째로서, LA로 떠나기 전에 [한글]會則을 한 번 읽어보았더니 재미총동창회의 목적이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복지를 도모하며, 母校의 발전에 기여함"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형식적으로는 모든 권한이 評議員會에 집중되어 있다. 그러나 실질적인 권한은 지금까지 관례에 따라서 동창회원수가 많은 워싱턴, 시카고, 로스앤젤레스 그리고 뉴욕이 순번에 의하여 맡아온 會長에게 있다.

그런데 이번 회의에서는 지금까지의 傳統을 깨고 차기회장을 自由競選에 의하여 선출하였다. 과연 이러한 경선제도가 동창회를 위하여 장기적으로 볼 때 그리고 현실적으로

좋은 것인지 나는 확신이 가지 않는다. 물론 民主的인 면을 중시하는 뜻에서는 회원수가 적은 소도시 출신의 동문이 모든 자격을 갖추고 있을 경우 자유경선에 의하여 출마하여 奉仕의 기회를 주는 것이 대단히 타당한 일이다. 그러나 동창회 회장이 있는 곳에 동창회 본부를 둔다는 회칙 3조를 감안하고 동창회 운영을 위하여 적지 않은 지원인력이 필수적이라는 면을 고려한다면 현재까지의 대도시 순번제가 오히려 보다 現實的이고 동창회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길이 아닌가 나는 생각한다.

재미총동창회가 창립당시 몇 개의 지역동창회가 참여하였는지는 모르지만 1995년의 한글 회칙개정 당시에는 10개 지역이었으며 오늘 현재는 21개나 되고 내년에는 평의원 수가 71명으로 늘어날다.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會則改正을 위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음으로 물론 잘 알아서 時宜에 맞는 방향으로 회칙 개정안을 마련 할 것으로 기대하지만 나는 다음 몇 가지 사항을 고려할 것을 제의한다.

첫째, 현재의 회칙은 완전히 執行部와 議決기관을 동일체로 규정하였기에 평의원회는 마치 우리나라가 5.16 군사혁명후에 있었던 "국가재건 最高會



議"와도 같다. 이름도 듣기에도 생소한 "評議員會" 대신 "理事會"로 바꾸고, 理事長은 회장이 난 인접 小都市 출신의 동문으로 선출하는 전통을 세우는 것이 좋겠다. 만일 평의원회가 회칙개정을 결의한다면, 현재의 會長이 평의원회의장을 겸하는 것을 금지하고, 별도로 議長을 선출하는 것이 좋겠다. 평의원회 의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여서 가능한 한 많은 지역동창회 회원들이 총동창회 일에 참여하는 기회를 넓히는 것이 좋겠다. 매년 평의원들이 "둘러리"나 서고 "拍手나 치기" 위하여 많은 비용을 들여서 멀리서 회의에 참석한 결과가 되었다는 非難은 면하여야 한다.

두 번째는 재정문제인데, 현재는 내가 알기로는 동창회 "會費제도"가 회칙에만 있지 실제로 실행되지 않고 있다. 현재 받고 있는 동창회보 "購讀料"를 "동창회비"로 이름을 바꾸고, 同窓會報는 無料로 모든 동창회원들에게 배포하는 것으로 함이 타당할 것 같다. 이는 듣기도 좋고 또 미국대학동창회의 예를 보아도 동창회보는 회원들에게 무료로 배포하고 있다.

세 번째는 평의원(理事)수를 현재의

지역별로 할당하지 말고 누구나 평의원회비 또는 이사회비를 납부하는 모든 동문에게 개방시키는 새로운 제도를 확립하는 것이 재정보호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그리고 끝으로 오홍조 신임회장의 집행부가 생각해 볼 일이지만 동창회가 보유하고 있는 基金[동문들의 誠金]으로 관약후원회 종신이사비 \$72,000과 "母校와 後進을 위한 기금" 현금 적립액 약 18만불을 합한 25만 2천불이 쌓인 것으로 안다]에 대한 기금 출연의 목적과 사용용도에 대한 모든 제

한과 타당성여부의 적극적인 재검토를 촉구한다. 현재의 축적된 資源을 재미총동창회가 가장 우선적으로 하여야 할 사업들을 위하여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긴 안목에서 同門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숙고하여 장기적이고 구체적인 사업목표를 세워 적극 추진하여 주기 바란다. 구체적인 재미동창회의 사업의 "고려방안"중의 하나로 나는 언젠가 美國內에 모든 동문들이 애용할 수 있는 동창회관(가칭 "SNU House")설립을 제안한 바 있다. 즉 Harvard Club, Yale Club 그리고 Princeton House와 같은 말이다. 이는 미국을 방문하거나 여행하는 국내의 동문들이 머무는 곳도 될 수 있으며 안정된 장소에서 동창회의 사업을 적극 추진하는 동창회의 本部 건물의 역할도 할 수 있지 않을까? <필자(미스타 세피아어)와 뉴욕평의원단 LA 12차 평의원에서>

## <18면 김봉전 계속>

또한 관약후원의 밤의 특별초대 연사로 Claremont McKenna 대학의 석좌교수 이채진 동문의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강연은 예리한 관찰과 분석으로 깊이 있었습니다. 두 분 모두 미국 學界에서 존경을 받는 분들로서 최근 "韓半島 核의 기"에 당면하고 있는 우리에게 뜻 깊은 행사였습니다. 그러나 遺憾은 이러한 강연 후 당연히 있어야 할 질의 토론의 시간이 주어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보통 이러한 토론과정이 공식적인 강연보다 연사의 主題에 대한 솔직한 느낌과 판단을 전달 받을 수 있는 중요한 기회임으로 아쉬웠다. 또한 초청연사에게 시간이 지나기도 전에 시간 경고를 준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았다. 시간이 아까울 분 같으면 왜 특별연사로 초대를 했는지요? 더구나 어린이 합창단을 10여곡씩이나 하게 한 후 사회자는 시간이 모자란다고 느꼈다면, 초청 연사들에 대한 예우가 적절했는가를 생각해 하지 않을까요?

관약후원의 밤은 지리적 산재한 각 지부의 대표자들이 총동창회의 목표를 추진하기에 필요한 직접대화와 전면 기획임에도 진행 도중 사회가 힘 집행부에서 LA 지역 차기임원으로 넘어가면서, 마치 차기 회장단(오홍조 회장)이 취임식을 하는 듯한 기분이었다. 동창회기 종료는 분명히 한 달 후인 6월 30일이므로, 조금 더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했다. 조직의 질서와 동문간의 우애와 신의를 위하여 또, Golf 행사도 공식 행사인데 어느 임원이 많은 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차기 회

장을 "오인" 이름 석자로 크게 붙렸는데 공식석 상에는 당연히 공식 호칭이 적합하지 않을까요?

⑤ 강압적인 현금 약정-총동창회 발족 초기에 많은 私財를 내었던 현금자의 遺家族에게 감사를 표한다고 초대하여 놓고 많은 청중들 앞의 公開석상에서, 갑자기 일정한 현금액수를 講約하게 하는 것은 서울대 동창회의 品位에 적합하지 않다고 느껴졌다. 적어도 대한민국의 최대의 知性과 教養을 자랑하는 서울대 동창회에서는 앞으로는 좀 더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 아울러 이러한 관약후원회의 밤 진행상태에 의의를 제기한 김정수 동문의 경우, 긴급 발언권을 얻어 차분하게 문제점을 지적하였다면 많은 분들의 공감을 얻고 회의가 잠시라도 여수선해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아쉬움도 남았습니다.

다같이 다양한 삶의 시간속에서도 동창회를 위하여 새로운 情熱과 抱負를 갖고, 새로 취임하는 제 7대 집행부에 우리 동문들은 큰 기대를 보냅니다. 우선 동창회보를 새로운 "잡지"형태로 발간하고 재정자립을 광고에 많이 의존하겠다는 새로운 발상과 Website의 활성화 등 사업의욕에도 감명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기존의 잘못된 점들을 시정해 나가고 미래를 위하여 창조적인 변화를 시도한다면 우리 재미 동창회의 무궁한 발전에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신임 7대 집행부가 미주 전체 동문들의 열성을 모아 동창회 발전을 위해 매진할 것을 기원드리며 졸필을 맺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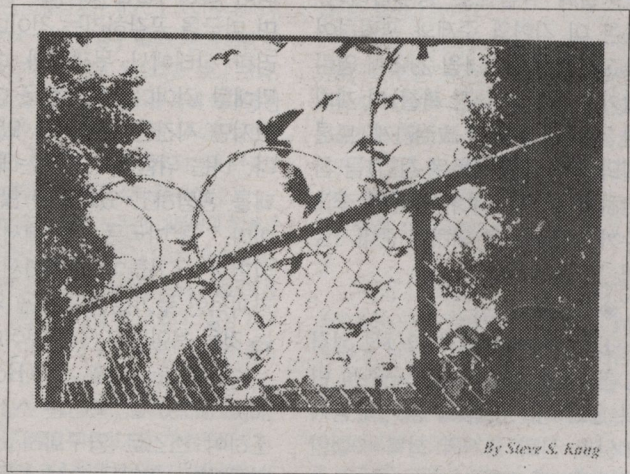


평의원회의의 진행현황을 촬영중인 순방단의 막내 동문 정민호기자(서울대동창회보)와 기록원 김종원동문(문리대 69년 입). 이번 동창회보 제작에 많은 사진을 보내준 정민호동문께 감사드립니다.

## 임광수 총동창회장 재미동창회보 발간지원금 \$3500 出捐

林光洙 동문(서울대학교 총동창회장, 공대 52년 졸)은 제 12차 재미동창회 평의원회의에 참석 후 재미동창회보 발간 지원금으로 미주관약후원회비 \$3500을 출연하였다. 재미서울대총동창회는 이에 감사드립니다.

# 스티브 강 獎學生 선발



By Steve S. Kang

스티브 강 獎學財團 (The Steve S. Kang Young Artists and Scholars Fund)에서는 대학생 및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2003-2004 학년도를 맞아 장학생을 선발한다. 예술분야, 자연과학분야, 인문과학분야 및 응용과학 등의 각 분야에서 뛰어난 업적을 냈거나 자질을 가진 젊은이들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 <장학생 선정기준>

학업성적, 예능, 창의력, 지도력, 재정사항, 본인의 에세이, 추천서등을 종합평가하여 선정

### <장학생 선발 인원 및 금액>

올해 11명의 장학생을 선발하며, 장학금 총 지급액은 3만불이며, 수여할 장학금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일만불(1명) ◆5천불(2명) ◆2천불(2명) ◆1천불(6명)

### <제출서류>

① 장학금 신청서 ②이력서 ③성적표 ④재정보고서 ⑤추천서 2통(각 추천인이 직접 발송한 것) ⑥지원자가 작성한 에세이(2페이지 정도의 분량으로 작성하여, 원본과 5통의 사본을 함께 보내실 것). 장학금 신청서는 website sskangfund.org에서 download 하거나 아래의 e-mail로 연락하면 받을 수 있으며, 추천서는 각 추천인이 직접 작성하여 아래의 주소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 <신청마감일>

2003년 9월 30일

### <지원서 접수처>

Mrs. C. Kimberly Kang

16 Forest Gate Circle

Oak Brook, IL 60523

Tel: (630)572-9202 Fax: (630)572-9765

E-mail : sskangfund@comcast.net



# 美國의 對韓半島 정책

재미서울대학교총동창회 제 2회 특별강연

이채진(문리대 59년 졸)교수

◆강연일시 : 2003. 5. 31 (토) 오후 9시

◆장소: Grand Ball Room, Radisson Wilshire Plaza Hotel

◆연사소개 : 송순영(문리대 52년 입)미주관악후원회 부회장

◆강연주제: 미국의 對韓半島 정책

◆강연시간 : 40분 강연 후 참석동문들과 토론

[재미서울대 총동창회는 제 12차 평의원회의를 기념하여 기획한 이채진 교수의 특별강연이 5월 31일의 "미주관악 후원의 밤"이 진행상 야기된 混線으로, 예정되었던 강연과 토론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 것을 특강연사와 경청하신 동문들께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이 강연의 주제와 관련하여 이교수가 2003년 4월 29일에 열린 남가주 동창회(회장 곽철)이 개최한 "韓國과 美國의 政治관계" 토론회의 초록(홍옥자동문 정리)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교수가 특별강연을 위하여 준비자료임.]

### ◆머리말

①韓半島의 危機의 역사적 성격  
②한반도와 미국관계의 구조적 변화  
③韓美頂上會談의 성과와 평가  
(1)상호 신뢰 관계의 회복 (2)현안 문제해결의 함의

### ◆美國政策의 特殊性

①政治理念과 國家利益 ②理想主義와 現實主義 ③강경파와 온건파 ④기능전문가와 지역전문가 ⑤共和黨과 民主黨 ⑥行政府와 議會 ⑦지도세력과 일반대중

### ◆Bush 대통령의 對外認識

①二分法적 世界觀 ②基督敎적 道德觀 ③金正日에 관한 인식 - ★"나는 김정일을 혐오한다. 국민들을 기아상태에 둔 이 자(this guy)에 강력한 반감을 갖고 있다. 그는 거대한 수용소를 갖고 가족을 파괴하고 사람들을 소문하고 있다." ★文明社會가 어떻게 그를 방관하고 포용할 수 있겠는가? ★그가 제거된다면 막대한 경제적인 부담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논리를 수용할 수 없다.

### ◆Bush 行政府의 新世界 戰略 語錄

<新抑止 정책> (Bush, 2001/5/1) ①"사람 후세인처럼, 오늘의 독재자들은 미국에 대한 증오심에 사로잡혀 있으며 그들은 우리의 친구들도 증오하고 우리의 가치관도 증오한다. 그들은 대부분 자국 국민들의 생활상태에 관심이 없다." ②"이러한 세계에서 냉전당시의 억지정책은 충분치 않다. 우리는 공격력과 방어력을 모

두 포함하는 새로운 억지정책이 필요하다. 억지력은 더 이상 핵보복의 위협에만 의존할 수 없다. 방어력도 무기확산의 유인을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억지력을 강화할 수 있다."

<惡의 軸 개념> (Bush, 2002/1/29) ①"악의 축 국가들과 그들의 테러 동맹자들은 세계의 평화를 위협할 수 있게 무장되어 있다." ②"이 나라들은 大量殺傷武器를 추구함으로써 엄중하고 증대하는 위협(a grave and growing danger)을 가하고 있다. 그들은 테러집단에 武器를 제공하고 있으며 그들의 증오심에 상응하는 수단을 부여하고 있다. 그들은 우리의 동맹국들을 공격할 수 있으며 미국을 공갈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상태에서 무관심의 대가는 막대할 것이다. 우리들은 신중하겠지만 시간은 우리편에 있지 않다. 나는 위협이 다가오는데도 사태를 관망하고 있지만은 않을 것이다." ③"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국가들이 세계에서 가장 파괴적인 무기로 우리들을 위협하는 것을 용인하지 않을 것이다."

<北韓의 悲劇> (Bolton, 2002/8/29) ①"북한은 스스로 창조하여 스스로 영구화하고 있는 비극이다. 평양은 수십년 동안 미사일과 대량살상무기로 장비된 막강한 군사력을 건설하면서 경제발전을 고사시키고 국민들의 기아상태를 방치하고 있다." ②"북한의 악한정권(evil regime)이다.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탄도탄 미사일 장비를 수출하고 있으며 세계에서 가장 왕성한 공격적인 생화학무기의 소유국이다." ③"소련은 3만개의 핵탄두를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붕괴했던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先制攻擊정책> (Bush, 2002/9/17) ①"미국은 국가의 안보에 대한 충분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선제행동(preemptive action)의 선택권을 오랫동안 견지해 오고 있다." ②"위협이 클수록 無爲(inaction)의 모험은 더욱 클 것이다. 비록 敵이 공격할 시기와 장소가 불명확할지라도 우리들을 방위하기 위한 예비적 행동(anticipatory action)을 취해야 할 정당성은 더욱 막중할 것이다." ③"우리들의 敵들에 의한 적대적 행동을 예방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면 미국은 선제공격을 실행할 것이다."

### < Iraq 전쟁과 Rumsfield Doctrine >

◆韓美 同盟관계의 재정립

□①駐韓美軍의 재배치/감축/철수 ②주한미군 사령부의 이전 ③지위협정(SOFA)의 개정/개선 ④작전 통수권의 환수 ⑤韓美 동맹의 성격변화

### ◆北核 문제해결의 방안

①核 보유현실인정/ 현상동결/ 억지력 강화 (Deterrence) ②경제제재/ 외교고립/ 군사력 압력/ 폐기유도 (Coercion) ③선제공격/ 전면전의 가능성 (Preemption) ④협상과 포용을 통한 포괄적 타협 (Engagement)

### ◆맺음말

#### ①韓美관계의 將來에 관한 驚句

(1)Georg F. Kennam-국제관계에는 永遠한 友邦도 없고 영원한 敵國도 없다.

(2)Richard E. Neustadt-국제정치에서는 危機가 있을 때 상호관계가 친밀할수록 오해나 불신이 커질 수 있다. 위험은 우호관계의 정도에 비례하여 증대할 수 있다. 무관심과 적대관계에서는 偏執症(Paranoia)이 없을 수 있지만 友好관계에서는 Paranoia가 있기 마련이다.

#### ②韓半島의 미래

## 美國時論

### 北京 6자회담 평가

[편집자주: 아래의 뉴욕타임즈의 사설은 8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동안 중국 북경에서 한국, 북한,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의 외무부 차관급이 수석대표가 되어 열린 北韓核문제를 다루기 위한 6者會談에 대한 평가이다. 그간 방관자적 자세를 취해오던 中國은 이제 美國과의 교역관계에 있어서 최대의 黑字國으로 성장하여 미국 시장의 계속 진출과 탈북난민에 대한 반인권적 송환조치 등으로 국제사회의 비난때문에 미국의 대북한 중재 및 압력 요구를 거부할 수 없어 이 회담을 적극적으로 중재한 듯 하나, 이 회담은 두달후에 다시 회담을 계속한다는 합의외에는 미국과 북한측의 차이점만을 노출하였다. 北韓은 이 회담후 즉시 이 회담의 無用性을 주장하는가 하면 또 다음 회담에 참가하겠다는 일견 모순된 자세를 계속하고 있다.]

### Inching Ahead With North Korea

(NYT 사설, August 30, 2003)

It's hard to call the latest round of nuclear talks with North Korea successful when they were punctuated by Pyongyang's threats to

### 특별강연 연사

李棟文(문리대 59년 졸)교수

李棟文은 현재 클레어몬트·맥키나 대학 국제정치학 석좌교수 및 국제전략문제 연구소 소장으로 재직중인데 모교 정치학과를 1959년에 졸업하고, 미국 UCLA에서 정치학·박사를 1966년에 받고, 캔사스 대학교 정치학 교수 및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Long Beach)의 사회과학대학 학장을 역임하였다. 또 그는 위싱턴 대학교, 캘리포니아 대학교(San Diego), 미국 육군참모 대학교, 동경대학교 및 서울대학교 방문연구원이었으며 미국사회과학협의회 한국학 위원회 위원장, 미국아세아학회 동북아위원회 위원 및 한국학위원회 위원, 재북미 한인정치학자회 회장, 한국 통일 연구회 회장, LA 한인회 자문위원 및 한미 장학재단위원등을 역임하였고, 한국국제학술 교류재단 자문위원, 한국 통일 연구원 자문위원, 한국국사편찬위원회

해외조사위원, 한미연합회(KAC)고문과 Asian Survey, Asian Perspectives, Journal of Korean Studies 등 다수의 學術잡지 편집위원이다. 그의 저술로는 China and Korea: Dynamic Relations, The Changing Asia-Pacific Region 및 The Cold War: Re-assessments 등 20여개의 冊과 80여편의 논문이 있다. 이채진교수 연락처 ☎ 909-624-5300

test a nuclear weapon. Yet the three-day session in Beijing that ended yesterday actually registered more gains than losses. Though there was no progress on the main issues of substance, the ground has been prepared for further diplomacy, or, if necessary, international action to contain the North Korean nuclear threat.

The United States' insistence that North Korea's main neighbors be present at the talks paid off. China, Japan, Russia and South Korea all heard for themselves North Korea's belligerent language and chilling threats. All four directly conveyed to Pyongyang that they had their own serious concerns about its behavior and were not merely singing Washington's tune. This seemed to be grasped by the North Koreans.

China, the host for the talks, played an especially valuable role. Beijing deserves much of the credit for getting North Korea to agree to the six-nation format, and for shepherding the discussion to a relatively positive conclusion. While China did not achieve all the diplomatic

progress it had hoped for, it did win an informal agreement to hold more talks within two months, with North Korea indicating that it would refrain from further provocative steps for the moment. That must mean no nuclear explosions and no long-range-missile tests. It should also include a freeze on further threats to turn Seoul, or anywhere else, into a "sea of fire."

Pyongyang says it wants a nonaggression treaty from Washington and help in keeping its drowning economy afloat. The Bush administration has repeatedly indicated its willingness to move on both fronts, but only after the North verifiably eliminates all of its nuclear weapons programs. Given Pyongyang's history of breaking past agreements, it should not receive any rewards based on promises alone. There is, however, no reason Washington cannot spell out what it will be willing to do once North Korea demonstrates that it has permanently abandoned its nuclear weapons ambitions.



# 韓國과 美國의 政治관계

◆발표연사

(남가주 총동창회 학술 토론회 초록)

이채진(문리대 59년 졸, Mckenna College 교수)

정종욱(문리대 63년 졸, 전 모교 外交學科 교수 및 駐中대사 역임)

◆사회: 객청회장

◆일시: 2003년 4월 29일(화) 오후 7시 30분

◆장소: West LA 한인교회

◆기록장리: 홍옥자(음대 66년 입)남가주 총동창회 사업국장

다음은 최근 北韓 핵문제에 한반도는 물론 전세계의 비상한 관심거리가 되고 있는 가운데, 사계의 전문가인 이채진 및 정종욱 교수가 패널리스트로 참가한 <남가주 서울대 동창회 주최 학술 토론회>를 정리한 것이다. 이날 토론회는 객청(법대 64년 입)회장의 인사에 이어 이채진 교수가 '부시의 對北政策'을 정종욱 교수가 '韓美관계의 제반 문제'를 각각 30분 정도 발표하고, 이어 임종문(약대 52), 김영(수의대 63), 박봉현(사대 79), 조무상(법대 70)등이 질문과 연사들의 답변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참석자 대부분은 끝까지 자리를 지키며, 두 전문가 동문의 견해를 시종일관 진지한 분위기에서 경청하였다.

★ <이채진 교수 발표요지>

이전에는 한국을 '조용한 아침의 나라'라고 했지만, 이제는 '놀라운 아침의 나라'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다. 매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북한 핵문제를 둘러싸고 많은 사람들이 한국 문제를 주시하고 있다.

첫 번째, 우선 北韓問題에 접근하기 이전에, 지금까지 미국의 對外政策을 규정하는 두가지 큰 흐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 하나는 理想主義 혹은 自由主義라고 부르는 입장이다. 윌슨 대통령, 카터 대통령, 클린턴 대통령을 잇는 흐름이다. 이 입장에서는 인간을 합리적이고 협조적이며, 변화 가능한 존재로 인식한다. 대외정책에서는 包容政策

이 위주가 된다. 다른 하나는 現實主義의 입장이다. 현 부시 대통령이 대표적이다. 철학적으로 보자면 Thomas Hobbes와 Machiavelli를 잇는 흐름이다. 이 입장에서는 인간세계를 '무정부적이고 무질서적인 것'으로 본다. 대립과 競爭은 필연이라고 본다. 결국 外交政策에 있어서도 힘의 논리가 가장 우선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이런 두 가지 관념에서 現實主義의 입장에 서있는 현 부시 대통령은 그만의 독특한 정파가 있다. 黑白을 명확히 가르는 二分法적인 생각에 宗教적인 경향을 갖고 있다. 北韓 등을 '악의 축'이라고 규정한 것이 단적인 예다. 이런 배경에서 부시대통령의 對北정책은 4가지 핵심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첫 번째는 新抑制主義다. 冷戰시기의 고전적인 억제주의가 두 強大國 사이의 대량살상 무기 보유를 통한 힘의 균형에 입각한 것이라면, 新抑制主義는 유일의 거대 강대국이 이라크, 시리아, 북한같은 중소국가와 테러집단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두 번째는 權의 軸 개념이다. 부시 대통령은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것은 이라크, 이라크, 북한 등의 악의 축 국가와 테러 동맹자이며, 이들의 활동을 광범화하지 않겠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세 번째는, 先制攻擊논리다. 敵이 불명확 하더라도 이를 저지하는 예비적 행동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네 번째는 단독주의 혹은 一方主義다. 多者間 협력이나 UN이 개입하는 방법을 최선으로 생각하지만, 만약 불가능하다면 미국 일방만으로도 행동에 나설 수 있다는 생각이 있다.

미국의 對北정책을 예상할 때는, 이상과 같은 4가지 핵심개념 외에 또한 國內 정치사정까지도 고려해야 한다. 911사태 이후 럽스

펠트 국방장관, 체니 부통령 같은 패자가 나서고 있는 점, 또 부시 대통령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다는 사정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상과 같은 전제하에, 최근 核문제를 둘러싼 그 동안의 北美關係를 회고해보도록 하자. 작년 10월 3-5일 사이 미국무성의 Kelley 차관보가 北韓을 방문했다. 10월 3일 북한 외무성의 김계관 부부장을 만났는데, 순은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지 않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다음날인 4일 북한의 강석주 수석부부장이 핵무기 개발을 시인했다. 이에 미국은 重油공급중단, 대북협상 중단 등으로 맞섰다. 북한은 이에 대해 더욱 반발, 제네바협상을 무효화하고, 핵확산금지조약을 탈퇴했다. 미국의 共和黨은 기본적으로 클린턴 행정부의 對北 지원에 대해 "掠奪당했다"는 관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北韓이 요구대로, "무엇인가를 지원하면서 회담을 성사 시키려는 생각"이 없었다. 이런 와중에 이라크 전쟁이 터졌고, 그 결과는 미국의 압도적인 승리였다. 이후 열린 北京 3차 회담은 북한도 조금 양보하고, 미국도 조금 양보한 것이라고 본다. 이 회담에서 이북이 핵보유 사실을 공개한 것은 북한이 이 상황을 정면 돌파할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을 짐작케 해주었다.

앞으로 美國의 선택은 다음과 같은 4가지 중의 하나일 것이다. 하나는 소위 '最低政策'으로 북한의 핵보유 사실을 인정하되, 더 이상 개발하지 못하고, 또 주변국가에 수출하지 못하도록 압박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북한과의 소위 包括적인 협상을 통해 핵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UN등을 통해 강력한 經濟제재를 통해 북한을 압박하는 것이다. 네 번째는 軍事的 행동을 통해 북한의 핵시설을 선별 폭격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韓國은 제일의 이해당사자일 뿐더러, 이 협상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

<토론회요지: 질문자 → 발표자 답변>

<김영> "주한미군 이동, 주한미국 감축 이후의 북한의 위협" → 미국은 이전부터 해외주둔군의 규모를 줄이고, 철수하는 방안을 모색해왔다. 主權이 변화했기 때문이다. 한국에서의 주한미국의 최근 움직임도 그와 연장선상에서 볼 수 있을 것이다.

<박봉현> "북한은 미국의 이러한 태도 변화에 대해 어느 시점에서 어떤 입장으로 대화에 나설 것이라고 보는가?" → 어제 미국이 북한의 제안을 거부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런데, 이는 거부가 아니라 길고 긴 회담의 시작일 것으로 본다.

<조무상> "북한 핵문제 해결 과정에서 민간 차원에서 노력이 갖는 의미?" → 20세기의 많은 전쟁들이 사실은 오해나 착각, 인식의 격차로 인해 발생했다. 민간 차원에서 이런 부분의 해소를 위해 노력한다면 도움이 될 것이다.

★ <정종욱 교수 발표요지>

노무현 대통령의 訪美가 다음달 5월 다가왔다. 이번 방문은 두 가지 중요한 과제가 있다. 하나는 한미관계에 대한 기본 방향을 다시 설정하기 위한 것인데 그 이유는, 한국 지도력의 미국에 대한 시각이 변했기 때문이다. 이전엔 미국은 血盟이란 시각에 의문이 있을 수 없었다. 그런데, 소위 386세대가 주축이 된 한국의 새 지도력은, 최근까지 미국은 好戰적인 국가이며, 미국의 對北정책이 韓半島에 부담으로 작용할 지 모른다는 시각을 갖고 있었다.

하지만 安보상황은 世代의 차이를 넘어서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韓美同盟에 관한 한 강경론자들과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번 노무현 대통령의 방미를 통해 미국의 정치가 경제인들은 모두 한국의 대 대통령으로 부터 對美關係를 어떻게 설정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 직접 듣고 싶어할 것이다.

다행히 취임 이후 노무현 대통령의 對美 관련 발언들이 변화를 보이고 있다. 특히, 核문제에 관한 한 先核문제해결, 後對美關係조정이라는 분명한 입장을 갖고 있다. '실상 김대중 정부 시절 부시 행정부와는 관계는 좋지 않았다. 이번 기회에 이런 불편함을 없애고, 양국 정상이 서로를 인정하고, 이해하며, 존중하는 공감대를 마련하기를 기대한다. 北韓 핵문제에 대해 처음으로 북미양국이 합의를 해낸 사건이 94년도의 제네바 협정이

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는 완벽한 국제조약이라고 하기에는 문제가 있다. 제네바 협정은 북한 核문제를 終結(=End)한 것이 아니라, 당시 상태를 凍結(=Freeze)한 것이라고 봐야 한다. 즉, 이 문제는 해결된 사안이 아니라 難題를 해결한 상태였다. 이번 북한 핵문제는 그 難題가 더진 것이라고 본다.

최근의 核이슈는 94년에 비하여 그 양상이 훨씬 복잡해졌다. 北韓은 이전 핵을 소유하고 있다고 공언했고, 제네바협상을 무효화하고, 핵확산금지조약을 탈퇴했다. 한편 美國은 대외정책에 관해 이전과는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가지 다행인 점은 아직까지 북미가 서로 대화의 창구를 열어놓았다는 점이다. 또 북한 핵문제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중국이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는 모습도 긍정적이다. 이 핵문제의 최종적인 해결은 어렵고, 긴 과정이 될 것이다.

<토론회요지: 질문자 → 발표자 답변>

<임종문> "한국의 젊은 세대가 北韓 핵이 장차 韓民族의 핵이 될 것이기에 필요하다라고 주장하는데, 국민의 어느 정도가 그에 동조하느냐?" → 94년 核 협상을 할 때보면 당시 한국 정부 내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사람은 없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의 정확한 생각은 모르겠지만,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대단히 불행한 일이다.

<김영> "駐韓美軍 이동이나 減縮 이후의 北韓의 위협은?" → 현 시점에서 주한미군의 이동과 주한미국 감축논의는 북한의 오해를 조장하고, 국민의 걱정을 가져올 가능성이 크며, 이것이 현실화되었을 때 한국군의 군사력 강화를 위한 경제적 부담이 커진다는 점을 감안할 때 바람직하지 못한 논의라고 본다.

<박봉현> "北韓은 미국의 이러한 태도 변화에 대해 어느 시점에서 어떤 입장으로 對話에 나설 것이라고 보는가?" → 94년 상황과 비교할 때 중간에서 완충작용을 할 인물 기관이 없는 상태에서 北韓은 특유의 비량 끝 전술로 밀고 나갈 것이 분명하다. 결국 한국은 미국과의 긴밀한 협력 속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나갈 것 같다.

# 南北 철도 연결을 보면서

문창재(한국일보 논설위원실장)



신문사가 쉬었던 지난 주 토요일 휴전선 동서 양단에서는 역사적인 일이 있었다. 경의선과 동해선 남북 철도를 연결하는 행사였다. 다음날인 날인 월요일 아침 신문에 보도된 기사를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 행사 기사가 너무 담담하게 처리되었던 것이다. 1면에 사진만 실거나, 2면 또는 사회

면에 간략한 스트레이트 기사만 실렸다.

50년 넘게 끊겼던 국토의 대동맥이 이어졌다는 의미도 크지만, 이어진 철로 위로 국군과 인민군 장교들이 웃으며 걸어가는 모습을 전하면서, 어떻게 그런 편집을 할 수가 있는가. 뉴스가 치관정의 속성상 묵은 기사는 뒤로 밀

리게 마련이다. 그러나 이전 아니다. 옛날 같으면 당연히 호의 거리였을 역사적인 사건을 그렇게 취급하다니...

행사는 양측 관계자들이 레일 이음매 장치를 고치시키고 그 의미를 선언한 간단한 이벤트였다. 장관급 참석 행사로 하자는 북측 제의가 거부돼 행사의 격이 떨어진 것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다. 행사 준비과정에서 보도된 남북 군 관계자 접촉 장면은 예사 일이 아니었다.

DMZ를 넘어와 공사현장을 답사하는 인민군들 모습을 보면서 6·25의 참극을 떠올린 사람이 나 혼자였을까. 붉은 줄로 장식된 인민군 군관모자의 네모 꼴은 '북한 괴뢰군'의 상징이 아니었던가. 그 모자를 쓰고 우리 측 관리구역으로 넘어온 그들이 남측 장교의 브리핑에 귀를 기울이는 모습은 탈린 세상의 상징이었다.

이해하기 어려운 일은 철도연결 다음날도 이어졌다. 6·15 남북 공동선언 3주년 기념 공식행사가 남측에서 생략된 일이다. 일요일인 이날 민간단체들은 도라산역에서 기념행사를 가졌으나, 노무현 대통령은 안보 팀과 함께 골프를 쳤다. 전임자가 한 일이지만 대북정책의 계승을 선언한 이상

조출하게나마 기겁하고 넘어가는 것이 도리가 아니었을까.

그러나 북측은 민족통일 대축전, 과학토론회, 예술공연 등 다양한 행사로 평화공세를 폈다. 국제여론을 의식한 제스처로 보는 시각도 있지만, 말끝마다 평화와 대화를 외쳐온 우리가 그렇게 무신경했던 것은 잘한 일이 아니다. 북쪽이 더 평화지향적이라고 국제여론이 역류한다면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비록 전 구간 복원이 아니라 해도 남북 철도 연결의 의미가 폄하되어서는 안 된다. 보수 논객들은 전쟁의 위험이 가지지 않은 상황에서 급하지도 않은 남북철도 연결을 부각할 필요가 무어냐고 묻고 있다. 그것으로 남북 철도가 완전히 이어진 것도 아닌데 떠들 것 없다는 말이다. 더 과격한 주장에는 6·15 합의를 폐기해야 한다는 것까지 있다.

그러나 전쟁의 위험이 크면 클수록, 복구공사 미착공 구간이 길면 길수록, 철도연결의 의미는 강조되어야 한다. 비무장 지대가 어떤 곳인가. 반세기동안 인간의 통행을 거부해 야생동물 천국이 된 곳이 철길로 이어진 것은, 인체로 말하면 끊어진 동맥의 통합이다.

가장 중요한 부위가 이어졌으니 남은 구간은 마음먹기에 달렸다.

북한 핵 문제가 꼬여 가는 가운데 선 세번째 6·25가 돌아오고 있다. 그 이틀 뒤에는 제7차 이산가족 상봉행사가 금강산에서 열리며, 다시 이틀 뒤는 서해교전 1주년이다. 지금 서방 강대국과 아시아 인접국가 들은 북한 압박을 가속시키고 있다. 우리까지 나서서 북을 몰아붙인다면 그들은 정말 막 나갈지도 모른다.

북한 외무성은 18일 성명을 통해 "미국의 대 조선 고압 압살 전략에 대한 정당방위 조치로 핵 억제력 강화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선언했다. 우리는 인질을 잡고 흥기를 휘두르는 범인의 가족과 같은 입장이다. 아니, 잡혀있는 인질 신세이기도 하다.

범인이 스스로 사살 당할 위험을 느끼도록 꾸준히 설득하고, 흥기를 내려놓기를 기다리는 일 밖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언가. 경찰이 총을 쏘지 못하게 하려면 인질이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밖에 없다.

필자연락처: cjmoon@lk.co.kr (한국일보 2003/06/20일 13면에서 게재)



# 번영하는 韓國과 參戰勇士들의 기여

## Korean Veterans Memorial Speech

金好元(치대 52년 입, 하트랜드동창회 이사장)



망망한 大海 미시간호를 면하여 미시간주의 조그만 마을 (Berrien County)에는 韓國戰에 참전한 용사들의 기념비(KOREAN WAR MEMORIAL)가 서 있어 마을 사람들의 자부심과 의리를 보여준다.

**KOREA**  
THE FORGOTTEN WAR (25 JUNE '50-27 JULY '53)라는 명문아래 미군의 사상자가 기록되어 있다.

① 전사(KIA)- 54,246名 ② 부상(WOUNDED)- 103,284名 ③ 행방불명/포로(MIA/POW)- 8,177名

[편집자주: 아래의 글은 김호원동문이 2003년 7월 27일 오후 3시 30분 Raytown High School, 6019 Blue ridge blvd. Raytown, Missouri에서 있는 韓國戰 休戰協定調印 50주년을 맞아 韓國戰 參戰勇士會(The Korean War Veterans Association and Auxiliary Kansas City, Missouri Chapter)가 주최한 기념식에서 행한 記念辭 全文이다.]

Good evening, General Berkheiser, Congresswoman Karen McCarthy, Commander Goodson, Chairman Tom Walsh, Commemoration Committee, my fellow Korean War Veterans, families, friends and esteemed guests, it is an honor to stand here before you tonight to remember North Korea's invasion of South Korea, almost a half-century ago.

Since the end of the Korean War in 1953, South Korea has made remarkable progress towards democracy and well on the road of economic stability and prosperity. Korea has become a highly developed nation and is now ranked worldwide:

7th in automobile production, 1st in ship building, and is currently 3rd, right below U.S. and Japan, in computer production. Korea's literacy rate is in

the 96th percentile. The message, I believe we all wish to convey tonight regarding these achievements, and many more, IS: because of you and your unselfish devotion and sacrifice to Korea and her people. It was YOU who laid down the foundation and sacrifices of many lives for our Korean military to follow and maintain the democratic ideals for our future and our great homeland.

Millions of people around the world remain eternally grateful for your unwavering contribution and dedication in the fight against communism in the Korean peninsula. It is ironic, when people refer to the Korean War as "The Forgotten War..." Forgotten? Absolutely not! This war remains forever in our hearts and minds. We can never forget the profound events that took place... we will never forget the emotions we all felt.

throughout this War.

It is my personal belief that the Korean War should serve as a positive example for developing nations around the world. After all, because of [your dedication to] this war, Korea is a prospering democratic



ulture-one in which people have been afforded human rights.

freedom of assembly and speech, gender equality and all the other benefits that accompany a democracy. Korea now enjoys unprecedented freedom, dignity and universal human equalities. With the current situation of North Korea's possible 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it is a distinct reminder for us today, the anniversary of the Korean War armistice that we hope and pray that our political leaders will negotiate with diplomacy and peace rather than war.

So I ask you, How can we possibly forget the Korean War? I am proud to announce that we are currently working on a comprehensive plan in which Korean Veterans residing in the U.S. are helping to promote and honor the American Veterans who helped liberate our country. It is our honor to demonstrate our sincere appreciation to the U.S. Veterans and to the American people.

General Douglas MacArthur eloquently stated that "old soldiers never die; they just fade away..." Our Korean peninsula may have been radically different had MacArthur had his way in conducting the war. In Korea, Gen. MacArthur is loved and admired and permanently inscribed in every Korean history book as a true war hero.



### 이 동문을 도울 길이 없겠습니까? 동문여러분!

## 파리에서 온 同門 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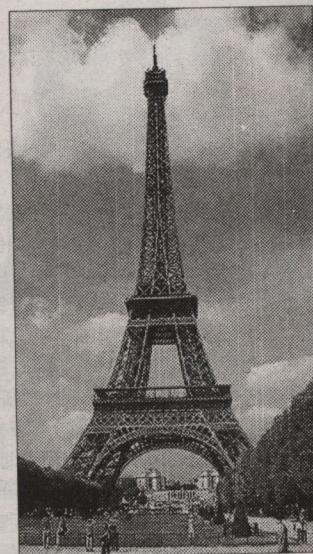
劉恩鎬 (문리대 57년 졸)

서울대 文理大 英文科를 57년에 졸업한 나이든 아주머니 同門이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자주 미국에 다니고 있으나 지난번 미국 갔다가 [NY에서] 文理大 佛文科를 나오신 [연봉원] 변호사님 (Mr. Yeon, Bong W.)를 만나 뵈고 재미 서울대 同窓會報를 선물로 받은 후 감개무량하여 몇 자 적어 올립니다. 저는 한국에서 梨大 大學院에서 教育行政을 工夫, 女學校 敎師 노릇을 約 20년간 한 다음, 가고 싶은 미국에는 못 가고 불란서에 오게 되어 20여년 일하고 2년전 퇴직하고 살고 있습니다.

퇴직 후는 미국에 가서 살고 싶으나 영주권이 없어 늘 고민이고, 이번에도 변호사님들을 만나러 NY에 갔다 왔지요. 이번에 변호사님이 주신 동창회보에 "서로 돕고 사랑하는 우리 서울대학교의 자랑스런 동문들"이라는 文句에 감명을 받고 이렇게 편지를 드리는 것입니다. 가능하다면, 제가 나이가 들었으나 dynamic하니, 永住權을 받을 수 있게 就業移民 길을 열어주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Paris와 Nice에서 Tax Free Shop에서 6년간 일하며 동시에 Tour Guide를 했고 그후 14년 이상 Louis Vuitton에서 일하고 불란서의 법에 의해 자진 퇴직했습니다.

과거에 Louis Vuitton의 人事 담당자를 만나 NY의 L.V. [支社]에 가고 싶어했으나 미국민이나 영주권자가 아니면 안된다는 거예요. 혹시 불란서처럼 외국관광객을 상대하는 Tax Free Shop(영어외의 외국어가 필요한)이나 Hotel에서



제가 취업하게되면 合理的으로 취업이민이 되겠지요? 저는 英語 외에도 佛語와 日語를 합니다. 여학교는 京畿女高를 졸업했고, 종교는 기독교이나 교회에서 일한 증거가 없으니 종교 이민은 불가능하겠지요. 저는 가족이 하나도 미국에 없으니 가족이민도 불가능하고, 富者가 아니니 투자이민도 불가능하니 영주권만 얻을 수 있다면 봉사자로 기꺼이 일할 수 있습니다.

[동문여러분] 바쁘겠지만 친절하신 답을 주시면 연락 드리고 만나 뵈려도 갈 수 있겠습니다. 남은 여생 미국서 살고 싶습니다. 불란서는 외국인에 대해서 미국 같지 않고, 그간 저는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동문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Paris 교외에서 유데레 드림)

<필자 연락처> :

Therese Yoo  
5 Bd. Anchinède  
77420 Champs-sur-Marne  
France

In conclusion, we look forward to meeting again, to commemorate and never forget the



history-changing contributions you have made. We welcome you to this auspicious occasion and let us all enjoy and celebrate "The Korean War Veterans" Never die just enjoy their long life and happiness. God bless America! Kamsahamnida!

정전 50주년을 기념하는 평양의 구호들(우측사진)  
주한미군기지에 들어간 한국학생들과 미군의 대치 장면(좌측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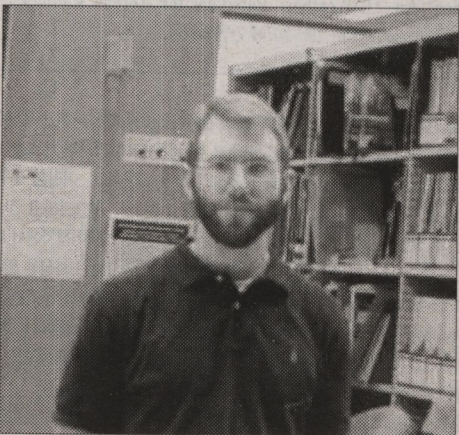


한 美國 市民의 소리

## Toward an Enduring Peace in Korea

### 反美感情과 主한 미군에 대하여

John Kimbrough (The University of Chicago)



I had an illuminating conversation with a South Korean woman the other day, Eric Weiner wrote in the 3 February issue of The New Republic. She is very worried, she explained, about a dangerous nation armed with nuclear weapons and intent on stirring up trouble. The leader of this nation, she said, won't heed the call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Yes, I replied, everyone is concerned about North Korea. No, no, she replied, not North Korea. I'm talking about the United States.

In early August, a group of university students staged a rally at a U.S. firing range, holding No War placards and attempting to burn American flags. Other student protesters recently demanded that the United States pull out all of the 37,000 troops stationed in South Korea, and halt what they called a policy of nuclear confrontation towards the North.

These are not isolated sentiments: while many in the United States have focused on anti-American sentiment in Europe, the Economist (19 April) reported that 44% of South Koreans harbor negative attitudes towards America, trumping both France and Germany. The same poll found that only 30% of South Koreans are concerned about the North's possession of nuclear weapons, compared with al-

most 60% of Americans, and that most South Koreans believe that North Korea would be more likely to use nuclear weapons against targets in the U.S. or Japan rather than in South Korea. The Economist further reports: In South

Korea, moreover, negative attitudes towards America are especially concentrated among the young, so they may persist for a long time to come.

These opinions might sound strange to Americans, whose thoughts about the Korean peninsula center around the danger posed by North Korean ballistic missiles, and of the many American troops stationed in South Korea, defending that country from Chinese and North Korean aggression.

However, South Korean attitudes towards North Korea have changed. Korean students have grown up in an era of relative peace, and the governments sunshine policy has persuaded many that North Korea should not be viewed as a hostile enemy, but as a wayward cousin. Also, many Koreans feel that America does not give Korea the respect it deserves. The presence of U.S. troops thus not only becomes an obstacle to peace, but also a mark of disrespect and dependence.

What can be done to heal this rift between the U.S. and Korea? I offer a few suggestions. As a start, the U.S. should look for ways to reduce its military footprint in South Korea. Improvements in technology may mean that a smaller amount of troops can provide the same degree of security. Redeploying military units, and the land occupied by

military bases to civilian use, could alleviate Korean perceptions that America is occupying South Korea.

The U.S. should also adopt a more collaborative and respectful relationship with South Korea, seeking Korean involvement and input at all levels. America's insistence on making South Korea a party to any discussions with North Korea is a step in the right direction. President Bush should also

be aware of the great desire Koreans have for reunification, and should seek ways to honor that desire while not giving up security guarantees.

Meanwhile, South Korea should understand that the United States (indeed, most countries in East Asia) are greatly opposed to North Korea's continued development of nuclear weapons and ballistic missiles. Halting these programs is a neces-

ary precondition to moving forward with other agendas, and the South can use its influence and aid to help persuade the North to cease weapons development.

The United States and Korea have had a good and productive relationship for many years. While the goals and nature of the relationship may change, it is my hope that the friendship and trust between America and Korea will always endure.

## 조수미 덴버 콘서트

배병옥(음대 62년 졸)

지난 5월 13일(화) 오후 8시 이곳 Denver Performing Art Center에서 있었던 조수미 동문(음대)의 음악회는 오랜만에 故國의 아름답고 귀한 鄉愁를 동포들에게 일깨웠고 이 음악회가 가져다준 감명과 의미 있었던 시간들을 다시 감사드립니다. 조수미씨와 반주자 빈센조 그리고 바이올리니스트 오주영씨 모두 덴버에 도착하자마자 연주자들이 "좋은 여건"(good condition)이었다는 사실과 고백은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음악회 시작직전에 2개의 프로그램 변경이 발표 될때 조금 의아했습니다. 그러나 나중 알게 된 연주자들의 "좋은 여건"으로 인한 풍성한 여유에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이 音樂會는 나의 옛 기억들을 불러왔다. 1975년인가? Maria Callas가 처음 한국에 와서 梨花女大 강당에서 그 아름다운 音聲과 노련한 技法과 풍부한 感情 그리고 세련된 무대 공연으로 온 청중을 사로잡고 끊임없는 박수 갈채와 榮光의 물결로 가득 채운 그날이 연상되었고 오늘의 더욱 의미있는 영광과 기쁨을 감사기도로 채우며 기다렸습니다.

직접 처음 접하는 조수미씨의 연주는 그의 生動하는 가슴에서 솟아오르는 특유의 세련된 音樂性이었습니다. 그의 깊은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넘치는 기쁨, 平和와 所望이 살아 움직이는 감동의 연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녀의 탁월한 음성과 잘 훈련된 연주기법, 그리고 참으로 어려운 高音치리에 따른 感情의 흐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神秘를 자아내는 특별한 調和의 감동이었습니다. 그의



內面的 세계에서 섬세하게 흘러나오는 音樂性的 調和는, 머리끝에서 발끝 및 손가락 끝까지와 볼 수 없는 온 몸 전체의 전율을 타고 흘러나오는 마음의 根源을 보여준 아름다움이었습니다.

이번 음악회를 위하여 아들이 A席 입장을 구입했다는 연락을 받고서 곧 그것을 반환하게 하고, 이번 기회에 미국인 친구들을 초대하여 韓國을 알릴 좋은 기회로 생각하여 음악목사와 음악인 친구들을 위하여 중앙일보를 통해 C석 7장을 구입할 수 있어 기쁨으로 감사했습니다. 우리는 한 줄에 나란히 앉아 신기한 感動에 젖었습니다. 첫 순서부터 그들은 감동은 연거퍼

mazing", "Angel's Voice" 라는 讚辭로 그들의 신기하고 놀라운 아름다움의 감동을 표현 하였습니다. 하여 이 음악회 자리를 빛내주어 함께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특히 그들의 큰 感銘은 우리 모두 함께 부른 보리밭의 노래가 모두 "한 마음 한 목소리"로 들려서, 韓國人들의 아름다운 情緒와 모습을 깊게 심어주었으며 끝난 후에도 여러 번 감사와 찬사와 존경을 표현해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이 음악회의 더욱 아름다운 大尾는, 조수미씨의 숨은 秘密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그의 참 신앙과 겸손과 아름다움이 표현된 "Amazing Grace"이었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로 미주를 순회 공연하는 그의 마음의 마무리를 전해 더욱 빛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조수미씨와 그의 일행 모두에게 주어져서 이번 7회의 미주를 순회하는 공연중 남은 세 번도 그 연주자들이 最上의 상태로 자아내는 和音의 공연이 이어지도록 진실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화로 정직과 信實한 삶의 실현으로 愛國하는 그리스도의 使徒되기를 더욱 기도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음악회를 개최한 중앙일보 전 직원의 헌신적인 숨은 수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2003년 봄 조수미 미주공연 일정

- ▶ Los Angeles April 13(Sun)/7:30PM/Music Center 3,100
- ▶ New York April 17(Thu)/8:00/Carnegie Hall 2,200
- ▶ Chicago May 11(Sun)/7:30/Chicago Orchestra Hall 2,300
- ▶ Denver May 13(Tue)/8:00/Denver Performing Art Center 2,600
- ▶ Vancouver May 16(Fri)/8:00/Orpheum Theatre 2,600
- ▶ San Francisco May 18(Sun)/8:00/Flynt Center 2,300
- ▶ Washington D.C May 24(Sat)/8:00/George Mason Univ. 2,000



# 韓半島 中立化論...10가지 이유

黃仁寬(법대 50년 입, 미 브라운대 명예교수)

### <序>

우리나라가 1945년 美軍과 舊蘇聯軍에 의해 南北으로 양분된 지 58년이 지났고 통일된 韓半島를 누가(남·북 어느 쪽이) 지배해야 되느냐는 점을 둘러싸고 각자 자기 쪽에서만 그 통일국가를 장악 관리할 자격이 있다는 주장으로 서로 敵對하고 있는 중이고 6·25전쟁은 양쪽에 결정적 승부 없이 休戰으로 끝나게 되었고, 周邊 4強國(미국·구소련·중국·일본)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두 한반도에 개입하게 되었다. 분단 이후 우리는 統一民族의 聖業이고 歷史的 使命이라 부르짖으며 조국통일 달성에 몰두해 오고 있었지만, 그러나 국내·외 정치의 극적인 대변화 혁신 속에 다른 분단국들은 거의 재통일되었지만 한반도만은 여전히 분단국으로 남아 있다. 分斷이 지속되는 근본적 원인은 안으로는 통일된 한반도의 통수권 문제이며, 밖으로는 주변 강대국의 한반도에 대한 이해관계 때문이다.

冷戰이 아직도 韓半島에서는 계속되고 있다. 여전히 주변 강대국들은 각기 利害관계에 따라 南北韓을 이용하려 하고 있다. 그러므로 남북통일은 우리 남북간의 문제이면서도 周邊 4強國의 협조와 지지, 타협이 이루어질 때만이 그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南北統一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남북한과 주변 4강 사이에도 공동이익이 될 공통분모의 남북통일안이 요구되며 중립화 통일 방안은 그 대안이 될 수 있다. 지금까지 중립화 통일안은 외교정책의 爭執 해결방안으로 사용돼 왔으므로 중립화 통일은 남북한, 주변 4강, 남북한과 주변 4강간에도 동시에 이익이 되는 통일방안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는 中立化統一이 필요한 10가지 이유를 간단히 설명해보고자 한다.

10가지 이유를 案內해 내기 전에 우선 中立化의 의미부터 간략히 언급한다. 中立의 起源은 인간이 戰爭을 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생긴 것이며, 이는 다른 나라 사이에 戰爭이 일어날 때 그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中立을 지키려는 제 3국의 입장을 의미한다. 중립국간의 관계는 그후 國際法으로 규정됐다. 즉 중립국의 권리로서는 ▲領土의 불가침 ▲中立國의 公境·公평성의 수용 ▲국제법이 허용한 범위 내에서의 通商不干渉 등이고, 그 외에는 ▲불편 부담 ▲공정·공평 ▲交戰國에 대한 원조 자제 ▲交戰國에 中立國 領土 사용의 不許 ▲국제법 범위 내에서의 通商不干渉 허용 등이다.

현재의 中立化 概念은 이러한 古典的인 중립화 개념의 變形體로 發展된 것으로 이러한 국제법상의 國家의 身分상태를 의미하며 스위스(1815), 벨기에(1831, 1839), 룩셈부르크(1867), 오스트리아(1955), 라오스(1962) 등이다.....

오늘날 國際法上 永世中立國의 신분으로 남아 있는 나라는 스위스와 오스트리아, 벨기에, 룩셈부르크, 라오스는 전쟁(1·2차 세계대전, 베트남전) 때문에 그 중립신분이 훼손됐고, 벨기에와 룩셈부르크는 NATO 가입으로, 라오스는 공산화된 베트남에 끌려갔고 있다. 1·2차 대전 후 총력전 경험으로 말미암아 單純中立이나 永世中立 개념도 그 당당성에 문제가 생기게 되었는데, 그것은 제 3中立國과 交戰國 사이에 이루어지는 어떠한 通商일지라도 移籍行爲로 간주되었기 때문이다.....

혹자는 독일이나 베트남, 예멘의 경우에 통일은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져 중립화가 되었는데 韓半島 통일에 유동성을 반문할지도 모른다. 한반도에선 아직도 냉전이 계속되고, 주변 4강들의 이해관계가 서로 교차 갈등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 強國들의 이해·갈등을 중화·무마시켜줄 수 있는 기능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은 중립화(영세중립)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된다.

平和的 分爭관리 기구로서 永世中立化 원칙이 정립된 것은 단지 冷戰에서 기인된 것이 아니고 勢力均衡 정치제도에서 기인됐다는 점이다. 그러나 탈냉전 정치체제가 아무런 국제분쟁이나 갈등이 없게 되기를 기대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

이다. 1991년의 걸프위기, 98년 보스니아 전쟁 그리고 계속되고 있는 중동위기가 그 사례들이다. 그러므로 중립화란 쓸모 없는 시대에 맞지 않는 정책 기구로 전락된 것이 아니라 한반도 평화 통일에는 절대 필요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한 중립화 통일이 되어야 할 10가지 이유를 열거해 보고자 한다.

### <중립화 통일이 이뤄져야 하는 이유>

#### 1 地理的 요인

'지리는 역사의 어머니'라는 古語가 있다. 즉 지리적 위치는 국가의 국제생존의 근본적 구속력을 갖고 있다. 한 나라의 위치는 一定不變한 것이므로 그 나라는 주어진 그 이윤과 잘 살아갈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우리 한반도의 주어진 지리환경을 살펴보면, 주변 강대국들(중국·러시아·일본)에 둘러싸여 항상 그들 강국의 경쟁·대항의 무대가 돼 왔다. 또한 한반도는 가장 작고 약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들 주변 어느 나라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입장이 되지 못했다. '고래 싸움에 새우등만 터진다'라는 말은 우리나라가 대단히 불리한 지리적 위치를 차지하여 많은 不運을 겪어왔다는 것을 시사해 주는 것이다.

2차대전 후 한반도의 분단과 현재 계속되고 있는 남북통일의 부진도 이런 불리한 지리적 요인에 기인한다. 근대 역사에서 보아도 주변의 제국주의자들에게 좌우되어, 1910년에 일본의 식민지가 된 것도 2차대전 후 38선으로 분단된 것도 지정학적인 특수위주로 균형정책의 대상의 운명을 반복하고 있었을지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최근 북한 핵문제만 하더라도 이것은 틀림없이 우리 민족끼리의 문제일 수 있지만 美國이 개입하여 북한과 미국이 제네바협정을 통해 해결하게 됐다. 1996년 4월 한-미 정상회담 4차 회담 제안은 남북한 통일이 같은 민족간의 내부적 문제지만 주변국의 협조와 이해 없이는 불가능함을 명백히 한 것이며 통일문제는 우리만의 일이 아니고 주변국의 국제적 협조가 절실히 요구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우리 민족에게는, 중립화(영세중립) 통일안은 不利한 地理的 環境을 昇華시켜 우리민족의 최대 이익을 성취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 2 南北統一의 國際化 필요성

프랑스 격언에 '물결이 변하면 변화수록 더 그대로 남아 있다'란 말이 있다. 이것은 우리나라 통일현실에 들어맞는 격언이다. 分斷이후 세계환경은 물론 韓半島 내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分斷고착 상태만 계속되고 있다. 다시말해서 6·25전쟁의 종식, 남북한 UN동시가입, 북한 주석 김일성의 사망, 대북 비호·쌀 지원, 금강산 관광 등의 획기적인 국내적 변화에도 통일과정에서 오든 총통만이 계속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분단이후 핵심적 문제가 되고 있는 '통일된 한반도를 어느 쪽이(대한민국 또는 인민공화국)가 통치해야 하는가' 하는 政治爭點이 해결되지 않는 탓이다.

이 政治爭點은 남북간 政治가 계속되는 한 해결되지 않을 것이며 따라서 分斷도 계속될 것이며 남북관계의 전부를 차지하고 이 점을 위한 투쟁·선전·군사행동은 계속될 것이다. 크고 작은 [북한의] 韓南 浸透사건도, 1991년에 채택한 남북기본합의서가 이행 안 되는 것도 이에 연유한다.

1990년 독일 통일의 사례는 남북통일에 否定的인 교훈을 주긴 했지만 建設的인 교훈은 되지 않고 있다. 즉 北韓은 어떻게 해서든 동독의 운명을 되풀이하지 않고 베트남형의 통일을 하려하고, 南韓은 서독식 통일비용 부담을 되풀이하려 하지 않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統一은 남북간의 평화적 협상과 회화로 성립되는 것이 원칙이나 남북 두 당사자끼리 통일이 성사되기 어렵다는 것도 인식하여 국제기구를 통한 방법도 施行하는 것이 보다 효



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영향력을 가진 제 3세력이 존재할 때면 1972년 7·4공동성명이나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도 시행되며 통일의 進展을 볼 수도 있을 것이다.

#### 3 公정한 재통일 과정에는 審判官이 필요

옛말에 '원수를 만났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들 자신이다'라는 말이 있다. 우리 남북간 통일문제를 두고 하는 말인 것 같다. 즉 우리의 통일은 우리가 해야 되는데 우리 때문에 안 된다. 그것은 남북한 각자가 자기단독으로 자기 식으로만 재통일을 하려하기 때문이다. 이 상태는 마치 한 병에 들어있는 두 견장이 싸우는데 각기 타방을 죽일 수 있지만 타방을 죽이게 되면 자기 자신도 죽게 돼 있는 입장과 같다. 進退兩難에 처해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은 주권국가는 일반적으로 자기 국가이익에 맞춘 대로 행동할 수 있다는 자구지책의 國家論理에서 나온 것으로 南北이 합의했다 하더라도 자기 측에 불리하다고 생각할 때는 언제든지 거절하고 부인하는 것이다.

4 남북 양측에 이익이 되는 통일방법 전 미국무장관이었던 헨리 키신저는 '일방의 절대적 안전은 타방의 절대적 불안전'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 말은 남북 양측이 다 같이 명심해야 될 말이다. 재통일에 가장 중요한 점은 어느 한쪽이 승자나 패자가 되지 않고 통일이 이뤄되는 방법이다.

그러므로 통일은 南北이 서로가 경직된 경쟁(zerosum game)에서 벗어나 양측에 이익이 될 수 있는 타협적 통일방안을 모색해야만 가능하다 는 것이다.....

5 주변 4강의 中立化 합의 통일 결과와 가능성 아시아 문제 전문가인 로버트 스칼라파노 교수는 '한반도 문제는' 남북한에 절대적 책임이 있지만 그렇다고 그것을 서울과 평양 단둥이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망상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한 바 있다. 남북 당사자간에 통일문제를 해결 못한다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외부힘조가 필요함은 自明하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즉, 집안 일에 왜 구태여 외부사람을 불러들여 집안 망신을 시키느냐는 盲目的 愛國主義者들의 인식이다. 이것은 전통주의의 개념의 시대주의와는 전혀 다른 것이며 보다 현명하고, 계몽된 創造的 민족주의의 발상이 필요하다. 外鄣의 힘을 빌려 우리 민족의 생존 문제를 해결하려는 소위 用大主義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永世中立國이 되어 우리의 통일과 독립을 찾는 것은 보다 탁월한 민족주의로서 환영해야 될 일이다. 오늘날의 주변 4강의 韓半島高懸은 중립화 합의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도 높다고 본다.....

#### 6 통일까지 중간 정치역 필요

남북간에 지속돼 온 상호불신과 적대감 때문에, 가장 현명한 통일방안은 단계적으로 서서히 많은 중간 정치역을 거쳐가는 것이다. 이상적으로는 통일될 때까지 중립연방제 같은 체제하에서 통일을 다루게 되는 것이다.....

250:50 분할이 아닌 상호부조·공평에 입각한 평화공존 촉진

6·25 전쟁의 충격과 오랜 분단의 苦難의 경험에서 당장 통일보다는 시간을 두고 서서히 통일 작업에 나서라는 것이 우리하며, 일정기간의 평화공존이 필요하다. 그래서 相互不信과 相互危險에서 벗어나 남북이 서로 안심도를 높여지고 서로 먹느냐 먹히느냐의 공포감 없이 순조롭게 통일접근을 할 수 있게 되며, 남북간의 협력정신을 배양케 될 것이다.

中立化統一提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첫

<편집자주: 필자는 1960년에 法大를 입학하였다 韓戰의 발발에 따라 학업이 중단된 후 渡美하여 캘리포니아대 및 사우스 캘리포니아대학원 졸업, St Louis의 워싱턴대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고 귀국하여, 단국대, 고려대, 국민대, 건국대에서 강의한 후 1966년부터 2001년까지 미국의 Bradley대의 한반도 통일연구원 교수로 재직 후 퇴직하였고, 저서로 永世中立化를 통한 統一韓國 미국과 중립화 통일한국 의 다수가 있다. 아래의 글은 필자의 持論인 한반도의 중립화 통일론에 대한 그의 논문 '중립화 통일이 되어 할 10가지 이유, 남북과 주변 4강의 합의 이룰 수 있는 민족주의적 방안' (자유공론, 2000. 2월) pp. 64-71에서 편집자가 축약한 것임. 이 글과 同旨의 英文本은 "Neutralization: An All-Weather, Paradigm for Korean Reunification", Asian Affairs 25:4(Winter 1999), pp. 195-207에 간행되었음.>

째는 통일되고 독립된 우리 나라를 건설 할 수 있고 그 독립을 영구히 유지하고자 하는 것이며, 둘째는 韓半島 지역 즉 동북아에 평화와 안정과 안전을 보장하게 마련이다. 그것은 한반도 중립화 중화·조화시켜 주기 때문이다.

南北이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분배해서 일을 추진해야 할 것이지만 그렇다고 남북간의 권리와 의무·혜택·분배가 반드시 반-반, 즉 50:50 형식이 될 수는 없을 것이다. 즉 統一은 算術的 계산이 아니고 民族의 복지가 계산돼야 하는데, 이러한 民族精神의 성장은 상당 기간 서로 협력하면서 시련·성공·실패 과정에서 생기게 될 것이다. 이것이 중립성 태두리 안에서 성립될 수 있다고 본다.

#### 8 남북 무장해제와 군비축소

통일은 평화적 협상을 통해야 한다. 南北軍備擴張은 양측에 經濟負擔만 가중시킨다는 것이 상식이다.....

軍備縮小는 평화공존과 화합의 상징이며 통일의 불가결한 단계이나, 현실적으로 남북간에서만 해결될 문제가 아닌데 이는 양측이 군비문제를 국가생존의 최고인 초석이라는 발상대이다. 이 군비문제도 中立化 제도하에서, 제3의 관찰기구 하에서만 가능하다고 보게 되는 것이다.

통일과 더불어 군축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駐韓 美軍 철수문제가 있다. 中立化體制에선 美軍이 철수하더라도 4강국간의 세력균형이 유지되며 美軍撤收 후에 생길지도 모르는 합의 공백은 韓半島가 통일된 후 어느 주변 강국에도 기울지 않을으로써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즉 중립화는 미국의 체면도 살려가며 미국의 이익에도 부합할 것이다.

#### 9 결과를 예측, 후유증 최소화

통일의 목적은 평화적으로 상호 합의된 條件에서의 통일이다. 統一의 結果는 통일이 되는 條件에 달려 있으므로 통일조건은 통일 그 자체와 똑같이 중요한 것이다. 이 둘은 분리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현재까지 나온 여러 가지 통일방안 중에서도 중립화(영세중립화) 통일방안이 가장 이론적이고 통일 후에도 후유증이 가장 적은 방안이라고 보여진다. 그것은 앞으로 재통일이 될 우리나라의 통일상을 미리 예측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스위스나 오스트리아형 국가를 연상하게 된다.....

#### 10 시대주의를 민족주의로 전환

지금까지 중립화 통일원칙은 고립주의적 위험성을 내면한 실행 가능성이 없는 수동적이고 국가주의를 제한하는 親北(특히 南韓에서)적 방안 등으로 부정적이고 왜곡된 면으로만 해석돼 왔다. 그러나 현대계에 있어 이보다 더 좋은 유효한 통일방안은 없다고 생각한다.

統一된 中立國은 우리 민족이 歷史의 회생물이 되지 않고 그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기회를 가져다 주기도 한다. 중립화 통일이 될 경우 우리나라는 앞으로 독립적이고 적극적이며 어떠한 특정 宗主國에 기울지 않고 차별없이 同等한 善隣外交정책을 전개하게된다. 종전과 같이 歷史의 捕虜가 되지 않고 역사적 형성이 된다는 것이다. 영세중립국이라 해서 그 신분을 바꾸지 못하고 영영 구속된다고 우려할 수도 있으나 자주 독립국가로서 그것은 우리 민족이 원하면 국제협약에 의해서 그것은 우리 민족이 원하면 국제협약에 의해서 바꿀 수도 있다.....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 둘 일이 있다. 1910년 한-일합방 전에 우리나라 정치는 친일, 친중, 친러, 친미파 등으로 구분되어 서로 권력투쟁을 벌

였다. 그러다 1895년 10월 명성황후가 일본인에게 암살당하게 된 것은 그가 러시아 세력을 빌려 일본을 견제하려 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파당 정체가 재통일 후에 재현되지 않으리라고 장담할 수 없다. 그것은 우리민족이 國內정치에서 得勢하기 위하여 外部협력에 의지해온 사실을 말해준다. 그러므로 永世中立國 원칙에서 생기는 중립(독립)정신은 이러한 外勢에 의존에서 벗어나게 해주며 진정한 독립·애국·민족정신을 창조해 내게 될 것이다.

統一을 成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統一과 독립을 유지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므로 중립(독립)원칙을 새로운 민족주의로 채택하여 단일 어느 한쪽이 망하고 다른 한쪽이 그것을 흡수하여 재통일한다 하더라도 중립화 통일이 우리나라 장래를 위하여 가장 합당한 것이라 하겠다.

### <결론>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동일한 문화와 언어와 역사를 가진 단일민족국가였다. 그러나 지금은 둘로 분단돼 통일을 못한 채 최대의 분단위기에 봉착하고 있다. 다른 분단국 베트남은 1975년에 무력 통일되었고 독일은 90년 동독인 대탈출로 서독에 흡수되어 통일을 이루었다. 그러나 이 두 통일사례들은 우리나라 통일에 적용될 수 없다. 이 두 나라는 '통일될 국가를 어느 쪽이 통치해야 하나'하는 문제가 통일이후 자동적으로 해결되었지만 우리나라는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통일을 추진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이 중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통일은의의한 해운 셈이다.

東獨人, 대탈출과 같이 北韓人 大脫出에 의한 통일은 현재로서는 기대하기 어렵다. 때로는 남북한이 남북총선거를 주장하나 선거방식에 동의하지 못하고 있다. 양측이 모두 자기 측이 大多數를 확보할 수 있는 선거방식을 채택하려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혹자는 우리는 통일되지 않고 분단이 영원히 계속되리라는 비판도 한다. 그러나 역사적 사명인 통일은 포기할 수 없는 일므로 계속해서 여러 가지 통일안이 모색되고 있는 것이다.

위에서 제시한 中立化統一의 理由는 물론, 절대성을 띤 것은 아니며 시의에 따라 수정될 수도 있다. 그러나, 외부세력의 협조없이 남북간에 통일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다는 것은 명심해야 한다. 물론 남북간의 합의 없이 통일이 안 됨이 물론이다.

말하자면 南北이 중심이 돼 중립화를 제기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를 위해 주변 4강의 어느 하나가 남북을 설득할 수도 있다. 4자회담은 첫 단계이며 궁극적으로는 러시아와 일본을 참가시켜 6자회담이 되면 중립화 통일실현 가능성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본다. 인접국 모두가 참여하는 6자회담은 손해볼 나라는 하나도 없고 모두 이익이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으로 본다.

어쨌든 한반도의 통일은 우리나라 역사를 바꾸는 거대한 사건이 될 것이다. 그 형식은 스위스나 오스트리아나 스위스와 비슷한 방식의 통일, 즉 중립화 통일형식이 가장 바람직하다. 통일이 되기에 상당히 오랜 세월이 걸리지 모른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무작정 과거역사의 회생물로 남아 있어서는 안 된다. 하루속히 통합된 한 民族으로서 우리 역사를 창조해 가는 주인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中立化統一 외의 다른 방법은 없다고 보는 것이다. 필자연락처 ☎ 213-382-6739.

e-mail : in.hwang@attbi.com



### 美國에서 살다보니 <3> 풍요롭고 건전한 삶을 위하여

許允行(사대 57입, 워싱턴주 전 동창회장, 미주관악후원회이사)

#### 11. Netizen과 Internet 商去來

(작년 동창회보에 (#104, 2002. 10. 28일자 11면, #105, 2002. 11. 28일자 15면)이어서 그간 美國에서 살아오면서 생각되는 점을 추가한다). UN統計에 의하면 급년도 "Netizen" 人口는 6억 5천 5백 만 명으로 작년보다 30%이상 증가하였으며, 거래실적은 \$22,940億이며 이런 추세로 나간다면 2003년 8,780억불, 2004년 62,010억불, 2005년 92,400억불, 2006년 128,370억불로 증가될 것으로 推算된다 하니, 이는 인구의 연 평균 증가율 2.5%에 비해 그 증가 속도가 가히 幾何級數의이라 하겠다. 특히 韓國은 고속 인터넷通信 가입자수가 1000만명 시대에 진입하여 초등학교 학생에서 60-80대 노인들까지 참가하여 급속히 네티즌이 늘어가고 있다는 데에 이는 韓國인의 "빨리 빨리" 心性과 맞아 떨어져 더욱 다른 나라들과의 격차를 크게 벌리게 될 전망이다. 現在도 인터넷 人口가 美國의 4배이고 日本의 8배에 달한다 하니 가히 놀랄울 따름이다.

그런데 美洲 韓人들은 아직 인터넷 이용면에서 本國과는 대조적으로 아직 인터넷 商去來에서 한참 뒤지고 있는 느낌이다. 작년 11월 28일자 韓國일보 보도에 따르면, L. A.와 Orange County의 小數人種계 비즈니스를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에서 인터넷 이용률은 白人 58%, 黑人 54%, 히스패닉 45%이고, 아시아인들 중에서는 中國 54%, 日本 38%, 越南 22%로서 韓人 이용률 21%보다 앞서었다. 또 인터넷 상거래로 비즈니스의 신장률이 두드러졌다고 하니 우리 한인들도 이제 1.5세대 2세대에게서라도 이를 배워서 매년 30%이상 신장되는 인터넷인구를 겨냥하여 지금 까지 직접 거래하는 고객들(off line) 넘어서서 2-3배 또는 10배씩 거래량을 늘려 갈 수 있을 지 모르겠다. 예를 들면 오리건 주의 어느 양털 조개 재료업자는 인터넷으로 이미 6,000개 이상을 팔아 收益을 올리고 있으며 L. A.의 어느 부부는 사진 필름만을 인터넷에 올려놓고도 꽤 짝퉁한 副收入을 올린다고 한다. 바쁘게 사는 가정일수록 직접 市場에 갈 시간이 없어 郵便 배달되는 인터넷 구매를 선호하게 되니, 앞으로 全世界를 상대로 하는 사업을 꿈꾼다면,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부지런히 e-business를 따라잡고 연구하여야겠다. 특히 아직도 아시아와 아프리카는 44%와 43%로 北美, 中南美 및 유럽에 비해 그 신장률이 월등히 높다고 하니 그런 곳의 공략(攻掠)을 잘 구상해 보는 것도 좋겠다.

#### 12. 보충교육으로 "再充電"

우리 同門들 중에도 複數전공을 해서 人生을 풍요롭게 삶을 즐기는 家庭을 종종 본다. 하나의 專攻의 길로 평생 정진하여 一家를 이루는 이가 있는가 하면, 자신의 취미나 취향을 살리거나 새로운 전공분야에 도전하여 성공한 경우도 종종 보게 된다. 이런 경우에 美國에는 다행히도 55세 이상일 경우 學費를 내지 않고 공부할 수 있는 혜택을 찾을 수 있다. 각자 어떤 분야나 과목을 선정해서 英語 능력이 갖추어지면 거기에 맞춰 공부를 할 수 있다. 물론 강의실에는 젊은 교수와 젊은 학생들로 가득하지만 누구도 晚學徒에게 거부반응을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母校에 들어가 느라고 진을 다 뺐지만 다시 한번 氣를 살려 다시 挑戰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각급 학교와 검정고시(GED)를 치거나 심지어는 노인회관(Senior Center), 각급 도서관에서도 컴퓨터, 語學, TaiChi Chuen 등의 강좌가 있으며, 어느 동문은 정년 퇴직 후 木工藝에 一家를 이루어 하루해가 짧다고 취미생활을 제 2의 삶으로 개척하여 부러움을 사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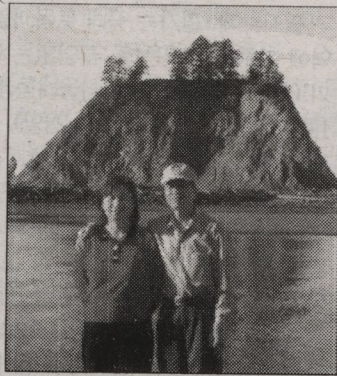
#### 13. "무서운 아이들"

이는 영화제목에서 유래하여 큰 성취를 이룬 어린 십대들을 지칭하기도 하였으나, 정말로 "무서운 아이들"이 우리의 생활이나 주변에서 있을 수 있음을 주목해야겠다. 약 10여 년 전에 日本에서 보도된 다음 사건에 비추어 우리주위를 한번 살펴보게 한다.

중학교 1학년인 한 男학생은 평소에 家族에 대한 불만으로 父母와 女동생을 밤에 칼로 찔러 죽이는 끔찍한 사고를 저질렀는데 다행히 祖父는 出他중이어서 화를 면했다. 이 소년의 경찰진술에 따르면, 어머니가 자기 자신은 전혀 사랑하지 않았으며 자기를 한번도 포옹(hug)해 준 기억이 없었다고 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여동생만 좋아했다고 했다. 편애(偏愛)가 빛은 끔찍한 사건이다.

또, 2년 전인가 캘리포니아 주에서 韓國人 1.5세인지 2세인지 확실치 않으나 역시 10대 학생도 부모와 동생을 죽인 무서운 일이 일어났었고 지난 11월에는 워싱턴주 Urbana에서 20대인 딸이 자기부모를 칼로 죽인 사건이 있었다. 평소에는 그렇게 孝女였다는 이 여식의 동기는 밝혀지지는 않았다.

韓國내에서도 미국으로 유학을 갔다 포기하고 돌아온 한약제사 아들이 財產문제로 자기부모를 죽였고 심지어는 대학교수인 30대가 자기 아버지를 죽인 사건도 있었다.



바위섬위에 자란 나무들을 배경한 필자부부.

이러한 큰 사건 외에도 미국에는 크고 작은 사건에 쉽게 10대들이 휩쓸릴 수 있는 경우가 많으니 각종 癡藥 범죄, 총기류 범죄, 갱단 형성 등 부모들이 放心하는 사이에 학교 교우, 동네 친구들과 어울려 일을 벌이는 경우를 흔히 본다. 특히 또래 집단끼리 보이는 남녀간에 파티도 주의깊게 살펴보아야겠다.

또 하나 크게 家庭에 暗雲을 드리우는 경우는 10대 이상에서 공통으로 오는 우울증을 들 수 있다. News Week誌에 의하면 미국의 10대 女학생들 중 약 300만 명이 우울증을 앓고 있다고 한다. 평소에는 극히 정상적이고 모범생이었던 아이가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하고 또 부모에게 반항하고 할 때는 우울증에 걸렸다고 보아 틀림없다. 精神科 의사들에 의하면 그럴 때는 환시(幻視)와 환청(幻聽)에 시달리게 된다고 하니 본인들은 얼마나 힘들겠는가? 그래서 손으로 헛것을 잡아보려고 손짓을 하고 또 헛것은 바를 사실인 양 얘기하면 주변에서 손가락질을 받게 마련이다. 이 증세는 대개 발견된 후 약 2년간 치료(藥物과 相談)를 받아야 한다고 하며 다행히 지금은 의료보험(醫療保險)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며, 하는 운동을 열심히 하면 이를 예방하고 치료에 도움이 된다고 한다. [편집자주: 이런 경우에 우리는 이수일(사대 79졸, Ph.D) 동문이 卓球기술로 정신분열증과 우울증을 치료하는 법을 개발한 보도기사(동창회보 #100, 2002.6.28일자 22면)와 그의 실험보고서(동창회보 #103, 2002.9.28일자 14면과 15면)를 한번 참조하실 수 있다].

#### 14. 독서와 치매예방

20:24란 비율은 무엇일까요? 이는, 韓國의 이간희 三星회장과 韓國의 성인 및 日本人의 매달 독서량을 비교한 것이다.李회장은 韓國어, 일어, 영어로 된 서적을 또 최신 출판물을 열심히 읽는다고 하니 아마도 이것이 三星을 世界的인 기업으로 키운 저력이 아닐까 싶다. 한 달에 20권은 速讀기술 없이는 소화가 쉽지 않은 분량인데, 그는 젊은이도 아닌 60대에 그런 왕성한 독서력을 보인다니 부러울 뿐이다. 그런데 韓國人들이 평균 매달 2권 정도 독서를 한다니 이는 폭발적인 "정보화 시대"에는 미흡한 독서량이다. 다행히 젊은층이 인터넷에 매료되어 열심하라니 그로써 위로를 삼을까?



멀리 일열로 7개의 섬이 보이는 제 3 모래사장에서의 필자가족.

日本에서는 출퇴근 시간에 電鐵을 타면 대부분의 승객들이 독서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그에 비해 韓國의 電鐵에서는 대부분 신문을 뒤적이는 것이 고작이다. 그것도 IMF 이전에는 꽤 그러하였으나 그 이후에는 별로 그렇지 않은 것 같다. 특히 학교에서 漢字교육의 부실로 신문도 이에 따라 거의 한글 전용 신문이 나오니 漢字의 풍부한 의미를 생각할 때, 日本에 비해서 情報 흡수능력이 뒤지는 교육이 아닐까? 지금부터라도 英語 배우기에 熱을 올리듯이 漢字教育도 충실하게 하여 儒敎문화권에 바탕을 둔 韓國문화의 遺産을 이해하고 도움이 되게 하고 또 中國문화권에 진출하는데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치매예방에 책을 많이 읽으면 큰 효과가 있다고 흔히 醫療人들이 말한다. 그 동안 바둑, 장기, 화투 등이 치매예방에 도움이 됐다는 말들이 있었으나, 최신 실험결과에 따르면 독서만이 치매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한다. 자, 열심히 읽어서 치매도 예방하고 정보도 얻는 일거양득(一舉兩得)이 아니겠는가?

#### 15. La Push에서 다시마를 줍다.

지난 겨울 Sequim(시애틀근방)은 12월 중순에 접어들었는데도 수은주가 零上이었다. 하여 薔薇가 다시 꽃을 피우고 서리에 강한 菊花는 아직 천연한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 보이고 있으며 잔디도 계속 자라고 있고 1년 초와 다년초 등, 일찌기 9월 하순쯤 내려놓은 꽃바구니의 꽃들이 계속 피고 있어 계절감각을 잃을 정도였다. 한편 바다 건너 Victoria나 Van Couver에는 계속 強風과 비 또는 눈이 오는 霧下의 날씨라고 하는데 정말 신기하게도 이곳에는 눈도 비도 없는 영상의 날씨여서 잔디를 계속 깎아 주어야만 했다. 그런 날씨 중에 지난해 11월 30일은 특히 맑고 따뜻한 날씨여서 마치 韓國의 청명한 5월 하순 같았다.

여기서 약 1시간 반정도 걸리는 La Push라고 하는 Quilente 部族의 인디언 보호구역(Reservation)이 있는 곳까지 운전 삼아 산책을 나갔다. 가는 곳 길가의 나무들은 마치 봄을 맞이하는 양 나뭇잎이 돌

는 것 같고 버드나무의 버들강아지들이 봄인 양 주렁주렁 달려있다. 東部인 뉴욕, 코네티컷 등지에는 寒波가 몰아쳤고 暴雪에 強風까지 던쳐 電氣가 끊기고 하여 人命피해와 경제적 손실도 큰 모양이니 참으로 세상은 고르지 않아 대어죽어 얼어죽는 곳인가

보다. 수선화는 보통 1월말쯤 씩이 나서 3월이면 꽃이 피는데 금년에는 벌써 씩이 나서 자라고 있으니 이렇게 따뜻하다는 옷자라서 내년 봄에 꽃은 안 피고 일단 무성할까 걱정이 앞선다. La Push에 가는 중에 길가의 Indian 가게에 들리니 그곳 종업원들은 混血 타인인지 전혀 인디언 같지 않고 오히려 혼혈 白人 쪽에 더 가까운 모습을 하고 있다.

바다에 도착해서 보니 漁船들이 한창 出漁 중이고 잔잔한 바다는 마치 韓國 東海岸 강릉 앞 바다와 같다. 멀리 바위섬 꼭대기에 나무들이 자라는 모습이 하도 신기해서 배경으로 사진을 한 장 찍었다. 그곳에서 Indian 들이 사는 마을을 들어서니 역시 계곡 때문인지 길거리가 많이 어지럽혀져 있다. 조금 떨어진 제 3의 모래사장(beach)으로 가는 곳의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내려 주위 나무들을 살펴보니 한창 새싹들이 움트고 있었다. 백사장까지는 왕복 2.6 mile이니 운동 삼아 걷기 딱 알맞은 거리이다. 가는 길은 약간의 기복이 있지만 꽤 넓고 별 어려움이 없는 산책로이다. 바닷가에 와보니 野營하는 학생들도 있고 散策路도 있어서 따뜻한 날씨를 즐기는 모습이 안연하였다. 바닷가를 걷다보니 과도에 슬러 나온 다시마가 뿌리 채 뽑혀 올라와 있어서 일단 따서 갖고 왔다. 약간 데쳐서 초고 추장에 찍어 먹으면 그 맛 또한一味이다. 모래사장에서 멀리 보이는 곳에는 돌 섬들이 여섯 내지 일곱 개 정도가 나란히 한 줄로 서 있다. 참 평화로운 모습이고 創造主의 신묘한 능력에 역시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4시 반경에 다시 돌아오는데 그 시간에도 男子끼리 또는 男女가 그곳으로 들어가고 있으니 아마도 夜營을 하러나보다. 더러는 1살배기 정도의 아기도 업고가고 있으니, 그 아이는 부모 덕으로 알찌 감치 自然의 운치를 맛보고, 山林浴도 하게 되나보다.

투고일: 2002.12.13. ☎360-683-4197 [편집자주: 필자는 아름다운 Sequim에서 RED RANCH INN( 830 West Washington, Sequim, Washington 98382. ☎1-800-777-4195)을 경영하고 있는데 이 지역을 방문하는 동문들을 반갑게 환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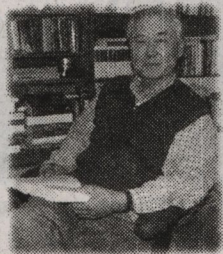
# 한국現代史와 軍事政變의 遺産

## I. 甲申政變(1884년)과 朴正熙政權의 維新憲法(維新憲法, 1972년)

일본의 德川幕府[도구가와바구 후]의 鎖國政策(鎖國政策)은 무너지고 개국 시책(開國施策)으로 전환한 1860년대 이후의 조선은 어떠한 역사적 변천을 하였으며 지식인들이 근대화를 위해 기도한 '쿠데타' 갑신정변(甲申政變)은 무엇을 유산(遺訓)으로 남기고, 박정희의 5.16 군사 쿠데타와 유신헌법 개헌은 무엇을 유산으로 남겼을까? 지금 이 유산과 유산을 분석하여 인과(因果)를 찾아 평가함으로써 우리 역사의 과오를 반복하지 않도록 후세에게 충고(忠告)와 교훈을 전해 주는 것이 意義가 있다고 생각한다. 1863년 12월에 철종(哲宗)이 세자를 남기지 못하고 서거하였고 12세의 소년 고종(高宗)이 즉위하게 되니 고종의 부친인 흥선대원군(興宣大院君)이 실권을 장악하고 鎖國정책을 시행하면서 西洋 세력을 배격하였다. 1866년에는 천주교를 탄압하였으며 불란서 신부들을 처형하였고 또한 미국 商船을 대동강(大同江)에서 침몰시키는 사건도 있었다. 불란서는 神父 살해 소식을 듣고 함대를 파송하여 강화도에 상륙하고 신부의 가해자의 처벌과 개국조약을 요구하였으나 대원군은 군대를 동원 이를 격퇴시켰다. 이 두 사건을 병인양요(丙寅洋擾)라고 하며, 1871년에는 미국 상선이 조선군대에 의하여 침몰된 소식을 들은 미국은 함대를 파견하여 강화도에 상륙하고 개국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하고 전쟁 태세를 취하니 美함대는 철수하였다. 이 사건을 신미양요(辛未洋擾)라고 한다. 이와 같이 대원군 정권은 鎖國정책을 계속 유지하였으나, 지나친 鎖國정책을 비난하던 민비(閔妃)가 득세하여 實權을 장악하게 되었고 鎖國정책을 완화하는 방침을 택하였다.

1868년 12월에 정치 개혁으로 왕정복건(王政復權)한 일본 정부는 明治天皇의 서계(書契-외교문서)를 朝鮮朝廷에 송달해 왔으나, 정부는 서계에 일본왕을 천황(天皇)이라고 호칭했고 일본의 王 자신이 칙(勅)이라 자칭(自稱)한 문서는 수용할 수 없다고 거부하였다. 일본은 이에 분격하였으며 외교관계는 교착상태에 있었다. 분노한 일본은 1875년에 군함을 강화도에 파견하여 군사력을 과시하더니 다음 해 1876년에 일본은 군대를 강화도에 상륙시키고 閔妃派 정권을 威脅해서 불평등한 朝日 수호조약을 체결하였고 일본의 침략은 시작되었으며 개국의 전환기(轉換期)의 契機가 되었고 서양 제국과도 通商을 하게 되었으며 1882년에 중국정부의 권유로 불평등한 朝美 수호 통상조약, 朝英 수호 통상조약과 朝獨

한경섭(공대 토목과 52년 졸)



修好 通商條約등을 締結함으로써 鎖國政策은 붕괴(崩壞)되었고 개국정책으로 전환하였다.

세계의 정치 판도가 急進적으로 變遷하고 西洋과 日本勢力이 同時에 朝鮮에 侵入하였다. 外侵의 對策으로 조선 정부는 근대화한 유럽 제국에 유학생을 파견하여 새로운 학문을 導入도 하고, 시찰단을 파견하여 정치, 경제제제 등 세계 정세를 파악하고 우리 실정에 합당한 개혁을 시행하는 것이 마땅한 정책이어야 할 것을 당황하고 성급한 조선 정부는 고종 1880년에 金洪集을 일본에 파견하여 일본이 유럽에서 수입하고 모방한 정치체제와 산업발전상을 시찰하고, 세계정세의 정보는 일본을 통해 수집하고 귀국하였으며, 1881년에는 박영호를 단장으로, 김옥균도 포함한 18명의 시찰단이 일본에 파견되어 일본 정부조직, 군대, 공장시설, 교육제도 등을 시찰하고 귀국했다. 일본의 明治維新과 경제 발전상에 감명을 받은 김옥균, 박영호 등 소장 개혁파들은 민비파 정권을 타도하고 고종을 擁立하여 內閣體制政府를 樹立하고자 지식인들을 포섭하였다. 이 중에는 일본의 군관학교에서 훈련을 받고 귀국한 서재필도 끼어 있었다. 한편 일본은 朝鮮을 침략할 목적으로 親日正權을 수립하고자 음모를 計略하고 급진개혁파인 김옥균, 박영호 등을 포섭하였다. 천박한 개혁파 김옥균, 박영호 등은 일본 군대를 利用하여 쿠데타를 敢行하여 정권을 장악하려고 企圖하였다. 1884년 10월에 드디어 급진개혁파는 일본 공사 竹添進一[다게조에 신이찌]와 모의하여 일본 군대를 動員시켜 쿠데타를 단행하고 閔妃派 정권을 추방하고 고종을 擁립하여 王憲 內閣制 新政府를 宣布 하였다.

그러나 민비파 정권은 중국정부에 후원을 요청하여 개혁파 내각 신정부를 경복궁에서 구축(驅逐)하니 쿠데타는 3일만에 完全히 失敗하였고 김옥균, 박영호는 일본으로 도망하였다. 갑신정변의 과오와 실패의 원인을 찾아보자면, 첫째의 과오는 김옥균, 박영호 등 급진 개혁파들이 일본 침략군과 공모하여 쿠데타를 감행했다는 사실이다. 혁명사업에 침략군대를 동원한다는 것은 생각 할 수도 없는 무지막대(無知莫大)한 행동 일 뿐만 아니라

[필자소개: 필자는 공대 토목과를 졸업하고 현재 캐나다 토론토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데, 끊임없는 연구활동으로 "나의 고향 함흥이야기"(2001년 초봄, 재미서울대동창회보 95호(2002년 1월 28일) 13면과 96호(2002년 2월 28일) 15면 및 98호(2002년 4월 28일) 16-17면의 3회에 분할 연재됨), "캐나다 선교인과 영생학교 이야기"(2001년) "孟子를 尊敬하는 日本王室과 회고담"(2002년 봄, 타자원고 29매 분량), )과 "성경의 역사와 역사에서 본 예수"(2003년 3월, 타자원고 24매 분량) 등의 큰 勞作을 재미서울대 동창회보 편집실에 기고하였다. 그러나 紙面의 제약에 따라 전체 투고문을 게재할 수 없었음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여기에 게재된 글은 "孟子를 尊敬하는 日本王室과 회고담"중에서, 108호(2002년 2월 28일) 10-11면에 "중국고전 詩經과 明治維新"으로 일부가 게재되었고, 이번호에 6.25와 한국전쟁휴전과 制憲節 및 光復節등을 맞아 우리 한국현대사에 있어 軍事文化의 影響력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자, 이와같이 편집한 제목으로 필자의 허락을 받아 게재합니다. 필자가 지금까지 집필하신 글들의 全文에 관심있는 독자들께서는 필자에게 직접연락(이메일: ks-han@rogers.com)하시기 바랍니다.]

일본의 침략을 협조하는 民族에게 반역적인 犯行을 저질렀다. 둘째로 개혁파들은 정치철학과 혁명의식이 희박하였고 세계정치 정세에도 둔감(鈍感)하였고, 근대화한 유럽 세계를 시찰이나 유학한 지식인 지도자들이 한 사람도 없었으며 모든 세계 정세와 정보를 일본을 통해 입수하였고 의존하였다는 사실이 실패의 근본 원인이 되었다.

갑신정변 이후 정계는 혼란상태가 계속 되었고 淸國은 종전과 같이 조선의 宗主權을 주장하였으며 일본은 간악한 術策으로 侵略과 내정간섭을 하였으며 중국의 세력을 조선에서 구축하고 독점침략을 謀計하고 淸國에 도전하여 1894년 8월에 淸日戰爭을 발발시켰으며 중국은 전쟁에 패하여 조선의 宗主權을 상실하였고 일본은 독점침략의 기반을 확립하였다. 득세하고 있던 일본은 1894년 7월에 強壓的 政治적 압력을 가하여 김홍집을 領議政으로 취임시키고 傀儡인 정권을 세우고, 김홍집 정권은 일본군에 "協力"이라고 地方官吏들에 지시하였으며, 朝日暫定合同條款, 大朝鮮大日本兩國盟約에 조인하였다. 合同條款에 '內政改革의 勸告'條項따라 일본은 合法的으로 內政干渉을 하게 되었고, 兩國盟約에 따라 日本軍의 조선 내에서의 군사행동이 합법화하였다.

한편 外勢와 일본침략에 무능한 정부에 불만이 있던 백성들은 1892년 12월에 全羅道 參禮에서 東學黨 교도대회를 개최하고 '斥倭洋倡義'의 구호를 채택하고 東學의 재건운동을 시작하였다. 東學은 1850년대에 崔濟愚가 제창한 종교운동이며 西學[주교천주교] 대항하였으나 邪敎로 烙印을 받고 최제우는 1864년에 처형되고 동학운동은 반정부 운동으로 확대되었고 1894년 2월에는 농민들이 합세하였으며 全羅道 古阜에서 동학교인 全燦準이 동학 농민군을 조직하고 혁명운동[甲午農民戰爭]을 전개하였으며 1894년에 김홍집 정권은 일본군에 '협력'이라고 각 지방에 지시한 것과 일

본군이 조선 백성의 증발을 許約한 데 분노한 전봉준은 농민군을 지휘하여 김홍집 정권을 타도하고 일본 침략자들을 구축하여야 한다고 봉기하니 慶尙, 江原, 京畿, 黃海, 平安 각도에서도 봉기하였다. 김홍집은 농민혁명군을 진압하기 위하여 침략 일본군과 연합하여 同族을 살상하고 전봉준을 체포하여 사형에 처하고 1895년 초에 농민혁명군 현명한 지식인의 참가가 없어 실패하였다. 김홍집도 김옥균과 같이 일본침략에 협조한 민족의 반역자에 속하는 무지한 지식인들이었다. 이와 같은 천박한 지식인들의 근본적 과오가 발단되어 후일에 賣國한 李完用이 登場했고 매국한 공로로 일본귀족의 작위(爵位)를 수여 받고 막대한 재물을 취득하였으며, 그의 후손들은 그 재물로 榮華를 누리고 있다. 이승만 정권은 봉건사회의 土地소유 제도를 개혁하기 위하여 "토지개혁법"을 시행하고 공정한 사회건설을 한다는 명분으로 개인소유의 토지를 백성에게 분배하였는데, 매국한 이완용의 유산의 소유권을 오늘날 한국 백성들이 관대하게 묵인하고 있는 현실은 賣國을 해도 국민의 심판을 받지 않고 후손들이 유산을 소유할 수 있다는 전통을 세웠고, 관직을 악용하여 부정축재를 권장하는 전통의 요인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전두환, 노태우 전직 대통령들은 직권(職權)을 악용(惡用)하여 수천 억의 不正蓄財을 하였고, 1~2년의 불평등한 형무소(刑務所) 생활만 치르고 나서 그 재산을 합법적으로 소유하게 되었으며 그의 후손들은 그 재산으로 영화를 누리며 한국 백성들이 관대히 묵인하고 있는 실정이 바로 오늘날 한국 백성에게 부정축재를 장려하는 결과가 되고 있다. 부정 축재한 재화로 양심의 가책 없이 향락의 생활을 부러워하는 한국백성들은 부정축재를 사회제도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 대통령 김영삼은 그의 자식을 형무소에 보내고 재산을 합법적으로 소유하였다. 이들 천학(淺學)한 사이

비 지식인과 정치인들은 재물(財物)이 위선(爲先)이었고 나라의 장래와 명예는 그들의 소관이 아니었다. 賣國해서 취득한 재산과 직권을, 악용해서 취득한 경제법의 재산을 백성에게 還元 하는 역사를 기록함으로써 부정한 축재(蓄財)는 국민의 심판을 받는다는 교훈을 남겨야 할 것으로 믿는다.

## II. 8.15 解放, 5.16 軍事革命과 維新憲法

천박한 지식인들의 政治的 과오로 조선은 36년간 日本의 통치하에서 굴욕과 치욕의 생활을 하였으며, 8.15는 우리의 힘으로 성취한 것이 아니고 미국, 영국과 소련의 정치세력 배려(配慮)로 남과 북이 분할한 상태로 8.15를 맞이하였다. 중국은 소련의 반대로 1945년 종전후에 세계정치세력을 調定하는 회담에 참여하지 못하였다. 중국이 참여했다면 동양의 정치 판도에 변화가 있었을 것이 아닐까? 특히 한국문제는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가상을 해보았지만 무의미한 것이며, 다만 정상회담에 소련의 반대로 참석하지 못한 역사의 배경과 緣由를 살펴보고자 한다.

中國이 世界 頂上會談에 參席하지 못한 背後의 역사는 1941년 12월에 日本이 美國과 英國에 宣戰布告를 宣言한 것을 契機로 미국과 영국은 중국의 侵略政策을 中止하고 中國의 장개석 정권에 대규모의 군사 원조를 하여 일본을 擊滅하는 聯合戰線을 構成하기로 同意하고, 1943년 12월에 Cairo에서 미국 대통령 F. Roosevelt, 영국首相 W. Churchill 과 중국 장개석 총통의 3개국 領首 회담을 갖고, 미국과 영국은 戰爭에 勝利한 後에 滿洲와 臺灣을 장개석 정권에 귀속시킨다고 결의했고, 朝鮮문제에 대해서는 "3국은 조선백성들의 노예상태를 유익하여 '적당한 시기'—('in due course', 즉 after a normal passage of time) 조선을 자유독립 시킬 것을 결의한다"라고 했으나 즉시 독립시킨다는 기록은 없었다. 1945년 4월에 미국, 영국, 소련의 연합군이 독일을 섬멸(殲滅)하고 승전(勝戰)한 후 소련은 또 다시 미국, 영국과 연합하여 일본을 공격하고 동양에 재진출을 企圖하였다. <27면에 계속>

### 미주관악후원회 종신이사비 23명 24구좌 7대 집행부로 이관

제6대 집행부는 6월 30일자로 그간 적립되어온 미주관악후원회 종신이사비 24구좌분(23명, 오인석등문 2구좌) 7만 2천 불을 7대 집행부 사무총장 이종도 동문에게로 이관 예정이다. (종신이사 명단-동창회보 68면 참조)



<26면 군사문화 유산서 계속>

한편 미국, 영국도 소련을 참전시켜 조속한 시일 내에 종전할 것을 計劃하고 있었다. 종전 목적에 합의된 삼거두는 Yalta Conference (1945년 2월)와 Potsdam Conference(1945년 7월)의 두 차례에 걸쳐 三巨頭 회담을 開催하고 中國을 회담에서 제외하였다. 오늘날 우리 나라가 38선으로 양분된 비극은 3국 거두(巨頭) 회담에서 발생되었다. 세계의 거두 회담에 중국의 참석을 반대한 소련의 정략을 살펴보면, 1943년 Cairo 회담에서 "만주와 대만을 중국에 귀속한다"는 결의에는 이의(異議)가 없었으나, 종전 후에 동양 정치 세력 배정에 있어서 중국의 장개석 정부의 발언권을 제거하기 위하여, 장개석 정권은 공산당과 內戰을 하고 있고 통일된 중국정부가 아니라고 참석을 반대하였다. 終戰을 희망하는 미국과 영국은 자국의 犧牲을 줄이기 위해 소련의 반대의견을 받아들였다.

소련이 중국의 참석을 반대하는 이면에는 미국의 군사원조를 지원받는 중국 장개석 정부의 세력과 미국세력을 排除하고 공산당 모택동 세력을 지지하기 위함이었다. 한편 소련은 1905년 日露 전쟁에 패하여 일본에 할양(割讓)한 영토 사할린 [Sakhalin의 남반부 - 가리후도]을 회복도 하고 동양정치권의 패권을 장악하기 위한 야망이 있어 일본에 선전포고를 하고 미국, 영국과 연합하여 일본을 협공하여 패망시킬 것을 합의하였다. 무력했던 중국정부가 세계거두 회담에서 제외됨으로서 종전 후 동양 정치 세력 배정에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했고, 미국, 영국과 소련이 모의하여 유럽과 동양의 정치 세력 분배의 政略을 決定하였다. 이 政略에 조선은 무관하게도 미국, 영국과 소련의 정치적 타협의 제물로 희생되어 남북으로 분단된 8.15 해방을 맞이하게 되었다. 미국, 영국 소련의 세력분배 정략으로 남과 북이 분단된 8.15를 맞이한 조선민족은, 無智한 김육균이 침략 일본군대를 동원한 갑신정변과 東學革命運動을 일본군대와 연합하여 동족을 살상한 김홍집, 매국한 이완용 등의 을사 보호 조약 등의 수괴와 과오의 역사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지도층 지식인과 정치인들은 외세를 배제하고 남과 북의 분단을 防禦하고 통일된 自主獨立國을 건설하는 것이 민족의 사명임을 망각하고, 南韓의 淺學한 지식인들은 미국의 외세와 타협하여 대한민국을 세우고 北韓의 전박한 지식인들은 소련의 외세와 협의하여 조선인민공화국을 세웠으니 수

치의 역사는 이들 無知한 지식인과 정치인들에 의하여 반복되었다.

이 역사적 사실에는 어떠한 정치적 변명도 있을 수 없다. 만약에 변명이 있다면 매국도 이완용도 변명이 있을 것이다. 미국은 공산세력을 제지하고 世界政治 霸權을 장악하기 위한 책략(策畧)에 의하여 한국은 세워졌으며, 정부의 要人들은 親美派 知識人들과 親日派 또는 재래보수와 人士들로 構成되었고, 한편 공산당과, 社會主義와는 물론, 남한 단독 정부수립의 반대파, 지도자들을 추방, 투옥, 또는 암살했고 彈壓을 하였다. 북한에서는 소련의 스탈린 獨裁 공산당의 술책으로 친소공산당파, 국내공산당파, 중국 공산당파들이 북조선정부를 세우고는 농민과 노동자를 위한 사회를 건설한다고 백성을 기만하였으며 양심이 있는 지도자, 지식인들을 반동세력 분자라고 지목하고 사형, 투옥, 추방하였다.

正義와 良心을 가진 지식인들은 남이나 북에서 宗祧(門跡)을 감추었고 현재도 民族의 비극은 지속되고 있다. 과연 언제 비통한 역사를 반성하고 참신하고 양심과 지혜를 가진 지식인과 정치인들이 나타날 것인가?

南韓의 이승만 정부는 부정부패와 실정을 거듭하고 동족 살상의 6.25 전란도 겪고, 민생고에 허덕이는 시기에 永久執權을 위한 '四捨五入' 改憲과 極度の 不正選舉 強行으로 反亂의 徵兆가 보이자 정부는 경찰권을 강화하여 국민을 탄압하고 발포 살상까지 하니 드디어 1960년에는 4월 혁명이 시작되었고 각지에서 고등학교, 대학교 학생들, 대학교수들, 시민들도 大舉 抗拒 鬪爭에 參加하였고, 公憤(公憤)한 경찰은 군중에게 발포하여 다수의 희생자가 발생하였다. 정부는 執權의 能力을 상실하게 되어 이승만 정부는 물러나고 張勉 정권으로 대체되었다. 張勉 정권도 大同小異한 成分의 人物들이었으며, 4월 혁명 후에 政治亂國을 수습하는데 실패하였고 국민의 信望을 상실하게 되었다. 이번에는 朴正熙가 지휘하는 軍部가 1961년 5월 16일에 쿠데타를 감행하고 張勉정권을 축출하고 군사독재 정권을 세움으로서 또 한번 비극의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초기의 군사정권은 부정부패를 일소하고 참신하고 공정한 정치를 실행 할 것을 서약하고 호소를 하니 시민은 疑訝한 感情이면서도 한번 믿어보자는 심리(ambivalence -한가지 사물에 상반되는 감정이 동시에 작용하는 심리)작용으로 이 약속을 수긍하는 편으로 기울어졌다. 군사정권은 경제 5개년 계획(計劃), 농어촌 경제개발,

부정 축재 처리 등등 개혁의 정책을 발표하고 시행하는 듯 하더니 1963년에 민정 이양이라는 名目으로 민주공화당을 창당하기 위해, 중앙정보부장 金鍾泌의 주도하에, 재래로 군부에 만연되고있던 부정 부패의 재능을 발휘하여 주식시장 조작과 美國 軍 保養施設의 공사 자금을 橫領, 日本에서 빠지고機, 자동차 등을 부정수입해서 막대한 정치자금을 調達했을 뿐만 아니라 막대한 사재도 축적했다. 국민의 非難과 怨聲이 비등(沸騰)하게 되니 김종필은 중앙정보부장을 사퇴하고 미국으로 도주하였고 수년 후에 귀국하여 군사정권에 복직하고 부정축재를 합법 소유하게 되었다.

요즘도 착복한 자금으로 정당을 조직하여 대통령에 출마하는 과정을 한국국민은 관대히 받아들이고 있는 실정이며 한국 지식인들의 공정한 批判의 소리를 들어본 적이 별로 없다. 한편 기업인들은 軍事政權과 타협도 하고, 반항도 하면서 경제는 발전 단계에 진전하고 있었지만 역시 정부의 부정부패의 만연과 극단의 지방색 노출, 偏見된 地方 人士의 濫用 등으로 국민의 信任을 망실하였고 국민의 항의 시위운동이 치열해지자 1972년에 박정희는 국가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헌병대와 경찰권을 동원해서 국회를 해산시키고 일체(一切) 정치활동을 금지 명령(命令)하고 지상(至上) 최악의 독재 영구 집권을 수립하기 위하여 국민을 공포(terror)와 위협으로 前無後無한 獨善의 維新憲法을 強制로 제정하고 가혹한 폭정을 하니 부산, 마산, 창원 시민들의 반정부 시위는 폭동상태의 위기에 달하고 군사정부는 진압 대책으로, 비상계엄령을 宣布하고 군인을 동원하여 희생자도 불사하는 강압 진압 정책을 주장하는 파가 등장하는가 하면, 유화정책으로 진압 하지는 파와 대립하게 되었다. 과격한 진압 정책과 유화 정책과의 대립이 격화되었고 또한 군사정권 내에 잠재하고 있던 세력 정탈전의 내홍(內訌)으로 인해 1979년 10월에 박정희는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에 의해 사살되었다. 이상이 군사 쿠데타와 維新憲

法(1972년)의 政變을 정치면에서 본 주지(周知)의 역사의 개요이다.

III. 쿠데타를 敢行한 군인들의 知識과 思想, 잔재와 유산

쿠데타를 주도한 朴正熙는 일본 침략시대에 대구 사범학교를 졸업하고 국민학교 교사로 근무하였으며 1940년에 일본의 傀儡, 만주국의 新軍官學校에 입학하여 軍事教育을 받은 후 계속 日本陸軍士官學校에서 일본군인 정신교육을 철저히 받고 만주군 장교가 된 전형적 직업군인이었다. 해방 후 한국군대에 입대한 박정희는 천학(淺學)하고 過激한 장교들이 쿠데타를 모의하는 지도자로 선출되었고 자아정의감에 이들과 결탁해서 군대를 동원하여 정권을 강탈한 박정희는 직업군인이며 또한 淺學者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명치유신을 일본의 산업혁명의 대명사로 착각하였고, 유신헌법을 제정하고 일본식 산업혁명을 시도하였다. 앞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其命維新' 즉 유신의 정의(定義)는 천명을 받아 합법적으로 왕권(정권)을 계승하고 사명을 새롭게 한다. 즉 현 정권을 합법적으로 다음 정권에 이양하고 계승하여 그 사명을 새롭게 한다는 뜻인데 박정희는 정권을 移讓 받은 적도 없고 계승한 적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維新이라고 呼稱한 것은 일본 제국주의 교육만 받은 천학에서 온 과실이었고, 박정희의 유신헌법은 大日本帝國 헌법을 모방한 것에 불과하다.

지난 호에 기술한 바와 같이 일본의 헌법은 "欽定憲法-홍정헌법"이라고 하며, 뜻은 "천황이 국민을 위하여 제정한 법"이라는 뜻이다. 즉 天皇立憲獨裁 국가를 건설하기 위하여 국회를 해산하고 전 국민은 大政翼贊會[다이세이 요구상가이]-천황을 찬양하고 지지하는 회-에 참가하여 천황입헌제국을 영구히 보존한다는 헌법이다. 한국이 유신헌법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유신이 아니고 欽定憲法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한국]政府는 國民의 主權的 受任機關이다"라고 定義했고 박정희는, 日本

이 衆議院[슈기잉-국회]을 解體하고 大政翼贊會[다이세이요구상가이]의 體制로 改革한 것을 複製해서, 韓國의 國會를 解散시키고 御用 단체인 "統一主體國民會議"을 創設하고 대통령 選出權을 賦與하여 박정희는 대통령으로 選出되었고 "國民의 總意"의 結果라고 宣布했다. 維新헌법도 안인 "欽定憲法"을 守護한다고, 維新의 뜻도 모르는 淺學한 政治人들은 維新政友會를 結社하고 阿附 支持하였다.

日本帝國主義 軍人精神의 教育만 받은 淺識한 박정희는 敗亡한 日本帝國主義 歷史 過程을 답습했고 獨裁와 恐怖政治와 강압정치를 강행한 악정(惡政)이 요인(要因)이 되어 射殺되었다. 박정희는 敗亡한 日本帝國主義 體制의 잔재를 再生하여 답습하는 과오를 범했고, 金鍾泌은 관직과 권력을 악용하여 不正蓄財한 재산을 착복하기 위해 수년간 해외로 도피한 후 재산을 합법 소유하는 방법과 전통을 마련했고, 전두환과 노태우는 1, 2년간 監獄刑을 치른 후 착복한 재산을 합법 소유하는 방법을 시범했다. 쿠데타를 한 군인들은 權力과 財貨가 優先이었고, 外勢와 日本의 침략으로 나라를 잃었고 가혹하고 굴욕적인 과거의 역사를 설욕해야 한다는 使命과 正義는 염두에 없었다. 김대중은 전직 大統領들이 不正着服한 金錢인 것을 인식하면서도 수 십억의 돈을 뇌물로 받았고, 大統領에 당선 될 수 있는 惡習의 전통과 羞恥의 유산을 남겼다.

군사정권은 經濟정책에 있어서도 明治산업개혁의 경제제도를 모방해서 특정한 財閥과 결탁하여 특혜와 시장 독점권을 부여하고 대가로 막대한 뇌물을 받아 부정 축재를 하였다.

현재 한국의 불합리하고 모순을 내포한 경제발전은 IMF 위기를 초래했고, 한국 백성은 위기 극복을 위해 희생을 강요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戰後에 일본에서는 부패한 특혜와 독점의 경제체제를 폐지하고, 大財閥들을 해체시키고 정상적 경제체제로 재출발하여 경제적 盛況을 구가하였다.

**동문들의 誠金인 구독료로 발간되는 동창회보**

재미서울대동창회보는 우리 동문들의 삶을 기록하고 한국의 지성인으로서의 우리 동문들간의 友情을 글로써 나누는 소중한 지면입니다. 지금까지 주소가 확인된 모든 동문들에게 동창회보를 배포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동문들의 성금인 구독료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동문들이 취재기자가 되고 필자가 되며 우리동문들의 지원으로 자조자립하는 재미서울대 동창회보가 되고자 합니다.



# 社會的 葛藤과 合理性

## 대화와 타협이 통하는 사회를 위하여

洪讚植(사회대 78년 졸,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

### [I] 민주주의와 사회적 갈등의 분출

다양한 觀點을 가진 인간들의 다양한 利害가 교차하는 사회과정에는 葛藤은 和合에 先行할 지도 모른다. 그러나 최근, 두산중공업, 화물연대, 조흥은행 등 대형 노사분규가 해결되는 과정을 지켜 보면서, 대한민국은 사회적 갈등이 법과 원칙, 그리고 대화와 타협에 의존하기보다는 목소리가 큰 사람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결되는 나라라고 개탄하는 사람들이 많다. 특히 새 정부를 좌익 성향을 가진 民衆主義(populism)에 기운 아마추어 정권이라 보는 사람들은 大統領을 비롯하여 청와대에 포진한 386세대의 젊은 비서관들이 이러한 경향을 부추기고 있다고 믿는다. 국가 전체의 이익에 반하는 집단이기주의를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면 이미 5년째 일인당 국민소득 만불 시대에 머물러 있는 우리경제는 선진국 문턱에서 주저앉은 '남미 국가'들의 전철을 그대로 밟을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도 커져 가고 있다.

利害集團들이 '투쟁', '결사반대' 등의 극렬한 용어를 앞세운 집단행동으로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려 하는 현상은 어제나 오늘의 일은 아니다. 1987년의 6.29 선언을 계기로 '民主化'가 진전되면서 먼저 노동계가 선화탄을 쏘아 올려 성공을 거두었다. 88년 이후의 대폭적인 임금상승은 노동통계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예컨대 賃金면에서의 不平等度指數는 이때부터 시작하여 '外換위기'를 겪는 97년까지 거의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노동계가 사용한 방법은 물론 수천, 수만 명이 모여 불은 머리띠를 두르고 주먹을 아래위로 뻗으며 소위 운동권 노래를 부르는 것이었다. 뒤이어 우투과이 라운드에 따른 농업개발을 반대하는 農民들이 트랙으로 고속도로를 점거하여 40조에 이르는 정부 지원금을 약속 받았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합법적인 노동조합으로 인정받을 때에도 국민들은 선생님들이 운동권 가요를 부르는 모습을 TV를 통해 지켜보아야 했다.

集團行動이 있을 때마다 정부는 거의 전형적이라 할 만큼 유사한 대응형태를 반복해 왔다. 즉, 일단 '不法과업'이나 '不法시위'로 규정된 다음, '대화할 것은 對話하되 不法行爲에 대해서는 반드시 司法처리할 것'이라고 선언한다. 그것도 長官 한 사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하는지 항상 관계부처장관 합동기자회견을 통해서 압포를 놓는다. 그러나 막상 처리결과를 보면 대체로 불법과업, 불법시위를 한 집단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보이고, 또한 과업이나 시위과정에서 발생한 일에 대해 民, 刑事上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조항이 대부분의 경우 會議文에 들어가 있다. 간혹 경찰을 투입하여 강제 해산을 시키고 주동자 몇 명을 처벌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때에도 법원

에서 선고한 형량을 모두 채우거나 사면, 복권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예외에 속한다.

이처럼 목소리가 큰 집단이 별다른 代價를 치르지 않고 '자신의 利益'을 관철시키는 관행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을 것이다. 필요에 따라 법을 어겨도 좋다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우리 國에 憲法條를 건립한다는 말이 들려오면, 일단 '결사반대' 현수막을 곳곳에 건 다음 주민들을 모아 시위를 하는 것이 주민들 입장에서 합리적인 행동이 되어 버렸다 '000을 처단하라'는 식의 무시무시한 현수막일수록 더욱 효과가 있을 것이다. 실사 화장터 건립을 막지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報償은 많이 받을 것이니 말이다. 勞働運動에서 시작된 集團行動이 無原則한 政府 대응으로 인하여 이제 日常生活까지 파괴했다는 점은 나라의 장래를 위해 매우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과격한 구호나 시위는 그 자체로 국민들의 福祉水準을 떨어뜨릴 뿐 아니라, 法과 原則이 지켜지지 않는 國家가 건전한 經濟發展을 이룰 수도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 [II] 바람직한 조짐

우리에게 과연 희망은 없는 것일까? 우리도 사회적 갈등이 법과 원칙에 따라 그리고 대화와 타협에 의해 해결되는 사회로 발전해 나갈 수는 없을까?

80년대 후반 노동운동이 과격양상을 보이기 시작할 때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를 開發獨裁 시대에 억압되었던 욕구가 분출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시적인 혼란으로 보았다. 일부에서는 日本이 매년 반복되던 '春闘'를 투쟁이 아닌 축제로 변모시켜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이룩하는 데 약 20년이 걸렸으니 우리는 아마도 조금 빨리 2000년대 초쯤이면 화합적인 노사관계가 정립될 것이라 전망하기도 했다. 대부분의 과업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억압적인 노동법을 개정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데도 시간이 필요하고 기업들이 갑자기 강력해진 노조와 협상하는 경험을 축적하는 데도 그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본 것이다. 하지만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외국인들이 한국에 투자하기를 꺼리는 가장 중요한 요인의 하나로 '강성노조'가 꼽히고 있고, 게다가 노조의 강경 투쟁 방법을 각종 이익집단들이 본받아 너도나도 거리로 뛰쳐나오고 있다. 사회가 안정되어가기에는 커녕 오히려 혼란만 가중되어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잘 살펴보면 여러 곳에서 희망의 싹이 움트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 <관행화된 不法행위와 合理的 立法>

첫째는 법과 체도가 매우 느리기는 하지만 차츰 시장경제의 원활한 작동을 뒷받침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비되어 가고 있다는 점이다. 노동관계 법령은 이미



국제기준에 맞도록 개정되어 노동약법 개정하려는 구호가 사라진 지 이미 오래 되었다. 지금은 오히려 노동자의 권리를 지나치게 보호함으로써 경제의 활력을 둔화시키고 있다는 인식이 커져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보다 중요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법의 정당성이 도전받지 않는 것은 法治, 나아가 대화와 타협에 의한 갈등해결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전제조건일 것이다.

勞使葛藤의 반대편에 서 있는 財閥에 대한 개혁 작업도 진행 중이다. 증권관련 집단소송제는 1년 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여야가 합의하였고 상속, 증여에 대한 포괄과세에 대해서도 그동안 반대 입장을 취해 오던 한나라당의 새 총재가 찬성 의사를 밝혔으니 조만간 추진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미국식 집단소송제(class action suit)의 도입은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건전한 노사관계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집단소송제'란 한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소송을 하면 다른 피해자들은 별도 소송 없이 그 판결로 피해를 구제 받을 수 있는 제도이며, 우리가 도입하려는 것은 '분식회계', '허위공시', 그리고 '주가조작' 등 세 가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이를 허용 하자는 것이다.

財界에서 가장 크게 반대해 온 부분은 바로 분식회계(粉飾會計)이다. 집단소송제를 도입하면 분식회계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회사뿐만 아니라 제대로 감시하지 못한 회사 임원, 회계법인에 대해서도 민사상의 거액의 배상청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동안의 관행적인 분식회계를 감안할 때 도저히 기업들이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다. 지금은 경제가 좋지 않으니 도입하더라도 가능한 한 실시시기를 늦추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분식회계가 암묵적으로라도 용인되는 분위기에서 대화와 타협에 의한 노사관계가 성립할 수는 없을 것이다. '파이를 먼저 키워야 하지 않느냐'고 설득해 보아야 상대방의 고함소리만 커지지 않겠는가?

그러나 대한민국을 법과 원칙을 존중하는 사회로 부르기에에는 不法이 관행화되어 있는 사례들이 아직은 너무나 많다. 최근의 예로 '이중계약서' 문제를 들 수 있을 것이다. 부동산을 매매하는 사람들은 실제계약서 이외에 행정기관에 신고하는 '검인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한다. 거래가를 낮추어 신고함으로써 과는 사람은 양도소득세를, 사는 사람은 취득세 등 지방세를 절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토지거래의 50-60%, 아

파트거래의 70-80%, 단독주택거래의 90% 정도에서 이중계약서가 작성되는 것으로 추산한다. 실질적으로는 탈세가 가능한 거의 모든 거래에서 탈세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면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새삼 불거진 것은 지난달 검찰이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1300여명을 형사 입건하면서이다. 이번 에 처벌을 받게 된 사람의 심정이 '과속 운전 단속'에 걸린 운전자와 같았으리라는 것은 짐작하기 어렵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기는 어렵다. 법과 원칙은 특정분야가 아니라 모든 분야에 공정하게 적용되어야 법과 원칙이라 부를 수 있을 터인데, 부동산거래에 법과 원칙을 적용한다면 국민 대다수가 탈세범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부 검사들의 우국충정에서 비롯된 물의가 건설적인 제도 개선의 시발점이 되고 있다. 대체로 일정한 유효기간을 준 후 모든 부동산거래의 실거래가 신고를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 <사회적 갈등과 道德主義 名分論>

둘째, 사회적 갈등의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도덕적으로 우위에 있고 다른 한 쪽은 도덕적열위에 있다는 인식이 사라져 가고 있다는 점도 대화와 타협의 문화를 위해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다. 야당 또는 재야 정치인은 물론이고 학생, 노조 등 과거 민주화 과정에서 '투사'로서 또 '소외된 계층의 대변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준 집단은 자신들의 주장을 굳이 합리적 설득으로 포장하지 않더라도 힘을 얻을 수 있었다. 왜냐하면 이들은 도덕적이므로 이들이 목소리를 높인다면 분명 '국민', 특히 '서민'들을 위한 것이리라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이다. 반면 '기득권 계층'은 실사 합리적인 주장을 펴더라도 일단은 어떤 불순한 의도가 숨겨져

있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에 부딪히게 되니 공개적인 논의보다는 은밀한 추진을 선호하게 되었다. 건전한 대화와 타협이 설자리가 너무 좁았던 것이다.

김영삼 정권과 김 대중 정권의 등장, 그리고 이어진 수많은 실정과 부패 스캔들은 이러한 도덕성 인식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민주주의 투사'들이 '부패'해 가는 모습을 보며 국민들은 갈등의 양 당사자를 균형 잡힌 시각으로 바라보는 법을 배워가고 있는 것이다. 노동쟁의가 있을 때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들이 옳겠지 하는 심정적 동조를 앞세우지 않고 이들이 내세우는 것이 '집단이기주의'가 아닌지 의심도 할 줄 알게 되었고, 계속되는 과업을 경험하면서 노조가 더 이상 사회적 약자가 아니라는 인식도 가지게 되었다. 아직 다소간의 의구심은 남아 있지만, 경영자단체의 주장에도 귀를 기울이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와 함께 그동안 도덕적인 집단의 집회나 시위를 그냥 바라보고만 있어야 했던 非道德적인 집단들이 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南北문제를 관련한 집회 양상의 변화는 매우 획기적인 것으로 보인다. 과거에는 이런 유형의 집회라면 일단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노래해야 의미 있는 집회로 간주되고, 북한체제를 비난하는 집회는 御用 단체들이 군중을 동원해서 소란을 피우는 정도로 치부되었었다. 하지만 지난 3월 1일 시청 앞에서 열린 '反北, 反核 국민대회'를 보면서 군사독재 시절의 북괴 규탄 전국민결기대회를 연상하는 사람은 별로 없었을 것이다. 분명 자발적 참여자들이 모여서 '대북 햇볕정책'을 '대북 퍼주기'라 비판하는 사람들의 정서를 대변하고 있었다.

양쪽이 동시에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하니 일견 한국사회의 分裂狀이 심화된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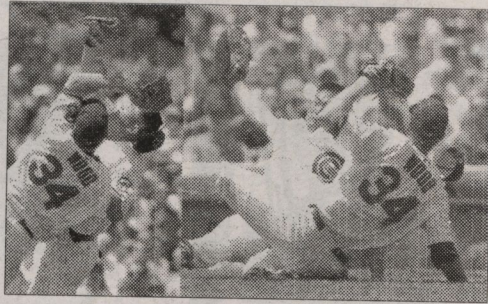
<29면에 계속>



龜仙境 ROCKY O B 56.2x76.2cm  
캐나다 토론토에 거주하는 石江(본명 박부남)화백의 록키산맥을 그린 破潑墨 작품



# 최희섭(Heeseop Choi) 선수와 시카고 Cubs



[편집자주: 이민 백주년을 맞이하여 미국 사회를 돌아보면, 미국의 국가 오락(America's national past time)이라고 불리는 野球계의 직업구단에도 박찬호(텍사스), 김병현(보스턴), 서재용(뉴욕 메츠) 외에도 최희섭(시카고 컵스) 선수가 장래의 유망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아래의 수필은 2003년 6월 7일 시카고 컵스 경기장에서 뉴욕양키즈의 로즈 클레멘스(원래 보스턴 레드 삭스 출신)가 야구 명예의 전당인 투수입문의 보증서와 같은 300승을 1승 앞두고 또한 텍사스 출신인 중견 강완투수인 케리 우드의 대결경기를 필사적인 수비노력으로서 萬年不運(90년간 통계적으로도 불가능한 기간동안 한번도 월드시리즈를 제패하지 못하였음)이나 진짜 全天候 야구 팬들에게 사랑을 받는 팀 시카고 컵스를 승리로 이끌게 한 기억할 만한 경기였다. 필자는 同胞의 자제이다.]

Pelarin Bacos III(Ph. D. Candidate in Music, The University of Chicago)

On the corner of Addison and Sheffield, on the north side of Chicago, baseball fans gather in the friendly confines of Wrigley Field to watch the Cubs. Here among the bricks and ivy of the outfield, people come to watch the great American pastime played in the ballpark that

chewing gum built. And now Koreans are watching too. Its strange to think that half a world away, people are interested in the fortunes of the Chicago Cubsthose loveable losers, those cardiac kids. It has been almost a century since the Cubs last won a World Series in 1908. Legend has it that the infamous curse of the billy goat will prevent the Cubs from ever winning a championship. The Cubs woes are a fact of life: so much so that maybe next year has become the unofficial motto of beleaguered, die-hard fans.

So why all the fuss in Korea? Could it be the young pitching staff that includes young pitching sensations Kerry Wood and Mark Prior? Could it be that slugger Sammy Sosa has an enclave of fans in Asia? Or could it be that newly acquired manager, Dusty Baker, fresh from leading the San Francisco Giants to an appearance in the World Series has made believers of us all? Hardly. The fuss is about Hee Seop Choi.

the Cubs 24-year old rookie first baseman from Kwang-Ju, South Korea. At 6-foot, 5-inches tall and weighing in at 240 pounds, Choi is certainly deserving of the nickname Big Choi given to him by Baker. Although he is not the first Korean to make it to the major leagues, Choi is the first Korean-born position player with the opportunity of becoming the Cubs everyday first baseman.

All of that almost came to an abrupt end earlier this summer. On June 7, at Wrigley Field, before a crowd of 39,363 fans, the unthinkable happened. It was a game for the storybookstuff that legends are made of. The Chicago Cubs hosted the world champion New York Yankees. Pitching that day were two Texans: for the Yankees, The Rocket, Roger Clemens, a veteran who set a major league record by striking out 20 players in a single games, now set to pitch for a milestone 300th win: for the Cubs,

Kerry Wood, the young phenomenon who equaled his childhood idols 20-strikeout record in his first year in the majors, eventually becoming rookie of the year in 1998.

It happened during the fourth inning. A routine popfly turned to disaster when Choi and Wood collided. Choi lay unconscious near the third baseline for nearly five minutes after he slammed his head onto the ground. The stunned crowd watched in silence as the game was delayed for nearly seventeen minutes. The umpire took the ball from Chois glove the ball that Choi never dropped and told Baker to make sure that Choi got the ball. Choi was taken off the field in an ambulance to Illinois Masonic Hospital. Wood knelt and collected himself after the delay, still visibly shaken up and worried for his friend. Baker told Wood to refocus and pitch for Big Choi. Veteran relief pitcher Mike Remlinger told him to keep himself going and make sure he finished the job for Hee Seop. Veteran Eric Karros replaced Choi at first base to the sound of fans chanting Hee Seop Choi! Hee Seop Choi! and the game went on.

In the seventh inning, Clemens left the game with a 01 lead and Eric Karros hit a 3-run homer off of Juan Acevedo to give the Cubs a 31 lead. In the end, the Cubs won 52, Cle

ens was denied his 300th victory. Wood won his 50th game, and the Cubs won their first game ever against the Yankees in one of the most exciting games ever played.

Since that game, the Cubs have fallen from first to third place, 4 games behind the Houston Astros and 1 games behind the St. Louis Cardinals. As of this writing, they are playing 0.500 baseball with 52 wins and 52 losses. Choi is back in the lineup and it may take some time for him to find his swing again, but thing look encouraging.

With the season more that half over, the time for the Cubs to make their move is fast approaching. Their most recent trades after the devastating loss of centerfielder Corey Patterson seems to indicate that management believes that this team can contend.

There is something special about a team and its fans that can rally around an injured player like that. Win or lose, this team will always give fans something exciting to cheer about: and with Choi playing again, the Cubs will give fans in Korea something to cheer about too. It will be an uphill battle, but its fun to root for the underdog to overcome adversity and emerge victorious.

Besides, there is always next year.

## <28년의 사회적 갈등과 합리성에서 계속>

특히 남북문제나 SOFA(주한 미군의 지위에 관한 한미간 협정, Status of Forces Agreement)개정 문제에 관한 대립상에 대해서는 解放 직후의 左右대결 양상과 유사하다는 우려 섞인 주장까지 나온다. 하지만, 그 동안 화합으로 명쳐 있던 사회가 갑자기 분열된 것은 아니지 않은가? 지난 연말의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도 국민들은 이화장 지지자와 노무현 지지자로 극명하게 갈려 서로 대화조차 하지 않았었고, 그로부터 5년 전의 대통령 선거 때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새로운 변화라면 국민들이 어느 한 쪽의 도덕적 우위를 인정하지 않고 양쪽의 주장을 균형 잡힌 시각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지나치게 목소리들이 커서 양쪽 다 짜증스럽다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이긴 하지만 말이다.

갈등의 당사자들이 더 이상 道徳性에 의존하여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合理的인 설득이나 對話를 통해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할 텐데 왜 여전히 세력 과시에만 몰두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일까? 확성기에 고성능 엠프를 달아 사람들의 귀를 찢어 놓고, 주말이면 서울 도심에서 수천 명이 행진하여 교통을 방해하고, TV 화면에는 붉은 머리띠를 두른 사람들의 격양된 모습이 수시로 등장한다. '決死', '死守' 등의 구호를 외치며 무엇인가 목숨을 걸고 싸우는 듯한 사람들도 여전히 있다.

이런 현상의 만연사태는 아마도 역대 政府가 법과 원칙에 따르지 않고 목소리가 큰 쪽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사회적 誘因 構造'를 왜곡한 것이 가장 직접적인 이유

일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그런 대응을 보인 것은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본래부터 법과 원칙을 경시하는 인물들이라기보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法과 法의 適用에 있어 '強者에겐 弱하고 弱者에겐 強하다'는 인식이 팽배하고 法을 어겨 가면서까지 저항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庶民들을 위해 필요한 존재라는 인식이 팽배한 상황에서는 다음 選舉를 의식해야 하는 정치인들로서는 법과 원칙만을 강조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또 거의 모든 국회의원을 '법법자'로 만드는 정치자금법, 대부분의 企業과 國民이 '탈세법'이 되도록 하는 제도와 관행을 가진 사회에서 유독 '과업, 집회, 시위' 등에 대해서만 엄격한 법 집행을 기대하기도 어려울 것이다. 법과 제도가 정비되어 가고 있다지만 시간이 걸릴 것이고 뿌리 깊은 불법적 관행을 없애는 데는 더욱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자칫하면 법, 제도, 관행을 고쳐 나가는 과정 자체가 대화와 타협보다는 과격구호와 불법시위로 접철될 가능성도 있다.

<對話의 문화와 공정한 言論>  
대화와 타협의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는 言論의 역할이 지대하다고 믿는다. 그리고 여기서 세 번째 희망의 싹을 찾아보고자 한다. 우리의 언론은 여론 형성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만 그에 걸맞는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대체로 부정적인 평가가 많다. 군사독재 시대의 행적에 대해서는 언론 스스로 반성을 표시하고 있지만 그 이후의 민주화 과정에서 과장, 왜곡, 편파 보도 시비는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정치적인 기사로는, "이러이러한 의혹이 있다더라"는 식의 기사가 '무책임한 보도'의 대표적인 사례일 것이다.

당사자의 해명에는 큰 비중을 두지 않은 채 일단 의혹을 크게 부풀려서 피해를 일컫는 다음, 조사 결과 근거 없는 것으로 판명되면 그뿐이다. 가끔 정정기사를 신기도 하지만 이미 입은 피해를 구제 받을 수는 없고, 때로 피해자가 언론사를 상대로 명예훼손 등으로 소송을 제기하기도 하지만 어쩔런 일인지 판결까지 가는 경우는 거의 없고 대부분이 함의로 끝나고 만다.

利盆集團 간의 이해 상충이 발생했을 경우 또는 국가정책에 대해 두 집단이 대립하는 경우 언론이 양쪽의 주장을 정확하고 공정하게 보도했는지에 대해서도 불만의 소리가 높다. 대형 과업이 있을 때마다 노조는 자신들의 입장이 언론에 의해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고 자신들의 과격한 모습만 부각된다고 불평한다. 또 왜곡 보도로 인해 여론의 부당한 질타를 받게 된다고 반발한다. 사실 일부 특정사태의 경우에 반발은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과업으로 인한 경제적 타격을 보도하는 기사들은 흔히 사용자단체가 발표하는 손실액을 아무런 여과 없이 그대로 내보낸다. 하지만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 액수는 조업 중단으로 인한 해당기업과 연관기업의 생산 차질액을 합한 숫자일 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수치를 큰 제목으로 뽑아 놓은 기사를 접하는 국민들은 마치 하나의 대형 노조가 사흘만 과업해도 경제성장률이 1%정도는 잠식될 것 같은 인상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정확하게 보도하면 국민들이 과업이 경제에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오해할까 염려하는 것일까? 자신의 주장이 언론에 의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다고 믿는 집단이 대화와 타협에 의한 해결에 큰 기대를 걸지 않을 것은 당연하다.

言論기관으로 하여금 공정하고 정확한 보도를 하도록 만들기 대화와 타협의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하는 힘은 인터넷 등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언론을 개혁해야 한다는 논의는 김영삼 정권이 들어선 93년부터 시작되었지만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언론개혁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김대중 정부는 국제청을 동원해 세무조사라는 칼을 빼어들고서도 신문을 변화시키지 못했다. 수천억원에 이르는 추징금을 부과하는 등 서슬 퍼런 모습을 보였지만 임기 말이 되면서 흐지부지 추징금 자체를 취소해 버리고 만 것이다.

그러나 인터넷의 광범위한 보급과 인터넷 신문, 방송의 출현은 기존 언론기관들에게 상당한 압력으로 작용하기 시작했다. 적어도 적극적인 독자들은 인터넷 매체를 통해 그들의 보도가 정확하지 그리고 公正한 것인지 비교할 수단을 가지게 된 것이다.

또한 노조와 사용자단체,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교원총연합회 등 서로 입장이 다른 집단들이 각자 홈페이지를 통해 자신들의 주장을 직접 여론(輿論)에 호소하기 시작했다. 심지어는 신문의 黃對의 태도를 지지할 하라의 원인으로 보는 靑瓦臺까지도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과 직접 접촉하겠다고 한다. 아직 신문이나 방송에 비해 영향력은 미미하지만, 한국민의 中壽에 가까운 인터넷에 대한 열정을 감안하면 앞으로의 변화를 과소 평가할 수는 없을 것이다. 아마 稅務조사보다 훨씬 효과적이지 않을까?

【Ⅲ】 道徳主義로부터 合理的인 판단의 社會를 향하여  
우리 사회가 성숙해감을 나타내는 다소

희망적인 변화가 이미 보이기도 한다. 최근 '스크린쿼터 축소'에 반대하는 영화인들의 기자회견이 있었다. 한미투자협정의 체결을 위해 현행 146일로 되어 있는 국산 영화 의무 상영일수를 미국 측의 요구대로 73일로 줄이자는 논의는 5년 전에도 있었고 그때에도 물론 영화인들은 반대했었다. 하지만 5년 전과 지금을 비교하면 커다란 차이를 느낄 수 있다. 당시엔 유명 영화배우가 사발 투쟁을 하고 결사 저지 등 과격한 구호가 난무했었다. 그런데 이번 기자회견을 보도한 신문의 사진을 보면, 우선 '한미투자협정과 스크린쿼터 축소 반대 영화인 긴급 기자회견'이란 현수막이 보인다. 그리 긴급할 것이 없어 보이는 일에 긴급이란 단어를 쓴 것 외엔 그다지 눈에 거슬리는 것이 없다. 그리고 현수막 아래 앉아 있는 영화배우나 감독들의 머리카락이 모두 가물게 그대로 있다. 기사 내용도 영화인들을 '집단지주의자'로 몰아 부치지 않고, '스크린쿼터가 한미투자협정의 걸림돌인가?' 등의 조점보도를 통하여 과거에 듣기 어려웠던 쟁점들을 소개하고 판단은 독자에게 맡기는 태도를 보이고 있었다.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인다. 법과 제도는 어느 정도 정비되어 가고 있고 국민들도 도덕성에 근거한 감성적 판단보다 합리적인 근거를 중시할 자세를 갖추어 가는 것으로 보인다. 또 자신의 주장이 부당하게 왜곡되어 역울함을 당하는 일도 점차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제는 정부가 법과 원칙을 엄격히 적용함으로써 대화와 타협을 유도해 나가도 좋은 시점에 온 것이 아닐까?



# 또 하나의 백년을 향하여

## 桑港 移民백주년 總會記

朴京民 (의대 59년 졸, 뉴잉글랜드 이민백주년 기념사업회 회장)

### [I] 아름다운 桑港에서

지난 6월 8일부터 10일까지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된 미주한인 이민 기념사업회 미국총회[한국과 12개 미주지역에 조직된 기념사업회 중 9개 지역 대표자들이 모임, Cathedral Hill Hotel]에 참석하기 위하여 필자는 미 동북부의 도시, 미국 독립의 횃불이 타올랐던 유서 깊은 보스턴을 떠나 미국인들이나 외국인들이 관광지로서 제일 먼저 가보고 싶어하는 낭만의 도시인 San Francisco(이후 SF나 桑港으로 줄임)로 가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桑港은 태평양을 바라보고 북쪽으로 뻗은 半島에 위치하고 반도 안쪽은 포근한 만(灣)이며 그 주변으로 산업 도시며 학술도시인 Oakland와 세계첨단 電子산업의 중심지인 실리콘벨리가 연결된 San Jose 등이 있다. 상항(桑港)은 원래 Miwok 인디언 부족이 살았던 곳으로 1776년 Junipero Serra 神父가 이곳에 도착해서 선교활동을 시작한 이후 이곳 이름이 San Francisco Asis 가 되었다고 한다. 또한 상항은 1848년 Sacramento 계곡에서 金이 발굴되면서 다음해 1849년 금광 노다지를 캐기 위해 포장마차에 몸을 싣고 수많은 白人들이 미국 도처에 살고 있는 인디언 부족들과 싸움을 벌이면서 이 지역으로 몰려들기 시작했던 곳이다.

현재 미식축구 프로팀의 하나이며 슈퍼볼의 강력한 후보인 "49ers"는 이때의 "Gold Rush"에 몰려든 용감한 사나이들을 지칭하는 말에서 유래하고 있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리고 멕시코와의 전쟁에서 얻은 戰利品으로서의 캘리포니아 땅은 오늘날 서부개척의 미국역사와 함께 아시아계 이민자들에게도 젓과 꿀이 흐르는 가난한 땅으로서 "미국의 꿈"(American dream)을 이루는 근거지가 되어가고 있음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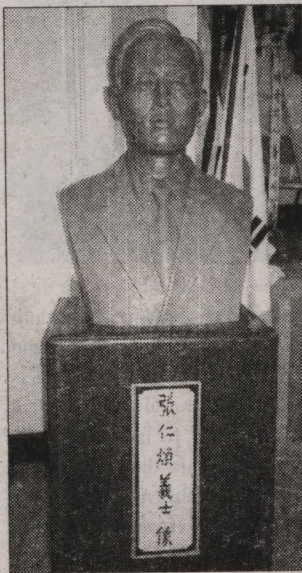
그러나 안개 속으로 빨간 자태를 드러낸 금문교, 漁夫들의 낭만이 서린 부두(埠頭), SF의 중심인 Union Square Nob Hill, Russian Hill, Cable Car Museum, Lombard Street Curves의 언덕길 꾸불꾸불한 급커브에 아름답게 조성된 여러 가지 꽃들과 花園, 한때 알카포네와 "Machine Gun" 캐리가 갇혔던 船塢가(Fisher Man's Wharf) 앞의 灣 가운데 자리잡은 바위섬에 세워진 절벽 감옥이 있는 Alcatraz 섬, 이 섬 주위를

흐르는 빠른 潮水와 한 번 감히면 스스로 탈출할 수 없는 영화 빠빠용의 장면을 연상시키는 높은 절벽, 그리고 금문교 기슭의 녹지대인 Presidio 人工 숲의 Golden Gate Park, SF와 Bay를 사이에 두고 있는 Sausalito의 아름다운 집들과 하얀 돛단배들이 한가로이 만에 떠 있는 모습들은 아름답기 그지없었다.

그러나 나의 감회는, 그림같이 아름다운 풍경에 머무름을 지나, 과거 19세기말 美大陸 횡단 철도 부설 노동자로 소위 "꾸리(苦力)"라는 비인간적인 취급을 받았던 中國인들이 白人들의 인종차별에 대항하여 뭉쳐진 힘으로써 이곳에 차이나타운을 형성하고 오늘에 이르러 세계적인 유명한 관광지로 탈바꿈시킴으로써, 어느 移民者에게도 "무엇이나 열심히 하면 꿈이 이루어진다"는 가능성을 실증한 것으로서, 필자에게는 비록 民族은 달라도 마음 뿌듯함을 금할 수가 없었다. 미국에서의 유대인 다음으로 중국인들이 백인들의 차별과 편견을 극복하고 美主流 사회에 WASP의 장벽을 넘어 진출하고 있음은 너무나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다음은 반드시 우리의 차례로 한국 이민자들도 미주류 사회에 성공적인 진출을 이룩할 것이라는 소망과 확신이 아마도 이번 미주 한인 이민 기념사업회 총회에 모인 분들의 가슴속에 자리잡았으리라.

### [II] 두烈士와 상항韓人들의 祖國愛

이번 총회기간 중 중요한 행사의 하나는 장인환, 전명운의사의 흉상 제막식(6월 9일(월), 오후 4시부터 5시반, 상항 한인회관)이었다. 이 제막식의 중요한 뜻은 미주한인이민 역사에 있어서 망해가는 대한제국의 국운을 되돌리고자 하였던 선열들의 애국운동의 기폭제가 되었고 후일 조국광복운동의 도화선이 된 역사적사실을 이민 100주년의 해에 되돌아보는 것이었다. 우리 美洲한인이민 역사에서 하와이가 계리호의 102명으로 시작된 7천여명의 사탕수수밭 노동자 이민들의 피눈물나는 고초와 望鄉의 한과 亡國의 설움으로 뿌리가 내려진 초기이민 선각자들의 땅이었다면 SF는 島川安昌浩(1878-1938)와 人蔘장사간의 일화로 시작해서 미국본토 최초의 韓人教會(桑港연합감리교회)가 세워진 곳이다. 또, 舊韓末 민영익을 단장으로 한 견미보빙사절단 일행이 미국 땅에 첫발을 디딘 곳으로 그후 서재필, 서광범, 박영효 등을 비롯한 정치 망명객



상항 한인회관에 봉헌된 장인환, 전명운 의사 흉상

들의 생활 근거지였고, 미 본토에서 상항친목회, 共立協會, 共立新報등의 최초의 한인 정치단체와 언론기관이 탄생된 곳이기도 하다. 또한 興土團, 大韓國民會 등의 抗日獨立運動의 본거지로서 미국정부로 하여금 "정치망명 학생 신분" 허용하게 함으로써 장리욱 등 5백여명 학생들이 혜택을 받았고, 그중 많은 인사가 초기 한인 이민사회 건설과 조국광복운동에 기여할 수 있게 뒷받침한 이대위 牧師의 愛國愛族 정신이 담겨진 곳이다. 더 나아가 臨政의 노백린 장군의 韓人飛行士양성소가 월로우스에 세워진 곳이기도 하다.

그러나 무엇보다 1908년 3월 23일, 한국 민족운동사상 장렬한 義烈 투쟁의 효신인 張仁煥(1876-1930, 평양출생), 田明雲(1884-1947, 서울출생) 두 烈士가 당시 대한제국 말 日帝의 조선통감부의 외교고문이던 일본정부의 고용인 스티븐스(Durham White Stevens)를 狙擊하여 처단한 역사적 사건이 일어난 곳으로 우리 韓人 동포들에게는 결코 잊을 수 없는 도시이다.

1905년 9월 5일 日本의 승리로 끝난 日露전쟁은 Portsmouth (NH)에서 미국의 중재로 체결된 日露平和條約으로 종결되고, 그 결과 極東에서의 세력균형은 英國의 親日中立을 바탕으로 하여 日本의 帝國主義 野望의 실현으로 치닫게 되었다. 19세기부터 시작된 西洋諸國들의 極東진출의 대열에 後發 走者로 뛰어든 美國은, 당시 太平洋 지역에 배치된 海軍力을 바탕으로 필리핀에서의 기존 권익 보호와 滿洲지역에 있어서의 交易 기회 확대에 관심을 표명하고 있던 때였다. 이를 위하여 미국은 그 이전에 1905년 7월 29일 日本과 TAFT-Katsura 美日覺書(memorandum)를 교환하였는데, 그 골자는 "極東의 平和유지"라는 美名하에 日本의 韓半島에서의 정치, 경제, 군사적 우월권을

보장하고 美國의 滿洲진출의 경제적 기회균등을 교환 약속함으로써, 결국 후일 日帝의 韓國合併을 용인한 돌리리가 되었다. 그러나 日帝는 만주에서의 미국의 교역진출에 대한 차별을 하였고, 당시 桑港지역에서의 일본인계 어린이들의 분리교육에 대한 결정으로 상호간에 적대감이 증대되자, 日本은 미국 내에서 反日여론의 沸騰을 무마하기 위하여 朝鮮統監府는 Stevens를 桑港에 파견하였다 [아마도 이때 국제 정세에 어두운 한국조정에서는 그가 쓰러져 가는 朝鮮의 國運을 회복하는데 Stevens의 역할과 도움을 기대하였을지도 모른다]. 스티븐스는 도리어 日本의 對韓國정적을 비호하고 그 정당성을 주장하여, 미국 輿論을 親日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SF에 도착하자마자 가진 기자회견에서 일본의 한국정적이 정당하며 한국은 일본통치 밑에서 경제적 혜택을 받게 되었고 그 後進性을 벗어나 文明國으로 발전할 기회가 주어졌다고 주장하면서 대다수의 한국 국민들이 일본통치를 환영하지하고 있다고 말했던 것이다. 이 기자회견 내용이 일간지인 "桑港紀要"(The San Francisco Chronicle)에 크게 보도되자 쓰러져 가는 조국에 대한 우려와 분노에 가득 찼던 교포들 마음속에 특히 장인환·전명운의사와 같은 젊은이들의 울분은 서로 事前 협의도 없이 스티븐스를 응징(膺懲)하러 나서게 되었던 것이다.

이를 계기로 他鄉에서의 외로운 홀아비 생활, 술, 담배, 도박 등으로 향수에 젖어 세월을 보냈던 그 당시의 많은 교포들은 감옥에 갇혀진 살신성인(殺身成仁)의 두 애국자를 구원하는 운동을 펼치면서 한국인의 民族的 자부심을 되찾고 祖國을 사랑하는 애국심에 불을 당기었던 것이다. 이 사건은 비록 폭력에 의한 항거였지만, 1908년 3월 25일자 뉴욕타임즈 사설은 "한국민족은 아직 살아있다"제목으

로, "스티븐스의 자격사건은 다소의 능력을 가진 한국인들 중에서 생존을 위한 표시였으며, 자기 민족의 운명을 자기들의 힘으로 개척하겠다는 의지였다. 죽음을 무릅쓰고 다가올 刑罰에 관계없이 이 젊은 학생들은 고의적으로 용감하게 공개적으로, 일본을 돕고 한국을 배신한 사람을 습격했다. 그 행동은 그리 아름답거나 현명한 행동은 못된다. 그러나 추상적으로 고려할 때 그 행동에는 상당한 가치가 있음을 인정할 수 밖에 없다"라고 보도하여 두 젊은 韓人 愛國者의 행동을 이해코저 하였던 것이다.

또한 같은 날짜 교포신문 "共立新報"의 社說도 장인환, 전명운 두 의사를 애국자로 인정하고 우리 동포와 우리나라를 해롭게 하는 자를 저격한 것은 당연하며 2천만 동포는 우리의 독립과 자유를 위해서 싸워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 義舉의 餘波는 그후 안중근, 강우규, 윤봉길, 이봉창, 김상옥, 나석주, 김지섭, 이재명, 조병하 등으로 이어지는 항일 무력항쟁의 起爆劑가 되어 우리 民族史를 더욱 빛나게 하였음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

이제 두 분의 義舉가 있는지 95년만에 이미 그들은 모두 이 세상을 떠났으나 [張仁煥의사는 1904년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에서 2년간 노동자로 일한 후, 캘리포니아로 이주하였던 막노동자로 大同保國會의 회원이었고 재판후 2급 살인죄로 25년의 금고형을 판결받아 10년을 복역한 후 1919년 1월 San Quentin 형무소에서 가석방되었다. 가석방된 후 1927년 4월 일시귀국, 평양에서 결혼하였으나 일제의 감시에 못이겨 단신 미국으로 돌아갔으나 실의와 병고 끝에 1930년 5월 22일 처자없는 외로운 신세로 자살하였고, 샌프란시스코 사이프러스 공동묘지에 안장되었다. 1962년 건국훈장 대통령장이 수여되었고 1975년 국립묘지로 이장되었다. 한편, 田明雲의사는 1905년 하와이로 이민, 1년간 농장에서 일한 후 1906년 샌프란시스코로 이주하였고 共立協會에 회원으로서 스티븐스 자격에 나섰으나 후대한 권총이 불발하였다. 그러나 권총으로 스티븐스의 안면을 강타하고 격투중 張의사가 쏜 유탄에 어깨를 관통당하여 쓰러졌었고 장인환의 공범으로 체포되었으나 재판관이 그의 당당한 애국심에 불타는 호소에 감복하여 1908년 6월 27일 無罪를 선고받고, 석방되었고 재판 중 신변의 위협을 느껴 변호사의 권유로 이름을 마크 필즈(Mark Fields)로 고치고, 그 변호사의 권유로 1908년 12월 시베리아 블라디보스토크로 피신하였다. <31면에 계속>



<30면 박경민 또 하나의 백년에서 계속>  
 1909년 7월에 LA로 돌아와 결혼하여 1남 2녀를 두었으나 1929년 상처하고 아이들을 고아원에 맡겼는데, 외아들은 형사하였다. 조국 광복을 맞이하였지만 비참한 생활고로 1947년 11월 9일 사망하였고, LA의 유티어(Whittier)천주교 묘지에 안장되었다. 한국정부는 1962년에 건국훈장 대통령장을 추서하였다. 이 역사적 사건에 대해서 많은 동포들이 오늘의 백주년 기념사업회가 흥상제막식을 갖기까지 관계자 및 친척외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았고 이에 필자 자신도 同胞의 한사람으로서 부끄러움을 금할 수 없다. 오늘에야 만시지탄(晩時之歎)이지만 두 애국지사의 참모습을 SF 한인회관 내에 흉상(胸像)으로나마 모시게 되었음은 매우 뜻깊은 일이 아닐 수 없으며 이를 준비한 SF 이민 백주년 기념사업회 김근태 회장님이 하 사업회 임원 동포여러분, 그리고 이를 후원한 한국정부의 보훈처, 독립기념관, 광복회 당국에 감사 표하는 바이다.  
 그러면 과연 이 흥상제막식이 오늘을 사는 우리 동포들에게 주는 의미와 교훈이 무엇인가? 흥상을 바라보면서 생각되는 것은 두 분의

장한 義舉뿐만 아니라 그들을 살리기 위해 하나로 뭉쳐진 당시 美本土에 거주하던 교포들의 民族魂의 발로는 눈물겨운 일이 아닐 수 없었다. 당시 60여명밖에 안되는 SF 동포사회는 白人들의 비인간적 천대와 열악한 근로환경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땀흘려 번 돈 7백달러를 모금하였고 그 금액은 당시로서는 교포들의 收入에 비하면 엄청난 돈이었다. 이때의 모금은 미국내뿐 아니라 중국, 만주일대, 그리고 중미일대를 포함하여 일어난 뜨거운 민족운동의 일환이었음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모금의 총액은 8천 5백불을 넘어섰고 미국 본토 교포 5백명은 5천불을 모아 기부했던 것은 당시의 그들의 低賃을 고려하면 일주간의 임금을 내놓은 것으로서 정말로 피와 눈물의 모금이었던 것이다. 새벽 4시에 일어나 5시부터 농장 등에서 노예 같은 생활을 하면서 한푼씩 돈을 두 애국지사 救命을 목적으로 서슴차 않고 기부한 애국동포에, 어찌 그들에게 그 돈이 어떤 돈이길래 아깝지 않았으리요. 그러나 이 전통이 계속 성금모금으로 이어져 그 액수가 해방 전까지 3백만불을 모아 조국 광복운동에 크게 이바지 한 것은 이민 백년을 맞은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 크다.  
 [III] 또 하나의 백년을 바라보며  
 오늘날 우리들 後期 이민 일세들은 역적같이 이민생활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많은 동포들이 좋은 집에, 좋은 차에, 좋은 음식에, 아이들을 좋은 학교에서 교육시키고 골프치며 교회에 나가면서 이제 사람다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으로 "미국의 꿈"을 다 이룬 것으로 만족할 수 있을까? 우리가 백주년 기념 사업을 전국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큰 이유 중의 하나는 지나간 한세기를 기념하는 축제일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백년을 향한 "제 2의 미국의 꿈"을 이루는데 힘을 모아야 하는데 있지 않을까? 오늘날 소위 "세계화의 파도"속에 民族意識이 희석(稀釋)되어가고 사고방식과 행동이 "美國化"되어가며 개인주의와 利己心이 팽배한 현대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2세들에게, 지나온 백년의 移民史가 주는 값진 교훈을 어떻게 올바르게 전수시키고 훈련시키느냐는 미주 동포사회의 장래를 결정하는 관건(關鍵)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 SF의 이민백주년 미국총회는 기왕에 있었던 행사와는 남다른 의의와 역사성이 담겨져 있었다. 첫째로 미주 한인 이민 백

주년의 의미는 떠난 祖國에 대한 영원한 사랑, 시련과 역경을 넘어 挑戰者의 삶을 통한 "美國의 꿈"을 이루고자 하는 미주한인들의 또 하나의 百年을 향한 里程碑를 내세움에 있고, 둘째로 기념사업의 목표가 사업회 공식 안내 책자에 이미 명시된 바와 같이 초기 移民선구자들인 "당신"들의 은덕으로 오늘의 우리들은 자랑스러운 美州韓人社會를 이루어 나갈 수 있고 美州가 祖國 독립운동의 발상지였다는 역사를 이민 후세들에게 되새기며, 그 紀念財團을 만들어 이 땅에서 익힌 知識을 서로 나누면서 다른 이민자들과 더불어 사는 이 社會에 기여하는 전문가들을 양성하는 未來를 내다보는 새로운 사업을 적극 펴가는데 있음을 확인하고 실천하는 계기가 마련된 것으로 생각된다. 이런 뜻을 기리기 위하여 이번 SF 총회에서는 매년 1월 13일을 "Korea-American Day"로 제정할 것을 결의하고 모든 대표들이 서명하고 이를 선포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로써 한인이민백주년기념사업은 금년말로 일단 한 획을 긋고 이의 精神의 遺産을 계승하는 새로운 사업의 청사진들이 금년 10월말 뉴욕총회에서 토의 될 예정이다.

이번 총회를 끝마치고 SF를 떠나면서 필자에게 토니 베넷트가 부른 유명한 노래 "I left my heart in SF"와 함께 잊혀지지 않은 것이 있다면, 桑港 한인회관 안에 걸려 있는 詩畫작자였다. "언파"라는 필명으로 된 "아 카리포니아"라는 제목의 이 詩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남아있는 단 하나의 고향(故鄉). 우리 자식들이 어렵게 어렵게 뿌리를 내린 땅. 오천년의 얼을 등에 업고 태평양(太平洋) 넘어 여기에 와서 우리는 이제 이천년의 새 태양을 가슴에 안고 한 점 恨도 없고 부끄러움도 없이 살다가 저 언덕아래 뼈를 묻어야 할 땅. 너희들이 너희가 내린 뿌리 위에 정직과 자유의 꽃을 피운 사람으로 살아 불만한 세월. 이십일세기가 너희와 너희 후손들 앞에 오게 하라"고 말하고 있었다. 이 글은 어쩌면 또 하나의 백년을 살아가야 할 우리 後世들에게 당부하는 오늘을 사는 이민 1세들의 바램 아닐까?

**桑港 미주한인이민 100주년기념 전국 총회 장의 장면.**  
 2003년 6월8일~10일



①아름다운 桑港의 Alcatraz 섬을 바라보며 ②상항 "漁夫의 船艙"의 어느 食堂에서 삶은 crab을 시식하기 위한 줄 ③Alcatraz 섬을 뒤 배경으로 한 부부의 필자부부 ④박윤수(워싱턴 DC 백주년 기념사업회장)동문 부부, 필자와 채영창 워싱턴 DC 기념사업회 부회장 부부와 금문교에서 ⑤張. 田義士 흥상 제막식장(상항한인회관)의 국민 의례순서 ⑥장인환, 전명운 의사 영정봉헌 ⑦빨간 꽃을 단 여자분은 田의사의 따님 ⑧ 기념사를 하는 김우전 光復會회장 ⑨신호범(워싱턴주상원의원) 강연 ⑩흥상이 봉헌된 桑港韓人社會館전면 ⑪이민백주년 미주 전국 총회 기념 공연장에서 김혜련(무형문화재)씨의 공연 ⑫김대균(무형문화재)씨의 줄타기 ⑬기념공연의 名唄 안숙선씨와 김대균, 김혜란씨를 포함한 출연자들



# 초기 재미한인사회의 祖國獨立의식과 救國운동

## Rosedale의 愛國先烈 묘역을 돌아보며

金香子 (약대 65년 졸)

### < I > Rosedale의 사람들

남가주의 羅城에서는 작년 2002년 9월 21일 秋夕 명절을 맞아 제 1회 愛國先烈 합동추모제가 Angelus-Rosedale 공원묘지에서 있었다. 이것은 2003년도에 있을 미주 한인 이민 백주년 기념사업 행사 중에서 첫 시작을 알리는 뜻 있는 행사이기도 했다. 로즈데일 墓域은 노르만대를 벽으로 하고 워싱턴街를 入口로 해서 자리잡고 있는데 羅城韓人村에서 걸어서도 갈 수 있는 코앞에 있다. 1945년까지만 해도 東洋人은 로즈데일이나 에버그린 묘역에만 安葬이 허락되었다고 한다.

이곳에 有名無名의 愛國志士 102 분이 잠들어 계신다[명단 34면 참조]. 그 중에 강영문[1888-1968, 원적 평남, 월로우스 한인 비행사 양성소 간사를 역임한 한학자], 김성권[金聲權, 1875-1960, 한학자, 독립유공자로서 2002년 건국포장 예국장 추서, 1905년 하와이 예외농장 내 '에와친모회' 조직 및 1908년 하와이 한인 합성협회 대표(7명)], 라성한 백일규[白一圭, 1883-1962, 원적 평남, 東學당 백백고 수령, 경제학자로서 '韓國經濟史' 저술하고, 大同公報, 독립신문, 신한민보, 하와이 국민보 주필등을 역임하여 언론활동에 종사하였으며, 국민회 총회장(1926-1935)역임, 독립유공자로서 1997년 건국훈장 독립장 추서], 송종익[宋鍾翊, 1882-1956.1.7 대구에서 출생, 호는 우강(友江), 흥사단의 창립회원으로 장인환, 전명문의사 재판후원회 조직등 미주에서 조국광복운동을 뒷받침, 1995년 건국훈장 독립장 추서], 송위리[宋偉里, 1924-2002, 송종익의 아들로서 존 홉킨스 대학 인류학 전공 후 유럽 유학하고, 상해 제 3 지하공작대로 활약하였으며, 광복후 주미대사관 초대 공보관 역임], 임준기[1881-1954, 1907년 공립협회 회계 역임한 실업인], 차상달[1905-1992, 조국통일 민주회복 남가주 위원장], 최진하[1890-1967, 원적 평양, 1916년 유학생으로 도미, 1921년, 23년-24년 및 1935년 국민회 총회장과 신한민보 주필역임, 1995년 국민훈장 애족장 추서], 한시대[韓始大, 1888-1981, 1940년 대한인 국민회 중앙집행위원장을 역임한 독립유공자로서 1995년 건국훈장 독립장 추서], 홍연[洪 焉, 호는 해옹(海翁), 1880.2.27-1951.3.25, 서울에서 출생하여 항일운동에 투신, 민주를 거쳐 1905년 하와이에 노동 이민하여 1906년 하와이에서 자강회 조직, 북가주에서 조국광복운동을 고취하는 교민언론기관에 종사, 自強新報, 合成新報, 新韓國報 및 신한민보

주필역임, 독립유공자로서 1995년 건국훈장 독립장 추서, 대구 국민묘지로 이장] (가나다 순) 諸位들은 우리들의 귀에 익숙한 존함(尊稱)들이다. 그중 송종익(宋鍾翊), 홍연(洪 焉)님은 후에 대구국립묘지로 이장(移葬)되었다. 그들은 亡國의 슬픔을 안고 祖國 땅을 그리워하며 광복을 위해 資金을 모으고 團體를 조직하고 興土團과 國民會의 회원이 되어 獨立運動에 기여하였다. 나는 그들의 고난의 삶과 업적을 돌아보고 그들의 위대한 愛國愛族 정신을 추모하여 우리의 가슴에 되새기는 뜻에서, 지금은 그 墓域에서 永眠하고 있는 몇분들의 삶의 一毛를, 미주에서 창립되어 조국광복운동의 큰 받침돌의 하나가 되었던 興土團의 활동과 관련하여 내가 들고 본 비를 바탕으로 여기에 기록한다.

### < II > 초기 한인 移民史의 片鱗

재미 한인사에는 1882년 韓美수호 통상조약이 체결되고 1883년 보빙사(報聘使) 사절단이 처음으로 미국에 왔고 수행원으로 온 유길준(兪吉濬)이 최초의 한인 국비(國費) 미국유학생으로 기록되어있다. 그는 귀국해서 갑신정변(甲申政變)에 연루되어 開化派란 죄목으로 연금되어 西遊見聞(1895년 탈고)을 썼으며 기우는 國運을 보면서 흥사단[도산이 1913년에 조직한 것과는 별개임]과 漢城府民會를 조직하고 국민계몽에 힘썼다. 후에 島山 안창호는 조선독립을 위한 수양단체를 조직하여 유길준의 정신을 계승하여 興土團이라 하였다.

徐載弼(호는 松齋, 영문명 P. Jason, 1866.11.20-1951.1.5, 전남 보성출생, 갑신정변을 시작으로 구한말 독립운동의 선구자로 조국과 미국에서 활동, 1977년 건국훈장 대한민국장 추서, 田明雲의사의 유해와 함께 1994년 4월 8일 서울 동작동 국립묘지에 안장)은 1885년 甲申政變에 참여하여 三族滅門을 당하는 상황에서 亡命하여 1888년 韓人으로서 최초의 美國市民이자 의사가 되었다. 그는 한국의 개혁운동의 元祖였다. 1894년 귀국해서 獨立協會(1896년)를 조직하고 獨立新聞(1896년)을 발간하고 獨立門(1897년)을 세웠다. 미국에서 번 돈으로 모두 조국독립과 광복운동을 위해 썼으며 獨立門도 自費로 세운 것이다. 1906년 미국에 다시 돌아와서도 3.1운동과 독립운동에 공헌했다.

1902년 島山 安昌浩 [1878.11.9-1938.3.10, 평남강서출생, 신교육의 선각자, 그의 民族改造論에 바탕을 두고 興土團이 창립됨, 1962년 건국훈장 대한민국장 추서], 부부가 移民으로 (大韓帝國 발행 여권번호 51과



미리 조국의 주춧돌로 품 품으셨으니  
안 보이게, 안보여서 더 분민하게  
오셨, 민족의 마음에 영원한 정신 의식이다

52호) 하와이를 거쳐 10월 14일 桑港에 도착했다. 美移民國 기록에는 1901-1902년 사이 하와이를 경유한 한인 이민자 18명중에서 첫 이민자로 Peter Ryu 라고 기록되어있다.

1903-1905년 다수의 한인 勞働者와 가족들이 하와이에 도착하기 시작했는데 하와이의 農地개척을 위해서 北美開發會社의 주선으로 왔다. 이들은 勞働契約기간 만료前이나 後에 하나씩 둘씩 미국 本土로 들어가 캘리포니아, 멕시코, 쿠바로 흩어져 살게 되고 그 수는 수천 명으로 늘어났다. 桑港(San Francisco)에는 이러한 하와이의 개발회사의 이민 이전에 中國人을 따라 들어 온 한인동포 人蔘장사를 비롯하여 수백 명의 韓人이 이미 살고 있었다고 한다.

### < III > 張仁煥/田明雲의사의 의거

1908년 3월 San Francisco에서 스티븐스(Durham White Stevens)의 狙擊사건이 일어났다. 스티븐스는 日帝의 朝鮮統監府 外務고문이었지만 일본의 밀정(密偵)이었다. 美國의 反日 감정을 위무차 미국에 온 그는, 도착하자마자 San Francisco Chronicle 紙에 "Japan's Control a Benefit to Corea" 라는 발언을 하고 거짓주장으로 가득한 기사를 실렸다. 당시 재미 한인들은 한결같이 그를 응징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되고 "자유냐 죽음이나"(Liberty or Death)가 조국의 독립을 걱정하는 美洲僑民들의 모토가 되었다.

3월 24일 아침 페리역 (Ferry building)앞에서 스티븐스는 張仁煥, 田明雲 으로부터 狙擊당했다. 스티븐스를 향해 겨는 田의 연발권총은 不發되었다. 스티븐스가 田을 추적하기 시작하였는데 3방의 銃聲이 뒤이었다. 張이 쏜 첫 번째 총탄은 田의 가슴 쪽으로 맞았다고 하며 마지막 두발은 스티븐스의 등에 맞았다. 田은 병원에서 張은 모르는 사람이고 그(張)가 쏜 탄알에 자신이 맞았다는 것을 부인했다. 田은 자기는 張을 전혀 본 일이 없었을 뿐 아니라 스티븐스가 추적하다가 자기를 쏘았다고 했다.

田明雲은 체포되어 아래와 같은 진술을 했다:

"나는 25세이고 미국에 공부하러 왔다. 돈도 없고 농사를 짓고 있다. 일자리를 구할 수가 없었다. 세계가 한국을 천한 나라라고 보고 있는 점이 매우 유감스러웠다. 나는 美國에서 공부를 하여 우리 나라를 돕고 싶은 마음으로 祖國을 떠났다. 한국의 사정은 더욱 나빠져만 가고 있다. 日本은 힘으로 조약을 강요하고 있다. 나

무 것도 할 수 없었다. 방관자일수밖에. 스티븐스가 며칠 전에 桑港에 도착했다. 그는 한국의 실정에 대하여 거짓말을 했다. 그래서 그를 죽이고서 자살하려는 결심을 했다."

당시 33세인 張仁煥은 샌프란시스코 刑務所에서 다음의 진술을 했다:

"스티븐스는 한국의 國祿을 받으면서 일본을 위해 일했다. 그는 한국을 기만했으며 배반자이다. 그는 일본의 지배가 한국을 開化하는 일이라고 거짓 선전했다. 나는 그러한 인물을 죽여야만 했다. 많은 韓國人이 그의 배반때문에 죽었고 그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갈 때 또 많은 사람이 죽게 될 것이다. 그러한 이유로 우리의 民族을 구하기 위해서 그에게 총을 겨누었다. 삶이란 무엇인가? 義로운 죽음이어야 한다. 그를 죽이고서 죽는다면 祖國에 榮光과 榮華가 될 것이다."

Stevens는, 그의 현주소는 서울이고 사무처는 王宮이라고 진술하고, 이들 후 55세로 숨졌다. 張과 田의사의 재판에 通譯이 필요해 프린스턴 대학원생 李承晚에 부탁했는데 李는 공부에 바쁘고 기독교인으로 살인자를 변호할 수 없다고 거절했다.

### < IV > 興土團의 기원과 友情

당시 桑港에는 韓人 단체가 둘 있었다. 田明雲 의사(義士)는 共立協會 회원이었고 張仁煥 의사는 大同保國會 회원이었다. 張, 田의 스티븐스 저격사건을 계기로 共立協會, 大同保國會, 하와이의 韓人合成協會가 통합하여 大韓國民總會(Korean National Association)로 1909년에 결성되었는데 이때, 도산은 국내에 귀국하여 민족운동으로 활동중이었다. 1912년 11월 桑港에서 島山이 그 초대 회장으로 선출되었고, 共立新報가 新韓民報(1909년 창간)로 改題되어 국민회의 기관지로 續刊되었다.

1913년 국민회의 보증으로, 亡命志士나 유학생들이 여행권 없이 미국 내 入國, 修學 및 거주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교민사회를 번창시켰고 國民會가 自治的으로 조국독립활동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였는데 이에는 島山の 막중한 노력이 있었다. 도산은 1913년 5월 13일에 흥사단을 조직했다 [편집자주: 民族復興을 목적으로 창립된 사회교육 및 국민훈련기관, 우리민족이 세계최고의 일등국민이 되고 인류의 존경과 신뢰를 받는 모범민족이 되기 위하여 민족의 힘의 근원인 국민 개개인의 인격혁명을 통하여 民性革新, 民力增強을 도모함으로써 민족前途의 번영의 기초를 수립하고자 하였다. 島山の 주도로 八道 대표자 경기도 洪焉, 강원도 廉萬石,

충청도 趙炳玉, 황해도 金恒作, 경상도 宋鍾翊, 평안도 姜永韶, 함경도 金宗林, 전라도 鄭源道씨가 창립에 참여하였다. 초창기에는 이민교포와 유학생을 중심으로 학업과 인격수양, 생활개선, 경제력증진에 주력하고 1919년 3.1운동으로 중국상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됨에 따라 상해에서 흥사단 遠東위원부를 조직하였고, 國內에서도 서울에 수양동맹회(1922년)와 평양에 동우구락부(1923년) 등을 결성하여 日帝하에 合法的인 민족운동을 펴고자 하였다. 뒤에 필자가 언급하는 흥사단의 4대 지도이념은 건전한 民主市民이 갖추어야 할 德體智 三育을 기본덕목으로 하는 人格, 團結, 公民의 3대 훈련을 실시하고, 團友는 自我革新, 神聖團結, 團務奉仕, 責任完遂, 大公服務를 5대 생활지표로 삼아 실천하도록 하였다. 대외적인 사업으로 청소년과 성인을 대상으로 국민교육을 실시하고 출판, 문화, 장학사업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1954년 4월 9일에 개강한 흥사단 금요강좌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고, 1964년 4월에 창간된 기관지 기러기가 있다. 1963년부터 전개한 아카데미운동은 10만 여 명의 고교 및 대학생 회원을 배출하였다. 1989년 10월 현재 등록된 단원은 5,500여명이었다. 興土團의 첫 同志가 된 宋鍾翊은 國民會와 興土團에 가입하였을 뿐만 아니라 島山이 부재시에 도산의 가정까지 돌보셨다. 이렇게 團友들이 흥사단에 쏟은 誠心과 友정을 보면, "眞理는 반드시 따르는 자가 있고, 正義는 반드시 이루는 날이 있다"라고 하신 도산의 말씀을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된다.

1919년 3.1 운동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上海에 수립됨에 따라 島山은 국민회 특파사절로 미국을 떠나 4월 중순 경 中國 上海에 도착했다. 先親 김여제[金與濟, 호는 유암(流暗, 1895.5.29-1968.10.31 1993년 건국훈장 애족장추서]는 도산과 이때 만났다. 선친께서는 1918년 일본 와세다 대학 영문학과를 졸업한 후 황해도 재령 명신 학교에서 교무주임으로 있다가 3.1운동을 맞아 왜경에게 쫓기게 되었다. 雪川 張德秀 [1895-1947.12.2, 1928년 미국 콜롬비아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후 귀국 언론계에 종사]의 家兄인 張德俊 [1892.6.25-1920, 1963년 건국훈장 독립장 추서]씨가 200원을 주면서 멀리 도망가라고 해서 서울에서 한 달을 피신한 후 고향인 平北 정주를 살짝 들러 압록강을 건넜다. 上海에 도착해서 五川중학 은사이신 春園 李光洙 선생을 통해 臨政要人들에 소개되었다. 그때 그들에게 祖國은 모든 생활의 本源이며 억만대 후손의 企業이요, 선친의 生命인 동시에 영원한 사랑이었다.

<33면에 계속>







# 로즈데일 墓地

편집자주 : 미주한인이민 백주년을 맞이하여 미주한인이민 백주년 남가주 기념사업회와 애국선열 합동추모제 준비위원회가 공동 주최한 제 1회 애국선열 합동추모제 (The First Annual Memorial For Korean Pioneers)가 2002년 9월 20일(토) 오전 11시에 추석을 맞이하여 나성한인연합장로교회(1374 W. Jefferson Bl. Los Angeles, CA 90007)에서 추모제를 지내고, Angelus-Rosedale 공원묘지(1831 W. Washington Bl. Los Angeles, CA 90007)에 안장된 102명의 이민선조들을 추모하는 행사를 가졌다. 재미서울대동창회보는, 이 이민선조들은 조국의 조선 八道 각 계각층에서 미주 대륙에 건너와 개척자의 힘든 생활 속에서도 성공을 모아 조국광복운동에 기여하였고, 이제 미국 각지에서 번성하고 있는 이민 사회의 礎石이 되었으므로, 이분들의 기록을 이 추모제 준비위원회가 마련한 합동추모제 순서로부터 전제하여 미래의 미주한인사회 연구에 자료로 기록하고자 한다.

## 삼가 웃기를 의미며

백영중(제 1회 애국선열 합동추모제 총대회장)

오늘 우리는 민족의 5천년 역사 앞에 삼가 웃기를 의미하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너무나 죄스러워 차마 얼굴조차 들 수 없는 부끄러운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광복 반 세기가 넘도록 더없이 자랑스럽고 훌륭한 이민 선조들을 모른 척 방관만 했던 저희들입니다. 아니, 바로 눈앞에 그분들의 묘역을 두고도 눈길조차 한번 주지 않던 정말로 못나고 우둔한 후손들입니다. 그렇거나 매년 추석이 오고가고, 또 메모리얼 데이를 맞고 보내도 꽃 한송이 바칠 생각도 하지 못했던 불효막심한 후손들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그분들이 지나거나 먹으나 굶으나 그토록 목메이게 불렀던 대한 독립의 날, 그 8.15광복절이 수없이 오고 갔어도 대관절 누가 한번이라도 그분들의 묘역을 찾았더라 말입니까? 과연 누가 태극기 한 폭, 그 흔한 카니이션 한 송이 꽃아드렸더라 말입니까?

그러나 오늘 이렇게 늦게나마 추석을 맞아 우리 역사를 통해 처음으로 선조들의 피 끓던 애국혼과 높은 기상의 독립정신을 기리고자 합동추모제를 마련했사오니 너무 꾸짖질랑 말아 주십시오. 이제부터라도 매년 그분들의 고혼을 위로해 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라도 그분들의 업적과 삶의 내용들을 복원시켜 진정한 해외광복운동 역사를 다시 쓰겠습니다. 이제부터라도 흩어지고 끊어지고 묻혀져간 역사의 편린들을 되찾아내 망국의 그 긴 세월을 남의 땅 남의 하늘 아래에서 조국 광복의 염원 하나만으로 살다 가신 그분들의 이름 하나 하나를 높여 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민족과 조국광복의 이름 앞에 귀하디 귀한 목숨을 초개처럼 바치고 사라져간 그 숭한 유령무형 애국지사들의 이야기를 재정립해 나가겠습니다. 그러하오니 너무 아단일랑 치지 말아 주십시오.

오늘 2002년 9월 21일은 애국선열들을 위한 추모제인 동시에 살아있는 저희들에게 내년에 맞이 할 이민 100주년을 알리는 전야제가 됩니다. 민족의 역사를 일컬어 온고이지신(溫故而知新)이라고 말한다면 오늘 이 순간이야말로 어제와 내일을 잇는 민족 정신의 접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후손들에 대한 앞으로의 교육 백년대계는 선조들에 대한 올바른 예의와 인식에서 비롯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의 이 추모제는 LA의 로즈데일 묘지에 묻힌 분들을 위주로 호명되지만 모름지기 지역과 시간을 뛰어넘는 범역 사적 범동포적 행사의 성격을 갖습니다. 미주는 물론 만주와 시베리아, 또는 멕시코와 쿠바에 이르기까지 해외를 떠돌아 서러온 뼈를 그 edkd에 묻으신 모든 애국선열들을 향한 추모제이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오늘의 이 엄숙하고 역사적인 합동추모제를 위해 후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여러 기관 및 단체,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해주신 한미 파이아니어 협회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이에 개회인사를 대신합니다.

## 주춧돌들

-미주에 이름 없이 묻혀 계신 광복선열들 앞에서-

### 송순대

덜하고 가라진 채  
민족사랑 오랜 세월, 그 무게 견디셔서  
드러나지 않을수록 더 견고하게  
몸바쳐 조국의 기둥들 세우시다

-민족이여!  
-더 이상 무심해서는 아니 되는 민족이여!  
-나라의 오늘, 그 높은 이름들 아래  
-그 번영의 기반 다져 준 숨은 기초돌들 있었노니

오로지 조국의 광복과 번영을 위해서  
먼 외방, 낯선 타국에서부터  
미리 조국의 주춧돌로 몸 묻으셨으니  
안 보이게, 안보여서 더 튼튼하게  
오늘, 민족의 마음에 영원한 정신 되시다

## 한얼의 햇불을 높이 들며

### 정용진

조국이  
가시밭길을 걸으며  
넙도  
계척의 험한 길을 택하시고

1903년 1월 13일  
102명의 선조들이

민족의 한(恨)을 가슴에 안고  
하와이  
사탕수수밭에 땀을 내리시니

남들께서 이민자의 설움  
이민자의 고통  
이민자의 눈물을 뿌리시며  
아메리카 신대륙에  
뿌리를 내리실 때

"나는  
밥을 먹어도 대한의 독립  
잠을 자도 대한의 독립  
죽을 때까지 대한의 독립."  
우리 민족의 선각자

도산 안창호 선생의 말씀을  
민족의 경전처럼  
가슴 깊이 깊이  
아로새기시고

손 쥘려 오랜지를 따시고  
사탕수수밭에서  
흘리시던 피와 땀  
그 거친 손으로  
떨며 바치신 독립 자금으로  
저희들은 비로서  
조국 광복을 얻었나니

남들은  
민족의 얼이십니다  
민족의 힘이십니다  
민족의 뿌리십니다.

그 기쁨  
그 감격  
그 영광을  
이민 백년을 맞는  
오늘  
남들께 드리나니  
기뻐하옵소서.

우리모두는  
경천애인(敬天愛人)  
홍익인간(弘益人間)의 빛나는 후예들...

저희들이 남들의 뜻을 받들어  
젊은 대륙 황량한 벌판에  
믿음의 영토  
지식의 영토  
경제의 영토를 넓히며  
한민족의 힘을 기르겠습니다.

이제 갈라진 조국을 하나로 모아  
통일을 이룩하오리다  
축배의 넘치는 잔을  
남들께 바치오리다.

우리 모두는  
한얼의  
한얼의 꿈  
한얼의 열매  
승리의 노래를  
함차게 부르오리다.

## 愛國先烈 명단<102명>

◆ 강노천(No Chon Kang, -2000) ◆ 강영문(Young Moon Kang, 1888-1968) 한학자, 윌로우스 한인 비행사 양성소 간사, 흥사단 주석(단번 299), 1961년 국민회 대표회의 회장 수정위원, 원적/평남 ◆ 미세스 강 잔(-1958) 강영문 자부

◆ 강영복(Young Boke Kang, 1892-1965) 강영문 부인, 흥사단 단원(단번 309), 1960년 여자 애국단 단장 ◆ 강익두(1895.8.-1959.8) 델라노 지방회 집행위원장, 델라노에서 농사하다 나성으로 이주 ◆ 구정섭(-1964.5.20) 박충섭의 매형 ◆ 김관유(-1961.1.12) 1913년 클레어몬트 중학, 1918년 남가주대학 문학부 졸업, 1930년 '라성한인감리교회' 설립 발기인 ◆ 김대연(Dae Yon Kim, 1923.12.30-1966.4.15) 흥사단 단원 ◆ 김봉학(-1959) ◆ 김병국(Byung Kook Kim, 1877-1960) 1941년 국민회 몬타나 지방회 주석 ◆ 김봉주(Bong Choo Kim, 1892-1978) ◆ 김성하(Sung Ha Kim, 1872-1942) 1942년 라성한인경위대 참가, 경위대 사령관, 원적/경북 경주 ◆ 김성국(S. K. Kim, 1881-1950) ◆ 김성권(金聲權, Sung Kwon Kim, 1875-1960) 한학자, 독립유공자(2002년 건국포장, 애국장), 1905년 하와이 예외농장 내 '예외친모회' 조직, 1908년 하와이 한인 합성협회 대표(7명), 1914년 롬복에 일명 '是鏡學敎' 설립, 국민회 다뉴바 지방회장, 라성한인감리교회 설립 발기인, 흥사단 이사장(단번 91), 1943년 조선민족혁명당 미주지부 집행위원장 ◆ 김성실(Sung Sil Kim, 1903-1958) 김병국 부인, 라성한인장로교회, 흥사단 단원(단번 213) ◆ 김영덕(Young Turk Kim, 1879-1954) ◆ 김영선(Yong Sun Kim, 1922-1979) ◆ 김영희(1919-1948) 임준기의 둘째 사위, 2차대전 중군(대위) ◆ 김장연(1880-1943) 북가주주 스타트 과일농장 노동자, 북가주에서 이민업과 벼농사 농업, 라성한인감리교회, 원적/경기 남양군 ◆ 김정원(Jung Won Kim, 1923-1971) ◆ 김정환(-1955) 동지회 회원 ◆ 김종학(Chong Hak Kim, 1879-1961) 하와이 국민회 총회장(1914, 1915, 1959), 델라노 지방회 집행위원장(1941), 흥사단 단원(단번 285), 원적/경상도 ◆ 김주택(Choo Taik Kim, 1897-1947) 남가주 북가주에서 노동자 및 노동에 쫓겨, 원적/경남 부산 ◆ 김여수(Year Soo Kim, 1878-1956) 원적/명천군? ◆ 김윤환(Youn Whan Kim, 1881-1963) 동지회 회원, 원적/서울 종로 ◆ 김원리엄(-1923) ◆ 김중수(Choon Soo Kim, 1888-1958) 평양신학교, 고베신학교 졸업, 한국 전방 노회장, 부인 김사라 목사(사진신부), 1929년 라성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부임, 1939년 대한기독교회 담임, 1941년 기독교 가정교회 ◆ 김향(Hyang Kim, 1949) ◆ 김혜원(金蕙園, Sarah Kim, 1886-1982) 독립유공자(1995년 애국장), 김성권 부인, 1919년 8월 다뉴바에서 대한여자애국단 초대 총부장, 1941년 해외한족연립위원회의 집행부 위원 ◆ 남찬조(-1956) 남윌터 의사(M.D.)의 부인 ◆ 노재연(盧載淵, Chai Yurn Roh, 1882-1967) '在美韓人史略' 저술, 원적/서울 중부 수진동 ◆ 노하원, 동지회 회원 ◆ 마수사나(Susanna Lee Mar, 1877-1941) 마영준 부인, 이화학당 출신, 큰 사위 조종익(윌로스 항공학교 출신 및 OSS 요원) ◆ 마영준(Young Choon Mar) 1907년 공립협회 평의원, 1914년 샌프란시스코에서 김경보와 식당 동업, 1916년 맨티카에서 사탕수수 농장 경영 ◆ 마춘봉(1888-1948) 1909년 국민회 레드랜드 지방회 재무, 1920년 윌로우스 비행사 양성소 간사, 원적/경성, 흥사단 단원(단번 18) ◆ 문매리(Mary W. Moon, 1885-1985) ◆ 문정국

봉 - 1958) ◆ 문합스(Charles Moon, 1875-1952) ◆ 박구호(Ku Ho Park, 1875-1975) ◆ 박기열(Ki Yul Park, 1901-1982) ◆ 박도로서(Dorothy J. Park, 1933-1947) ◆ 박도로서(Dorothy Park, 1907-1957) 박영제 부인 ◆ 박도리스(Doris Kim Park, 1910-1990) 박영섭 부인 ◆ 박로즈(Rose Jane Park, 1928-1999) 박기열 딸 ◆ 박상순(1868-1946) 박충섭, 박영섭 어머니, 원적/전주 ◆ 박삼익(Sam E. Park, 1880-1945) 원적/경상도 하동군 ◆ 박승구(1895-1955) 원적/평남 증산 ◆ 박아더(Arthur K. Park, 1910-1976) ◆ 박영선(Young Sun Park, 1914-1974) 2차대전 중군 ◆ 박영섭(Young Sup Park, 1898-1962) 박충섭 동생, 사진 신부인 누나(구정섭 부인)와 같이 도미 라성한인장로교회 장로 ◆ 박영제(Young J. Park, 1890-1957) 사업가, 흥사단 단원(단번 114) ◆ 박영태, 동지회 회원 ◆ 박재순(Jaysoon Park, 1877-1958) 1909년 유타주 사탕수수 농장 노동자신인동지회 회원, 원적/서울 ◆ 박하나(Hannah Park, 1872-1952) ◆ 박충섭(Chong Sup Park, 1886-1957) 1910년 흥업주식회사 회계, 리버사이드 노동자신, 1940년 델라노 지방회 집행위원장 ◆ 박정경(Chung Kyung Park, 1896-1963) 박충섭 부인 ◆ 방사겸(方四謙, Samuel K. Bhang, 1881-1955) 1905년 남가주 파사데나 '대동교육회' 발기인, 1907년 '대동보국회' 발기인, 쿠바 등지로 인상장사, 원적/평양 ◆ 방살로메(Salome Bhang, 1896-1987) 1916년 북한도 용정에서 사진 신부로 도미, 원적/함남 원산 ◆ 백광도(Kuang Do Paik, 1880-1969) 북. 중. 남가주에서 농사를 하던 백신구 전도사의 부인, 원적/평남 양구 ◆ 백낙희(白樂喜, Lark Hei Paik, 1891-1967) 백일규 부인, 김성무(1908년 시베리아, 북만주 공립협회 지회 설립)동생, 도미 전 해상위에서 독립활동, 원적/평남 강동군 ◆ 백명선(Meung Sun Paik, 1897-1982) 백신구의 장남 ◆ 백아더(Arthur K. Paik, 1910-1976) 백신구의 4남 ◆ 백영선(Young Sun Paik, 1914-1974) 백신구의 6남, 2차대전 중군, 뉴기니 전선 운전병, \* 백신구의 7아들 가운데 5명이 2차대전 중군 ◆ 백일규(白一圭, Earl Ku Paik, 1883-1962) 독립유공자(1997년 독립장), 東學당 백백교 수령, 경제학자, 1907년 대동보국회 설립 발기인, '大同公報' 주필, 1913년 네브라스카 헤이스팅스 중학 졸업, 남가주 대학 경제학과 졸업, '신한민보' 주필, '韓國經濟史' 저술, 1943년 '독립'신문 주필, 1946년 하와이 '국민보' 주필, 국민회 총회장(1926-1935), 1959년 중경총회장, 원적/평남, 흥사단 단원(단번 52) ◆ 서기춘, 동지회 회원 ◆ 서영애(-1954) 장남 이현리, 딸 김애나, 사위 김영택 ◆ 서일용(-1958) 오매리의 아들(정년) ◆ 선우 현(Samuel Sunsoo, 1892-1958) ◆ 석중화(-1948) 유타 병행에서 노동 ◆ 선우 로사(Rosa Sunoo, 1896-1994) 선우현 부인 ◆ 손길범(-1961) 송덕인 아들 ◆ 손덕인(Duk Yin Shon, 1876-1961) 독립유공자(1997년 독립포장), 하와이 교민단 총단장(1929-1931) ◆ 손마리아(Maria Lee Shon, 1874-1963) 손덕인 부인



<34면 로즈데일 묘지 애국선열 명단 계속>

◆ 손양선(Yang Sun Shon, 1880-1965) 1913년 아일랜드에 사진관 개업, 1914년 북미실업주식회사 발기인, 1942년 다뉴바에서 3백 에이커 상추농장 ◆ 손데이빗(David Shon, 1922-1944) ◆ 손창희(- 1956) ◆ 손허버트(Herbert Shon, 1910-1961) ◆ 송덕경(1879-1959) 송성근 어머니 ◆ 송앨리스(Alice P. Song, 1908-1953) 송성근의 부인, 라성한인장로교회 교인 ◆ 송재운(Chai Won Song, 1878-1958) 평생 광복사업, 원적/ 평남 증산 ◆ 송위리(宋偉里, Willie Song, 1924-2002) 송중익의 아들, 존 홉킨스대학 인류학 전공, 유럽 유학, 1938년 귀국, 상해 제 3 지하공작대로 활약, 광복후 주미대사관 초대 공보관, 영화계 투신, 영화 번역회사 설립, 흥사단 단원(단번 322) ◆ 송중의(宋鐘翊, 1882-1956) 독립유공자(1995년 독립장)/ 대구 국민묘지 이사장, 1913년 흥사단 발기인(단번 20), 대한인 국민회 재무, 독립운동가, 임시정부 자금 조달에 힘씀, 흥사단 이사장, 광복후 재경 위원, 원적/ 경북 대구 ◆ 송헌주(宋憲澍, Hurn Joo Song, 1880-1965) 독립유공자(1995년 독립장), 국민회 총회장(1939, 1944), 유학생, 프린스턴 대학 문학부 졸업, 하와이 호놀룰루 예배당 전도사, 국민회 레들랜드 지방회장, 구미위원회 위원, 재미한족연합회 집행위원(국방과장), 1937년 국민회 회관 건립위원장 ◆ 송매리(Mary Song, 1890-1974) 송헌주 부인 ◆ 신점록(Chum Lik Shin, 1866-1947) 새크라멘토에서 합수 농장 경영, 원적/ 경북 선산군 ◆ 신형호, 동지회 회원 ◆ 안경호(- 1956.6.13) 동지회 회원 ◆ 안메리(- 1958.11.4) 동지회 회원 ◆ 안석중(安奭中, Suk Choong Ahn, 1862-1948) 1905년 공립협회와 1909년 국민회 창립 발기인, 1908년 미주한인공립협

회 대표(6명), 1910년 흥업주식회사 사장, 1942년 한인경위대 참가, 라성한인연합감리교회, 원적/ 경성 ◆ 안중순(1887-1946) 1914년 하와이 국민회 총회관 건축, 라성한인경위대에 참가, 원적/ 함남 원산 ◆ 오대도(Daniel D. Orr, 1880-1952) ◆ 오태선(Tai Sun Oh, 1875-1952) 동지회 회원 ◆ 유성균(1884-1960) 아나하임에서 농장 경영 ◆ 유시열(劉蔣烈, Sam Lyoo, 1891-1972) 원적/ 함남 북청 ◆ 유애련(Aiyun Lyoo, 1881-1968) 유성균의 부인, 멕시코 이민 1세 ◆ 윤경학(Kyung Hak Yoon, 1886-1968) 1908년 새크라멘토 공립(협회)관 사무원, 원적/ 평북 ◆ 윤에그네스(- 1964) 윤병구 목사 부인 ◆ 이근술(K. S. Lee, 1883-1951) ◆ 이금숙(Kum Sook Lee, 1896-1982) ◆ 이기준(- 1942) 리들리 장로교회, 델라노 감리교회, 다뉴바 장로교회 목사 ◆ 이○○(Lee Kim Yee) ◆ 이석원(Suk Won Lee, 1885-1971) ◆ 이성구(Sung Koo Lee, 1875-1956) ◆ 이성래(Sung Nay lee, 1884-1963) 이 암 부인, 대한여자 애국단 총단장, 해외한족연합위원회 대한여자애국단 대표, 원적/ 평남 강서 ◆ 이순기(李舜基, 1882-1943) 옥시덴탈 칼리지, 버클리, 스탠포드 수학, 1909년 국민회 라성 지방회 회장, 1911년 국민회 북미 중앙총회 외교원, 1917년 국민회 다뉴바 지방회장, 이승만을 후원 '노동계진당'발족(1919), 동지회 북미총회 창립회원, 금메달리스트 수영선수 샘 리 아버지 ◆ 이 암(Albert Lee, 1884-1968) 대한인 국민회 라성지방회 집행위원장, 흥사단 이사장(단번 76), 1946년 한인구제회 감사원, 원적/ 평남 강서군 ◆ 이애나(Anna Lee marr, 1905-1932) 라성한인장로교회 교인 ◆ 이영근(Young Kun Lee, 1881-1959) 동지회 회원 ◆ 이영기(Yong Ki Lee, 1876-1966) 국민회 푸에블로 지방회 창립회원, 원적/ 경기도 안성 오촌리 ◆ 이옥형(- 1970) 국민회 새

크라멘토 지방회장 및 집행위원장, 원적/ 평북 정주 ◆ 이운선(1874-1959) ◆ 이원규(George Lee, 1916-1944) 대위, 이영기의 장자, 남가주대학 의대 졸업, 미공군 항공학교 교사, 1944년 8월 전투기 조종사로 독일전선에서 전사, 1948년 8월 7일 '영웅유골 안장' 행사 ◆ 이정순(Chung Soon Yi, 1899-1988) 호시한 부인 ◆ 이진섭(1873-1951) 국민회 델라노 지방회 선전위원, 1920년 윌로우스 비행사 양성소 간사 ◆ 이창식(李昌植, Chang Sik Lee, 1885-1965) 원적/ 충남 당진 ◆ 이춘화(李春華, Choon Wha Lee, 1875-1974) 동지회 회원, 유니버설 스튜디오에서 배우생활, 퇴직후 동지회관에 유숙했고, 원적/ 함남 원산 ◆ 이향애(Anna Lee, 1879-1953) ◆ 임광명(Kwang Myung Lim, 1880-1969) 임준기 부인, 1919년 윌로우스 지방 부인회 대표 ◆ 임달순(1886-1967) 농업 ◆ 임성실(Sung Sil Lim, 1883-1947) 1919년 다뉴바 지방 신한부인회 대표 ◆ 임성택(Sung Taik Lim, 1872-1968) 1909년 다뉴바에서 포도밭 노동주선 ◆ 임인재(In Jai Lim, 1895-1971) 임치호 부인, 라성한인장로교회 여성 장로, 국민회 중앙상무부 재무, 흥사단 단원(단번 282) ◆ 임준기(Choon Ki Lim, 1881-1954) 1907년 공립협회 회계, 공립협회 라성관 간사, 1907년 안창호 이강과 함께 '신고려회'조직, 라성한인장로교회 초창기 설립자, 1914년 '북미실업주식회사' 발기인, 흥사단 단원 ◆ 임치호(林致昊, Chi Ho Lim, 1879-1951) 1908년 중가주 프레노에 '연합공립관' 설립 발기인, 1914년 새크라멘토 농장 노동주선, 1916년 네바다 주 노건에서 참의 농사, 1920년 윌로우스 한인 비행사 양성소 간사, 흥사단 단원(단번 281) ◆ 임해리(Harry K. Lim, 1878-1948) ◆ 장도담(Dotham Joe Chang, 1896-1966) 장인명 부인 ◆ 장인명(Yeen Myung Chang, 1886-

1963) 치과의사, 동지회 회원 ◆ 장일만(William I. Chang, 1920-1943) 미육군 비행대 폭격기 포수로 유럽상공에서 행방불명, 한인 2세 중군으로 최초의 비극 ◆ 전락준(- 1956) 전경부의 부친 ◆ 전성용(1872-1942) ◆ 전인호(Yin Ho Chun, 1909-1947) ◆ 전진(1879-1953) 전 생애를 살신성인으로 동지회에 헌신, 해방 후 동지회관에 유숙하며 조국에 구호품 보내는 일로 분골쇄신, 원적/ 평안도 ◆ 정로버트(Robert Chung, -1959) 정년영, 해경 부부의 차남 ◆ 정수영(1889-1942) ◆ 정인규(In Kyu Chung, 1877-1947) ◆ 정혜경(Emma Chung, 1902-1947) 1916년 사진신부로서 도미, 샌타이스에서 식품점 경영하던 정년영의 부인, 1960년 대한여자에 국단 서기 ◆ 조종익(Harry Chongik, 1897-1960) 1918년 시카고 지방회 창립회원, 1920년 북가주 윌로우스 지방 한인 유학생회 발기인, 윌로우스 한인 비행사 양성소 학생, 1937년 '거북선'선박제조, 태평양 항해, OSS(2차대전시 미육군전략처) 대원, 원적/ 서울 ◆ 조조세(Josephine Cho, 1896-1959) 조종익의 부인, 마영준의 딸 ◆ 조○○(Iwao Cho, 1889-1978) ◆ 조메리(Mary Y. Cho, 1901-1965) ◆ 최덕규(崔德奎, Durk Kyu Choy, 1871-1955) 1917년 국민회 리버사이드 지방회 총무, 동지회 회원, 원적/ 강원도 삼척 소들면 무군동 ◆ 차상달(Sang Dal Cha, 1905-1992) 연희전문 졸업, 조국통일 민주회복 남가주 위원장, 흥사단 단원(단번 254) ◆ 차엘리스(Alice Cha, 1908-1953) 차상달 부인, 이 암의 딸, 라성한인장로교회 집사 ◆ 최만실(Man Sil Song, 1888-1984) 송재운 부인 ◆ 최성수(1868-1946) ◆ 최진하(崔鎭河, Chin Ha Choy, 1890-1967) 독립유공자(1995년 애족장), 평양 光成학교 졸업, 전주 新興학교 교편, 1916년 유학생으로 도미, 이듬해 국민회 총무, 국민회 총회장(1921, 1923,

1924, 1935), 신한민보 주필, 원적/ 평양, 흥사단 단원(단번 73) ◆ 최춘흥(Choon Heung Choy, 1884-1957) ◆ 한근수(Edward G. S. Hahn, 1905-1967) ◆ 한백선(- 1961) ◆ 한성선(Sung Sun, 1862-1950) 한시대 어머니, 이화학당 출신 ◆ 한숙경(Sook Kyung Han, 1874-1962) 한재명 부인 ◆ 한재명(Jai Myung Han) ◆ 한시대(韓始大, Si Dai Hahn, 1888-1981) 독립유공자(1995년 독립장), 국민회 총회관 건축위원, 1940년 대한인 국민회 중앙집행위원장, 흥사단 이사장(단번 179), 한형제 상회, 한가기업회사 대표, 해외한족연합위원회 집행위원, 주미외교위원 부 부위원장, 1946년 재경 대표단 정치부 위원, 1959년 중경총회장 ◆ 한영대(1896-1954) 내과, X-선과 의사, 한시대 ehd-todd, 원적/ 황해도 해주 ◆ 한(박)영숙(Louisa Hahn, 1892-1965) 한시대 부인, 흥사단 단원(단번 296) ◆ 함리처드(Richard Halm, -1964) 2세 클럽(AKCO)에서 헌신 ◆ 호로라(Laura Ho, 1919-1971) ◆ 호시한(Si Han Ho, 1885-1956) 1909 네브라스카 인근 소학교 졸업, 네브라스카 관립 농업학교 졸업, 나성에서 여관업 ◆ 홍관운(Quan Yoon Hong, -1954) ◆ 홍 언(洪 焉, 1881-1951) 독립유공자(1995년 독립장)/ 대구 국민묘지로 이장, 1906년 하와이에서 자강회 조직, 自強新報 合成新報 주필, 1908년 新韓國報 주필, 1911년 신한민보 주필, 1913년 흥사단 창단 멤버(단번 7번)로서 흥사단 경기도 대표, 국민회 중앙총회 華僑위원, 1940년 28년만에 다시 신한민보 주필로 돌아옴, 40년 동안 동해부수, 추신, 리차드 홍 등의 필명으로 술한 글을 썼으며 '미스터 국민회'로 불리움, 본명/ 洪宗杓, 원적/ 서울 ◆ 홍○○(S.H. Hong, 1934-1979) ◆ 황리처드

한국 新文學史 重要 逸失작품 美國에서 출현 世界의 처음/ 萬萬波波息笛을 울음

[편집자주: 아래의 두 개의 시는 한국 신문학사의 중요한 逸失 작품으로 알려져 있다가, 최근 미연방의회 도서관에서 발견된 것으로 서울에서 발간되는 근학 文學思想 7월호 217면에서 34면에 소개된 김여제의 '세계의 처음'과 '萬萬波波息笛을 울음'이다.]

이 작품은 원래 日帝때의 東京 한국유학생 기관지, 學之光 8호(1915년 말부터 16년 초 출간으로 추정됨)와 11호(1916년 말부터 17년 3월사이 출간으로 추정)에 수록되었으나 발간 직후 日警에 의하여 압수되어 逸失된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이 작품의 역사적 의의는 한국 근대自由詩의 선구자로 불렸던 朱耀翰 [1900.10.14-1979, 1919년 <창조> 1호에 발표한 시 <불놀이>의 저자]이 흔히 崔南善 [1890.4.26-1957.10.10] 의 <해에게서 소년에게, 1908년 <소년> 지 창간호 권두에 실림>를 한국 新體詩의 효시라는 通說과는 달리, 朝鮮 文壇 1호(1924년 10월)에 '동경유학생 기관지 학자공의 유암 김여제군이 신시의 첫작자'라고 규정하는데에서 비롯한다. 이 두 작품은 최근 일본 와세다대학 강사인 國文學 연구자 심원섭씨가 와세다대학의 오무라 마소오(大村益夫) 교수로부터 동대학의 호테이 토시히(布袋敏博)로 교수가 미국에 도서관에서 발간한 것을 입수하여 신간 문학사상 7월호에 '수수께 끼여 쌓였던 환상의 시 유암 김여제의 <만만파파시적>과 <세계의 처음> 90여 년 만에 햇빛'이라는 기고문을 게재하였다. 이 시의 원작자 流岩 金興濟(1985년 음력 5월 29일-1968년 10월 31일)는 建國勳章 愛族章을 追授받은 독립유공자이다(재미서울대동창회보 102호의 6면에서 7면 참조). 이 작품의 발굴의에 대하여 권영민교수(문학평론가, 서울대교수)는 '초창기 근대시 역사의 공백 메워졌다.'라고 말하였다. 아래 두 시의 原文은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심원섭씨의 기고문의 註解에 따라 부분적으로 현대어구로 바꾸었다.]

I. 世界의 처음

砲彈이 난다  
鎗劍이 번득인다  
못해  
바다에  
하늘에  
들집 새며느리  
바람에

하늘빛에 놀랄 때  
갓붉은 生命이  
노래에  
謎의 나라에 困하여 잘때  
肉이 난다  
똥이 된다  
못해

바다에  
하늘에  
異國의 좁음이  
魔酒에,  
歡樂에 꿈꿀 때  
뜨거운 性의 誘惑이  
忘却에,  
聯誼에 새 寢殿을 지을때

咄呢의 때  
無智의 무리!  
어디 어디 눈물의 무렵이 남았는가!  
어디 어디를  
저, 저 數萬의 魂은 해매는가!  
아아 다시 烽火가 올랐도다  
또 다시 笳소리 가 들리도다  
못해,  
바다에,  
하늘에,

그러나,  
머지않아, 우리들의 눈이 다 빛나  
우리들이 가지이 머물너서  
다 各各 나에게, 가만히  
'내가 무엇을 하니가 물을 일이다  
그때 그때야말로 참 偉우집이  
우리들의 가슴을 찌줄이다  
아니, 아니 벌써, 벌써,  
저, 저 하늘가에 은별이 번득이오,  
아니, 아니 벌써, 벌써,  
저, 저 따따해 붉은 煙氣가 울오오

아아 얼마나 우리들이 오래 그대의,  
얼굴을 그렸든가!  
아아 얼마나 오래 우리들이,  
새 洗禮를 바랐든가!  
오직이뿐!  
神의 사랑 全의 사랑

II. 萬萬波波息笛을 울음

그대의 적은 韻律이  
萬의 가슴을 흔들든 저날,  
가지이 그대의 발 아래에 얽드려  
恍惚 檀櫛의 눈물을 흘니든 저 무리  
아아 어디 어디  
저 數萬의 魂은 아득하다  
어디 어디  
다 떨어진 磳絡이나마 남았는고  
때 아닌 서리,  
無道한 하늘,  
모든 것은 다 날아가서 사라졌다!  
아아 萬萬波波息笛.

情靨의 이는 불,  
뛰노는 물결,  
矛盾 撞着 葛藤에 찬 이가슴,  
아아 어디 어디  
調和의 새생이 솟든고!  
어디 어디  
뮤즈(Muse)의 단 췌이 흐르는고!  
永遠의 渴望,  
萬劫의 싸인 煩熱,  
丈夫의 肝腸이 다 녹는도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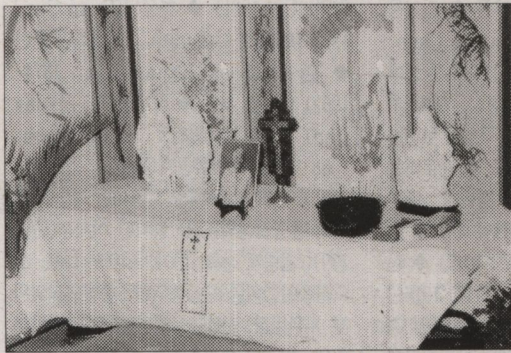
아아 萬萬波波息笛!

뱀(Serpent)의 知慧.  
深林에 기른 氣概.  
그러나 다 무엇이리!  
限없는 沙漠이  
浩瀚한 大海와  
압길을 막을 때,  
꽃은 떨도다  
아아 어디 어디  
오-아시스(Oasis)가 푸르르고  
어디 어디  
베드로(St. Peter)의 하나님께서 계시고  
白骨 한애  
그남아 어느흠에 못질는지!!  
아아 萬萬波波息笛

때의 斧鉞  
[때가 인간에게 내리는 죽음]  
運命의 손,  
머지않아 最後의記憶까지도 다 물리리!  
-깊히 깊이 忘却의 가운데  
그리하여 모든 努力,  
모든 榮光,  
모든 希望은  
다 空虛로 돌아가리!  
千古의 遺恨  
咄呢의 때,  
눈물가진者 그누구나?  
아아 萬萬波波息笛.



# 어머님의 遺言



LOVE YOUR GOD AND NEIGHBORS

1. 첫째로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은 마땅히 하나님을 믿고 공경하고 信仰생활을 하여야 한다. 사람은 아무 능력이 없으니 언제나 무슨 일든지 全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무엇든지 하나님께 구하고 빌어야 한다. 다음은 너희들 사랑하는 처자식 가족들이니 언제나 너희 처자식들을 귀중하게 알고 아끼고 사랑하며 화목하게 두 부부가 평생같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란다. 두 부부가 서로 참고 보배 위 할 것을 노력해야 한다.

2. 그 다음은 형제들 간이니 무슨 일이 있더라도 이해하고 용서

하고 어려운 일을 당 할 때에는 협조해주고 도와주고 형제간에 의리 좋게 살기를 부탁하고 바란다.

3. 다음에는 친척들이 언제나 형제들 다음으로 가깝게 하고 찾아도 다니고 그 중에 더 어렵게 사는 친척이 있으면 더욱 더 관심을 가져주고 도와주고 사이 좋게 살아 주기를 바란다.

4. 남들을 대할 때에는 언제나 말과 행동을 조심하고 겸손한 태도를 하며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없어서 냉대 받은 불쌍한 사람들에게는 따뜻한 말과 행실로 도와주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살

기를 원한다. 우리들 인생은 이 세상을 잠깐 지나가는 나그네, 하루 아침이슬과 같이 사라지는 허무하기 짝이 없는 우리네 인생,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항상 노력은 하되 돈이 인생의 전부라고는 생각하지 말고 바른 말과 옳은 행실로 사는 의리를 첫째로 알고 잠깐 지나가는 이 세상을 착하고 어질게 살기를 바란다. 돈은 한 푼의 돈이라도 필요 없는 허영이나 주색 그리고 빛깔 없는 어두운 곳에는 절대 낭비 말고, 밝고 보람있게 [사용하여] 불쌍한 사람들 도와주고 공부하고 싶어도 못하는 불쌍한 학생들 도와주고 등록금을 대주어 못하게 되는 공부를 계속하게 해주면 얼마나 좋은 일이나? 너희들이 내 뜻을 따라준다면 얼마나 고마울지 모르겠다. 이러한 일을 할 때에는 친척들에게서 누가 하고 싶은 공부를 못하게 되는가 알아봐서 먼저 도와주고 다음에 남들을 도와주는 것이 현명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여기 함께 동봉해 둔 신문 쪽지는 1977년도 3월 8일자 신문에 나의 소망과 비슷한 기사가 써 있기에 자식들에게 참고로 보라고 모은 것이다.

내가 걸어온 내 인생은 너무도 해 놓은 일이 없고 내 놓을 것이 없었다. 그러나 그것이 모두 내 능력 내 힘 전부였었다. 내 지금 이것은 자식들이 준 것을 아끼고 절약해서 모은 돈이다. 나의 일상 생활은 겨우 먹고 겨우 사는 것이 나의 즐거움이었다. 해마다 엄동설한이면 옷, 내복 등 시장에서 사 보따리에 쌀아 무슨 장사하는 사람처럼 손에 들고 서울 변두리 아니 가본 데는 별로 없이 빈민촌으로 돌아다니며 떨고 굶주리고 잇는 불쌍한 사람들에게 쌀, 연탄, 내복 등을 주며 돌아다닐 때 내 발은 푹푹 얼었지만 내 발걸음은 한없이 가벼웠고 흐뭇하기 짝이 없는 나의 즐거운 나이였었다. 나 죽은 후에라도 내 자식들이 이러한 일을 계속해 주면 고맙겠다. 나 죽은 당시 장례비는 우선 어머니 기금에서 쓰고 너희들이 다시 마련하기 바란다. 너희들이 의논해서 얼마씩 출자하여 어머니와 합자하여 한옥지 장학회를 만들어서 너희들 평생 끝까지 이러한 일을 계속해주면 하는 것이 어머니의 소원이다.

인생은 누구나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초로와 같은 허무한 인생이니 조그만 한 일이라도 남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고 가면 이 세상에 왔다가는 보람이 아닌가 생각한다.

나 몸을 장지는 우수영 선산으로 하고 내 제사는 큰아들 춘대에 게 부탁한다. 내 연미사는 나 운명 즉시 신부님에게 곧 미사 부탁하고 장사지낸 후 즉시 또 연미사 부탁한다. 나 죽은 후 일년까지는 매월 나 죽은 날 연미사를 부탁한다. 매년 내 제사 때는 미리 예물을 바치고 미사를 꼭 명심해서 드려오. 매년 11월 2일은 성교당에서 합동 미사가 있으니 잊지 말기를 바란다. 내 미사 예물은 자주 드리는 일은 어려울 것이니 내 기금에서 드리도록 해라. 내 본명은 한안나, 아버지 본명은 이 배드로이니 언제나 내 미사 드릴 때는 아버지와 함께 드려 주기 바란다. 내 자식들에게 제일 부탁하고 싶은 중요한 일은 내 미사다.

내 遺言은 장사시 형제들 앞에서 큰 아들 춘대가 읽어주기 바란다.

1977년 9월 10일  
어머니 유언 한옥지

## <어머님을 주님 품안으로 인도하면서>

이재신 (공대 57년 입, 뉴잉글랜드 동창회 회장)

주여! 영광과 찬미를 받으소서.  
주님, 어머님이 이 세상을 떠나셨어요. 아시지요?  
우리 자식들은 어머님의 臨終을 지켜보면서 어머님께서 아름다운 聖歌 속에 자식들의 환송을 받으시고 천사들의 보호를 받으시며 주님의 부르심에 응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96년간 함께 했던 肉身 어머님께서 떠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 저는 평생 처음 한 인간의 임종의 순간을 목격했습니다. 운명 직전까지도 오래 못 본 자식들이 찾아온다고 주님께 조금만 늦게 가게 해달라던 어머니, 주님의 신비스런 섭리, 인생의 운명의 철학적인 가치 부여를 아니 굳은 신앙과 주님의 실존을 우리 자식들에게 깊이 심어주셨습니다. 주님께 찬미와 영광을 드립니다.

어머니, 미국에 오신 수년 동안 말씀이 적으시고 우리들을 주시하시고 기도와 사랑을 아끼시지 않으시더니 그만 이 세상을 떠나셨네요. 어머니께서 말이 없으셔도 살아 계셨을 때 마음이 든든하더니만 막상 어머님이 주님의 곁으로 가시고 나니 기쁜 마음 저쪽엔 공허와 슬픔이 앞을 가립니다. 어머니, 인제는 불러봐도 대답이 없으시고 만져보고 어린양을 부릴 수도 없고 때를 쓰고 졸라 볼 수도

없네요. 어머니, 옛말에 부모효도 살아 생전이라고 하더니만 벌써 때를 놓였습니다.

어머니, 어머니께서 이 세상을 떠나신 날은 예수님 부활주일 전야 8시 47분이었어요. 이 세상에서는 이 성 삼주간 臨終은 천국직행이라고 합니다.

축하합니다. 어머니, 우리 가족들은 부활 주일에 연 미사를 드리고 밤에 연도를 끝내고 손님들이 가신 다음 어머님 유언을 함께 읽었어요. 손자 손녀들은 영어로 번역해서 듣게 했어요. 그 훌륭하셨던 인생, 18세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만나 사랑을 듬뿍 받으셨고 우리 칠 남매를 사랑과 정성과 봉사로 기르셨고 일찍이 하나님을, 아아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셨던 어머니였어요.

배고픈 사람들을 찾아다니시며 빵을 주시고, 헐벗고 없는 자들을 집에 데려와 대접하시고도 남들로부터 심지어 남편, 자식들로부터 칭찬은커녕 핀잔을 받으시고도 묵묵하시던 어머니, 주님 대전에 재물을 바칠 때는 항상 은행의 새 돈으로 준비하시던 어머니, 몇푼 안 되는 용돈을 자식들이 드리면 당신 자신에겐 그저 연명에만 쓰시고 꽃동네, 수녀원, 그리고 자식들에게서 푸대접받는 들에게 사랑을 베푸시던 어머니, 자식들이 어

머니 쓰신 내용을 알고 용돈을 안 드리면 식은 밥과 냉수로 보내시던 어머니, 못 살고 힘들어하는 친척들만 찾아다니시던 어머니, 우리들의 눈에 선합니다. 어머님께서서는 언제나 부자들을 멀리하시고 교만하고 방탕한 자들을 미워하셨 습니다.

인생을 너무나도 훌륭하게 끝내시고 우리의 주님께로 가신 어머님, 어머님께서서는 인생을 주님의 마음과 눈을 가지고 사셨습니다.

돌아켜보니 어머니, 어머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들이 너무 많 습니다. 죄송합니다. 용서를 빕니다. 어머니 이 중심을 잃은 자식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어머니, 어머님의 遺言을 받아 "한옥지 만나 기금"을 마련하고 遺言대로 주님을 欽崇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형제간에 友愛있게 지내 겠습니다. 그리고 부탁하신 연 미사와 葬地 등의 말씀 잘 이행하겠습니다. 한옥지 만나 기금 위원회는 손자 손녀들에게 넘기고 우리 자식들은 고문으로 도와주려고 합니다.

어머니, 그런데 7살 때 죽은 제 동생 재상은 만나셨는지요? 잘 있었지요. 기쁘시겠습니다. 어머니, 큰아들 춘대형은 장사에 못 오셨어요. 아프세요. 서울 형님 집에 빈소를 차리셨다니 가 보세요. 많은 친척들이 오셨답니다. 오늘은 중손인 중궁이와 중손이가 서울서 왔답니다. 한국에서, Boston, Los Angels, New York,

Washington D.C. 그리고 Austin에서 까지 손자 손녀들이 모였답니다. 참 감사하지요.  
어머님 밤새워 얘기하고 나니 시간 간질 몰랐네요. 이제 그만 쓰

겠습니다.  
주님! 우리 어머님 안나를 당신 품에 맡깁니다.  
2003년 4월 22일 새벽에  
넷째 아들 재신 요섭 드림

## 訃告 한혜경 (Alice Kim, 1910년 9월 17일 ~ 2003년 3월 13일) 동문 別世

### 社會奉仕활동의 一生



한혜경(Alice Kim)선배님(1945년 경성의대 부속병원 조산과 졸)께서 지난 3월 13일 오후 8시 워싱턴 DC 근교에서 별세하셨습니다. 한선배님은 경기도 가평에서 부친 한명리씨와 모친 송진전여사의 슬하에서 5녀로 출생하여, 이화여전을 1933년 졸업하고, 김성덕 전도사와 1937년에 결혼하고 1938년 서울감리교 신학교를 수료한 후, 만주와 강원도 통천 해금강에서 유치원 봉사를 하였고 1941년 12월 8일 日帝의 진주만 폭격일에 남편이 渡美留學중이라는 이유로 강원도 통천경찰서에 무고히 구금되었다가 1942년 3월 16일 석방된 후에도 서울향리원 고아원에서 봉사활동을 하였고, 1945년 경성제대 부속병원 조산과를 졸업하였고, 1948년 도미하여 LA에 정착하였다. 당시 미국의 소리방송(Voice of America)에 근무하던 남편 김성덕목사를 따라 뉴욕과 워싱턴 DC로 이주하여 사시는 동안 한국어 강사로서 1960년부터 1974년까지 Berlitz 외국어학교, 미육군 정보학교와 미기독교 선교기관에서 한국어를 미국인들에게 가르쳤고, 1972년에는 가정법률 상담소 이사를 역임하였다. 또한 1987년에는 노인 상록대학에서 8년간 영어강사를 지낸 공적과 더불어 YMCA 숲은 봉사상을 수상하였다. 또한 한동문은 마주내에서 한국어를 창달하는데 공헌한 문학활동에도 힘을 기울여 문학동인지 발간에 주력하여 1991년에는 "워싱턴 뜨기" 1993년에는 "워싱턴에 뿌린 씨앗" 1998년에는 "워싱턴 무궁화"를 공동 발간하기도 하였다. 또한, 동창회의 활동에도 열심히 참여해서서 간호대학의 대선배님으로서 후배들에게 훌륭하신 모범이 되셨습니다. 여기에 동문들께 한선배님의 召天을 알립니다.

버지니아에서 孟玉珪(간호대 72년 졸) 드림



# 나노(Nano) 技術의 概觀

崔雄昭 (공대 64졸, Ph. D. 알곤연구소 연구원)

## < I > 현대산업과 나노技術

사람은 三次元의 관계를 가진 관계적 존재로서 위로는 創造主 하나님과 옆으로는 다른 사람들과 아래로는 自然과 관계하며 산다. 自然이 지극히 작은 나노 스케일(nanoscale)에서 어떻게 작동하는가에 대한 근본적 이해를 기반으로 하는 나노기술은 인간과 자연세계와의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과학연구의 最後前線인 동시에, 사회와 경제의 大變혁을 가져왔던 18세기 英國의 산업혁명처럼 21세기의 새로운 산업혁명을 가져올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나노기술(NI)은 情報技術(IT)과 生命技術(BI)와 더불어 21세기의 가장 핵심적인 기술분야로 인식되고 있다. 풀러린(fullerenes)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炭素나노물질을 발견하여 노벨상을 받은 Richard E. Smalley박사에 의하면 나노기술이 原子까지 정확하게 조절해서 물건을 만드는 궁극적 수준에 도달하면 우리의 생활을 크게 변혁시킬 가능성이 있다. 또한 나노기술은 컴퓨터나 인터넷보다 더 큰 충격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나노기술이 발달하면 현존하는 과학 기술의 기반을 근본적으로 바꿀 뿐 아니라 혁신적 기술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재료, 제조, 전자, 의료, 보건, 환경, 에너지, 화학, 생명기술, 농업, 정보, 수송, 국가안정 등 많은 분야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 < II > 나노기술이란 ?

나노기술이란 말은 機械 가공시에 마이크로보다 더 작은 허용도를 나타내기 위해 Norio Taniguchi에 의해 처음 쓰여졌다. 1나노미터는 십 억분의 1미터인데 가장 가벼운 원소인 수소원자 10개의 길이 또는 우리가 매일 마시는 물 분자 하나의 크기가 1나노미터이다. 나노기술은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고 보통 현미경으로도 보이지 않는 작고도 작은 원자나 분자에서 출발하여, 나노構造를 가진 재료나 장치나 나노機械(nanostructured materials and devices, nanomachines)를 만드는 이른바 下部 구조로부터 上部 구조를 바꾸는(bottom-up) 기술이다. 예를 들면, 큰 트랜지스터를 점점 작게 만드는(top-down) 기술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 때문에 나노기술은 많은 사람들에게 매력적이다. 이제는 제품을 작게 만드는 기술자들이 인정받는 시대이며 작은 것이 아름답다("Small is Beautiful" 또는 "Small is Great")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된다.

왜 이렇게 작은 스케일에서 재료를 만드는가? 재료 또는 장치의 크기가 위기의 수준(critical length scale)이하로 내려가면 物質의 특성과 역동성(material properties and dynamics)이 변한다. 때로는 현제이론으로 설명할 수 없는 특성을 나타낸다. 그러므로 1나지 100나노미터의 크기를 가진 입자나 얇은 막(particles or layers)으로 구성되어 있는 나노재료는 일반재료 또는 마이크

로구조를 가진 재료(bulk or rostructured materials)와는 다른 특성이나 현상을 나타낸다. 예를 들면, 나노입자를 액체에 넣으면 나노입자의 크기에 따라 색깔이 변하지만 똑같은 재료로 만들어진 큰입자를 넣으면 그런 현상은 나타나지 않는다. 또 다른 예로는 나노입자를 液體에 넣으면 熱傳導성이 예상외로 증가하는데 큰 粒子를 넣으면 별로 효과가 없다.

그러므로 나노기술에서는 粒子의 크기를 조절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사실 수 천 년 전 中國人들이나 로마인들이 나노입자를 사용했을 뿐 아니라 우리도 성냥불을 켤 때마다 풀러린(fullerenes)이라는 나노입자를 만들지만 입자의 크기를 조절할 줄 모르기 때문에 나노기술자라고 말할 수 없다.

나노기술에서는 크기를 조절하는 것이 중요할 뿐 아니라 나노입자를 원하는 형태로 집합(assembly)하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나노기술의 building blocks들을 아무리 잘 만들어도 제멋대로 모여있으면 오합지졸(烏合之卒) 같을 뿐 아니라 제자리에 바로 집합된 정돈된 집합체는 설계된 구조물로서 제 기능을 발휘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집합하여 형태를 만드는 연구에 대한 논문수가 최근 급증하는 것을 보아도 그 중요성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렇게 집합된 나노구조체를 microscale구조체와 연결시키는 micro-to-nanoscale interfacing이 중요한 연구과제가 된다.

## < III > 연구역사와 市場규모

나노기술의 비전을 처음 제시한 사람은 Richard Feynman박사로써 그가 1959년 12월 미국물리학회에서 행한 유명한 강연에서 극소형컴퓨터, 極小형 기계 등 小型化의 가능성을 보여 주었으며 궁극적으로 原子를 보고, 움직이는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과학기술의 주된 추세인 소형화는 Feynman이 이 비전을 제시할 때의 밀리미터스케일에서 현재의 나노스케일로 줄어들었다. 이렇게 나노시대를 연 중요한 역사적 이정표는 다음과 같다.

●1959년- Richard Feynman이 소형화에 대한 강연.

●1968년- Alfred Y. Cho, John Arthur와 그들의 동료들이 단일 원자층(single atomic layer)을 표면에 부착시키는 molecular-beam epitaxy기술 발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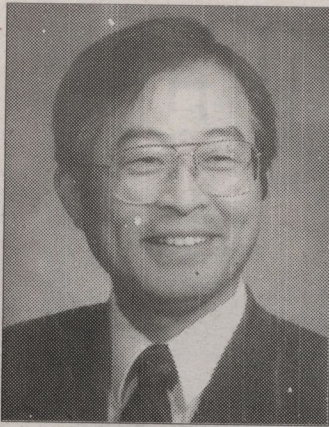
●1974년- Norio Taniguchi가 나노기술이란 말을 처음 만든.

●1981년- Gerd Binnig과 Heinrich Rohrer는 원자를 볼 수 있는 scanning tunneling microscope를 발명.

●1985년- Robert F. Curl, Jr., Harold W. Kroto, Richard E. Smalley가 fullerenes 발견.

●1989년- Donald M. Eigler가 xenon원자로 IBM이라는 글자를 쓴.

●1991년- Sumio Iijima가 carbon nanotubes 발견.



●1998년- Cees Dekker팀이 carbon nanotube로 트랜지스터를 만든.

●1999년- James M. Tour와 Mark A. Reed가 분자로 분자스위치를 만들 수 있음을 보여줌.

●2000년- 미국정부에서 The National Nanotechnology Initiative를 발표함.

이제는 세계적으로 거의 모든 대학교가 나노기술 연구에 관여하고 있으며 지난 15년 동안 10명 이상이 나노과학 기술분야에서 노벨상을 받았다. 특히 IBM과학자들이 발명한 Scanning Tunneling Microscope (STM)과 Atomic Force Microscope (AFM)은 原子나 分子를 보고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나노기술의 발전에 획기적인 도구가 되었다. 나노기술에서 또 하나의 결정적 순간은 Don Eigler가 Scanning Probe Microscope (SPM)을 사용하여 xenon원자를 움직여 IBM이라는 글자를 쓴 1989년이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600여 企業들이 나노기술 분야에 활동하고 있으며 이 企業들과 정부들이 나노기술에 투자한 돈은 지난 한해만 해도 40억 달러가 넘는다. 미국의 NSF (National Science Foundation)의 예측에 의하면 약 10년 후에는 나노기술의 세계시장 규모가 一兆億 달러가 될 것으로 본다.

## < IV > 기술개발과 협력체제

나노기술 개발은 경쟁을 통해서인가 아니면 협력을 통해서인가? 나노기술은 21세기 초반 50년의 미국의 經濟와 國家安保에 필수적인 것으로 인식되어 이 새로운 나노과학 공학기술(Nanoscale Science Engineering Technology) 분야에서 세계적 선도위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미연방정부의 과학기술정책위원회(의장은 大統領)는 National Nanotechnology Initiative (NNI)라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어, 나노기술을 과학기술투자의 최고 우선 순위에 두었다. 그래서 국가 정책차원에서 研究費를 투자하여 NNI가 출발한 2001년의 연구비는 나노기술 연구투자의 기초연도인 2000년의 2억 7천만 달러에 비해 4억 2천 2백만 달러로 늘었고 그후 계속 증가하여 2004년의 예산은 거의 10억 달러에 가깝다. NNI는 나노과학과 나노공학의 기초연구에 가장 중점을 두고 있지만, 科學的 發見을 첨단기술로 연결시키는 應用研究와 개발에 초점을 둔 "大挑戰", 나노제조와 측정을 위한 도구나 방법을 개량하거나 표준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나노기술 연구센터, 미국산업체가 새로운 나노기술을 商業化를 연구 지원 하는 기구 (research infrastructure)

필자소개 : 필자는 1964년 母校 공대 기계공학과를 졸업한 후, 1974년 텍사스 오스틴에서 석사학위를 받고, 1978년 캘리포니아 버클리에서 박사학위 받은 후 1983년 이후 알곤 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재직중인데 현재 10년 전에 착상한 나노 流體에 대한 연구팀을 이끌고 있는데 편집자의 초청에 따라 이 분야의 연구현황을 개관하고 있다.

의 설립, 그리고 나노기술의 윤리적, 법적, 사회적 문제를 다루는데도 연구비를 투자하고 있다. 미국이 나노과학 기술분야를 政府차원에서 가장 우선적 연구투자분야로 발표하자 일본, 한국, 대만 등 아시아와 독일, 프랑스, 영국 등 유럽의 기술국가 등이 이 분야에 뛰어들어 나노과학기술 연구는 뜨거운 국제경쟁분야로 되었다.

韓國에서는 아마도 최초로 나노기술 과목을 개발하여 강의한 KAIST 김중현박사는 현재 나노기술개발상황은 春秋戰國時代와 같다고 적절하고도 재미있게 표현했다. 그러나 나노기술의 특성은 물리학, 화학, 생물학 등 지금까지 분명한 경계를 가지고 분리되었던 과학분야들이 서로 연결되어야 비약적 進歩를 이룰 수 있는 學際間(interdisciplinary)의 기술이다. 나노기술은 이렇게 여러 과학분야간의 협력, 科學과 技術간의 긴밀한 협력뿐 아니라 대학교, 정부연구소, 기업체들이 서로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나노세계는 지극히 작은 세계이지만 知識의 倉庫로서는 광활한 세계라고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DNA 1그램에 CD 1조개에 들어가는 정보를 저장할 수 있다. 그러므로 Feynman박사가 말한대로 연구 개발 할 분야가 대단히 많다고 본다. 나노기술의 성공적 개발을 위해서는 나노재료를 만드는 기술, 나노재료의 특성을 규명하는 장치, 나노과학 이론과 모델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지만, 이 모든 활동의 주축(主軸)은 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나노과학 기술자들이다. 그러므로 나노기술의 발전에는 人力양성이 가장 중요한 과제이다.

## < V > 적용분야

나노기술은 어디에 적용되는가? 이미 시장에 나와있는 나노기술 제품들은 자동차부품, 의류제품, 齒牙합성재료(dental composites), 化粧品, 세탁기, 테니스볼 등이다. 예를 들면, Eddie Bauer나 Lee Jeans에서 카키색바지를 생산할 때 얼룩이 지지 않도록 나노입자를 넣는다. 영국의 화장품회사인 BASF에서는 썬크림을 생산할 때 자외선을 잘 흡수하는 나노입자(ZnO nanospheres)를 넣는다. 또 다른 예로는 세탁기에 박테리아를 죽이는 nanoparticle을 코팅한다. 또한 5년 내에 나노기술에 근거한 lab-on-a-chip 기술, flat panel displays 그리고 醫療 기술이 商業化될 것으로 본다. 예를 들면, 癌治療을 위한 나노입자 기술이 개발되고 있는데, 한가지 방법은 항체로 코팅된 나노입자가 암세포를 찾아서 암세포막에 붙으면, 磁氣場으로 나노입자를 가열하여 암세포를 죽이는 것이다. 癌세포가 죽으면 죽은 암세포와 나노입자는 몸의 배설기관에 의해 몸밖으로 배출된다. 이러한 암치료 방법은 chemotherapy나 radiation과는 달리 건강한 세포를 해치지 않고 암세포만 골라 죽일 수 있는 장점이 있을 뿐 아니라 머

리털이 빠지거나 구역질, 면역기능저하와 같은 부작용을 없앨 수 있다. 또한 나노기술을 이용한 세공막(porous membrane)은 특정한 분자를 분리하는 필터(selective molecular filters)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카본나노튜브를 이용한 기술, quantum computing 등은 앞으로 수십 년 더 기다려야 될 것으로 본다.

미래의 나노기술에 중요한 材料 중 하나는 DNA이다.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의 Len Adleman박사는 최초로 DNA 컴퓨터를 만들었고, New Jersey주에 있는 Bell 연구소의 Bernard Yurke박사는 DNA를 연료로 하여 움직이는 DNA집게(tweezer)를 만들었는데 최근에는 이 나노기계가 DNA를 계속 추가하지 않아도 움직일 수 있도록 하였다. New York University에 Ned Seeman박사는 DNA를 사용하여 2차원 또는 3차원의 고체를 만들었다. 그러나 DNA를 사용하여 DNA Scaffolding을 만들어 전자회로나 분자기계(molecular machines)나 藥物 전달체계(drug delivery systems)를 만들려는 나노기술은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 < VI > 나노기술의 展望

나노기술은 공포의 기술인가? 최근 베스트셀러가 된 Michael Crichton의 책이(Prey)를 보면 supersmall, supersmart한 나노로봇(nanorobots)이 생물체를 強奪해서 매뚜기떼 같이 번식하여 人類를 전멸시키는 소름끼치는 시나리오를 나노기술에 연관시키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과학적 사실이 아니고 과학공상소설이며, 실제로 염려되는 문제는 나노물질이 人體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 나노기술을 이용한 테러나 불안정한 武器경쟁 등이다.

예를 들면 아주 작은 나노기계가 人體의 세포를 파고 들어가 무너뜨릴 수 있는 위험성을 고려할 수 있다. 나노기술이 인류에 유익을 끼칠 가능성이 크지만 해를 끼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나노기술 개발을 적극 찬성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이 생겨나고 있으며, 반대자들은 나노기술이 인류에게 악몽과 파멸을 가져올 것이라는 전제를 내세우며 적극반대를 하고 있다.

나노기술 자체는 善도 惡도 아니지만 人間의 道德的 선택에 따라 선용할 수도 악용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같은 음식을 만드는데 선용될 수도 있고 살인하는데 악용될 수도 있다. 결국, 나노기술이 어떤 사람의 손에 쓰여지는지에 따라 안전할 수도 위험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래서, 나노기술의 유익성과 위험성을 다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비록 나노기술이 위험 없이 최고로 발전해도, 아무도 늙지 않는 樂園이나 理想郷(Shangri-la)을 약속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웃과 바른 관계를 가지고 살며,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고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



# 人類의 기원과 遺傳體적 특징 연구

게놈프로젝트(genome project)의 완성이 人類의 進化의 연구에 미치는 영향 이 수진 (사대 89입, Ph.D., University of Chicago 연구원)



필자(전열 좌측)가 2003년 4월 뉴욕시립대학(CUNY)의 연구실에서 한 병아리에 다른 眼鏡을 씌어가며 생기는 視覺적 刺激과 頭腦의 情報처리기능과의 관련성을 실험하고 있다.

### < I > 첨단 遺傳學의 현재

生物學, 특히 遺傳學에 있어 지난 20 세기는 중요한 과학적 발견들이 연이은 시기였다. 특히 1953 년, 지금부터 꼭 50 년 전에는 DNA의 구조가 처음 밝혀졌고 그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分子 생물학 및 분자 유전학의 눈부신 발전은 계속되어 오고 있다. 생물학, 특히 유전학의 이러한 精進은 21 세기에 더욱 더 가속될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특히, 지난 2001 년 2 월에는 전 인류의 역사를 통틀어 生物學 분야에서의 5 대 발견 안에 들고도 남을 일이 있었다. 바로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중국 5 개국의 컨소시엄 형태로 18 개국의 지원금을 받아 운영되어 왔던 '인간 게놈 프로젝트' 팀과 미국 생물학계의 괴짜(maverick)인 크레이크 벤터(Craig Venter)의 會社인 신생기업 셀레라 지노믹스가, 인간의 遺傳體(genome)를 모두 解讀했다고 동시에 발표한 것이다[未註 1]

이 두 그룹간의 共助 및 競争은 아마 인류 과학사상 가장 흥미진진한 이야기거리로 남을 것이다. '인생은 짧고 예술(과학)은 길다'는 말처럼, 學問은 개개인의 生을 훌쩍 뛰어넘는 그 자체의 生命을 지닌 존재이지만, 그 발전과 성장과정은 인간의 노력, 감정, 경험에 따라 이루어져 왔다. 이런 과정은 지난 몇 년간의 그런 치열한 경쟁과 경험 및 고조된 감정이 이 유전체(genome) 解讀과정에서도 분명히 드러났다[2]. 각설하고, 이 두 그룹의 경쟁은 人類역사상 가장 야심에 찬 프로젝트 중의 하나였던 人間 게놈지도의 해독이라는 대과제의 해결을 원래 예상보다 10 년 이상 앞당기는 결과를 가져왔다. 특히, 콘소시엄에서 해독한 인간 유전체는 무료 일반 데이터 베이스에 올려져 누구나 받아볼 수 있다 (관심 있는 독자는 <http://www.ncbi.nlm.nih.gov/genome/guide/human> 에 접속하여 인간 유전체 목록을 살펴볼 수

란다).

엄밀히 말하자면 '게놈지도의 완성'이란 보도의 실상은 인류 유전체의 완전한 해독이 아니라 90% 이상이 밝혀진 것을 일컫는 것이다. 나머지 부분은 현재의 기술을 이용하여 해독하는데 다른 부분보다 훨씬 까다로운 과정이 필요하며 현재 다른 여러 그룹들에 의해 차근차근 해독되어 가고 있다. 머지 않아 우리는 인간의 유전체를 100%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이것은 아마도 크레이크 벤터를 제외하고는 어느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성취로, 그 이후 생물학자들은 생물학의 역사상 처음으로 할 수 있는 새로운 경험, 일컫는데 '資料의 과잉(data surplus)'을 경험하고 있다.

과거에는 유례가 없었던 이러한 새로운 '자료의 과잉' 상황은 다시 더 많은 질문들을 제기한다. 데이터를 통해 과거의 작은 양의 情報를 통해서 미처 발견할 수 없었던 傾向을 발견하게 되고, 이를 바탕으로 그 傾向들을 연구함으로써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혹은 다른 방식으로만 접근되어 왔던 문제들을 새로이 추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다.

한편으로, 많은 情報를 통해 그동안 단지 '꿈'에 불과하다고 여겨져 왔던 여러 가지 질문들을 대답할 수 있는 기회가 새로이 생기기도 한다. 특히, 分子進化學자들은 이 기회를 이용하여 생물학역사상 제기된 수많은 역사적인 질문들에 새롭게 도전하고 있다. 그 중의 한 질문은, "인간이 어떻게 생겨났으며 인간 고유의 특징들은 어떻게 획득되어 왔는가?"하는 것이다.

인간 존재의 본질을 알고 싶어하는 것은 인류의 시작부터 항상 있어 온 욕구일 것이다. 그러나 과학적으로 볼 때 가장 어려운 질문이기도 하다. 극단적으로 말해서 우리가 時間을 逆流하여[reverse time machine] 과거로 되돌아가지 않는 이상 확실하게 그 답을 알 수 없는

질문들이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이 科學이 아닌 다른 방식을 통해 접근하고자 하는 질문이기도 하다.

어떻게 보면, 백 여 년도 채 못사는 생명체인 人間이 과학을 통해 그 존재의 본질을 이해하고자 하는 것은, 달걀로 바위를 깨트리려는 시도처럼 무모한 일일 수 있다. 그러나 과거를 통해 현재의 모습을 이해하고자 하는 욕구를 인간이 가진 이상, 人間社會의 기원과 人間 種의 기원이라는 물음은 生物學者들, 특히 進化學者들의 영원한 숙제로 남을 것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필자를 포함한 많은 분자 진화학자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열과 성의를 다하고 있다.

### < II > 게놈프로젝트와 進化人類學의 과제

지금까지의 연구과정의 업적을 검토해보면, 이미 分子進化학자들 및 人類學者들은 인간의 가장 가까운 친척은 누구이며 그 차이는 얼마나 되는가 하는 질문에 비교적 자신 있는 답을 제공할 수 있다. 사실 인간의 역사가 얼마나 오래되며 인간과 가장 가까운 다른 동물과의 차이점은 얼마나 되는가 하는 질문들은 생물학의 진화적 상관관계에 관한 질문에 속한다. 전통적으로, 種들의 상관관계는 外形의 特質들(phenotypic traits)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연구되어 왔다. 그러나 생물학의 기술적 발전과 더불어 최근에는 외형적인 구조가 아니라, 그러한 구조들을 직접 결정하는 내부적인 요인들인 단백질의 아미노산 序列과 DNA의 염기서열(鹽基序列)을 통해 生物間의 유연관계(類關係)를 조사하는 것이 일반화 되어있다.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모든 특징들이 사실은 遺傳體를 통해 전달되는 유전자를 통해서 결정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分子的 접근방식들을 통해 추론되는 상관관계는 외형적 구조에 의한 상관관계들보다 훨씬 정확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단백질 유전자의 鹽基서열들의 進化는 種간의

[편집자주: 필자는 母校 사대 생물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한 후 한국고등교육재단 장학생으로 University of Chicago의 Dept. of Ecology and Evolution에 입학하여 2000년 박사학위를 받았고, 현재 同校에서 研究員으로 재직중이다. 그의 연구관심분야는 ① Comparative and functional genomics of primates ② Species differences and new genes, particularly the evolution of human specific traits ③ Evolution of genome location and gene function ④ Causes of rate variation between different genomes and genomic regions ⑤ Sex chromosome evolution 등이다. 그간 발표된 주요 연구논문으로는 ① Yi, S. (2003), Synonymous and nonsynonymous rates. In: Cooper, D. N. et al. Eds. Encyclopedia of the Human Genome. Nature Publishing Group Reference, New York, NY, USA. ② Yi, S., Ellsworth, D. and W-H. Li. (2002), Slow molecular clocks in Old World monkeys, apes, and humans. Molecular Biology and Evolution. 19:2192-2198. ③ Yi, S. and B. Charlesworth (2000), A selective sweep associated with a recent gene transposition in Drosophila miranda. Genetics. 156:1753-1763 등이 있음]

상관관계와 별도로 각 단백질 자체의 특징에 따라 그 속도들이 달라진 것이다. 그러므로 단백질(蛋白質) 유전자만을 비교하는 경우 실제 種간의 유연관계가 아닌 단백질 특유의 진화 관계를 밝혀내게 될 수도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서는 인간게놈 및 다른 생물들의 유전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다시 말해 유전자를 표시하지 않는 지역들('noncoding region', 이하 NR이라 약칭)을 이용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인간의 유전체는 단지 3% 만이 단백질 유전자가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97% 는 이러한 NR으로 분류된다.

NR 중의 일부는 유전자들의 발현을 조절, 통제하는 역할을 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들이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유전체는 정말로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으면서 기본적인 突然變異 확률에 따라 변화하는, 이른바 '中立地域'(neutral region)이다. 다시 말해, 생물 種간의 相關관계를 보다 정확히 밝히기 위해서는 이러한 중립지역들을 비교하는 방법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진정한 '中立地域'의 염기서열들은 최근에 와서야 進化相關研究에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전 유전체에 대한 정보 없이 중립지역들만을 연구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렵기 때문이다. 그 전까지는 단백질 유전자의 鹽基서열 중에서 단백질의 아미노산 서열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는 염기서열들이 엄밀한 의미에서의 중립지역들을 대신하여 사용되곤 하였다. 인류 게놈지도의 완성은 그 자체가 인간이라는 種에 대하여 방대한 양의 정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인간 유전체를 통해 다른 가까운 種들의 유전체들을 보다 손쉽게 연구할 수 있는 基準點(benchmark)를 제공하기도 한다는 점에서 인간과 다른 類人猿과의 상관관계를 연구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최근 한 연구에서는 인간과 다른 유인원들의 50여 중립지역들의 염기서열들을 비교한 결과 인간과 침팬지가 가장 유사하고, 고릴라가 바짝

그 뒤를 이으며, 오랑우탄은 이들 중에서 가장 먼저 분리된 것으로 발표되었다[3].

### < III > 人類進化의 秘密과 人類의 特質

그렇다면, 인간과 가장 가까운 인간과 침팬지 사이의 유전적 차이는 얼마나 되는가? 인류의 유전체는 위에서 명시한 대로 거의 완전히 해독되었으며 침팬지의 유전체 또한 곧(2003년 내로) 완전히 해독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필자는 최근에 당시까지 밝혀진 모든 침팬지의 유전체 염기서열과 인간 게놈을 비교 분석한 바 있다. 특히, 중립지역만을 고려하기 위하여 알려진 모든 조절지역과 유전자들을 제외한 염기서열들을 추출하여 인간과 침팬지와의 상관관계가 얼마나 되는지를 계산하였다. 이에 따르면, 인류와 침팬지의 차이는 1.19% 에 불과하며, 이러한 미미한 차이는 다른 여러 연구소들의 결과와도 거의 일치한다[4].

그렇다면, 인류는 어떻게 인간만의 특징이 되는 형질들을 획득하여 왔는가? 다시 말해서, 어떤 유전자들의 어떤 변화가 인간고유의 형질들로 진화해 왔는가? 생물학의 기술적인 면에서 이 질문은 참으로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다. 일반적으로 생물학에서 어떤 특정 형질과 遺傳子와의 관련을 연구하거나 증명하기 위해 사용되는 방법은 遺傳子조작을 통해 관심의 대상인 유전자를 가진 實驗動物을 만들어 그 유전자의 기능을 조사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인간의 심장병과 특정 유전자 사이의 관계를 조사하기 위해서는 그 유전자의 돌연변이를 가진 實驗用 쥐를 만들어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특징들을 조사한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을 인간이나 침팬지에 적용하기란, 윤리적으로나 그리고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나, 달걀로 바위를 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進化學者들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짜내고 있다. 현재의 傾向은 다음의 두 가지 법을 통해 이 질문에 접근하는 것이다. 첫번째 방법은 염기서열들을 비교 분석하는 것이다.

<39면에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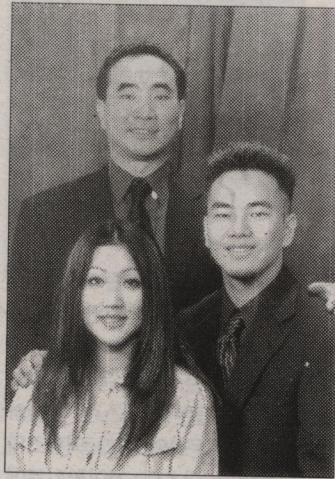
우주항공 산업에 진출하는 자랑스런 同門

2003년 아시안-아메리칸 工學者賞 수상

金炯萬 박사(공대 79년 졸, 보잉사 연구원)

미국의 航空宇宙산업의 선도적 기업인 보잉사의 특별연구원 (Technical Fellow)으로 재직 중인 김형만동문(공대 조선공학과 79년 졸, Ph. D)이 지난 2월에 있는 2003년 "미국工學者의 暉"에 Chinese Institute of Engineers/USA와 National Engineers Week가 공동으로 수여하는 "2003년 Asian-American Engineer of The Year Award"의 금년도 시상식(사진 2)에서 15인 受賞者중의 한사람으로 수상하였다. 그는 이번 수상자중 유일한 韓國人으로서, 人類의 地平線을 넓혀 가는 우주항공산업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한

국인의 명예를 드높이게 되었다. 시상주관자인 CIE/USA는 1972년에 미국산업계에서 근무하고 있는 일군의 중국인 工學者들이 설립한 비영리단체이며, 이 賞은 공학계에서 기술분야에 있어 뛰어난 업적으로 斯界의 인정을 받은 東洋人 중에서 추천되어 다섯가지 항목에 대한 업적평가를 통하여 수상자가 선발된다. 금년 시상식은 40여 개의 항공산업분야와 관련단체에서 지원하였으며 600여 명이 넘는 항공우주산업학계, 정계, 실업계 및 사회지도자들이 참석하였고, 부시대통령, Chao 미 연방노동장관, Norman Mineta



연방교통장관, 텍사스주 연방상원의원 Kay Bailey Hutchinson도 祝電을 보내왔다.

金동문은 1979년 母校 공대 조선공학과를 졸업한 후 渡美하여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에서 1988년 Engineering Mechanics 분야를 전



공하여 博士학위를 받은 후 미국의 항공산업과 우주개발분야에서 세계의 선도적인 기업인 보잉사(年매출액 230억불)에 연구원으로 입사하여 재직중이며, 그의 專攻분야는 구조동력학(Structural Dynamics)으로서 그간 60여편이 넘는 전문분야의 論文을 발표

하였고 미국 항공학회와 미국 기계학회의 기술위원회의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보잉사에서 우주정거장과 우주탐사선 개발의 중심이 되고 있는 휴스턴에는 8명의 한국인 근무자중 유일한 특별연구원이다. 金박사는 교회

의 음악활동을 통하여 뛰어난 기타솜씨를 발휘하며, 두 자녀(대학에 재학중인 아들 Jin 과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딸 Iris)를 또한 훌륭하게 교육하고 있다. (사진1) 재미서울대동창회는 김동문의 뛰어난 업적과 이번 수상에 대하여 축하를 드립니다.

<38면 이수진의 유전체의 연구에서 계속>

앞에서 강조했듯이 외형적 특징들은 본질적으로 유전자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엄밀히 말하면, 다음 대에 전달되는 유전자들의 차이이다? 예를 들어 부모가 환경적(環境的) 요인에 의해 새로운 돌연변이를 일으켰다 하더라도 이 돌연변이들이 난자(卵子)나 정자(精子)에서 발생하였다. 다음세대로 전달되지 않는 진화나 유전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다).

인간과 침팬지의 게놈은 각 30억이 넘는 염기서열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 두 게놈의 차이가 아주 작다고 해도, 예를 들어 1%의 차이라고 해도 그것은 삼천만이 넘는 염기서열의 차이인 것이다. 그 삼천만개의 차이 중 상당수는 인류와 침팬지의 차이에 기여할 것이므로, 그 차이는 鹽基序列들을 연구하면 人類進化的 秘密이 풀릴 수도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 어떤 차이들이 어떤 형질적(形質的) 변화를 일으키는지 추론하는 것이다. 필자를 포함하여 많은 분자 진화학자들이 곧 해독될 침팬지 게놈의 염기서열을 하루가 길다하고 기다리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또한 가지의 방법은 인간과 침팬지 사이의 확실한 차이가 나는 외부 형질에 초점을 맞추고 시작하는 것이다. 어떠한 유전자 혹은 유전체 지역이 인간에게만 존재하는 특징들의 진화에 관련되어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연구하면 인간 존재의 진화에 대한 정보를 어느 정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 분명하게 인간에게만 존재하는 특징들이 어떤 유전자에 의해 조절되며 그러한 유전자들이 다른 생물들과 비교했을 때 어떻게 다르게 진화해 왔는

가 하는 것을 조사하는 것이다.

인간과 다른 동물들 사이의 가장 큰 차이 중의 하나가 무엇인가? 첫째, 인간의 두뇌는 다른 동물들과 비교해서 엄청나게 복잡하고 근사한 기관임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인간과 다른 생물의 두뇌를 연구하는 神經생물학의 분야는 또 다른 미래의 학문으로 앞으로 눈부신 연구결과들을 계속해서 만들어 낼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체질 인류학적으로 볼 때 가장 큰 차이 중의 하나는 直立步行이다. 직립보행을 하게 됨으로서 두 손이 자유로와 지고 이 두 손으로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해 왔는지는 따로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인간을 인간으로 만드는 또 하나의 특징은 言語다. 인류의 문화는 언어의 존재와 떼어 놓을 수 없는 관계를 맺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유인원들과 비교했을 때 인간만이 유일하게 복잡하고 다양한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언어는 진정 인류만의 고유한 특징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IV> "KE 家系"

그러나 어떤 유전자가 言語의 습득과 사용을 조절하는지는 아주 최근까지도 전혀 알려지지 않았다. 왜냐하면 언어는 인간 고유의 특징이므로 다른 형질들, 특히 유전병처럼 쥐를 이용하여 연구하는 길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뜻이 있으면 길이 있는 법이라고, 지난 1990년 영국의 생물학자들은 이 문제의 실마리를 풀기 위하여, 이른바 "KE 家系"에 주목하였다. 이 家系의 반 정도의 家族이 언어사용 및 특정 단어를 발음하는데 장애를 보인다. 이 가계가 특별히 중요한 이유는 이 언어장애 현상이 3세대 이상에 걸쳐 마치 유전병인양 이어져 왔기 때문이

다. 또한 이들은 모두 知能을 비롯한 다른 지적인 측면에서는 정상인들과 없었다. 다시 말해 이 가계에서는 언어장애가 마치 한 유전자, 그것도 상염색체 상에 있는 優性 유전자에 의해 조절되는 것 같이 遺傳되어 온 것이다[5].

그렇다면, 이 KE 가계, 그 중에서도 언어장애를 겪고 있는 가족일원에서만 독특하게 돌연변이를 보이는 유전자가 그 병의 원인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발견 이후로 전 세계의 과학자들이 "KE 가계"에서만 특별한 돌연변이를 보이는 유전자를 찾기 위하여 온갖 노력을 기울였다. 10여년이 넘는 연구 및 다른 중요한 발견들 끝에 지난 2001년 FOXP2라는 유전자가 그 병의 원인이 된다는 것이 밝혀졌다[6].

이 유전자는 상염색체(常染色體)중의 하나인 7번 염색체 상에 위치한, 700개의 아미노산으로 구성된 단백질을 표시한다. 이 "FOXP2" 유전자가 일반인과 다를 경우에 언어의 사용에 문제를 보이는 것이다. KE 가계의 경우 정상 유전자와 비교했을 때 단 하나의 염기서열 차이만이 다른 것으로 밝혀졌다. 염기서열 하나, G와 A의 차이가 553번째 아미노산인 아르지닌을 히스티딘으로 바꾸는 결과를 가져오고 (正常人들은 CGT 인데 반해 가계 중 언어 장애를 보이는 사람들은 CAT이다) 그 차이가 언어장애라는 형질로 이어지는 것이다.

<V> 유전학의 미래 과제

그러나 이 遺傳子의 원래 기능이 무엇이며 이 돌연변이(突然變異)가 어떠한 機作[機製的 作用]을 통해 言語장애를 일으키는지는 현재 알려지지 않았다. 한편, 지난해 獨逸 라이프찌히에 있는

Max Flank 진화인류학 연구소의 과학자들은 人間과 다른 類人猿 및 쥐의 FOXP2 염기서열들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에 따르면 이 유전자는 전반적으로 다른 유전자들에 비해 훨씬 느리게 진화해 온 편에 속한다. 예를 들어 침팬지나 고릴라와 쥐를 비교했을 때 단 하나의 아미노산만이 다른 것이었다. 그런데, 인간과 쥐를 비교했을 때에는 세 개의 아미노산이 달랐다. 다시 말해, 쥐와 원숭이 전체가 갈라진 이후에 단 하나의 아미노산이 달라졌는데 인간과 침팬지가 갈라진 이래 두 개의 아미노산이 달라진 것이다[7].

한편, 인간 게체군 내의 鹽基序列 변이현상은 이 유전자 혹은 이 유전자에 아주 가까운 遺傳體 지역에서 최근 100,000년 내에 인간의 생존에 아주 유리한 기능을 하는 변이가 발생했을 것이라는 추론과 일치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7]. 그러나 현재의 기술로는 이 변이가 정확히 어느 것인지를 밝혀내는 것은 불가능하다. 과연 그 변이가 인류와 침팬지를 구분하는 두 개의 아미노산의 차이일까? 이 두 아미노산의 차이가 인간과 모든 다른 생물들을 분류하는 언어의 사용을 결정짓는 것일까? 위에서 나열한 현재까지 밝혀진 모든 정보들은 모두 그 결론을 지지하고 있지만 지금으로서는 확실한 대답을 제시할 길이 없다. 확실한 대답을 위해서는 첫째로 쥐 및 다른 생물들에서 이 遺傳子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먼저 밝혀야 한다. 또한, 인간에게 있는 돌연변이를 쥐에서 발현시켰을 때 어떤 변화가 관찰되는 지 밝혀져야 할 것이다. 필자연락처: soojinyi@midway.uchicago.edu

[未註]

[1] The International Human Genome Mapping Consortium(2001), "A physical map of the human genome", Nature 409, 934-941; Venter, C. et al. (2001), "The sequence of human genome", Science 291, 1304-1351.

[2] Wade, N., NYT(June 27, 2000) report, Science section

[3] Chen, F. C., and W-H., Li (2001), "Genomic divergences between humans and other hominoids and the effective population size of the common ancestor of humans and hcmpanzees", American Journal of Human Genetics 68, 444-456.

[4] Yi, S. et al. (2002), "Slow molecular clocks in Old World MonKEys, apes, and humans", Molecular Biology and Evolution 19, 2191-2198.

[5] Hurst, J. A., et al. (1990), "An extended family with a dominantly inherited speech disorder", Developmental Medicine and Child Neurology. 32, 352-355.

[6] Lai, C. S. et al. (2001), "A forkhead-domain gene is mutated in a severe speech an dlanguage disorder", Nature 413, 519-523.

[7] Enard, W. et al. (2002), Molecular Evolution of FOXP2, "a gene involved in speech and language", Nature 418, 22-25.



# 代替醫學과 美國의 高층

金日勳(의대 57년졸)

### 序言

미국에서 보조식품(supplement, dietary or nutritional)은 法的으로 藥品(Drug)이 아닌 食品(Food)의 한 部類로 分類되어있다. 1994년 10월 美議會議의 dietary supplement의 定義에 따르면 補助食品은 入口로 섭취하는 herb(漢藥 등 藥草), 비타민, 무기질, 아미노산, 효소, 농축한 식품 및 간과 콩팥같은 조직기관 등이 여기에 속한다. 美聯邦 食品의약품 관리국(Food and Drug Administration, 이하 FDA라 약칭)은 보조 식품단속에 管轄를 쥐고 있는데, 이는 1994년 製藥업자와 정치가가 짜고서 보조식품에 대한 FDA의 통제권한을 박탈한 惡法인 보조식품건강교육법안(Dietary Supplement Health Education Act, 이하 DSHEA라 약칭)때문이다.

현재 말쑥 많은 Ephedra 등 herb의 피해가 누적되자 미국의학협회(AMA)는 의회에 대해서 문제해결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있는 惡法개정을 강력히 요구하여, Supplement을 食品이 아니라 藥品으로 규제할 것을 촉구했다(2002년 10월). 뒤늦게나마 2003년 3월 7일 FDA에서는 AMA등 미국의학계의 절대지지자이래 보조식품규제법을 제안했으나, 業者와 政客들의 저항이 예측되고있다. 그러면 대체의학유행과 그레삼의 법칙이 지배하는 보조식품 대처현황을 살펴보고 구체적인 사례로 Ephedra 등 supplement 피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생각해 보고자 한다.

### < I > 대체의학 愛用하는 風潮

21세기의 괄목할 科學발전에도 불구하고 市民들이 傳統의학에 鄉愁를 갖고 補完代替醫學(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 이하 CAM이라 약칭)은, 일반의과 대학에서 교육하고있는 현대의 主流 의학(mainstream medicine)이외의 醫療을 말한다. 보조식품, 영양제, 한방약제, 명상, 마사지, 카이로프랙티스, 침술 및 대량비타민요법 등이 여기에 속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를 찾고있음은 세계적 경향이며, 미국도 예외가 아니다. 美國의 CAM 사용은 1990년 35%이던 것이 1997년엔 43%로 증가했으며, 연간 \$40billion (이는 미국 총의료비 약 \$1,400 billion의 1/35에 해당)이라는 막대한 금액을 여기에 소비하고 있다.

19세기 초반까지 미국에도 產婆, 카이로프랙티스, 동종요법, 그리고 동양의 무당 같은 神秘醫學이 유행했다. 그러다가 19세기 후반의 科學혁명에 힘입어 눈부신 의학발전과 동시에 교육면에서도 과학적 의학교육이 주류를 형성하게 되었다. 특히 1910년 의대교육 개혁안인(Flexner Report)에 따른 醫科대학 教育革命 이후 정통적이 아닌 비과학적 의학교육기관은 자취를 감추게 되었고, 그

후 미국의학은 세계정상에 올랐다. 그런데도 미국인들이 이렇듯 CAM에의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서양의 주류의학은 원인이 확실한 疾病치료에 성공을 거두었으나, 원인불명의 복잡한 질환이나 정신적 요소가 관여하는 질환의 치료는 반드시 성공적이라 할 수 없다. 또한 主流醫學은 原因 분석 과학적인 수법에 의해서 질병의 원인과 病理해명, 진단, 그리고 치료법개발이라는 과정을 거침으로서 발달해온 결과, 人間으로서의 患者자체보다도 疾病에 그 초점을 맞추어왔다.

여기에 맞서서 漢醫學과 같은 傳統醫學을 포함한 CAM에서는 출발점부터 患者를 다스 비과학적이지만 人間적인 면에 치중해서 치료한다는 기본 방침을 두고있다. 이러한 수법은 西洋의학에서 한때 영터리, 돌팔이 노릇, 극단적으로는 무당행위로 不法의 료행위로 취급을 받아왔으나, 서양의 학이 해결 못하는 분야가 많아짐으로서 한계점에 도달하여, 이를 보완한다는 의미에서 CAM의 개념이 새로이 생겨났다.

最新 의학의 발전으로 전염병 등 急性질환이 정복되고 치료에 대한 환자의 기대를 크게 높였지만, 수명연장으로 고령인구 증가와 함께 老人性 만성질환이 보편적이 된 상황에서, 이는 치료효과를 별로 기대할 수 없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主流醫學에 대한 환자의 불신과 불만은 높아지기만 한다. 이러한 틈을 타서 CAM은 근래 점점 성해만 가고 있다.

특히 醫療費 상승으로 국가경제가 위협받고있는 때와 같이해서 국민들은 값싸게 얻을 수 있는 醫療의 하나로 CAM의 역할에 기대를 걸고있기도 하다. 즉 현재 사회복지정책의 最大手點이 되고 있는 의료비급상승의 문제도 CAM을 부채질하고 있다. 즉, 미국의 의료비 총액이 1965년에 \$41 billion(410억 달러)이던 것이 10년 후(1975년)에 \$130 billion이던니 현재 2002년에는 \$1,400 billion(\$1.4 trillion)이 되었다. 이는 물론 정부나 민간보험에서 부담하지만 당사자 부담도 적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비자는 CAM에 더욱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

특히 1971년 닉슨 대통령의 중국방문에 동반한 뉴욕타임스의 레스톤 편집인은 北京에서 응급 맹장염수술을 받았는데, 그의 手記에서 그가 받은 침술과 한약에 의한 수술 후 처치와 통증치료법을 높이 평가했다. 이를 계기로 CAM에 대한 미국인의 관심을 더욱 높여, 중국과 국교 재개 후 중국의학 특히 鍼術과 인삼 등 한방약제가 민간의료의 인기종목으로 등장했다.

"환자의 권리" 시대에 의료의 결정권은 환자가 갖게 되어, 의사가 "과학적 근거가 결여된 CAM"이라고 아무



리 타일러도 그들의 욕구를 막을 도리가 없게되었다. 20세기 후반 "베이비 불"세대 젊은이들에 의해 既成권위를 떨치지 않으려는 反文化운동이 일기 시작했다. 이들은 신비스런 중국과 인도의 아시아문화와 함께 멕시코와 미국인디언의 약초와 자연물치료를 흥미를 갖게되었으며, 그들의 자기권리주장과 더불어 이러한 自然信仰도 주류의학을 멀리하게 했다. 암(癌) 말기환자들은 줄지어 치료 차 멕시코를 찾게 되었다.

이러한 反문화운동이 의료계에 全人的 의료운동(holistic healthcare movement)으로 발전하였다. 이 운동은 의학치료를 疾病에만 국한치 않고 人間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治療의 척도를 육체, 정신, 심리, 역학 등 모든 면을 중요시하는 全人的 醫療을 원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東洋哲學 개념에서 나온 여러 醫療術(침, 마사지, 안정요법, 요가 및 약초 등)을 현대의학에 채용하지는 것이다. 사실인즉 20세기 후반기의 주요쟁점인 生活 習性질환예방을 강조하는 라이프-스타일 개선운동은 실상 위의 全人的運動과는 우연의 일치라 하겠다.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CAM이 국민의료일부를 담당하고 있는 현실을 인정하고 주류의학에서 흡수시켜야한다는 여론이 조성되었으며, 장차 미국정부주도로 철저한 검정을 거친 CAM이 주류의학에 수용하려한다. 즉 1998년 미국연방정부는 HHS(보건부)내에 NCCAMP(국민보완대체 의학센터)장설했으며 2002년 3월엔 WHCCAMP(백악관보완대체 의학 정책위원회)를 설치하여, CAM(보완대체의학)을 현대주류의학에 통합하는 방안을 제시하여 장차 흡수할 계획이 진척중이다. 이는 醫療는 一元化 되어야하기 때문이다. 여기 관해서 NEJM 主筆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두개의 醫學이 있을 수 없다 [주류 의학과 대체의학을 지적함]. 충분한 과학적 검정을 거친 의학과 그렇지 못한 의학, 즉 효과가 확실한 의학과 불확실한 의학이 있을 따름이다. 과거엔 대체의학 이었어도, 철저한 실험을 거쳐 안전하고 효과 있다고 판명되면 그것은 새로 주류의학에 속하게된다."

현재의 상황에서 長期的인 계획으로 미국의학계와 정부에서 성취해야 할 의료문제는 代替醫學을 吸收하는 일이다. 그러나 短期的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는 눈앞에 당면한 Ephedra 등 supplement 피해에 대한 대책이다. 현재 미국의료계에서 Ephedra 등 약용으로 사용되는 보조식품(Herb)의 해독 때문에 크게 말쑥이 나고 있다.

### < II > DSHEA, 대체의학 聖域法案

歷史적으로 藥草(Herb)는 의약품이 아니고 食品으로 취급되어 왔다. 그러다가 1990년 식품표시규제를 정한 "영양표시교육법"이 제정되어, 건강에 대한 효과를 상품레테르에 표시할 때는 일반의약품처럼 그 효과가 과학적으로 증명된 경우에만 限定되었다. 그리고 허브에 대해서는 2년간의 유예기간을 준 다음, 1992년도부터 FDA는 보조식품에 대해서도 허위 광고 단속규제를 강력하게 시행하려 했다.

製藥회사에서 새로운 醫藥品을 開發할 때는 엄청난 費用을 들이고 臨床 실험을 거쳐서 약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증명하고 난 다음, 特許를 받아 생산가격의 몇 배에 利潤을 남겨 그 비용회수를 기대한다. 그러나 허브의 경우는 이렇게 특허를 받는다는 것은 아예 불가능한 일이며, 따라서 상품레테르에 "과학적으로 입증된 효과표시"를 義務化한다는 것은 製藥업자에게는 死活에 관한 문제이다. 그래서 보조식품업자들은 FDA의 규제강화책에 대항해서 그들의 長技인 政治鬭 牌인을 대대적으로 전개했다. 유명한 배우를 동원해서 그의 애용비타민 C가 경찰에 의해서 압수 당하는 장면을 조작하여 民衆을 선동하고 나섰다. "우리가 애용하던 건강제품이 의사의 처방 없이는 구매 할 수 없게되었다. 우리건강을 우리가 지키는 자기권리가 침범 당하고있다"고 과장된 광고로 소비자가 직접 의회에 호소하도록 선동했다.

이러한 製藥업자의 作戰이 성공하여 보조식품제조산업이 많은 유타주 상원의원의 노력으로 1994년 DSHEA 立法이 성립하기에 이르렀다. 이 DSHEA 법안에서 보조식품은 의약품이 아닌 식품으로 정의되었으며, 허브 제조업자는 판매에 앞서 "안전하게 사용되어온 실적제시"만 하면 족하고, 안전성과 유효성을 과학적으로 증명할 의무조항이 면제되었다. 말하자면 허브는 治外法權의 聖域을 차지한 셈이다.

이에따라 FDA에서 허브의 安全性이 의심될 때는 함부로 "위험가능성이 있음으로 판매를 불허한다"고 할 수 없게 됐으며, 그럴 경우는 FDA에서 반드시 확실한 반대증거를 제시하게끔 돼있다. 적반하장(賊反荷杖)이라 하겠으나, 국민의 의료결정권리와 소비자주장을 우선하는 社會象의 한 단면이기도하다. 또한 허브 레테르의 효능표시에 있어 특수질병에 대한 효과를 표시할 수는 없으나, 신체건강에 대한 일반적 효능표시는 허가되고 있다. 예를 들어 "심장병을 예방한다" 대신에 "심장건강유지에 도움 준다"거나 "감염에 대한 면역을 높인다" 대신 "면역의 건강을 촉진한다"로 좀더 知能的으로 표시하면 그만이다.

이러한 과장된 표시에 힘입어, DSHEA 법안 출현이후 4년만에 허브업계의 대상고는 2배로 급증했다. 그리고 이 법안성립으로 보조식품을 규제하는 FDA의 권한은 크게 위축되었다. 그 결과 품질과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類以營養劑 보조식품들이

市場에 범람하게되고 被害보고가 늘어나고 있다. "그레삼 법칙"이 미국 보조식품시장을 지배하게 된 것이다.

< III > Ephedra 소동과 學界의 반응  
體重 줄이는 약으로 이름난 Ephedra(마황 麻黃)은 심장과 신경계 자극제며, 부작용보고가 16,000건이나 되고, 그중 사망자 2명, 심장경색증 4명과 뇌졸중 9명이 발생했다. 미국 풋볼-리그, 대학체육회, 국제올림픽은 선수들에게 Ephedra 사용금지령을 내렸으며, 지난 2월 야구선수 B의 사인도 Ephedra 복용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부기관인 HHS와 FDA에서 Ephedra 제품에 警告文 레테르부착을 추진하나, AHA(미국심장학회)에서는 강경책을 써서 판매금지 조치를 주장하며 "일반국민은 경고문을 읽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이유를 들었다. AMA는 의회청문회에서 "FDA는 Ephedra 뿐 만 아니라 모든 supplement에 대해서도 철저한 규제를 해야된다"고 증언했다. 드디어 2203년 3월 FDA는 허브 업자들의 過剩廣告를 단속할 목적으로 "보조식품제품 효과표시에 대한 규제"를 제안했다. 現行法(DSHEA)에서는 교묘한 수법으로 공공연하게, 특정제품의 질병의 진단 치료 및 예방효과를 레테르표시에 적고있는데, 사실 이러한 설명내용을 가진 食品은 藥品과 다름없으므로,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藥品처럼 안전성과 효과기준을 요하는 FDA의 규제를 받아야 마땅하다고 했다.

여기에 대해 업자와 허브 옹호자는 "FDA는 자기네 본분을 잃고 엉뚱한 짓을 하려한다"고 비난하고, "의회에서 만든 법안(DSHEA)조문에 충실해야하며 월권행위해서는 안된다"고 발표했다. 또한 독일 등 유럽에서 검증되어 사용하고있는 모든 허브 제품에 대해 그들의 연구를 인정하고 그들 허브를 그대로 미국에서 허용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FDA 등 반대측은 유럽의 연구는 미국이 원하는 것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고 거절했다.

DSHEA 법안에 의하면 국민이 허브 효과를 믿고 사용하기 위해서는, 제조업자의 良心적인 설명에만 의지도록 돼있으나 그들 양심을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래서 이 법안으로 보조식품에 대한 FDA 권한을 박탈한 사실에 대해 AMA는 크게 분개하고 있으며, FDA의 새로운 제안이 통과될지는 두고봐야 할 일이다.

그러면 현 단계에서 우리는 허브 사용을 어떻게 해야 할까? 여기대해 허브 피해조사에 크게 공헌한 Baylor醫大의 Marcus 教授는 한마디로 "藥草는 쓰지마라(Don't use herbs)"고 잘라 말했다. 證據에 바탕을 둔 허브 치료만이 價値 있기 때문이다.



# 外科醫의 餘滴

## 내가 보고 느낀 나라들의 이모저모

이 선 (李實興, 의대 42년 입학, Sun Lee, M. D.)

[편집자주: 필자는 1945년 京城醫專 졸업 후 1950년 도미하여 微細手術學(microsurgery)의 연구에 주력하여 개발한 의료기술을 세계각국에 전파해왔다. 이 글은 그 과정에서 기록한 旅行記로서 무더운 여름에 爆笑가 절로 나오는 구절이 많으니 독자들의 일독을 권한다. 그는 현재 Director, San Diego Microsurgical Institute at San Diego Scripps Mercy Hospital 겸 Clinical Professor of Surgery,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Diego, CA 로 재직중이다.]

### < I > 序

금년 83세를 바라보면서 뒤돌아보니 의사로서 나의 전문분야를 시술(施術)하며 보낸 50여년 동안 틈틈이 살펴본 세계여행기(세계 여러나라의 興亡과 만났거나 들은 사람들의 흥망기)를 여기에 기록하여 우리 동문들과 나누고자 한다. 日帝治下에 태어났고 교육을 받아 자랐으며 일본이 망하는 날 휘문 중학교 광장에서 독립만세도 불려보았다. 1949년 12월에 배편으로 고국을 떠나 공부에 목마른 목을 축이러 미국에 온지 벌써 50여 년의 세월이 지났다. 그 동안 내게 부여된 실험적 미세수술학(微細手術學)을 고안하며 각 나라에 퍼뜨리면서 그 나라들의 앞길과 뒷골목을 누비며 흥망을 살펴보고 그 중에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자 한다.

1967년부터 동유럽에 있는 공산국가들 그리고 1972년에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도 다녀올 기회를 가졌다. 1968년 쥐의 간 이식법을 강의해달라는 요청으로 Salzburg에 다녀오면서 Leuven (Belgium), Lyon (France)와 Rome (Italy) 각 대학을 둘러보게 되었다. Leuven에서는 Rega Institute의 Vandeputte과장의 요청으로 그후 3년간 매년 일주씩 Belgium과 Holland 과학자들에게 습득을 시켜 주었다. 그 당시에는 내가 개발한 문맥-하행정맥 연결법 (Portacaval Shunt)과 신장, 간장 이식법은 주로 습득식(習得式)이었는데 Holland 과학자들은 이를 빨리 배워서 생리학과 면역학에 잘 이용하는 것 같았다.

### < II > 구라파의 경험

나의 세계여행은 1967년 쾰스버그 (Salzburg, Austria)에서 열린 국제간(肝) 이식학회에 초청을 받아 간 때부터 시작된 것이다. 비엔나에서 기차로 쾰스버그에 내린 것은 꽤 이른 아침이었다. 10분간의 강의를 부탁 받

았는데 쥐의 간이식에 대한 관심이 워낙 클 때라 30분으로도 강의의 끝을 못 맺은 채 강단에서 내려와야만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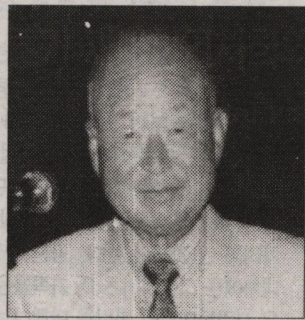
벨기에(Belgium)에서 온 한 교수가 자기의 대학에 초대를 하겠다고 청하기에 나는 몇 일전에는 루벤(Leuven, Belgium)에 가서 강의를 했다고 말하니 내년에는 꼭 자기 대학에 와달라고 부탁하는 것이다. 알고보니 불란서계의 교수였다. 그리고 학회(學會)가 끝나는 대로 불란서 리옹(Lyon, France)에서 참석한 미켈로프(Mikelof) 교수의 초대로 비엔나 관광을 한 후에 미켈로프 교수에게 들르기로 약속을 했다. 학회가 끝나는 날에 도지사 관저에서 내빈들을 모신 후 바이올린 독주를 시작했다. 한 곡이 끝나자 첼로를 연주하는 한 여인이 가담하고 다음 곡엔 피아니스트가 합류를 했다. 이렇게 한 소수정예의 관현악단이 내빈들을 위해서 큰 공연을 해준 셈이었다.

비엔나에서는 마차관광을 하며 비엔나 누우스타(Wiener Neustadt)으로 달렸다. 안내를 하는 한 여인이 故李[承晚]박사의 비엔나시절을 토막토막 영어로 얘기해주어 옆에 자리를 함께 한 나의 부인 Jean도 감개무량한 듯 싶었다.

리옹에서는 쥐의 신장, 간장 이식을 부탁 받아서 젊은 의학도(醫學徒)들과 함께 꼭 하루를 지냈는데 점심으로 준비된 어린양의 뇌(腦)를 기름에 튀긴 것을 처음 맛보았는데 나에겐 좀 어색한 음식이었다.

리옹에서 머물다가 이태리 로마에 있는 코테시니(Cortesini)씨의 초청으로 미세수술 지도를 부탁 받았는데 큰 일이 닥치고 말았다. 미세수술 강좌에는 의과사들은 물론 각과의 연구원까지 지원을 했으니, 게다가 갑작스러운 계획인지라 현미경은 물론 미세수술 기구가 모자라서 로마에 있는 모든 의과기구 상점들을 돌아다니야만 했다. 겨우 몇 세트의 안과(眼科)용 기구들을 구입해 일주일간 문맥-하행정맥봉합 그리고 신장 이식수술을 시범하여 실습을 열심히 했다.

코테시니씨가 나를 로마대학 외과 교수직에 임명을 주선하고 매년 로마 대학에서 일주일 내지 이주일 동안 그 대학의 의사들은 물론 이태리 각 대학의 의학도들을 초청할 계획으로 현미경도 수대를 주문했다. 이에 따라 3년간 계속 지도를 했었는데 그후에는 이태리 밀라노의 몬토로시(Montorsi)교수와 폭스(Fox)씨의 초청으로 밀라노에서 수년을 계속 미세수술을 가르치는데 몰두했다. 그 동안 이태리 각 대학에서 미세수술 연구에 불이 생겨 일류대학에는 미세외과를 설치하기 시작했고 미세외과 과장 자리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원체 이태리 사람들은 미술을 즐기는 고로 예술적 미세수



술법도 제대로 발달하였다. 그렇게 해서 이태리 미세수술학회가 생기고 나도 몇 번의 특강을 하였다. 이때 이태리에서 받은 금메달들이 여럿이다.

### < III > 공산 폴란드의 백만장자와 특권계층

1976년, 칸트라 올쥬스키(Olszewski)씨의 초대로 월써(Warsaw, Poland) 의과대학에 갈 기회를 가졌다. 올쥬스키씨는 폴란드 의학기술학회의 회장이며 폴란드대학 의대의 외과과장이었다. 처음으로 공산국가에 들어온 우리 내외에게는 모든 것이 새로웠다. 1964년도에 미국 Harvard 대학에 와서 나에게 미세수술을 배운 나의 폴란드 수제자 로윈스키(Rowinski)씨는 아래와 같은 브리핑을 해주었다. "금년에는 우선 관광차 오셔서 일주일을 돌아보시고 내년부터 매년 오셔서 공산국가의 각 나라 의사들에게 미세수술을 지도해 주십시오. 그 대신 선생님의 신원보장을 해드리겠습니다만 北韓에서 온 사람들과는 접근을 절대 삼가주세요."

로윈스키씨의 말에 의하면 1976년까지도 월써의과대학은 女男공학인데 그 구성비율이 7.5:2.5의 비례로 여학생의 수가 많았고, 미세수술 연수자 중 대부분이 여자였는데 정부의 방침은 남녀의 수를 동일하게 하는 제도를 실시하였다. 애써 공부해서 의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산주의"체제라 받는 급료는 버스 운전기사와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이었다.

그 당시 폴란드 농촌은 늙은 노부부들이 농사를 지으며 소와 말을 이용했고 변소도 집 밖에 있었다. 로윈스키씨에게 물었더니 폴란드의 젊은이들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이용해서 조선(造船)회사나 자동차 회사에 취직하려 그런 곳으로 몰려가기 때문에 농업이 발전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보리는 소련에서 사오는데, 소련은 미국에서 보리를 사다가 폴란드에 다시 팔면서 그 보리를 사면 石油을 준다고 했고 이를 위해 모스크(Moscow, Russia)와 월써 간에 큰 오일 파이프가 설치되었다고 한다. 또 감자와 콩들은 동독에서 수입한다는 것이다. 즉 식량의 자급자족은 폴란드로서는 꿈 꿀 수 없다는 것이었다. 길거리에는 換錢商이 한 사코 고객을 따라 다니고 급게 차린 젊은 여인들이 호텔 부근에서 웅성거리며 여행객들을 노렸다. 北韓 대동강의 풍경을 그린 액자들이 띄엄띄엄 거리 상점들에 전시된 것을 볼 수 있었다.

"제발 北韓 사람을 만나면 대화를 삼가시고 묵고 계신 호텔 이름을 말하지 마세요."라고 말한 로윈스키씨의 충고를 가능한 지키고 있었는데 공항에 나갔다가 북한 외교관 세 사람을 만나게 되었다. 그들은 북한에서 오는 짐

을 기다린다고 했다. 함께 갔던 로윈스키씨는 내 걸을 떠나지 않았고 약 30분 동안 그들과 대화할 기회를 가졌다. 그중 키가 컸던 武官이란 자가 南韓 목을 퍼붓기 시작해서 듣기가 민망스러웠다. 우리는 미국에서 산다고 하니 키 작은 한 북한 소위 文官이라는 자는 내 부인에게 미국에서는 부부와 애들 둘이 살면 생활비가 얼마나 되냐고 물었다.

1976년에는 그저 관광 목적으로 갔으니 크라코(Krakow) 소금광산에 인도를 받았다. 수십 미터가 되는 긴 소금광산차로 지하에 내려가 아주 암전하게 차려놓은 교회 예배당에 도착했다. 예배당 바닥은 까만 대리석 같은 것이 깔려 있었는데 그것은 소금바닥이고 예배당 벽엔 소금으로 조각한 여러 聖人들의 조각상들이 쪽 둘러서 있었다. 그 지하 예배당엔 물이 안 들어가게 되어 만들었으므로 소금들이 녹을 염려가 절대 없다고 했다.

그 다음날엔 기단스크(Gdansk) 조선항(造船港)에 안내를 받았다. 그곳 병원에서 여섯 명의 고이터(goiter, 갑상선질환의 일종으로 목에 혹이 나옴) 수술을 받은 여자 환자들이 누워 있는 병실을 보았는데 외과 레지던트들이 수술을 배워서 잘 해나갔는데 미국에서는 제 일년생 외과 레지던트들의 첫 번째 대 수술은 헤르니아(Hernia) 같은 수술을 시도하는데 비해서 고이터 수술은 제 일년생 레지던트들에게는 조금 어려운 수술인 듯 싶었다. 환자들은 대부분 高地 지방의 주민들로서 소금광산에서 나오는 소금을 섭취하는 관례상 목도(Iodine)의 해택이 드문 탓이라고 했다. 병원 시설들이 낫 잘 되어있었고 그때에도 종교의 자유가 있었음을 듣고 놀라움을 느꼈다.

주일 아침이면 예배당에 여러 교인들이 몰린다고 하기에 일요일날 호텔에서 가까운 교회를 찾았으나 교회 앞에는 차가 한 대도 있지 않아서 로윈스키씨가 잘못 말한 것으로 착각해서 돌아오려고 하는 순간, 유리문으로 안을 들여다보니 카톨릭 '미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었고 교회 안은 초만원이 이루어 있었다. 미국 교회들과 달리 주일날 텅 빈 주차장은 지금 생각하니, 기름 값이 비싼 차를 타고 오기엔 그 당시 폴란드의 경제가 그리 허락치 않았던 탓이 아닐까 생각된다.

그 당시 폴란드에는 이태리 피아트(Fiat) 자동차 회사의 지사가 설립되어 소형차를 생산했지만 거리에 다니는 차량 수는 꽤 소수였고, 벤츠(Benz) 차는 대부분이 택시를 몰고 다니는 젊은 운전사들의 소유라서 타는 운전사의 수입이 꽤 많은 것을 느꼈다. 또 거리에서 암암리에 換錢하는 것 보다 택시 안에서 미화, 독일의 마크, 불란서의 프랑크를 바꾸는 게 안전하며 "택시 안에서 환전을 하세요. 그러나 거리의 환전 장사들 중에는 정부의 첩자가 섞여 있으니 주의하세요"라고 말해준 로윈스키씨의 경고가 생각났다. 암시장의 환전률은 정부의 그것에 비해 4.5배나 되었고 당시 털로 짠 양복 한 벌을 미화로 치면 20

불 정도 하던 때였다.

월써(Warsaw)에 음악가 쇼팽(Chopin)의 동상이 있는 公園에는 주민들은 물론 외국인 특히 폴란드 계의 2세, 3세가 되는 방문객들로 붐비고 있었는데 쇼팽이 앉은 피아노 동상을 구경 중이던 한 미국 할머니가 갑자기 심장마비를 일으켜 쓰러지니 공원 수위가 앰블런스를 부르려고 하자 쓰러진 환자가 이를 말리며 말했다. "제발 나를 쇼팽 옆에서 죽게 내버려주세요. 오직 영광스럽게....."

이때의 일로 지금도 기억에 남는 것은 캐나다에서 온 폴란드인 3세의 이야기이다. 'Poland'는 평화로운 나라지만 여전히 공산주의체제 아래에 있지요. 나는 캐나다에서 이민 온 3세로서 할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시며 하였던 遺言이 고향에 한번 다녀오라고 하셔서 그의 말씀대로 이 나라를 찾았는데 어제 큰 봉변을 당했지 않나? 비행기 출발 2시간 앞두고 나는 내 짐을 조사하겠노라고 비행장 밀실(密室)로 가서 조사를 받았는데 물었던 말을 또 묻고 하여 2시간이나 걸려 겨우 심문이 끝나서보니 출발시간이 지났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까지 숙소에 있다가 비행장으로 다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열자리에 앉은 한 노파에게 그 사연을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노파가 나에게, "젊은이, 이 나라에는 버스 안에도 벽에도 눈과 귀가 있답니다. 말조심하세요"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그 시간 이후부터 비행기에 오르기가 지 한마디도 못했지요. "제 얘기를 이제 시원하게 털어놓으니 할거분해요. 다시는 할아버지의 조국인 폴란드를 찾아오지 않겠습니다." 나는 그 사람이 비행기 안에서 입을 닫지 못하며 여름난 배짱이같이 쾌활한 중년 남자였음을 지금도 회상하며 피식 웃는다.

우리는 다음해 초청을 받아 정식으로 미세수술 강좌를 개강했다. 그 이듬해인 1977년에는 영국에 있는 에티콘(Ethicon) 실 회사의 기증으로 수십 박스의 미세수술용 실과 비엔나에 위치한 쟈이스(Zeiss) 지사의 호의로 잠시 빌려주는 10여대의 현미경을 쉐마이티스씨가 직접 트럭에 싣고 왔다. 또 나는 어느 회사에서 기증받은 微細手術 기계를 내가 가지고 가서 기증을 했다.

30여명이 지원한 청강생들 중에는 소련에서 4명, 동독에서 5명, 체코, 헝가리, 루마니아 등에서 각 2명씩 있었고, 그 외는 전부가 폴란드 의사들이었다. 공산국가에서 온 자들이라 수업료도 무료인데다 공짜로 실과 기계를 쓸 수 있으니 대단히 배려였다. 그중 동독, 헝가리에서 온 의사들은 꽤 열심히었고 독일과 소련의 의사들간엔 차디찬 안 보이는 얼음벽이 두 그룹을 등지게 하고 있는 것 같았다. 그때 동독에서 온 템플러씨에게 물으니 "원래부터가 東獨과 소련 사이는 그리 친하지 않죠. 선생님, 내 초청을 받아주신다면 그때 자세히 보여드리지요."라고 말했다. 그는 영어회화가 보통 이상이었는데, 소련의 의사들과는 서로 서투른 대로 독어로 대화가 되었다.

< 42면에 계속 >



<41면 이선의 회고록에서 계속>  
 팀플린 氏의 그룹이 듣지 않을 때에 나는 소련의사들에게 물었다. "스프라첸 도이취?" "네, 그럼요... 동독이나 소련이나 같은 공산국가이므로 서로간에 부드럽고 친한 대화를 나누리라고 믿었는데 어찌된 영문이지?"란 질문에, "강도들의 후손들인데 어찌 우리들 억지로 친할 수가 있나요? 독일과 소련은 결코 친분을 가질 수가 없지요." 나중에 알고 보니 선전들 중에 꼭 여러 명이 스탈린그라드(Stalingrad)에서 독일군에게 멸살(滅殺)을 당한 사실이 있었다고 한다.

1978년도 두 번째 감회는 전번보다 나의 부담이 적었다. 미세수술에 필요한 실은 제조회사에서 폴란드 의대로 직접 기증이 되었고 수술기기도 충분히 공급되었다. 비엔나에서도 현미경을 씨마이티스氏가 신고 왔다. 이때에는 소련 학생이 한 명도 없었는데 그 이유는 정부에서 허가를 하지 않아 10여명이 지원했으나 참가가 불가능하였다는 것이었다.

<공산국가의 백만장자>

당시 Poland 정부가 종교의 자유를 어느 정도 보장했다는 것은 위에서 언급한 바가 있지만, 이 나라에 백만장자가 생겼다는 소식은 두 번째 해에 들었다. 한 젊은 아이스크림 장사가 백만장자가 된 경우이다. 피아트 자동차 회사가 있는 월셔 지방에 자리를 잡자 그는 비공산 국가들의 여행을 통하여 아이스크림에 갖은 향료와 고소하게 구운 각종 공을 섞은 것을 맛보고서 이를 본받아 재래식의 아이스크림을 개량시켜 정부에 판매허가를 신청하며 아이스크림 한 갤론(gallon)당 불일 이윤과 그중 자기 몫을 인정하면 아이스크림의 판매가 증가될 것이라 제안하였고 정부는 이를 2-3개월 동안 시험하여 그래서 국고 수입여부를 시험하고 이를 승인한 결과, Poland 공산 치하에서 첫 백만장자가 생겼다고 했다. 그래서 차디찬 시월 저녁에도 아이스크림 가게 앞에는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차가운 아이스크림을 즐기며 사람들은 그 재료에 든 다양한 과일 독특한 맛 덕이라고 했다.

Poland에 관한 여담을 하나 더 하면 1967년에 Philadelphia에 있는 Wistar Institute에 초대를 받은 적이 있는데 유대계 Poland 태생인 Kaprosky 원장이 자신의 자랑인 생선 요리를 부엌에서 하고 있을때 병리학자인 그의 부인이 나에게 조용히 아래와 같은 방역예방주사 발명에 얽힌 신기한 일화를 들려주었다.

"글쎄 저 양반은 수년 전부터 Polio Live Virus에 관한 연구를 해왔는데 야외변소시설(open field bathroom facility)에 의존하는 Congo와 Poland 농촌에 가서, 살아있는 세균을 사람들에게 먹여서 소아마비 예방에 성공을 했어요. 이때 동료들이 모여서 그가 성공적으로 oral vaccine을 만들고 투약한 것을 축하하는 자리에서 Sabin이 "그러면 그 살아있는 virus를 사람에게 먹었으니 도대체 몇 명의 사람들이 죽었나요?"라며 비꼬는 듯이 질문을 했지요. 첫째는 Congo나 Poland 농

가에서는 대변을 뜬에서 보는데 파리가 virus를 옮겨 감염이 됩니다. 그러면 그 세균을 체취해서 소위 弱화된 세균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걸 설탕물에 타서 먹이는 것인데 사람이 죽는 그런 부작용은 아직 없습니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 후 Sabin은 그것을 자기가 고안한 것처럼 해서 Sabin Oral Vaccine이라고 Salk의 예방주사와 병용하게 되었으나 정작 창안자인 Kaprosky의 이름은 꼭 빼놓은 거죠." 부인은 무척 원통하다는 듯 Sabin의 간교함을 나무랐다. Kaprosky는 훌륭한 virologist이면서도 생선요리에 일가견을 가진 요리사 같았으며 그가 요리한 생선은 내가 처음 맛보는 놀라운 진미였다.

<共産黨員의 거처는?>

그로히비츠 氏는 그때 청강생으로서 폴란드의 권세있는 공산당수의 사위였다. 그러니 국가가 경영하는 TV NETWORK을 움직이는 것은 몹시 쉬운 듯 보였다. TV 팀이 각 과정의 장기기식수술 시술과정을 중계했다. 그래서 더욱 로윈스키 氏는 나의 거동을 일일이 살펴주었다. "북한 사람들의 접근을 주의하세요"란 그의 당부는 끊이지 않았다. 아닌게 아니라 어느 날 저녁에는 북한 대사관원이라며 전화를 걸어와서는 "교수님, 수고하십니다. 교수님이 나셨다는 '금강산'의 필름이 8mm 와 16mm로 준비가 되어있고, 시간을 허락해 주시면 저희들이 호텔에 가서 상영해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했다. 나는 로윈스키 氏의 충고가 생각나서 "내일은 학생들과 파티가 있고 모래 저녁에는 교수들과 학생들간에 저녁파티가 있어서 모래저녁에 전화를 주시면 그때 '금강산' 映寫시간을 알려드리겠습니다"라고 하며 그 사람의 제안을 정중히 거절했다. 글쎄 아침이 떠나는 날이어서 그렇게 대답해 두었던 것인데 떠나기 전날, 또 전화가 왔기에 "내일 저녁 8시에 필름을 가져오시면..."이라고 적당히 대답하였다. 이 사실을 로윈스키 氏에게 보고하니 "저희들이 특별 보호해 드릴 의무가 있으니 폴란드를 떠나실 때까지 절대로 안심하세요."라고 했다.

그로히비츠 氏의 초대로 저녁을 함께 하려고 같이 가던 로윈스키 氏는 차안에서 "그로히비츠 氏의 집에 가시면 선생님께서 놀라실 겁니다. Frank Sinatra와 Dean Martin의 노래도 흘러나올 테고 미국에서 들어온 온갖 사치품을 많이 장만해 놔둔 테니까요." 정말 집 문턱을 들어서니 전장에서 방바닥까지 달을만한 쿠바의 Fidel Castro가 가져왔다는 거북이등의 껍질을 보고 깜짝 놀랐다. 시나트라와 델리디를 들으며 오래간만에 비프스테이크와 위스키로 저녁을 즐겼다. "이 집에는 하루건너 검은 차가 와서 필요한 물품들의 꾸러미를 떨어트리라고 간담니다."라고 로윈스키 氏가 말해 주었다. 이 당시에 권력 있는 사람들은 평민들과 비교할 땐 천양지차(天壤之差)였다. 평민 가정주부들은 돼지족발 몇 개를 사려고 아침부터 정육점 앞에 늘어선 장사진 속에서 자기 차례를 기다려

야하고, 반나절은 식료품을 구하느라 시간을 보낸다고 한다. 물론 정부의 방침으로 미국이나 독일에 팔아 달러(dollar)나 마르크(mark)를 벌기 위해서 돼지고기를 햄(ham)으로 만들어야만 했기에 평민에게 돼지족발 밖에 차례가 안 간다고 했다. 공산체제의 붕괴후에도 그로히비츠 氏 가족들은 집장은 사람들인지만 봉변을 당했다는 것과 같은 후유증이 없는 것 같았다. 2년전에 열렸던 미세수술학회에 그로히비츠 氏가 다시 나타났다. 그는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잘 살고 있다며 전과 다름 없게 나를 후대 해주었다.

<IV> 人種차별의 남아공에서

1971년 2월에는 남아공의 Cape Town 대학의 초청으로 '특별 외교교수로 6주간 초대를 받아 에티콘 회사가 기증한 미세수술용 실과 현미경 2대를 가지고 Johannesburg 공항에 내리니 그곳은 백인들의 천당인가 싶었다. 집을 나르는 자에게 25센트를 주니 "Thank You, Master"하며 허리를 굽히고 사라지는 흑인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더니 "Professor, 호텔로 가시지요!"라고 한다.

호텔 로비에 도착한 우리들은 신문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느라 여념이 없었다. "선생님들은 백인도 흑인도 아니어서 이 나라에 오신 것이 좀 어색 하실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좌우간 우리 나라에 오신 그 첫 인상은 어떠하신지요?"라는 질문에 나는 "네, 조하네스버그 공항에 내리는 동안 붉은 모래산더미들을 많이 봤는데 그것이 모두다 金藏 이라요? 꼭 부유한 나라인 것 같습니다. 그 외엔 비행장에서 곧바로 호텔로 왔기 때문에 며칠 더 지내봐야 당신네 나라에서 받은 인상을 말할 수 있겠지요."라고 대답했다.

아시아계의 의사로서 그러니, 黃人種의 교수가 역사상 처음으로 백인들을 교육하기 위해 남아공에 초대받은 일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했다. 보스만 교수의 말에 의하면 얼마전 크리스찬 반하드의 심장수술을 구경하러 日本에서 온 일본인 의사가 왔다가 다음날 비행편으로 되돌아갔다는 것이었다. 검은머리에 검은 양복을 입은 일본교수는 검은색 가방을 짊어지고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렸는데 그들 백인전용 버스도 안태워주고 흑인전용 버스도 안태워줬다는 것이다. 그날 밤 호텔에 도착한 일본교수는 즉시 일본 대사관으로 급히 전화를 해서 "나는 京都대학의 000교수인데 오늘 난 모욕을 당했소. 일본은 철광을 남아공에서 수입해 각종 승용차들을 만들어 이 나라에 수출하는데 도대체 그 교역국인들이 흑인 취급도 못 받는단 말이요?"라고 항의했다고 한다. 그래서 일본 대사관 책임자가 보스만 남아공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이 일을 항의했고 그 다음부터 일본인들은 왼쪽 호주머니에 일본국기를 붙이고 다니면 소위 " 명예백인(honorary white)"의 대접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이튿날 아침 우리는 케이프 타운 대학 객관(客館)에서 기거하기로 했고 내 아내는 매일 각 교수의 부인들이 교대하여 같이 상점에도 가고 관광도 했

는데 도무지 자유롭지 못하다고 했다. 그래서 허녀에게 물으니 "당신들은 백인도 흑인도 아니니 아무 버스를 타도 무관할 것입니다."라고 했다.

아내는 하루는 피곤하다는 이유를 대고, 모교수 부인의 차를 사용하라는 호의를 물리치고 혼자 외출하기로 했다. 각 버스 운전사들과 상점 점원들도 신문에서 본 내 아내의 얼굴을 기억한다고 했다. 상점들이 즐비한 사거리 번화가에 내렸다. 몇 시간 후 버스 정류장에 가서 기다리니 버스가 멈추지 않아 옆에 있던 백인여자에게 물으니 "당신 전용버스가 이제 막 왔습니다. 타세요."라고 말했다. 버스는 그녀와 내 아내를 客館까지 잘 데려다 줬다. 아마 특별 백인 취급을 당한 것 같았다.

객관의 우대는 굉장했다. 3명의 흑인 남녀가 있었는데 한사람은 집안 정리, 한사람은 음식주문과 식당책임, 또 다른 한사람은 빨래 책임을 맡았다. 도착한 날부터 2주간동안 봄무개가 부쩍 늘었다. "너무 편하게 지내셨을 까? 이례서는 안되겠다. 아직도 4주나 남았는데... 객관에서 아파트로 옮기는 수는 없을까?"라고 나는 생각했다.

중국태생의 3세가 되는 의대생의 삼촌이 華僑 교민회의 회장이란 말을 듣고 그 모임에 가서 하루저녁을 화교들과 함께 할 기회를 가졌다. 한 화교가 말했다. "우리 中國태생들은 우리들끼리의 결혼이 허락되는데 白人과는 안됩니다. 그래서 중국본토나 홍콩에 가서 결혼하는 사람들이 많으나 부인이나 남편을 데려오기는 절대로 불가능해요. 지금은 중국태생들이 동족과 이 나라에서 결혼해 가정을 이룬다는 게 어렵지요. 그래서 일단 외국에 가서 결혼한 사람들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답니다. 백인이 아닌 인종들과 결혼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지요. 교수님, 이번에 오셔서 정부관계자들과 대화할 기회가 혹시라도 있으시면 이런 문제에 대한 여론을 거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실인즉 보스만씨의 매부가 上級법원의 판사였기에 두어 번 파티석상에서 이런 얘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다. 남아공화국의 실제 재판과정에서 30여종의 사투리를 통역해서 판결까지 내내 어려운 절자라고 했다.

하루저녁은 印度태생의 의사회원들과 저녁을 함께 할 기회가 있었는데 간간이 들려오는 그들의 대화는 내가 일제시대 때에 대화를 다니며 느끼던 그런 장면 같았다. 그중 영어를 능숙하게 하는 한 의사의 말에 의하면, 비밀경찰에게 쫓겨 일주일전에 7층 건물에서 떨어져 죽은 친구는 자기와 같은 의대를 다니던 동창이었다며 눈물을 글썽거렸다. 그 파티에는 백인도 섞여 있었는데 아내가 의아해서 물었더니 "나는 선조가 흑인이었기 때문에 나는 얼굴은 백인 같으면서도 백인전용 버스에 못 탑니다. 들리면 정역에 가니까요"라고 말했다.

로데시아 어느 촌에서 무명씨의 편지를 받은 적이 있다. 편지의 내용은 "귀하는 오직 白人天下에 초대받아 오신 황인 교수이십니다. 南亞共은 정말 너무나 불공평한 나라입니다. 이 나라에서는 비위에 거슬리면 덮어놓고 시연해

막을 다 듣기도 전에 형벌 언도를 받는 나라입니다. 미국의 사법제도처럼 배심원 제도가 있다면 나도 자백해서 법대로 처벌을 달게 받겠습니다."란 내용이였다.

南亞共 노동계급에 속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性은 물론 생일이 언제인지도 모르거니와 케이프 타운 시내에서는 흑인 노동자들이 사는 주택이 없으므로 특별한 차편을 이용해서 새벽 5시에 일을 왔다가 저녁 늦게 서아 숙소에 돌아간다고 한다. 대부분의 교수 집에는 적어도 두어 사람의 고용 일꾼들이 있고 또 포도밭에서 일하는 15-16세 되는 청소년들은 금요일이면 품값을 받는데 그날은 포도주를 많이 마신 후 서로 싸우는 풍경을 볼 수 있다고 한다. 서로 칼부림을 해서 병원에 실려오는 흑인 젊은이들은 간단한 局所 소독이나 해우고 출혈이 멎으면 집으로 돌려보내다고 한다. 미국 외과환자의 경우 흉곽이나 복강이 칼에 찔렸으면 병원에 입원을 시켜 24시간 경과관찰을 하는 것이 우리들의 치료과정이다.

매일 아침 TV 모니터를 통해 각 장기이식의 시범을 보여주었고 오후에는 각자가 녹화된 테이프를 보면서 실습을 했는데 꽤 열심히 하였다. 그해까지도 남아공엔 TV가 각 가정에 보급화되지 않아서 우리 객관에도 TV는 없었다.

화교회장의 알선으로 남은 4주간을 새로운 아파트에 들어가 살게 되었다. "우리 식료품 상점에서 회계를 보는 백인여자가 얼마 전 새로 지은 아파트의 지배인이 되었어요." 그의 딸이 6개월 이내의 입주자는 정식 임대 안되고 한달치의 월세만 내면 된다고 했다. 아내와 함께 남아공에서 살림을 차리자니 적어도 기본 세간은 마련해야 했으므로 침대쉬트는 물론 냄비, 그릇, 수저, 그리고 市場에 준비하게 전시된 각종 생선들을 우리 손으로 직접사서 맛 볼 수 있으니 이때는 제 2의 蜜月생활 같았다. 그렇지만 고추장 생각이 났고 김치는 담가 먹었지만 입에 맞는 다른 식료품은 화교회장의 식품점에서 구입 할 수 있었다. 골동품상을 둘러보니 옛날 중국 玉이 꽤 많이 있었는데 값도 싼하고 그 가치를 주인도 잘 모르는 듯 했다. 주인 할머니가 평생을 보여주는데 자기 조부님이 과거에 동양에 공사로 간 적이 있어서 金剛山에도 다녀오셨다며 금강산 만한 집은 세상에 둘도 없다고 했었다고 한다.

남아공의 명물은 금, 다이아몬드, 각종 맹수(猛獸)가 케이프타운 공원에는 원숭이(baboon)들이 있는데 원숭이들은 물을 먹고 싶으면 자동차 앞 유리에 앉아 운전사가 앞 유리를 닦는 물을 틀기만을 기다렸고 운전사들도 그것을 이해하고 물을 틀면 원숭이들은 그물을 마셨다. 미국의 2월은 추운 겨울인데 케이프 타운은 여름 한창 이어서 포도가 주렁주렁 넘칠에 달렸고 수박을 먹으며 더위를 잊으려는 공원에 나온 '천사'들의 모습은 지금도 기억에 새롭다. 한 흑인은 눈이 오른쪽으로 일그러졌고 그 옆에 있는 사람의 입은 왼쪽으로 일그러졌는데 그들은 합창으로 노래를 했다. 그들의 여흥시간을 필름에 담지 못하고 온 것이 유감이다.



<42면의 이선의 회고록에서 계속>

### <세계 최초의 心腸 移植醫 만하드 博士>

"크리스찬 만하드가 내려와 인사 했나요?"

"아직 안 내려오셨는데요. 제가 올라가 봐야지요. 그런 이름난 분이 데..." 외과과장과 나 사이의 문답이다. 3년 전에 크리스찬 만하드 氏는 일조일석에 유명해진 세계 최초의 사람 심장이식의로서 외과과장은 만하드 氏에게 이선 교수를 천히 접대하라고 명했다는 것이다. 둘째날 만하드 氏가 나의 강좌에 참석하여 나의 쥐의 심장이식을 참관하고 펍 재미있다고 했다. 끝난 후 2층 자기 사무실로 천히 초대를 하였다. 문 밖에는 그가 새로 결혼한 23세 미모의 아내의 전신 유방과 아래만 가린 천연색으로 실물과 똑같이 cardboard로 오려서 만든 것이 걸려있었다. '환영합니다'라는 문구가 입으로 나오게 했고 오른손으로 'welcome'을 표시했다. 그 방엔 여러 액자가 걸려 있었는데 미네소타 대학에서 훈련받은 증명서가 눈에 띄었다. 그 증명서에는 유명한 왕겐스틴(Wangenstein), Lillehei, Varco 교수들이 서명을 했었다. "왕겐스틴 교수가 1만(萬) 달러를 도와줘서 케이프타운으로 돌아올 때 흉곽수술기계를 구입했습니다." 루과장은 만하드 氏가 너무 유명해서 Italy에 초대받아 갔을 때 지나 톨로부리지다와 춤추는 장면을 찍은 사진을 보고는 진작 불순한 의사라고 짐을 찍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최근 본 부인과 헤이지고 金鏞德大 [광산주인과 계약을 맺고 그 광산의 일부를 떼어 맡아 광부를 데리고 채광하는 사람]의 딸과 재혼 한 다음부터는 냉대 받는 것 같다고 했다.

남아공은 가끔 영국식으로 저녁 파티를 열었는데 검은 양복정장을 구해야 했다. 겨우 구한 것이 겨울 용 양복이었는데 그것을 차려입고 간 여름철의 파티는 정말 나에게 곤역이었다. 휴일에는 유명한 코우카 동물원도 갔는데 사파리 관광차로 사자들을 구경하며 하루를 보냈다.

케이프 타운을 떠나는 전날, 대학 객관에 찾아가서 세 명의 종업원에게 각각 5달러를 주니 그들은 처음 이렇게 많은 돈을 먼저 받다고 말하고 우리 주소를 달라며 평생을 우리 집에 와서 살고 싶다고 했다. 우리가 살던 아파트 뜰은 꽤 넓었는데 그들은 자기의 생일도 모르고 자기 아버지도 본 적이 없다며 하루종일 가위로 풀 깎기에 여념이 없었다. 손으로 한 일주일씩 쪽 돌다가 깎노라면 다른 곳에서 풀이 자랄텐데 풀 깎는 기계가 과히 비싸지 않을텐데 안쓰는 것을 보니 노동임금이 더 싸서 그런가?

타조 알 톨을 선물용으로 포장해

서 휴대가방에 넣었는데 케이프 타운 공항에서 야단이 났다. 한 조사관이 가방의 걸만 먼저보고 혹시 폭탄 같은 것이 아닌가 의심을 해서 동료 검사관을 불러오니 "아마 새알일꺼야. 나와 내기하지." 펍 웃으며 내용을 확인하고 갈갈대며 웃음판이 벌어졌다. 미국에서 온 교수라고 했더니 검사도 대충했고 출구로 나왔다. 그런 줄 알았으면 토인이 쌀과 바께 먹겠다고 하던 다이아몬드 原石(uncut diamond)나 샀을걸...!

#### <V> 이태리의 명품

로마대학의 의탁으로 코테시니 박사의 일을 봐주던 이태리의 Milan의 몬토로시 박사의 초청으로 마리

사람이 "Gentlemen, 제발 남의 발을 밟지 마세요"라고 외치니, 이 때 승강기 안에 있던 사람들은 배를 움켜쥐고 갈갈 웃어댔다. "You already know we are shoe buyers?" (알다시피 당신들은 우리가 신발 구매자들이라는 걸 아시는가봐요?)

한때는 불란서에서 사람들이 이태리산 포도주를 싸게 사러왔었다고 한다. 이태리산 포도주에다 비싼 "Made in France"만 붙이면 수배가 값이 된다고 했다. 이런 밀란에 물러든 미세수술법을 배우러온 친구들은 제각기 자기 학교에 내가 방문하기를 권했다. 이전에 연구 한 바 있는 파도와대학의 페라치아 박사의 초청으로 베니스의 관광을 중단하고 그 대학에서 강의를 맡게 되었다. 의학역사를 좋아하는 나는 그때 아주 익살꾼인 해부학 교실 수위가 말한 "훌륭한 해부학자 의사가 되려면

이태리 병사는 끝끝내 실패하지 않았대요. 그가 그렇게 말을 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왜일까요? 그가 그렇게 용감한 병사였을까요? Hell, NO! 천만해요. 그가 말을 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이태리 병사의 두 팔이 꼬꽂 묶여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태리 사람들은 낭만적인 대가 많다. 한번은 피사탑을 방문했는데 피사탑 옆에 있는 한 식당에 갔더니 우리가 미국에서 온 것을 알고 영어로 쓴 편지 한 장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다. 내용은 병을 앓다가 많이 나왔고 완쾌하면 피사탑 옆에서 함께 춤을 추겠다는 내용 이었는데 'dance'란 말이 나오니 부부가 서로 얼싸안고 춤을 추는 것이었다. 내용도 잘 이해하지 못했지만 'dance'란 말엔 그들이 즐기는 낭만적인 위안인 것 같았다.

1981년에는 이태리 시실리 카타니아(Catania) 대학에 로돌리코(Rodolico) 교수의 초청을 받아 마피아가 자주 출몰한다는 카타니아 대학에 가게 되었다. 그곳 교수진도 마피아 대장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로돌리코 교수 밑에 있는 디카탈도(DiCataldo) 강사의 경우 그는 카타니아 시에 속하는 주임판사의 손자였다. 미국에 다녀와야 조교수자리를 얻는다며 나를 초대한 것이다. 그러면 '이선' 교수가 도대체 어떻게 이름이 알려졌을까? 더욱이 이태리 대학가에? 내가 강의할 시간과 장소에는 디카탈도 강사의 할아버지(판사장)와 3명의 판사장 경호원들이 카타니아 대학 대강당에 자리를 잡고 있었다. 운전기사는 자동차에 일초라도 눈을 땔 수 없었고 경호원들은 판사장의 경호에 급급했다.

그 달은 강의도 무사히 끝내고 다음날부터 미세수술 강좌에 들어갔다. 일주일간을 마치고 디카탈도 氏를 초청하여, 수개월간 연수를 시켰다. 그 후 로돌리코 박사가 정년퇴직을 하면서 디카탈도 氏는 부교수가 되었고 카타니아 대학에서 개최한 제 5회 국제 미세수술 학회를 디카탈도 氏에게 맡긴바 그가 원만히 학회를 진행시켰다. 배경이 좋은 연고로 그의 승진은 막힐 것이 없게 되었다. 한국에서 연수나온 洪氏와 벨기에에서 사는 채영호 氏의 숙박도 그 학회에서 몸소 편의를 도모해 준 것으로 알고 있다. 그는 마침내 국제 미세수술 연구회장 (President of the International Society for Experimental Microsurgery)이 되었고 제 6회 국제 미세수술 연구 학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물론이다.

여러 번 이태리 각지에 초청으로 다니던 때에 자기 힘을 다해서라도 우리에게 가까워지기를 원하는 매소니(Massoni) 氏라는 한 사람이 있었다. "나는 당신과 같이 애들이

여섯 명인데 아직 어려요. 아무래도 이태리에서는 교육이 불안전하니 미국으로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형' 신세를 저야 하겠습니까." 사연을 알아보니, 그에게 발본토니 병원 외과 과장직을 내 놓으리며 그의 포르쉐 자동차에 타이어들을 모조리 갈로 찢어 놓았다는 게 아닌가? 그러나 이 나라에선 애들 교육 생각이 까마득하며 '이교수님, 이 선생님, 이형'등의 이름을 번갈아 부르며 미국에 와서 La Jolla에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기를 바랬다. 나도 거절할 수 없어서 "당신이 보낼 수 있는 돈을 나에게 보내주면 내가 그 돈을 이용해서 당신의 살림을 La Jolla에 장만해 줄 수 있다고 했다.

5만 불을 보내왔다. 잘 아는 복덕방을 통해서 5만 달러를 밀돈으로 집을 La Jolla에 샀다. 이듬해 5만 달러를 더 받고 같은 건물을 팔게 되었고 조금 더 보낸 돈으로 여기저기 부동산을 구입했다. 독일태생 복덕방 주인도 열심히 도운 결과 그들 부부와 여섯명의 애들이 미국에서 공부를 할 수 있게 되었음은 내가 해준 가장 기쁜 선물로 생각되었다. 때로는 그의 건물에 도둑도 들고 그가 세를 주는 집의 입주자들이 마약을 먹고 파는 등 불미한 일들이 있었지만 그의 큰아들은 하버드 의과 대학에 그의 막내딸은 시카고 의대를 거치는 등 그의 6남매의 출세는 내 아이들의 일처럼 흐뭇했다.

그러나 그렇게 이태리에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미국에 와서 캘리포니아 의사면허도 따고 했지만 뜻하지 않은 파킨슨(Parkinson's disease) 병마엔 매소니 氏도 손을 들어야 했다. 그가 신음하기 시작한 지 6년, 그 동안 살던 집은 일백만 불에 팔리고 그 부인은 La Jolla에서도 조그마한 저택이지만 펍 아담한 집에서 의식불명에 몇 년이나 시달린 남편을 섬기면서 꽃가꾸기에 여념이 없다. 나와 독일태생 복덕방 주인 카스(Karsten) 氏의 주선으로 여기저기 널려져있는 집들의 세를 받으며 그들은 부유한 그날 그날을 보내고 있다. 끝끝내 매소니 氏는 2003년 5월에 고인이 되었다. 그 시절의 이태리의 정치적 경향을 살펴보면 좌편에 기울어져 있는 젊은이들이 많았고 노골적으로 빨간머리띠를 두르고 북을 두드리며 열을 지어 데모하는 젊은이들의 모습이 한국학생들이 가끔 그렇듯 오공 정부 시대를 상상케 했다.

#### <VI> 停電속의 名講

그해는 이태리 전국외과 학회가 밀란 약학대학의 대강당에서 열려 연사로 초청을 받았는데 새로 지은 이 강당은 전부가 전기 열쇠장치가 되어있어 내부에서나 외부에서나 어떤 전기 열쇠장치를 쓰지 않으면 열 수가 없게 되어있었다.

<44면에 계속>



(1) 좌측 상단- 1981년도 남아공 CapeTown에서 열린 국제 학술대회장에서 의 필자(중앙) (2) 좌측 중앙과 우측 상단-1981년 남아프리카 공화국 Capetown 대학강좌에서 실험시간에 나의 수술과정을 관찰하고 있는 Dr. 크리스찬 만하드(세계최초의 심장이식 수술을 실시함)와 그의 동료들. (3) 중앙과 우측 하단-파티에 초대받은 필자부부와 초대장 (4) Bench Surgery에 대한 Cartoon장면 - 체내에서 장기를 일단 꺼낸 후 수술 조작 등을 한 후 다시 체내로 넣어 주는 개념인데 미세수술 기법이 요구됨

오 네그리 강당에서 3-4년간 내내 일주일씩 미세수술 연수지도를 책임 맡게 되었다. 폭스 조교수의 알선으로 전에 강좌에서 배운 수강생들이 강사를 맡아보게 되어 미세수술 강좌는 하기가 한결 쉬워졌다. 밀란은 본래 상업의 도시이고로 프린스 데 사보야 호텔엔 각 나라에서 온 구매자들로 초만원이 이루어졌다. 이태리 구두를 사러왔다는 사람들이 호텔 승강기를 가득 채우고 있었다. 한

죽은 사람의 위의 내용물을 직접 맛 봐야한다"란 말이 생각났다. 그는 제법 팔로피, 모개그니, 싘토리니 박사들의 화상 앞에서 그럴듯한 gesture를 보여줬다. 말을 하면서 그는 덧붙였다. "지금 생존해 계신 치플리니니 박사가 말씀한 농담입니다. 세계 2차대전때 이태리 병사와 영국 병사가 함께 독일군의 포로가 되었답니다. 영국군인은 금세 중요한 군사기밀을 적군에게 고백했지만



43면 이선의 회고록에서 계속

그런데 나도 청중도 그것은 과념치 않고 있었다. "미세 수술적 장기 이식 연구가 미치는 임상장기이식에 관하여..."라는 주제로 강의를 시작했다. 세 번째 슬라이드를 보여주며 강의하는 도중 누가 밖에서 스위치를 내리는 바람에 정전이 되고 아무도 밖에 나갈 수도 없을 뿐더러 창문도 못 열게 되었다. 손짓발짓을 다해가며 각자가 왈차지컬하며 떠드는 이태리 외과의사들에게 나는 성급히 제안을 했다. "여기 있는 분들 중에 영어통역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내 옆으로 나오세요." 어둠을 더듬으며 재빠르게 2명이 내 곁으로 나왔다. "자, 그러면 내 강의주제를 바꿔서 '回春(Rejuvenation)'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人生은 젊을 적엔 별 느낌이 없으나 늙어가면서 젊음을 되찾았으면 합니다. 1849년에 Bechthold 박사가 수탉의 性器를 다른 닭 배속에 넣고, 그 닭의 성기를 다 제거한 결과 그 닭은 여전히 수탉으로써의 행세를 했지요. 부라운 씨가드 박사는 모르모트의 고환(辜丸)을 갈아서 식염수에 섞어 며칠동안 자기 피부(皮下)에 주사를 놓은 결과 계단을 오르는데도 힘이 덜 들고 오줌줄기도 세져서 쉽게 눌 수도 있었으니 그는 젊음을 되찾은 것 같다고 생각하였습니다. 1900년대에 들어서는 어린이의 고환을 사고 파는 것이 특히 독일에서 성행되었고 한 농부가 아이의 고환을 중간상인에게 4 마르크에 팔고 어떤 부자영감이 다시 그 고환을 9 마르크를 주고 사서 자기의 음낭(scrotum)에 넣은 결과를 자랑하더군요. "그놈이 제법 발기를 잘하더라구요" 하면서..." 어둠 속에서도 청중들은 웃음을 참지 못했다.

英國의 Wilson 영감님 얘기도 재미있었나보다. "하루는 74세가 되는 노인이 철봉에 매달려 턱걸이를 하고 있는데 울퉁불퉁 솟은 팔의 근육을 오고가는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있었다요. 마침 마차를 타고 그 앞을 지나던 은행장이 물었답니다. '당신은 몇 살이며 어떻게 그리 젊은 사람처럼 운동을 하죠?' '네, 나는 74세인데 며칠 전에 수주간 여행 차 비엔나에 갔었는데 그곳에 있는 Steinach 교수의 수술을 받고 이렇게 젊어졌습니다.' '월슨 氏의 수술절차를 얘기들은 은행장이 말했답니다. '월슨 氏, 내일 모레 우리 모임에 와서 시내 대강당에서 강연을 좀 해주세요. 강의 주제는 'I was rejuvenated by Prof. Steinach in Vienna'란 제목으로 말입니다. 그러면 강의에 대한 사례는 두둑히 드리리다. 내가 마차를 이곳으로 보낼 것이니 약속시간 30분전에 이곳을 나와주세요.'라고 말했대요. 그 은행장은 늙은 친구들이 많으니 하루 종일 통지를 해서 약속시간 내로 모

두들 물러왔습니다. 그러나 강연을 해야하는 연사의 마차는 10분, 20분, 30분, 40분이 지나도록 보이지 않았지요. 그는 특사를 월슨 氏가 기거한다는 곳으로 보냈습니다. 조금 있다 달려온 특사의 말에 의하면 월슨 氏는 술병 옆에 누워 고이 세상을 떠났다고 전했습니다. 며칠동안 부타페스트(Budapest) 신문사 설에는 특별 보도가 이렇게 나왔죠. '금방 담근 술을 낚은 병에 담으면 병이 깨지는 법인데 월슨 氏의 경우와 무엇이 다르단 말인가?'라고요."

이런저런 강의를 감감한 강당에서 하고 나니 늦은 아침때가 되어 있었다. 전기가 다시 연결되어 불이 환한데 청중들은 조용히 앉아서 듣고 있었다. "산 켄틴 형무소에서 絞首刑을 당한 흑인 죄수의 고환을 떼다가 몸이 축 늘어진 젊은 불구자 죄수에게 이식한 결과 스탠리 박사의 진단에 의하면 그 불구자는 불과 2주안에 별떡 일어나 전에 자기를 '스라소니'라고 놀렸던 동료죄수들을 쥐어박는 에피소드가 있었다요. 그래서 형무소 소장은 그 이식 받은 자를 힘든 일을 나르는 일을 시켰다는 것이 AMA(美의학회)에 실려 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Voronoff와 알렉산드루스쿠(Alexandruscu)는 원숭이의 고환을 이식했고 우리들은 미세수술법을 써서 쥐들간에 이식을 했는데 현재 미국 어떤 병원에서는 성전환 수술로써 여자로 변하는 일이 있어서 여러 종류의 성기(penis)들이 버려졌으니 만약 성기암(penis cancer)이나 혹은 어떤 사고로 인해서 性器가 잘라져 그것을 재조합 못하는 경우 그 버려진 성기들을 이식해주는 것이 옳지요."

이렇게 끝을 맺으려는데 문토시 교수가 'Professor, 우리들이 벌써 성기이식을 했지요.' "그럼, 환자의 수술후의 경과보고 문답이 되었나요?" 나의 이런 질문에 "예, 환자 Giuseppe는 매일 밤 그것으로 즐긴다고 말하던데 그 부인을 인터뷰한 결과 '그후 주세페는 절대로 내방에 오지 않았어요'라고 하더군요." 이런 문답이 진행되는 동안 청중들은 깔깔 웃어댔다. 'Professor Lee, 그것은 오로지 fiction이지요. 우리 나라의 종교는 카톨릭인데 만일에 주세페가 자기 부인의 방에 들락거렸다면 소위 姦通罪로 부부가 잡혀가 곤역을 당할 것입니다. 몸은 주세페의 몸이지만 성기는 다른 사람의 것이니까요.' 그렇게 웃음소리 가득한 어두웠던 대강당을 등지고 나는 스페인으로 향했다.

<Ⅶ> 東瀛의 초라한 모습

1979년 초가을, 덴마크 코펜하겐 공항에는 무사히 내렸으나 미세수술용 실을 담은 짐이 도착하지 않아서 비행사에게 물어보니 뉴욕에서 갈아탈 때 미쳐 실지 못해 다음 비행기편에 올 거라고 했다. 실이 없으면

동독에서의 강좌는 무엇으로 할 것인가? 6시간을 꼬박 비행장 근처에서 해매다가 기진맥진이 되었지만 드디어 텅텅털링 짐 벨트를 타고 나오는 수술용실을 실었던 트렁크가 몹시 반가웠다. 이제는 동독 바네문데까지 가는 항구까지 몇 시간동안 버스로 덴마크 산골길을 달려 연락선을 탔는데 이미 저녁때가 되었다. 큰 버스도 다른 기차 칸들과 함께 실렸다. 약 한시간 후에 바네문데에 배가 다다르니 템플린 氏가 기다리고 있었다. 템플린 氏는 우리를 맞이하며 말했다. "이 선생님이 약속대로 꼭 오실 것을 믿었습니다. 만약 오지 않으셨더라면 저는 대학에서 퇴직 당했을 겁니다. 이 항구에서 꼬박 7시간을 넘게 기다렸는데 기다린 보람이 있군요."

로스탁까지는 버스로 파히 멀지 않았다. 호텔은 造船회사 근처였는데 바다를 내려다 볼 수 있고 깨끗하게 정돈된 객실 이었다. 버스를 타고 로스탁으로 가던 도중 템플린 氏가 말해주던 주의사항이 몇 가지 있었는데 그중 호텔에 들어가면 중업원들을 조심하라고 했다. "동독에는 과거의 자본가들의 자식들이 공산당원이 되려면 우선 프로페타리아 교육을 받아야 하고 적어도 2년 동안 막노동터에서 일을 해야만 그 자격을 얻을 수가 있고 대학에도 입학할 수 있는 혜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호텔에서 일하는 젊은이들은 정부요원(Agent)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로스탁에서 짙은 필름들은 전부 검게 노출되어서 나왔다.

東瀛에서는 옛날에 현미경도 만들어 외국에 수출했는데 이번 강좌에는 겨우 3대의 현미경이 마련되었고 그나마도 수술용 실을 안 가져갔다면 미세수술 강좌는 원만히 진행되지 못했을 것은 분명하다. 그들이 마시는 tea나 coffee는 긴 유리잔으로 마시는데 caffeine이 많이 들어 있어서 1/3로 줄이라고 했고 담배도 금연을 요구했다. 청중은 열심히 자기가 원하는 장기 이식공부에 여념이 없는 것 같았다. 거기서 쥐의 마취 등 여러 일을 시중 들던 젊은 여성은 잠깐 있으면 자기 사정을 호소했다. "저는 오래 전부터 희망이 자유로운 나라에 가서 대학을 다니며 제가 좋아하는 디자인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도와주세요." 몇 해후엔 동서독일이 합했으니 지금쯤 그녀의 희망이 이루어졌으리라.

목요일 일찍이 강연과 실제 데모를 끝내고 템플린 氏의 라다(소련제 자동차)를 타고 로스탁에서 그라이스왈드 연구소(레플러가 결핵균(TB)를 발견한 연구소)을 찾았다. 그라이스왈드 연구소로 가던 도중 산더미처럼 쌓아놓은 감자 무더기가 여기저기 보였다. 쥐들이나 산짐승들이 몰고 가지 않느냐고 물었더니 템플린 氏의 대답이 "그놈들이 얼마

든지 가지고 가도 우리 동독엔 식량이 남아 돌아가지요." 템플린 氏에 의하면 농림대학이 여러 군데 있어서 그 분교에서 남녀가 공학을 하는데 농사에 관한 것 즉 비료, 토지분석, 소, 말, 돼지의 인공수정, 조그마한 농장기구, 식료품 저장과 영양에 관한 것들의 전부를 공부하는 고로 농촌의 젊은이들의 결혼문제는 물론 분교진학, 취직 문제등은 자잘로 해결이 되므로, 한국의 농촌에서 있다는 노총각의 비애는 상상하기도 어려운 것이라 했다. 그라이스왈드 연구소는 다윈의 진화론을 존중해서 각종 짐승의 해부학 건본이 준비하게 저장되어있는 귀중한 박물관 이었다. 박물관장은 "소련군이 와서 별 것을 다 가지고 갔건만 이것들은 포르말린 냄새가 너무 나서 가지고 가지 않았기에 다행히 이렇게 남아 있지요."

그라이스왈드 대학 해부학 강의실 강당은 옛 1700년 때의 그것을 그냥 그대로 보존했기에 붙었더니 유럽에는 이런 해부학 교실이 세 곳이 있다며 본래의 것은 이태리 파도와 대학에 있고, 또 하나는 스웨덴의 읍살리에 있다는 것이다. 훗날들을 각자가 들고 교수가 해부하는 것을 내려다보며 공부하는데 시체는 학생들이 얻어온 금세 죽은 시체를 들것에 실어 신호를 하면 학생들이 네모에 달린 밧줄을 당겨서 교수가 집도하는 수술대 상 꼭대기로 운반되었다고 했다. 경찰이 한사코 수색하려는 높은 삼층으로 헬레벌떡하며 "너희들 뭐하는 거야!"하고 뛰어 올라오면 그때 밧줄을 이미 늦춰서 시체를 아래로 옮겨 2분 안으로 감춰 버리고 교수는 그저 책만 가지고 강의를 하는데 이미 늦게 올라온 경찰은 '팍'하고 웃으며 계단으로 내려가 버렸다고 했다. 내가 이태리 파도와 대학에 갔을 때 똑같은 인상을 주는 해부학 교실을 보고 물었더니 그곳 박물관장은 밖에 걸린 그림의 장본인들의 이름을 따서 각 기관의 이름을 지었다고 하면서 모개그리, 신탄리니, 팔롭피들을 가리키면서 "글세한 부인이 식사 후에 세상을 떠났는데 해부학 교실에 실려왔지 않니까. 교수의 말이 정말로 의학을 공부하려면 특히 이 부인의 경우엔 꼭 위장을 열고 그 안에 있는 음식물을 맛보아야 한다고 했죠. 교수는 어느새 손가락을 위장 속의 음식물에 찍어서 재빨리 입에다 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실제로 맛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실은 중간 손가락을 위장 속에 넣었다가 반지 손가락을 혀에다 댔다는 거예요." 재빠른 이태리인의 제스처(gesture)가 여기에서도 에피소드를 만들어낸 트릭(trick)이라고나 할까? 폴란드도 그랬지만 동독의 건물들은 정부는 물론 주민들은 자기의 소유가 아니라서 그런지 건물수리도 페인트도 안하고 사는 것 같았다.

계단에 벽돌들이 떨어져있어도 그것을 피해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었다. 그러나 중병으로 앓고 있는 동독의 환자가 서독에 가서 치료를 받으려면 정부의 허가를 받아 서독에서 치료할 기회를 주고 화학치료사이자 자궁암 환자인 템플린 氏의 부인도 그 혜택을 받아 정기적으로 치료를 받으러 서독에 올 수 있었다. 여자 60세, 남자 65세이면 서독에 가서 살 수 있도록 제도가 되어있어서 나도 몹시 그제도가 부러웠다. 자유... 자유를 찾을 날을 기다리는 동독의 젊은이들!!

동독을 방문하는 것이 그때가 두 번째였다. 첫 번엔 2년 전 베를린을 거쳐 동독에 왔었고 그때 동독에서 교수로 있던 몇 분들이 사는 곳도 방문할 기회를 가졌다. 로스탁에서 베를린으로 기차편을 이용했는데 "저기 숲 속에 소련군들이 주둔하고 있는데 행동이 야만인들과 흡사합니다." 함께 탄 젊은 승객이 이렇게 말을 하고는 쭈욱 돌아보더니 베를린에 닿을 때까지 다른 아무 말도 없었다. 출구에서 빙빙 돌아 서독 베를린에 닿으니 마음이 훌가분해졌다. 동독에서는 호박(amber) 목걸이 두 쌍을 샀는데 "이 호박(琥珀)은 카메라대 동부 소련에서 생산한 것으로 참 좋은 목걸이입니다." 동부 소련산이라... '나는 되뇌며 하얀 호박 한 쌍을 장만했다. 로스탁에서 떠날 때 비노기과 담당교수가 선물 이 있다며 조금 기다리라고 했다. "2주전에 북조선 팀으로 구성된 의사들이 와서 3주간 임상신장이식을 습득하고 갔는데 저에게 준 선물들입니다." 보니 독일말로 쓴 소위 '위대한 수령님 김일성 장군의 일생'이란 제목의 책 두 권과 12매의 금강산 엽서였다. 책들은 부기워서 못가지고 가겠고 엽서만 가지고가서 슬라이드로 만들어 친구들과 함께 즐기겠노라 얘기했다.

<Ⅷ> 스위스에서 이집트까지

1981년은 우리로선 너무 빨리 지나가는 영화같았다. 일정이 빠듯하게 짜여져 있었기 때문에 인도에서의 초청을 거절했으나 이집트, 그리스, 스위스, 중국, 그리고 한국을 거쳐 많은 날을 外地에서 지내게 되었다.

스위스에 있는 Bern 대학에서 지도한 강좌에는 10명도 못되는 외과의사들이 참여했지만 그들의 열의(motivation)는 무척 대단하였다.

그리스의 Aristotelian 대학에 초청을 받아서 갔던 데살로니가 市는 기독교 신약성서에도 나오는 곳으로 Alexander the Great의 석상이 세워져 있는 도시이기도 하다. 그 당시에 Athens에서 지진이 발생해서 많은 사람들이 잠시 피난을 온 관계로 데살로니가 市는 조금 붐비고 있었다.



## &lt;44면 이선의 회고록에서 계속&gt;

市 주변에는 배꽃이 뜰과 언덕에 만발해서 무늬를 놓고 있었고 우리를 초대할 정년이 가까운 Lazarides 과장은 우리가 부부동반으로 각 나라들을 다니는 것이 몹시 부럽다고 했다. "1950년부터 1958년까지 한국전쟁과 그 후의 동란으로 우리 서로 떨어져 있었어요. 그 동안 내가 돌보지 못한 대가로 함께 다니며 매년 각 나라에 함께 들리게 되었는데 다행히 아내도 이를 즐기는 것 같아요." 하고 얘기해주었습니다. Lazarides 과장님은 위이식에 흥미를 가지고 있었고 과장님 밑에 장래가 유망해 보이는 과장보좌인 Spanos 氏는 Minnesota 대학에서 개의 최장 이식을 공부한 학자라서 최장이식에 매우 많은 흥미를 가지고 있었다. Athens도 두어 번 가봤지만 그리스 사람들은 펍 온순한 편인데 내가 보이엔 여자들이 남자보다 더 거센 성격을 가진 것 같았다.

이집트도 여러 번 방문했었는데 Alexandria, Luxo, Aswan, Cairo를 둘러싼 명소, 피라미드 굴속, 스웨즈 운하, 넓고 넓은 사막, 나일강으로 살려 놓은 과일밭 그리고 거기서 재배한 꽃말 같은 오렌지는 잊지 못한다. 한참 실험실에서 쥐 장기이식을 하다가 지치면 오렌지 두어개를 먹곤 했는데 얼마나 달고 맛있던지 피로가 다 풀리곤 했다.

한때는 Aswan까지 갔다가 기차를 좀 타보고 싶은 마음에 침대좌석 2장 마련을 해왔는데 기차 주변에 오는 승객들을 보고 "아, 그림 자 닭도 함께 탄단 말이요?"하고 물었더니 대학의 안내자가 "저 사람들이 다는 칸은 특별해서 개, 돼지, 닭도 가지고 탈 수 있지만 이집트에는 개들이 제멋대로 다니면서 살기 때문에 애완동물은 극히 소수입니다."라고 대답해 주었다. Aswan에서 Cairo까지의 침대차는 불탄서 식이어서 펍 편하게 하룻밤을 보냈는데 이틀 날 아침 Cairo역에 도착하기 한 반 시간 전에 지나가던 Nile 강변을 바라보니 이슬람교인들이 아침에 배준 비로 그 강물에서 세수도 하고 하체를 씻고 penis를 꺼내어 강물에 흘렁흘렁 씻고는 수건으로 닦고 있었다.

Zagazig 대학에서 그 후에도 여럿이 우리 대학에 와서 미세수술을 습득하고 갔는데 그 중에 내 수제자인 Hweidi군은 돈을 벌러 Saudi Arabia에 있는 모 대학에 1년 계약으로 취직이 되었는데 거기에 취임한지 한 달이 못 지났을 때 8세의 어린아이가 기차에 치여 다리가 절단된 것을 거뜬하게 잘 결합해 놓은 후로는 Hweidi군과의 계약이 4년으로 연장이 되어서 돈을 많이 모아 가지고 자기 대학에 돌아왔다. Hweidi군이 미국에서 겪은 일화도 많으나 펍 긴 얘기라서 후일로 미루

까한다.

'7일 전쟁' 당시 이스라엘에 가서 근처 나라들을 찾아가 보려고 했던 적이 있었고 그때 이집트에 들리려고도 했지만 여권에 이스라엘의 비자가 찍혀 있으면 이집트에서는 관광객으로 받아주질 않았고 반대로 여권에 이집트 비자가 찍혀 있으면 이스라엘에서도 입국이 불가능했다. 그러나 지금 이집트에 가보니 이스라엘에 다시 가볼 생각이 없게 되었다. 이집트에 갈 때마다 적어도 일주일에 이들은 관광으로 안내를 해주었는데 늘 새로운 곳으로 안내를 해주었다. 우리가 한국의 백제와 신라시대를 되살펴 보면 참 역사적으로도 유년시대라고 볼텐데 그러나 예수님이 끌려가시던 그 길을 밟으면서도 2000년이란 것은 이집트의 전성시대에 비하면 참 젊은 세대라고 생각이 되었다.

이집트에서는 지금도 한 남자가 4명의 부인과 함께 살수 있다고 하지만 그것은 농촌에서나 있는 현실이라 Cairo에서 행사하던 의사들은 1남 1녀의 행복스런 가족들 같았다. 그러나 좀 부유한 사람은 늙은이가 젊은 여성을 데리고 사는 것이 보통이라 Luxo에 있는 70이 넘는 골동상이 저녁에 그 골동상에서 잔다고 하기에 왜냐고 물었더니 5년 전에 20세 되는 애인과 결혼을 했는데 지금은 저녁때만 되면 그녀가 무서워서 상점에서 잔다고 했다. 이집트에서 처녀친절을 하는 어느 할머니의 얘기도 재미있지만 다음 기회로 미루기로 한다.

Cairo 얘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한 해는 Hweidi군이 제출한 논문이 교수회에 통과가 되기 직전에 내가 Hweidi군의 논문을 끝까지 감독하고 지도한 사례로 Hweidi군이 귀국한 해에 그의 담당교수로부터 단독으로 초대를 받았다. Hotel은 피라미드 바로 옆에 정해져서 펍 의의가 깊었는데 돌아오는 날 비행기 이륙하기 2시간반전에 호텔을 떠났으나 당나귀 때, 아이들, 낙타 그리고 천천히 가는 트럭이 뒤를 따르는데 Hweidi군은 제시간에 공항에 도착할거라고 추측했지만 허둥지둥 공항에 도착해서 매표장(ticketing counter)에 가보니 "TWA 비행기문이 이제 닫혔으니 다음 비행기로 가시지요."하는 것이었다. 그때 아내를 로마에 있는 호텔에서 내가 도착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고 로마 Valmontone 병원에서 열리는 그 날 저녁 party의 강연을 하기로 약속되어 있었다. 로마에 있는 호텔엔 벌써부터 DiMartino 박사가 나를 데리러 오려고 기다리고 있었고, 아내는 무엇이 잘못되었나 혹은 북한 사람을 만난 건 아닐까하는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고 했다. Cairo 공항에서 화장실에 가보니 정전으로 화장실이 이수라장이 되어 있었고 조그만 플래시를 켜보니 어

떤 사람이 내 신발에 오줌을 누려고 하기에 얼른 그곳을 빠져 나오니 Hweidi군은 이리저리 뛰다니며 로마로 가는 비행기표를 구하려 애를 쓰고 있었다. 다음 비행기로 겨우 로마에 돌아오니 벌써 9시가 훨씬 지난 시각이었다. 택시를 타고 곧장 호텔에 도착해보니 기다리던 DiMartino 박사는 만찬연회에 가 버리고 로마에서 다시 아내와 상봉을 했다.

## &lt;IX&gt; 中國한의학과 아내의 손치료

이번 여행도 특별한 것은 없었으나 Rome에서 Pakistan을 거쳐 북경에 도착하니 어둑어둑한 저녁이었다. 북경에 4일간 머무르는 동안 그 당시에는 호텔을 여기저기서 짓고 있는 중이어서 호텔 대신에 "Friendship House"에 머무르게 되었다. 그곳은 러시아 고문관들의 가족이 지내던 곳이라 서양식으로 잘 지어 놓은 호텔처럼 되어있었고 경호원이 24시간 동안 3교대를 하며 지켜주었다. 북경 시내에 있는 어느 상점에서 물건을 사서 "friendship house"의 몇 호라고 하면 틀림없이 배달해 주었다. 이튿날 저녁엔 북경대학 교수들과 함께 만찬환영연에 참석했는데 전에 미국 Nixon 대통령의 안보보좌관으로 중국과의 비밀 수교협상을 주선하던, Kissinger Group이 저녁 만찬을 했었던 같은 식당이었다. 맥주로 시작해서 배갈(mortai)로 건배까지 했고 처음 맛보는 요리들을 보여 놀랐다. 주최측에서는 "내일부터 선생님 부부를 위해서 한의 1명, 자동차 운전사 1명, 안내자와 통역관 1명씩을 보내 드리겠습니다."라고 해주었고 Chen 박사는 자진해서 萬里長城 관광에 동행해주겠다고 약속했다.

다음날 아침에 식당에 내려가서 아침을 먹으려고 하니 낮은 한국 분이 앉아서 쓸쓸히 아침을 잡았고 있지 않는가? "현박사 아니세요?" 이렇게 외치고 나서 30년만의 잠 반가운 재회를 하게 되었다. "이것이 부럽소. 부부동반으로 다니시니." 그도 Jefferson 대학에 재직하며 강의차 북경에 왔다고 했다. 병리학자이신 현봉학 박사는 1950년대부터 나와 친분이 두터웠던 분이다.

북경에서 아내의 왼쪽 손의 持病인 Raynaud's disease 치료도 받았다. 하지만 매일 한의사가 목에 침을 놔주나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북경에서 비원공원을 비롯해서 만리장성과 여기저기를 돌아보았는데 북경 대학에선 쥐의 간이식만 시범을 보여주었고 강의를 끝내고 다음 강좌는 상해에서 하는 걸로 되어있었다. 이때 왕박사가 토끼의 귀를 절단해서 다시 봉합했다는 중국논문을 발표한 사본을 받았는데, 나는 논평에서 1966년에 벌써 Bunke 박사가 미국에서 토끼의 귀를 완전히 떼었다가 다시 봉합을 했고 왕박사는 동맥만 재봉합을 하고 정맥은 건드리

지도 않았다고 했다.

上海에서도 한의사, 운전자, 통역관이 늘 우리를 따라다니면서 뒷바라지를 해주었다. 상해의 한의사가 놓은 침이 효과를 발휘해서 침을 놓은 뒤 처음으로 찌릿찌릿 하는 느낌이 왼손에 있었고 그 후에 혈액순환이 잘 되어 아내의 왼손의 붓기도 점점 가라앉았으며 손의 움직임도 몹시 부드러워 졌다고 했다. "그렇게 북경침과 상해침의 차이가 있군요." 아내는 그후부터 Raynaud 病이 없어진 것을 신기하게 여겼고 상해의 한의사의 침술을 고맙게 여겼다.

上海에서는 10일 동안 매일 아침부터 점심때까지 강의와 각 장기이식을 시범하여주었고 그것을 일일이 비디오 테이프에 담아서 오후에는 각각 그 비디오를 보며 실습을 했는데 그 동안 우리는 관광과 shopping을 할 시간이 허락되었다. 이번 강좌에 온 의과사들은 각주에서 1~2명씩 시험을 치르고 합격한 사람들인데 총 82명이 되었으며 김림성에서 온 권씨는 한국계라며 자신의 친구들이 말하기를 "야, 너는 좋겠다. 한국 출신의 교수가 지도하는 것을 직접 배울 수 있으니."하고 말했다는 것이다. 이따금씩 칠판에 한국말로 동맥, 정맥이라고 써 놓으면 통역관이 중국어로 그것을 읽을 때마다 어깨를 으쓱했다고 그는 말했다. 그 강좌에 중국 본토에서 캐나다에 2명, 미국에 1명이 왔는데 이들은 지금은 각 유명 대학의 교수들이 되었고 그들의 연구도 펍 중요하게 된 중국생 수제자들이다. 미국에 온 Qian 박사는 Starz의 오른팔로서 활동하고 있고 작년 2002년엔 제 6회 국제 미세수술 연구회 회장이 되었다.

상해를 떠나는 날은 보슬비가 시름시름 내리는 날이었다. 상해 제일 병원 광장에서 송별회를 열어줘서 감개가 무량했다. 나는 그 석상에서 '국제노래'를 한 곡 부르겠다고 하고 일제 시대의 '상해 부르스'를 불렀는데 미국에서 온 한국인이 상해에서 일본어로 노래를 부르니 '국제노래'라고 했다. 그토록 애써 배우던 중국 친구들과 처음 발가락을 손가락에 이식한 양동계 박사와도 헤어지면서 서로가 섭섭해했다.

## &lt;X&gt; 서울의 옛친구들

마지막으로 들린 서울은 이번 여행의 마지막 방문지가 되었다. 점차 발전해 가는 한국을 보며故 장택상씨의 따님이 "경공업이 발달해야 경제도 살고 백성들이 건강한 분위기에 살 수 있을 텐데 만약 중공업이 들어서면 모든 것이 오염되고 말꺼라구요."라고 李承晚 박사 정권말기에 나에게 예언 비슷하게 말해주던 것이 기억난다.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서울에 들어서자마자 휘문 동창생이며 의학교 시절의 동기인 지홍창 박사를 찾

니 그 날이 마침 지문의 생일이어서 그가 잘 추던 탭댄스를 청했다. 그 때는 박정희 대통령의 주치의 자리를 내줬지만 생신잔치에 온 손님들은 꽤 많이 모여서 호텔의 큰 방에는 손님들이 뿅뿅했다. "야, 실흥아, 네 결혼식에 반도호텔(지금의 롯데)에서 내가 이렇게 탭댄스를 선물로 보여줬었지?" 지금 그는 고인이 되었다.

경희 대학교에 유명철 박사의 초청을 받아 갔을 때 꽤 많은 외과의사들이 흥미 있게 열심히 미세수술 장기이식법을 습득하는 것을 살펴볼 때 무척 흐뭇한 느낌이 들었다.

그 후에도 계속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면역에 관한 것은 면역학자들에게 맡기고 Scripps Clinic의 Gittes 박사와 더불어 새로운 장기이식의 미래에 대해서 대화했다. "장기이식이 보편화되면서 장차 30~50년 이내로 장기기부자를 구하는 것이 펍 어려워 질 것입니다. 현재 신장 이식수술은 웬만큼 시설이 잘 되어있는 병원에서는, 보통 여느 수술과 같이 아침이나 오후에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Xenograft(다른 짐승의 장기를 이식)나 기계제품대체물(mechanical device replacement)로서는 기부자 공급의 부족함을 채우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consecutive organ transplantation"을 써서 한사람이 이전에 이식 받았던 장기를 다시 재활용하는 것입니다." Gittes 박사와 나와의 대화가 진실성이 있는 가운데 이루어 졌다. "밖에서는 보이지 않는 heart, lung, kidney, liver 등의 장기이식이 빈번하며 다른 사람의 팔, 다리, 손들도 이식이 성공되었다는 보고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아마도 30년 후에는 예를 들어 운동 경기장에 1만 명의 청중이 모였을 때 그 중 10%는 어떤 종류의 장기이식을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일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 운동 경기장에서 집으로 귀가하던 몇 사람이 교통사고로 사망했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그 죽은 사람이 이전에 이식 받았던 장기를 다른 사람에게 또 다시 이식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글에서 빼놓아서는 안 될 분들이 있다. 한국에서는 이용각 교수, 고용복 교수가 제일 처음으로 정식 미세수술 강좌를 시작했고故 윤덕선 교수가 한림대학에서, 유명철 교수와 조영식 이사장님의 배려로 경희 대학에서, 장일성 교수가 충남국립 의대에서 강좌를 여러 번 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으며 윤진환 교수의 배려로 동아대학에서의 꾸준한 강좌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자, 배우고자, 새 지식을 습득하고자 하는 뜻을 극도로 존중하게 되었다. 함께 배울 기회를 만들어 주어서 나는 오직 감사할 따름이다. <끝>



# 배꽃의 殿堂 방문기

## 臨床齒醫學 심포지움에 다녀와서

蘇鎮文(치대 62년졸, UIC 차대교수)

### [ I ] 하수상한 시절에 돌아보는 그때의 "배꽃전당"

" 금년 4월초 서울의 이화여자대학교의 "臨床齒醫學 대학원" 창립 Symposium에 특강연사로 초청되어 "임상소아치과의 현재와 미래"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하고 돌아왔다. 이번 여행을 떠났던 4월 초 시카고는 추운 겨울에서 따뜻한 봄으로 변하는 때였으나, 美英 연합군과 Iraq간의 치열한 전쟁이 開戰 14일째가 되고 北韓核 문제가 세상을 시끄럽게 하며 Asia에는 SARS (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라는 괴질(怪疾)이 전세계로 급속도로 퍼져 가는 시기라, 이번 여행은 출발하기까지 망설임이 많았다. 그러나 언제나 반가운 나의 가족들과 옛 친구들을 만난다는 기쁨이 교차하여 여행 중 많은 생각에 잠기게 되었다.

서울에서 본인을 기다리는 이곳 UIC (University of Illinois at Chicago) 소아치과 수련을 마친 후 시카고에서 교수생활 2년 반을 함께 했던 백광우(서울치대 78년졸, 현 이화여대 교수) 선생의 얼굴을 그려보면서 2003년 4월 2일 낮 12시 O'Hare International Airport에서 UA 881 편으로 떠나 다음날 日本 Narita 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한 시간 후 仁川 국제공항행 UA 837편에 탑승하니 이제껏 보지 못하던 상황이 눈에 들어왔다. 승무원 전원이 병원 수술실에서 쓰는 surgical mask 로써 입과 코, 그리고 얼굴의 대부분을 덮었다. 닭살이 돋는 기분을 느끼면서 2시간 조금 지난 후 저녁 8시 20분에 내린 仁川공항 내에도 그렇게 코와 입을 가린 사람들이 드문

드문 보였다. 지난 해 9월 말-10월 초 母校 치과대학 졸업 40주년 기념행사 참석차 다녀올 때엔 무척 봄비던 공황이 국제테러와 SARS 때문인지 너무도 한산하였다.

도착하는 날 밤 남동생 진욱 집에 모인 두 여동생 집에, 진희와 서울시내를 뒤덮은 벚꽃의 향기 속에서 밤늦게까지 환담을 나누다가 잠자리에 들었다. 다음 날인 4월 4일 Intercontinental Hotel에 투숙하면서 또 한번 놀랐다. 서울 갈 때면 늘 머물던 곳이라서 이전의 경험으로 사람들이 많겠구나 했는데 텅 빈 듯 하였고 종업원들의 수가 손님보다도 많다는 느낌이 들 정도다. 22층 19호실로 숙소를 배정 받았는데 며칠 체류하는 동안 22층에서 청소하는 아줌마들만 눈에 띄었고 유숙하는 손님은 별로 보질 못했다. 그런데도 客室料는 6개월 전보다 더 올라야 할 생각이 들었다.

11년이 4번이나 변한다는 세월이 흐른 지금이지만, 40년 전 일들이 떠오른다. 당시 서울대학교 치과대학병원 수련의 시절이었는데, 일주일에 몇 번씩 수개월을 이화여자대학교 의무실에 과건 근무하면서 전교생의 신체검사에 참여했었다. 그때 이화여대에서 모교치대 선배이시며 항상 긍정적인 성품이시던 이정석 교수님(서울치대 56년졸, 지금은 은퇴하셨음)과 현재 Canada Toronto에 계신 금세기의 미인 박인희(서울치대 60년졸, 당시이름 박인식) 선생님과 함께 나는 구강검사를 담당하였다. 언덕 위의 하얀 큰 건물들, 그 넓은 푸른 잔디밭과 아름다

게 꾸며놓은 화단들이 여기저기 잘 자리잡힌 아름다운 校庭에는 그 당시 최신 流行의 옷차림과 머리를 한 여대생들이 오가는 "꽃동산" 속이라, 온통 아름다운 꽃들로 눈이 부셔서 얼굴을 어디에 돌지 몰라 당황했었다. 그때 결혼전이었기에 그 주변의 분위기에 압도되어 항상 머릿속이 짝 차 있고, 그 넓은 꽃밭에서 수줍고 용기가 없어서 그 귀한 예쁜 꽃 한송이도 꺾지 못했었다. 지금도 그때 그 교정을 오가던 여대생들의 모습이 눈에 선하다.

그런 아름다운 좋은 추억의 梨大 교정을 다시 머릿속에 그려보며 4월 5일 아침 일찍 학교구내를 뒷문으로 들어서니 높은 건물들이 수북히 우뚝우뚝 여기저기 서있는 복잡한 시내 한복판으로 변해 있었다. 정문은 수리 중이고 그렇게 넓었던 校庭의 꽃밭들은 이제 건물들로 짝 차있었다.

기념행사장인 "국제교육관(L. G. Convention Center)"은 "Dental Commercial Exhibition"으로 축제 분위기 속에 음료수와 다과들로 개회식 전의 교환(交驛)의 시간에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었는데, 옛 친구들 뿐만 아니라 새롭게 좋은 분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온화하고 겸손한 인상에 초면인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정화순 학장과 인사를 나누면서, 시카고지역 이화여대동창회 소식도 전할 수 있었다. 시카고지역 이화여대 동창회장은 Rush Presbyterian Medical School에 근무하는 의대출신으로 고운 목소리의 "홍명희"여사(이화여대 69년졸이며 夫君은 김길중, 서울의대 65년졸)이며, 이대 동창회 이사장은 이화설 여사(약대 60년 졸, 남편 최용규, 연세의대 56년졸)이다. 시카고에는 이화여대의 열과 빛을 널리 빛내는 분들이 여러분 계시지만 李여사는 그간 한국인 2세 교육과 한인사회를 위하여 일생 많은 노력을 아끼

지 않고 또한 이번 나의 발표에 필요한 梨大 徽章(logo)을 이른 主日 새벽에도 기꺼이 찾아주셨는데, 그분은 무슨일이나 항상 얼굴에 웃음이 가득하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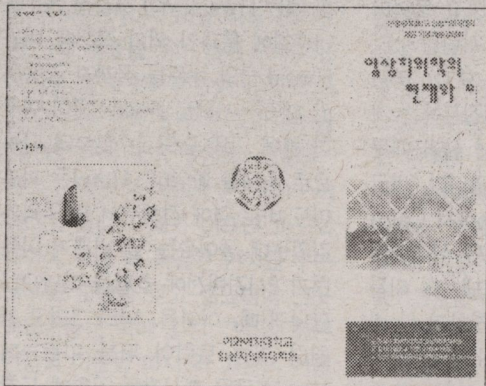
이날 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그 중에도, 27년을 한 곳에서 봉직해오시고 그 날 행사를 주재하신 자상하고 부지런한 이화여자대학교 임상치의학 대학원의 김명래 원장(서울치대 73년졸), 축하객으로 온 母校 치대를 현명하게 발전시켜 가는 키가 큰 김중수 學長(서울치대 72년졸, 언제봐도 반가운 웃음을 지닌 연세대학교 치과대학의 손흥규 학장(연세치대 1기생, 74년졸), 그리고 40년 전에 梨大에 근무하시며 학생들의 구강검사를 함께 하였던 이정석 교수님도 개막식에서 받게 되어 무척 반가웠다. 그 외 여러 옛친구들을 만났고 특히 본인과 母校치대 동기생이고 Northwestern 대학교와 시카고 대학교에서 소아치과 4년을 修學하고 1968년 귀국한 전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교수이며 현재 "한국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 심사평가위원"인 양정강 박사(치대 62년졸)는 고향 온 친구가 외로울까봐 아침 일찍부터 행사가 끝나는 오후 5시까지 나의 걸을 지켜주었다.

반기는 악수와 인사말을 교환한 작은 체구에 밝은 목소리의 이화여자대학교 신인령 총장은 축사에서 "새 나무를 심는 날인 식목일에 우리 이화여자대학교에 "임상치의학 대학원"을 창설하게 됨이 너무

도 자랑스럽다"고 하셨다. 이 날은 또한 본인의 귀가 빠진 날이어서 더욱 감명 깊었다. 300여명의 참석자의 대부분이 젊은 층으로 더 배우겠다는 의욕찬 모습들이 고국, 대한민국의 "여성전문"들의 장래와 국가의 장래를 밝혀주는 듯 하였다.

나는 발표 중간에 제 2의 고향인 시카고의 특징을 아래와 같이 소개하는 것도 잊지않았다. 시카고는 1)미항(美港)으로, 아름다운 움을 잔뜩 지닌 美國의 대표적인 호변(湖邊)도시로, 2) 날씨에 구애받지 않는 근면한 6백만명의 주민들이 있는 교육, 예술 및 文化의 도시이며, 3) 美國말의 표준말의 도시로, 4) 또한 세계 交通의 중심지로서, 항공기의 이착륙이 세계에서 제일 부주한 O'hare International Airport가 있으며, 5) 美國인의 건강과 사회, 정치를 다루는 미국치과의사협회, 美國의 시험회, 미국 변호사협회의 본부가 자리잡고 있고, 6) 세계 建築學의 聖地이고, 7) 미국에서 제일 높은 Sears Building 이 도시 한복판에 우뚝 서 있고, 8) 서울과 같이 4계절을 지니며, 한국인들이 각계각층에 퍼져 있고, 9) 시카고의 上水道는, 인공적으로 불소를 1 ppm 첨가하여 蟲齒를 예방할 수 있는 훌륭한 食水이고, 10) 여러분의 방문을 항상 대환영하는 도시라고 시카고 자랑도 잊지 않았다.

<47면에 계속>



이대국제교육관- LG convention center에서의 행사 후 필자의 생일(4월 5일)을 축하하는 동문선배들. 왼쪽부터 양정강(치대 62졸-한국건강보험 심사 평가위원), 필자, 백광우(치대 78년졸-이대교수) 및 김명래(치대 73년졸-이대 임상치의학 대학원장) 등문



이대 국제교육관- LG convention center에서 정화순(이화여대 의과대학)학장과 필자



<46면 소진문 배꽃전당방문기에서계속>

### [II] 미국 臨床小兒齒科學의 현재와 미래

이날 강연주제와 관련하여 잠깐 美國 치과의학계를 살펴보면 현재 美國엔 미국치과의사협회 (American Dental Association)에서 인정하는 아홉 分野의 專門醫 제도가 있으며 소아치과는 그 중 하나이고 이를 대별하면, 1) Dental Public Health (치의학 공중보건학과), 2) Endodontics (치아근관학과), 3) Oral Maxillofacial Pathology (구강악안면 병리학과), 4) Oral Maxillofacial Radiology (구강악안면 방사선학과), 5) Oral Maxillofacial Surgery (구강악안면 외과), 6) Orthodontics and Dentofacial Orthodontics (교정과), 7) Pediatric Dentistry (소아치과), 8) Periodontics (치주과) 및 9) Prosthodontics (보철과)로 나눌 수 있다.

美國에서 "小兒齒科"란 연령을 중심으로 한 일반 및 특수진료를 하는 전문분야로 유아부터 청소년까지 일반적으로 19세까지를 포함하고 있으며, 20세 이상의 환자라도 특수환자들, 즉 신체적, 정신적 그리고 의학적으로 특이한 환자들을 다 포함하고 있다.

이날 나의 演題는 "임상소아치과의 현재와 미래"로 다음과 같이 6개 항목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1) Prevention of Oral Diseases, 2) Behavior Management for patient care, 3) Restorative and Esthetic Dental Materials, 4) Orthodontics for Pediatric Patients, 5) Dental implant for Pediatric Patients, 6) Hi-Tech Dentistry for child and adolescent

이날 나의 발표 要旨는 다음과 같다. 1) Prevention of Oral Diseases

수년 전에는 충치와 잇몸질환의 이환율(罹患率)이 감소추세에 있었지만 다시 상승세를 보이기 시작하여 예방교육에 더욱 신경을 쓰고 있다. 당분의 섭취는 치과의 2대 질환인 충치와 잇몸질환에 직접적인 원인이며 구강위생이 또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음식섭취 후 칫솔을 잘 사용하여 입 속에 남아있는 음식물과 찌꺼기를 특히 자기 전에 제거하는 것이 치과질환 예방에 중요함을 부모와 환자들에게 항상 강조해야 할 일이다. 그리고 최근에 발표된 연구에 의하면 담배연기를 마시는 아이들의 유치에 생기는 충치 발생률이 다른 아

이들보다 높았고 충치 발생을 뿐 아니라 감기도 잘 걸리게 됨이 드러났다. 잇몸질환이 심장질환과 연결되어 있음이 밝혀져 구강질환(口腔疾患)의 예방이 튼튼한 심장(心臟)과 연결이 되고 조산아(早産兒)들은 잇몸 질환의 이환율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구강암의 발생률이 계속 증가하며 美國에서 1년에 30,000 명의 구강암 환자가 발생하고 사망자가 년 7,800 명이나 되어 전체 암환자 사망률의 3%를 차지하고 있다.

젊은 층의 구강암 증가율이 늘어나고 있는데 주요 요인이 담배와 음주(飲酒) 그리고 낮은 채소, 과일 섭취 때문으로 알려져 있다.

교육을 많이 받은 부모, 그리고 부유한 집 아이들이 충치 이환율이 낮은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리고 충치를 미리 예방하는 불소치료 그리고 Dental Sealant 치료가 五福중의 하나인 건강한 치아를 유지하는데 중요함이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 2) Behavior Management for Patient Care

이것은 환자와 의사의 의사소통으로 환자의 공포와 불안을 제거하고 의사의 신뢰감을 높이면서 좋은 치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어린 아이환자를 다루는 방법으로는 첫째, 일반적인 방법과 둘째, 진보적인 방법이 있는데 일반적인 방법은 주로 대화를 통해서 아이들을 다루면서 진료하는 방법이고 진보적인 방법은 藥物을 투여(Sedation) 하거나 전신마취(General Anaesthetic)를 시켜서 치과치료를 하는 것이다.

#### 3) Restorative/ Esthetic Dental Materials

오랫동안 사용되고 있는 충치치료 충전(充填)재료인 수은합금(Silver Amalgam)의 사용이 점차 줄어들고 보기 좋은 치아 색깔의 Composite Filling이 늘어나고 있는데 수은 Amalgam이 과학적으로 인체에 해롭다는 근거가 없는데도 기피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상태다. 수축이 되지 않는 더 좋은 Composite 개발이 계속 연구되고 있고 치아의 Enamel 과 Dentin의 再生연구가 계속되고 있다.

치아의 漂白(Bleaching)은 자라나는 아이들한테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설명이 나오고 있다. 장기적인 결과를 모르고 아이들의 영구치의 신경관이 넓어서 감각이 예민하여서 시고 아픈 것을 쉽게 느끼게 된다는 이유에서다.



#### 4) Orthodontics for Pediatric Patients

상악악골 치아교열의 Assessment를 일찍부터 시작하여 부정교합을 예방하거나 쉽게 고칠 수 있는 것은 큰 문제가 생기기 전에 치료받도록 하고 복잡한 부정교합은 잘 관찰을 해서 적기에 치료받도록 한다.

#### 5) Dental Implant for Pediatric Patients

어른들에게는 악골에 Metal Implant를 심어서 치아를 재복하는 의술이 성행하고 있는 훌륭한 방법인데, 아이들은 치아와 악골의 성장이 끝날 때까지 일반적으로 십대 후반기까지 기다려야 한다.

#### 6) Hi-tech Dentistry

① Laser - 간단한 구강 내 연조직 수술에는 좋은 방법이나 치아나 뼈수술엔 계속 개발이 되고 있음.

② Air Abrasion - 치아의 충치를 제거하는데 사용토록 개발되고 있음.

③ Digital Radiography - Radiation exposure 의 감소로 급부상하고 있으나 아이들한테는 Sensor 가 불편하게 되어 있어서 더 개발이 필요함.

④ Electronic Chart 가 부상하면서 Paper Chart 가 점차 사라지고 있음.

⑤ Telescope (Loop) - 치과 의사 선생님들이 진료시 목과 허리를 구부리는 몸자세로 Neck Disk 가 발생하여 목과 손을 못쓰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서 美國의 치과대학생들은 거의 모두가 망원경을 사용하여 자기 몸을 보호하면서 우수한 치료를 환자들에게 제공하는 새로운 경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날 발표를 맺으면서, 나는 이화여자대학교 임상치의학 대학원 창설을 진심으로 축하하였다. 이번에 이화여자대학교는 치과대학이 아닌 "임상치과대학원"을 창설하였는데, 이는 한국의 新女性 교육의 先驅者인 이화여자대학교가 긴 眼目으로써 창설한 女性 치과 의사들만의 "전문의 과정"은 우리의 고국과 국민 그리고 사회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임을 확신한다. 또, UIC 출신 백광우 교수를 정

金永昊교수(치대 49년卒·美MEAW 연구회장·사진왼쪽)

### 母校 齒大 두 번째 「자랑스런 동문상」 수상



뉴잉글랜드 지역에 거주하는 김영호동문이 母校치과대학 동창회 (회장 梁源植)에서 제정한 제 2회 "자랑스런 서울대 치과대학 동문상"의 수상자로 선정되어 지난 2월 27일 모교 연건캠퍼스 치과대학 제 2강의실에서 치대동창회의 金周煥·金繼淑 고문을 비롯해 동문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정기 총회에서 영예로운 상을 받았다. 이날 수상자는 金永昊동문과 함께 閔丙一(56년卒·모교 명예교수) 동문이 선정되었으며, 상패와 함께 금메달을 수

여했다. 金동문은 50여년간 美하버드 치대 Dental Center Instructor, 보스톤대 치과교정과 교수, Tufts대 치과 교정학 교수 등을 역임하며 치과 교정학 분야에 획기적인 MEAW치료기법과 Kim's Analysis 진단법을 개발하였고 현재 보스톤에서 개인병원을 운영하며 日가나가와 치대 교정과 외래교수를 겸하고 있다. 서울대학교 총동창회보 제 301호(2003. 4. 15) 25면에서 전제

검다리로 하여 이화여자대학교 임상치의학 대학원과 시카고 일리노이 대학교(University of Illinois at Chicago) 치과대학과의 유대가 더욱 깊어지고 발전되기를 또한 바라마지않는다.

분홍색의 빛꽃과 노란 개나리꽃들이 만발한 서울은 봄이었지만 반팔옷의 여름날씨 속에서 덧새를 머물고, 나의 제 2의 고향, "시카고"에 4월 8일 오후 2시에 다시 O'Hare에 돌아오니 흰눈이 수북히 市內와 근교를 뒤덮고 있었다.

그 전날 내린 눈이라고 들었다. 계절을 잊은 채 눈이 내린 추운 "시카고"지만 집에 돌아오니 마음이 포근함을 느꼈다. "그렇지! 情들면 故郷이라지." 나이 들어가며 하루 하루 잔소리가 늘어가지만, 30수년 나의 걸을 지켜주며 戰爭과 테러와 怪疾로 위험하고 복잡한 하수상한 시절에 이번 서울여행을 쾌히 승낙하여준 아내 이덕의와 세 딸들에게 감사하면서, (2003년 4월 17일 시카고에서)

### 재미서울대동창회보를 제작한 중앙일보 사원들

재미서울대동창회는 지난 2년간 회보제작을 위하여 일간신문사의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수고 해 주신 중앙일보사의 장광호 사장과 사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시카고 중앙일보공무국 함인식 국장님(전열 맨우측)과 정예 기사님들!



# 基督教와 冥想

## MEDITATION in CHRISTIANITY

金宗元(문리대 69년 입, Fuller Seminary, 新約聖書學 전공)

일반적으로 基督教은 믿음(信)의 종교로 알려져 있으며, 깨달음(覺)을 강조하는 佛敎 등의 종교와는 다른 특성이 바로 이 믿음(Faith)에 있다는 것은 상식에 속한다. 그래서 기독교와 명상(meditation)은 서로 어울리지 않는 관계에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그러나 기독교 聖經에는 冥想이라는 뜻이 담긴 말들이 자주 등장할 뿐 아니라, 기독교의 傳統에도 修道院 등에서 명상의 사례와 기록이 풍부하다. 이 줄고(拙稿)는 多元主義가 풍미하는 이 現代後期(post-modernism)에 그 동안 잊혀졌던 기독교에서의 冥想의 전통을 되살려서, 기독교의 宗敎로서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 조명해 보며,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을 진지하게 모색해 보고자 한다. 이는 비단 기독교인 뿐만 아니라, 激變하는 日常의 소용돌이에서 모든 "생각하는 갈대"들에게 주어진 과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은 원래 脚註가 붙은 것이므로 全文을 읽고자 하시는 분은 필자에게 연락바랍니다.

### I. Introduction

For everything there is a season: therefore there is a time to keep silence, and a time to speak. (Ecclesiastes 3:7) To keep silence presupposes to listen to God's Word, instead of simply not to speak, because silence is nothing else but waiting for God's Word and coming from God's Word with a blessing. But God's Word means not only the written Word, but also His speaking Voice, because God is here and He is speaking. Therefore it is quite natural that silence should lead us to our meditation on God's Word. In this sense, Christian meditation is different from the ones practiced in other religions.

However nowadays noise, size, activity and bluster are much prevalent phenomena in the popular religion. But when God says, Be still, and know that I am God, (Ps. 46:10) we have to realize that our strength lie not in noise but in silence. Especially in this scientific era, spiritual receptivity is one of the most valuable virtues we must cultivate as far as possible. But we tend to think scientifically, and usually disregard as unreal what is invisible. But faith is the conviction of things not seen, (Hebrews 11:1) Therefore the denial of the invisible other reality touches the foundation of the Christian faith. Not only the

visible but also the spiritual is real.

The openness to the unseen reality is characteristic of all the heroes of faith in the Scriptures: Abel, Enoch, Noah, Abraham, Moses, Isaiah, David, John, Paul. Besides, there are numerous good examples to us: St. Francis, Luther, Thomas Kempis, and so on. They differed from the average person in that when they felt the inward longing they did something about it. They acquired the lifelong habit of the spiritual response.

As the results of serious problem in modern evangelicalism caused by the lack of the concept of spiritual cultivation and exercise which was so dear to the saints in the past, Tozer enumerates: shallow lives, hollow religious philosophies, the preponderance of the element of fun in gospel meetings, the glorification of men, trust in religious externalities, quasi-religious fellowships, salesmanship methods, the mistaking of dynamic personality for the power of the spirit, which he diagnoses as the symptoms of a serious disease of the soul. Whether we agree to his diagnosis or not, I think a definite time of silence devoted to meditation as well as prayer is indispensable for the spiritual cultivation.

### II. Meditation in the Scriptur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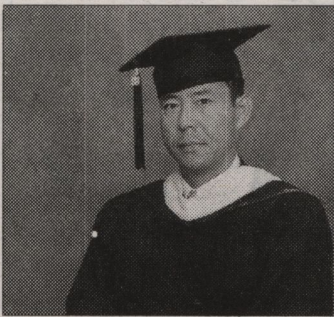
The history from the Scriptural viewpoint can be ascertained in terms of our relationship with God. So the basic theme of the Scriptures is how to deepen our relationship with God. The Bible assumes as a self-evident fact that men can know God with at least the same degree of immediacy as they know any other person or thing. Thus we can see, taste, smell of God, and hear His voice:

Blessed are the pure in heart, for they will see God. (Matt.5:8)

My sheep hear my voice. (John 10:27)

But our relationship with God can be more deepened through active meditation rather than passive feeling of God. Therefore it is natural that we can find many meditative endeavors in the Scriptures.

#### A. Meditation in the Old Testa-



ment

Primarily O.T. meditation is done on God's words (Law) and deeds. Especially law is important, because it is from the law that holiness comes. The most common words for meditation are zachar, saikh, and hagah, which are used as synonyms which appear in parallelism, as in Ps. 143:5: I remember (zachar) the days of old, I meditate on (hagah) all that thou hast done, and in Ps 77:11: I will call to mind (zachar) the deeds of the Lord, I will remember (zachar) thy wonders of old, I will meditate on (hagah) all your work, I will muse on (saikh) your deeds. These passages also show that the recollection of God's deeds gives the psalmist confidence and hope, even if he is caught in the distress. Ps 63:5-6 shows not only confidence, but also realization of God's helping as well as the psalmist's rejoicing: My mouth praises you with joyful lips, when I think of (zachar) you upon my bed, and meditate on (hagah) you in the watches of the night. Here the psalmist is described as expressing his meditation in a song of praise.

In Joshua.1:8, hagah takes torah (law) as its object, showing the aspect of murmuring: This book of the torah shall not depart out of your mouth, but you shall meditate on it day and night, that you may be careful to do according to all that is written in it. Maybe soft murmuring was uttered to recite the law when studying it here as well as in Ps. 1:2: His delight is in the law of the Lord, and on his law he meditates day and night: hagah means the zealous study of the law, which results in being filled with the will of Yahweh and the doing of his commandments. So we can see that in the earlier psalms, meditation gives the psalmist confidence or joy in connection with God's previous deeds. On the other hand in later psalms, the law (torah) of God becomes the object of meditation, as in Ps.119:97: Oh, how I love thy law! It is my meditation (saikh) all the day and in,

v.147.

B Meditation in the New Testament

It is noteworthy that Jesus' instruction about meditating (promeletao) is related to persecutions. Jesus promised to his disciples a mouth and wisdom. (Lk 21:15) which would be given through the Holy Spirit in difficult situations, lest they should be excessively preoccupied with unpredictable confrontations with the persecutors. For Jesus, time should not be wasted in meditating, because of the urgent task at hand.

But after Jesus was exalted, he becomes the focus of meditation (katanoeo) as in Heb.3:1. Before he was born, Mary pondered (sumballo) on angels' words about her immaculate conception of Jesus. (Lk 2:19)

It seems to be a matter of course that in the early stage of Catholicism, the leaders of the church were encouraged to meditate (meletao) on their duties. (1 Tim. 4:15), as the church became more and more institutionalized.

In Acts 10, Cornelius sees an angel of God in a vision, gazing at him trying to make out what it means. The next day Peter saw a vision on a roof, when he prayed. He meditated upon it. (dien-thumeomai) He shared it with the community, and applied it, accepting the Gentiles into Christianity.

### III. History

As the persecution was over, Christians moved out into the deserts in order to be alone with God, because the church was becoming more worldly. Deserts were considered desirable places where they could more clearly feel the presence of God. Because they took the Scriptures seriously, they began to meditate on the Bible as God's words.

#### A. Meditation in the early Church

The early Christian meditation took its form in the monkhood. The monks take Ps. 1:2 as the request (Aufforderung) to dedicate themselves unceasingly to the meditation of the divine words. They allegorically interpret animal ruminant in Lev. 11:3 and Dtn.14:6 as meditation ruminatio, which means a thorough appropriation (rumination) of the biblical texts in the stomach of memory. By reciting Psalms quietly from memory, mouth and heart (bodily and spiritual compo-

ents) together participate in meditatione spiritali. In the course of development, the West more stresses the spiritual component, while Jesus' Prayer (Jesusgebet) in the East makes the corporeal side more conspicuous. Morality as the essential element in the meditation of the monastic fathers comes from the awareness of God's presence. The hermeneutic meaning in such understanding of the Scriptures is, from the beginning, due to meditation as lectio divina.

#### B. Meditation in the Middle Ages

The further development of meditation in the West is distinguished by the methodical systematization of meditation and the theological reflection over meditation. While the Scriptures are the consistent subject of the medieval meditation, penance and Vita Christi are two outstanding themes, and lectio-meditatio-oratio-contemplatio are four steps in its systematic attempt. This systematization of meditation dominated the work of Devotio Moderna, one monastic pietist movement of the late Middle Ages. For the history of the Christian meditation, the trend which runs from von Gerhard Zerbolt through Garciva Jimenez de Cisneros to Ignatius of Loyola is specially important.

#### C. Ignatian Meditation

Since the Reformation era, the spiritual exercise in Catholicism was guided by church's ordered form. In the early stage Ignatius stands dominant with his Exercitia Spiritualia.

According to Ignatius of Loyola, the usual reason that the meditations are given in writing is to not fatigue the memory, and to devote the whole strength and powers to exercise the understanding and the will. Too much excessive effort should be avoided: Otherwise they will not be able to continue long in meditation, nor reap the true fruit of it. Since meditation is a kind of God's gift, it should depend upon God. Therefore a soul should dispose itself for this work by humility and purity of heart, rather than trust to its own preparation and efforts. Ignatius's method in meditation is that memory should assist the understanding to discourse and reason, and the understanding should direct the will and affections.



<48면 김종원의 기독교와 명상에서 계속>

Ignatius wanted this to be done in regard to sin as the first subject of our meditation.

The Ignatian Method:

1. Remote Preparation: It is noteworthy that Ignatius did not meditate in order to go out into life, but he lived to prepare for meditation.

(a) Self-denial: We must try to live aware of God all the time, not just in meditation. This is done through mortification and self-denial.

(b) Habitual Recollection: It means being collected and being composed all the time, and it is related to some degree of stoicism.

(c) Humility: We need to depend upon God always, not just in moments of meditation.

2. Proximate Preparation:

(a) Choose method of meditation. For example, we pick a subject at night, then meditate in the morning. Subjects may be attributes of God, Scripture passages, or Trinity.

(b) Recall subject (when awake) to begin meditation.

(c) Give self over to God.

3. Immediate Preparation:

In this moment of preparation, we have now sat down to begin to meditate.

(a) Recall the presence of God, because He is always with us.

(b) Humble ourselves before our God, confessing our sins, and remembering our need.

(c) Pray for the Holy Spirit to help us in meditation.

4. The Meditation Itself.

(a) Prelude:

i. Composition of place. Use imagination to compose scene.

ii. Ask God for help (an insight, empowerment, etc.), that we might find fruit pleasing to God (not to us, but to Him!).

(b) Exercising the powers of the soul:

i. Memory where you explore.

ii. Use intellect, not just your mind. Reflect in detail, and ask the consequences for me. It is not to solve the theological questions, but to think through implications for life.

iii. The will, heart, and resolution: As you are coming out of it, give your self to God delib-

erately in resolution, which is made concrete at the end of the meditation.

(c) Conclusion: Reflect on the meditation. Was it a good or bad experience? What did I learn from it? Be honest in reflecting about it.

D. Solpecion Method

1. Jesus before the eyes (Adoration): Looking upon Jesus, try to love Him in one of His virtues: humility, love, obedience, compassion etc. It is not necessary to worry about details. It is enough to look at Jesus.

2. Jesus in the heart (Communion): Soul draws into itself the attributes seen in Jesus.

3. Jesus in the hands (Cooperation): The stage to figure out the way to utilize those virtues (find the way to exercise them).

E. Francis de Sales

The spread of the methodical meditation over the monastic area influenced strongly Francis de Sales (1567-1622). The exercise of God's presence is the ground of his meditation method. Four ways are offered: the introduction of omnipresence of God; the introduction of God's presence in one's heart; the introduction of Christ; the introduction of direct nearness of Christ.

1. The Necessity of Prayer: Prayer is a river of life-giving water that makes the plants of our good desires grow green and flourish, and quenches the thirst of the passions within our hearts.

(a) Best subject: Our Savior's life, death, and resurrection are the best subjects for our ordinary meditation.

(b) Priority of mental prayer: Mental prayer is put in the first place.

(c) Time: We need to set aside a certain time (no more than an hour) everyday.

(d) Church is a convenient place: If possible, before the Sacrament.

2. Method of Meditation.

(a) Place yourself in the presence of God.

i. We need to realize that God is everywhere.

ii. Remember He is also in your heart (in the very center of your spirit) in a real sense.

iii. Imagine that Christ in all humanity is gazing at His special children (Christians), when they

are praying.

iv. Imagine that Christ in his humanity is drawing near to us like a friend.

(b) Ask for God's help in your praying. You can call upon your guardian angel.

(c) If you propose the subject of the mystery, don't wander too far.

3. The Meditation proper. We use the understanding in meditating, after having confined our minds to the subject either by the imagination or by a proposal.

4. Meditation produces specific affections and resolutions: for example, love of God and neighbor, desire for Heaven, zeal for souls, imitation of the life of Christ, compassion, awe, joy and fear.

5. Conclusion.

(a) We thank God for the gifts and insights in these affections and resolutions.

(b) We unite our affections and resolutions with God's goodness and mercy, His Son's passion, death and Resurrection and His virtues.

(c) We ask God to help us for carrying through on our affections and resolutions. Also you can pray for any particular intentions. We must try to practice the virtue decided on during that very day.

6. Profitable advice on Meditation. You need to be able to go the daily duties from prayer without disturbing the inner peace the meditation bestows. Although sometimes meditation demands diligence and perseverance, it is an honor to stand in God's sight.

F. Evangelical Meditation

The history of the evangelical meditation is not yet explored. The monastic ideals were disregarded in the Reformation church. Thus the practice of meditation was exercised individually and even secretly. But Martin Luther himself never abandoned the exercise of meditation. In his theology, which was manifested in the triad of oratio-meditatio-tentatio, the academic and edifying interpretation of the Scriptures were combined in the notion of meditation. The Enlightenment theology tends to be content with scientific presentation. But even after Luther's days, the historic and dogmatic study on the one hand, and the private piety on

the other didn't fall apart.

G. Contemporary Christian Meditation

The Christian meditation in the present days is characterized by the intensified Western attention to Jesus prayer, by the Christian encounter with meditation methods of the other religions as well as by the inspection into the comparability of certain phenomena in psychotherapy and meditation.

In evangelical areas the Berneuchener Bewegung and Michaelsbruderschaft marked the reappraisal of meditation. For the theological foundation of the meditation Hans Ur von Balthasar has greatly contributed. He was convinced of the incompatibility of the Christianity and the eastern religions. Meditation should be a totally existential hearing of the words of God, which does not mean the Bible text, but the experience of God who became flesh and can be met in the Holy Spirit.

Also Christian meditation has manifold meanings with regard to the practical theology. Meditation becomes the indispensable element for the bible study and homiletics. Also meditation has found its way to pastoral works, Christian education, and divine worship.

#### IV. Application

So far we have discovered that meditation has its root in the Scriptures, and that historically the monastic fathers had contributed to shape the form of Christian meditation. Nonetheless we have experience a kind of unfamiliarity toward the concept of meditation.

For example, it is my impression that especially the Korean church is not very friendly to meditation, perhaps because meditation is misunderstood as a synonym of Zen Buddhism. Until now Buddhism is the strongest religious rival of the Korean church. Moreover, the Korean church has no monastic background in the historical or theological sense. Also, it is undeniable that there exists a strong distrust between the Catholic and the Protestant churches there. Therefore in a sense the Korean Reformation church is sandwiched between the Catholicism and Buddhism.

Although it is true that medi-

ation is a purely Christian exercise not imported from other traditions. Korean Protestantism still seems to be suspicious of meditation as a Catholic tradition handed down through the monasteries of other countries.

It is fortunate that the Korean church has begun to use the term, Q.T. (Quiet Time), but I think meditation is a more natural word than Q.T. which sounds strange at first. It is my personal conviction that meditation is really important to every Christian today, because we must listen to God's voice through meditation. The first step for meditation should be our rumination of the Scriptures. A director of meditation may be desirable, and we can try Ignatius or Saless method, for example, if we want, but we must remember meditation is the opening of our spiritual ears to the living voice of God.

#### V. Conclusion

It is obvious that meditation belongs not to Buddhism, not to the monastic fathers in the deserts, but to everyone's proper ability which God confers to us. It can mean for us both a privilege and an obligation. In a sense meditation is a genuine Christian practice, because God wants us to come more close to Him through meditation.

Perhaps Protestant church emphasized too excessively Paul's doctrine of justification by faith with the result that some valuable traditions of monasticism, including lectio divina, were considerably neglected, although Luther had once been a monk. Possibly stress on preaching, in contrast to the Catholic stress on ceremony, may be another reason, although preaching and our direct listening to God's voice do not necessarily contradict each other. Therefore while we need to learn from the previous traditions of meditation, we should also develop new methods of meditation which are appropriate to today's Christians. If we want to be holy, we need to be meditative, because through the Scriptures God asks us to meditate on His words and for His living voice.

필자 연락처:

chwnkim@AOL.com



# 내마음을 열고

이태상(문리대 59년 졸)

詩人 정희성은 "차라리 詩를 가슴에 묻는다"에서 발표 안 된 詩 두 편만 가슴에 품고 있어도 나는 富者다. 부자로 살고 싶어서 발표도 안 한다"고 하였다. 나는 외롭지만 여기 拙文 몇을 모든 사람들과 나눔으로써 더 큰 富者가 되고 싶어 나의 가슴을 열어본다. 이는 마음속에서 오랫동안 그려온 나의 차라리 우리 모두의 自畫像일지 모른다. 어렸을 적에 성미가 까다롭고 하찮은 일에도 신경을 너무 쓴다고 나는 어른들로부터 꾸지람을 많이 들었다. 사내자식이 깨알처럼 좁스럽다. 어린애가 좁쌀영감같이 누나들한테 잔소리 심하다고 핀잔도 많이 먹었다. 큰 사람이 되려면 마음을 크게 먹고 대담해 자라고. 早熟했던 탓인지 아니면 完璧주의자로 태어나기라도 한 것 같이 '속 좁다'는 말에 기분이 상한 나는 꼭 내 이름값을 해야겠다고 굳은 결심을 했다. 내 이름이 漢字로 클 泰자였다 서로 相자인데 이 相자는 다 알다시피 宰相, 首相 할 때도 쓰이는가 하면 相稱, 手相을 본다 할 때도 쓰는 나무 木변에 눈 目을 합한 것이다. 그런데 큰 사람 큰 얼굴로 세상을 호령하기는커녕, 지금까지 60여년을 살도록 한결같이 小人중의 小人으로 小학생, 小시민으로 삶을 살아왔을 뿐이다.

### <1> 바다를 向한 呪文

늘 바다를 꿈꾸면서, 넓게 생각하고 깊게 느끼면서 바다와 같은 마음을 가져보려고 海心이라 스스로 雅號까지 만들어 시간방을 떨어왔다. 아래의 自作詩는 어렸을 때부터 비롯된 獨白이다.

### <바다>

永遠과 無限과 절대를 상징하는 神의 자비로운 품에 뛰어든 人生이려만  
어이 이다지도 고달픈가.  
哀愁에 잔 갈매기의 故鄉은 正령 출렁이는  
파도 속에 있으리라.  
인간의 마음아 바다가 되어라.  
내 마음 바다가 되어라.

태양의 情熱과 창공의 希望을 지닌  
바다의 마음이 무척 부럽다.  
순진무구한 童心과 진정한 母性愛 간직한  
바다의 품이 마냥 그림다.  
비록 한 방울의 물이로되  
흘러 흘러 바다로 간다.

이렇게 나는 나의 어머니 뱃속에서 아니 어쩌면 태고적 옛날 바다의 품속에서 받은 胎教育을 이 세상에 태어난 다음에도 계속 받고 자란 탓인지, 열 살 때 쓴 이 呪文을 밤낮으로 쉬지 않고 숨쉬듯 아직도 외고 있나 보다.

내 마음도 네 마음도  
밀물, 썰물 파도 치듯  
우리 가슴 뛰는 대로  
우리 고향 저 바다로  
흘러 흘러 돌아가리라

現在와 過去와 未來에 있을 모든 것을

반영하는 小宇宙가 人間이라면, 이런 코스모스가 바로 나 자신임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 그 어느 사람에게나 다 있을 것이다. 어쩌면 이러한 순간을 위해 우리 모두 하나같이 인생순례자가 된 것 아닐까? 하늘 하늘에 피는 코스모스 바다 되기 위해.

### <2> 코스모스 戀歌

"秘密이 없는 사람은 재산이 없는 것처럼 가난하고 허전하다"고 詩人 李想은 말했다. 그러나 지난 60년대 미국의 인기 가요 '남몰래 하는 사랑'(Secret Love)의 "가슴이 저리도록 짝사랑하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산꼭대기에 올라가 별에게라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는 노랫말처럼 나도 나의 秘密을 외치지 않을 수 없어 또 그래야만 될 하전할 것 같아 열처없이 토로해본다.

### <코스모스>

소년은 코스모스가 좋았다.  
이유도 없이 그저 좋았다.  
소녀의 순정을 뜻하는  
꽃인줄 알게 되면서  
청년은 코스모스를  
사랑하게 되었다.  
철이 들면서 나그네는  
코스모폴리탄의 길을 떠났다.  
카오스 속에서  
코스모스 찾아.  
그리움에 치쳐 쓰러진 노인인  
무심히 뒤를 돌아보고  
빙그레 한번 웃으리라.  
걸어온 발자욱마다  
무수히 피어난  
코스모스 발견하고.  
무지개를 좇는 파랑새의  
애절한 꿈속 신기루는  
정녕 폭풍우 휘몰아치는  
저 먹구름장 너머 있으리라.

소년시절 나는 코스모스가 이유도 없이 그저 좋았다. 청초한 그 모습과 아리따운 그 자태 때문이었을까? 보기만 해도 생각만 해도 가슴 떨리고 얼굴이 달아올랐다. 코스모스의 꽃말이 '少女의 純情'을 뜻한다는 것을 알고 靑年이 된 나는 코스모스를 사랑하게 되었다. 병아리 냉기슴 앓듯 남몰래는 熱病, 코스모스 相思病을 앓기 시작하면서 나는 코스모스 같은 少女를 찾아 나섰다. 미움과 我執의 혼돈과 혼란 속에서도 억지와 무리가 없는 사랑의 樂園을 찾아 언제 어디서나 코스모스 같은 아가씨가 눈에 띄면 萬古의 그리움 솟구치는 나의 사랑을 고백했다. 어쩌면 타고난 태고적 戀慾에 젖어 정처없이 떠돌아 방황하던 시절 어린 나이에 사랑의 巡禮者가 된 나로서는 독선과 위선, 고정관념과 편견, 고집불통의 我執으로 化石화된 어른들의 세계가 보기 싫어 아름다운 宇宙(코스모스) 속에 순수한 사랑으로 새로 태어나고 싶었다. 그러나 아무도 나는 사랑할 수 없었다. 나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한. 이제 바람 한 점에도 코스모스 출렁이는 바다가 맑은, 다 늙어 깨우침에도 아직도 내게 미련의 노래 남아서 일까?

얼마 전 미국의 광고잡지, 대학신문 및



뉴욕타임즈지 등에 아주 색다른 廣告가 나왔다. 미국 굴지의 광고대행 업체인 J 웰터 톰스 북미사에서, 創意성 있는 人才를 찾는 廣告文案에 8개의 시험문제를 내놓았는데 그 중 7번째 문제가 흥미롭다. 靑년인즉, "과거 수천년을 두고 우리 心腸을 나타내는 HEART[心]는 사랑을 상징해왔다. 그러나 사랑이 변질된 오늘날 새 象徵이 필요하니 創案해 보시오." 나보고 이 한 문제에 대해서만 응답하려면, 이런 答案을 작성해보겠다. 나 자신만의 행복을 추구하지 않고 내 이웃과 세계 모든 사람들의 안녕과 평화를 비는, '소녀의 순정', 코스모스를 순수한 사랑의 새 상징으로 모든 사랑을 가슴속에 심어주고 싶다. 그래서 戰爭과 分斷, 分裂과 破綻의 카오스(chaos)를 탈피하여 우리 모두 잘 살 수 있는 코스모스(cosmos) 동산을 만들어 사랑하는 가슴으로 사슴되어 노루같이 뛰놀자고. 어쩌면 이것 또한 '나' 아닌 우리 모두 너와 나의 自敘傳의 落書라고 할 수 있으리라.

### <3> 참다운 글쓰기

"사람이 글을 쓰러거든 꼭 요렇게 써야 한다. 한 놈이 백두산에서 방귀를 뀌다 꺾면 또 한 놈이 한리산에서 '어이 쿠리' 코를 틀어막고, 영광 범성포 앞 칠산바다에서 조기가 팔짝 뛰어 강릉 경포대 앞 바다에 광 떨어진다. 요렇게!" 이것은 "詩를 쓰되 좁스럽게 쓰지 말고 꼭 이렇게 쓰라"는 서두를 시작한 '五賊'의 시인 김지하씨가 최근에 펴낸 자신의 회고록 <흰 그늘의 길>에서 밝힌 그의 외할아버지 말씀이다. 그가 전수받은 '통 큰 글 쓰기'의 한 본보기이다.

지금으로부터 12년 전 나는 다음과 같은 공개서한을 故國의 하늘로 띄웠었다(국내 주요 일간지, 주간지 및 월간지에 전승하였으나 아무데도 실리지 않았음). '海外 同胞의 한 사람으로 삼가 외람된 글월을 올립니다. 물론 조국을 떠나 사는 주제에 무슨 소리냐? 대번 거부감을 느낄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海外에 나가면 누구나 좀 더 愛國者가 되지 않습니까? 떨어져봐야 그리움도 키울 수 있고, 멀리서 바라볼 때 비로소 모습이 드러나 보이지 않던가요?

愚牛는 同門으로서 金형이 입학하던 文理大를 1959년 졸업했지요. 그 후 1970년초 '思想界' 부원혁 발행인의 요청으로, '무보수 게릴라 편집장'(발행인의 표현)의 일을 (재직중이던 회사의 출장을 다녀온 후) 보기로 했었는데, 日本에 있는 동안 그해 5월 호에 실린 金형의 장편담시(譯詩) '오적(五賊)'으로 金형은 '反共 法외반'으로 체포되고 '思想界'는 폐간되고 말았지요. 그 후 나는 1972년 초 직장일로 영국에서 머물 때, 金兄이 발표한 또 다른 장편담시 비어(蜚語)로 다시 체포되어 馬山 靑峯양양원에 입원했다는 風聞을 들었지요. 金兄의 消息을 접할 때마다 나 역시 흥분하고 짜릿한 쾌감까지 느끼곤 했습니다. 어쩌면 나는 金형을 통해 精神的인 자유왕위를 한 것인지도 모르겠군요. 하하!

오래 전에 쓴 이 편지는 70년대 獄中에

있던 金형을 위하고 키웠다는 어느 단체가 지난 1991년 5월 9일 金형을 除名했다는 보도를 보고서 그때 쓴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단체는 1974년 '자유실천문인협회'로 출발하여 회원 5백여명의 '참여문학' 단체로 자랐지만 그 '민족문학작가회의' 그 이름부터가 좀 이상하게 들립니다. 자고로 알찬 내용이 없을 때일수록 요란하게 형식을 찾고 거창한 간판을 내걸며 실제로 행동하는 삶 대신에 말로만 글로만 때워버리지 않던가요? 목소리가 크고 理論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實踐이 없다는 反證아닙니까? 카릴 지브라이 그의 豫言者에서 말하듯이 스스로를 거울 속에 들여다보는 딱은 돌이 되고, 스스로를 자랑하는 착한 것은 못된 것이 되지요. 그리고 除名이다. '破門'이다 하는 것이 어찌 西洋中世의 黑暗시대를 연상케 하네요. 마치 '김일성敎'나 '박정희敎'에서 하던 짓거리 같군요. '내편 아닌면 모두 죽일 원수', '나 아니면 남', '백이 아니면 黑'이라는 幼稚無雙한 억지늘음말입니다.

문제는 이 세상의 모든 '暴君'을 몰아내기 전에, 우리는 각자의 가슴과 머리 속에 있는 그것부터 몰아내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우리 모두 牛活人으로서 삶을 살아가므로, 詩人이다, 文人이다, 아니면 어떤 별다른 직업인이라고 高踏의 이름을 내걸고, 피부에 해롭다는 배우화장기 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人生자체가 무대라고는 하지만 그렇다 해도 그런대로 우리 모두 진지하고 매사에 너무 심각할 것도 없이 서로를 理解하고 위하는 것이 곧 자신을 이해하고 爲하는 것임을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

그가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우리 사회에 雜草처럼 무성하고 가시덩굴 같이 뻗은 사람 특히 靑少年 어린이들을 울리고 다치게 하는 영경퀴뿌리를 뽑아버려야 하지 않을까요? 所謂 '종교인', '문화인'이나 '예술인'에 대한 迷信도 타파하지는 것이지요. 우리 人間 모두에게는 '너의 삶이 나의 삶이요, 나의 삶이 너의 삶'이 아닐까요? 또 너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고 따라서 '강경대'君的 죽음이 우리 모두의 죽음이 아닌가요? 예수님의 말마따나 '목숨을 얻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며 잃고자 하는 자는 얻을 것'이니 세상에 不死鳥 아닌 것이 없지 않으리요? 이렇게 볼 때 너도 OK 나도 OK 모두 다 OK 아니겠습니까? 어차피(於此於彼)에 조만간 다 숨져 사라질 덧없는 목숨들끼리 더 좀 善意와 好意로 서로를 대하면서 슬프도록 아니 한없이 애달도록 아름다운 삶과 사랑을 나누어 보지 않으렵니까?

지금와서 생각컨대 결국 진정한 '글'이란 그리움이 준 말이 절절한 숨이 되고, 氣가 절로 응축된 것이 아니리오. 그렇게 그리는 그림과 글은 '人生'이란 畫幅에 '삶'이란 붓으로 '사랑'의 피와 땀 그리고 눈물로 쓰는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文人'도 '學者'도 아닌 凡人가 한 사람의 독자로서 드린 妄言多謝입니다. 1991년 5월 15일 미국뉴저지에서 이태상 드림

### <4> 韓國식이 최고

최근 있었던 노무현 대통령과 토니블레어 영국 총리의 頂上회담에서 '영미식과 유럽식 노사관계 모델 중 어느 것이 한국에 더 적합하냐'는 問題에 블레어 총리는 이렇게 賢答을 했다. "한국식이 최고"이고 '사회적 연대를 추구하고 21세기의 도전을 해결해 나갈 수 있게 유연한

動力을 갖추자는 盧 대통령의 접근 방식이 옳다'고. 한편 自國 言語에 대해 자부심을 갖고 있는 프랑스 정부는 최근 '쉬운 프랑스어'를 지키겠다고 세계적으로 보편화된 정보통신용어 'e-mail' 대신 電子通信이라는 뜻의 '쿠리에 엘렉트로니크'를 줄여 '쿠리엘(courriel)'을 쓰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어리석은 백성들이 말하고자 하는 바 있어도 마침내 제 뜻을 펴 못하는 사람이 많다"고 세종대왕께서 만든 우리말 한글이 外來語에 밀려 천대받는 우리 실정과 이 얼마나 대조적인가!

그래서인지 '우리 사회가 조직적인 精神病을 앓고 있는 것은 아닌지 두렵다'고 최근 한국의 대표적인 컴퓨터 백성업체인 안철수연구소의 안철수 사장이 쓴소리를 하고 있다. 그는 홈페이지(www.ahn-lab.com)에 띄운 글에서 이렇게 개탄한다. "우리 사회는 西歐보다 더 심한 物質 萬能主義에 사로잡혀 있으면서도, 막상 돈에 대해서는 몇푼이 밝히지 못하고, 儒敎的인 가치관을 내세우지만, 세계에서 가장 性을 사기 쉬운 나라로 전락하고 있다". '생각과 행동이 다른 사람은 정신병을 앓기 쉽다'며 '마찬가지로 二重的 眞實과 眞善이 사회 전체를 病들게 해 각종 사회문제들이 나타난다'고 분석한다. "우리 사회에 '집단지괴주의'가 판치고 있으며, 원적을 지키고 장기적인 시각으로 행동하면 시대에 뒤쳐진 어리석은 사람으로 취급받는다'고 탄식한다.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존중, 서로 다른 의견을 중재할 수 있는 지도력의 부재가 아쉽다"고 했다.

우리 민족이 어쩌다가 이 지경에 이르렀을까? 우리 본연의 自我를 상실해버렸기 때문 아닐까? 白人들의 한 慈悲心을 살펴보자. '죽은 인디언만 좋은 인디언이니, '구제할 길 없는 야만인'이라고 취급하여 집단으로 학살당해 거의 멸종되고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극소수의 인디언 아이들을 일종의 동정심에서 西歐人化하려고, 한 白人이 자기 이름을 딴 '인디언 아이들을 위한 프리트의 카리일 學校'를 설립하여(펜실베이니아주 카리일에) 미국 각지의 인디언 마을에서 애들을 데려다가 이들의 머리를 자르고 西洋式 교복을 입히고 洗禮를 받게 해 주었다. 그런데 이 가운데 한 아이가 이러한 경험을 기록해 놓고 있다. '난 이제 더 이상 인디언이 아닌 것처럼 느껴졌다. 백인의 모조품같이'.

그렇다면 우리도 固有의 사상과 믿음을 되찾아야 하지 않을까? 檀君의 弘益人間과 天道敎의 人乃天 사상 말이다. '생각하는 백성'이라야 산다는 합성현 선생님의 말씀이 아직도 절실하다. 그리고 김구선생의 '白帆日誌'에 나오는 말씀이 그 더욱 절실하다.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가장 富強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다. 내가 남의 침략에 가슴이 아팠으니, 내 나라가 남을 침략하는 것을 원치 아니한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文化의 힘이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幸福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겠기 때문이다. 나는 우리나라가 남의 것을 模倣하는 나라가 되지 말고 새로운 문화의 근원이 되고 목표가 되고 모범이 되기를 원한다. 大韓사람이면 간데마다 信用을 받고 法과 秩序를 잘 지키는 성숙한 市民으로서 대접을 받아야 한다. 弘益人間이라는 우리 國祖 단군의 理想이 이것이라고 믿는다.'



# 性靈 出世說

義菴 孫秉熙(1861.4.8-1922.5.19)



우주는 원래 영의 표현인 것이 아니라. 영의 적극적 표현은 이것이 형상 있는 것이요, 영의 소극적 표현은 이것이 형상없는 것이니, 그러므로 형상이 없고 형상이 있는 것은 곧 영의 나타난 세력과 잠겨 있는 세력의 두 바퀴가 도는 것 같으니라.

같은 성령에 헤아릴 수 없는 큰 덕의 묘한 법이 대전 대지의 각개 차별을 순히 화하여, 하늘에 솔개가 날고 못에 고기가 뛰는 것이니라. 그러나 사람은 이에 만물 가운데 가장 신령한 자로 만기만사의 이치를 모두 한 몸에 갖추었으니, 사람의 성령은 이 대우주의 영성을 순연히 타고난 것임과 동시에 만고역조의 영성은 오직 하나의 계통으로서 이 세상의 사회적 정신이 된 것이니라.

宇宙는 元來 靈之表顯者也. 靈之積極的表顯은 是有形也요, 靈之消極的攝理는 是無形也니 故로 無形有形也는 卽靈之現勢力 潛勢力之兩轉輪也니라

同一性靈 無量大德之妙法이 順化大天大地之各個差別하여 鳶飛於天이요 魚躍於淵이니라

여기에 한 물건이 있어 문득 영성의 활동이 시작되었나니, 이것은 영의 결정으로써 만물의 조직을 낳은 것이요, 만물의 조직으로써 다시 영의 표현이 생긴 것이니라. 그러므로 영과 세상은 같은 이치의 두 측면일 따름이니라.

然而人是萬物中 最靈者로 萬機萬相之理를 總俱體者也니 人之性靈은 是大宇宙의 靈性을 純然稟賦 同時에 萬古億兆之靈性은 以唯一系統으로 爲此世之社會의 情神也니라

茲有一物從之而忽有靈性之活動이니 是以靈之結晶으로 生物之組織也요 以物之組織으로 又生靈之表顯也니라

신사께서 사람이 곧 한울인 심법을 받으시고 향아설위의 제법을 정하시니 이것은 우주의 정신이 곧 역조의 정신이 것을 표명하심과 아울러, 다시 역조의 정신이 곧 내 한 개체의 정신인 것을 밝게 정하신 것이니라.

故로 靈與世는 不過同一理之兩側面而已니라

이를 한층 뜻을 좁히어 말하면 전대 역조의 정령은 후대 역조의 정령이 된다는 점에서 조상의 정령은 자손의 정령과 같이 융합하여 표현되고, 선사의 정령은 후학의 정령과 같이 융합하여 영원히 세상에 나타나서 활동함이 있는 것이니라.

대신사 일찍이 주문의 뜻을 풀어 말씀하시기를 "모신것이란 안에 신령이 있고 밖에 기화가 있어 온 세상 사람이 각각 알아서 옮기지 않는 것이라"하셨으니, 이는 영의 유기적 표현을 가리킴이요, 사람이 곧 한울인 정의를 도파한 것이니라.

神師 受人乃天之心法하시니 定向我設位之祭法하시니 是는 表明宇宙之精神이 卽億兆之精神也와 共히 更明定億兆之精神이 卽我一個體之精神也니라

大神師 嘗 呪文之意 解釋曰 "侍者는 內有神靈하고 外有氣化하여 一世之人이 各知不移者也" 하시니 是는 指稱以靈之有機的表顯이요 道破人乃天之定義也니라.

此以一層狹義而言之면 前代億兆之精靈은 爲後代億兆之精靈之點에서 祖先之精靈은 與子孫之精靈으로 融合表顯되고 先師之精靈은 與後學之精靈으로 融合하여 永遠出世的活動이 有之也니라

그러므로 성령은 근본이 세상에 나타난 것이니라. 영을 떠나 별로 물건이 없고 물건을 떠나 별로 영이 없고 다시 세상이 없으니, 마침내 영은 세상을 마련하고 세상은 영을 얻은 것이니라. 물건마다 각각 그 성품을 이룬 것은 이 신묘한 성령의 활동이 만기만상에 응한 것이요, 기국대로 세상에 나 조섭하는데 응함이니, 비유하면 같은 비와 이슬에 복숭아는 복숭아 열매를 맺고, 살구는 살구 열매를 맺나니, 이것은 천차만별의 식물에 좇아 천차만별의 열매를 맺음과 같으니라.

또 하물며 대인의 덕은 천지와 더불어 같이 성령이 활용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한울과 우리 신사는 다만 형상이 있고 형상이 없는 구별이 있을 뿐이요, 그 영성의 계기로 보면 전혀 같은 범위에서 같은 활동이 같이 표현되는 것이니, 이것은 한울이 곧 사람이요, 사람이 곧 한울인 관계이니라. 천지만물은 한가지로 순응하여 시대역조와 같이 진화하므로, 그 심법은 결코 인간을 떠난 것이 아니요, 전부 세간과 합치된 것이요, 세간에 나

## 慰靈의 노래

1. 해가 뜨고 해가 지는 대 자연속에 한울님의 은덕으로 태어난 인생 거센 풍과 헤치며 가는 길이란 때가 오면 환원하는 자연의 법칙 곡절달던 개척의 길이 제 끝내고 평화로운 복된자리 편히 쉬소서

2. 살아생전 보람있는 길을 닦으며 슬기롭게 올바르게 일을 하다가 몸은 비록 조화중에 떠나갔지만 무궁토록 어진성령 길이 빛나리 곡절달던 개척의 길이 제 끝나고 평화로운 복된 자리 편히 쉬소서

[출전: 전덕송 80-81면]



2003/05/13

타난 것이니라.

又祝大人之德은 與天地共活用靈性이라 故로 天與吾神師는 但有有形無形之別이요 觀其靈性的契機則全爲同一範圍 同一活動 同一表顯也니 是는 天卽人人卽天之所由來니라 天地萬物은 共順應하여 時代億兆와 同進化 故로 其心法은 決非超人間的이요 全然合世間的 出世間的이니라

余嘗 梁|修煉之時에 豁然得 "昔時此地見 今日又看看"之詩句 하니 是는 大神師之昔時와 余之今日이 性靈上同一心法을 立言함이니라

大神師는 旣爲性靈出世矣시니 一切物物心心이 皆不無此性靈之 出世的表顯也니라

내가 일찍이 양산 통도사에서 수련할 때에 활연히 "옛적에 이곳을 보았더니 오늘 또 보는구나"하는 시 한 구절을 불렀으니, 이것은 대신사의 옛적과 나의 오늘이 성령상 같은 심법임을 말한 것이니라. 대신사는 이미 성령으로 출세하셨으니 일체의 물건마다 마음마

다 다 이 성령의 출세한 표현이 아님이 없는 것이니라.

그러나 우리 사람이 이를 깨닫고 깨닫지 못하는 바는 전혀 성령을 수련하고 수련치 않는 데 관계한 것이니, 만약 우리가 각각 대신사의 심법을 받아 성령수련한 결과가 하루 아침에 환한 경지에 이르면, 이에 대신사의 심법이 일체 우주의 심법임을 깨닫고 따라서 자기의 성령이 곧 대신사의 성령임을 깨달을 것이니, 불생불멸하고 무루부증한 것은 이것이 큰 성령의 근본적 출세이니라.

然而吾人이 以此覺得 未覺得之 所以는 全關係性靈之修煉不修煉이니 若以吾人이 各受大神師之心法而性靈修煉之結果 一朝豁然境에 到之則 茲覺大神師之心法이 一切宇宙之心法而從以覺者己之性靈이 則大神師之性靈이니 不生不滅 無漏無增은 是大性靈之根本的 出世也니라

[출전: 서울, 천도교 중앙총부 편, 天道敎經典, 포덕 142년 3월 1일 개정 5판, 653-660면]

## 永生不滅 바람직한가?

海心(문리대 59년 졸)

얼마전까지만 해도 2150년에는 인간의 수명이 150이 되리라 하더니 요즘엔 2100년엔 5천년 가까이 될 것이라고 生物學者들은 전망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이렇게 오래 산다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일일까? 저 희랍神話에 나오는 프 오디시어스는 妖精 칼립소로부터의 永生不滅이란 誘惑을 마다한다. 부인 페네로피와 같이 늙다 죽기 위해,

죽음(문자 그대로 쓰는 말입니다. 그 어떤 비유나 은유 또는 암시가 아니고) 이 우리 人間(그리고 모든 생물) 모두의 진정한 목표요 목적지인 이상 저는 벌써부터 이 가장 진실하고 친한 친구와 아주 가까운사이로 잘 사귀어 왔답니다. 그래서 죽는다는 것이 무섭지가 않고 제게는 平和로운 慰安이 될 뿐입니다. 이렇게 죽음이 참 幸福의 열쇠임을 깨달을 수 있는 기회와 행운을 제게 주신 神께 저는 감사할 따름입니다. 아직 제가 젊기는 하지만 밤이면 밤마다 잠자리에 누우면서 비록 내일은 온다해도 저라는 사람은 더 이상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는지 모른다는 생각을 안해보는 때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날 보고 침울하다거나 우울하다고 말할 사람은 세상에 하나도 없지요. 이 점에 대해 저는 저의 創造主께 날이면 날마다 감사해요. 그리고 내가 느끼는 행복을 다른 사람들도 다 느낄 수 있기를 진심으로 빌고 바랍니다.」이것은 보통 사람의 반평생을 사는 동안 배 아니 몇 배로 살다 간 오스트리아의 作曲家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1756-91)가 生前에 그의 아버지에게 쓴 편지 내용 일부이다.

우리 모두 모차르트 같이/모름지기/짜르르르/사르르르/트리라. 참으로 삼답게 사는 길을, 정말 삶을 사랑하는 길을.

□

## 가르침

항상 기다리시며 가르치셨습니다. 현해탄을 다시 건너는 대신 석유 등잔 빛 아래서 글을 가르치셨습니다. 또 이른 아침에 무거운 짐을 지고 나가 어둠이 짙은 저녁에 돌아와서도 맑은 물처럼 돌아보는 일을 함께 하시며 가르치셨습니다. 항상 말보다 자신의 할 바를 먼저 하라고 하셨습니다.

동산에 뜬 달을 찾아 오르듯 태평양을 건너간 동안 스무 세 해를 기다리셨습니다. 닷새 동안 말없이 주무시면서 가르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잠깐 다녀 오겠다고 하자 만길을 떠나시며 다시 가르치셨습니다. 默菴, 愚菴선생님들의 인자하며 넓은 기운이 항상 서린 仙區교구의 同德들과 權菴 교구장님과 하여금 義菴聖師의 法說로써 西洋의 賢者들(the Stoics & Spinoza)이 멀리 있지 않음을 일깨워주셨습니다.

비오는 먼길을 멀다 아니하고 찾아와 힘을 준 친구와 先後輩들의 따뜻한 友情을 간직합니다. 鎭川의 川阿에 감도는 氣運을 늘 생각하며, 이곳 제네바 마을에 한 가족이 어머니를 생각하며 지은 마을사람들을 위한 평안한 도서관에 앉아 이 가르침들을 새겨 보았습니다. (어머님께 동생들과 함께 正守 올림)



# 挑戰

雅琅 禹順子(미대 70년 출)

나는 행복하여라  
 도전 할 수 있음에,  
 그대도 행복하지 않은가?  
 도전 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졌음에,  
 有限한 존재로서의 無限의 도전  
 동물의 웃을 입은 인간으로서의  
 神性으로의 도전  
 原罪와의 도전  
 業報와의 도전  
 正義를 위한 도전  
 人類가 지질러 온 그 모든 잔혹함을  
 속죄하기 위한 도전  
 이기적인, 너무나 利己적인  
 나 자신과의 나날의 도전

새 세상을 꿈꾸는 자는 도전한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자는 도전한다  
 좌절과 절망의 늪에  
 희망을 심는 자는 도전한다  
 先驅者들은 도전자였다  
 너와 나, 우리도 도전하자  
 빛나는 내일의  
 찬란한 아침을 위해

편집자주: 아래의 禹동문의 작품  
 은 2003년 1월 International  
 Library of Poetry(1 Poetry  
 Plaza, Owings Mills, MD  
 21117-6282, www.poetry.  
 com)의 편집인상 수상 작품이며,  
 年例文集인 조용한 고독(Silent  
 Solitude)의 수록될 작품  
 (Snow, The Ocean, Morning  
 Prayer, Whenever Season  
 Changes)들 중의 일부이다.  
 작가 연락처 : 804-273-9918,  
 ahrung@copper.net

## Sn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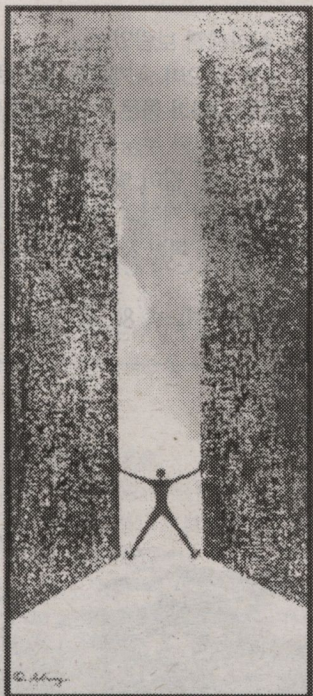
Lightly, lightly  
come down softly.

Come down joyfully  
like the steps of lovers  
on their way to meeting.

If you come like a storm  
I will become  
confused and lost.

But if you must come down  
show us a fairy-tale land-  
scape  
of sweet dreams.

And when we wake,  
show us a special light  
to lead us to a new world



## 눈

사뿐히 사뿐히  
하얗게 내려다오  
그대 만날 즐거움에  
가벼운 발걸음처럼

외로운 방향인 듯  
그렇게 휘몰아치면  
내 마음  
어지러워라

정녕 그래야 한다면  
포근히 아름다운  
설경을 그려다오  
모든 사람들이 꿈에 잤도록

그리고 그 꿈에서 깨어날 때  
새 빛을 보여다오  
성스러운 날  
구원의 별빛같은

## Artist's Struggle

It could be all right  
If you stop the clock's  
counting.

It would be enough  
Outside the cricket's  
singing.

Thanks for today. Now  
It is the time to face the e-  
ternity.

Even striving to hear the  
message.  
Even striving to see the  
truth.

Even paint and paint  
Paint and paint again to  
see the real form.

it has not been shown yet.

## 삶의 맛

조대현 (공대 년졸, 알관연구소 연구원)

삶이란 무엇인가는 아마도 생각  
하는 사람들을 끊임없이 골몰하  
게 하나 일상 생활 속에서 우리  
들에게 다가오는 것은 살만한  
순간들이다. 묵은 옛 글을 다시  
뒤져보는 것은[원래 시카고지  
역동창회에서 격년으로 발간하  
는 冠岳誌(1988년)에 내었던  
글임], 아마도 무심중에도 다가  
오는 2003년 11월 29일의 시카  
고 동창회 송년총회에서 만나게  
될 선후배동문들과 함께 할 자  
리를 생각한 것이리라.

두어달 전에 서울에서 친구가  
다녀갔다. 근 30년만에 만난 고  
등학교 동창인데 현재 서울 모  
의과대학 精神神經科 과장으로  
있다. 몇 사람 친구들이 모여  
저녁을 하며 세상이야기를 나누  
던 중 갑자기 이 친구가 질문을  
하고 세상을 사는 데는 네가지  
맛이 있는데 맞추어보라고 한  
다. 한 사람이 먹는 맛, 또 한  
사람이 섹스, 두가지가 금방 나  
왔다. 나머지 두 가지는 아무도  
이야기를 못해 이정신선경과 교  
수가 대답을 해 주었다. 세번째  
는 "잠자는 것"이라고한다. 단  
잠을 자고 나면 기분도 좋고 몸  
이 가벼워지는 것이 보통이니까  
수음이 간다. 네번째는 "삶의  
맛 그 자체"라고 한다. 처음 들  
을 때에는 그럴듯했는데 그후  
생각해보니 잘 이해가 안간다.  
이 친구는 이미 떠났으니 물어  
볼 수도 없고, 혼자 곰곰히 생  
각해 보기로 했다.

처음 세가지 맛은 삶의 기본  
적인[육구] 표현인 만큼 당연  
히 삶의 맛에 속해야 될 듯 하  
다. 결국 네번째는 이 기본적인  
세가지를 제외한 다음 기타사항  
삶의 맛이 되겠다. 무엇이 있을  
까 생각해 보다가 우선 우리 생  
활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을 살  
펴보기로 했다. 혹시 이런 일들  
이 기타 사항 "삶의 맛"이 아닌  
가 한다.

① 몇주전 텔레비전에서는 서  
울올림픽 중계가 한창이었다.



세계에서 최우수로 뽑힌 선수들  
이 전력을 기울여 경쟁하고 있  
다. 그 중에는 금메달을 타고  
자기 나라 國歌가 연주될 때 감  
격의 눈물을 흘리는 선수도 있  
다. ② 며칠 전 신문일면에 이  
근처 물리학연구소에 있는 과학  
자가 두 손을 번쩍 들고 웃고  
있는 사진이 나왔다. 방금 노벨  
상 수상소식을 듣고 희열에 차  
있는 순간이다. ③ 동료 중에  
증권시장 가격만 오르면 싱글방  
글 갑자기 이야기가 많아지는  
사람이 있다. 항상 돈을 번다는  
것이다(증권이 내려가면 싹 조  
용해진다). ④ 대학친구가 근  
10년만에 전화를 했다. 아들이  
하바드대학교에 들어가게 되었  
다고 한다. 기쁜 일이다. ⑤ 가  
끔 장거리전화를 해오는 고등학  
교 친구가 있다. 하루는 밤늦게  
11시경 전화가 왔다. 골프를 시  
작한지 1년만에 "홀인원"을 했  
다고 한다. 그것도 정식 토너먼트  
에서 한 일이라 기록에 오른  
다고 한다. 축하한다고 술값이  
꽤 나간 모양이다. ⑥ 아이들이  
하는 동네 축구경기가 있다. 어  
제 아침에는 국민학교 1학년짜  
리 딸아이가 하는 곳을 가보았  
다. 날씨가 쌀쌀한데도 동네 아  
주머니들이 커피통을 들고 나왔  
다. 한 시간 동안 소프라노로  
응원하는 모습을 보니 나도 덩  
인 달아 흥분되는 것 같다. ⑦  
집 근처에 공원이 하나 있다.  
갓난 어린애를 스트roller에 끌고  
나와 재롱보고 있는 젊은 엄마  
의 모습은 즐겁기만 하다. ⑧  
어느 일요일 오후에 전화가 왔  
다. 국민학교 1학년인 딸의 친  
구가 놀러 온다고 한다. 몇분  
후에 또 전화가 왔다. 이번에는  
국민학교 4학년인 아들에게 왔  
다. 친구가 자기 집으로 놀러  
오라고 한다. 두 아이들이 갑자  
기 생각이 돌고 신이 나기 시작  
한다. ⑨ 근처 YMCA에 가서

수영을 하면 가끔 만나는 중국  
할아버지가 있다. 늘 아들, 손  
자들과 같이 온다. 머리는 다  
빠지고 70이 넘는 고령인데 근  
력이 좋은 것 같다. 영어는 잘  
못하지만 우리를 만나면 늘 반  
갑게 웃고 인사한다. 천진난만  
한 아이들의 표정과 똑같다. ⑩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캘리포니  
아 대학교 교수를 하던 사람을  
우연히 만났다. 부인에게 離婚  
당하고 스테레오까지 없어졌다  
고 한다. 지금은 샌프란시스코  
근처에서 일하고 있는데 건강문  
제도 있는 듯 하다. 자기 땅이  
하나 있어서 시간만 있으면 가  
서 손수 집을 짓는 것이 樂이라  
고 한다. 언제 그 집이 완성될  
지는 본안도 모른다. ⑪ YM-  
CA 수영장에 가면 만나는 젊  
은 부부가 있다. 30도 채 안된  
듯하다. 남자는 휠체어를 타고  
수영장에 온다. 여러사람이 부  
축해서 물 속에 내려놓으면 여  
자가 혼자 남자를 붙들고 왔다  
갔다하면서 운동을 시킨다. 남  
자의 얼굴 표정은 늘 굳어있다.  
아마 신경장애가 있는 듯 하다.  
근래 보니 운동에 조금씩 진보  
가 생기고 있다. 그 굳은 표정  
을 통해서도 희색이 나타나는  
듯 하다.

위에 열거한 삶의 맛들이 다  
같은 성질의 것은 아닐 것이다.  
어느 것은 깊이가 있고 오래 가  
겠고, 어느 것은 가볍고 짧게  
끝나겠다. 하지만 맛은 맛이다.  
삶을 즐겁게 하기는 마찬가지이  
다. 우리가 서울대학교 동창회  
모임을 갖고 가끔 만나는 것도  
삶의 맛은 하나이겠다. 이 글을  
서울에 있는 신경정신과 교수친  
구에게 보내보려고 한다. 전문  
가가 읽어보면 아마 웃을지 모  
른다.

이제 88년 서울올림픽도 옛  
날 일이고 그때 국민학교 1학년  
이고, 4학년이던 딸아이가 아들  
은 모두 장성해 나갔다. 아마  
우리동문을 가정에도 그러하시  
겠지. 이번 총회에 동문선후배  
들을 다시 만나면 지금까지 각  
자가 살아오시면서 간직하신  
"삶의 맛 그 자체"는 무엇인가를  
들어보려다.

only  
the tarnish of the colors  
left.

What shall I do?  
What shall I do?

## 畫家의 고뇌

방안에서 짜각거리는 시계의 소리는

잠시 그쳐도 좋지 않을까.

창가에서 귀뜰대는  
풀벌레 소리면 족한 것을.

오늘도 하루는 지나가고  
밤의 고요속에 영원을 정시하는 시각  
언제면 그 말쑥 귀에 와 닿고  
언제면 그 모습 눈에 보일지

생각하며 그리고 또 그려 보아도

나타나지 않는 형체.

붓끝에서 묻어나는  
물감의 빛바램을

어찌하면 좋을까  
어찌하면 좋을까



### 남가주 소식

## 2003년 모교 音大 연주단 LA 공연

### 8월 19일(화) 오후 7시 Wilshire Grace Church

재미서울대학교 총동창회가 주최하고 母校와 남가주동창회(회장 광철, 법대 64년 입)가 母校와 공동 재정부담으로 2003년 모교음대 순회연주단의 5회의 공연중 마지막 공연이 LA에서 2003년 8월 19일(화) 오후 7시에 Wilshire Grace Church (5220 Wilshire Blvd., LA, CA 90005)에서 열린다.

이번 음악회는 작년의 모교음대연주단이 8개 지역의 9년의 공연에서 모두 큰 성공을 거둬에 따라, 총동창회가 後輩들에게 冠岳에서 연마한 예술적 기량을 海外에서 발휘 할 기회를 제공하며, 國樂과 西洋고전음악의 和音을 동문들이 함께 나누는 기회를 마련하며, 동창회 조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마련한 것이다.

금년의 연주단의 일정은 워싱턴 DC를 始發로 하여 뉴욕, 필라, 달라스를 거쳐 LA이다. 이번 연주단은 5명의 국악연주자를 포함한 10명의 단원들로 구성되어 新進氣靚들의 藝術的力량을 미주동문들에게 자랑하게 되었다. 원래 금년 음악회는 재

정문제로 그 시행이 불투명하였으나, 재미서울대학교 총동창회 제 12차 전국평의회(5월 31일)에 참석한 교직원들을 통하여 母校에서 금년도 음악회의 5개지역 시행계획을 재미서울대 총동창회에 제안한 결과, 급박한 일정, 공연장 확보와 지역동창회의 재정부담(\$3,000)과 여러가지 준비 문제 등으로 그 시행이 어렵게 되었으나 남가주총동창회가 마지막 공연을 신청하여 금년 순회연주단의 미주방문은 재미서울대학교 총동창회의 年例事業으로 정착되게 되었다.

재미서울대총동창회는 급박한 일정에도 무릅쓰고 이 음악회를 준비하기 위하여 수고한 남가주 동창회의 曠職회장, 홍옥자(사업국장, 음대 70년 졸), 김지영(총무국장, 사대 69년 입), 성주경(재무국장, 상대 72년졸)동문을 비롯한 남가주 동문들의 지원에 감사드린다. 연락처: 홍옥자동문 Tel :213-387-5959

### 吳在仁 동문

#### 남가주 동창회 역사 手記

시카고대학에 동창회보와 함께 영구보존



오재인 (치대 38년 졸, 남가주동창회 2대부터 5대회장 역임)동문

남가주 동창회의 元老 동문이신 오재인 박사(京城齒醫學專門 1938년 졸)는 재미서울대학교 총동창회보를 영구보존 조치하기 위하여 초기의 일실된 동창회보 1호에서 22호까지를 찾는다. '在美서울大同窓會報' 95호(2002.1.28)의 보도 기사를 보고 2003년 5월 4일자 消印의 우편으로, 미주관악후원금 이사회비와 함께, 자신이 보관중이던 재미서울대 동창회보 1호에서 4호와 재미총동창회 설립이전 남가주총동창회가 발행한 남가주 동창회보였던 '서울대학교 同窓會報' 창간호(1978.12.1, 발행인 오재인, 편집인 이

근섭, 전체 8면), 제 2호(1979.6.30, 발행인 오재인, 편집인 김진형, 전체 12면) 및 제 3호(1980.1.1, 발행인 오재인, 편집인 김진형, 전체 10면)와 남가주서울대학교 회보 및 주소록(1981년 회장 金永基) 외에 다른 주소록 4권(1977년도 발행된 서울대학교동창회 회원명부(남가주지부), 전체 34면, 발행인 오재인, 편집인 이근섭/ 1980년도 발행 서울대학교 동창 주소록, 전체 52면, 발행인 오재인, 편집인 김진형/ 1986년도 남가주 서울대학교 동창회 회원명부, 전체 46면과 34면의 광고지면, 발행인 차종환, 편집인 김유필, 인쇄처 동창회 소비조합/1989년 1월 30일 발행 남가주 서울대학교 동창회 및 재대의 동문 총람, 전체 262면, 발행인 박상길, 편집위원 김병연, 장준철)과 吳동문에서 肉筆로 기재하여 보관 중이던 남가주의 동창회 활동과 자신의 중요 활동연보를 포함한 15면의 手記 남가주 서울대학교 동창회 창립 22주년을 맞이하면서 연혁 및 경과보고 寫本을 재미서울대학교 동창회 사무실로 보내왔다. 재미서울대학교 동창회회는 이번에 The University of Chicago East Asian Library에 在美서울大同窓會報를 영구보존할때 吳동문에서 보내주신 귀중한 수기 및 자료는 앞으로 남가주 한인이민사를 연구하는데 하나의 단서로서의 가치를 발휘할 것으로 판단하여, 동창회보와 함께 영구 보존 조치하였다.

## 골프대회

### 모국 순방단 평의원 가족 1백명 참가

남가주지부동창회(회장 郭鐵)는 6월 1일 LA 근교의 Palm Springs Mesquite 골프장에서 서울대총동창회 순방단 및 재미서울대동창회 제 12차 평의원의 평의원, 남가주지부 동문 등 1백명이 참여한 가운데 골프대회를 개최했다.

골프대회 후 오후 6시부터 열린 시상식에서 金民鎰(73년 獸醫大卒)동문과 全鉉一(66년 農大卒)동문 부인이 남녀 챔피언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1등은 承元杓(77년 獸醫大卒)동문, 2등 韓鍾喆(68년 齒大卒)동문, 3등 李國鎭(75년 工大卒)동문이 수상했으며, 남녀 메달리스트는 양동복씨와 吳興祚(61년 齒大卒)동문 부인, 남녀 Longest는 李種吉(64년 工大卒)동문과 李明善(62년 商大卒)동문 부인, 남녀 Near-est는 金鍾律(55년 師大卒)동문과 李相昊(84년 師大卒)동문 부인이 각각 차지했다. 서울대총동창회의 林光洙회장은 유례없이 성황을 이룬 이날 골프대회를 위해 골프장과 식음료, 만찬을 제공하는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서울대동창회보 304호(2003년 7월 15일자) 정민호 기자 보도>

## 임낙균 동문 공로패 수상

제 12차 재미서울대 총동창회 평의회에서 임낙균(약대 64년 입, 남가주동창회 22대회장)동문은 그간 동창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서울대학교 총동창회(회장 임

광수)가 수여하는 공로패를 5월 31일 열린 미주관악후원의 밤에서 수상하였다. [수상공적사항 11면 참조]



## 유타 동창회 소개

### 유학생 · 교환교수 주축 학구적 분위기 조성

黃善鍾(89년 自然大卒)총무

아메리카 대륙을 남북으로 가로지르는 로키산맥 서편을 따라 도시들이 남북으로 형성돼 있는 이곳 유타주는 Navajo 인디언들이 살고 있던 지역에 1847년 Mormon교도들이 거주하며 정착촌을 건설하면서부터 시작됐다. 이 정착촌이 지금의 유타주 수도이자 얼마 전 동계올림픽으로 잘 알려진 Salt Lake City이다.

도시 해발 평균이 약 1천3백m의 고지대에 위치한 이 도시는 주변에 소금호수인 Great Salt Lake과 높은 산들로 둘러싸인 분지를 이루고 있어 도시 한 복판에서 30분 정도의 거리에 산림, 계곡, 호수, 강, 스키장 등의 풍부한 자연미를 감상할 수 있는 독특한 환경을 가지고 있다.

Salt Lake City는 지난 몇 년간 연속해서 일반 생활환경 및 기업운영 여건 분야에서 미국 내 최고의 도시들 중 하나로 선정돼 오고 있다.

그러나 유타주의 가장 큰 매력은 큰 협곡과 숨을 멎게 할 정도의 멋지고 다양한 경치를 볼 수 있는 국립공원들이라고 한다.

남북한을 합한 정도의 면적을 가진 유타주에는 Salt Lake Metropolitan 지역에 약 65%의 인구가 집중돼 있으며 전체 인구는 약 4천5백명 정도로 추산된다. 이중 서울대 동문은 약 50명에 이르고 있다. 동문 가운데 이민 온 사람은 14명이고 나머지는 유학생과 교환교수들로 구성돼 있으며, University of Utah가 있는 Salt Lake City, Brigham Young University가 있는 Provo, Utah State University가 있는 Logan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1946년 University of Utah에서 초청, 이론화학에 큰 기여를 하고 70년대 중반에 후학을 위해 과학원



1999년 정기총회에 모인 유타 동문들

으로 귀국했던 故 李泰圭박사를 효시로, 중서부지역 이민사 연구에 노력장을 자랑하고 계시는 李廷冕(51년 師大卒)박사, 태국 개발 UN Project로 4년째 현지에 나가 있는 金鍊(58년 文理大卒)박사, Extractive Metallurgy계에 국제적으로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孫洪龍(62년 工大卒 화공과 )박사, Biomaterial과 Gene Drug Delivery System의 권위인 金城完(63년 文理大卒)박사, 인공 췌장과 Protein Drug Delivery System에 많은 연

구를 하고 있는 裒有漢(80년 工大卒)박사 등 각 전공 분야에서 뛰어난 공헌을 하고 있는 다섯 분의 교수와 더불어 Campus 중심의 유동적인 동문들이 대부분이지만, 때때로 모여 동문간의 친목과 우의를 다지며 서울대 가족의 일원임을 확인하기도 한다. 또한 위의 3개 대학에서 학위를 끝내거나 연구 업적을 남기고 귀국한 동문들이 여러 분야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 나가고 있음은 학구적인 분위기가 다분한 이 지역의 자랑이기도 하다.



韓成洋 유타 회장

(64년 工大卒)동문이 초대회장에 선출돼 회칙 제정 및 조직을 갖췄으며, 현재는 韓成洋(69년 文理大卒)회장이 동창회 발전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고 있다. 비록 작은 규모의 지부이지만 유타 지부는 매년 골프대회, 테니스대회, 야유회 등을 개최하며 동문 상호간의 친목과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적극적인 동문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올해 가을에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송년회를 겸한 정기총회와 친목 테니스대회를 계획하고 있으며, 새로 전출입한 동문들을 update하여 주소록 발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서울총동창회보 294호(2002년 9월 15일)에서 전재]

1993년 12월 30일 유타지부 동창회 발기회와 1994년 1월 8일 1차 정기총회를 거쳐 朴鍾秀



### 뉴욕 소식

## 동창회 총회 및 여름 골프대회 차기회장에 楊舜宇(법대 76년 졸) 동문

동창회 총회 및 하계 골프대회가 지난 6월 21일 오후 12시부터 Lake MacGrigor Country Club, 에서 개최되었다. 연이은 흐린 날씨에도 불구하고 60여명이 참석하는 대 성황을 이루었다. 아쉽게도 오후 5 시경부터 내리는 호우 때문에 대부분은 경기를 중단하지 아니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인근 호수가 식당에서 모든 동문들이 모여 화기에애한 담화와 식사로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상: 이강홍(상대)  
남자부: 1등 노재홍(의대), 2등 최수용(상대), 3등 김충식(상대)  
여자부: 1등 Mrs. 노재홍(의대), 2등 Mrs. 정인용(의대), 3등 Mrs. 성충기

이번의 성공적인 동창회 골프모임을 위하여 아래의 동문들이 상품 및 현금을 기증하였다.

<상품기증> 이수호(대학원) 漢藥 한제, 신정택(약대)화장품 set, 손영철(공대) 골프 장갑 여

자용 3sets, 남자용 10개, 이진구(농대) 골프 공 24 dz

<현금찬조금> 농대동창회 \$200, 상대동창회 \$200, 약대동창회 \$200, 의대동창회 \$200, 노용면(의대 55년 졸, 이사장) \$200, 신정택(약대 52년 입) \$100, 한창섭(문리대

57년 입, 23대 회장) \$300, <무료광고> 다른 뉴욕지역 동창회의 모든 행사 때와 같이 Radio Seoul사의 권영대(공대 73년 졸) 사장은 무료로 광고를 해주었다.

이날 식사 후에는 뉴욕지역 동

창회의 총회모임이 계속해서 있었다 양순우 부회장의 사회로 시작되어 노용면 이사장의 인사가 있던 후 한창섭 동문(23대 회장, 재미총동창회 평의원)의 LA에서 지난 5월 30일부터 6월 1일까지 열린 재미총동창회 제 12차 전국 평의원회의에 대한 참석 보고가 있었다. 이번 평의원회에는 7명의 뉴욕평의원 총원 중 당연직인 김종을회장과 선출직인 한창섭, 윤정옥평의원이 참석하였고, 정택수 골든클럽회장(문리대)과 이준행(공대)동문께서 평의원 대행으로 참석하였다. 이어 김종을(사대 51년 입)회장의 인사와 지난 1년간 뉴욕동창회의 재정 및 업무보고가 있었다. 김회장은 지금까지 모든 행사가赤子를 보지 않고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동문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했고 특히 그 동안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많이 주신 각 단과대학 동창회와 회장님들께 감사를 표했다. 이날 총회의 중요 결정사항은 뉴욕동창회의 관례에 따라 현 부회장 楊舜宇(법대 76년 졸) 동문을 뉴욕동창회 제 25대 회장(2003-4년 회기)으로 그리고 정인식(상대 62년 입)동문을 차기 부회장으로 인준하였다. 감사에는 Edward 강(사대)와 김창수(약대 68년 입)동문이 계속 봉사하도록 결정되었다. 이사장과 기타 임원진 구성은 차기회장단에게 일임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재미총동창회의 뉴욕지부의 평의원선출도 회장단에 일임하기로 하였다



뉴욕동창회 골프대회 수상자와 김종을 회장

이날 白球대회 수상자는 아래와 같다.

★단과대학 대항 - 우승: 1등 상대팀, 2등: 공대, 3등: 약대

★개인전 Medalist: 장용순(상대), 長打상: 유우영(공대), 近接

## 한창섭 동문 공로패 수상

제 12차 재미서울대 총동창회 평의원회에서 한창섭(문리대 57년 입, 23대 회장)동문은 그간 동창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서울대학교 총동창회(회장 임광수)가 수여하는 공로패를 5월 31일 열린 미주관악후원의 밤에서 수상하였다. [수상공적사항 11면 참조]



제11차 평의원회(2003년 6월15일, 시카고)에 참석한 조지아의 김재철회장(사진 좌)과 박희창 전 조지아회장

## 조지아 동창회 김재철 동문 공로패 수상

5월 31일 열린 제 12차 재미서울대 총동창회 평의원회에서 김재철(공대 69년 졸, 2001-2002년 조지아 회장 역임)동문은 그간 재미동창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재미서울대학교 총동창회(회장 이용락)가 수여하는 공로패를 수상하였다. [수상공적사항 11면 참조]

## 母校 音大 연주단 뉴욕 공연

8월 13일(수) 오후 7시, Flushing Town Hall

재미서울대학교 총동창회(회장 이용락)가 주최하고 母校와 다섯 개의 공연지역동창회의 공동재정 지원으로 열리게 되는 2003년 모교 음대 순회연주단의 뉴욕공연이 오는 8월 13일 수요일 오후 7시부터 Flushing Town Hall(137-35 Northern Blvd., Flushing, NY 11354 Tel: 718-463-7700)에서 열린다.

8.15광복절과 한인 이민백주년을 맞이하여 이루어지는 이번 음악회는 더욱 뜻깊은 행사가 될 것이다. 연주장인 Flushing Town Hall 일층 화랑에는 현재 한국 이민백주년 사진 전시회가 진행되고 있어 음악회 시작 전에 또한 이를 관람 할 수 있다. 이번 연주회의 순방단의 공연이 지난 5월말 LA의 전국 평의원회 석상에서 늦게 확정됨에 따라 당초 공연장 확보 및 지역분담금 확보 등의 어려움으로 뉴욕공연 개최가 어려웠으나 김종을 회장, 양순우 부회장, 한창섭(문리대 57년 입, 제 23대 회장) 동문 및 오인석(법대 58년 입, 재미총동창회 명예회장 및 제 16대 뉴욕회장직임) 동문 등이 후배 음악도들에게 뉴욕 공연이 갖는 비중을 비추어, 뉴욕동창회의 여러 동문들의 협력지원을 모아 금년에는 뉴욕 공연을 갖게 되었다. 뉴욕지구 동창회(회장 김종을, 이사장: 노용면, 차기회장: 양순우, 총무: 봉주희, 감사: 에드워드 강, 김창수)는 이번 음악회에 많은 동문 및 음악 애호가들의 많은 참석을 바라고 있다.

뉴욕지역 동창회는 母校 음대의 사랑스럽고 자랑스러운 후배들의 미주 순회음악회를 성공을 위하여 후원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단과대학 및 대학원 동창회 회장

단 서영숙(간호대), 객선섭(공대), 신응남(농대), 최용열(문리대), 한규남(미대), 양순우(법대), 정영희(사대), 장용순(상대), 전병로(수의대), 성기로(약대), 박상원(음대), 정인용(의대), 박희병(치대), 이수호(대학원)

◆후원: 뉴욕 중앙일보사, 라디오 서울, KTV

◆후원해주신 전임회장 및 이사장단

김병술(약대), 김영덕(공대), 권태전(사대), 노용면(의대), 송관호(의대), 오인석(법대), 오민근(약대), 윤정옥(약대), 이문희(문리대), 이진구(농대), 임근식(음대), 최수용(상대), 진봉일(농대), 최철용(농대), 추재욱(의대), 한창섭(문리대)

◆후원 해주신 專門人 동문

♥공인회계사: Edward 강, 김명승, 김용배, 김창수, 김진원, 박성남, 이근수, 이경립, 최영태 ♥변호사: 김용화, 손창문, 신응남, 양순우, 염상진, 최형무, 한진욱 ♥의사: 김연철, 김승관, 김치갑, 노재홍, 민병덕, 박병렬, 석창호, 이종현, 이태봉, 정인용, 정진우, 한영수, 황용규, 이수호(한의원) ♥치과의사: 김 승, 권영함, 박희병, 송재현, 신영수, 이문세, 이성길, 이종의, 원도수, 장기하

◆후원해주신 동문 업체:

♥Raysol Drugs Inc - 대표 김문경 (약대), ♥Geoffrey Allen Corp. - 대표 이기영(농대), ♥동아 여행사(Dong-A Travel, Inc.) - 대표 신장자(간호대), ♥박상원 꽃집 - 대표 박상원(음대), ♥우륵심포니 - 지휘자 이준무(음대), ♥뉴욕골프 센터 - 대표 이진구(농대)

## 이순희(음대 57년 입) 동문 성악발표회

수익금 서울에고 후진양성에



뉴욕의 한국음악재단(The Korea Music Foundation)의 회장으로 있는 이순희동문(소프라노, 음대 57년 입) 지난 3월 8일 토요일 8시 30분부터 WEILL RECITAL HALL AT CARNEGIE HALL(57th Street and 7th Avenue)에서 성악발표회를 성공리에 가졌다. 이날 발표회에서는 Reynald

ahn(1874-1947)의 Quatre melodies, Gabriel Faure(1845-1924)의 La chanson d'Eve, Xavier Montsalvatge(1912-2001)의 Canciones para ninos 및 Ottorino Respighi(1879-1936)의 Sei Liriche등을 열창하였다. 이날 반주자로서는 오랫동안 이동문과 음악활동을 같이해온 Dalton Baldwin 교수(The Westminster Choir College in Princeton, New Jersey)가 수고하였다. 이날 자선 음악회의 전체 수익금은 고임원식 교수를 추모하기 위한 것으로 서울에고 동창회에 기증되었다. 성악가로서 풍부한 기량(tonal richness and bel canto lyricism)을 발휘해온 이동문은 현재 NY의 한국음악재단의 회장으로서 우수한 後進들의 양성에 주력하여 뉴욕 무대등장과 음악회 등을 지원하고 있다. 연락처 KOREA MUSIC FOUNDATION 37 West 65th Street (3rd Floor), New York, NY 10023 ☎ 212-942-5978 이다.



# 모교음대 연주단 뉴욕방문을 환영하며

뉴욕지구 동창회장 김중율(사범대 51년 입)

모교음대연주단의 미주 순회 음악회를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금년에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미 대륙을 순회 연주 하기 위하여 방학중임에도 불구하고 연주단에 참여한 후배 음대생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그들의 노고에 격려를 보냅니다. 그 동안 冠岳II에서 뛰어난 기량을 세계문화의 중심지의 하나인 뉴욕의 넓은 무대에서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음악회를 준비하는 데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뉴욕 동문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하에 유서 깊은 Flushing Town Hall Theater에서 뉴욕 공연을 가지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행사를 위하여 각 단과대학 동창회의 동문들과 회장님들, 그리고 뉴욕지구 총동창회를 이끄시며 많은 수고를 하였던 전임 회장님들께 이 음악회가 이루어지는데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특기 할 것은 각자의 분야에서 다망하신 가운데도 우리 동문 專門인들이 대거 지원을 한 것입니다. 자진해서 찬조를 해주신 동문들 중 특히 많은 협조를 해주신 이준

행(공대), 김문경(약대), 오인석(법대) 동문께 감사드립니다. 연주 학생들의 饗食을 맡아주시기로 하신 동문 가정의 수고에 사의를 표합니다. 또한 준비과정에 도움을 주신 정택수(문리대), 김영덕(공대), 한창섭(문리대) 동문에게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음악회를 위하여 광고를 내주신 동문 업체와 이 음악회를 후원해 주신 중앙일보 뉴욕지사(이석구 지사장, 문리대), 라디오 서울 KTV 사(권영대 대표, 공대)에게 진심으로 사의를 표합니다.

사람이 여타 동물과 다른 점은 詩와 노래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예술을 나누어 가진다는 것은 우리의 특전입니다. 音律를 통하여 우리는 人間性 회복을 기대해봅니다. 物質主義 사회 속에서 삶의 여유를 찾지 못하는 현대인에게 이 음악회가 한여름의 맑은 바람이 되었으면 합니다. 무더위 속에도 和音을 즐기기 위해서 음악회에 참석하신 同門 및 손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2003년 8월 13일



## 冠岳山의 자랑스런 후배들의 뉴욕방문을 환영합니다

양순우(법대 76년 졸, 뉴욕지역동창회 차기회장)

자랑스럽고 사랑스러운 후배들이 그동안 冠岳II에서 불철주야 갈고 닦은 기량을 세계문화의 중심인 이곳에서 수준 높은 관객들 앞에 선보입니다. 작년도 순회연주를 한 후배들의 기량이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전혀 손색이 없었음에 모든 동문들이 큰 긍지를 가졌습니다. 금년에도 이에 못지않은 성공적인 음악회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오늘의 이와 같은 행사가 해를 거듭할수록 그 규모와 수준이 향상되고 아

울러 세계적인 대학으로 발전하는 모교와의 유대 관계가 더욱 돈독해지는 계기가 되리라 믿습니다.

부디 이번 순회공연이 新進氣銳의 음악도들이 명실상부 세계 정상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도록 同門여러분들께서 아낌없이 격려하시고 후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행사를 준비하기 위하여 많은 분들이 도와주시고 노고를 아끼지 않고 힘써주셨습니다. 이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2003년 모교음대 연주단 달라스 공연

8월 17일 (일) 오후 7시 Irving Art Center

재미서울대학교 총동창회가 주최하고 母校와 달라스지역 동창회(회장 이병규, 약대 61년 입·사진)의 공동 재정부담으로 2003년 모교음대 순회연주단의 달라스 공연이 2003년 8월 17일(일) 오후 7시 Irving Art Center

(3333 Macarthur Dr., Irving, TX 75062)에서 열린다. 재미서울대학교 총동창회가 모교후진들에게 冠岳II에서 그들이 연마한 예술적 기량을 海外에서 발휘 할 기회를 제공하며, 國樂과 서양고전음악의 和音을 동문과

## 필라 소식

### 동창회 새집행부 구성

#### 신임회장에 김국간(치대 64년 입) 동문

필라델피아 동창회(회장 김용식)는 지난 7월 정기 총회를 열고 金溶植 17대 회장 후임으로 金國幹(치대 64년 입) 동문을 신임 회장으로 선출했다. 신임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필라 일원 델라웨어 벨리에 살고 있는 서울대 동창들의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각종 학술 강연회와 팔프 등 친목 행사 등을 개최하고 경조사를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새로 구성된 필라동창회 집행부 임원은 아래와 같다. ▲회장 : 金國幹(치대 64년 입) ▲부

회장 : 金世經(미대 62년 입), 이지영(사회복지학과 67년 입) ▲고문 : 윤정나(음대 57년 입) ▲총무 : 辛樂根(약대 89년 졸) ▲김국간 회장 연락처 E-mail: kookan.kim@verizon.net, ☎ 215-224-2110, 팩스 215-224-6452

#### 동창회 하반기 행사계획

필라델피아 동창회(회장 김국간, 치대 64년 입)는 7월 26일 김국간 회장 자

택에서 회의를 열고 올 하반기 사업 계획과 오는 8월 15일 개최되는 모교음대 미주순회공연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전년보다 많은 동창들이 음악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하였다.

30여명의 동창들이 부부 동반으로 참가한 이날 모임에서, 김국간 회장은 "9월이나 10월중에 전체 동창들이 참가하는 팔프 대회를 개최해 친목을 도모하고 같은 날 저녁 식사시간에 교양 강좌를 열어 심신에 활력을 주자"고 제안해 단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김 회장은 "동창들이 모두 분주한 탓으로 시간 할애를 많이 할 수 없는 만큼 한 번 모임 때 알찬 행사를 갖고 진행시키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또 이날 회의에서는 오는 12월에 송년회를 부부 동반 모임으로 개최하기로 했다.



이임하는 김용식회장 부부 -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 18대 필라동창회장단, 뒷줄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김국간 회장, 윤정나 고문, 김세경 부회장, 이지영 부회장.

## 모교音大 연주단 필라공연

8월 15일(금) 오후 8시, 첼튼햄 장로 교회

동포 사회에 개방 큰 호응 기대 금년에도 재미서울대학교 총동창회(회장 이용락)가 주최하는 모교음대순회 연주단의 필라델피아 공연이 오는 8월 15일 필라델피아 교외의 몽고메리 카운티에 있는 첼튼햄 장로 교회

(7507 Tookany Creek Park Way, Cheltenham, PA 19012)에서 열린다. 모교음대 재학생들이 관악산에서 연마한 화음의 技藝를 자랑하게 될 이번 공연을 필라동창회(회장

김국간, 치대 64년 입)는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동창들과 동포 사회에 즐거운 여름밤의 음악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 음악회에는 그 일정이 촉박하게 확정되어 공연장 확보와 지부 분담금(\$2,500) 등의 어려움을 무릅쓰고 이임하는 김용식회장과 신임 김국간회장 및 필라동창들의 노력으로 가능하게 되었다. 이에 재미서울대총동창회는 필라동창회에 모교의 후진들에게 해외공연의 무대를 제공한 노력

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린다. 음악회 개최를 앞두고 김국간 회장은 "작년에 처음으로 모교 음대 재학생들의 순회 공연을 필라델피아 연합교회에서 개최했는데 너무 반응이 좋아 올해 또 유치하게 됐다"고 말했다. 필라델피아 지부에서는 이번 공연을 동창들만 관람하는 것보다 동포 사회에 개방해 모국의 젊은 예술인들의 화려한 예술적 기량을 함께 만끽하도록 했다. 이번 순회 공연 참가 재학생들은 성악 2명, 기악, 3명, 국악 5명으로 짜여져 있다. 연락처 : 필라동창회 김국간회장 ☎ 215-224-2110

지역음악에 호들과 함께 나누는 기회를 마련하여 동창회 조직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것이다.



금년의 연주단은 달라스를 비롯하여 5개의 도시에서의 공연을 통하여 5명의 국악연주자를 포함한 10명의 단원들이 新進氣銳로서의 藝術的力량을 미주동문들에게 선사하게 되었다. 촉박한 시일내에 여러 가지 준비가 따르는 음악회를 작년도에 박인수(모교음대교수) 동문과 그의 제자들의 음악회를 성공



에 가능하게 되었다. 이에 재미서울대총동창회는 모교후배들에게 美國 南部의 유서 깊은 달라스에서 공연기회를 마련한 달라스 지역동문들에게 감사드린다. 多才多能한 모교음대의 후배들 가운데서 엄선된 금년도 연주단원들이 필철 공연에 동문들과 음악애호가들의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다. 연락처 이병규 회장 Tel : 972-899-1789

적으로 개최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병규동창회장이 지역동문들의 협력(재정부담 \$2,500 및 각종 지역공연 준비)을 모아 동창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달라스 공연을 유치하기로 결심한 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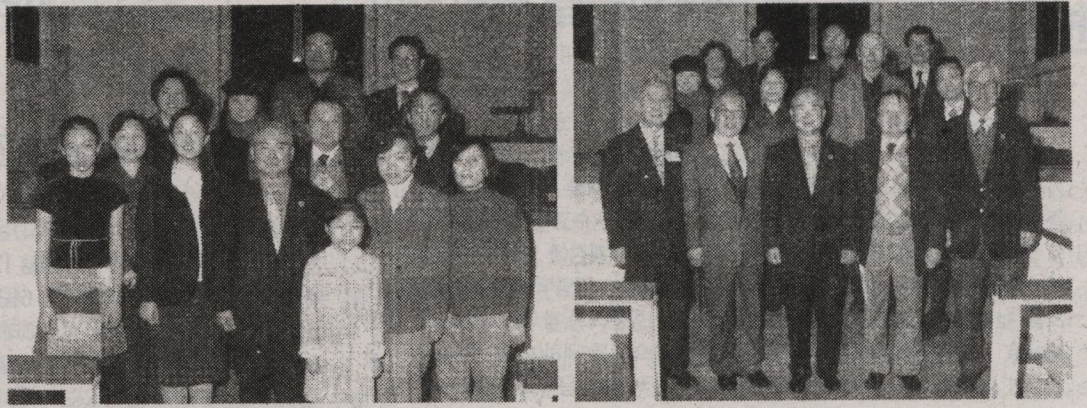
### 뉴잉글랜드 소식

## 윤상래(수의대 66년 졸) 동문 공로패 수상

그간 재미서울동창회보에 끊임 없이 뉴잉글랜드 지역 동문들의 소식을 보내온 尹相來(수의대 66년졸) "재미동창회보 특과원"이 5월 31일 열린 재미서울대 총동창회 제 12차 평의원회에서 그간 재미서울대동창회보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재미서울대학교 총동창회가 수여하는 공로패를 수상하였다. [수상공적사항 11면 참조]



윤상래 특과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창회보는 나무와 같습니다. 많은 투고를 하셔서 남가주 나무도 잘 키워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돌샘>



뉴잉글랜드 한인 이민 백주년 기념 문학경시대회 대상수상자들과 심사위원(사진 좌), 특별상 수상자들(사진 우)

## 동문을 위한 投資 세미나

### 동창회 기금모집 견해

지난 4월 5일 뉴잉글랜드의 윤상래동문(수의대 62년 입)은 Morgan Stanley와 합작하여 투자에 대한 세미나를 윤동문의 병원 2층에 있는 회의실에서 가졌다.

이 세미나에서 Mr. James Rochford (Morgan Stanley 1st Vice President)는, "2000년 3월에 시작된 Technology 투자 침체로 인한 Market Bubble", "중동의 이라크 전쟁"등으로, 투자자들이 심리적으로 투자하기를 꺼리는 까닭에, 현재의 증권시장은 그 불황이 당분간은 계속될 것으로 본다고 전망하였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보아, 1929년에 시작된 경제공황당시인 1929-1933년의 4년간에 걸친 증

권시장의 불황과 비교해 본다면, 1) 생산물의 증가, 2) 최저의 이자율, 3) Inflation 이 없거나 매우 낮은 점을 고려하여 볼 때, 長期投資 전망은 상당히 양호한 것으로 본다" 라고 전망하였다.

현재의 증권시장이 불안정한 상태를 고려할 때, "Diversify!" 하는 것이 위험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 하였다. 이번의 투자 세미나는 뉴잉글랜드 동창회 기금을 위한 현금 운동의 일환이었는데, 이날 윤용훈(공대 66년 입), 어재홍(공대 69년 입), 이강원(공대 66년 입) 등의 현금액을 윤상래동문이 이 출연금액에 상응하는 금액을 추가하여 동창회 기금에 적립하였다.

## 韓人移民 백주년 기념문집 간행

뉴잉글랜드 한인 이민 백주년 기념 사업회(회장 박경민, 의대 53년 입)는 한인 이민 백주년을 맞이하여 뉴잉글랜드 지역의 초등학교 학생으로부터 성인들까지 한글 및 영문 문학작품(시, 수필, 단편 소설)등을 모아 5인의 심사위원들(심사위원장 김형범)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6개부분(한글 및 영문 시, 隨筆 및 小說)으로 나누어 대상, 우수상, 특별상 등 13여명을 시상하고 그 작품을 모아 288면의 "2003 뉴잉글랜드 한인 이민 백주년 기념 문집"(보스톤: Lee's Press, 2003년·우측 사진)을 간행하였다.

수상자중 각 부문 대상 수상자의 명단과 작품이름은 다음과 같다: ① 한글시 일반부 대상- 임숙현 / 그 날, ② 영문시 대상- 김서영 (초등학교 3년) / Animals Are So Amazing, ③ 한글 수필 대상- 진혁일(대학생) / 한민족의 잠재력, ④ 영문 수필 대상- 황소원 / The Spirit of a Korean Face, ⑤ 한글 소설 대상- 이창금 / 한 인디언의 선택, ⑥ 영문 소설 대상- Joanne Chong / Waiting for Father 그리고 이들 출품 작품을 성심으로 심사한 심사위원들은 다음과 같다: 김형범(필그림 편집장, 위원장), 박경

민, 이주연, 남 일, 김한수, 조수현 및 Sunny Lee



2003 뉴잉글랜드 한인 이민 백주년 기념 문집



<賢者와 政治?> 2003년 5월31일 LA에서 열린 재미 총동창회 제12차 평의원회에 참석한 뉴잉글랜드 평의원단 정정욱 부회장, 강경식 회장위원, 이재신 회장, 박경민 평의원



### 동문 가정 경사

## 김문소동문 첫손자 돌잔치

김문소동문은 지난 4월 12일, 자택에서 첫 손자 돌잔치를 여러동문 및 친지들이 참석한 가운데 가졌다. 김문소(수의대 61년 입)동문의 첫(외)손자인 Matthew는 따님 Jane과 사위인 Robin Kim사이에서 태어났는데, Jane은 Boudain College를 거쳐서 Fullbright Fellow로 韓國에 가서 英語교사로 봉사하였고 Harvard University에서 교육학 석사를 획득하여, Weston High-school에서 교편을 잡은 바 있으며, 夫君이신 Robin Kim은 현재 매사추세츠 주의 의대에서

간질환 전문의 훈련을 마치고, Toronto에 가서 간장이식수술의 전문의로써 수련중에 갈 예정이다. (윤상래 특과원 보도)



## 그 날

임숙현(이민 100주년기념 문학경시대회 한글시 대상수상자)

그 날  
한 빛  
동방으로부터  
내려 비추인가 했더니  
그 빛  
어느새  
온 대륙을 덮고  
  
한 물줄기  
백두산 천지로부터  
흘러내리는가 했더니  
그 물줄기

어느새  
온 대양을 덮고  
  
한 조그만 함성  
동녘으로부터 온  
먼 미세한 소리인가 했더니  
그 함성  
어느새  
천지개벽을  
울려 대었네.

우리  
한 빛  
한 물줄기  
한 함성으로  
어우러지어  
그 어느메라도  
우리 민족혼을 심어

그 날  
한민족  
한 겨레  
우리 서로 일싸안고  
목 놓아 부르리라. 오! 대한민국



# 온타리오 소식

## 온타리오동창회 理事會체제로 운영

### 임동순회장 인사

저희 서울대학교 온타리오주 동창회는 2003년 1월 정기총회에서 의결된 바와 같이 3월 15일 새로이 구성된 총동창회 이사회를 주체로 하여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이 지면을 빌어 22년 동안 저희 동창회를 훌륭하게 이끌어 주신 각 대학 운영위원장 및 운영위원, 그리고 450여명의 온타리오 동창회의 모든 동문들께 동창회를 위해 수고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이사진과 새로 선임된 임원 모두 최선을 다하여 모든 동문들이 따

◆회장 임동순(치대 55), 부회장 이이병(약대 59), 부회장 김봉수(법대 70), 재무 이영희(의대 61), 총무 김치익(농대 74)

◆理事명단  
한상훈(공대 52) 배찬규(공대 55) 신경용(공대 57) 이회건(공대 77) 김충익(농대 61) 김치익(농대 74) 이경희(문리대 57) 김남수(문리대 64) 최경락(문리대 71) 김 효(미대 58) 나영삼(미대 60) 이홍열(법대 61) 김봉수(법대 70) 박용전(법대 83) 안경용(사대 58) 고재혁(사대 60) 홍석재(사대 60) 임방식(사대 69) 허종수(사대 55) 김주균(상대 56) 김병권(상대 57) 성원경(상대 57) 한성택(약대 58) 이이병(약대 59) 양관수(약대 70) 안병원(음대 47) 노정희(음대 70) 이재락(의대 49) 이정희(음대 61) 이영일(치대 54) 임동순(치대 55) 이상 32명(2003. 5. 31 현재) ◆이사회 회비는 1인당 \$150이며 동창회비와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뜻한 정을 나눌 수 있는 동창회를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문 여러분들께서도 참여와 협력으로 새롭고 활기찬 동창회를 만드는 데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특히 동창회 주관의 행사에 많이 참석하셔서 동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동문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서울대학교 온타리오주 동창회  
회장 임동순 드림 (연락처: 905-278-2257)

◆회장 임동순(치대 55), 부회장 이이병(약대 59), 부회장 김봉수(법대 70), 재무 이영희(의대 61), 총무 김치익(농대 74)

## 온타리오 동창회 새회칙 개요 (2003. 1. 26 시행)

◆2003년도 정기총회에서 개정 의결  
◆연도별로 각 대학에서 순번제로 돌아가며 동창회 운영을 맡아 오던 것을 새로이 구성되는 총동창회 이사회에서 맡도록 함. ▶명칭: 서울대학교 온타리오주 동창회 ▶목적: 비영리 단체로서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 및 목의 발전에 기여 ▶회원 ①정회원: 대학(원)을 졸업한 자 ② 준회원: 대학(원)을 중퇴한 자 또는 단기교육과정 수료자 ③ 명예회원: 이사회에서 추천한 자 ▶ 임원: 이사회

에서 선임, 임기 1년(연임 가능)  
▶ 회장 1인, 부회장 약간인, 고문 약간인, 감사 1인, 이사 30인 내외(각 동창 회장 및 부회장은 당연직 이사가 됨), 총무간사 1인, 재무간사 1인.  
◆총 회: 정기총회는 매년 1월 개최, 임시총회는 필요에 따라 개최 출석 과반수로 의결(단, 회칙 개정은 50인 이상 출석, 2/3 이상 찬성)  
◆이사회: 회장, 부회장, 이사로 구성. 재적 1/4 이상 출석, 과반수로 의결

## 동창회 財政

◆2003. 4. 30 일부로 동창회에서 전년도 동창회 운영위원장인 음대 유희자 동문으로부터 회비 이월금 \$7,793.54를 정히 인수하였습니다.  
◆동창회는 동문들이 내시는 동창회비로 운영되는데, 매년 450명 동문 중 80여명이 회비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동문들이 회비를 납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동창회비는 1인당 \$50(부부동문은 일인당 \$40x2)로 골프대회나 피크닉 때 내주시거나, 아래주소로 cheque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수취인:S.N.

) Dong Soon Yim, 2092 Shawanaga Trail, Mississauga, ON L5H 3G5  
◆2003년도 회비 납부현황  
▶공대: 이영, 김남길, 연상만, 한상훈, 배찬규, 이종호, 이회건 ▶농대: 김충익(\$100), 김치익, 남장우 ▶문리대: 신복균, 김현수, 김병천, 김남수, 김 용, 최경락 ▶미대: 김효 ▶법대: 김봉수, 박용전 ▶사대: 안경용, 고재혁(\$100), 홍석재 ▶상대: 허종수, 기병권, 성원경 ▶약대: 이이병, 황성현 ▶음대: 송경란, 진경희, 노정희, 이순자 ▶의대: 이재락, 이영희 ▶치대: 이영일, 임동순 (이상 35명)

## 동문동정

① 이동력(사대 58)동문  
20여년간 Univ. of Western Ontario 에 재직하다 99년에 귀국. 현재 이화여대 심리학과 교수로 재직중인 이 동문은 2002년 11월 시조 속에 담긴 조선조 선비들의 문학과 삶과 사상을 우리시대의 정서로 치환하여 보여 준 '세월에 시정을 실고'

를 발간하였다.  
② 김현수(문리대 58)동문  
캐나다 선주협회 이사 및 일본 최대의 NYK Line 수석부사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김 동문은 지난 5월 창립 100주년을 맞이하는 캐나다 선박업연합회(The Shipping Federation of Canada) 이사로 피선되었다.

## 2003년도 사업계획

- 1) 골프대회  
▶일시: 2003. 6. 27(금) 12:00- ▶장소: Granite Ridge Golf Club (9503 Dublin Line, Milton)  
2) 피크닉  
-일시: 2003. 7. 5(토) 10:00-  
-장소: Earl Bales Park, Site#1 (North York)  
3) 주소록 발간 - 현재 2000년에 발간된 동창회 주소록을 보완하기 위하여 ① 변경사항이 있거나 새로 오신 동문들의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② 앞으로 동창회의 원활한 정보전달을 위해 E-mail 주소록 꼭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③ 주소록 협찬강

고 신청도 접수하고 있다(전면 \$100, 1/면 \$50, 1/4면 \$25)  
- 연락처 : 김치의 총무(416-512-6601) 또는 동창회 E-mail snua@sympatico.ca  
(4) 홈페이지 개설 www.snu-ontario.ca  
동창회의 창구가 될 인터넷 홈페이지를 구축 중에 있다. 이 홈페이지에는 공지사항, 게시판, 주소록, 비즈니스정보, 동창회, 동문동정, 동문의 글, 동문사업 소개란 등을 실을 예정인데 동문 누구나 들어와 양방향 교류가 가능한 對話의 場을 조성하고자 동문들의 의견을 보내주기를 바라고 있다.  
5) 동창회 운영 - 동문 및 가족들의 친목 및 취미생활을 위해 동창회 운영을 준

비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창의적인 제안이나 새로 동호인 모임을 주도적으로 시작하고자 하는 동문은 연락바란다.  
\* 현재 계획중인 동호회  
- Hicking : 김영제(약대 73)동문 416-493-1582.  
- Guitor : 양관수(약대 70년)동문 416-229-6736  
- 古典讀會 : 김용(문리대 67년)동문 416-695-9186  
6) YB 모임 - 젊은 동문들의 친목과 정보교류를 위해 월 1회 YB 모임을 갖고 있으니, 각 대학 총무를 중심으로 참여를 원하는 모든 동문들의 참석을 환영한다. 특히 새로 이민 오신 동문들께는 정보교류는 물론, 타국에서의 인적 네트워크 형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 밴쿠버 소식

### 밴쿠버 동창회 사업계획

1) आयुच  
2003년 7월 19일(토)  
2003년 하계 आयुच 가족동반 행사

◎ 장소 : Belcarra Regional park(Anmore) (새로운 장소)  
◎ 일시 : 2003년 7월 19일(토) (오전 9:00-12:00 Park trail 일주 산책 및 Activities, 오후 12:00-16:00 점심식사, 행사 및 게임)

2) Yard Sale 안내  
동창회 장학기금 모금, 2003년 7월 27일(일)

밴쿠버동창회의 Yard Sale은 동창회 장학기금 확충의 기회가 되며 지난 2000년부터 3번의 행사를 가졌고, 올해는 4번째 행사로 7월 27일(일)에 개최할 예정이오니 동문 여러분들께서는 기부하실 물품(책, 그림, 식기, 가전제품, 의류, 장난감, 가구, 생활용품 등) 각 가정에서 쓰지 않으나 활용가능한 상태를 동창회에 임원진에게 연락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있다.

3) 원로선배 초청의 밤  
9월 7일 (일)

금년에도 50 학번 이상의 원로 선배님들 (현재 15 명)을 초대하여 만찬회를 오는 추석을 앞둔 9월 7일 (일)에 베풀 예정이다. 선배님들은 우리 동창회를 창립하시고, 혹은 회장으로 직접 이끄시고, 혹은 적극적인 참여자로서 밀어주셔서 오늘에 보는 동창회를 가꾸어 분들로서 선배님들의 덕담을 듣고, 후배님들의 분야별 활동정보를 나누면서 동창회를 돈독히 하는 뜻있는 행사입니다.

4) 관악상 후보자 추천  
10월 31일 추천마감  
추천 접수는 금년도 관악상 위원장인 박하일 동문(59)이 7월 1일부터 10월 31일 사이에 접수한다.

5) 장학생 추천  
10월 31일 추천마감  
금년도 동창회 장학생 후보자들(단, 장학생 후보는 동문의 자녀로

제한함)추천 받고 있으니 금년도 장학 위원장 최진근 동문(59)에게 10월 31일 까지 접수바랍니다.

6) 동창회비 납부 안내  
밴쿠버 동창회는 동창회 사업의 기본재원인 연회비와 찬조금을 접수하고 있다. 동문 여러분 모두의 관심과 협조가 곧 동창회 지부의 성장, 활성화에 직결된다는 점을 사려하시고, 금년도 동창회 연회비와 찬조금을 보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밴쿠버지역 동창회장 유동성(공대 58년 입)

★ 수표 수취인 : SNU Alumni Association

## 慶弔事

밴쿠버 동창회(회장 유동성, 공대 58년)는 동문들의 경조사에 대하여 축하와 조의를 표합니다.

● 최순모 동문(49 의학)의 장남 현철군이 신부 김희정양이 4월 27일 오후 6시에, Surrey 소재 Northview Golf & Country Club 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기로 연이 있었다.

● 엄승용 동문(상대 54)의 모친께서 지난 4월 10일 서울에서 향년 93세의 일기로 노환으로 별세하셨다.

● 유옥목 동문(65 성악)이 지도하는 필그림 어린이합창단이 4월

5일 저녁 버나비 소재 윌링톤 교회에서 합창공연을 가졌고 동창회는 축하화분을 보냈다.

● 장영철 동문(62 법학)과 김종립 동문(66 가정교육학) 부부가 Saskatchewan에서 경영하던 사업을 정리하고 5월에 밴쿠버로 다시 이주하게 되었다. 장동문은 1998년 제7대 회장단의 총무로서 수고하였고, 멀리 떠나 계시면서도 동창회에 열성으로 참여하셨다.

● 신원부 동문(60 화학공학)이 5월부터 Saskatchewan 주 Maple Creek에 있는 Jacks Motor Hotel 을 인수 경영하게 되었다.

● 이현 동문(기계공학 79)이 밴쿠버 오토서비스를 인수하여 자동차 종합정비 및 중고차 매매를 취급한다. 주소: 5180 Loughheed Hwy, Tel) (604)299-8471

● 지진호 동문(경제 86)이 지난 12월 Surrey에서 DVD-Computer.com 회사를 창업하여, 컴퓨터 시스템과 부품 판매, DVD, VCD 편집 제작, 편집 보드 판매, 쇼핑몰 제작과 웹사이트 구축과 관련된 업무를 하게 된다. (web site: www.dvd-computer.com, 사무실 전화: 604-585-1218)

동창회 연락처 ▶email 주소 snuvancouver@hotmail.com  
▶우편물 접수처  
SNU Alumni Association of Vancouver Canada  
P.O.Box 3045, Vancouver Main Post Office,  
British Columbia V6B 3X5 Canada

	성명(입학년도)	전화번호	E-mail
회장	유동성(공대 58)	604-435-8337(R) 604-666-4141 (B)	dongsyu@shaw.ca
부회장	이상호(공대 60)	604-936-2133(R)	canshlee@hotmail.com
총무	김현승(인문대 79)	604-945-5634(R) 604-512-6876 (B)	hyun@wrapzone.com
재무	인태욱(경영대 82)	604-437-3940(R) 604-643-7755 (B)	itaewook@hotmail.com



# 하트랜드지부 獎學事業 소개

전선옥 (법대 54년 졸) 장학위원회 총무

본 서울대학교 동창회 하트랜드 지구는 1997년 창설 이후 6개주에 처한 한인 지역사회 협조 및 한인 지도자 양성 장려를 위하여 노력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회의 주요사업으로 1999년부터 우수한 한인 학생들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수여했습니다.

그 후 불과 4년의 짧은 역사를 밟음에도 불구하고 15명의 장학생에게 총액 \$13,500.00의 장학금을 수여하였음은 Heartland지구 동문 여러분의 성의와 적극적 후원의 결실임을 확신하여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제1차 장학생들은 우수한 성적으로 어느덧 금년에 대학교를 졸업하는 영예를 얻게 됨을 감격하게 느끼는 동시 Heartland 지구 장학사업의 보람을 다시금 절실하게 느끼게 됩니다.

지금까지 6개주의 장학생은 Arkansas 1명, Iowa 3명, Kansas 5명, Missouri 1명, Nebraska 1명, Oklahoma 4명으로 주마다 골고루 장학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모두 4.0 혹은 그에 가까운 뛰어난 성적과 눈부시게 활발한 활동의 결과로 SNU Alumni in Heartland 장학생의 영예를 얻은 학생들 이름 (Alphabet 순), 원 거주지, 대학교, 및 희망 전공은 다음과 같습니다.

[1999년] Seri Kim, (Norman, OK, University of Oklahoma, Medicine), Jennifer Won, (Ubandale, IA, Drake University, Music/Medicine), Jennifer Yu(Leawood, KS, Rice University, Psychology/Law)

[2000년] Amy Lee(Lenexa, KS, Harvard University, Medicine), Amy Lutishá Lee, (Lincoln, NE, Tufts University Medical School),

Jinjoo Lee(Lawrence, KS, SNU & University of Kansas, Accounting), Nan-Kyoung Seo(Overland Park, KS, JCCC, Fashion Design), Hwi Jin Tak(Oklahoma City, OK, Maryland College of Art, Music)

[2001년] Lydia Choi(Overland Park, KS, Syracuse University, DVM), Eun Young Park( Van Buren, AR, University of AR, Medicine), Yong-Lak Park(Ames, IA, SNU & Iowa State University, Entomology), Josephine Sung(Tulsa, OK, MTT, Medicine)

[2002년] Suzie Ahn(Ames, IA, University of Iowa, Medicine), David Jungsuck Kim(Kansas City, MO, Northwestern University, Law), Jin-Jung (Domi) Oh(Norman, OK, University of Oklahoma, Piano)

금년도 2003년 제 5차 장학생 선발에도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우수한 장학금 지원 대상자들이 지원하도록 적극적으로 장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편집자주 : 장학금 신청서 마감일은 7월 29일이었으나 동창회보의 제작지연으로 이 공고문의 게재가 늦어진 것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이처럼 동창회 장학사업이 훌륭한 업적을 이룰 수 있었음은 역대 회장님, 임원, 이사, 장학위원회 위원 및 많은 동문 여러분의 열렬하신 후원의 열매이었음을 확신하여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드리며 동문 여러분의 계속적 격려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 캐나다 애드먼튼 동창회 소개

### 한글학교 장학금 지원 등 지역사회에 기여

趙金熙(79년 農大卒, 애드먼튼동창회 회장)

캐나다 알버타주는 록키산맥의 동북쪽에 있으며, 면적은 남한의 두 배 정도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록키산맥 관광의 중심지인 밴프와 자스퍼가 위치한 주이기도 하다. 인구가 약 80만명, 한국인 교민이 4천명 정도 되는 이곳 수도 애드먼튼은 밴쿠버나 토론토와 달리 한국인에게 별로 잘 알려지지 않은 것 같지만 동문이 약 40명 정도 된다. 석, 박사 또는 잠시 1~2년 정도 박사후 과정을 밟으러 오는 동문들이 요즘 부쩍 늘어나고 있다.

동문들이 이곳에 정착하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 후반부터. 1970년대에 알버타주의 경제부흥에 힘입어 회원수가 꾸준히 증가해 30여 명에 이르면서 동문 모임도 활성화됐다. 서로 돕고 왕래하는 관계를 가져온 동문들은 1980년 6월 마침내 「서울대 동문회」라는 이름으로 탄생했으며, 吳忠烈(52년 藥大卒) 동문이 초대 회장을 맡아 수고를 아끼지 않았

다. 이렇게 애드먼튼지부 동창회는 한동안 자발적으로 운영돼왔다.

다른 많은 지부도 그렇듯이 총동창회의 애드먼튼지부로서의 역사는 그리 길지 않다. 정식 지부로는 당시 총동창회 鄭宗澤(상임부회장)이 99년 6월, 이곳 애드먼튼에서 열렸던 세계대권도선수권대회에 한국대표 선수단장을 맡아 임원 선수를 인솔하여 방문하면서 49번째 해외지부로 인준을 받았다. 그 당시 李丙璜(55년 商大卒) 동문이 회장을 맡아 많은 일을 도모했으며, 그 후로 회원 구성원들의 빈번한 변동에도 불구하고 이 규모가 계속 유지돼오고 있다.

현재 엔지니어링 컨설팅 및 주정부 환경에서 일하는 宋國鍾(59년 師大卒) 蔡禮汶(62년 文理大卒) 周鎮培(63년 農大卒) 尹泰男(64년 文理大卒) 趙星浩(65년 工大卒) 高鍾安(66년 師大卒) 동문, 무역을 하는 鄭琪振(60년 商大卒) 동문, 대학교수인 필자 吳忠烈 裴鶴

(53년 師大入) 裴慶善(60년 文理大卒) 동문, 치과의사인 李明九(60년 齒大卒) 동문이 활동하고 있으며, 학교 교사와 개인사업 등으로 알버타 환경개발과 교육증진에 애쓰신 전문직 종사자 동문 가운데 절반 이상은 은퇴했지만, 한국에서 계속 활동하고 있는 동문도 꽤 된다. 지역사회 활동에 있어서 周鎮培 동문이 애드먼튼 한글학교장을 맡고 있다. 이에 도움이 되고자 동창회는 매년 서울대 동문회의 이름으로 두 명의 한글학교 어린이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해오고 있다.

애드먼튼에는 현재 전 교민이 합심하여 우리만의 공간으로 쓰여질 한국 문화회관 건립에 부풀어 있다. 한국 문화회관의 주요 용도는 각 한인단체의 사무실 및 연락장소, 종합문화 행사장, 도서관, 세미나 및 상설 전시관으로서, 우리의 2~3세들에게 긍지를 심어주는 중요한 회관으로 동포 사회에 길이 남을 것으로 본다. 회관건립기금 모금운동 위원장에는 李明九 동문이 헌신적으로 앞장서 계시고 다섯 명의 동문이 모금위원으로 있다.

그 외의 동문활동은 대체로 친선도모를 우선으로 삼고 있으며, 임시모임 외에 매년 정기총회와 여름철 친목을 겸한 골프대회를 갖고 있다. 한동안 1950년대 원로 동문들이 주로 활동했던 동창회는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1980년대 이후에 입학했던 젊은 동문들 위주로 변해가고 있다.

앞으로 동문 가족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가족 야유회를 Hawrelak공원에서 매년 가질 계획이다. 지난 5월초에는 80년 이후에 입학한 회원 가족들과 함께 따뜻한 파티를 가졌다. 모두들 고국을 갔떠나와 외로운 처지에서 오랜만에 동문들과 한국말로 실컷 정담을 나눌 수 있었던 아주 드물고 반가운 계기가 됐다.

[서울총동창회보 303호(2003. 6. 15)에서 전재]

## 캐롤라이나 지부 소개

### 동문 취업 지원하는 「연구발표회」 활발

金棋鉉(56년 文理大卒, 노스캐롤라이나 센트럴주립대 교수) 회장

캐롤라이나지부 동창회는 지난 2000년 출범한 신생 동창회로 계속 성장하고 있는 동창회이다. 미국 동부 대서양 연안을 끼고 있는 노스캐롤라이나, 사우스캐롤라이나는 한반도를 연상시킨다. 2개의 주를 합친 면적도 남북한과 거의 같으며 인구는 노스캐롤라이나가 약 7백만명, 사우스캐롤라이나가 약 4백만명 등

1천1백만여 명으로 남북한 7천만여 명의 약 6분의 1에 해당한다.

한인 교포는 두 주에 걸쳐 약 1만5천여 명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교포들은 대부분 사우스캐롤라이나의 주 정부가 위치해 있고 대학의 도시인 캐롤라이나에 집중적으로 거주하고 있으며, 노스캐롤라이나의 주 정부가 위

치하고 있는 Raleigh, 미국 제2의 은행 도시로 알려진 Charlette 등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노스캐롤라이나대와 듀크대가 위치하고 있는 Raleigh, Durham, Chapel Hill 등 3개 도시에 많은 서울대 동문들이 거주하고 있다. 미국 동부의 실리콘밸리로 불리는 이 지역은 대전의 대덕연구단지과 비슷하다. 연구원으로 종사하고 있는 한인은 약 4백명에 이르며, 인근 대학에서 대학원에 재학중인 한국계 학생은 약 5백여 명이다. 이중 70~80%가 동문들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

곳은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연구원의 밀도가 제일 높은 곳으로 알려져 있으며, 세 도시는 총 인구가 50만명도 안되지만 노벨상 수상자를 3명이나 배출한 명망 있는 곳이다.

캐롤라이나에 거주하고 있는 서울대 동문은 약 1백50여 명이다. 주로 이공계 과학분야에서 대학 교수, 연구소 연구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60년대 초반 朴在泳(52년 文理大卒) 동문을 선두로 徐文源(61년 工大卒) 동문, 1999년 호암상 과학분야 수상자인 皇甫明煥(68년 工大卒) 동문, 필자 등이 캐롤라이나 땅을 밟았다. Charlette 지역에서는 金賢謙(58년 工大卒) 동문, 金寬泳(66년 工大卒) 동문 등이 대학 및 Industry 분야에서 크게 활약하며 모교, 나이가 모국의 긍지를 높여가고 있다. 정보통신부 장관을 지낸 李耕哲(71년 工大卒) 동문은 듀크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의대 출신 동문들도 사우스캐롤라이나 전역에서 주로 개인병원을 운영하며 많은 활동을 하고 있다. 鄭漢杓(55년 文理大入) 동문과 李崇顯(63년 醫大卒) 동문, 韓光秀(63년 醫大卒) 동문, 鄭良秀(66년 醫大卒) 동문 등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그리고 李鎰基(55년 師大卒) 동문은

미국 글자의 기업에서 임원으로 활동했으며, 사우스캐롤라이나대 교수로 재직 중인 申義恒(64년 文理大卒) 동문은 Dixie Walker 前주한 미국대사와 함께 한반도의 외교와 관련한 세미나를 매년 개최하는 등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

3년 전에는 노스캐롤라이나에 모교 趙完圭 전임총장이 방문했다. 趙完圭 전임총장님의 방문으로 많은 동문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계기를 마련했으며, 동문들을 격려해주시는 것은 물론 연구기관과의 협력관계를 수립하는데 큰 도움을 주셨다.

연구기관이 밀집되어 있고 동문들이 주로 연구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어 정기총회 등 연례행사 이외에 「연구발표회」라는 독특한 행사를 하고 있다. 박사 과정을 마친 동문들을 중심으로 연구발표회를 개최해 국내 기업은 물론 미국 기업에의 취업을 지원하는 행사인 것이다. 내년 봄에는 모교 유대 학생들을 초청해 공연을 주최하고 기금을 모으는 행사를 계획하고 있다. 캐롤라이나지부는 앞으로 이 곳 동문들의 친목과 결속은 물론 국내 동문들과 보다 더 활발한 관계를 유지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서울총동창회보 304호(2003. 7. 15)에서 전재>



캐롤라이나 2002년 연구발표회의 동문들과 필자(사진 앞줄 맨 왼쪽)



### 2003년 母校음대 연주단 첫 공연

8월 9일(토) 오후 7시, 북버지니아 커뮤니티 칼리지 애난데일 캠퍼스

#### 수익금 워싱턴 청소년 회관 건립기금

재미서울대학교 총동창회가 주최하고 母校와 워싱턴DC지역 동창회의 공동 재정부담으로 2003년 모교음대 순회연주단의 첫 공연이 워싱턴 DC에서 2003년 8월 9일(토) 오후 7시 북버지니아 커뮤니티 칼리지의 애난데일 캠퍼스의 연주장에서 열린다. 금년 음악회는 재정문제로 그 시행이 불투명하였으나, 재미서울대학교 총동창회 제 12차 전국평의원회(5월 31일)에 참석한 교직원들을 통하여 모교에서 금년도 음악회 시행계획을 재미서울대 총동창회에 제안한 결과, 급박한 일정으로 공연장 확보와 재정 부담(\$3,000)과 여러 가지 준비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워싱턴 DC 동창회(회장 이용락, 공대 63년 졸)가 솔선하여 첫 공연을 신장함으로써 금년 순회단의 공연이 가능하게 되었

고, 재미서울대학교 총동창회의 年例事業으로 정착되는데 기여하였다. 워싱턴DC 지역동창회는 금년 음악회의 收益金 전액을 워싱턴青少年재단(이사장 :이원상, 중앙장로교회 담임 목사)이 추진하고 있는 靑少年會館 건립기금으로 출연하기로 하였다. 이번 워싱턴 공연을 실현하기 위하여 많은 동문들의 협력을 모으기에 수고한 이영목회장은 "서울音大의 수많은 유망주들 중 연선된 실력자들로서 이번 미순회공연단이 구성되어 수준 높은 음악을 한인사회에 선사하게 되어 기쁘며 특히, 워싱턴 DC 청소년재단이 회관 설립을 위하여 진행 중인 모금활동에 한 몫을 담당하게 되어 더욱 의미있는 음악회가 될 것이다"라고 하였다. 연락처 이영목 회장 Tel :703-585-4802

### 워싱턴DC소식

## 총동창회 공로패 수상

### 방은호 · 진금섭 · 박윤수 동문



제 12차 재미서울대 총동창회 평의원회에서 방은호(약대 45년 졸, 7대 회장·사진1 우측)동문, 진금섭(약대 63년 졸, 22대 회장·사진2) 동문이 재미서울대학교 총동

창회(회장 이용락)가 수여하는 공로패를 수상하였으며, 박윤수(문리대 52년 졸, 재미총동창회 초대 회장·사진3 우측)동문은 서울대학교 총동창회(회장 임광수)가 수

여하는 공로패를 5월 31일 열린 미주관악후원의 밤에서 수상하였다. [수상공적사항 11면 참조]



## 鄭又淳(사범대 61년 졸) 동문 別世 동창회 활동에 성심으로 봉사

지난 10여개월 동안 鬪病끝에, 그동안 워싱턴 DC 동창회 부회장을 역임하며 동창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많은 기여를 해온 정우순(사대 61년 졸)동문이 많은 선배 동문들의 쾌유 바람에도 불구하고 아쉬움을 남긴 채 5월 31日 別世하였다. 5월 6, 7日 워싱턴 지역 서울대학교 동창회와 수도여자고등학교 동창회의 合同同窓會葬으로 진행된 추모식 및 장례식에서 두 동창회의 모든 前現任 회장으로 장의위원회가 구성되었다. 서울대학교 동창회의 방은호(약대 45년 졸, 7대 회장)동문이 장례위원장을 맡았고, 李來源(사대 62년

졸, 20대 회장)동문이 弔辭를 하고 장의절차에 따른 제반 연락을 담당하였다. 故人의 투병기간 내내 가까이에서 同門의 友情과 醫師로서 두터운 교분을 나누었던 문성길(의대 70년 졸, 21대 회장)동문은 모든 어려운 뒷일을 도맡아 많은 동문들의 稱頌을 받았다. 또 공연차 워싱턴에 들렀던 소프라노 조수미(음대)동문이 바쁜 일정 중에 한의생(수의대 60년 입, 19대 회장), 문성길 동문과 함께 Maryland의 Gate of Heaven 에 안장된 故 정동문의 묘소를 찾아 고인과의 동문선배로서의 友情을 기리고 冥福을 받았다.

## 조수미 공연 CD 판매 수익금 \$7,011

### 母校와 後進을 위한 基金과 재미서울대동창회보 발간기금



재미서울대총동창회(회장 이용락)는 지난 2001년 8월 워싱턴 DC 동창회(21대 회장 문성길)가 조수미 동문을 초청한 음악회를 개최한 후(사진) 그 공연실황을 녹음한 CD-"LOVE FROM WASHINGTON"을 제작하여 그중 600매(1차 500매, 2차로 2003년 3월 5일자에 정우순 동문이 추가 100매를 보내움)를 조수미 음악회 기금관리위원회(위원장 방은호, 약대 45년 졸)의 결의에 따라 재미서울대 총동창회에 기부하였는바 그간 이를 판매하여 수입금 총액 \$7,

011을 확보하여 워싱턴 DC 동창회의 희망에 따라 300장 판매분(1개당 \$15) \$4,500을 母校와 後進을 위한 基金에 이송하였고 (2002년 6

월 30일에 \$3,990과 2003년 5월 30일에 \$510), 그 대금 \$2,511 (167장 상당)을 워싱턴 DC지부 미주관악후원금으로 재미서울대 동창회보 112호에 기재하였고 이는 재미서울대동창회보 발간재원으로 귀중히 쓰여졌다(그간 우편판매 및 지역동창회 총회에 보내어 판매도중 4장의 파손 및 분실이 발생하였음). 재미서울대총동창회 제 6대 집행부(회장 이용락)는 조수미 CD 잔여분 100장과 남가주 동창회 판매대금 미납분 \$440(29장 상당)을 제 7대 집행부(회장 오흥조)로 인계예정이다. 재미서울대 총동창회는 워싱턴 DC지부 동창회에 감사드립니다.

### 정우순 고별의 노래(弔詞)



봄꽃이 흐드러질 때 일어나리라고 기별주시더니 그 다짐 어디 두고 이렇듯 서둘러 떠나십니까? 꽃 같은 젊음, 고달픈 師道의 길에 불살라 버치시고 異國 땅에서는 믿는 길 사는 도리 본으로 가르치셨습니다. 돕는 마음 그리도 커서 어려운 일마다 힘주시더니 그 큰 빈자리 누가 있어 메우라고 이렇듯 매정하게 떠나십니까? 남은 이들은 잃은 슬픔을 가누지 못합니다. 그러나 어찌하오리까? 지은이의 뜻을 따라 가시는 길은.... 남은 가셨지만 남의 모습, 남의 선함, 잔잔한 숨결 되어 이 고을에 오래 살아 남으리이다. 편히 잠드소서.

2003년 5월 7일, 李來源(사대 62년 졸, 워싱턴 동창회 20대 회장) 謹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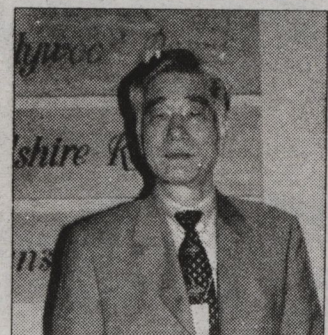
임광수 서울대학교 총동창회장은 워싱턴DC 동창회의 골프대회용 순회배를 기증하였다.



## 이영목회장 총동창회 수석부회장에 당선

지난 5월 31일 LA에서 열린 재미서울대 총동창회 제 12차 정기평의원회에서 이영목(공대 63년 졸) 워싱턴DC 동창회장이 금년 7월 1일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재미서울대총동창회 7대 집행부(회장 오흥조)의 수석부회장으로 선출되었다. 李차기수석부회장은 2년 후에 출범할 8대 집행부의 회장선출자이기도 하다.





### 시카고 소식

## 하계 야유회 라비니아에서 6월 21일 100여명의 동문가족 모여

시카고 동창회의 연중행사 중 가장 큰 행사인 하계 야유회가 계획했던 대로 6월 21일(토) 오후 5시 라비니아팍에서 100여명의 동문들과 그의 가족들이 모여 즐거운 저녁시간을 보냈다.

장기남 회장의 인사말에 이어 이용락 미주 총동창회 회장의 공로패 시상식이 있었다. 그 동안 모교발전과 동창회 활성화 및 동창회보 발전에 수고해 주신 공로로 지난 5월 31일 LA에서 열린 재미서울대총동창회 제 12차 전국평의원회에서는 시카고 지역동문으로서는 김일훈(의대 57년 졸), 이윤모(농대 61년 졸) 및 홍혜례(사대 76년 졸) 동문들에게 공로패를 증정하였는데, 홍동문은 LA 총회장에서 공로패를 받았고, 이날 야유회장에서는 이윤모에게 공로패를 수여하였다. 김동문은 후에 시카고 동창회 모임에서 수여할 계획이다.

또한 서울대학교 총동창회 임광수 회장을 대신하여 이용락 재미서울대 총동창회장은 강수상(의대 53년 졸, 재미서울대학교 총동창회 제 2대 회장역임) 동문에게 공로패를 전달하였다. 또 張회장은 그간 시카고 동창회 장학금을 받은 후배동문들의 소식을 전하였는데 The University of Chicago에 재학하였던 수상자 중 정혁(사회대 85년 입, 경제학, UCLA 교수), 임영식(사회대 85년 입, 경제학, 시카고 법률경제자문회사 연구원), 송성주(자연대 87년 입, 통계학), 김남국(사회대 83년 입, 정치학 박사) 및 권형기(사회대 85년 입, 정치학 박사) 동문들의 졸업소식을 전하였고, 이날 야유회에 참석한 권형기 동문은 "동창회의 선배동문들께서 주신 장학금은 박사학위 논문의 연구자료 수집을 위한 獨逸한장조사의 귀중한 기초 자금이 되었으며 이 연구를 바탕으로

로 박사학위 논문을 마쳤다."고 하고 선후배 동문들께 이 장학금의 필요성과 그 소중함에 감사를 표하였다. [權동문은 독일과 미국의 자동차산업의 부품 생산자들간의 계약제도 비교연구로 2003년 6월 시카고 대 정치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마치자마자 이學位 논문을 바탕으로 각각 다른 4개의 전문학술지에 4개의 논문을 간행하였고, 이 학위논문은 곧 저명출판사에서 책으로 출판계약이 체결되었다.]

이어서 야유회에 온 동문들은 동창회에서 준비하고 任員들이 정중한 접대를 한 맛있는 저녁을 나누며 선후배간의 友誼를 다지는 귀중한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날 1일 bartender로 수고해 주신 박명원(심명원(음)의 부군)씨의 재치있고 열성적인 奉仕에 동문들은 매우 흥겨운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이어 쾌적한 날씨에 아름이 내리는 라비니아의 야외음악당의 草原에 둘러앉아 동문들은 8시부터 시카고 심포니가 연주한 Beethoven의 triple concerto의 감미로운 선율을 감상하며 2003년도 야유회를 마쳤다.



시카고동창회 야유회장에서 만난 문리대 동문들

### 박인수교수 자선음악회 8월10일(일)6시

8월 10일 일요일 오후 6시에 남부 시카고 한인연합감리교회에서 불우이웃돕기 자선음악회가 열린다. 모교음대교수이며 동문인 테너 박인수교수와 그의 제자들이 출연하는 자선음악회로 많은 동문들의 참석을 바라고 있다. 입장료 \$30.

연락처 -  
장기남회장(630-321-1943) 또는  
심명원 간사(847-478-8939)

### 동창회 지역 봉사활동

시카고 동창회(회장 장기남)는 우리 동창들간의 친목도모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들을 하고자 노력해왔는데 금년에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하였다. ♥ 장기남 회장과 임원일동은 최근 시카고 한인회를 돕기 위하여 한인회비 \$90과 장기남 회장의 한인회 성금 \$500을 모아 한인회에 전달하였다. ♥ 지난 1월 18일 민들레회(single mothers club)의 송년회를 후원하기 위하여 장기남회장이 誠金을 보냈다. ♥ 4월 8일 참전군인 무사귀환 기도회가 Lakeview 장로교회에서 있었다. 대 이라 전쟁의 장기화가 우려됨에 따라 자녀 혹은 배우자를 戰場으로 보낸 한인 가정들도 늘고 있는 가운데, 시카고 한인회, 미중서부 재향군인회와 서울대 동문회가 한인 파병가정들의 불안과 우려를 함께 나누기 위하여 모인 기도회였는데 장기남 회장은 이 기도를 위하여 誠金을 했다.

### 2003년 동창회 행사 계획

- ♣2월 9일(일) 오후 3시/ 제 1차 임원회 (장기남 회장자택)
- ♣3월 23일(일) 오후 6시/ 제 1차 이사회 (Radisson Hotel)
- ♣4월 27일(일) 오후 6시/ 제 2차 임원회 (전현일 수석부회장 자택)
- ♣5월 24일(토)/ 춘계골프 대회 (Willow Crest 골프장)
- ♣5월 30일-6월 2일/ 미주총동창회 평의원회 (L.A. Wilshire Plaza Hotel)
- ♣6월 21일(토) 오후 5시/ 하계 야유회 (Ravinia Park)
- ♣8월 2일 오후 5시/ 제 3차 임원회 (한재은 고문 자택)
- ♣ 9월 13일(토) 오전 11시/ 추계골프 대회 (Willow Crest 골프장)
- ♣10월 4일(토)/ 제 2차 이사회 (Oak Brook Hills Resort Hotel)
- ♣10월/ 제 4차 임원회 (김영 재무 자택)
- ♣11월 29일(토)/ 송년총회 (Radisson Hotel)

### 동창회 사업광고

1. 오는 12월말에 열린 연말 파티에는 새로운 program으로 slide show를 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서 동문들의 어렸을 때의 사진이나 campus에서 찍은 기념 될 만한 사진들이 있으면 저희 임원들에게 미리 보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심명원(음대)이사(847-478-8939)가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2. 올해 주소록을 새로 발간할 예정이오니 동문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주소 변경 접수처 이형준(농대)간사 (773-478-3842)
3. 시카고 지역 동창회 Web Site 가 2000년도에 설립되어 있습니다. 동문들의 많은 이용과 건설적인 비평을 부탁드립니다. www.snuaachicago.org
4. 2003년도 시카고 지역 동창회비(\$30)는 아래 주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Mrs. Young Kim / Treasurer, SNUAA  
24 Concord Drive, Oak Brook, IL60523, 630-655-2320

## 시카고 동창회 2003년 獎學生 모집

서울대학교 시카고 지역동창회는 학업성적이 우수하나 재정적인 도움이 필요한 학생을 찾아 그들의 향학열을 격려하고자 아래의 요강에 따라 장학생을 선발하니 응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선발인원 : 5~7명
- ◆ 장학금 지급액 : 일인당 \$1,000
- ◆ 응모자격 : 시카고 및 인접지역에 거주(permanent address)하는 자로서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재학중인(유학생 포함)에 한함.
- ◆ 신청서 구비서류: ①지원서 1통(지원서 용지는 www.snuaachicago.org에서 download 가능) ②추천서 2통(그중 한통은 반드시 서울대학교 시카고 지역동창회의 2003년도 동창회비를 납부한 회원으로부터 받아야 함) ③성적증명서 ④에세이
- ◆ 응모마감일 : 2003년 9월 30일까지
- ◆ 지원서 제출처 : Kee Nam Chang, 9645 Pacific Ct., Burr Ridge, IL 60527, Tel (630) 321-1943, (email) snuaachicago@alumni-world.com
- ◆ 비고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됩니다.

서울대학교 시카고 지역동창회  
장학위원회 위원장 장기남



# 시카고 노인복지회 시카고同門들 교대로 奉仕

다량한 이민사회에서 큰 문제점 중에 하나는 연로한 연장자들을 돕는 일이다. 이를 위하여 시카고 지역에서는 1987년 4월 10일 발족한 상록회의 후신으로 한인노인복지센터가 1988년 7월 1일부터 발족되어 ①가사보조 ②연장자 점심제공 ③성인영어교육 ④시민권 취득 돕기 ⑤일반복지 수혜돕기 ⑥범죄 피해자 예방 및 치료활동 ⑦공중보건 ⑧문화예술 활동으로 노인들의 여가 선용 및 노약자들을 위한 ⑨출장 봉사활동을 펴왔는데 필요한 많은 재원을 회원들과 참여 이사들의 봉사와 기여금에 의존해 왔다. 지난 6월 18일 열린 제 16차 연례회의에서 지난 1년간 8대 이사장으로 봉사한 구경회(의대 65년 졸, 재미서울대총동창회 사무총장) 동문후임으로 한의일(공대 66년 졸) 동문이 9대 이사장으로 1년간 봉사하게 되었다(위쪽작은 사진). 그간 초대 이사장으로 시카고 동창회의 2대 회장을 역임한 김현규(의대·우측 사진 왼쪽서 두번째) 동문이 봉사하였고 최근 암으로 투병중인 시카고 공립도서관에 오랫동안 재직중인 김정숙(김봉현 동문 부인·아래사

진 **앞열 오른쪽서 세번째**)씨를 비롯하여 시카고 지역의 많은 동문들이 교대로 이사장으로서 봉사해왔고 2003년 연례보고서에 의하면 이 봉사기구를 지원하고 있는 회원들은 700여명에 달한다. 이 기구의 역대 이사장 명단과 금년도 이사들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역대 이사장명단** - 김현규(초대, 의대), 구경회(2대), 강화영(3대), 이광선(4대), 김길중(5대), 김정숙(6대), 김봉현동문 부인, 이정희(7대), 구경회(8대), 한의일(9대) ◆**9대 이사회 임원** - 한의일(이사장), 주영혜(부이사장), 임한국(총무), 구경회(재무) : 이사명단-

최충남, 조은서, 최길용, 최수봉, 김정숙, 김호범, 김길중, 김광집, 김현규, 김유자, 김용주, 김영, David Koo, 이정희, 이광선, 마선에, 목정진, 서상민, 유의영, 육원자 ♥시카고 노인복지센터의 활동에 많은 동문들의 참여를 환영하며, 연락처: 윤석갑 사무총장 ☎ 773-478-8851, 팩스 773-478-8552, 웹사이트 www.chikasc.org, 이메일 aging@chikasc.org



# 韓國學 연구소 기금 모금 음악회 10월 11일(토) · 노스파크대학 강당

시카고의 노스파크 대학에서 매년 한국문제와 미주이민사회 등에 대하여 활발한 학술활동을 펴고 있는 한국학 연구소(소장 權豪淵, 문리대 61년 졸, 사회학박사, 아래사진 맨 왼쪽)가 오는 10월 11일(토) 저녁 이 대학대강당에서 "한미 우호 증진을 위한 친선의 밤"행사의 하나로 연구소 기금 모금을 위한 음악회를 개최한다.

이 음악회는 하성호씨가 상임지휘자로 있는 서울팍스오케스트라 단원 100여명과 소프라노 김희정, 베이스 나윤규, 인기가수 정훈희, 장사익, 김중서 등이 출연하는 화려한

무대가 펼쳐진다. 이 행사를 준비중인 권호연 동문에 따르면 "최근 한·미간의 긴장된 분위기를 고려하여 한·미 우호 증진을 위한 친선의 밤을 마련하여 수준 높은 연주를 할 서울 팍스 오케스트라와 함께 시카고 한인사회를 위한 좋은 행사가 될 것"이며 음악회 수익금은 한국학연구소가 미국의 한반도 정책 등 한국 문제와 미주한인 이민사회의 문제 등에 대하여 지금까지 관심을 가져온 연구소의 학술활동의 지원에 사용될 것이다. 연락처 773-244-5650



# 네 동문음악도 자선음악회 출연 나라사랑 어머니회 주최

8월 23일(토) 오후 7시 30분 / 스키키 노스쇼어 연주장

미국내 대학에서 재직중인 김영석(78년 졸, 테너·사진 맨 오른쪽), 이소정(88년 졸, 피아노·사진 맨 왼쪽), 김수현(88년 졸, 바이올린·사진 왼쪽서 두번째) 및 이수정(92년 졸, 소프라노·사진 왼쪽서 네번째) 동문들이 오는 8월 23일(토) 오후 7시 30분 스키키 노스쇼어 퍼포밍 아트센터(9501 Skokie Blvd., Skokie, IL 60077)에서 나라사랑 어머니회 시카고 지부(Global Children Foundation in Chicago)가 개최하는 불우아동돕기 자선음악회에 출연하여 서양의 고전음악과 한국의 명가곡들을 연주하게 된다.

나라사랑 어머니회는 1998년 한

국에 IMF 사태후의 많은 결식아동을 돕기위하여 미주 한인 어머니들에 의해 시작되었고, 현재 회원수가 1,500명에 이르고 미주, 한국, 일본, 홍콩등에 15개 지부로 발전하고 있고 회비(연회비 \$ 120 또는 월 \$10이상)와 자원봉사자들로 운영하는 단체이며, 지난 5년 동안 \$585,600을 모금하여 한국뿐 아니라 북한, 베트남, 터어키, 우크라이나 등의 불우아동들을 돕고 있으며 이번 음악회의 수익금은 시카고 지역의 불우 이웃들을 돕는데 사용된다고 한다. 이번 음악회의 입장료는 \$15이며 많은 동문들의 참석을 바라고 있다. 연락처: 나라사랑 어머니회 ☎847-295-3145



# 춘계 골프대회 성료

지난 5월 24일 Oakbrook Hills의 Willow Creek 골프장에서 시카고 지역동창회는 춘계골프대회를 가졌는데, 화창한 날씨에 44명의 동문들이 참석하여 장소예약관계로 4분은 참가 지못하고 40명이 마음껏 기량을 겨룬 즐거운 행사이었는데 모두들 예상의 좋은 성적을 거두는 만족한 하루였다. 이날 Tae Fu 식당에서 열린 만찬에서 시상된 수상자가 다음과 같다.

- ◆Gross Champion : 남자 김재환(사), 여자 Mrs. 김인원
- ◆Net Champion : 남자 한상호(의), 여자 Mrs. 이석호
- ◆Net 2등: 남자 김동희(공) 여자 Mrs. 강창만
- ◆Net 3등: 남자 김사직(상) 여자 김승주(간)
- ◆부비상: 문병훈(사) ◆장타상: 신석균(문) ◆근접상: 황치용(문)

이번 골프대회를 위하여 동문들이 보내준 후원금으로 Trophy 6개, golf ball 12 Dz, 우산 6개, coach golf glove 2개, instant camera 2개, 참석하신 사모님들의 hat 2개, 사진액자 11개의 다수의 기념품을 마련하였다. 장기남 회장은 후원금을 보내준 김진, 김윤태, 김승규, 김영호, 신석균, 송순영, 백준철, 정경근 동문들에게 감사하였고 특별히 이날 참석하신 원로 동문들 문병훈, 최일주, 송재현, 한상호, 강화영, 배영섭, 송순영 선배님들께서 더욱 더 건강하시고 훌륭한 후배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하였다.

# 訃告 金貞淑님 別世

(1919.1.19-2003.6.17)

이승자 동문 慈堂  
시카고 동창회 副會長을 역임하며 시카고 동창회 주소록 간행과 소식지 발간 등 동창회를 위하여 많은 봉사를 해온 李勝子(사대 64년 졸) 동문의 慈堂 金貞淑님께서 別世하셔서 지난 2003년 6월 19일(목)에 Colonial Funeral 聯

e(Golf, East of Milwaukee)에서 Wake가 있는 후 다음날 시카고 近郊의 Irving Park Cemetery에 安葬되었다. 이날 장례식에서는 재미총동창회의 이용락회장과 시카고 지역동창회와 사범대동창회의 많은 同門들이 問喪을 하였다. 재미서울대총동창회는 유가족들에게 심심한弔意를 표합니다. 유가족연락처 847-564-5948

별세하신 聘母님을 추모하여 그린 金光善작 <根源>





SNUA OPINION LEADER

개미박사로 널리 알려진 崔在天교수는 일본 동경에서 열린 신세기생명 포럼에서 제안한 호모 심비우스(Homo symbiosus, 共生人)라는 개념을 통해 21세기에 생물과 인간 사이에 공생의 관계에 관한 질문과 해답을 얻고자 했다. 자연 속에서 서로 공생의 지혜를 터득하고 실천하여 성공을 거두고 있는 생물과 함께 인간은 어떤 자세로 공생해야 하는가. 이에 대한 대답을 崔교수에게 들어보았다.

메미시건대에서 교편을 잡고 있던 시절 그곳 특별연구원협회(Michigan Society of Fellows)로부터 젊은 연구원(Junior Fellow)으로 선임되는 뜻밖의 영광을 얻었다. 그때 함께 젊은 연구원으로 선임된 네명 중에는 이스터 섬을 배경으로 대하 역사소설을 쓰겠다는 소설가인 한 친구가 끼어 있었다. 그 친구 곁에서 지낸 3년간 나는 이스터 섬에 대해 많은 걸 배웠다.

화석자료에 의하면 이스터 섬은 원래 울창한 삼림으로 덮여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나무 한 그루 찾아보기 어려운 황량한 곳이다. 바람을 막아줄 나무 한 그루 없는 벌판에 석상들만 쓸쓸하게 서 있다. 나는 그 석상들을 볼 때마다 인류 문명의 종말을 보는 것 같아 자꾸 서글퍼진다. 주변 자연환경은 축발을 만들어 놓고 문명의 유물만 남긴 채 정작 그 문명을 일으킨 장본인들은 자취를 감췄다. 우리 인간이 사라진 다음에도 삶에는 여전히 심오한 철학적 의미가 존재할까?

지구의 역사와 생명의 본질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 생명을 가진 모든 것들이 다 그렇다. 적어도 이 지구라는 행성에 사는 생물들에게 부여된 생명은 예외 없이 한계성(ephemerality)을 지닌다. 제 아무리 천하를 호령하던 진시황도 한 줌 흙으로 돌아간지 오래다. 「생명」이란 단어를 사전에 뒤져보면 수십 가지의 정의들이 쏟아진다. 하지만 어린이용 사전들은 대개 「출생에서 죽음까지의 기간」이라는 정의를 택하여 적어 놓는다. 아마도 「살아 있다」는 시간적 정의가 가장 중요한 모양이다.

종교에서 바라보는 생명의 모습도 그리 다르지 않은 것 같다. 일단 한계성 생명을 부여한 다음 믿음과 의식을 통해 영원불멸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다고 가르친다. 기독교의 가르침에 따르면 우리가 우리를 창조하신 영원불멸의 존재를 믿고 그의 가르침을 거역하여 지은 원죄를 인정하면 내세에 이르러 영원히 살 수 있다고 한다. 불교에서는 생명이 한계성을 지니되 그것을 담아줄 그릇, 즉 육체를 바꿔가며 윤회한다고 가르친다. 불교의 大乘起信論을 물리학과 접목하는 작업을 하는 물리학자 蘇光燮교수에 따르면 물질적 존재란 사건(event)의 연속에 불과하다.

생물학적 생명의 개념은 생명의 주체가 누구인가라는 관점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앞마당의 닭들이 꼬꼬대거리며 모이도 쪼아먹고 짹짹기도 하는 걸 보면 닭이 닭이라는 생명의 주체일 것 같다. 그래서 우리 닭이 알을 낳는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닭의 눈으로 보지 말고 알속

에 들어 있는 유전자의 눈으로 다시 보라. 닭은 잠시 이승에 나타났다가 달이 차면 사라져버리는 일시적인 존재에 지나지 않지만 태초에서 지금까지 면면히 숨을 이어온 알속의 DNA야말로 진정한 닭이라는 생명의 주인이다. 기나긴 진화의 역사를 통해 볼 때 개체는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덧없는 존재이고 영원히 살아 남을 수 있는 실체는 바로 자손 대대로 물려주는 유전자뿐이다. 알이 닭을 낳는다고 깨달으면 생명은 어느새 연속성(perpetuity)을 지닌다.

지구의 생명은 지금으로부터 약 30~40억년 전 우연히 자신의 복사체들을 만

오늘날 우리 인간은

전혀 공생의 지혜를

터득하지 못한 동물처럼

살아가고 있다

들어내는 능력을 지닌 분자, 즉 DNA가 탄생하면서 시작했다. 그후 DNA는 단세포생물을 거쳐 급기야는 인간을 비롯한 복잡한 다세포생물들을 만드는데 성공했다. DNA의 기본구조는 현재까지 확인된 모든 생명체에서 동일하다. 일찍이 다윈이 주장한대로 오늘날 이처럼 다양한 지구상의 모든 생물들은 모두 태초에 우연히 생성된 성공적인 하나의 복제자로부터 분화돼 나왔기 때문이다. 비록 오랜 세월이 지난 지금에는 제각각 보다 효율적인 복제를 위해 다른 생존 기제들 안에 들어앉아 있지만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모두 하나의 조상을 모시는 한 집안 식구들이다. 이처럼 생명은 무수히 많은 가지를 뻗었으나 모두 하나로 연결돼 있는 연속성(continuity)을 지닌다.

자연선택과 인간의 존엄성

다윈이 제안한 자연선택론의 의의 중 가장 중요한 것의 하나는 바로 인간을 모든 다른 생물체들로부터 분리시키는 이른바 이원론에 바탕을 둔 인본주의의 허구와 오만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었다는 점이다. 인간과 원숭이가 그 옛날 공동 조상을 지녔다는 사실만큼 우리를 철저히 경허하게 만드는 일은 또 없을 것이다. 분자생물학적 연구에 의하면 우리 인간은 침팬지와 거의 99%에 가까운 유전자들을 공유한다고 한다. 인간도 남자와 여자가 따로 있고 그들이 만나 수태하여 아이를 만들어 자궁 속에서 일정기간 동안 키우다가 낳은 후에는 또 젖을 먹여 키우는 젖먹이동물의 일종임에 틀림이 없다.

화석 증거에 의하면 지구상에 태어나 지금까지 살고 있거나 이미 사라져간 모든 생물들 중 인간은 거의 막둥이 격이다. 분자유전학적 분석결과에 따르면 인류와 침팬지가 하나의 공동조상으로부터 분화된 것은 지금으로부터 불과 6백만년 전의 일이다. 6백만년이란 시간은 진화사의 관점에서 보면 그리 긴 시간이 아

니다. 지구의 역사를 하루에 비유한다면 1분도 채 되지 않는 지극히 짧은 시간이다. 현생인류가 탄생한 것은 그보다도 훨씬 최근인 15만 내지 23만년 전의 일이고 보면 인간은 그야말로 순간에 「창조」된 동물이다. 그런데 그 어린 것이 버르장머리 없이 온통 흙탕물을 튀기고 있다.

머칠을 끄공 매다 나름대로 문학적 상상력을 총동원하여 쓴 글이 하나 있다. 참 특별한 장례식장 두 곳을 다녀온 경험에 대해 쓴 글이다. 개미와 인간의 장례식이었다. 개미의 장례식은 아침부터 그야말로 인산인해였다. 그동안 개미와 온갖 공생관계를 맺고 있던 그 수많은 생물이 만드는 애도의 행렬이 그 끝을 가능하기 어려웠다. 그에 비하면 인간의 장례식장에는 속말로 개미 새끼 한 마리 찾아보기 어려웠다. 간간히 바퀴벌레, 이, 빈대, 벼룩들이 나타나 사투 의무적으로 봉투를 던지곤 사라질 뿐이었다. 유사 이래 가장 엄청난 장난을 쳤던 인간의 서거를 진심으로 애석해 하는 생물은 별로 없어 보였다.

그러다가 어둑어둑 땅거미가 깔릴 무렵 홀연 소떼들이 밀려들기 시작했다. 지구상에 소가 얼마나 많으면 지구온난화가 그들의 방귀에 섞여 나오는 메탄가스 때문이라는 학설이 점잖은 과학 학술지에 발표가 될까? 곧이어 소떼들 뒤로 벼와 밀, 보리들이 릴레벌떡 들이닥쳤다. 그들 역시 인간 덕을 톡톡히 본 이들이다. 인간이 농사를 짓기 시작하기 전, 즉 불과 1만년 전까지만 해도 저들만 구석에서 말없이 피고 지던 한낱 잡

「적자생존」 「양육강식」 등

충들을 일삼는 경쟁만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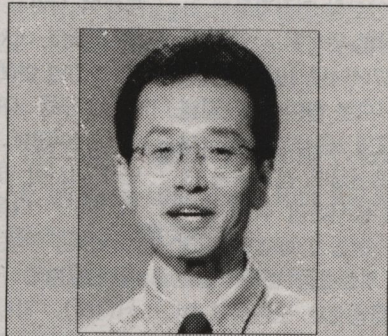
이 세상에서 살아 남는

유일한 길은 아니다

초에 지나지 않던 그들이 오늘날 이 지구 최대의 지주가 된 것은 오로지 인간을 만나 함께 산 덕이었다. 오늘날 우리 인간이 전혀 공생의 지혜를 터득하지 못한 동물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실로 엄청난 아이러니다. 규모로 보아 우리 인간만큼 훌륭하게 공생의 삶을 살아온 동물이 없건만 오늘 우리는 왜 자연의 품을 떠나 자연을 짓밟으며 살고 있는 것일까요?

21C 새로운 인간상-共生人

2003년 1월 16~18일 나는 일본 동경에서 열린 신세기생명 포럼에 참석했다. 일본 모리 前총리가 주관한 이 국제포럼에서 나는 「Homo symbiosus-A New Image of Man in the 21st Century」라는 제목의 기조연설을 했는데, 종합논평에서 포럼의 결론 개념으로 삼으면 어떻게 됐느냐는 제안이 나오는 등 기대 이상으로 큰 호응을 얻었다. 호모 심비우스(Homo symbiosus, 共生人)의 개념은 내



崔在天

- 1977년 모교 자연대 졸업
- 1982년 美펜실베이니아주립대 생태학 석사
- 1990년 美하버드대 생물학 박사
- 1990~92년 美하버드대 전임강사
- 1992~94년 美미시건대 조교수
- 1994~현재 모교 생명과학부 부교수

가 2002년 여름 우리 나라에서 열린 세계생태학대회(INTECOL)에서 시민들을 위한 기조강연 시리즈를 구상할 때부터 사투 구체적으로 내 마음 속에 떠오르기 시작했다. 나는 그 기조강연 시리즈에 「21세기 새로운 생활철학으로서의 생태학-다스림과 의지함(Ecology as the New Philosophy of Life in the 21st Century-Stewardship and Dependence)」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공생의 개념을 보다 널리 알리고자 했다.

우리는 흔히 자연을 생각할 때 「적자생존」 「약육강식」 등의 살벌한 사자성어를 떠올린다. 하지만 무턱대고 충들을 일삼는 경쟁만이 이 세상에서 살아 남는 유일한 길은 아니다. 중량만 놓고 볼 때 이 지구를 지배하고 있는 생물은 단연 식물이다. 그 중에서도 꽃을 피우는 식물, 즉 현화식물(flowering plants)이다. 오늘날 이 지구에서 가장 막강한 숫자를 자랑하는 동물은 또 누구인가? 바로 곤충이다. 식물과 곤충은 서로 공생의 지혜를 터득하고 실천했기 때문에 이처럼 엄청난 성공을 거둔 것이다.

동경 포럼에서 나는 내가 평소 늘 이마에 써 붙이고 다니는 좌우명 「일면 사랑한다」와 論語의 한 구절 「和而不同」을 구체적인 실천방안으로 제시했다. 다양한 삶의 주체들과 형태들을 인정하고 그들에 대해 보다 많이 알기 위한 노력, 즉 생태학과 같은 학문을 통해 함께 사는 길을 찾아야 한다. 유전자의 눈높이에서 바라보는 생명은 언뜻 섬뜩하고 허무해 보인다. 그러나 그 약간의 소름 끼침과 허무함을 받아들이고 나면 스스로 철저히 경허해지는 경험을 하게 된다. 그리곤 자연의 일부로 거듭나게 된다. 지금 우리 인류가 저지르고 있는 환경 파괴 및 온갖 잔인한 행동들을 보면 우리는 스스로 갈 길을 재촉하는 동물처럼 보인다. 일찍이 「인간은 역사의 무대에 잠깐 등장하여 충분히 이해하지도 못하는 역할을 하다가 사라진다」고 한 셰익스피어의 경고가 다시금 새롭다. 거듭나야만 살 수 있다. 나는 우리 인간이 이번 세기에 「호모 심비우스」로 거듭나기를 기원한다.



# 미주의대 동창회장 新年辭

鄭丁壽(의대 62년 졸, 재미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총동창회장)

새해 존경하는 동문님, 각 가정  
에 건강, 행복, 무사, 소원성취를  
바칩니다.



축복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江川이 네 번 변한 지난 10월  
21일, 모교 졸업 40주년 행사에는  
상당수가 幽冥을 달리했거나 건강  
을 잃어 그리운 얼굴들을 다 못 보  
는 無常함을 느꼈는데 지난 12월  
21일 뉴저지 大元에서 있는 送年  
會에는 41년도에 졸업하신 이규용  
선배님, 2002년에 졸업한 연선영  
양, 그리고 멀리 한국을 비롯하여  
디트로이트, 피스버그, 보스톤에  
서 끈끈한 동기 동창의 정으로 저  
를 도우려 모이신 35명의 62년 동  
기동창 가족들, 母校를 사랑하시  
고 동창회를 늘 도와주시는 낮익  
은 선후배님 등 186명의 반가운  
얼굴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하룻밤  
축제를 가졌으니 정말 우리들은

서울의대 미주총동창회가 그간  
새 후배가 뭉쳐오니 앞으로 어  
떻게 品位있게 살아야 할까 걱정  
했는데 작년도에 제가 일하고 있  
는 미국 교육병원의 17.2%가 외  
국의과대학 졸업생들로 채우고 우  
리 우수한 서울의대 후배들도 어

려운 관문을 뚫고 이제는 계속 정  
착해서 최고의 교육 훈련을 받고  
있다는 사실과 지금까지 우리 미  
주동창들이 모교와 한국의학 현대  
화에 끼친 공로를 생각하면 앞으  
로 이 분들과 우리 2세 의사들이  
부모님의 모교와 조국의 의학기술  
발전예 계속 큰 기여를 할 줄 압니  
다.

Green Project Committee  
서인석(73), 문대옥(73) 공동위  
원장의 열성 어린 노력으로 Spe  
cial Fund for Green Project  
도 2만 2천 달러 이상 지급되었고  
미주동창회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미국에서 교육받기를 희망하는 새  
졸업생들의 미국 정착을 도울 수  
있는 효율적 구체적 방법을 열심  
히 연구하여 실행하고 있으니 앞  
으로 계속해서 여러 선후배님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연말 송년회 참석 권유전화를  
끊임없이 했는데 대부분 모든 분  
들이 따뜻하게 "회장님이 애쓰다"

편집자 주] 이 글은 미주의대동창회 31대 회장 취임사인데 그간 동창  
회보의 제한된 지면으로 인하여 게재가 늦어졌다. 이 글은 동창회의 활  
동에 무관심한 동문들에게 모교에 진 우리들의 은혜를 환기하고 있다.  
정동문은 2003년 6월 30일자로 그 임기를 마치고 7월 4일 열릴 미주의  
대동창회 하계대회에서 제32대 회장으로 이재승(의대 61년 졸·아래사  
진)동문이 선출될 예정이라고 미주의대동창회에서 알려졌다.

고 격려해 주는데, 소수 분들은 아  
무 이익 도움도 안주는 동창회 일  
로 성가시게 굴지 말라고 하고, 또  
어떤 분은 자기는 진실 된 것 한가  
지만 믿고 산다고 동창회는 필요  
없다고 하셨는데 同窓會는 우리가  
이익을 받으려고 하는 기관이 아  
니고 우리의 오늘이 있게 한 6년  
의 배움터를 준 母校의 은혜를 갚  
고 훌륭한 後輩育成을 도와 좋은  
사회를 만드는데 奉仕하는 곳입니  
다. 옷깃을 스쳐도 因緣이라 했는  
데 6년동안이나 같은 배움터를 공  
유했다는 同窓이라는 인연 하나로  
우리는 언제든지 낯선 선후배님들  
과 금방 친해져서 서로 특별히 도  
와가며 사는 친목의 보금자리가

되고 있  
습니다.  
아무  
쪼록 새  
해에는  
모두 건  
강유지  
에 노력  
해서 41  
년도에 졸업하신 이규용 선배님처  
럼 지금도 동창 골프대회에서 장  
타를 날리시고 연말 동창모임에  
한번도 빠짐없이 건강한 모습으로  
참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03년 1월1일

# 2002년 送年會 회고

文大鈺(의대 73년졸, 미주의대동창회 총부)

"마감 날이 다 되었는데 아직도 150  
명이 되려면 한참 멀었어요" 동창회  
사무실의 미세스 김의 연락이다. 그  
렇지 않아도 열심히인 정회장의 전  
화통에 더욱 더 불이 붙어지며 연말  
파티의 두 대회장인 엄규동(69  
졸), 김종권(69) 동문은 물론이고 회  
장단들의 손발도 바빠졌다.

며칠 후, 드디어 최소한의 필요한  
인원 확보는 될 것 같으니 걱정할 것  
없다는 중간보고다. 연회장에 자칫  
잘못하면 토해낼 뻔했던 패널리 걱  
정은 이제 해결이 되었다. 파티당일 날  
좋은 날씨가 되었으면 하고 그동안  
눈이 빠지도록 기원했는데, 정말 눈  
(snow)이 빠지고 해가 나는, 겨울치  
고는 최적의 날씨가 되었으니 우리들  
의 기도 탓도 있지만 역시 鄭회장의  
영어이름(Jay-Soo) 따라 "財數"  
하나는 역세게 좋았나 싶다.

급년 모교를 졸업하고 도미한 막내  
엄선영(2002) 동문이 가볍고 힘차게  
들고 들어온 고기입장으로 시작된  
(갈수록 힘있는 젊은 동문들이 줄어  
드는 판에 저 무거운(?) 고기를 누가  
들 것인가 걱정했는데) 연말파티는  
190 여명의 동문들께서 왕립하시어  
성대한 막을 올렸다. 식순이 시작하  
기도 전에 각자 테이블만 확인한 후  
공감 음악에 맞추어 춤을 즐기는 서  
울의대 무용단은 소문대로 감히 타  
대학의 추종을 불허하겠다! 도대체  
음식 주문을 받을 수가 없다며 어떤  
모임이냐고 묻는 미국 매니저의 애교  
있는 투정에 "대-한국 대-서울의  
대"라고 귀뜸을 해주었다. 영어도 아  
닌 한국말이니 얼마나 알아들었는  
지도 잘 모르지만...

오랜만에 불러보는 校歌! 희미한  
불빛 아래 더욱이나 갈수록 점점해지  
는 눈으로 가사 읽기도 힘든 터에,  
그래도 모두들 큰 소리로 기를 쓰고  
부르는 열창이었다. 가라오케 덕분에  
다들 노래 솜씨는 해가 갈수록 일취  
월장이다.

전체 동문들의 20%가 은퇴한 우리  
동창회! 그동안 유명을 달리한 동문  
들을 기리는 목념에 이어, 정정수  
(62) 회장의 인사말씀으로 어려운  
발걸음을 하신 동문들과 그리고 참석  
유무에 관계없이 젊은 동문들을 위한  
Green Project기금 모금에 대대적  
으로 동참하신 동문들께 감사드리며,  
다가오는 하계컨벤션에도 꼭 참석해  
주시사 하는 간곡한 부탁말씀이 있었  
다. 이어서 멀리 Chicago에서 오신  
재미서울대동창회 이음락 회장의  
오늘의 모임을 축하하며 더 많은  
동문들의 총동창회의 참여를 촉구하  
는 말씀, KAMA의 서병세 회장의  
내빈 축사가 있을 후, 내빈 소개  
와 더불어 올해 특별히 많이 참석토  
록 배려한 95년 이후 졸업 후배 동문  
십여 명에 대한 격려박수와 더불어  
장차 그들의 일과 짝꿍(?)을 찾는  
동문들의 적극적인 도움을 바라면서  
1부 순서를 마쳤다.

2부 순서로 밴드의 다양한 음악에  
맞추어 그동안 연마했던 춤솜씨들을  
(물론 연말에야 같고 닦아 부라부라  
참석하는 내 수준에 무슨 할말이 있  
으려만...) 마음껏 과시하기에는 그  
넓은 댄스 홀이 비좁을 정도고 할아  
버지-아버지-손자 빨인 동문들이 모  
두 함께 어울리는 재미있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젊은 동문들을 위한 빠

르고 다이내믹한 음악에도 전혀 상관  
없이 노익장을 과시하는 많은 동문들  
에게 놀라움과 더불어 다시 한번 경  
의를 표하고 싶다. 행여라도 넘어져  
서 다치실까봐 한편으로는 마음 조마  
조마 했으니 빼고 부러진 것만 보고  
사는 내 직업은 어디가도 필경 못 속  
이나보다.

찬조 출연한 선우건영(63) 동문과  
Mrs. 김종권(69) 두 분의 직업적인  
가수 못지 않은 노래 솜씨는 더욱 흥  
을 돋웠고, 아예 동창회 보조로 두  
분을 밤무대에 진출케 하여 그 수의  
금을 동창회기금에 보태도록 재정부  
원회에 건의해 보기도...

할 말(?)이 없다고 시작된 김종권  
동문의 구수한 만담으로 열기는 더해  
가고, 참다못해 등장하신 회장의  
짤막한 조크를 즐기며, 총무되는 나  
자신, 잘하든 못하든 당연히 회장의  
의 본(?)을 따라 한 마디 해야 할 책  
임감에 한참 망설임 끝에, 결국은 아  
들 딸 장가 시집갈 때까지는 자제하  
라는 마누라의 준엄한 명령(?)을 따  
르기로 했다. 누군가는 겁도 없이 말  
안듣다 훌리스 신세가 됐나?

흥겨운 파티 중에 최고의 상품으로  
준비한 한국비행기표는 그동안 동창  
회를 위해서 이모저모로 수고해오신  
송관호(64) 동문께서 행운을 누웠  
다. 생각건대 나도 더욱 열심히 동창  
회 일에 수고하면 언젠가는 내 몫도  
돌아오지 않을까 새삼 기대해본다.  
무엇보다도 여러모로 힘들어진 미국  
\*의 어려움을 극복한 사랑하는 후배  
동문들의 많은 참여로 더욱더 뜻 깊  
은 연말파티가 되었으며 이를 위하여  
계속 이해와 후원을 아끼지 않으신  
동창회 이사님들을 비롯한 많은 동문  
들, 특히 그동안 부단하고 희생적인  
노력으로 애써온 서인석(73) 동문  
(본인과 더불어 Green Project  
Cominittee co-chair), 그리고 이

들을 위한 기금모금을 구상하고 앞장  
서신 정정수 회장님께 우리모두 뜨거  
운 박수를 보냈으면 한다.

참가 동문 중 가장 고령이신 이규  
용(41) 선배님께서, 손주 같은 젊은  
후배들과 사진촬영을 하시며 "이제까  
지 동창회 파티에 가보았지만 이렇게  
흐뭇하고 뿌듯함을 느껴보기는 오랜  
만이야" 하시는 격려말씀을 새기며,  
우리 자랑스러운 서울의대 동문들 개  
개인 내지는 동창회가 무언가 이들을  
위하여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다시 한번 바쁜 시  
간을 쪼개어서 연말파티를 준비하신 회

장단, 두 분 대회장, 뉴욕지부 정인  
웅(71) 회장, 동창회 사무실의 미세  
스 김, 그리고 무엇보다도 파티에 참  
석하신 모든 동문들께 깊은 감사  
를 드린다.

다가오는 하계대회(2003년 7월 4  
일)에도 젊은 동문들에 대한 지속적  
인 후원과 더불어 은퇴하신 동문들  
께 대한 배려는 물론 더 많은 준비와  
프로그램으로 여러 동문들을 모시고,  
보다 더 즐거운 시간이 될 것을 약속  
드리면서, 무사히 성공적으로 즐거운  
연말파티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진심  
으로 감사를 드릴 뿐이다.

## 創作詩

少樹金澤洙(의대 63년 졸)

### 天堂에 살리라

천당이라 이르면 어찌리  
극락이라 이르면 어찌리  
하늘나라라고 이르면 또 어찌리  
천당도 죽어서 가는곳  
극락도 죽어서 가는곳  
하늘 나라도 죽어야만 갈 수  
있는 곳  
천당도 극락도 하늘나라도  
난  
죽어서 가기보다  
이세상이 천당이려니  
이세상이 극락이려니  
이세상이 하늘나라이려니  
천당에서 살리라  
극락에서 살리라  
하늘나라에서 살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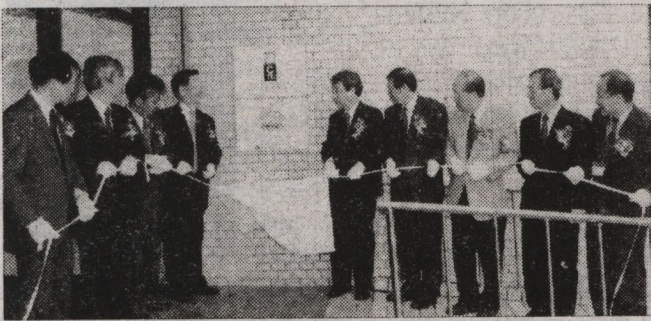
### 내가 하고싶은 말

이승을 떠나면서  
내가 가장 슬펐던 것이  
무엇이었나고  
영리대왕이 묻는다면  
난  
서슴치 않고  
당신을 이별하게 됐던 것이라고  
말할 것이고  
  
이승에서 가장 기뻐던 일이  
무엇이었나고 묻는다면  
당신을 사랑했던 것이라고  
난  
주저 않고 말할 것이고  
  
이제부터 할 일이 무엇이나고  
묻는다면  
당신을 찾아 나설꺼라고.....  
비록 永劫이 걸릴지라도.



# 모교소식

## 국내 첫 「글쓰기 교실」 개소 글쓰기 지도·상담업무 실시



모교 교수학습개발센터(소장 姜明求·언론정보학과 교수)는 지난 4월 10일 관악캠퍼스 교수 학습개발센터 1층 회의실에서 「글쓰기 교실」 개소식을 갖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글쓰기 지도 및 상담 업무를 시작했다. 글쓰기 교실은 학부생을 위한

일대일 리포트 상담을 비롯해 대학에서의 글쓰기와 관련된 전반적인 지도와 상담업무를 담당하는 국내 대학 최초의 글쓰기 교육 전문 기관이다. 글쓰기 교실은 지난해 7월 취임한 鄭雲燦총장의 공약 중 하나였다. 이를 위해 姜소장은 자

난해 11월부터 준비작업에 들어가 외국 우수 대학들의 글쓰기 센터를 견학하고 수십 권의 관련 자료를 수집했다.

학생들은 글쓰기교실에 상담을 신청하고 리포트를 첨부하면 일정한 상담 훈련을 받은 박사 과정의 연구조교 6명과 면담을 통해 리포트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에 대해 조언을 받을 수 있다. 매 학기마다 인문, 사회, 자연계열의 교양 과목 가운데 글쓰기 시범과목을 선정해 수강생이 글쓰기 교실 상담을 받도록 유도하고 평가작업도 실시할 예정이다. 또 글쓰기 교재 개발, 학위논문과 영어논문 작성법 워크숍 개최 등의 프로그램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개소식에 앞서 지난 4월 9일 녹색대학 張會翼(61년 文理大卒·前모교 물리학부 교수) 총장이 근대법학 1백주년기념 관 주산홀에서 「나의 학문과 글쓰기」를 주제로 개소 기념 특강을 했다.

## 2005학년도 지역균형선발제 내신위주 20%·특기자 10% 선발

모교는 지난 4월 4일 전체 모집위원의 20% 내외를 수시 모집에서 내신 위주로 선발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200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 방향」을 발표했다. 지역균형선발 전형은 다양한 능력과 배경을 가진 학생을 선발하겠다는 원칙하에서 내신 성적 위주로 지원자를 평가하며 지원자의 출신 지역 등 학업 배경도 비교과 영역에서 고려된다.

모교는 2005학년도에 우선 전체 모집위원의 20% 내외를 이 제도로 선발되 점차 인원을 늘려나갈 방침이다. 또 모집단위와 관련된 분야의

탁월한 재능과 경력을 가진 학생을 선발하겠다는 목적으로 특기자 전형을 신설, 전체 정원의 10% 내외를 선발하기로 했다. 특기자 전형은 각종 경시대회 수상자와 특정교과 성적 우수자, 일정 단위 이상의 전문교과 이수자 등을 대상으로 하며 내신보다는 특기를 평가, 합격자를 결정한다.

정시모집에서는 추천서와 자기소개서 등의 제출서류를 일부 폐지하는 등 비교과 영역의 비중을 낮추는 등 전형요소를 현행보다 간소화하고, 수능 등 객관적인 학업 성취도를 바탕으로 지원자를 뽑을 계획이다.

지역균형 선발제의 구체적인 입시안을 9월경 발표할 계획이다.

### 관악구에 중고컴퓨터 기증

모교 鄭雲燦총장은 지난 4월 11일 관악구청장실에서 金炯周 학술정보원장, 金熙喆관악구청장, 관악구 어린이집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사랑의 중고컴퓨터」 전달식을 개최했다.

이번에 전달된 18대의 중고컴퓨터는 관악구의 18개 가정보육 시설에 설치돼 7세 이하 어린이들에 대한 보육업무 전산화에 사용된다. 이를 위해 모교는 가정보육 시설운영 프로그램인 「걸음마 프라이빗」을 설치했다.

이에 앞서 모교는 지난 3월 관악구 소외 어린이 및 청소년을 위한 복지시설에 컴퓨터 32대를 기증했다.

## 교직원 임대아파트 신축키로

### 총장 공관자리 등에...2백77세대

모교는 최근 鄭雲燦총장의 공약인 교수 처우 개선의 일환으로 기존 총장공관과 교수아파트를 헐고 교직원 임대아파트를 신축하기로 방침을 결정했다.

「서울대 발전기금」에서 자금을 지원 받아 시행되는 이 사업은 두 단계 공사로 진행된다. 1단계로 총장공관 터에 8월부터 교수 임대아파트를 신축, 2004년까지 완공, 현재 교수아파트 입주자를 신축한 아파트로 이주시킨 뒤 2

단계로 현재 교수아파트를 2005년까지 재건축할 계획이다.

신축되는 교직원 임대아파트는 총 2백77세대로, 임대기간은 5년이며 3년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해 입주자의 거주 불안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모교 기획실은 지난해 9월 관련 연구팀을 구성, 무주택 교직원 9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이는 등 학내 의견 수렴을 통해 이 사업을 계획했다.

## 바이올리니스트 金永旭교수

### 개교 이래 첫 정교수로 특채



음악대학(학장 金 燾)은 지난 3월 31일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金永旭교수(사진)를 기악과 현악전공 정교수로 특별채용했다고 밝혔다. 모교가 개교 이래 공개채용을 거치지 않고 특별채용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金교수는 일대일 지도를 통해 국내 음악 영재교육에 힘을 쏟을 예정이다.

金교수는 61년 방한중이던 피아니스트 루돌프 제르킨에 의해 발탁돼 美커티스 음악학교로 유학했으며, 세계적인 지휘자 번스타인은 그를 진정된 천재라 부르기도 했다.

63년 美방송사 CBS를 통해 생방송된 필라델피아 오케스트

라의 공연으로 미국 무대에 정식 데뷔한 金교수는 68년 뉴욕 카네기홀 데뷔 공연을 시작으로 미국 순회 공연을 시작했다. 그 후 카라얀, 번스타인, 올먼디, 프레빈, 하이팅크 등과 같은 명지휘자들과 협연하기도 했다.

### 대학원 입시, 토플 성적 인정

모교는 지난 4월 19일 2003학년도 대학원 후기 입학전형부터 토플(TOEFL) 성적을 입학 전형 자격으로 인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모교는 대학원 입학전형에서 토플 성적만을 인정해 왔으며, 외국대학(원) 출신자들에게만 제한적으로 토플 성적을 인정해 왔다.

기관이나 학교가 ETS로부터 문제를 받아 자체적으로 치르는 Institutional TOEFL Program 성적은 인정되지 않으며, ETS에서 모교에 공식 통보하는 성적만 인정받을 수 있다. <鎭>

## 모교 교직원 동정

모교는 지난 3월 25일자로 기획부실장에 공대 건축학과 卞載勳교수, 연구부처장에 생활과학대 소비자보호학부 余補民교수를 선임했다. 또 4월 1일자로 대학생활문화원장에 사회대 심리학부 卍煥교수가 임명됐다. 신입 卍補民실장은 80년 모교 공대 건축학과를 졸업하고 美조지아 공대에서 건축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美인리노이대·명지대 교수 등을 역임했다.

신임 余부처장은 83년 모교 가정대 가정관리학과를 졸업한 후 美코넬대에서 소비자경제학 박사학위를 마쳤으며 한국소비자학회 상임이사, 모교 소비자보호학부장 등을 역임했다.

신임 卍원장은 73년 모교 문리대 심리학과를 졸업했으며, 美위싱턴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84년 모교에 부임, 심리학과장, 심리과학연구소장 등을 역임했다. <鎭>

서울총동창회보 302호(2003. 5. 15) 14면에서 전제



최재필 기획부실장



여보성 연구부처장



민경환 대학생활문화원장

## 「서울대 산학협력재단」 문 열어 특허신청 및 기술이전 관리

모교는 지난 4월 17일 관악캠퍼스 연구공원 본관 강당에서 鄭雲燦총장과 산업자원부 尹鍾植 장관, 특허청 河東萬장관, 교직원 등 2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대학교 산학협력재단」 개소식을 가졌다.

지적 재산권 및 기술 이전을 전담할 이 재단은 대학 교직원들이 발명한 각종 기술이나 제품을 넘겨받아 관리하면서 특허 신청 및 산업체 기술이전을 수익사업으로 수행하고 수익금의 60~80%를 발명자에게 배분할 예정이다. 국·공립대에서 수익사업용 기술이전 조직을 별도 법인으로 설립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산학협력재단의 설립으로 지적재산권에 대한 교수의 권익보호는 물론 기술이전을 통한 수익을 발명자에게 보다 많이 보상함으로써 연구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으며, 나아가 연구와 기술이전 및 보상 그리고 재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제도의 활성화가 기대된다. 궁극적으로는 기술이전의 활성화가 대학과 산업체간의 유기적 관계를 더욱 증대시켜 국가 산업발전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鄭雲燦총장이 이사장을 겸임하며, 공대 재료공학부 洪國善교수가 단장을 맡게 된다. 조직

체계는 사무운영본부, 기술사업본부, 창업지원본부 등 3개 본부와 운영위원회, 법률경영위원회, 기술평가위원회, 창업지원 운영위원회 등 4개 위원회로 구성된다. 한편 모교 교수들이 보유한 특허만도 2천여 건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총동창회보 302호(2003. 5. 15) 14면에서 전제

## 서울대 동창회보 인터넷 접속

많은 본국 동문들의 동정이 실린 서울대 동창회보를 직접 인터넷을 통하여 직접 볼 수 있다 <http://www.snua.or.kr>



# 모교소식

## 국제 과학논문인용색인 지수

### 세계 34위 도약...6년 연속 상승

모교는 지난 4월 28일 교육인적자원부가 발표한 「2002년 국제 과학논문 인용색인(SCI) 지수」에 따르면 2천7백13편의 논문을 SCI 등재 학술지에 실어 세계 40위(2001년)에서 34위로 도약했다. 모교의 순위는 지난 1996년(868위) 이후 1997년 126위, 1998년 94위, 1999년 73위, 2000년 55위, 2001년 40위 등 6년 연속 상승하고 있다. 세계 주요 대학별 순위는 미

하버드대가 8천5백37편으로 1위이며, 日도쿄대(6천1백78편), 美UCLA(4천9백72편), 美워싱턴대(4천8백54편), 美미시간대(4천5백27편), 加토론토대(4천5백19편), 日교토대(4천3백19편), 美스탠퍼드대(4천2백89편)순으로 나타났다.

모교의 교수 1인당 논문수는 2.81편으로 광주과학기술원(KJIST·5.34편), 포항공대(3.49편), 한국과학기술원(KA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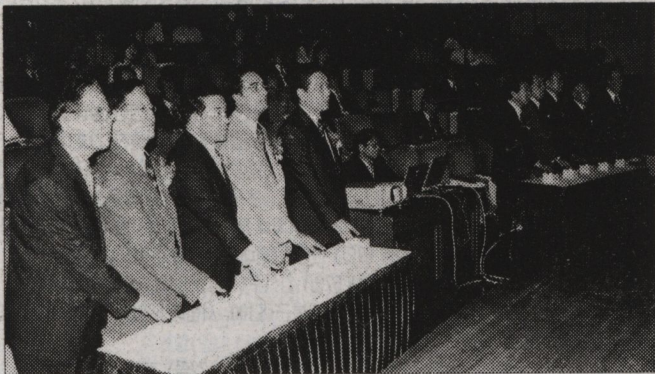
ST·3.07편)에 이어 국내 4위를 기록했다.

한편 국가별 순위에서 우리나라는 1만4천9백16편을 발표해 세계 13위에 올랐다. 이는 2001년(1만4천1백62편)보다 5.3% 증가한 것으로, 세계 상위 45개국 중 증가율 8위에 해당한다. 미국이 26만8천5백26편으로 1위였고, 일본(6만8천9백79편), 영국(6만6천8백54편), 독일(6만1천7백24편), 프랑스(4만3천4백33편) 등이 뒤를 이었다.

지난해 모교 연구비 수주액이 2천43억이었는데, SCI 등재 과학논문 순위의 상승은 연구비 수주의 증가와 상관관계에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 지식네트워크 「전자도서관」 개관

### 도서 원문·동영상 온라인으로 제공



중앙도서관(관장 許成道)은 지난 5월 21일 모교 관악캠퍼스 문화관 중앙당에서 趙完圭(52년 文理大卒·한국생물산업협회 이사장)·朴奉植(55년 文理大卒·금강대 총장)전임 총장, 본회 孫一根(51년 法大入·한국일보 고문)상임부회장, 대법원 李鴻薰(69년 法大卒)도서관장, 鄭浩永(71년 師大卒)국회도서관장, 교육인적자원부 徐凡錫(75년 師大卒)차관, 상주대 金鍾鎬

총장 등을 비롯한 내외 인사 5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자도서관 가동식을 개최했다.

許관장의 경과보고에 이어 모교 鄭雲燦총장은 축사를 통해 『전자도서관의 가동으로 그동안 도서관을 직접 찾아가 열람했던 각종 문헌들을 이제 원하는 장소와 시간에 열람할 수 있게 됐다』며 『이것은 연구자가 자신의 연구과정을 공개하고 다른 연구자들의 협조를 받게 된 것이며,

다양한 디지털 학술 자료를 확보하게 된 성과로 모교가 좀 더 세계적인 수준으로 발돋움하게 해주었다』고 전했다.

교육인적자원부 徐차관은 축사에서 『전자도서관을 통해 단지 학교 내에 정보 교류를 혁신시킨 것뿐만 아니라 지역 및 국가 정보 유통에 새로운 발전의 계기를 마련했다』며 『그동안 BK21이 대학의 학문수준을 향상시켜왔는데, 이 또한 BK21의 결실이라 기쁘다』고 피력했다.

이어 전자도서관 개관 커팅식과 시연이 거행됐다.

한편 전자도서관은 열람하고자 하는 도서의 원문이나 동영상 등을 포함한 모든 정보를 온라인으로 제공한다. 장소나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도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정보를 얻는 소요 시간을 줄여 학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주며, 교내의 주요 학술 정보를 망라하여 담고 있다. 향후 전자도서관은 교내뿐만 아니라 전 국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전자도서관의 홈페이지 주소는 「http://sdl.snu.ac.kr」이다. (亨)

## 鄭雲燦총장, 연세대서 특강

### 경제정책 및 유학시절 등 강의

모교 鄭雲燦총장은 지난 5월 22일 연세대에서 경제학과 화폐금융론 강의를 초청을 받아 「나의 화폐금융론 공부」라는 제목으로 특강을 실시했다.

鄭雲燦총장은 학부생과 대학원생 등 3백여 명이 참여한 이날 특강에서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견해와 경제학 입문 동기 및 유학시절 경험 등을 강의해 높은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학술교류협정을 맺은 대학의 교수들이 상대방 대학에 출강하는 경우는 있지만, 총장이 직접 다

른 학교에 가서 강의하는 경우는 매우 드문 일이다.

이번 특강은 鄭雲燦총장과 成根교수의 제안에 의해 이뤄졌다. 河교수는 『鄭雲燦총장을 국립대 총장이기에 앞서 화폐 및 금융분야의 권위 있는 학자이며, 우리 강의에서도 鄭총장의 저서 「화폐와 금융시장」을 교재로 사용하고 있다』며 『학생들에게 저자를 직접 만나게 해 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초청했다』고 설명했다.

## 의과대학

### 내년부터 본과 정원 일반 편입

의과대학(학장 李宗郁)은 지난 5월 23일 2004학년도부터 본과 정원 중 50명을 일반편입으로 선발한다고 밝혔다.

의대를 제외한 다른 단과대학은 지난 2001학년도부터 일반편입을 도입했으며, 의대에 일반편입이 실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일반편입은 4년제 대학 졸업

자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2004학년도에 선발되는 50명은 예과 2년을 마친 2002학년도 입학생 1백명과 함께 본과 1학년에 올라가게 된다.

이번 일반편입 실시는 법학과 사회학, 공학 등 다양한 학문과 의학을 접목시켜 의학 발전을 이루기 위해 실시되는 것이다.

(鎬)



### “활짝 웃으세요”

모교 직원들이 지난 5월 19일 아시아나 항공 서비스교육원에서 열린 친절교육에 참가해 밝은 표정을 짓는 훈련을 받고 있다. 이번 직원들의 친절교육은 서비스 마인드 제고를 위해 실시된 것이다.

## 교수 정년보장기준 대폭 강화

### SCI에 논문 발표 활발해질 듯

모교는 지난 5월 9일 「서울대 전임교수 정년보장 임용에 대한 시행세칙」을 발표하고, 올해부터 정년보장 심사를 받는 교수들에게 적용한다고 밝혔다.

시행세칙에 따르면 공과대학의 교수는 정년보장을 받기 위해서는 과학논문 인용색인(SCI)에 논문을 5편 이상 발표해야 한다. 그리고 국제학회에서 논문상 또는 학술상 수상, 국제학술회의에서 초청 강좌 개최, 1억 원 이상의 기술이전계약 체결 중 한 가지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시행세칙 제정 이전에는 SCI에 실리지 않은 논문도 연구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다.

자연대는 공과와 마찬가지로 SCI 논문이 5편 이상일 때 정년보장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했지만,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를 해당 분야의 국제학술지 인용지수에서 상위 20%

이내의 학술지로 제한했다. 그리고 교수들이 제출한 논문이 국제학술단체에서 수여하는 학술상 수상, 국제학술지 인용지수가 1위인 학술지에 게재, 제3자에 의한 우수논문 평이 국제학술지에 게재 중 한 가지 조건에 만족해야하도록 기준을 강화했다.

사회과학대는 연구실적으로 인정하는 논문을 학술진흥재단과 사회과학논문 인용색인(SSCI), SCI 논문으로 제한했고, 인문대는 학술진흥재단에 등재된 논문과 함께 단독 학술저서, 단독 학술번역, 단독 고전번역 등 저서 출판을 정년보장의 조건으로 규정했다. 새로운 시행세칙에 따라 정년보장을 받기 위한 교수들의 SCI 논문발표도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총동창회 303호(2003.6.15) 15면에서 전제

## 사범대학

### 최첨단 「교육정보관」 기공식

사범대학(학장 曹昌燮)은 지난 5월 9일 鄭雲燦총장, 李揆澤 李訓平국회의원, 辛東一사범대학동창회장 등 2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관악캠퍼스 사범대학 정보관 신축부지에서 교육정보관 기공식을 개최했다.

權五良부학장의 신축 경과보고에 이어 曹昌燮학장은 축사를 통해 『교육정보관의 건립으로 수준 높은 학문 연구와 교사를 양성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이를 계기로 국내 교육을 선도해 나갈 우수 교사를 양성하고, 무너진 공교육을 치유할 수 있도록 역량을 배양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鄭雲燦총장은 축사에서 『사범대

학이 오랫동안 추진해오던 교육정보관 신축의 기공식을 축하하며, 교육현대화와 교육정보화를 위한 교사교육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믿으며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교육의 정상화와 사범대학 발전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첨단 시설로 설계된 교육정보관에는 멀티미디어실, 일반강의실, 실험실습실, 화상회의실, 세미나실, 도서실, 전체관측실 등이 설치된다. 지하 1층, 지상 6층 건물의 2천4백73평으로 2004년 12월 완공될 예정이다.

서울총동창회 303호(2003.6.15) 15면에서 전제



동창회보 구독료 지부별 납부 현황 후원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002년 7월 1일 ~ 2003년 6월 30일

지역 번호	지부명	명 단
01	남가주	358 이기봉(상대 54인), 정한규, 강정진(문리대 60인), 권혁창(법대 57인), 박일진(치대), 김선희(문리대 66인) 김수백(치대 48인) 전범수(농대 71인) 박성욱(상대 58인) 최동욱(의대 61인) 김홍복(문리대 60인) 진선준(사법대 53인) 송영훈(상대 57인) 김성웅(농대 70인) 홍사일(농대 49인) 구철희(의대 78인) 김인영(공대 58인) 김남철(사법대 55인) 김병삼(공대 53인) 전광일(문리대 58인) 조정현(치대) 이근성(치대 54인) 이영일(문리대 53인) 이시홍(\$120 2년치, 의대 42인) 김종혁(문리대 63인) 강일선(약대 44인) 이재우(음대 60인) 김수향(간호대 68인) 장기열(치대 55인) 최범식(치대 56인) 이재선(농대 58인) 정병학(농대 70인) 이우영(치대) 오영문(수의대 64인) 김창신(사회대 79인) 이계식(공대 78인) 박종식(\$100, 의대 52인) 김동석(음대 64인) 박인수(농대 64인) 김영옥(간호대 69인) 김용선(의대 55인) 나병철(자연대 84인) 이영송(치대 63인) 김윤성(치대) 김일근(의대 70인) 한해순(간호대 70인) 이종도(간호대 73인) 김동훈(수의대 55인) 송경자(미대 61인) 최상집(치대 65인) 윤경자(음대 62인) 조관상(의대 60인) 김미경(음대 69인) 노재민(\$50, 문리대 49인) 남장우(사법대 56인) 임창희(공대 73인) 전경옥(미대 61인) 양효준(치대 68인) 권길상(음대 46인) 이범모(치대 74인) 김용(공대 60인) 문병길(문리대 61인) 최일선(미대 74인) 이민규(경영대 89인) 권영택(공대 54인) 유준해(의대 70인) 최화웅(문리대 59인) 정재수(약대 51인) 조용원(문리대 66인) 권순찬(공대 60인) 현수일(문리대 58인) 김나구(상대 67인) 김재향(음대 64인) 장석현(치대) 이해영(공대 56인) 변재삼(법대 59인) 김남숙(Mrs. 김영기, 공대 51인) 신인자(문리대 59인) 배동완(공대 65인) 강희창(공대 57인) 장대옥(음대 57인) 원영배(미대 74인) 권봉성(문리대 64인) 이태준(음대 62인) 이영주(치대 62인) 심영순(수의대 64인) 김정자(사대 52인) 임용택(약대 63인) 이상숙(치대 31인) 김광진(문리대 60인) 이영식(농대 59인) 안정희(미대 62인) 신보남(미대 59인) 이화영(음대 66인) 성경경(문리대 62인) 김성해(음대 71인) 곽성재(상대 56인) 추교훈(농대 63인) 이광재(공대 59인) 정희영(치대 58인) 정진화(약대 54인) 이정근(사대 60인) 권영달(문리대 50인) 서정빈(법대) 윤홍기(의대 64인) 민병완(약대 72인) 김종자(사대 61인) 신대식(상대 60인) 박한영(치대 56인) 박영순(음대 44인) 김익창(의대 56인) 전호선(수의대 67인) 이경영(\$120, 문리대 71인) 박경순(\$120, 간호대 53인) 이근설(상대 56인) 조상문(보건대학원 71인) 박형건(문리대 63인) 임화식(치대 59인) 김지익(의대 44인) 김정민(공대 66인) 이종도(공대 66인) 김종원(\$100 추가구독료, 문리대 69인) 김달준(약대 50인) 전낙관(사대 60인) 박해란(음대 73인) 이봉수(수의대 66인) 김진숙(간호대 72인) 김현철(치대 56인) 전동희(공대 58인) 김성호(법대 64인) 정민영(의대 51인) 고영련(사법대 57인) 김용일(보건대학원 65인) 전병희(약대 55인) 허영진(문리대 62인) 최왕욱(공대 69인) 이재진(문리대 55인) 박진득(농대 67인) 송경자(의대 73인) 윤용길(공대 55인) 최재운(문리대 54인) 김태용(법대 53인) 전년도 납입, 추가납입, 이창신(법대 57인) 김선기(법대 59인) 이상욱(치대 66인) 민희숙(간호대 74인) 정만영(약대 66인) 김장덕(약대 53인) 최영순(간호대 69인) 최희봉(상대 56인) 김진호(의대 64인) 김동훈(의대 71인) 김선주(사법대 49인) 박정모(문리대 66인) 정중훈(치대 74인) 전희택(의대 60인) 박남수(문리대 74인) 김재우(상대 58인) 최수명(문리대 59인) 장동호(공대 53인) 남홍범(공대 59인) 김경화(미대 63인) 김성환(의대 71인) 김광은(음대 56인) 주 훈(음대 ?) 김준일(공대 62인) 김종표(법대 58인) 신정식(상대 64인) 박희규(수의대 55인) 김현직(농대 58인) 박제인(약대 60인) 이경규(농대 69인) 이송화(간호대 47인) 김두휘(문리대 58인) 최종권(문리대 59인) 김영배(미대 61인) 이기재(사법대 52인) 이종희(공대 53인) 박재덕(상대 52인) 김봉광(약대 50인) 선우동훈(문리대 54인) 권처균(공대 51인) 김순길(법대 ?) 서재선(상대 53인) 신광재(공대 73인) 김태호(상대 57인) 이 승(공대 59인) 임낙균(약대 64인) 민경탁(의대 61인) 호기원(치대 70인) 최순자(약대 53인) 박영근(상대 56인) 박철(법대 64인) 최준호(치대 58인) 신정현(미대 59년인) 서관석(미대 67년인) 이상구(상대 57인) 이호표(의대 60인) 방운자(문리대 59인) 임재영(공대 59인) 박익순(\$50 수의대 74인) 김창선(\$100 약대 44년인) 최예선(치대 45년인) 김항운(농대 52년인) 김옥균(미대 76년인) 배희식(문리대 52년인) 이병선(상대 58인) 오인근(약대 59인) 유진형(상대 48인) 이범식(공대 61인) 최명룡(음대 ?) 김재신(음대 60인) 이동성(의대 53인) 박태호(치대 66인) 탁해숙(음대 67인) 이효경(치대 63인) 홍훈정(음대 70인) 이병희(수의대 75인) 노봉식(음대 ?) 오형원(의대 53인) 송길장(사법대 58인) 이정옥(공대 52인) 강배영(상대 54인) 황봉찬(문리대 48인) 김창우(음대 53인) 김은희(치대 50인) 고재천(공대 57인) 김동익(법대 57인) 김광자(약대 62인) 조민연(상대 58인) 김해인(가정대 69인) 김중원(문리대 69인) 이호일(의대 60인) 강영만(상대 72인) 서동영(사법대 60인) 이동휘(공대 63인) 김태용(의대 63인) 배재호(공대 58인) 나민주(음대 65인) 정현진(간호대 72인) 황석우(의대 53인) 윤병인(의대 64인) 박범순(가정대 70인) 윤진수(의대 57인) 노병일(경성법학전문 41인) 김성철(법대 54인) 김성복(공대 59인) 임선영(음대 57인) 안승호(공대 71인) 이완규(공대 54인) 김일선(사법대 67인) 정기정(상대 69인) 권대원(대학원 59인) 윤광현(사법대 53인) 최재현(수의대 66인) 이상학(공대 59인) 김학천(치대 71인) 노명호(공대 61인) 고용규(의대 67인) 김윤길(자연대 77인) 임용우(의대 57인) 탁의용(상대 58인) 김상익(공대 46인) 조정시(공대 60인) 박명근(상대 63인) 정황(공대 64인) 김원택(공대 65인) 신동국(수의대 76인) 김정협(치대 59인) 도영미(사법대 52인) 김명자(치대 57인) 허기환(공대 66인) 이경호(공대 67인) 심상은(상대 54인) 이근택(경영대 72인) 서경만(의대 51인) 윤경민(법대 55인) 박취서(약대 60인) 이상재(상대 67인) 한원민(의대 59인) 홍성애(의대 60인) 신한경(약대 56인) 김경애(간호대 69인) 김원경(약대 59인) 장동석(문리대 66인) 이해란(미술대 72인) 장진성(의대 66인) 양은식(음대 70인) 김상영(공대 57인) 김선주(사법대 50인) 신우식(치대 ?) 신무수(치대 63인) 백민일(공대 64인) 강신호(사법대 49인) 김세담(법대 55인) 정동우(공대 57인) 고석규(치대 65인) 신우현(치대 64인) 양은현(상대 56인) 정복근(\$100, 사법대 69인) 차민영(의대 78인) 김동호(치대 ?) 이강훈(치대 65인) 손학식(공대 61인) 김동산(법대 59인) 정경화(의대 70인) 박계영(공대 57인) 이정재(수의대 45인) 김건진(문리대 62인) 오재인(치대 33인) 최호준(의대 77인) 권길상(음대 46인) 이호준(공대 55인) 오길평(치대 61인) 이현세(법대 68인) 김선평(공대 75인) 김희재(사법대 66인) 최복영(사법대 56인) 이성호(의대 72인) 김영(수의대 63인) 조성운(법대 46인) 홍진(간호대 55인) 김용채(문리대 61인) 신정자(사법대 63인) 차대웅(상대 65인) 정사영(법대 55인) 이준우(음대 69인) 신정택(약대 52인) 김원규(의대 60인) 김은섭(의대 59인) 신용재(상대 77인) 이난경(음대 66인) 남장우(치대 48인) 이근성(치대 54인) 우원섭(치대 65인) 김일영(의대 65인) 한종철(치대 62인) 강동순(법대 59인) 한홍택(공대 60인) 신상화(공대 58인) 박일하(치대 56인) 박해국(간호대 69인) 이근원(공대 67인) 임문빈(상대 58인) 조종음(공대 45인) 임세국(간호대 69인) 권기상(경영대학원 72인) 유종훈(상대 67인) 강경수(법대 58인) 정원훈(상대 38인) 임택선(공대 52인) 김석규(공대 66인) 최숙규(간호대 65인) 문덕수(공대 73인) 최승훈(상대 59인) 서치원(공대 69인) 지인수(상대 59인) 이환진(상대 68인) 임택선(공대 52인)
02		1 김항자(약대 61인)
03	샌프란시스코	7 김은종(상대 59인) 정지선(상대 58인) 정유석(의대 58인) 박세복(의대 57인) 황동하(의대 65인) 정조웅(공대 60인) 홍경삼(문리대 61인)
04	뉴욕 (NY, NJ, PA일부CT)	317 김효섭, 배명석, 최윤희(문리대 56인), 최순정(간호대 69인), 이대연(약대 65인) 유재선(공대 69인) 김연석(상대 54인) 이상근(의대 60인) 이정순(법대 53인) 김순자(약대 63인) 양성택(상대 66인) 이상복(의대 62인) 이기덕(농대 56인) 박상수(공대 56인) 김광일(상대 75인) 윤선규(치대 61인) 김기동(치대 49인) 강상욱(상대 63인) 송병문(공대 62인) 김중권(의대 65인) 이종준(공대 60인) 호기성(\$100, 상대 53인) 최수봉(간호대 66인) 이상수(공대 60인) 호민선(상대 59인) 용하식(법대 58인) 정인해(상대 45인) 김영호(상대 63인) 전철송(공대 51인) 최정애(간호대 68인) 이종호 원도수(치대 68인) 박용준(의대 63인) 이순희(음대 57인) 김길성(상대 62인) 임종우(문리대 63인) 박승원(의대 73인) 이종우(의대 58인) 서광(의대 63인) 박원길(법대) 채정현(법대 57인) 임정은(음대 51인) 진봉일(공대 50인) 권경태(의대 60인) 이정공 정수일(행정대 70인) 이승이(상대 69인) 김남영(간호대 65인) 양명자(사법대 63인) 서재숙(음대 65인) 김용연(문리대 63인) 이수일(사법대 78인) 이용대(약대 63인) 김중원(\$120 2년치, 사법대 62인) 박정우(의대 60인) 김호겸(법대 61인) 허용동(상대 63인) 이영수(치대 55인) 이지현(문리대 73인) 서병선(\$50, 음대 65인) 박수성(\$120 2년치, 문리대 60인) 김승호(공대 71인) 장영자(간호대 68인) 김명승(상대 65인) 박고자(음대 61인) 이재진(의대 59인) 이우성(사대 57인) 금영천(약대 72인) 이상영(상대 55인) 김세중(공대 50인) 김정용(의대 67인) 조규용(상대 69인) 정인식(상대 58인) 이승우(약대 63인) 최철용(농대 61인) 서홍석(의대 65인) 방준재(의대 63인) 고희진(의대 66인) 장병호(의대 56인) 김창화(미대 65인) 탁명양(약대 56인) 차대웅(상대 65인) 정사영(법대 55인) 이준우(음대 69인) 신정택(약대 52인) 김원규(의대 60인) 김은섭(의대 59인) 신용재(상대 77인) 이선호(의대 75인) 육순재(의대 63인) 한인섭(약대 67인) 고춘자(간호대 60인) 박상준(의대 55인) 허선평(의대 58인) 박병주(공대 69인) 고영수(미대 57인) 김기택(수의대 81인) 이형순(미대 60인) 방병기(의대 67인) 조영일(공대 68인) 추재욱(의대 63인) 김영철(의대 55김지익(의대 71인) 신정호(의대 63인) 최수강(의대 65인) 이현호(공대 58인) 김해원(의대 58인) 송재현(약대 65인) 이희자(간호대 70인) 전웅상(\$100, 공대 52인) 이종대(약대 65인) 박경룡(약대 63인) 김영일(\$100, 약대 58인) 우관해(음대 63인) 임종열(미대 65인) 송기인(의대 60인) 고강희(약대 56인) 송병문(공대 66인) 윤병우(문리대 67인) 강충무(\$100, 사법대 65인) 김중현(법대 61인) 김창수(약대 64인) 이영재(상대 58인) 조달훈(사법대 66인) 최태식(\$50, 의대 74인) 이진규(농대 60인) 허병렬(사법대 42인) 이준행(공대 47인) 최일단(미대 55인) 박승규(의대 55인) 김순자(\$50, 약대 63인) 김영만(상대 59인) 윤인숙(간호대 63인) 현영수(음대 61인) 임건식(음대 54인) 최일단(미대 55인) 손주현(의대 61인) 석창호(의대 66인) 김문경(약대 65인) 김재민(의대 57인) 조희재(음대 58인) 강 호(음대 63인) 손영철(공대 68인) 이태상(문리대 55인) 유숙현(간호대 61인) 김영선(공대 50인) 홍선경(의대 58인) 한용진(미대 56인) 문미애(미대 56인) 정연희(미대 64인) 변영석(의대 65인) 신남철(인문대 81인) 김현기(공대 62인) 민준기(\$50 공대 59인) 배상규(약대 61인) 김학수(상대 65인) 장기선(약대 61인) 윤영선(의대 63인) 최영해(간호대 64인) 김태호(약대 63인) 서종웅(약대 70인) 조상근(법대 69인) 박대규(법대?) 윤준식(법대 58인) 유택상(문리대 58인) 박경원(미대 66인) 박성일(상대 58인) 박진수(의대 58인) 강우정(음대 62인) 조시래(문리대 57인) 고석원(문리대 50인) 최승웅(의대 61인) 이병해(의대 79인) 김영택(공대 53인) 이봉상(약대 59인) 연봉원(문리대 61인) 최정애(간호대 66인) 김관준(약대 46인) 최재홍(의대 67인) 곽선성(공대 61인) 김익성(상대 52년인) 윤봉균(사법대 54년인) 이영숙(간호대 56년인) 최형우(법대 69년인) 이우찬(의대 58년인) 윤여민(상대 60년인) 김규희(상대 63년인) 김훈일(공대 60년인) 윤갑석(공대 53년인) 권영태(공대 69인) 송관호(의대 58인) 배병애(간호대 45인) 윤원남(공대 63인) 노경희(간호대 66인) 문길용(음대 45인) 소우영(상대 65인) 유재은(미대 71인) 변영철(\$100 약대 58인) 차국민(상대 56인) 김현중(공대 63인) 조대영(공대 61인) 정진우(의대 72인) 서병선(음대 65인) 송용길(신문대학원 69인) 김원복(문리대 50인) 손갑수(약대 59인) 임문수(공대 72인) 백운자(간호대 64인) 김양호(의대 57인) 이기준(\$100 문리대 66인) 선우지민(약대 54인) 조문해(약대 59인) 김항자(간호대 63인) 임석태(법대 48인) 이재애(미술대 57인) 이영연(상대 58인) 상백문(공대 61인) 신종철(의대 57인) 이대영(문리대 64인) 최석진(사법대 54인) 전재우(공대 75인) 이종성(의대 58인) 정택수(문리대 45인) 김양수(미술대 69인) 김석식(의대 56인) 박승원(음대 69인) 강상진(의대 59인) 남상태(간호대 65인) 백영복(간호대 69인) 이필영(사법대 54인) 장미숙(치대 85인) 황문하(수의과대 76인) 박건호(의대 57인) 한승원(미술대 60인) 전병삼(약대 54인) 김용재(의대 60인) 오정환(의대 55인) 이재원(법대 60인) 홍명희(간호대 61인) 이연찬(의대 52인) 허재순(사법대 54인) 이경림(약대 54인) 조정현(보건대학원 64인) 현건섭(공대 55인) 이정태(공대 63인) 조경호(의대 66인) 리준공(공대 47인) 조성무(공대 56인) 김현희(간호대 63인) 이승호(상대 63인) 이정림(상대 64인) 조종열(의대 60인) 한호(상대 66인) 조숙자(간호대 59인) 남일우(법대 57인) 이병희(의대 60인) 최창식(의대 61인) 변광택(간호대 72인) 김광호(의대 72인) 정일화(상대 55인) 김영용(치대 60인) 조규용(의대 66인) 이정은(의대 58인) 박순영(법대 56인) 김영일(의대 69인) 최수용(상대 55인) 오준영(상대 49인) 최한용(농대 58인) 이흥재(의대 68인) 전상진(사법대 58인) 탁명양(약대 56인) 서상철(의대 56인) 최구진(약대 54인) 송재현(약대 65인) 윤정국(약대 50인) 김우영(상대 60인) 송영순(사법대 60인) 이기영(농대 70인) 장동민(문리대 63인) 나연수(사법대 53인) 유호근(법대 71인) 김충정(상대 64인) 김주은(공대 71인) 강재현(상대 70인) 김한중(의대 56인) 이재택(법대 60인) 권후일(상대 73인) 최한선(공대 56인) 이충호(의대 63인) 윤순철(사법대 44인) 김상각(상대 57인) 이정자(간호대 63인) 김석권(법대 61인) 이견미(문리대 60인) 변찬희(상대 63인) 나찬국(의대 64인) 김진순(문리대 53인) 성기호(약대 57인) 심정섭(의대 53인) 김기훈(상대 52인) 김희국(의대 54인) 최희봉(문리대 64인) 김병술(약대 52인) 조종수(공대 64인) 이국진(사대 51인) 전민욱(간호대 66인) 이정순(법대 53인) 최영태(문리대 67인) 노용면(의대 55인) 한용호(법대 52인) 이문휘(문리대 54인) 김세환(공대 65인) 박창익(농대 64인) 전희근(의대 54인) 이택인(미술대 56인) 최선환(의대 58인) 김영두(농대 61인)

<67면에 계속>



동창회보 구독료 지부별 납부 현황 후원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002년 7월 1일 ~ 2003년 6월 30일

지역 번호	지부명	명 단
05	시카고(IL, IN, WI, MO, MI, OH)	223 조용갑(의대), 마동일(의대 57입), 노원병(공대) 정호(공대 62입) 윤석환(치대 62입) 김운경(치대 55입) 김용두(문리대 54입) 윤병애(약대 50입) 김소자(음대) 이소희(간호대 72입) 윤준(\$100, 의대 67입) 천양곡(의대 63입) 이종용(의대 52입) 최해숙(의대 53입) 하용수(의대 61입) 김태기(의대 68입) 정지희(문리대) 김봉연(법대 51입) 전덕성(의대 69입) 박봉수(공대 59입) 김광재(\$100, 문리대 69입) 전영식(의대 73입) 진병해(음대 72입) 이치훈(의대 63입) 이상오(문리대 61입) 김운태(의대 63입) 김운범(\$120 2년치, 의대 58입) 송재현(의대 48입) 김선철(의대 58입) 오수환(의대 58입) 이광선(의대 65입) 유창규(문리대 48입) 지영환(의대 59입) 김남영(\$100, 공대) 문병훈(사범대 46입) 오동환(의대 71입) 마동일(의대 57입) 이정식(공대 79입) 강화영(문리대 50입) 심기창(문리대 68입) 양홍미(약대 67입) 송원희(미대 60입) 장윤일(공대 60입) 이기춘(약대 42입) 이재원(사대 56입) 백준철(공대 66입) 이재현(사대 67입) 안인숙(간호대 78입) 송성준(법대 76입) 송용규(사대 61입) 오명자(간호대 60입) 강창만(의대 58입) 김동수(공대 48입) 최해숙(의대 53입) 조영희(문리대 66입) 김호범(상대 73입) 이경미(미대 69입) 김영남(사대 53입) 이기억(문리대 47입) 강수상(의대 47입) 사남순(간호대 72입) 김우영(의대 70입) 이동하(공대 57입) 김옥자(약대 66입) 박용규(공대 61입) 송용덕(의대) 박한영(의대 64입) 이익삼(\$100, 사대 58입) 오영욱(\$100, 약대 65입) 이상우(\$100, 상대 72입) 김용식(\$100, 의대 55입) 송원길(\$100, 의대 64입) 최병두(의대 58입) 황규정(의대 65입) 원종수(의대 69입) 문광재(의대 62입) 임정혁(사대 54입) 주선무(공대 57입) 이연우(문리대 65입) 한중하(의대 58입) 임준수(의대 57입) 김인성(음대 ?) 임이성(\$100, 미대 54입) 이순홍(\$50, 공대 66입) 김이순(공대 56입) 주명순(간호대 64입) 민영기(\$120, 공대 65입) 이지연(의대 68입) 정광훈(공대 64입) 정경근(농대 59입) 신석균(문리대 54입) 박창만(공대 56입) 문준호(약대 62입) 광영로(수의대 76입) 임영선(의대 52입) 정승규(공대 60입) 이인선(미대 72입) 이병세(의대 57입) 최희수(\$100, 문리대 67입) 김현규(의대 47입) 정남재(사범대 56입) 조 철(공대 49입) 홍규식(문리대 64입) 이윤모(농대 57입) 제환수(사대 65입) 이범규(공대 59입) 이소희 (의대 61입) 이수인(\$120 의대 56입) 조형원(약대 54입) 김정일(의대 57입) 육태식(의대 61입) 김택수(의대 57입) 장 철(의대 71입) 남상용(공대 52입) 강태수(의대 65입) 최호승(자녀도 선남) 한재은(의대 59입) 지명식(사범대 65입) 구자원(법대 55입) 이영모(의대 59입) 이태석(의대 67입) 이한홍(의대 61입) 장병호(의대 66입) 한경희(간호대 67입) 이진정(공대 73입) 이규달(의대 68입) 이종일(의대 71입) 윤호운(의대 63입) 이한홍(의대 68입) 임현재(의대 59입) 황치룡(문리대 65입) 박영준(문리대 67입) 최순분(간호대 56입) 구형서(공대 69입) 엄두광(문리대 61입) 오상현(의대 71입) 김경근(의대 61입) 한성수(의대 56입) 최인갑(자녀도 선남, 공대 61입) 김영호(의대 77입) 장재찬(의대 59입) 정세근(의대 57입) 박정일(의대 61입) 조중환(의대 63입) 박승(의대 64입) 이설희(간호대 73입) 최순갑(음대 65입) 이순자(간호대 66입) 전현(문리대 60입) 이정일(농대 57입) 이소정(음대 84입) 고성서(경성사범 38입) 배건재(공대 53입) 김일훈(의대 51입) 이재홍(의대 58입) 정길화(의대 65입) 신영규(의대 57입) 이상일(의대 54입) 김승희(법대 55입) 김택수(의대 57입) 박노규(상대 55입) 송용덕(의대 57입) 김형수(농대 68입) 김유식(의대 64입) 이종기(농대 55입) 서영일(의대 68입) 강영국(수의대 67입) 김용성(상대 54입) 백영구(행정대학원 61입) 김현식(문리대 69입) 한의일(공대 62입) 김상기(문리대 61입) 배영섭(의대 54입) 임재일(농대 64입) 안정희(간호대 75입) 장시경(의대 58입) 진보린(의대 56입) 서상현(의대 64입) 김연드류(상대 50입) 백준철(공대 62입) 김현국(문리대 67입) 박준환(의대 57입) 박종수(수의대 58입) 이영웅(의대 62입) 장홍(문리대 61입) 고영철(의대 45입) 심홍환(\$160, 수의대 75입) 김운해(음대 72입) 서승환(치대 61입) 손기용(의대 55입) 김한철(사범대 61입) 김세종(경영대 79입) 김용우(공대 58입) 박홍근(공대 64입) 허서룡(의대 60입) 정병욱(의대 59입) 김병운(문리대 65입) 이용락(공대 48입) 전영자(미대 58입) 하계현(공대 64입) 계명수(의대 69입) 박연희(간호대 65입) 김정주(문리대 64입) 임근식(문리대 56입) 이승자(사범대 60입) 김갑중(의대 57입) 정의철(의대 55입) 유석홍(상대 61입) 서경원(공대 53입) 구경희(의대 59입) 안은식(문리대 55입) 유효병(\$100 의대 58입) 김정수(문리대 69입) 홍혜재(사대 76입) 도상탁(\$100, 의대 56입) 최애욱(간호대 47입)
06	워싱턴 DC (MD, VA)	94 박형순(의대 60입) 박인영(의대 69입) 조화유(문리대 61입) 신영철(의대 53입) 김순자(미대 66입) 전병구(의대 46입) 홍영석(공대 58입) 이규섭(상대 68입) 안용구(음대 46입) 안승건(문리대 55입) 박찬호(약대 67입) 박영호(공대 64입) 이신규(공대 63입) 김주희(공대 71입) 김태연(상대 56입) 염영봉(약대 57입) 맹옥경(간호대 72입) 이근순(간호대 73입) 강준희(의대 71입) 장효강(공대 66입) 문세희(법대 57입) 안태민(공대 62입) 민길우(문리대 61입) 김재구(의대 56입) 김경자(법대 52입) 유덕영(공대 57입) 전희순(간호대 80입) 이영희(상대 55입) 이태영(법대 60입) 이경형(수의대) 오해현(약대 59입) 조요운(공대 61입) 유희열(자연대 75입) 최규식(상대 64입) 계병진(공대 46입) 최원일(상대 56입) 백순(법대 58입) 한기빈(공대 52입) 이영복(공대 59입) 이한승(의대 59입) 이선명(문리대 59입) 정두현(의대 55입) 김진은(사대 ?) 한의생(수의대 60입) 문성길(의대 63입) 윤만중(의대 53입) 김재동(인문대 70입) 김영기(법대 50입) 임필순(의대 54입) 진금선(\$61, 약대 57입) 김국(농대 75입) 오기창(법대 50입) 장원희(사범대 54입) 남광순(음대 64입) 심준보(상대 55입) 이재승(의대 55입) 김기봉(공대 63입) 조남현(의대 64입) 문홍숙(간호대 55입) 변만식(사범대 49입) 고우환(법대 57입) 소속영(간호대 64입) 이대원(사범대 58입) 석규범(문리대 61입) 김충규(의대 60입) 박성대(문리대 71입) 이정섭(의대 48입) 오광동(공대 52입) 신상근(의대 52입) 김용덕(의대 53입) 김창호(법대 56입) 김창용(법대 60입) 박흥(의대 45입) 이정희(의대 59입) 배병권(상대 55입) 김훈진(치대 ?) 홍인희(공대 58입) 임승용(농대 57입) 박병일(농대 69입) 정병규(사회과학대 76입) 최동현(문리대 50입) 조병선(의대 71입) 박태조(음대 64입) 오인환(문리대 63입) 안미애(가정대 81입) 박은희(미대 72입) 강경주(사범대 49입) 김정환(문리대 60입) 최경수(문리대 58입) 박홍우(문리대 65입) 박병영(의대 66입) 전경철(공대 55입) 윤개일(의대 60입) 주 의(의대 46입)
07	워싱턴주 (WA)	25 양용관(수의대 62입) 권영길(의대 64입) 윤석진(문리대 64입) 김호선(체대 55입) 김국민(의대 60입) 이혜숙(문리대 64입) 고희선(법대 64입) 이재수(공대 65입) 조준범(행정대학원 69입) 한민섭(공대 49입) 전병택(상대 69입) 이정희(\$80 약대 82입) 황수택(의대 65입) 이혜숙(문리대 64입) 서공주(음대대학원 59입) 윤재명(의대 65입) 김영일(공대 53입) 이대원(사범대 58입) 유성렬(공대 72입) 전계상(공대 40입) 맹병규(문리대 70입) 채태용(법대 55입) 최두환(공대 83입) 허유환(사범대 57입)
08	휴스턴 (HOUSTON)	29 김학태(공대 60입) 유길선(\$40, 농대 73입) 김성애(음대 71입) 박태우(공대 64입) 현인실(공대 57입) 이진현(의대 67입) 김기수(사대 70입) 김광웅(공대 60입) 황선진(상대 61입) 김영창(공대 64입) 이길영(? 59입) 육복수(공대 69입) 이신광(약대 77입) 전중희(공대 56입) 신용선(공대 55입) 박승규(의대 59입) 박순(사범대 57입) 조시호(문리대 59입) 유금영(법대 50입) 김성철(의대 61입) 최광욱(문리대 73입) 이은실(문리대 53입) 노인규(의대 57입) 이규진(약대 60입) 명인성(공대 50입) 박민자(사범대 58입) 김충영(의대 59입) 최관일(공대 54입) 강영빈(\$120 문리대 58입)
09	달라스 (DALLAS)	5 임성빈(사범대 56입) 권혁초(사대 52입) 김태훈(공대 57입) 김인호(공대 47입) 이병규(약대 61입)
10	미네소타 (MN)	14 신학철(공대 75입) 변우진(인문대 81입) 김필주(농대 56입) 송창원(문리대 53입) 강선명(상대 48입) 권승림(공대 52입) 김태환(의대 58입) 권학주(치대 59입) 황규현(의대 56입) 박상빈(공대 71입) 문일지(공대 61입) 김권식(공대 61입) 남세현(공대 67입) 조희준(문리대 62입)
11	조지아 (GA)	15 주중광(약대 60입) 문종현(사대 84입) 백낙영(상대 61입) 계광무(공대 63입) 김용자(사범대 64입) 김용건(문리대 48입) 오경호(농대 60입) 김만복(문리대 72입) 윤우영(의대 61입) 조덕성(공대 71입) 정병진(보건대학원 64입) 이철남(의대 50입) 백성식(의대 58입) 이관호(공대 45입) 유민자(음대 65입)
12	아리조나(AZ)	12 전명규(공대 70입) 최태태(공대 69입) 오윤환(공대 56입) 최상호(공대 53입) 유기석(문리대 60입) 장원식(농대 68입) 오대걸(의대 58입) 박성숙(간호대 59입) 이은수(경영대학원 73입) 서기권(공대 70입) 박양세(의대 48입) 이용길(의대 62입)
13	유타 (UT)	6 권영진(공대 58입) 한성아(문리대 62입) 김성환(문리대 59입) 김 연(\$50 문리대 54입) 이점민(문리대 48입) 김인기(문리대 58입) 고동일(문리대 52입) 남공중(공대 52입) 최경운(사범대 51입) 김용수(농대 75입) 백영기(의대 50입) 권혁초(사대 52입) 김태훈(공대 57입) 김인호(공대 47입) 이병규(약대 61입) 박민상(\$100, 사대 50입)
14	하와이 (HI)	19 황재만(농대 71입) 김창원(공대 49입) 전영표(문리대 55입) 김성일(의대 68입) 임양수(\$50 사범대 62입) 김승태(의대 63입) 구자현(사범대 53입) 구해근(문리대 60입) 최치덕(법대 59입) 김용진(공대 50입) 신동인(공대 58입) 김동림(사범대 55입) 박성재(상대 49입)
15	오레곤 (OR)	13 김선호(사범대 59입) 한병기(음대 63입) 이철민(공대 50입) 최태인(사범대 59입) 성성모(사범대 67입) 한영준(사범대 ?) 김상만(음대 46입) 나재관(공대 72입) 장유자(공대 50입) 이태호(문리대 61입) 김상순(상대 67입) 최동근(문리대 50입)
16	기타 (서부)	22 문상길(경영대 84입) 송요준(의대 70입) 권승영(의대 69입) 김병호(의대 69입) 김우홍(의대 55입) 김현철(의대 57입) 김효영(의대 52입) 박성주(\$120, 공대 47입), 왕경자(음대 54입), 배병욱(음대 58입), 류광현(추가 \$100, 문리대 58입), 김봉진(\$100, 공대 68입) 최석상(농대 73입) 이학은(약대 57입) 박종익(사범대 83입) 류광현(문리대 58입) 최원웅(약대 62입) 안동욱(자연대 72입) 이순환(의대 53입) 김강건(의대 54입) 박용호(의대 59입) 홍지호(공대 53입)
17	기타 (중부)	5 윤준식(의대 48입) 진홍우(의대 62입) 공동준(공대 83입) 이희백(의대 55입) 윤태준(의대 59입)
18	기타 (동부 & 캐나다)	21 이희은(입만성(공대) 정구영(의대 50입) 오석일(의대 70입) 캐나다 이병영(\$100, 공대 48입) 이수정(음대 88입) 한용현(의대 48입) 박경희(음대 57입) 박종선(공대 60입) 이종진(공대 55입) 김주영(의대 63입) 윤영욱(의대 57입) 김경권(의대 55입) 김수안(의대 52입) 김연국(수의대 74입) 오인석(법대 58입) 김기욱(공대 79입) 조무정(약대 62입) 조동림(의대 56입) 김미현(문리대 52입) 손정호(의대 53입) 이상봉(문리대 65입) 이기범(의대 56입) 박영환(약대 72입) 유영길(의대 72입) 권상수(공대 71입) 정훈택(상대 61입) 민홍식(수의대 60입) 김선운(문리대 57입) 홍수웅(의대 59입) 제갈은(문리대 59입) 심완섭(의대 73입) 강준철(사대 59입) 김국간(치대 70입) 남신우(공대 61입) 박민희(의대 52입) 양문택(의대 58입) 김현영(수의대 58입) 원종민(의대 61입) 송영록(의대 66입) 김경숙(사대) 서중민(공대 64 입) 이정필(의대 58입) 김재술(의대 62입) 이항우(? 50입) 김용국(의대 58입) 김사영(의대 56입) 주기목(수의대 68입) 강영배(수의대 59입) 김태영(의대 55입) 정학광(의대 56입) 이승환(공대 56입) 문상규(의대 62입) 임광상(공대 57입) 장 호(문리대 69입) 박장생(의대 54입) 지재원(사범대 68입) 이만택(의대 58입) 최 환(공대 68입) 송영두(\$100, 의대 56입) 오진석(치대 56입) 이규호(공대 56입) 이윤성(수의대 81입) 김화섭(의대 55입) 김영우(공대 55입) 심기권(상대 57입) 이재희(상대 88입) 이상숙(가정대 74입) 조영호(음대 60입) 이상민(문리대 58입) 윤정나(음대 57입) 김세경(미대 62입) 김주진(법대 54입) 안지영(문리대 71입) 문대욱(의대 73입) 전방남(상대 73입) 김종규(치대 69입) 진병환(의대 57입) 서진석(의대 62입) 유창남(의대 58입) 전쿠식(\$50, 수의대 61입) 염극용(의대 60입) 김형달(의대 70입) 김장태(문리대 53입) 이은주(음대 73입) 윤희경(문리대 61입) 박병준(공대 52입) 주창준(의대 56입) 최홍진(공대 69입) 고일석(보건대)
19	필리델피아(PA)	62 최영훈(공대 65입) 정정욱(의대 60입) 김순규(문리대 53입) 변화경(음대 66입) 강길원(의대 59입) 어재홍(공대 67입) 김영호(치대 45입) 안광원(의대 53입) 김은환(의대 60입) 이은희(\$50, 의대 54입) 도운희(농대 61입) 최인섭(의대 72입) 김성빈(문리대 59입) 강경식(문리대 55입) 김경식(문리대 70입) 박현자(음대 62입) 김문소(농대 61입) 두선자(간호대 75입) 한병의(문리대 60입) 인준식(사대 55입) 김종성(경영대 76입) 배성호(의대 65입) 박종진(의대 62입) 채도경(의대 59입) 권이덕(공대 68입) 이희규(공대 69입) 윤상재(수의대 62입) 김호영(의대 52입) 문형성(의대 65입) 김영의(사대 59입) 이재식(공대 57입) 김태호(상대 56입) 김유경(음대 ?) 김병국(공대 71입) 노인규(의대 52입) 김장태(문리대 53입) 김백년(의대 52입) 민종식(상대 56입) 박영자(\$120 2년치, 사범대 54입) 김용환(의대 45입) 정영우(치대 83입) 오태오(의대 56입) 박노환(문리대 52입) 오계숙(미대 59입) 배규태(상대 61입)
20	뉴잉글랜드 (MA, RI)	43 심원중(의대 60입) 박해송(음대 68입) 이상강(의대 70입) 오명순(가정대 69입) 배규영(사범대 68입) 박세화(의대 76입) 지일성(의대 61입), 신두식(의대 58입) 김호원(치대 52입) 임하진(의대 79입) 이상문(상대 57입) 구명순(간호대 66입) 오태오(의대 56입)
21	하트랜드	22 이수경(자연대 81입)
22	펜실베이니아	1 한광수(의대 63입) 정양수(의대 60입) 박태진(의대 62입) 한광수(의대 57입) 정일환(의대 63입)
23	캐롤라이나	5 한광수(의대 63입) 정양수(의대 60입) 박태진(의대 62입) 한광수(의대 57입) 정일환(의대 63입)
<b>계</b>		<b>1319</b>
		<b>81,311</b>



# 미주관악후원회 이사회비 납부 현황

## 재미동창회보 발간을 지원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002년 7월 1일 ~ 2003년 6월 30일

# 이번달 납입현황

(2003년 3월 01일~2003년 6월 30일)

### 종신이사

강영빈(문리대 58입) 박경민(의대 53입)  
 박병기(공대 54입) 방은호(약대 45졸)  
 서영석(의대 55입) 심상은(상대 54입)  
 오인석(2구좌, 법대 58입) 오홍조(치대 56입)  
 윤선홍(치대 64입) 이교락(의대 53입)  
 이기영(농대 70입) 이병준(상대 55입)  
 이세열(사대 57입) 이진구(농대 60입)  
 정 태(의대 57입) 이청광(상대 61입)  
 전희택(의대 60입) 윤정욱(약대 50입)  
 한홍택(공대 60입) 조시호(문리대 59입)  
 이우락(공대 48입) 노명호(공대 61입)  
 박윤수(문리대 48입)  
 ★ 종신이사비 적립금 23명 24구좌 \$72,000  
 (6/30/03일자로 7대 집행부로 이관)

### 신규 일반이사

시카고 동창회 \$2,000  
 송순영(\$1,000, 문리대 52입)  
 필라델피아 회보발간기여금 \$700  
 임광수(\$3,500, 공대 52년졸)  
 이재량(\$500, 상대 61입)  
 김성완(\$500, 문리대 59입)  
 워싱턴 DC 동창회(\$2,511,  
 조수미CD 판매대금)  
 최영태(\$300, 문리대 67입)  
 이재덕(\$300, 법대 60입)  
 강봉창(\$300, 약대 50입)  
 이규섭(\$300, 상대 68입)  
 구경희(\$300, 의대 59입)  
 조만연(\$300, 상대 58입)  
 박경민(\$300, 의대 53입)  
 연봉원(\$300, 문리대 61입)  
 석창호(\$300, 의대 66입)  
 황성주(\$300, 사범대 70입)  
 이기범(\$200, 의대 56입)  
 신석균(\$200, 문리대 54입)  
 이운순(\$200, 의대 52입)

중단없는 재미서울대동창회보  
 발간을 지원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역 번호	지부명	후원이사(후원금)	납부 인원	합 계
01	남가주	지역동창회(\$3,000, 2003년 모교음대 연주단) 강봉창(\$300, 약대 50입) 조만연(\$300, 상대 58입) 이병준(\$2,000, 상대 55입) 심상은(\$1,000, 상대 54입) 이종도(\$200, 공대66입) 김상호(\$250, 사범대 56졸) 오길평(\$500, 치대 61입) 노명호(\$3,000 / 종신이사비, 공대 61입) 서동영(\$200, 사범대 60입) 제영혜(\$200, 가정대 71입) 정원훈(250 상대38입)	12	11,200
02		김항자(\$300, 약대 61입)	1	300
03	샌프란시스코	정유석(200 의대 58입)	1	200
04	뉴욕 (NY, NJ, PA 일부 CT)	지역동창회(\$500, 2003년 모교음대 연주단) 이재량(\$500, 상대 61입) 최영태(\$300, 문리대 67입) 이재덕(\$300, 법대 60입) 연봉원(\$300, 문리대 61입) 이운순(\$200, 의대 52입) 석창호(\$300, 의대 66입) 이진구(\$2,000, 농대 60입) 김승호(\$200, 공대 71입) 윤정욱(\$1,000, 약대 50입) 김상욱(\$500, 상대 63입) 뉴욕지부동창회(\$2,000) 이준행(\$500, 공대 47입) 김상각(\$200, 상대 57입) 이운순(\$200, 의대 52입) 김용재(\$200, 의대 60입) 최영태(\$200, 문리대 67입) 이진구(\$300, 농대 60입) 이재덕(\$200, 법대 60입) 한창섭(\$200, 문리대 57입) 김용학(\$300, 법대 70입)	21	10,400
05	시카고 (IL, IN, WI, MO, MI, OH)	신석균(\$200, 문리대 54입) 송순영(\$1,000, 문리대 52입) 구경희(\$300, 의대 59입) 시카고 동창회 \$2,000 소진문(\$300, 치대 62년 졸) 서승환(\$300, 치대 61년 졸) 임이섭(\$300, 미대 59년 졸) 강영국(\$1,000, 수의대 67입) 이우락(\$5,000, 공대 53졸) 최인갑(\$200, 공대 57입) 최용완(\$200, 공대 57입) 정길화(\$200, 의대 65졸) 김기태(\$200, 의대 52입) 임춘수(\$500, 의대 57입) 김정주(\$200, 문리대 64졸) 박영규(\$300, 농대 57입) 송재현(\$200, 의대 48입) 김기태(\$200, 의대 58졸) 박창만(\$200, 공대 56입) 정승규(\$300, 공대 60입) 조대현(\$200, 공대 57입) 소진문(\$300, 치대 58년입) 장기남(\$1,000, 문리대 62입) 최호승(\$200 사범대 58입) 전현일(\$200, 농대 62입) 강영국(\$300, 수의대 67입) 송순영(\$1,000, 문리대 52입) 구경희(\$500 의대 59입) 시카고 지역동창회(\$4000) 한재은(\$1500 의대 59입) 엄무광(\$500 문리대 61입) 이우락(\$5000 / 종신이사비 \$3000 일반이사비 \$2000 공대 53졸)	33	27,800
06	워싱턴 DC (MD, VA)	지역동창회(\$3,000, 2003년 모교음대 연주단) 이규섭(\$300, 상대 68입) 워싱턴 DC 동창회(조수미CD 판매대금) \$2,511 방은호(\$300, 약대 45졸) 박윤수(\$1,000, 문리대 48입) 방은호(\$300, 약대 45졸) 워싱턴 DC 지역동창회(\$1,200) 변만식(\$200, 사대 49입) 신상균(\$500, 의대 52입) 이영복(\$250, 공대 59입) 권철수(\$500, 의대 68입) 박윤수(종신이사비 \$3,000, 문리대 48입)	12	13,061
07	워싱턴주	한만섭(\$200, 공대 49입) 김성열(\$200, 치대 67졸) 허윤행(250 사범대 57입)	3	650
08	휴스턴	조시호(\$1,000, 문리대 59입) 김정훈(\$200, 공대 46입) 휴스턴 지역동창회(\$400)	3	1,600
09	달라스	지역동창회(\$2,500, 2003년 모교음대 연주단)	1	2,500
10	미네소타	미네소타 지역동창회(\$400) 권승람(\$200, 공대 52입)	2	600
11	조지아	황성주(사범대 70년 입) \$300 임수암(\$200, 공대62입) 조지아지부(\$500) 김용건(\$200, 문리대 48입)	4	1,200
12	아리조나	오덕경(\$500, 의대 58입)	1	500
13	유타	김성완(\$500, 문리대 59입)	1	500
14	하와이			
15	오레곤	김상순(\$200 상대 67입)	1	200
16	기타1(서부)	록키마운틴즈 지역동창회(\$300)	1	300
17	기타2	임광수(공대 52년 졸) \$3,500	1	3,500
18	기타3 (동부 & 캐나다)	오인석(\$1,000, 법대58입) 이종진(\$300, 공대55입) 오인석(\$3,000 / 종신이사비, 법대 58입)	3	4,300
19	필라델피아	지역동창회(\$2,500, 2003년 모교음대 연주단) 이기범(\$200, 의대 56입) 필라델피아 회보발간기여금 \$700 이상봉(\$200, 문리대 65입) 현재원(\$200, 공대 60입) 정정수(\$200 의대 56입)	6	4,000
20	뉴잉글랜드	박경민(\$300, 의대 53입) 뉴잉글랜드 지역동창회(\$900) 김제호(\$200, 상대 56입) 김경식(\$500, 문리대 55입) 윤상래(\$200, 수의대 62입)	5	2,100
21	하트랜드	김호원(\$1,000, 치대52입) 이상문(\$200, 상대 57입)	2	1,200
22	중부펜실바니아			
23	캐롤라이나	김기현(\$200, 문리대 56년 졸)	1	200
24	특별광고 지원금 (비동문, 200불 이하)	정승규(\$100, 공대 60입) 김운태(\$100, 의대 63입) 김택수(\$100, 의대 57입) 서재숙(\$100, 음대 65입) 김상익(\$50, 공대 46입) 스웨고푸드 \$1,000 이지현(\$100, 문리대 73입)	7	1,550
<b>일반 이사 합계</b>			<b>106</b>	<b>\$62,811</b>
<b>종신 이사 합계</b>			<b>4</b>	<b>\$12,000</b>
<b>특별광고 지원금 합계</b>			<b>7</b>	<b>\$ 1,550</b>
<b>2003년 음대 연주단 공연 경비</b>			<b>5</b>	<b>\$11,500</b>
<b>총 계</b>			<b>122명</b>	<b>\$87,861</b>



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백만달러 기금 납입 현황**

**Anchor-Donor (2만달러 이상·약정)**

- 방은호 (워싱턴 DC · 약 42입)
- 윤정옥 (뉴욕 · 약 50입)
- 김영덕 (뉴욕 · 공 53입)
- 이병준 (남가주 · 상 55입)
- 김병수 (뉴욕 · 상 55입)
- 최수용 (뉴욕 · 상 55입)
- 유창남 (뉴욕 · 의 58입)
- 오인석 (뉴욕 · 법 58입)
- 이전구 (뉴욕 · 농 60입)
- 임낙균 (남가주 · 약 64입)

**당 회계연도 출연자**

(2002년 7월 1일 ~ 2003년 6월 30일)

- 방은호(약대 45줄) \$2500
- 정 태 (의대 57입) \$1000
- 이용락 (공대 53줄) \$1000
- 노명호 (공대 61입) \$500
- 조상근(법대 69입) \$300
- 조시호(문리대 59입) \$500
- 정정수 (의대 56입) \$500
- 워싱턴DC 지역동창회 \$510  
(조수미 CD 34장 판매대금/  
CD 판매 총액 300장 총 \$4500)
- 한만섭(공대 49입) \$200
- 임춘수(의대 57입) \$200
- 고영련(사범대 57입) \$100
- 윤재명(의대 65입) \$200
- 이경림(상대 64입) \$200
- 이소정 (음대 84입) \$200
- 변만식 (사범대 49입) \$100
- 장병건 (보건대학원64줄) \$250

**母校와 後進을 위한 1백만불 기금 지부별 입금 현황  
基金을 출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2000년 7월 1일 ~ 2003년 6월 30일

지역 번호	지부명	후원이사(후원금)	연 납부인원	합계
01	남가주(CA)	고영련(100) 노명호(500) 한홍택(1,000) 황석우(100) 정인환(200)권길상(100) 한상철(333,400) 이병준(20,000) 심상은(1,000) 조용명(500) 임낙균(500) 이명선(300) 박취서(200) 이종열(200) 이강훈(150) 임택선(100) 김옥권(100) 권기상(100) 이정재(100) 신동국(100) 김일영(100) 유병원(100) 도영미(100) 황석우(100)	24	359,150
		이양숙(200) 박우선(200)	2	400
03	샌프란시스코	김양주(300)	1	300
04	뉴욕 (NY, NJ, PA 일부, CT)	조상근(300) 이경림(200) 김기훈(250) 최수용(5,000) 김석식(100) 진성호(19,400) 추재욱(10,000) 오인석(20,000) 김병수(7,000) 최수용(5,000) 김영덕(5,000) 윤정옥(5,000) 이전구(4,000) 황관일(1,500) 김진승(1,000) 허리훈(1,000) 허선영(500) 이준영(500) 강영선(500) 김용재(500) 이기범(500) 이재진(500) 변찬의(500) 김상각(300) 홍선경(300) 이경림(300) 방준재(300) 주의돈(300) 남상태(300) 조성준(300) 김기훈(250) 박승서(250) 이기형(200) 김연석(200) 동형근(200) 리준국(150) 황진환(100) 조대열(100) 허병림(100) 심기림(100) 윤진영(50)	41	92,100
05	시카고 (IL, IN, WI, MO, MI, OH)	임춘수(200) 정태(1000)이용락(1000) 이소정(200) 소진문(100) 임춘수(200) 이용락(1,000) 조영재(300) 정태 최호승(500) 배영섭(200) 전영자(200) 임춘수(200) 강영국(200) 박종수(200) 구자원(200) 이기훈(200) 김윤태(100) 문병훈(100) 방은호(2,500) 변만식(100) 지역동창회(510, 조수미CD 34장 판매대금) 방은호(5,000)	18	7,100
06	워싱턴 DC(MD, VA)	지역동창회(3,990) 조수미 CD 34장 판매대금) 이규섭(150) 방은호(5,000) 박유수(1,000) 박용갑(100) 오인환(200) 김창호(50) 장병균(50) 이선명(50)	13	18,700
07	워싱턴주(WA)	한만섭(200) 윤재명(200)	2	400
08	휴스턴(HOUSTON, TX)	조시호(500) 강영빈(500) 박승균(300) 유금용(100) 김충열(200) 박민자(100)	6	1,700
09	달라스(DALLAS, TX)	김인호(200)	1	200
10	미네소타(MN)	송장원(100) 변우진(100) 김태환(300) 왕규현(100) 변우진(100) 남세현(100)	6	800
11	조지아(GA)	장병건(250) 장병건(100)	2	350
12	아리조나(AZ)	박양세(100) 박양세(200)	2	300
13	유타(UT)			
14	하와이(HI)			
15	오레곤(OR)	이태호(100) 익명(300)	2	400
16	기타(서부)			
17	기타(중부)	이회백(1,000)	1	1,000
18	기타(동부&캐나다)	한광수(333.33)	1	333.33
19	필라델피아 (PHILADELPHIA, PA)	정정수(500) 정정수(500) 서중민(1,000) 이정필(800) 정정수(500) 한혜원(300) 현재원(300) 정홍택(300) 강형진(200) 윤경숙(100) 정구영(100)	11	4,600
20	뉴잉글랜드(MA)	도운희(200) 이재신(3,000) 이금하(200) 정태진(100) 김제호(100)	5	3,600
21	하트랜드	오태요(500) 김명자(500) 이상문(250) 배하홍(100)	4	1,350
22	펜실바니아			
	특별 후원금	간호대동창회(13,560) 모교동창회/모교순방단(3,000) 입광수 서울대총동창회부회장(5,000) 한규남(유화1점: 현재 경매 중)	4	21,560
	<b>총 계</b>	□ 당회계연도 납입자 16명 - \$ 8,260	146	514,343.33

**약정하신 동문들**

※ 별도에는 금회계연도 납입자임.  
※ 작년도 집계표에서 강영빈씨를 중부 기타지역에서 텍사스주로 이동하였음.

	후원이사<후원금>	납부인원	합계
현금 약정	방은호(워싱턴 DC/\$20,000약정 \$12,500납입) 서동영(남가주/\$100,000:생명보험 중 일부) 윤정옥(뉴욕/\$20,000중 \$5,000납입) 임낙균(남가주/\$20,000약정) 김영덕(뉴욕/\$20,000중 \$5,000납입) 김병수(뉴욕/\$20,000중 \$7,000납입) 최수용(뉴욕/\$20,000중 \$10,000납입) 이전구(뉴욕/\$20,000중 \$4,000납입) 유창남(20,000약정) 강영빈(기타 중부 /\$500중 \$500 납입) 강경식(뉴잉글랜드/생명보험 중 일부)	11명 (7명 납입)	\$260,500 (\$44,000 납입)
기타	방은호(유증) 김태환(유증) 정태	3명	
<b>총 합 계</b>		<b>153 명</b>	<b>730,843.33</b>



# 祝發展

## 祖國을 생각하는 뜻있는 이들의 在美서울大 同窓會報



### SWAGGER FOODS CORPORATION

Swagger Foods was established in 1978 with the goal of becoming an organization recognized for distinction.

Swagger Foods develops, manufactures and packages spices, seasonings, marinades, batters & breadings, dry side dish items, soup mixes, dressing & dip mixes, desert & drink mixes, and custom blends for multinational Retail, Foodservice (chain restaurants, schools, etc.) and industrial (meat, poultry and vegetable processors, snack food producers, etc.) companies throughout the United States and Canada.

**Swagger Foods Corporation**  
900 Corporate Woods Parkway  
Vernon Hills, Illinois 60061  
Phone: (847) 913-1200  
info@swaggerfoods.com





# 祝發展

開拓者 동문가족들의 소식을 기록하는 재미서울대 동창회보

황(사)성주 (사대 74졸)

## PEACHTREE FAMILY GOLF CENTER (DRIVING RANGE & GOLF COURSE(PAR 3))

2833 Peachtree Ind. Blvd., Duluth, GA 30097  
Tel: 770-497-9265 Fax:770-497-8762

## GOLF WAREHOUSE INC. (GOLF EQUIPMENTS)

2697 Spring Rd., Smyrna, GA 30080  
Tel: 770-435-1934, Fax:770-431-0340

### 재미 동창회 지부회장 / 동창회보 지국장 명단

지 부	회 장	동창회보 지국장
뉴욕	김종을 B:914-714-0587 F:914-686-0186	한창섭 B:212-594-0493 H:201-848-8665
남가주	곽 철 B:213-352-9669 F:213-525-9656	홍옥자 H: 818-836-0588
샌프란시스코	정조용 B:408-496-6838 H:408-972-4026	임승래 B:415-777-1133 H:510-537-5369
시카고	장기남 F:312-357-1002 H:630-321-1943	변남순 H:847-291-9375
뉴잉글랜드	이재신 B:508-577-9424 H:508-923-0031	변종원 H:508-366-2743 B:508-389-1760<ext.3038>
조지아	조덕성 B:770-849-9740 H:770-578-6296	김재철 H:771-579-5615 F:770-944-0415
미네소타	왕규현 H:952-941-7637	김권식 B:952-646-0236 H:952-646-0290
워싱턴 DC	이영목 B:703-578-6806 H:703-748-0269	유홍렬 B:202-283-5247 H:703-204-2798
워싱턴주	이혜숙 B:253-927-8668 F:253-627-2542	고희선 H:425-787-0292
휴스턴	이진현 B:713-692-0600 H:713-956-9188	조시호 B:800-889-0342 H:281-827-5600
달라스	이병규 B:817-251-8789 H:972-304-0748	강성호 B:972-570-0234 H:214-496-9393
아리조나	윤성수 H:480-283-9806 yunss@cox.net	최윤근 B:480-967-9461 H:602-502-9988
하와이	김승태 H:808-983-8375	정재훈 B:808-951-7242 H:808-926-6089
유타	한성양 B:801-272-7444 H:801-485-2065	황선종 B:801-582-1695 H:801-582-1695
오레곤	정성국 B:503-226-6467 H:503-524-7741	라제관 B:503-696-3422 H:503-645-5550
필라델피아	김용식 Fax:610-664-3447 C:215-771-2957	신영근 F:610-917-7005 H:610-519-9695
하트랜드	이상문 B:402-472-3915 H:402-483-0221	장명우 F:402-472-5290
중부펜실바니아	이재용 H:814-235-2809	박중훈 H:814-278-8033
캐롤라이나	김기현 B:919-560-6451 H:919-560-5012	Fax : 919-560-5012
캐나다/온타리오	임동순 H:905-278-2257	이이병 B:416-385-0107 H:416-250-6908
캐나다/밴쿠버	유동성 H:604-435-8937	김현승 B:604-415-9011 H:604-945-5634
캐나다/에드먼튼	조금희 B:780-492-4230 F:780-492-8206	조성호 H:780-483-7630
로키마운틴즈	김봉진 C:303-229-3332 F:303-623-2910	김명호 H:303-773-0534 O: 303-671-0304
오하이오	최인갑F:614-447-3844 H:614-436-5780	이경훈 H:614-481-9160 O: 614-451-8330

### 동문 사업제 안내

#### 강관

Pusan Pipe America  
이병준 (상 55인)  
(562) 692-0600  
Sant Fe Springs, CA

#### 골프용품

New York Golf Center  
이진구 (농 60인)  
(212) 564-2255  
New York, NY

#### 공인회계사

Young Sik Oh Cpa  
오영식 (법 72인)  
(201) 569-1177  
Englewood Cliff, NJ

#### 이법선 (상 48인)

이경림 (상 64인)  
(212) 768-9144  
New York, NY

#### Young Tail Choi EA

최영태 (문 67인)  
(212) 695-0206  
New York, NY

#### Deloitte & Touche LLP

김낙구 (상 67인)  
(213) 688-5585  
Los Angeles, CA

#### Wesley Y Chung

정일화 (상 55인)  
(212) 736-6590  
New York, NY

#### 이규섭 (상 68인)

CPA, CFA  
(703) 642-2900  
Annandale, VA

#### 공직서점

IBECONS INT L  
김재철 (공대 58인)  
(212) 460-2815  
New York, NY

#### 교회

전리교회  
김태철목사 (공대 76인)  
(718) 225-1000  
New Hyde Park, NY  
(L.I.E. Exit 33 South)

#### 국제금융

Sit/Kim International  
Investment Associate  
김병수 (상 55인)  
(212) 750-7215  
New York, NY

#### PTC International

이태영 (법대 60인)  
(410) 962-8409  
Baltimore, MD

#### 금고

Alco Lock & Safe  
정인식 (상 58인)  
(212) 867-3377  
New York, NY

#### 무역

Nina America Inc.  
강석권 (법 61인)  
(212) 683-6462  
New York, NY

#### EAC Trading Inc.

윤정옥 (약 50인)  
(516) 466-5678  
Great Neck, NY

#### Oregon Hide Co.

조형원 (수 55인)  
(503) 620-1001  
Lake Oswego, OR

#### G. A. Marketing Company

지인수 (상 59인)  
(310) 216-7929  
Los Angeles, CA

#### 연봉원 변호사

연봉원 (문리대 61인)  
(212) 779-1828  
NEW YORK, NY

#### 최형무 변호사

최형무 (법대 69인)  
(718) 463-3500  
Flushing, NY

#### 한국서적 전문 서울서점

권혁진 (문 60인) 창업  
(773) 463 7756

#### 김용학 변호사

김용학 (법대 69인)  
(212) 869-7000  
New York, NY

#### 병림 내과

Joon J Bang, MD  
방준재 (의 63인)  
(718) 768-1264  
Brooklyn, NY

#### 병림 수의과(동물병리)

Charles H. Sung, DVM DVM  
성홍환 (수의 75인)  
(330) 534-8383  
Hubbard, OH

#### 병림 신경외과

Rim and Sul, MDPC  
임춘수 (의 57인)  
(313) 882-2922  
Grosse Pointe, MI

#### 병림 심장내과

Kenneth Song  
송관호 (의 58인)  
(212) 423-4817  
New York, NY

#### 병림 위장내과

Chang Ho Suk  
석창호 (의 66인)  
(718) 461-6212  
Flushing, NY

#### 병림 치과

Sung Bo Hong, DMD  
홍성보 (치 63인)  
(201) 871-0007  
Tenafly, NJ

#### 보석

Gold Plus  
서재숙 (음 65인)  
(212) 354-8988  
New York, NY

#### 보급

KOI 종합보험  
김성희 (상 67인)  
(213) 387-5252  
Los Angeles, CA

#### 한미종합보험

박원순 (상 59인)  
(718) 458-3551  
Jackson Hts, NY

#### 한영종합보험

한영우 (공 59인)  
(718) 463-9100  
Flushing, NY

#### 부동산

Cosmo Realty  
이재택 (법 60인)  
(201) 944-4949  
Palisades Park, NJ

#### C-21 Infinity

이재원 (법 60인)  
(201) 944-5353  
Palisades Park, NJ

#### REMAX (회망부동산)

최 호 (문 61인)  
(201) 461-3525  
Palisades Park, NJ

#### Gateway Title Co.

박인수 (농 64인)  
(213) 388-3333  
Los Angeles, CA

#### ERA Premier Properties

변만식 (사대 49인)  
(703) 750-0000  
Annandale, VA

#### 로얄 부동산

엄무광 (문 65인)  
(800) 474-0200  
SKOKIE, IL

#### Pacific Hotel Motel

Specialists, Inc.  
(HMBA American Hotel Broker)  
김동호 (농대 58인)  
(206) 972-3675  
Everett, WA

#### 설계

Booming World Design & Engineering  
김상익 (공 49인)  
(310) 539-7760  
Court Lomita, CA

#### Queens Plumbing Supply

김승호 (공대 71인)  
(718) 392-0111  
L.I.C, NY

#### 염색

Care Tex Industries, Inc.  
강봉창 (약 50인)  
(562) 602-6567  
South Gate, CA

#### 운송통관

S. Y. Shipping  
김종표 (법대 58인)  
(592) 467-5455  
Artesia, CA

#### 용지

Equitable Financia Service  
원영배 (미 74인)  
(213) 368-5705  
Los Angeles, CA

#### Hanin Federal Credit Union

이영일 (문리 57인)  
(213) 368-9000  
Los Angeles, CA

#### 의료기구

MASH  
심상은 (상 54인)  
(213) 487-5695  
Los Angeles, CA

#### 의류

Jeffrey Allen Corp.  
이기영 (농 70인)  
(201) 863-5160  
Secacus, NJ

#### Jade Eastern Trading, Inc.

이재광 (상 61인)  
(201) 440-8500  
Moonachie, NJ

#### 인터넷사업

K S E biz  
장세완 (농 69인)  
(201) 722-4796  
River Vale, NJ

#### MODERN GIFTS & DUNDEE SHISEIDO

지명식(사대 65년 일)  
Tel: 847-559-1005  
Northbrook, IL

#### UPS, Mail Order 가능

#### 인터넷사업

Aladdin USA  
이형렬 (문 79인)  
(323) 692-9888  
LA, CA

#### 지부지 부품

Knox-Seeman Whse, Inc.  
서동영 (사대 60인)  
(310) 327-1006  
Gardena, CA

#### 전자

Amkor Anam  
정홍택 (상 61인)  
(214) 580-1879  
Philadelphia, PA

#### 주류상

Smithtown Wines & Spirits  
이치원 (문리 73인)  
(613) 265-1121  
Smithtown, NY

#### 학원

Kumon Educational Institute  
김형덕 (상 57인)  
(718) 358-0538  
Flushing, NY

#### Joong-Ang Medical Center

이수호 (보건대학원 71인)  
(718) 353-6207  
Flushing, NY

#### 브롱스 약국/시호 한의원

박경룡 (약대 63인)  
(718) 733-1399  
Bronx, NY

#### 화장품

Revicci(레비치)  
\*신정택 (약대 52인 · 화장품, 약품개발)  
(973) 994-1421  
Short Hill, NJ

#### Flowers On Lexington

박상원 (음 65인)  
(800) 252-5-way  
New York, NY

#### Seward Florist

김수향 (간호 72인)  
(626) 287-6161  
San Gabriel, CA



# 冠岳山の 精氣와 和音を 美洲大陸에



## 모교음대연주단 공연일정

- 8월 9일(토), 오후 7시- 워싱턴 DC  
Northern Virginia College(Annandale Campus, VA)  
4001 Wakefield Chapel Rd., Annandale, VA 22003-3723  
☎ 703-323-3000
- 8월 13일(수), 오후 7시- 뉴욕  
Flushing Town Hall Theatre  
137-35 Northern Blvd., Flushing, NY 11354  
☎ 718-463-7700
- 8월 15일(금), 오후 8시- 필라델피아  
Cheltenham Presbyterian Church  
7507 Tookany Creek Park Way, Cheltenham, PA 19012
- 8월 17일(일), 오후 7시- 달라스  
Irving Art Center  
3333 Macarthur Dr., Irving, TX 75062
- 8월 19일(화), 오후 7시- LA  
Wilshire Grace Church  
5220 Wilshire Blvd., LA, CA 90005

## 2003년 서울대음대연주단 미주순회 연주회

- ▶주최: 재미서울대학교총동창회
- ▶재정지원: 서울대학교와 미주5개 동창회(워싱턴DC, 뉴욕, 필라델피아, 달라스 및 남가주 동창회)

### <연주단원 소개>

- ◆강수연(소프라노, 4학년)  
\*서울대학교 정기오페라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 뿔뿔지역 출연, 전국수리음악콩쿨 입상, (師事)윤현주 교수
- ◆이호철(테너, 4학년)  
\*2000년 한세대 오페라 '마술피리' 티미노역(Guest), 2001년 한 미 콩쿠르 2등, \*2002년 서울대 정기오페라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 뿔뿔지역, 2003년 이화여대 오페라 '마술피리' 티미노역(Guest), (師事) 박인수 교수
- ◆정민정(피아노, 대학원)  
\*예원학교, 서울예고, 서울대학교 최우 등 졸업 및 실기 수석 졸업, 음연 피아노 콩쿨 1위, 삼익피아노 콩쿨 2위, 탄이저 콩쿨 특상, 난과음악제 음악콩쿨 1위 및 경기도립 오케스트라 협연, KBS 신인 음악콩쿨 2위, KBS Orchestra 순회 연주협연, 젊은이의 음악제, 조선일보 신인음악회, Ureuk Chamber Orchestra 협연 (New York Merkin Hall), (師事) 김형배 교수님
- ◆노윤정(바이올린, 3학년)  
\*이화경향, 한국일보, 세계일보, 콩쿨입상, 난과 성정 음악 콩쿠르 1위, 중앙일보 콩쿨 입상, 서울예고 전체 수석 졸업(음악상 수상), 서울예고 정기연주회 오디션 및 협연(예술의 전당), 서울 심포니 오케스트라 협연(예술의 전당), 코카콜라 장학금 수상, 째즈브루크 음악축제 참가 및 수료, 2003 Miyazaki International Music Festival 오디션, (師事) 김영옥 및 김민 교수
- ◆정은지(플루트, 4학년)  
\*서울예고 졸업, 서울대관악콩쿨, 부산 음악콩쿨, 중앙음악콩쿨, 동아음악콩쿨 우승, 독주회 2회 개최, '서울예고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협연, 개교 50주년 기념서울예고를 빛낸 연주자로 선정, (師事) 문명자 및 김영미교수

라 정기연주회 협연, 개교 50주년 기념서울예고를 빛낸 연주자로 선정, (師事) 문명자 및 김영미교수

- ◆김설아(아쟁, 4학년)  
\*전주대학교 학생음악 콩쿨 입상, 세종국악관현악단 '새싹들의 울림소리' 협연(2000), 서울시립국악관현악단 '새얼굴과의 만남' 협연(2001), 경기도립 청소년 국악관현악단 수석, K-TV 안숙선의 소리마당 767회 연주 (2003년 5월 22일 방송), 국립청소년 국악관현악단 창단공연 협연(2003)
- ◆최승순(대금, 3학년)  
\*1998 보성고등학교 졸업, 1998년 국악과 입학, 2000-2002 국방부 군악대 복무, 2002 월드컵 개막식 참가, 현재 國樂科 樂長
- ◆한래숙(가야금, 4학년)  
\*국립국악중, 고등학교 졸업, 제17회 한국음악협회 전국 학생 음악경연대회 특상, 제19회 동아국악콩쿠르 은상, 제7회 한밭가야금경연대회 일반부 대상, 한 일 청소년 교류 일본 방문 4개 도시 순회 가야금 연주(벚바, 나라, 고토등), 제44회 서울대음대 정기연주회, 국립국악관현악단과 협연, 독주회 2회, 현 서울대학교 4학년 재학생, 국립청소년 국악관현악단 단원
- ◆정수인(판소리, 대학원)  
\*1994년 서울 정도 600년 문화공연, 1997년 심청가 완창발표(4시간), 1999년 흥보가 완창발표(5시간), 1999년 전국판소리 경연대회 대상, 2001년 춘향가 완창발표(6시간), 2002년 월드컵 조추첨 문화공연, 2002년 전주대사습놀이 차상, 2003년 ~ 현 서울대학교 대학원 재학생
- ◆김형섭(타악, 4학년), 국악고등학교 졸업, 서울대 입학(2000년), 제18회 동아콩쿨 은상 입상(2002년), 2002년 음대미주 순회단의 연주자, (師事) 이재숙, 김정자 및 이종길교수

### <연주곡목해설>

A) Hungarian Rhapsody No.9, "Pesther Carnival". Franz Liszt 작, Piano-정민정  
"천재가 나타났다"는 소문에 마음이 끌린 베토벤이 빈에서의 소년 리스트의 데뷔에

참석하여 그 연주를 듣고 '이 꼬마녀석아, 참 대단한 놈이구나!'하면서 입맞추었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다. 음악적 기풍은 소량이 女性的이라면 리스트는 어디까지나 男性的이다. 타올때는 불꽃처럼 타고, 조용해질 때는 얼음처럼 냉정했다. 기교는 날카롭고 그 명암은 깊다. 최초의 15개의 랩소디들은 그 주제가 리스트 자신의 창작이 아니고, 당시 헝가리에서 유행하던 집시밴드들이 연주하는 양식을 개작해보려는 의도를 갖게 되었던 듯 하다. 이 舞曲은 헝가리 음악 특유의 싱코페이션, 곳곳에 삽입되는 즉흥적인 카덴자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리산'이라 불리는 장중하면서 느긋한 부분과 '프리스카로' 불리는 原始的이라고도 할 수 있는 리듬을 가진 빠른 부분의 2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피날레 부분의 강렬한 프리스카는 표제가 가르키는 대로 페스트(현재의 부다페스트) 사람들의 謝肉祭에서 춤추는 모습이 잘 그려져 있다.

B) 淸聲曲, 대금-최승순  
이 곡은 높은 소리를 내는 자진 한 의미라는 뜻의 곡으로 18세기에 연주되던 가곡을 대금의 특징적인 음색에 맞게 장식음을 첨가하여 변주한 대금 독주곡이다. 일정한 박자의 한배없이 호흡과 흐름에 따라 연주자의 역량을 나타낼 수 있는 곡으로 1960년 파리 국제전통음악축제 최고의 獨奏曲으로 꼽힌 바 있다.

C) 枕向舞, 가야금-한래숙/ 장구-김형섭  
침향무는 傳統에 뿌리를 두면서도 새로운 추구를 하는 황병기의 곡으로, 조선조 후기 음악에서 벗어나려는 시도로 침향무를 작곡하였다. 이전까지의 가야금산조와는 다른 새로운 음계를 선보인 이곡은 1장에서는 전통적인 장단과 선율의 眞摯의인 분위기가 펼쳐지고 2장에서는 西域의 異國의인 정취를 불러일으킨 후 抒情의인 가락이 노래하듯이 흐른다. 혼돈과 해를 대

비시킨 3장에서는 이 곡의 제목에 나타나듯 침향이 서린 속에서 춤추는 듯한 분위기가 전개된다. 정열적으로 진행되던 선율이 갑자기 멈춘 다음 점차 커지다가 다시 약해진다. 약해진 소리의 여음이 사라질 즈음에 이어지는 영동환 和音은 이전까지의 혼란을 일시에 잠재운다.



D) Introduction and Rondo capriccio op.28, Charles Camille Saint-Saens 작, Violin-노윤정/ Piano-정민정

생상은 프랑스의 모차르트는 별명으로 불리어질 정도로 早熟한 天才였다. 그의 작품은 다분히 이러한 천재의 영감이 가득한 특별함이 있는데 서주와 론도 카프리치오소는 그러한 그의 작품들을 대표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곳은 1863년 사리사테를 위해 작곡하여 2년 후에 사리사테의 독주로 초연되었다. 기교적인 면에서는 난해하지만 아름다운 선율과 향기 높은 프랑스풍의 분위기, 그리고 다소 우울한 기분까지 모두 포함하고 있는 아름다운 작품이다.

E) Chant de Linos, Andre Jolivet의 1944년 작, Flute-정은지/ Piano-정민정

빠리 콘서바토리 콩쿨 곡으로 작곡됨. flute 과 piano를 위하여 작곡되었으나 Fl. Vn. Va. Vc. Hp. 편성의 室內樂으로 初演. 'Chant de Linos'(리노스의 노래)는 기교가 어렵고 자극적인 flute repertory 중 하나다. Linos는 그리스 神話에 나오는 音樂의 神. 아폴로의 이슬이 헬라클레스의 음악선생이었던 Linos는 네 줄 짜리 리라(하프)로 번역하기도 한다) 연주자였다. Linos는 영웅(헤라클레스)을 나무란 罪로 제물이 되어 목이 비틀려 죽고, 개들에 의해 게걸스럽게 먹힌다. Linos에 대한 이 전기는, 줄리베스스로, '古代 그리스 비극의 스타일로 葬禮式에서의 悲歌, '울부짖음'(비명지르기)과 '춤으로 슬픔의 고통을 중지시키려한다'고 하였다. 자연스러운 그리스 선법과 불규칙적인 리듬(5/4-느리게 비탄, 탄식, 7/8-애도하는 빠른 춤)들을 사용하여, 울부짖고 저주하는 모양을 flute으로 실어내게 한다. flute의 표현력을 특별히 좋아했던 줄리베는, 당시 유럽 예술가들 사이 유행했던 것과 같이, 원시 아프리카의 美에서 靈感을 얻어 많은 곡을 작곡하였다. 문화와 연극, 그림을 공부하다가, 22세에 전위 작곡가 바레즈 문하로 들면서 많은 영향을 받았다.

F) 신고산타령, Tenor-이호철, Piano-정민정

이 신고산타령은 일명 어랑타령 이라고도 하며 1900년대 초 개화기에 나온 민요이다. 후렴의 '어랑어랑'하는 것을 따서 일명 어랑타령이라고도 한다. 이 노래는 관북지방, 즉 함경도의 대표적인 민요로서 강원도 철원 이북부터 함경남북도 어는 곳을 가나 어랑타령이 없는 곳이 없을 정도로 盛昌된 민요이다. 이 노래의 특징은 구성되고, 소박하며, 그 지방의 맛과 향도

적인 미를 풍기는 민요로서 후렴에 가서는 경쾌함과 함께 해학적인 사설 내용이 담겨져 있다.

G) 오페라 La Rondine(제비) 中 Sogno di Doretta'(도레타의 꿈), Soprano-강수연/ Piano-정민정

푸치니가<西部의 아가씨> 初演 때문에 빈에 갔을 때, 비엔나 風 오페레타의 작곡을 의뢰받아 아다미의 대본으로 오페라 <제비>가 완성되었다. 1917년 3월 몬테 카를로에서 初演되어 일단 성공을 거두었지만, 오늘날에는 잘 연주되지 않고, 선율이 아름다운 소프라노 아리아만이 자주 연주되고 있다. 첫사랑의 추억을 가슴에 묻어둔 채, 지금은 은행가의 애첩으로써 향락적인 생활을 보내는 마그다. 오늘도 patron과 친구들을 초대해서 조그만 살롱 파티를 하고 있는 중이다.

H) Libiamo, ne'lieti calici (G. Verdi La Traviata 중에서), G. Verdi 작 Soprano-강수연/ Tenor-이호철/ Piano-정민정

여주인공 비올레타는 자신의 집에서 파티를 열고 있다. 손님들이 도착한다. 비올레타의 친구 플로라 베르보아가 오비니의 후작(侯爵)과 함께 들어온다. 비올레타의 송배자 듀플 남작(男爵)도 나타난다. 남주인공 알프레도가 친구 가스통과 함께 들어온다. 알프레도가 비올레타에게 소개된다. 알프레도는 비올레타를 혼자 사랑해 왔고, 비올레타는 그런 알프레도를 이해할 수 없어 하는 관계이다. 장내에 사람들이 다 들어서면 가스통이 알프레도에게 권주(勸酒歌)를 청한다. 알프레도는 '축배의 노래(Libiamo libiamo ne'lieti Calici)'를 부르고...

I) 시나위, 아쟁-김설아, 대금-최승순, 가야금-한래숙, 장구-김형섭

시나위는 피리, 대금, 해금, 아쟁, 장구, 징과 가야금, 거문고등으로 연주하는 기악 합주곡으로, 巫歌의 반주음악에서 나온 것이다. 이 곳은 남도(南道)음악 특유의 음구성과 선율진행을 보여주는 육자배기 토티로 된 가락을 연주한다. 무가의 노래, 춤 반주에서 나온 민중 연주자의 즉흥성이 주가 되는 음악이다. 오늘 연주는 아쟁, 대금, 가야금, 장구로 연주된다.

J) 판소리 흥보가 中 화초장, 소리-정수인/ 북-김형섭

판소리는 한 사람이 북 장단에 맞추어 긴 줄거리의 이야기를 노래 부르는 것으로 소리(장), 아니리(독백), 발림(몸짓)의 3요소로 구성된 극 음악이다. 오늘 연주될 부분은 흥보가 중 흥보가 부러진 제비다리를 치료후 제비가 물어온 박씨를 심어 부자가 되자 심술난 놀부가 흥보집을 건너가 심술부리고, 화초장을 얻어 집으로 돌아가는 대목이다.